드라큘라

Dracula

브램 스토커 (Bram Stoker)

1897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06-13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 Claude Opus 검수

책 정보

원전

브램 스토커 (Bram Stoker), "Dracula" (Archibald Constable 1897)

저자

브램 스토커 (Bram Stoker) · 1847–1912

원전 출처

Project Gutenberg #345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GB10 로컬)

검수

Claude Opus

발행

sosig.shop/book · 2026-06-13

번역 정책

>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원작의 분위기와 격조를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입

이 기록들을 읽다 보면 이 문서들이 어떤 순서로 배치되었는지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다. 불필요한 내용은 모두 삭제했다. 그리하여 후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기 힘든 이야기일지라도, 하나의 단순한 사실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자 한다. 기억의 오류가 개입될 수 있는 과거의 회상은 일절 담지 않았다. 선택된 모든 기록은 작성 당시의 관점에서 기록된 동시대의 자료이며, 작성자가 직접 경험하고 알고 있는 범위 내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제I장

조너선 하커의 일기

(_속기록._)

5월 3일. 비스트리츠.

5월 1일 오후 8시 35분에 뮌헨을 떠나 다음 날 이른 아침 비엔나에 도착했다. 원래는 6시 46분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기차가 한 시간 지연되었다. 기차 안에서 언뜻 본 풍경과 거리에서 잠시 걸으며 느낀 바로는, 부다페스트는 참으로 경이로운 곳인 듯하다. 우리는 늦게 도착한 데다 가능한 한 제시간에 맞춰 출발해야 했기에, 역에서 멀리 벗어나는 것이 두려웠다. 서구의 세계를 떠나 동양의 세계로 들어서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곳 다뉴브강은 폭이 넓고 깊이가 깊어 장엄한데, 그 강에 놓인 화려한 다리들 중 가장 서쪽에 있는 다리를 건너자 우리는 터키 통치의 전통이 깃든 곳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우리는 제법 이른 시간에 길을 떠났고, 해가 진 뒤에 클라우젠부르크에 도착했다. 이곳 로얄 호텔에서 하룻밤 머물기로 했다. 저녁 식사로, 아니 정확히는 만찬으로 붉은 고추 양념을 곁들인 닭 요리를 먹었다. 맛은 아주 좋았지만 갈증이 났다. (메모: 미나에게 레시피를 알려줄 것.) 웨이터에게 물어보니 그 요리의 이름은 '파프리카 헨들'이라고 했다. 카르파티아 산맥을 따라가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맛볼 수 있는 이 지역의 전통 요리라고 덧붙였다. 서툰 독일어가 여기서 아주 유용하게 쓰였다. 정말이지 독일어를 못 했더라면 어떻게 지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

런던에 머무는 동안 여유 시간이 좀 생겨서 대영박물관에 다녀왔다. 도서관의 서적과 지도들을 뒤져가며 트란실바니아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았다. 그 나라의 귀족을 상대하려면, 그곳에 대해 미리 어느 정도 알아두는 것이 분명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조사해 보니 드라큘라 백작이 언급한 지역은 트란실바니아, 몰다비아, 부코비나 세 나라의 국경이 맞닿은 카르파티아 산맥 한가운데, 즉 그 나라의 최동단에 위치해 있었다. 유럽에서도 가장 거칠고 잘 알려지지 않은 곳 중 하나였다. 아직 이 지역은 우리나라의 오드넌스 서베이(Ordnance Survey) 지도처럼 대조해 볼 만한 정밀한 지도가 없어서, 드라큘라 성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나 문헌은 찾을 수 없었다. 다만 드라큘라 백작이 말한 우체국 소재지인 비스트리츠는 꽤 잘 알려진 곳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나중에 미나와 여행 이야기를 나눌 때 기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여기에 조사한 내용 중 일부를 기록해 두려 한다.

트란실바니아의 인구는 네 부류로 뚜렷하게 나뉜다. 남쪽에는 색슨족이 살고 있으며, 다키아인의 후손인 왈라키인이 그들과 섞여 있다. 서쪽에는 마자르족이, 동쪽과 북쪽에는 세켈족이 거주한다. 나는 아틸라와 훈족의 후예라고 자처하는 세켈족이 사는 곳으로 향하는 중이다. 실제로 그럴지도 모른다. 11세기에 마자르족이 이 땅을 정복했을 당시, 이미 훈족이 이곳에 정착해 있었기 때문이다. 세상의 온갖 미신이 마치 상상력의 소용돌이 중심이라도 되는 양 카르파티아 산맥의 말굽 모양 지형에 모여 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곳에서의 체류는 매우 흥미로울 것이다. (메모: 백작에게 미신에 대해 전부 물어봐야겠다.)

침대는 충분히 편안했지만, 온갖 기묘한 꿈을 꾸는 바람에 잠을 설쳤다. 밤새 창밖에서 개가 울부짖었는데, 그 소리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파프리카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물병에 담긴 물을 다 마시고도 계속 갈증이 났기 때문이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문을 계속 두드리는 소리에 깨고 보니 그때는 아주 깊이 잠들었던 모양이다.

아침 식사로는 파프리카를 더 먹었고, 현지인들이 '마말리가'라고 부르는 옥수숫가루 죽과 고기 소를 채워 넣은 가지 요리인 '임플레타타'를 먹었다. 아주 훌륭한 음식이었다. (메모: 이 요리의 레시피도 꼭 알아둘 것.) 아침을 서둘러 먹어야 했다. 기차가 8시 조금 전에 출발하

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래야만 했다. 7시 30분에 서둘러 역에 도착했음에도,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까지 한 시간 넘게 객차 안에 앉아 있어야 했으니까.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기차 시간 엄수가 더 안 되는 것 같다. 중국에서는 기차가 대체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하다.

하루 종일 우리는 온갖 종류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풍경 속을 느긋하게 지나가는 듯했다. 때로는 오래된 기도서에서나 볼 법한 가파른 언덕 꼭대기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나 성들을 보기도 했다. 때로는 강과 시냇가를 따라 달렸는데, 양옆으로 넓게 펼쳐진 돌밭을 보니 강물이 범람할 때면 엄청난 기세로 몰아칠 것 같았다. 강둑의 바깥쪽 가장자리까지 깨끗하게 씻어내려면 강물이 아주 많이, 그리고 아주 세차게 흘러야 하기 때문이다.

역마다 사람들이 무리 지어 있었고, 때로는 인파를 이루기도 했는데 옷차림도 제각각이었다. 어떤 이들은 짧은 재킷에 둥근 모자, 직접 만든 바지를 입고 있어서 고향의 농민들이나 프랑스와 독일을 지나며 보았던 사람들과 비슷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매우 이국적이고 그림 같았다. 여자들은 가까이 다가가기 전까지는 참 예뻐 보였으나, 허리 부분이 다소 투박했다. 여자들은 모두 어떤 식인지 몰라도 풍성한 흰 소매 옷을 입고 있었고, 대부분은 발레 의상처럼 무언가 길게 늘어진 조각들이 너풀거리는 커다란 벨트를 차고 있었다. 물론 그 아래에는 속치마를 받쳐 입었겠지만 말이다.

가장 기이한 모습의 사람들은 슬로바키아인들이었다. 그들은 다른 이들보다 훨씬 야만적인 느낌을 주었는데, 커다란 카우보이 모자에 헐렁하고 때 묻은 흰색 바지, 흰 리넨 셔츠를 입고 있었다. 게다가 폭이 거의 1피트에 달하는 거대하고 무거운 가죽 벨트에는 놋쇠 못이 촘촘히 박혀 있었다. 그들은 높은 장화를 신고 바지 끝을 그 안에 집어넣었으며, 길고 검은 머리에 짙은 콧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매우 인상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딱히 호감을 주는 인상은 아니었다. 무대 위라면 아마도 동양에서 온 오래된 도적 떼로 곧장 묘사될 법한 모습이다. 하지만 듣기로는 그들은 매우 무해하며, 타고난 자기주장도 별로 없는 편이라고 한다.

우리가 비스트리츠에 도착했을 때는 황혼이 짙게 깔린 시각이었다. 이곳은 매우 흥미로운 옛 도시이다. 보르고 고개를 지나 부코비나로 이어지는 국경 지대에 위치한 덕분에, 비스트리츠는 파란만장한 역사를 거쳐 왔으며 그 흔적 또한 역력히 남아 있다. 50년 전에는 대화재가 연이어 발생하여 다섯 차례나 마을을 처참하게 휩쓸고 지나갔다. 17세기 초에는 3주 동안 포위 공격을 받기도 했는데, 당시 1만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전쟁으로 인한 직접적인 인명 피해에 기근과 질병까지 겹친 탓이었다.

드라큘라 백작은 내게 골든 크로네 호텔로 가라고 일러주었다. 다행히도 그곳은 아주 고풍스러운 분위기였다. 나는 이 지역의 관습을 최대한 경험하고 싶었기에 그 사실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내가 도착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모양인지, 문 근처에 다다르자 평범한 농민 복장을 한 쾌활한 인상의 노부인이 나를 맞이했다. 그녀는 흰 속옷 위에 앞

뒤로 긴 색색의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는데, 옷이 몸에 너무 딱 붙어 다소 민망해 보일 정도였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물었다.

“영국인 손님인가요?”

“네, 조너선 하커라고 합니다.”

내가 대답하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문 앞까지 따라온 흰 셔츠 차림의 노인에게 무언가 말을 전했다. 노인은 안으로 들어갔다가 곧바로 편지 한 통을 들고 돌아왔다.

"나의 친구여. 카르파티아 산맥에 온 것을 환영하네. 자네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네. 오늘 밤은 편히 쉬게나. 내일 세 시에 부코비나로 향하는 마차가 출발할 예정이며, 그곳에 자네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두었네. 보르고 고개에서 내 마차가 자네를 기다리고 있다가 나에게로 데려다줄 것이네. 런던에서 오는 여정이 즐거웠기를 바라며, 나의 아름다운 땅에서 머무는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기대하겠네."

“당신의 친구,

“드라큘라.”

5월 4일.

집주인이 드라큘라 백작으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백작은 나를 위해 마차의 가장 좋은 자리를 확보해 두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세부 사항을 물어보자 집주인은 무언가 말을 아끼는 듯하더니, 내 독일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척했다. 그전까지만 해도 독일어를 완벽하게 알아들었기에 이는 사실일 리 없었다. 적어도 그는 내 질문에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정확하게 대답하곤 했었다.

나를 맞이했던 노부인인 그의 아내와 집주인은 서로 겁에 질린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는 돈은 편지와 함께 보냈으며, 자신이 아는 것은 그게 전부라고 중얼거렸다. 내가 드라큘라 백작을 아는지, 그리고 그의 성에 대해 들은 것이 있는지 묻자, 부부는 모두 성호를 그으며 아무것도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고는 더는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다.

출발 시간이 너무 임박한 탓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여유조차 없었다. 모든 상황이 너무나 미스터리했고, 결코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 않았다.

떠나기 직전, 그 노부인이 내 방으로 찾아왔다. 그러고는 아주 히스테릭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다.

"정말 가셔야 하나요? 오, 젊은 선생, 꼭 가야만 하나요?" 그녀는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알고 있던 독일어조차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의 말에는 내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다른 언어들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 끝에야 겨우 그녀의 말을 따라갈 수 있었다. 내가 지금 당장 떠나야 하며,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고 말하자 그녀는 다시 물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내가 5월 4일이라고 대답하자, 그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 그럼요! 저도 알아요! 알다마다요. 하지만 오늘이 무슨 날인지는 알고 계세요?" 내가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대답하자, 그녀는 말을 이었다.

"성 조지 축일 전날 밤이에요. 오늘 밤 자정을 알리는 종이 울리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기승을 부릴 거라는 걸 모르시나요? 지금 어디로 가는지, 가서 무엇을 하려는지 정말 알고 가는 건가요?"

그녀는 눈에 띄게 괴로워했다. 나는 그녀를 달래보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결국 그녀는 무릎을 꿇고 내게 가지 말아 달라고, 적어도 하루 이틀만이라도 출발을 미뤄달라고 애원했다. 객관적으로 보면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광경이었으나, 나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하지만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었고, 그 어떤 것도 내 일을 방해하게 둘 수는 없었다. 나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최대한 엄숙한 태도로 말했다. 고맙지만 내게는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반드시 떠나야만 한다고 말이다.

그러자 그녀는 일어나 눈물을 닦더니, 목에 걸고 있던 십자가를 풀어 내게 건넸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영국 국교도인 나로서는 그런 물건을 어느 정도 우상 숭배와 다름없는 것으로 여기도록 배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걱정하는 노부인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은 너무나 무례한 일 같았다. 내 얼굴에 서

린 망설임을 읽었는지, 그녀는 내 목에 묵주를 걸어주며 “당신의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가져가세요”라고 말하고는 방을 나갔다.

마차를 기다리는 동안 일기의 이 부분을 적고 있다. 마차는 당연히 늦어지고 있으며, 십자가는 여전히 내 목에 걸려 있다. 이것이 노부인의 두려움 때문인지, 이 지역에 떠도는 수많은 유령 이야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 그 자체 때문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평소처럼 마음이 편안하지는 않다. 만약 내가 도착하기 전에 이 일기가 미나에게 먼저 닿는다면, 나의 작별 인사를 전해주길 바란다. 마차가 온다!

* * * * *

5월 5일. 성에서.

새벽의 회색빛은 물러갔고, 태양은 멀리 지평선 위로 높이 솟았다. 지평선은 나무 때문인지 언덕 때문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들쭉날쭉한 모습이다.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 큰 형체와 작은 형체가 한데 뒤섞여 보이기 때문이다. 잠은 오지 않는다. 잠이 들 때까지는 아무도 나를 깨우러 오지 않을 테니, 자연스레 잠이 올 때까지 글을 쓰려 한다.

기록해 둘 기묘한 일들이 많다. 혹시라도 이 글을 읽는 이가 내가 비스트리츠를 떠나기 전 너무 잘 먹었다고 오해할까 봐, 저녁 식사 메뉴를 정확히 적어둔다. 내가 먹은 것은 현지에서 '강도 스테이크'라고 부르는 음식이었다. 베이컨과 양파, 소고기 조각에 붉은 고추 양념을 곁들인 뒤, 런던의 고양이 먹이처럼 소박한 방식으로 꼬치에 꿰어 불에 구운 것이었다. 와인은 골든 메디아슈를 마셨는데, 혀끝을 찌르는 듯

한 묘한 느낌이 들었으나 딱히 불쾌하지는 않았다. 와인은 딱 두 잔 정도 마셨고, 그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마차에 올라탔을 때 마부는 아직 자리에 앉지 않은 상태였다. 마부가 여관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다. 두 사람은 분명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했다. 이따금씩 나를 쳐다보았기 때문이다. 문 밖에 놓인 벤치에 앉아 있던 사람들—그들은 그 문을 '말을 전하는 자'라는 뜻의 이름으로 불렀다—중 일부도 다가와 이야기를 엿듣더니 나를 바라보았다. 그들 대부분의 눈빛에는 동정심이 서려 있었다. 군중 속에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섞여 있어서인지, 반복해서 들려오는 기묘한 단어들이 많았다. 나는 가방에서 조용히 다국어 사전을 꺼내 그 단어들을 찾아보았다. 그 단어들은 결코 나를 환영하는 뜻이 아니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Ordog"(사탄), "pokol"(지옥), "stregoica"(마녀) 같은 말들이 들려왔다. 또한 "vrolok"과 "vlkoslak"이라는 단어도 들렸는데, 하나는 슬로바키아어로, 다른 하나는 세르비아어로 각각 늑대인간이나 흡혈귀를 뜻하는 같은 의미의 단어였다. (메모: 이 미신들에 대해서는 백작에게 꼭 물어봐야겠다.)

우리가 출발했을 때, 여관 문 앞에 모여 있던 군중은 어느새 꽤 큰 규모로 불어나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성호를 긋더니 나를 향해 두 손가락을 치켜세웠다. 나는 옆에 탄 승객에게 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겨우 물어볼 수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으려 했으나, 내가 영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것이 사악한 눈(evil eye)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주문이자 방어책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낯선 곳으로, 그것도 낯선 사람을 만나러 떠나는 길에 이런 일을 겪으니 기분이

그리 유쾌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씨가 워낙 선량해 보였고, 모두가 깊은 슬픔과 공감을 나누는 듯한 모습이라 나 역시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다.

여관 마당과 그곳에 모인 인상적인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넓은 아치형 입구 주위에 서서 저마다 성호를 긋고 있었다. 마당 중앙에는 초록빛 화분에 심긴 협죽도와 오렌지 나무들이 울창한 잎을 드리우고 있었다. 그때 마부의 넓은 리넨 속바지—그들은 그것을 '고차(gotza)'라고 불렀다—가 마차 앞좌석 전체를 덮고 있었다. 마부가 네 마리의 작은 말들이 나란히 달리는 위로 커다란 채찍을 휘두르자, 우리는 여정을 시작했다.

마차를 타고 달리는 동안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워, 유령에 대한 공포도 시야에서, 그리고 기억 속에서도 곧 사라졌다. 만약 동행한 승객들이 나누는 언어, 아니 언어들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면, 이토록 쉽게 공포를 떨쳐내지는 못했을 것이다. 우리 앞에는 숲과 수풀로 뒤덮인 푸른 경사지가 펼쳐져 있었다. 곳곳에 솟은 가파른 언덕 위로는 나무 무리나 농가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길가에 마주 선 집들의 밋밋한 박공벽이 눈에 들어왔다. 사과, 자두, 배, 체리꽃이 만발하여 어디를 보든 어지러울 정도로 화사한 꽃물결이 일렁였다. 마차가 지나갈 때면 나무 아래 초록빛 풀밭 위로 떨어진 꽃잎들이 별처럼 흩뿌려져 있었다. 이곳 사람들이 '미텔란트'라 부르는 이 푸른 언덕 사이로 길은 구불구불 이어졌다. 길은 풀이 우거진 곡선을 따라 휘어지며 시야에서 사라지기도 했고, 곳곳에서 불꽃처럼 언덕을 타고 내려오는 소나무 숲에 가로막히기도 했다. 길은 험했지만, 우리는 마치 무언가에 쫓

기듯 열띤 속도로 달렸다. 당시에는 그 서두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으나, 마부는 보르고 프룬드에 도착하기 위해 한시라도 시간을 아끼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 길은 여름철에는 상태가 아주 좋지만, 아직 겨울 눈이 녹은 뒤 정비가 끝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 이런 점은 카르파티아 산맥의 일반적인 도로들과는 달랐다. 이곳에는 도로를 너무 좋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오래된 관습이 있기 때문이다. 옛날 호스파다르(Hospodar)들은 길을 수리하지 않았다. 길을 잘 닦아 놓았다가는 터키인들이 외군을 불러들이려 한다고 오해하여,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을 앞당길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미텔란트의 푸른 구릉지 너머로, 카르파티아 산맥의 드높은 절벽에 닿을 듯한 거대한 숲의 경사면이 솟아올랐다. 산맥은 우리 좌우로 우뚝 솟아 있었고, 오후의 햇살이 산등성이를 가득 비추자 이 아름다운 산맥의 찬란한 색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봉우리 그림자 속은 짙은 푸른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었고, 풀과 바위가 뒤섞인 곳은 초록빛과 갈색이 어우러졌다. 들쭉날쭉한 바위와 뾰족한 암벽이 끝없이 이어지다, 눈 덮인 봉우리들이 웅장하게 솟아 있는 먼 곳에서 비로소 그 자취를 감추었다. 산 곳곳에는 거대한 협곡이 갈라져 있는 듯했는데,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그 틈 사이로 떨어지는 폭포의 하얀 물줄기가 이따금 번뜩였다. 우리가 언덕 기슭을 돌아 나가자, 굽이굽이 이어진 길을 따라 눈 덮인 높은 산봉우리가 마치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모습을 드러냈다. 그때 동행 중 한 명이 내 팔을 툭 쳤다.

"보시오! 이스텐 세크(Isten szek)!"—"신의 자리!"—그는 경건하게 성호를 그으며 말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길을 따라 나아갈수록, 우리 뒤편으로 해는 점점 더 낮게 가라앉았고 저녁의 그림자가 우리를 에워싸며 기어오기 시작했다. 눈 덮인 산봉우리에 여전히 노을이 머물러 은은하고 서늘한 분홍빛으로 빛나고 있었기에, 그 대비는 더욱 선명했다. 길을 가다 보면 그림 같은 옷차림을 한 체코인이나 슬로바키아인들을 곳곳에서 마주쳤으나, 그들 사이에서 갑상선종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흔하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길가에는 십자가가 많이 세워져 있었는데, 우리가 그 곁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일행은 모두 성호를 그었다. 여기저기 성상 앞에 무릎을 꿇은 농부들도 보였다. 그들은 우리가 다가와도 돌아보지 않았으며, 마치 신앙에 온전히 자신을 내맡긴 채 외부 세계에는 눈과 귀가 없는 듯했다.

내게는 생경한 풍경이 많았다. 예를 들어 나무 위에 쌓아 올린 건초더미라든가, 여기저기 자리 잡은 아름다운 수양자작나무 군락 같은 것들 말이다. 자작나무의 하얀 줄기는 연둣빛 잎사귀 사이로 은빛처럼 빛났다. 때때로 우리는 뱀의 척추처럼 길게 이어진 구조를 가진 '라이터(leiter)'라고 불리는 농가용 수레를 지나치기도 했는데, 이는 울퉁불퉁한 길에 적응하도록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 수레 위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농민 무리가 꼭 타고 있었다. 흰 양가죽을 입은 체코인들과 색색의 양가죽을 입은 슬로바키아인들이 섞여 있었는데, 슬로바키아인들은 끝에 도끼가 달린 긴 지팡이를 창처럼 들고 있었다.

저녁이 깊어지자 날씨가 매우 추워졌다. 땅거미가 내려앉으며 참나무, 너도밤나무, 소나무가 이루는 숲의 어둠은 하나의 검은 안개 속으로 녹아드는 듯했다. 다만 우리가 고개를 넘어 올라가는 동안, 산등성

이 사이로 깊게 파인 계곡에서는 늦게까지 녹지 않은 눈을 배경으로 검은 전나무들이 여기저기 도드라져 보였다. 어둠 속에서 마치 우리를 압박해 오는 듯한 소나무 숲을 가로지르는 길을 지날 때면, 나무들 사이에 흩뿌려진 거대한 회색 덩어리들이 기묘하고도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 풍경은 저녁 무렵 해가 질 때, 카르파티아 산맥의 계곡 사이를 끊임없이 휘감아 도는 유령 같은 구름들을 기괴하게 부각하며 불러일으켰던 불길한 상상과 공포를 다시금 자극했다.

때로는 경사가 너무 가팔라 마부가 서둘러 몰아도 말이 천천히 갈 수밖에 없었다. 고향에서처럼 마차에서 내려 직접 걸어 올라가고 싶었지만, 마부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안 됩니다, 안 돼." 마부가 말했다. "여기서 걸으시면 안 됩니다. 개들이 너무 사나우니까요." 그러더니 그는 다른 이들의 동조 섞인 미소를 살피며, 분명 짓궂은 농담을 던지려는 듯 덧붙였다. "게다가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그런 일이라면 실컷 겪게 되실 테니까요." 마부가 멈춰 서는 유일한 순간은 등불을 밝히기 위해 잠시 쉬어갈 때뿐이었다.

어둠이 깔리자 승객들 사이에서 묘한 흥분이 감돌았다. 사람들은 마치 마차를 더 빨리 몰라고 재촉이라도 하듯, 한 명씩 돌아가며 마부에게 말을 건넸다. 마부는 긴 채찍으로 말들을 가차 없이 내리치며, 격앙된 외침으로 말들이 더 힘을 내도록 몰아붙였다. 그때 어둠 너머로 마치 산맥 사이에 갈라진 틈이라도 있는 듯, 앞쪽에서 회색빛 줄기가 희미하게 보였다. 승객들의 흥분은 더욱 고조되었다. 미친 듯이 흔들리는 마차는 커다란 가죽 스프링 위에서 요동치며, 마치 폭풍우 치는 바다에 내던져진 배처럼 휘청거렸다. 나는 간신히 매달려 버텼다. 길은

점점 평탄해졌고, 우리는 마치 날아가는 듯한 속도로 달렸다. 그러다 양옆의 산들이 우리를 향해 점점 가까워지며 위압적으로 내려다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우리는 보르고 고개로 진입하고 있었다. 승객들은 저마다 내게 선물을 건넸다. 거절할 수 없을 만큼 간절한 태도로 내미는 선물들은 분명 기이하고도 제각각이었으나, 모두가 친절한 말과 축복을 담아 순수한 호의로 건네는 것이었다. 또한 그것들은 비스트리츠의 호텔 밖에서 보았던, 공포가 섞인 기묘한 몸짓—십자가를 긋거나 사악한 눈을 피하려는 동작—과도 닮아 있었다. 마차가 질주하는 동안 마부는 몸을 앞으로 숙였고, 승객들도 마차 가장자리 너머로 고개를 길게 빼며 어둠 속을 간절히 살폈다. 분명 무언가 매우 흥미진진한 일이 일어나고 있거나, 혹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눈치였다. 하지만 내가 승객들에게 물어도 누구 하나 조금의 설명도 해주려 하지 않았다. 이러한 흥분 상태는 한동안 계속되었고, 마침내 동쪽으로 열린 고개의 입구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머리 위로는 검고 뭉게뭉게 피어오른 구름이 깔려 있었고, 공기 중에는 천둥이 몰아치기 직전의 무겁고 압도적인 기운이 감돌았다. 마치 산맥이 두 개의 대기를 갈라놓은 듯했고, 우리는 이제 천둥이 치는 대기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았다. 이제 나 역시 드라큘라 백작에게 나를 데려다줄 마차를 찾으려 눈을 부릅뜨고 밖을 살폈다. 매 순간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등불의 불빛이 나타나기를 기대했으나, 사방은 온통 어둠뿐이었다. 유일한 빛이라곤 우리가 타고 있는 마차의 등불이 깜빡이는 것뿐이었는데, 그 불빛 아래로 거칠게 달리는 말들의 입김이 하얀 구름처럼 피어올랐다. 이제 우리 앞에는 모래로 된 길이 하얗게 펼쳐진 것이 보였지만, 그 위로 마차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승객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몸을 뒤로 물렸고, 그

모습은 마치 나의 실망감을 조롱하는 듯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던 찰나, 마부가 시계를 보더니 다른 이들에게 무언가 말을 건넸다. 너무나 낮고 조용한 목소리라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나는 그 말이 "예정 시각보다 한 시간 이르군"이라는 뜻인 줄로만 알았다. 그러더니 마부는 나를 돌아보며, 내 독일어 실력보다도 훨씬 형편없는 독일어로 말했다.

"여기에는 마차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분은 오지 않기로 하셨으니까요. 이제 부코비나로 가셨다가 내일이나 모레쯤 돌아오실 겁니다. 모레 오는 편이 낫겠군요."

그가 말을 하는 동안 말들이 히힝거리며 콧김을 내뿜더니 거칠게 날뛰기 시작했다. 마부는 말들을 진정시키려 애써야 했다. 그때 농민들이 비명을 지르며 저마다 성호를 긋는 소란 속에서, 네 마리의 말이 끄는 칼라슈 한 대가 우리 뒤에서 달려와 우리를 앞질러 가더니 마차 옆에 멈춰 섰다. 등불 빛이 그쪽을 비추자, 말들이 칠흑같이 검고 아주 훌륭한 놈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마차를 모는 이는 키가 크고 갈색 수염을 길게 기른 사내였는데, 커다란 검은 모자를 눌러써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가 우리 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등불 빛에 붉게 번뜩이는 아주 형형한 눈동자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는 마부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 밤엔 일찍 왔군, 친구."

그 말에 남자는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다.

"영국 신사께서 무척 서두르시더군요."

낯선 이가 대답했다.

"그래서 당신이 그를 부코비나까지 가게 하려 했던 모양이군요. 친구여, 나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내 말들은 아주 빠르니까요." 그는 말을 하며 미소 지었다. 등불 빛이 그의 입술을 비추었다. 입술은 매우 붉었고, 입매는 단단해 보였으며, 상아처럼 하얗고 날카로운 치아가 드러났다. 동행 중 한 명이 다른 이에게 뷔르거의 시 「레노어」에 나오는 구절을 속삭였다.

"죽은 자들은 빠르게 달린다."

기묘한 마부도 그 말을 들었는지, 번뜩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다. 승객은 얼굴을 돌리는 동시에 두 손가락을 내밀어 성호를 그었다. "그분의 짐을 이리 주시오." 마부가 말했다. 그는 아주 민첩하게 내 가방들을 꺼내 마차 안으로 옮겨 실었다. 마차가 바로 옆에 바짝 붙어 있기에 나는 마차 옆면에서 내려올 수 있었다. 마부는 내 팔을 강철처럼 움켜쥐며 내리는 것을 도와주었는데, 그 힘이 실로 엄청났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삐를 흔들었고, 말이 몸을 돌리자 우리는 어두운 고갯길 속으로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뒤를 돌아보니 등불 빛에 비친 마차 말들의 입김이 보였고, 그 입김 위로 성호를 긋는 동행들의 실루엣이 그림자처럼 비쳤다. 이윽고 마부가 채찍을 휘두르며 말을 몰자, 마차는 부코비나를 향해 달려 나갔다. 마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묘한 한기가 느껴지며 외로움이 밀려왔다. 그때 누군가 내 어깨에 망토를 걸

쳐주고 무릎 위에는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리고 마부가 아주 유창한 독일어로 말했다.

"밤공기가 차갑습니다, 손님. 주인님이신 백작님께서 손님을 각별히 잘 모시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좌석 아래에 슬리보비츠(이 지방의 자두 브랜디) 한 병을 두었으니 드십시오."

나는 마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안을 얻었다. 기분은 묘하게 가라앉았고, 두려움도 적지 않게 밀려왔다. 만약 다른 선택지가 있었다면, 이 정체 모를 밤길 여정을 계속하는 대신 차라리 술이라도 한 잔 마셨을 것이다.

마차는 곧장 빠른 속도로 질주하더니, 이내 완전히 방향을 틀어 또 다른 직선 도로로 접어들었다. 마치 같은 길을 계속해서 맴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눈에 띄는 지형지물을 몇 군데 눈여겨보았는데, 역시나 내 짐작이 맞았다. 마부에게 이 상황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만약 누군가 나를 지체시킬 의도가 있다면, 지금 내 처지에서 어떤 항의를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궁금해진 나는 성냥을 하나 그어 불을 붙였다. 그리고 그 불꽃에 의지해 시계를 확인했다. 자정이 되기 불과 몇 분 전이었다. 그 사실을 확인하자 마치 충격을 받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최근 겪은 일들 때문에 자정에 관한 막연한 미신이 내게는 더욱 크게 다가온 모양이었다. 나는 속이 울렁거리는 불안감을 느끼며 그저 기다릴 뿐이었다.

그때 길 저 멀리 떨어진 어느 농가에서 개 한 마리가 울부짖기 시작했다. 마치 공포에 질린 듯 길고 고통스러운 비명이었다. 곧이어 다른 개가 그 소리에 화답하더니, 연이어 또 다른 개들이 하나둘씩 울음소리를 보탰다. 이제 고갯길 사이로 부드럽게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광기 어린 울음소리가 퍼져 나갔다. 밤의 어둠 속에서 상상할 수 있는 한, 온 나라에서 들려오는 듯한 울음이었다.

첫 울음소리가 들리자 말들이 몸을 비틀며 앞발을 들고 날뛰기 시작했다. 마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달래자 말들은 진정하기는 했으나, 마치 갑작스러운 공포로 미친 듯이 질주한 직후처럼 몸을 떨며 땀을 흘렸다. 그러다 멀리 양옆의 산맥에서 더욱 크고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늑대들의 울음이었다. 그 소리는 말들과 나 모두에게 똑같이 영향을 미쳤다. 나는 당장이라도 마차에서 뛰어내려 달아나고 싶은 심정이었고, 말들은 다시 앞발을 들며 미친 듯이 날뛰었다. 마부는 말들이 튀어 나가지 못하게 막으려 온 힘을 다해야 했다.

하지만 몇 분이 지나자 내 귀도 그 소리에 익숙해졌고, 말들도 어느 정도 진정되어 마부가 마차에서 내려 말 앞에 설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마부는 말들을 쓰다듬으며 달랬다. 마치 말 조련사들이 하는 것처럼 말들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는데, 그 효과가 대단했다. 말들은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마부의 손길 아래 다시 온순해졌다. 마부는 다시 자리에 앉아 고삐를 흔들며 빠른 속도로 출발했다. 이번에는 고갯길 먼 쪽까지 간 뒤, 갑자기 오른쪽으로 급하게 꺾어지는 좁은 길로 방향을 틀었다.

곧 나무들이 우리를 에워싸기 시작했다. 어떤 곳에서는 나무들이 도로 위로 아치형을 그리며 뻗어 있어, 마치 터널을 통과하는 듯한 기분이 들 정도였다. 길 양옆으로는 거대한 바위들이 험상궂은 얼굴로 우리를 위협하듯 버티고 서 있었다. 나무와 바위 덕분에 비바람은 피할 수 있었지만, 점점 거세지는 바람 소리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바람은 바위 사이를 뚫고 지나가며 울부짖고 휘파람 소리를 냈고, 우리가 길을 따라 나아갈 때마다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날씨는 점점 더 추워졌고, 고운 가루 같은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머지않아 우리와 주변의 모든 풍경은 하얀 눈 이불에 덮여버렸다. 매서운 바람을 타고 개들이 짖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우리가 나아갈수록 그 소리는 점점 희미해졌다. 반면 늑대들의 울음소리는 마치 사방에서 우리를 포위하려는 듯 점점 더 가까워졌다. 나는 끔찍한 공포를 느꼈고, 말들도 내 두려움을 알아차린 듯 불안해했다. 하지만 마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좌우로 돌리며 주위를 살폈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갑자기 왼쪽 멀리서 희미하게 푸른 불꽃이 일렁이는 것이 보였다. 마부도 동시에 그것을 발견했는지, 즉시 말들을 멈춰 세우더니 땅으로 뛰어내려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했다. 한참을 망설이던 사이 마부가 갑자기 다시 나타났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우리는 다시 여정을 재개했다. 아마도 내가 잠이 든 채 그 사건을 계속 꿈꾸었던 모양이다. 그 장면이 끝없이 반복되는 듯했으니 말이다. 지금 돌이켜보면 마치 끔찍한 악몽 같다.

한번은 그 불꽃이 길가에 아주 가까이 나타나서, 주변의 어둠 속에서도 마부의 움직임을 지켜볼 수 있을 정도였다. 마부는 푸른 불꽃이 피어오르는 곳으로 빠르게 달려갔다. 불꽃이 주변을 전혀 밝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아주 희미했던 것이 분명하다. 마부는 돌 몇 개를 주워 모아 무언가 장치를 만들었다. 그때 기묘한 광학적 현상이 나타났다. 마부가 나와 불꽃 사이를 가로막고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꽃의 유령 같은 일렁임이 가려지지 않고 그대로 보였던 것이다. 나는 깜짝 놀랐으나, 그 현상이 아주 잠깐뿐이었기에 어둠 속에서 눈을 부릅뜨고 보느라 착각한 것이라 생각했다.

그 후 한동안 푸른 불꽃은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는 늑대들의 울음소리에 둘러싸인 채 어둠 속을 질주했다. 마치 늑대들이 움직이는 원을 그리며 우리를 뒤쫓아오는 것만 같았다.

마침내 마부가 지금까지 갔던 곳보다 더 멀리 길을 떠난 때가 왔다. 마부가 자리를 비운 사이, 말들은 이전보다 더 심하게 몸을 떨며 공포에 질려 콧김을 몰아쉬고 비명을 질러댔다. 늑대들의 울음소리는 완전히 멎었기에 나는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바로 그때, 검은 구름 사이를 항해하던 달이 소나무로 뒤덮인 험준한 바위 절벽 뒤로 모습을 드러냈다. 달빛에 비친 우리 주변에는 늑대 무리가 원을 그리며 둘러싸고 있었다. 늑대들은 하얀 이빨을 드러내고 붉은 혀를 길게 늘어뜨린 채, 길고 근육질인 다리와 덥수룩한 털을 드러내고 있었다. 늑대들이 울부짖을 때보다, 그들을 감싸 안은 이 잔혹한 침묵 속에서 늑대들은 백 배는 더 공포스러웠다. 나 자신은 공포로 인해 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다. 인간은 이토록 끔찍한 공포와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에야 비로소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법이다.

갑자기 늑대들이 울부짖기 시작했다. 마치 달빛이 늑대들에게 어떤 기묘한 영향을 끼친 것만 같았다. 말들은 앞발을 들고 날뛰며 요동쳤다. 말들은 눈동자를 고통스러울 정도로 뒤집으며 속수무책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하지만 살아있는 공포의 고리가 사방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기에, 말들은 어쩔 도리 없이 그 안에 갇혀 있어야만 했다. 나는 마부를 부르려 소리쳤다. 공포의 고리를 뚫고 탈출하여 마부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돕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는 소리를 지르고 칼라슈의 옆면을 두드렸다. 소음을 내어 늑대들을 그쪽에서 쫓아내면, 마부가 마차에 다가올 기회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마부가 어떻게 그곳까지 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위엄 있는 명령조로 외치는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니 그가 도로 위에 서 있었다. 그가 마치 보이지 않는 장애물을 쓸어내듯 긴 팔을 휘두르자, 늑대들은 뒤로, 더욱 멀리 물러났다. 바로 그 순간, 짙은 구름이 달을 가로질러 지나갔고, 우리는 다시 어둠 속에 잠겼다.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마부는 이미 마차에 올라타고 있었고 늑대들은 자취를 감춘 뒤였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기이하고 불길하여 끔찍한 공포가 엄습했다. 나는 입을 떼거나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두려웠다. 구름이 달빛을 가리는 바람에 길은 거의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마차는 쉼 없이 달려 나갔으나 시간은 끝없이 늘어지는 것만 같았다. 우리는 계속해서 오르막을 올랐다. 가끔 급경사를 내려가기도 했

지만, 대체로 계속해서 위로 향하는 길이었다. 그러다 문득, 마부가 거대한 폐허가 된 성의 안뜰에 말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성의 높고 검은 창문에서는 빛 한 줄기 새어 나오지 않았고, 부서진 성벽은 달빛이 비치는 하늘을 배경으로 들쭉날쭉한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제II장

조너선 하커의 일기—계속

5월 5일. —— 분명 잠이 들었었나 보다. 정신이 온전했다면 이토록 기이한 장소가 다가오는 것을 미처 몰랐을 리 없으니까. 어스름한 어둠 속에서 본 안뜰은 꽤 넓어 보였다. 커다란 원형 아치 아래로 어두운 통로가 여러 갈래로 뻗어 있어서, 실제보다 더 크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다. 아직 낮에 이곳을 확인해 보지는 못했다.

마차가 멈추자 마부가 뛰어내려 내가 내리는 것을 돕겠다며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의 엄청난 힘을 다시 한번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손은 마치 강철 바이스 같아서, 마음만 먹었다면 내 손을 그대로 으스러뜨릴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마부는 내 짐을 꺼내어 내 곁의 땅바닥에 내려놓았다. 나는 거대한 문 앞에 서 있었다. 그 문은 오래되어 커다란 철못이 박혀 있었고, 육중한 돌로 된 돌출된 입구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 어둑한 빛 속에서도 돌에 새겨진 조각들이 웅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세월과 풍파에 깎여 무척 마모된 상태였다. 내가 서 있는

사이 마부는 다시 마차 좌석으로 뛰어 올라가 고삐를 흔들었다. 말이 앞으로 달려 나갔고, 마차와 마부는 어두운 통로 중 하나 너머로 사라져 버렸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 망연히 서 있었다. 벨도, 문고리도 보이지 않았다. 험상궂게 생긴 벽과 어두운 창문 구멍 사이로 내 목소리가 전달될 리 만무했다. 기다림의 시간은 끝없이 길게만 느껴졌고, 의구심과 공포가 나를 압도하기 시작했다. 나는 대체 어떤 곳에, 어떤 사람들을 마주하러 온 것인가? 내가 시작한 이 암울한 모험의 정체는 무엇이란 말인가? 런던의 부동산 매입을 설명하러 외국인에게 파견된 변호사 사무원에게 이런 일은 흔히 일어나는 일인가? 변호사 사무원이라니! 미나가 이 말을 들으면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변호사—런던을 떠나기 직전,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나는 이제 정식 변호사다!

나는 이것이 꿈인지 확인하려 눈을 비비고 제 살을 꼬집어 보았다. 이 모든 상황이 끔찍한 악몽처럼 느껴졌다. 과로한 다음 날 아침이면 늘 그랬듯,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 창가로 새벽빛이 스며드는 집 안의 풍경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살을 꼬집자 통증이 느껴졌고, 눈앞의 현실은 환상이 아니었다. 나는 정말로 깨어 있었으며, 카르파티아 산맥 한복판에 있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인내하며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내가 막 결론에 도달했을 때, 거대한 문 너머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다가오는 것이 들렸다. 문틈 사이로는 다가오는 불빛의 번뜩임이 보였

다. 이어 쇠사슬이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빗장이 풀리는 금속음이 들려왔다. 오랫동안 쓰지 않아 삐걱거리는 거친 소리를 내며 열쇠가 돌아갔고, 마침내 거대한 문이 활짝 열렸다.

안에는 키가 큰 노인이 서 있었다. 긴 흰 콧수염을 제외하면 얼굴은 말끔히 면도한 상태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검은 옷차림이라 몸 어디에서도 색채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노인은 손에 고풍스러운 은제 램프를 들고 있었다. 램프의 불꽃은 별도의 유리 갓이나 보호 장치도 없이 그대로 타오르고 있었는데, 열린 문틈으로 들어온 외풍에 불꽃이 흔들릴 때마다 길고 가냘픈 그림자가 일렁이며 벽에 드리워졌다. 노인은 오른손을 들어 정중한 몸짓으로 나를 안으로 들였다. 그리고는 아주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건넸으나, 그 억양은 어딘가 기묘했다.

"제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디 마음껏,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들어오십시오!" 그는 나를 맞이하려 발을 떼는 기색조차 없이, 마치 환영의 몸짓을 하던 그대로 돌처럼 굳어버린 조각상처럼 서 있었다. 하지만 내가 문턱을 넘어서는 찰나, 그는 충동적으로 앞으로 움직였다. 그러고는 내 손을 붙잡았는데, 그 힘이 어찌나 강한지 나는 움찔하며 몸을 떨었다. 게다가 그의 손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다.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죽은 자의 손에 더 가까운 그 감촉 때문에 소름은 더욱 돋아났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하오. 편히 들어오시오. 부디 안전하게 머물다 가시되, 가져온 행복을 이곳에 조금이라도 남겨두고 가시오!" 그가 건넨 악수의 힘이 마차를 몰던 마부의 그것과 너무나도 흡사했다.

마부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했기에, 나는 순간 내가 대화하고 있는 이가 바로 그 마부가 아닌가 의심이 들었다. 그래서 확인을 위해 나는 물어보듯 말했다.

"드라큘라 백작 말입니까?" 그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다.

"나는 드라큘라입니다. 하커 씨, 우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서 들어오시지요. 밤공기가 차가우니, 우선 식사도 하시고 좀 쉬셔야겠습니다."

그는 말을 하며 벽에 달린 걸이에 등불을 걸어 두었다. 그러고는 밖으로 나가 내 짐을 챙겨 들었다. 내가 미처 손을 쓰기도 전에 그가 먼저 짐을 옮겨버린 것이다. 나는 사양했지만 그는 막무가내였다.

"아닙니다, 손님. 당신은 제 귀한 손님이십니다. 시간이 늦은 데다 지금은 제 사람들을 부를 수가 없으니, 제가 직접 편히 쉬실 수 있도록 모시겠습니다."

그는 내 짐을 직접 옮기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는 복도를 지나 거대한 나선형 계단을 올라갔고, 다시 또 다른 긴 복도로 이어졌다. 돌로 된 바닥 위로 우리의 발소리가 무겁게 울려 퍼졌다. 복도 끝에 다다르자 그는 육중한 문을 활짝 열었다. 문 안쪽으로 불이 환하게 밝혀진 방이 나타났다. 저녁 식사가 차려진 탁자가 보였고, 커다란 벽난로 안에서는 방금 새로 넣은 장작들이 활활 타오르며 불꽃을 튀기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자 나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백작은 내 가방을 내려놓고 발걸음을 멈췄다. 그러고는 문을 닫은 뒤 방을 가로질러 또 다른 문을 열었다. 그 문 너머에는 등불 하나만 켜진 작은 팔각형 방이 나타났다. 그 방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는 듯했다. 백작은 그 방을 지나 또 다른 문을 열더니, 내게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그곳은 참으로 반가운 광경이었다. 밝은 빛이 환히 비치는 커다란 침실이 나타났고, 또 다른 장작불이 방을 따스하게 데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갓 넣은 장작이 맨 위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불을 지핀 지 얼마 되지 않은 듯했다. 넓은 굴뚝에서는 장작이 타오르는 공허한 굉음이 울려 퍼졌다. 백작은 내 짐을 방 안에 들여놓고는 밖으로 물러났다. 그러고는 문을 닫기 전 이렇게 말했다.

"먼 길을 오셨으니, 우선 몸단장을 하며 피로를 푸셔야 할 겁니다. 필요하신 것은 모두 갖추어져 있으리라 믿습니다. 준비가 끝나는 대로 옆방으로 오시면,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을 겁니다."

따스한 빛과 온기, 그리고 백작의 정중한 환대는 내 안의 모든 의구심과 두려움을 씻어내 버린 듯했다. 평상시의 평온을 되찾고 나니 배가 몹시 고프다는 사실이 느껴졌다. 나는 서둘러 몸단장을 마치고 옆방으로 향했다.

저녁 식사가 이미 차려져 있었다. 커다란 벽난로 한쪽 석조 벽에 기대어 서 있던 주인은, 식탁을 향해 우아하게 손짓하며 이렇게 말했다.

"부디 자리에 앉아 편히 식사하십시오. 제가 함께하지 못하는 점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미 저녁을 먹었기에, 밤에는 따로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호킨스 씨가 내게 맡긴 봉인된 편지를 그에게 건넸다. 그는 편지를 열어 엄숙한 표정으로 읽어 내려갔다. 그러고는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내가 읽어볼 수 있도록 편지를 내게 다시 건네주었다. 그중 적어도 한 구절만큼은 나에게 짜릿한 기쁨을 안겨주었다.

"제가 늘 앓고 있는 통풍이 도로, 당분간은 도저히 여행을 떠날 수 없는 형편이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제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유능한 대리인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재능과 활력이 넘치는 젊은이이며, 매우 충직한 성품을 지녔습니다. 또한 입이 무겁고 침착하며, 저를 모시며 성실히 성장해 온 인재입니다. 그가 머무는 동안 당신이 원할 때 언제든 곁에서 시중을 들 것이며, 모든 사항에 대해 당신의 지시를 따를 것입니다."

백작이 직접 다가와 접시의 덮개를 벗겨 주었다. 그 안에는 아주 잘 구워진 닭 요리가 놓여 있었다. 나는 치즈와 샐러드, 그리고 오래된 토카이 와인 한 병을 곁들여 저녁 식사를 했다. 와인은 두 잔이나 마셨다. 식사를 하는 동안 백작은 내 여정에 대해 이것저것 질문을 던졌고, 나는 내가 겪은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었다.

그의 얼굴은 강인했다. 아주 강인한 매부리코를 가졌는데, 콧날은 가늘고 높았으며 콧구멍은 독특하게 아치형을 이루고 있었다. 이마는 높고 둥글게 솟아 있었고, 관자놀이 부근의 머리카락은 드문드문했지만 다른 곳은 아주 무성했다. 눈썹은 매우 짙어서 코 위에서 거의 맞닿을 정도였고, 숱이 많은 눈썹은 제멋대로 곱슬거리는 듯했다. 짙은 콧수염에 가려져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입매는 고정된 듯 굳어 있어 다

소 잔인해 보였으며 유난히 날카롭고 하얀 치아를 지니고 있었다. 치아는 입술 위로 툭 튀어나와 있었는데, 입술의 눈에 띄는 붉은빛은 그 나이대의 남성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주었다. 그 외에 귀는 창백했고 귓바퀴 끝은 매우 뾰족했다. 턱은 넓고 강건했으며, 볼은 얇았지만 탄력이 있었다. 전체적인 인상은 기이할 정도로 창백했다.

지금까지는 모닥불 빛 아래 무릎 위에 놓인 그의 손등만을 보았기에, 그 손이 꽤 희고 고운 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가까이서 마주한 그의 손은 투박하기 짝이 없었다. 손등은 넓고 손가락은 짧고 뭉툭했다. 이상하게도 손바닥 한가운데에는 털이 나 있었다. 손톱은 길고 매끄러웠으며 끝이 날카롭게 다듬어져 있었다. 백작이 내 위로 몸을 숙이며 손을 대자, 나는 나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그의 숨결에서 악취가 났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으나,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독한 구역질이 밀려왔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불쾌함을 숨길 수가 없었다.

백작은 분명 내 상태를 알아챈 듯 몸을 뒤로 물렸다. 그러고는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 도드라진 돌출된 치아를 드러내며 기괴한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벽난로 반대편 자신의 자리로 다시 앉았다. 우리는 한동안 침묵에 잠겼다. 창밖을 바라보니 곧 밝아올 새벽의 희미한 빛줄기가 보였다. 세상 모든 것이 기묘할 정도로 고요한 듯했으나, 귀를 기울이자 저 아래 계곡 너머에서 수많은 늑대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백작의 눈이 번뜩였다. 그가 말했다.

"저 소리를 들어보게. 밤의 아이들이 내는 소리일세.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인가!" 내 얼굴에 그가 생경하게 느낄 만한 어떤 표정이 스친 모양인지, 그는 말을 이었다.

"아, 선생님,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은 사냥꾼의 심정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고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하지만 분명 피곤하실 겁니다. 침실은 이미 다 준비해 두었으니, 내일은 원하시는 만큼 늦잠을 자도 좋습니다. 저는 오후까지 자리를 비워야 하니, 부디 편안히 잠드시고 좋은 꿈 꾸십시오!" 그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팔각형 방의 문을 직접 열어주었다. 나는 내 침실로 들어섰다.

경이로운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나를 집어삼킬 것만 같다. 의구심이 들고, 두려움이 엄습한다. 차마 내 영혼 앞에조차 고백하지 못할 기괴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하느님, 부디 저를 지켜주소서. 오직 제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 * * * *

5월 7일. -- 다시 이른 아침이다. 지난 24시간 동안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낮이 다 되도록 잠을 잤고, 누가 깨우지 않아도 스스로 눈을 떴다. 옷을 갈아입은 뒤 우리가 저녁 식사를 했던 방으로 가보니, 차려진 아침 식사가 식은 채 놓여 있었다. 다만 커피는 주전자를 벽난로 위에 올려둔 덕분에 따뜻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카드 한 장이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하네. 나를 기다리지 말게. —D."

나는 곧바로 식사를 시작해 배불리 먹었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하인들에게 다 먹었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벨을 찾아보았으나, 도무지 보이지 않았다. 내 주변을 둘러싼 엄청난 부의 증거들을 생각하면, 이 저택에는 분명 기이할 정도로 부족한 점들이 있다. 식기류는 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워낙 정교하게 세공되어 있어 그 가치가 어마어마할 것이 분명하다. 커튼과 의자, 소파의 천, 그리고 침대의 휘장까지 모두 가장 값비싸고 아름다운 직물로 되어 있다. 제작된 지 수 세기가 지났음에도 상태가 아주 훌륭한 것을 보니,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귀한 물건이었을 것이다. 햄프턴 코트 궁전에서도 이와 비슷한 것들을 본 적이 있지만, 그곳의 물건들은 닳고 해져서 좀이 먹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어느 방에도 거울이 없다. 내 탁자 위에는 화장용 거울조차 없어서, 면도를 하거나 머리를 빗으려면 가방에서 작은 면도용 거울을 꺼내야만 했다. 지금까지 하인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고, 늑대들이 울부짖는 소리 외에는 성 근처에서 어떤 소리도 듣지 못했다.

식사를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식사 시간이 5시에서 6시 사이였기에 이것을 아침 식사라고 불러야 할지 저녁 식사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나는 읽을거리를 찾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백작의 허락을 받기 전에는 성 안을 돌아다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 안에는 책이나 신문, 심지어 필기구조차 전혀 없었다. 그래서 방 안에 있는 다른 문

을 열어보았더니 일종의 서재가 나왔다. 내 방 맞은편에 있는 문도 열어보려 했으나, 그 문은 잠겨 있었다.

서재에서 나는 무척이나 기쁜 마음으로 방대한 양의 영어 서적들을 발견했다. 서가마다 책이 가득했고, 잡지와 신문도 제본된 상태로 구비되어 있었다. 중앙에 놓인 탁자 위에는 영어 잡지와 신문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으나, 아주 최근의 것들은 아니었다. 책의 종류는 역사, 지리, 정치, 경제학, 식물학, 지질학, 법학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했다. 그 책들은 모두 영국과 영국의 삶, 풍습, 그리고 관습에 관한 것들이었다. 심지어 런던 주소록이나 '레드 북'과 '블루 북', 휘태커 연감, 육해군 명부 같은 참고 서적들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을 설레게 했던 것은 바로 법조인 명부였다.

내가 책들을 살펴보고 있을 때 문이 열리더니 드라큘라 백작이 들어왔다. 백작은 나에게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밤새 편안히 잘 쉬었는지 물었다. 그러고는 말을 이었다.

"이곳까지 잘 찾아와 주어 기쁘군요. 당신의 흥미를 끌 만한 것들이 아주 많을 테니까요. 이 동료들은," 그는 책 몇 권 위에 손을 얹으며 말을 이었다. "제 오랜 친구입니다. 런던에 가겠다는 생각을 품은 몇 년 전부터, 이 책들은 제게 수많은 즐거움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책을 통해 저는 위대한 영국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을 안다는 것은 곧 영국을 사랑한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저는 당신의 거대한 런던, 그 북적이는 거리들을 거닐어 보고 싶습니다. 인파가 휘몰아치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 한복판에 서서, 삶과 변화와 죽음, 그리고 그 도시를 이

루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아, 슬프게도 저는 아직 책을 통해서만 당신들의 언어를 접하고 있을 뿐입니다. 친구여, 당신을 마주하고서야 비로소 그 언어로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백작님," 내가 말했다. "영어를 아주 완벽하게 알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가 엄숙하게 고개를 숙였다.

"친구여, 과분한 칭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야 할 길은 아직 한참이나 남은 것 같아 두렵기도 하군요. 문법과 단어들은 분명 알고 있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말로 풀어내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정말이지," 내가 말했다. "영어를 아주 훌륭하게 구사하시는걸요."

"그렇지 않소." 그가 대답했다. "글쎄, 내가 당신의 런던에서 움직이고 말을 한다 해도, 나를 낯선 이로 알아보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라는 사실은 알고 있소. 하지만 내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소. 이곳에서 나는 귀족이며, 보야르(boyar)요. 평민들도 나를 알고, 나는 그들의 주인이지. 하지만 낯선 땅의 이방인은 아무것도 아니오.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하고, 모른다는 것은 곧 상관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나는 그저 다른 이들과 똑같아지기만을 바랄 뿐이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멈춰 서거나, 내 목소리를 듣고 '하하, 낯선 사람이군!'이라며 말을 멈추지 않을 정도로 말이오. 나는 오랫동안 주인으로 살아왔기에 여전히 주인으로 남고 싶소. 적어도 다른 이가 나의 주인이 되게 하고 싶지는 않소. 당신은 단지 내 친구인 엑서터의 피터 호킨스의 대리인으로서, 런던에 있는 나의 새 저택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서만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오. 나는 당신이 여기서 나와 잠시 머물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내가 영어의 억양을 익힐 수 있기를 바라오. 그리고 내가 말을 할 때 아주 작은 실수라도 한다면 꼭 알려주었으면 좋겠소. 오늘 이렇게 오래 자리를 비워 미안하오. 하지만 중요한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인 사람임을 이해하고 용서해 주리라 믿소."

물론 나는 기꺼이 그러겠다고 할 수 있는 말은 다 했다. 그러고는 내가 원할 때 언제든 그 방에 들어가도 될지 물었다. 그는 "물론입니다, 당연히 그러셔도 됩니다"라고 대답하며 덧붙였다.

"성 안에서는 어디든 가보고 싶은 곳을 가도 좋소. 다만 문이 잠긴 곳만은 제외하구려. 물론 그런 곳은 가고 싶지도 않겠지만 말이오. 모든 것이 지금의 모습 그대로인 데에는 다 이유가 있소. 만약 당신이 내 눈으로 보고 내 지식을 갖게 된다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될 거요."

나는 분명히 그럴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말을 이어갔다.

"우리는 지금 트란실바니아에 있습니다. 트란실바니아는 영국과는 다르지요. 우리의 방식은 당신의 방식과 다르고, 당신은 앞으로 많은 기이한 일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아니, 당신이 지금까지 겪은 일을 내게 말해준 것을 보면, 어떤 기이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겠군요."

이로 인해 대화가 길게 이어졌다. 그는 그저 말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듯 보였기에, 나는 이미 겪었거나 목격했던 일들에 대해 그에게 많

은 질문을 던졌다. 때때로 그는 화제를 돌리거나 못 알아듣는 척하며 대화의 흐름을 바꾸기도 했지만, 대체로 내가 묻는 말에는 아주 솔직하게 대답해 주었다.

시간이 흐르고 내가 조금 더 대담해지자, 나는 전날 밤에 있었던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도 물었다. 예를 들어, 마부가 왜 그 푸른 불꽃이 보이는 곳들로 향했는지 같은 것들 말이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일 년 중 특정한 밤, 즉 모든 악령이 거침없이 활개 친다고 여겨지는 바로 어젯밤 같은 날에는 보물이 숨겨진 곳 위로 푸른 불꽃이 나타난다는 믿음이 흔하다고 말이다.

"그 보물은 당신이 어젯밤 지나온 지역에 숨겨져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그곳은 왈라키아인과 색슨인, 그리고 터키인들이 수 세기 동안 서로 차지하려고 싸워온 땅이니까요. 이 지역 전체를 통틀어 애국자든 침략자든, 인간의 피로 적셔지지 않은 땅은 단 한 뼘도 없을 정도입니다. 옛날에는 참으로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오스트리아인과 헝가리인들이 떼를 지어 몰려오면, 애국자들이 그들을 맞이하러 나섰지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고갯길 위 바위틈에 매복해 있다가, 인위적인 눈사태를 일으켜 적들을 휩쓸어 버리곤 했습니다. 침략자들이 승리를 거두고 찾아와 보아도 얻을 수 있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무엇이든 남아 있다면 이미 정겨운 대지 속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내가 물었다. "사람들이 조금만 수고를 들여 찾아보려 한다면 분명한 증거가 있을 텐데, 어떻게 이토록 오랫동안 들키지 않고 남아 있을 수 있습니까?"

백작이 미소 지었다. 입술이 말려 올라가며 잇몸이 드러나자, 길고 날카로운 송곳니가 기이한 모습으로 툭 튀어나왔다. 백작이 대답했다.

"그건 당신이 말하는 농부들이 본래 겁쟁이에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불꽃은 오직 단 하룻밤 동안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라면, 이 땅의 그 어떤 사람도 피할 수만 있다면 문밖으로 발을 내딛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설령 나선다 해도, 친애하는 선생,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 모를 것입니다. 불꽃이 나타난 곳을 지켜봤다는 그 농부조차, 낮이 되면 자신이 본 곳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를 겁니다. 감히 맹세컨대, 당신조차도 그 장소들을 다시 찾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내가 말했다. "죽은 이들만큼이나 저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들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조차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다른 화제로 대화를 돌렸다.

"자, 어서," 마침내 그가 말했다. "런던에 대해, 그리고 자네가 나를 위해 마련해 둔 저택에 대해 말해주게."

나는 소홀했던 점을 사과하며,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기 위해 내 방으로 들어갔다.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옆방에서 도자기와 은식기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방을 지나가다 보니 이미 깊은 밤이라,

테이블 위는 깨끗이 치워져 있었고 등불이 켜져 있었다. 서재에도 등불이 밝혀져 있었다. 백작은 소파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는데, 세상에, 하필이면 영국의 '브래드쇼 가이드'를 읽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들어가자 그는 테이블 위에 있던 책과 서류들을 치웠다. 나는 그와 함께 각종 설계도와 권리증, 그리고 여러 수치 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것에 관심을 보였고, 그 지역과 주변 환경에 대해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졌다. 그는 분명 그 지역에 대해 알아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미리 공부하고 온 듯했다. 실제로 대화가 끝날 무렵에는 그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이 점을 언급하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글쎄요, 하지만 친구여, 제가 그래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가면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될 겁니다. 제 친구 하커 조너선—아니, 용서하십시오. 성을 앞에 두는 제 고국의 습관이 튀어나왔군요. 제 친구 조너선 하커가 제 곁에서 저를 바로잡아 주거나 도와주지도 못할 텐데요. 그는 아마 수 마일이나 떨어진 엑서터에서, 또 다른 친구인 피터 호킨스와 함께 법률 서류를 검토하고 있겠지요. 그러니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퍼플릿에 있는 저택을 매입하는 업무를 철저히 진행했다. 내가 그에게 사실 관계를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에 서명을 받은 뒤, 호킨스 씨에게 보낼 편지까지 작성하여 발송 준비를 마치자, 그는 어떻게 이토록 적합한 장소를 찾아냈느냐고 묻기 시작했다. 나는 그에게 당시 적어 두었던 메모를 읽어 주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퍼플릿의 어느 샛길을 지나던 중, 딱 필요한 조건에 부합하는 장소를 발견했다. 그곳에는 건물이 매물로 나왔다는 낡은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건물은 무거운 돌을 쌓아 만든 고풍스러운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오랫동안 보수하지 않은 듯했다. 굳게 닫힌 대문은 두꺼운 참나무와 철로 만들어졌으나, 철제 부분은 온통 녹슬어 있었다.

그 저택의 이름은 카팩스다. 집이 방위와 일치하게 사방으로 지어져 있으니, 아마도 옛 이름인 '콰트르 파스(Quatre Face)'가 변형된 것이리라. 저택은 앞서 언급한 견고한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전체 면적은 약 20에이커에 달한다. 부지 안에는 나무가 많아 곳곳이 어둑어둑하고, 깊고 검게 보이는 연못 혹은 작은 호수도 하나 있다. 물이 맑고 제법 큰 시냇물이 되어 흘러나가는 것으로 보아, 분명 샘물에서 물이 공급되는 모양이다.

집은 매우 거대하며, 건축 양식은 중세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듯하다. 집의 한 부분은 돌벽이 엄청나게 두껍고, 높은 곳에 난 창문도 몇 개 없을뿐더러 철창이 굵게 박혀 있기 때문이다. 마치 성채의 일부처럼 보이며, 오래된 예배당 혹은 교회와도 인접해 있다. 집 안에서 그곳으로 통하는 문 열쇠가 없어 안으로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코닥 카메라로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 두었다.

저택은 증축을 거듭해 왔으나 매우 무질서하게 늘어난 모습이라, 정확히 어느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는지는 짐작만 할 뿐이다. 분명 매우 넓을 것이다. 근처에는 집이 거의 없는데, 그중 하나는 최근에 개조하

여 사설 정신병원으로 쓰고 있는 아주 큰 저택이다. 하지만 이 부지에서는 그 건물이 보이지 않는다."

내가 말을 마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집이 오래되고 웅장해서 기쁩니다. 나 또한 유서 깊은 가문 출신이라, 새집에서 사는 것은 제게 죽기보다 싫은 일이지요. 집이란 하루아침에 사람이 살 만한 곳이 될 수 없는 법입니다. 게다가 백 년이라는 세월도 따지고 보면 그리 긴 시간도 아니지 않습니까. 옛 시절의 흔적이 남은 예배당이 있다는 점도 기쁩니다. 우리 트란실바니아 귀족들은 자신의 유골이 평범한 이들과 함께 묻히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요. 나는 즐거움이나 유흥을 쫓지 않습니다. 젊고 활기찬 이들을 매료하는 눈부신 관능미나 찬란한 햇살, 반짝이는 물결 같은 것도 말입니다. 나는 더 이상 젊지 않습니다. 죽은 이들을 애도하며 고단한 세월을 보낸 탓에, 내 마음은 이제 즐거움에 맞추어 울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내 성의 벽들은 허물어졌고, 그림자는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부서진 성벽과 창문 사이로는 차가운 바람이 스며듭니다. 나는 그늘과 어둠을 사랑하며, 기회가 된다면 홀로 생각에 잠겨 있고 싶을 뿐입니다."

어째서인지 그의 말과 눈빛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듯했다. 혹은 그의 생김새 자체가 그의 미소를 악의적이고 침울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일지도 몰랐다.

잠시 후 그는 서류를 모두 정리해 두라고 당부하며 자리를 떴다.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나는 주변에 놓인 책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는 지도책이었는데, 마치 자주 펼쳐보았던 것처럼 영국

지역이 자연스럽게 펼쳐져 있었다. 지도를 살펴보니 몇몇 지점에 작은 원들이 표시되어 있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하나는 런던 동쪽 근처에 있었는데, 분명 그의 새로운 저택이 있는 곳이었다. 나머지 두 곳은 엑서터와 요크셔 해안의 휘트비였다.

백작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한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간 뒤였다. "아하!" 백작이 말했다. "아직도 책을 보고 있소? 좋구려! 하지만 늘 일만 해서는 안 되오. 자, 어서 갑시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소." 백작은 내 팔을 이끌고 옆방으로 향했다. 그곳 식탁에는 아주 훌륭한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백작은 집을 비운 탓에 밖에서 식사를 마쳤다며 다시 한번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그는 전날 밤처럼 자리에 앉아, 내가 식사하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지난 저녁처럼 담배를 피웠다. 백작은 곁에 머물며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온갖 주제를 넘나들며 대화를 나누고 질문을 던졌다. 시간이 무척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인인 백작의 뜻을 무엇이든 따르는 것이 도리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어제 충분히 잠을 자둔 덕분에 졸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새벽이 다가올 때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 서늘한 기운만큼은 떨쳐낼 수 없었다. 그 기운은 마치 밀물이 들어오기 직전의 조수 변화와도 같았다. 사람들은 죽음을 앞둔 이들이 대개 새벽녘이나 조수가 바뀌는 시점에 숨을 거둔다고 말한다. 피로에 지친 채 마치 초소에 묶인 병사처럼 자리를 지키며 대기하는 사람이라면, 대기 중의 공기가 변하는 이 순간을 경험하며 그 말을 충분히 믿을 수 있을 것이다. 그때 갑자기, 맑은 새벽 공기

를 뚫고 수탉의 울음소리가 기이할 정도로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드라큘라 백작은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세상에, 벌써 아침이군요! 당신을 이렇게 늦게까지 깨어 있게 하다니 제가 너무 소홀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흐르는 걸 잊지 않도록, 제 사랑스러운 새 고향인 영국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덜 흥미롭게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더니, 서둘러 나를 떠났다.

내 방으로 들어가 커튼을 쳤지만, 딱히 눈에 띄는 것은 없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라곤 안뜰뿐이었고, 그 너머로 보이는 것은 서서히 밝아오는 하늘의 따스한 회색빛이 전부였다. 나는 다시 커튼을 쳤다. 그리고 오늘 하루에 대해 기록을 남긴다.

* * * * *

5월 8일.

이 일기를 쓰면서 내용이 너무 장황해지는 것은 아닌지 두려웠다. 하지만 지금은 처음부터 상세히 기록해 두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곳과 이곳의 모든 것에는 무언가 기이한 구석이 있어,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차라리 이곳을 벗어나 안전해지거나, 아예 오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기묘한 밤낮이 바뀐 생활이 나를 갉아먹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약 정말 그것뿐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대화할 상대라도 있다면 견딜 수 있겠지만, 여기엔 아무도 없

다. 대화할 수 있는 상대라고는 백작뿐인데, 그가 바로...! 이곳에 살아 있는 영혼은 나뿐인 것 같아 두렵다.

사실에 근거하여 최대한 담담하게 적어 내려가자. 그래야만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상상의 나래가 멋대로 날뛰게 두어서는 안 된다. 만약 상상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면, 나는 끝장이다. 우선 현재 나의 상황이 어떠한지, 혹은 어떠해 보이는지부터 적어보자.

잠자리에 들었을 때 겨우 몇 시간밖에 자지 못한 데다 더는 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아 몸을 일으켰다. 창가에 면도용 거울을 걸어두고 막 면도를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내 어깨를 짚는 느낌이 들더니, 드라큘라 백작이 "좋은 아침이오"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 몸을 떨었다. 거울에 비친 내 뒤편으로 방 전체가 다 보였는데도 그를 전혀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무 놀란 나머지 면도날에 살짝 베였지만, 그 순간에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다. 백작의 인사에 답한 뒤, 내가 무엇을 잘못 본 것인지 확인하려 다시 거울을 돌아보았다. 이번에는 착각일 리가 없었다. 그가 바로 내 곁에 서 있었고, 어깨 너머로 그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울 속에는 그의 모습이 비치지 않았다! 거울에는 내 뒤로 방 전체가 훤히 보였으나, 나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사람의 흔적도 없었다.

이 사실은 무척 소름 끼쳤다. 그동안 겪은 수많은 기이한 일들에 더해져, 백작이 곁에 있을 때마다 늘 느끼던 막연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베인 상처에서 피가 조금씩 흘러나와 턱을 타고 흐르는 것이 보였다. 나는 면도기를 내려놓으며 반창고를 찾으려

몸을 반쯤 돌렸다. 내 얼굴을 본 백작의 눈이 마치 악마 같은 광기로 번뜩이더니, 갑자기 내 목을 움켜쥐려 달려들었다. 내가 몸을 뒤로 빼는 바람에 그의 손은 십자가가 달린 묵주 줄에 닿고 말았다. 그 즉시 백작의 태도가 돌변했다. 그 광기가 너무나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탓에, 방금 전의 분노가 정말 있었던 일인지조차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조심하게." 그가 말했다. "베이지 않도록 조심하게나. 이 나라에서는 자칫하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해질 수 있으니." 그러더니 그는 면도용 거울을 움켜쥐며 말을 이었다. "이 가증스러운 물건이 화근을 불러왔군. 인간의 허영심이 만들어낸 추잡한 장식품일 뿐이야. 당장 치워버려!" 그는 그 무시무시한 손으로 창문을 단번에 확 열더니 거울을 밖으로 내던졌다. 거울은 저 멀리 아래에 있는 안뜰 바닥 돌 위로 떨어져 수천 개의 조각으로 산산이 부서졌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다. 정말 난감한 일이다. 회중시계 유리나, 다행히 금속으로 된 면도용기 바닥을 이용하지 않고서야 대체 어떻게 면도를 하라는 말인가.

식당으로 들어갔을 때 아침 식사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어디를 찾아봐도 드라큘라 백작은 보이지 않았다. 결국 혼자서 아침을 먹었다. 이상하게도 아직 백작이 먹거나 마시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분명 아주 특이한 사람임이 틀림없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성 안을 조금 둘러보았다. 계단을 따라 나가니 남쪽을 향한 방이 하나 나왔다. 그곳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장관이었다.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는 경치를 한눈에 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성은 무시무시한 절벽 바로 끝에 아슬아슬하게 자리 잡고 있었

다. 창문에서 돌 하나를 떨어뜨리면,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채 천 피트 아래로 곤두박질칠 것만 같았다.

눈이 닿는 곳마다 초록빛 나무 꼭대기들이 바다처럼 펼쳐져 있었고, 가끔씩 깊은 협곡이 만드는 틈새가 보였다. 숲속 깊은 골짜기를 따라 굽이쳐 흐르는 강물은 곳곳에서 은빛 실타래처럼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름다움을 묘사할 마음의 여유가 없다. 그 풍경을 마주하자마자 나는 더 깊이 안을 살폈기 때문이다. 사방에는 문, 문, 그리고 또 문뿐이었고, 그 문들은 모두 잠긴 채 빗장까지 걸려 있었다. 성벽에 난 창문 외에는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가 어디에도 없었다.

성은 그야말로 감옥이나 다름없으며, 나는 그곳에 갇힌 죄수다!

제III장

조너선 하커의 일기—계속

내가 갇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형언할 수 없는 격정적인 감정이 나를 덮쳤다. 나는 계단을 미친 듯이 오르내렸고, 눈에 보이는 모든 문을 열어보려 애썼으며, 모든 창문 너머를 살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다른 모든 감정을 압도해 버렸다. 몇 시간 뒤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 당시의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 마치 덫에 걸린 쥐처럼 행동했으니까.

하지만 내가 무력하다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인 뒤에는,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일 정도로 차분하게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무엇을 하는 것이 최선일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지금도 계속 생각 중이지만, 아직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내 생각을 드라큘라 백작에게 드러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다. 백작은 내가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다. 직접 나를 가둔 장본인인 데다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테니, 내가 사실대로 털어놓으며 그를 온전히 믿는다 해도 백작은 나를 기만할 뿐일 것이다.

내가 보기에 유일한 방책은, 내가 아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을 가슴 속에만 묻어둔 채 눈을 부릅뜨고 상황을 살피는 것뿐이다. 나는 지금 내 공포에 속아 아기처럼 휘둘리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절망적인 궁지에 몰려 있는 것이다. 만약 후자라면, 이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내 모든 지혜를 쥐어짜야만 한다. 아니,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자마자 아래층에서 커다란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백작이 돌아왔음을 직감했다. 그는 곧장 서재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조심스럽게 내 방으로 향했고, 그가 침대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이상한 일이었지만, 이 집에는 하인이 한 명도 없다는 내 의구심을 확인시켜 줄 뿐이었다. 나중에 문틈 사이로 그가 식당에서 식탁을 차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확신했다. 백작이 이토록 허드렛일을 직접 도맡아 한다면, 분명 이 일을 대신해 줄 다른 사람이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 사실은 나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성 안에 다른 사람이 없다면, 나를 이곳으로 데려온 마차의 마부는 분명 백작 자신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끔찍한 생각이다. 만약 그렇다면, 그가 그저 말없이 손을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 늑대들을 조종할 수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비스트리츠의 사람들과 마차에 탔던 이들은 왜 모두 나를 그토록 염려하며 두려워해 주었던 것일까? 십자가와 마늘, 들장미와 마가목을 건네준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내 목에 십자가를 걸어준 그 선량한 여인에게 축복이 있기를! 십자가를 만질 때마다 위안과 힘을 얻기에, 나는 그것을 붙잡고 버틴다. 평소에는 우상 숭배라며 경계해야 한다고 배웠던 물건이, 이토록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기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기이하기만 하다. 물건 자체에 어떤 본질적인 힘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것이 누군가의 공감과 위로를 전달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일까?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 이 문제를 깊이 살펴보고 스스로 결론을 내려야겠다.

그동안은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드라큘라 백작에 대해 알아낼 수 있는 모든 것을 파악해야 한다. 오늘 밤 대화의 흐름을 잘 유도한다면,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의심을 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 * * *

자정.

드라큘라 백작과 긴 대화를 나누었다. 트란실바니아의 역사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던졌더니, 백작은 그 주제에 무척 흥미를 보이며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건과 인물, 특히 전투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마치 그 모든 현장에 직접 있었던 사람처럼 말하곤 했다. 나중에 백작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보야르(귀족)에게 가문의 자부심과 이름은 곧 자신의 자부심이며, 가문의 영광은 자신의 영광이고, 가문의 운명은 곧 자신의 운명이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백작은 자신의 가문을 언급할 때마다 항상 "우리"라는 표현을 썼으며, 마치 왕이 말하듯

거의 복수형으로 이야기했다. 백작이 한 말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기록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그 이야기가 내게는 너무나 매혹적이었기 때문이다. 그 말속에는 이 나라의 역사가 통째로 담겨 있는 듯했다. 백작은 말을 이어갈수록 점점 흥분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는 방안을 서성거리며 커다란 흰 수염을 잡아당겼고, 손에 잡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힘껏 으스러뜨릴 듯 움켜쥐었다. 백작이 한 말 중 하나를 최대한 원문 그대로 옮겨 적고자 한다. 이 이야기는 그가 속한 종족의 역사를 그 나름의 방식으로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우리 세켈리족은 자부심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혈관에는 영토를 위해 사자처럼 싸웠던 수많은 용맹한 종족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요. 유럽의 여러 민족이 소용돌이치는 이곳에서, 우그르 부족은 아이슬란드로부터 토르와 보딘이 부여한 투쟁 정신을 품고 내려왔습니다. 그들의 베르세르크 전사들이 유럽의 해안가, 아니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해안가에서 보여준 그 흉포한 기세에 사람들은 마치 늑대인간들이 나타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이곳에 당도했을 때, 살아있는 불꽃처럼 온 세상을 휩쓸던 훈족과 마주했습니다. 당시 멸망해 가던 민족들은 훈족의 혈관에 고대 마녀들의 피가 흐른다고 믿었습니다. 스키타이에서 쫓겨난 마녀들이 사막의 악마들과 결합했다는 것이었지요. 어리석은 자들,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이 혈관에 흐르는 아틸라의 피만큼 위대한 악마나 마녀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는 두 팔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복 민족이었다는 사실이, 우리가 자부심이 강했다는 사실이 어찌 놀라운 일입니까? 마자르족, 롬바르드족, 아바르족, 불가르족, 혹은 투르크족이 수천의 대군

을 몰아 우리 국경으로 밀려들 때마다 우리가 그들을 물리쳤던 것이 어찌 이상한 일입니까? 아르파드와 그의 군단이 헝가리 조국을 휩쓸고 지나갈 때, 그가 국경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이미 이곳에 있었던 것이, 즉 혼포글라라스가 이곳에서 완성된 것이 어찌 이상한 일입니까? 헝가리의 물결이 동쪽으로 휩쓸고 나갈 때, 승리한 마자르족은 세켈리족을 일가친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수 세기 동안 우리는 투르크 영토의 국경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아니,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국경을 수호해야 했습니다. 투르크인들이 말하듯, '물은 잠들어도 적은 잠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민족 가운데 우리보다 더 기쁘게 '피의 검'을 받아들인 자가 어디 있으며, 전쟁의 부름이 떨어졌을 때 우리보다 더 빠르게 왕의 깃발 아래로 모여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왈라키아와 마자르의 깃발이 초승달 깃발 아래로 꺾였을 때, 우리 민족의 커다란 수치였던 카소바의 치욕을 씻어낸 이가 누구였습니까? 다뉴브강을 건너 투르크인의 영토에서 그들을 격파한 보이보데는, 다름 아닌 내 동족 중 한 명이 아니었습니까! 그야말로 진정한 드라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쓰러진 뒤, 그의 자격 없는 동생이 백성들을 투르크에 팔아넘겨 노예의 수치를 안겨주었으니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리고 훗날 거듭 군대를 이끌고 저 거대한 강을 건너 투르크 영토로 쳐들어갔던 그 동족의 또 다른 이에게 영감을 불어넣은 것이야말로, 바로 이 드라큘라가 아니었습니까! 그는 패퇴할 때마다 다시, 또 다시, 몇 번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비록 자신의 군대가 학살당하는 피비린내 나는 전장에서 홀로 살아 돌아와야 했을지라도 말입니다. 오직 자신만이 결국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흥! 지도자

없는 농민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지휘할 지략과 심장이 없는 전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한 모하치 전투 이후 우리가 헝가리의 멍에를 벗어던졌을 때, 드라큘라의 혈통을 가진 우리도 그 지도자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우리의 정신이 굴종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 젊은이여, 세켈리족은—그리고 그들의 심장이자 두뇌이며 검인 드라큘라 가문은—합스부르크나 로마노프 가문처럼 버섯처럼 갑자기 피어오른 가문들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역사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투쟁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 불명예스러운 평화의 시대에 피는 너무나 귀한 것이 되어버렸고, 위대한 종족들의 영광은 이제 그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어느덧 아침이 가까워졌기에 우리는 잠자리에 들었다. (_메모: 이 일기는 마치 모든 이야기가 닭 울음소리와 함께 끊겨버리는 '아라비안 나이트'의 도입부 같기도 하고, 햄릿의 아버지가 나타난 유령의 이야기 같기도 하여 섬뜩한 기분이 든다._)

* * * * *

5월 12일.

우선 사실부터 기록하자. 책과 수치로 검증된, 의심의 여지가 없는 메마르고 빈약한 사실들 말이다. 나의 관찰이나 기억에만 의존해야 하는 경험과 이 사실들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어제 저녁, 방에서 나온 드라큘라 백작은 법률 문제와 특정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해 내게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나는 하루 종일 책을 뒤적이며 지치게 보낸 터라, 그저 정신을 집중하기 위해 링컨스 인에서 검토하던 몇 가지 사안들을 다시 살펴보았다. 백작의 질문에는 일정한 방식이 있었으므로, 나는 그 질문들을 순서대로 기록해 두려 한다. 언젠가 이 지식이 내게 어떻게든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

먼저 그는 영국에서 한 사람이 두 명 이상의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는 원한다면 열두 명이라도 고용할 수 있지만, 한 건의 거래에 여러 명의 변호사를 참여시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답했다. 한 번에 한 명의 변호사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교체하는 일은 분명 그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 말을 충분히 이해한 듯 보였다. 그러더니 그는 한 가지 실무적인 문제를 물어왔다. 만약 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의 거처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현지 도움이 필요할 경우, 한 명은 은행 업무를 맡고 다른 한 명은 해운 업무를 맡도록 나누어 관리하는 데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는 질문이었다. 나는 혹여나 그를 잘못 안내하는 일이 없도록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지요. 런던에서 멀리 떨어진 엑서터의 아름다운 대성당 그림자 아래 사는 당신의 친구이자 나의 친구인 피터 호킨스 씨가, 당신을 통해 나를 대신해 런던에 있는 내 저택을 사들이고 있지요. 좋습니다!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런던에 사는 사람이 아닌, 이토록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는지 의아해하실까 봐 말입니다. 내 의도는 오직 나의 바람만이 반영되도록, 그 어떤 사적인 이해관계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런던에 사는 사람

이라면 본인이나 친구를 위해 따로 챙길 목적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오직 나의 이익만을 위해 일할 대리인을 찾아 이토록 먼 곳까지 발걸음을 한 것입니다. 자, 만약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은 내가 물건을 뉴캐슬이나 더럼, 혹은 하리치나 도버로 보내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해당 항구에 있는 사람에게 위탁하는 편이 훨씬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분명 그 편이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다만 우리 변호사들에게는 서로 협력하는 대리인 체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어느 변호사의 지시가 있으면 현지 업무는 그 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다. 덕분에 의뢰인은 단 한 명의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만 하면, 다른 번거로움 없이 자신의 뜻을 관철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가 말했다. "제 일은 제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내가 대답했다. "사업가들은 보통 그렇게 하곤 하죠. 자신의 모든 업무 내용이 어느 한 사람에게 전부 알려지는 걸 원치 않으니까요."

"좋군요!" 그가 말했다. 그러고는 화물을 보내는 방법과 거쳐야 할 절차, 그리고 미리 대비하면 막을 수 있는 온갖 종류의 문제들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 그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다. 그는 분명 훌륭한 변호사가 될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겼다. 생각지 못한 것이나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 나라에 와본 적도 없고 딱히 사업을 하는 사람 같지도 않았는데, 그의 지

식과 통찰력은 놀라울 정도였다. 그는 자신이 물었던 사항들에 대해 충분히 납득한 듯 보였고, 나 역시 곁에 있는 책들을 뒤져 가며 그 내용을 최대한 확인했다. 그러더니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했다.

"우리 친구인 피터 호킨스 씨에게 보낸 첫 편지 이후로, 다른 누구에게라도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까?" 나는 쓰라린 마음을 억누르며 아직 아무에게도 편지를 보낼 기회가 없었다고 대답했다.

"자, 이제 글을 쓰게나, 젊은 친구." 그가 내 어깨에 묵직한 손을 얹으며 말했다. "우리 친구에게도 편지를 쓰고, 다른 누구에게든 써두게. 그리고 자네가 괜찮다면, 지금부터 한 달 동안은 나와 함께 머물겠다고 전하게나."

"그렇게 오래 머물기를 바라시나요?" 내가 물었다. 그 생각을 하자 가슴이 서늘해졌기 때문이다.

"간절히 원합니다. 아니, 거절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주인인지, 고용주인지, 무엇이라 부르든 간에, 그분이 자신을 대신해 누군가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을 때, 제 필요 사항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로 이미 이야기가 된 것 아닙니까? 저는 아낌없이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고개를 숙여 받아들이는 것뿐이었다. 그것은 나의 관심사가 아니라 호킨스 씨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였기에, 나는 나 자신이 아니라 그를 먼저 생각해야만 했다. 게다가 드라

큘라 백작이 말을 하는 동안, 그의 눈빛과 태도에서는 내가 포로라는 사실이 절실히 느껴졌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선택권은 내게 없었다. 백작은 내가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서 승리를 보았고, 내 얼굴에 어린 고뇌에서 지배력을 확인했다. 그는 곧바로 그 점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다만 그 방식은 백작 특유의 매끄럽고도 거부할 수 없는 방식이었다.

"자네, 나의 친애하는 젊은 친구여. 부디 편지에는 업무 외의 이야기는 담지 말아 주게나. 자네가 무사히 잘 지내고 있으며, 곧 집으로 돌아갈 날을 고대하고 있다는 소식만으로도 친구들은 충분히 기뻐할 테니까. 그렇지 않은가?"

그는 말을 마치며 메모지 세 장과 봉투 세 개를 내게 건넸다. 모두 아주 얇은 외국산 편지지였다. 나는 편지지를 보았다가 다시 그를 보았다. 붉은 아랫입술 위로 짐승 같은 날카로운 송곳니가 드러난 채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본 순간, 그가 입 밖에 내지 않았어도 마치 직접 말한 것처럼 그 뜻이 분명히 와닿았다. 편지에 무엇을 쓸지 극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내가 쓴 내용을 읽어낼 수 있을 터였다.

나는 이제부터는 오직 격식을 차린 내용만 쓰기로 마음먹었다. 대신 호킨스 씨에게는 비밀리에 상세한 내용을 적어 보내고, 미나에게도 편지를 쓰기로 했다. 미나에게는 속기법으로 글을 쓸 수 있으니, 설령 백작이 편지를 본다 해도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두 통의 편지를 다 쓴 뒤, 나는 조용히 앉아 책을 읽었다. 그동안 드라큘라 백작은 탁자 위에 놓인 몇 권의 책을 참고하며 여러 통의 메모를 작성했다. 그러고는 내 편지 두 통을 자신의 편지들과 함께 챙긴 뒤 필기구를 치웠다. 백작이 나가고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몸을 숙여 탁자 위에 엎어 놓은 편지들을 들여다보았다. 이런 행동을 하는 데에 조금의 죄책감도 들지 않았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편지 중 하나는 휘트비, 더 크레센트 7번지에 사는 사무엘 F. 빌링턴 앞으로 되어 있었고, 다른 하나는 바르나의 로이트너 씨 앞으로 되어 있었다. 세 번째 편지는 런던의 쿠츠 상사로, 네 번째 편지는 부다페스트의 은행가인 클롭스톡과 빌로이트 상사로 향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와 네 번째 편지는 봉인되어 있지 않았다. 내가 막 그 편지들을 살펴보려던 찰나, 문손잡이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나는 서둘러 편지들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고 책을 집어 들며 의자 깊숙이 몸을 묻었다. 드라큘라 백작이 또 다른 편지 한 통을 손에 든 채 방으로 들어왔다. 백작은 탁자 위에 놓인 편지들을 집어 들어 조심스럽게 우표를 붙였다. 그러고는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부디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에는 혼자 처리해야 할 일이 아주 많아서요. 모든 것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문가에서 몸을 돌리더니, 잠시 멈칫하다가 말을 이었다.

"내 친애하는 젊은 친구여, 충고 하나 하겠네. 아니, 아주 진지하게 경고하겠네. 만약 자네가 이 방을 나간다면, 성 안의 그 어떤 다른 곳에서도 결코 잠들어서는 안 되네. 이 성은 오래되었고 수많은 기억을 품고 있지. 지혜롭지 못하게 잠을 청하는 자에게는 악몽이 기다리고 있다네. 경고했네! 지금 당장, 혹은 앞으로라도 잠이 쏟아지려 한다면 서둘러 자네의 침실이나 이 방으로 돌아가게. 그래야만 안심하고 쉴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만약 이 점을 주의하지 않는다면……."

그는 손을 씻는 듯한 몸짓을 하며 말을 마쳤는데, 그 끝은 소름 끼칠 정도로 섬뜩했다. 나는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다. 다만 한 가지 의구심이 들 뿐이었다. 나를 에워싸며 조여오는 이 비정상적이고 끔찍한, 어둠과 신비의 그물보다 더 무서운 꿈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다.

* * * * *

나중에.--앞서 적은 마지막 문장의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다. 그가 없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서든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침대 머리맡에 십자가를 걸어 두었다. 덕분에 꿈을 꾸지 않고 더 편안히 쉴 수 있을 것만 같다. 십자가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 것이다.

그가 떠나자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자, 나는 밖으로 나와 남쪽을 내다볼 수 있는 곳까지 돌계단을 타고 올라갔다. 비록 내가 직접 닿을 수는 없는 광활한 풍경이었으나, 좁고 어두운 안뜰과 비교하면 그 넓은 세상이 주는 해방감이 느껴졌다.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니 내가 정말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비록 밤공기일지라도 신선한 공기를 한 모금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이런 밤낮이 바뀐 생활이 나를 갉아먹기 시작한 모양이다. 신경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다. 내 그림자만 보고도 깜짝 놀라며, 온갖 끔찍한 상상에 사로잡힌다. 이 저주받은 곳에서 내가 느끼는 이 극심한 공포가 결코 근거 없는 것이 아님을 신만이 아실 것이다.

나는 부드러운 황색 달빛에 젖어 낮처럼 환해질 때까지 아름답게 펼쳐진 풍경을 내다보았다. 은은한 달빛 속에서 멀리 보이는 언덕들은 경계가 흐릿해졌고, 계곡과 협곡의 그림자는 벨벳처럼 검고 부드러웠다. 그저 그 아름다움만으로도 기운이 나는 듯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평온함과 위안이 느껴졌다.

창가에 몸을 기댄 그때, 내 시선이 아래층 왼쪽 어딘가에서 움직이는 무언가에 머물렀다. 방들의 배치로 보아 그곳은 드라큘라 백작의 방 창문이 있는 자리인 듯했다. 내가 서 있는 창문은 높고 깊었으며 돌로 된 창살이 박혀 있었다. 비바람에 닳기는 했지만 형태는 온전했다. 하지만 창틀이 비어 있는 것으로 보아, 창문이 없어진 지 꽤 오래된 것이 분명했다. 나는 돌벽 뒤로 몸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밖을 살폈다.

창문 밖으로 드라큘라 백작의 머리가 불쑥 나타났다. 얼굴까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목의 형태와 등과 팔의 움직임만으로도 그가 백작임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그동안 수없이 관찰할 기회가 있었던 그 손을 내가 잘못 알아볼 리 없었다. 처음에는 그저 흥미롭고 약간은 즐겁기까

지 했다. 죄수가 된 처지에서는 아주 사소한 일조차 얼마나 큰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백작의 온몸이 창문 밖으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내 감정은 혐오와 공포로 뒤바뀌었다. 그는 망토를 커다란 날개처럼 펼친 채, 얼굴을 아래로 향하고 그 끔찍한 심연을 향해 성벽을 타고 기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달빛이 만들어낸 착각이거나 그림자가 일으킨 기묘한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눈을 뗄 수 없었고, 그것은 결코 환각이 아니었다. 백작의 손가락과 발가락이 돌의 모서리를 움켜쥐는 것이 보였다. 오랜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 모르타르가 다 깎여 나간 돌들이었다. 그는 벽에 붙어 이동하는 도마뱀처럼, 돌의 돌출된 부분과 울퉁불퉁한 면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꽤 빠른 속도로 아래를 향해 내려갔다.

도대체 이 자는 어떤 인간이란 말인가, 아니면 인간의 형상을 한 어떤 괴물이란 말인가? 이 끔찍한 장소가 주는 공포가 나를 집어삼키는 기분이다. 나는 두렵다. 형언할 수 없는 공포가 엄습한다. 탈출할 길은 보이지 않는다. 감히 떠올리기조차 두려운 공포가 나를 사방에서 에워싸고 있다.

* * * * *

5월 15일.

드라큘라 백작이 그 도마뱀 같은 모습으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다시 한번 목격했다. 백작은 옆으로 비스듬히 몸을 틀며 아래로 내려갔는데, 한 100피트쯤 아래쪽이자 왼쪽으로 꽤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백작은 어느 구멍이나 창문 속으로 사라졌다. 백작의 머리가 보이지 않게

되자, 나는 더 자세히 보려고 몸을 밖으로 내밀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거리가 너무 멀어 제대로 된 시야를 확보할 수 없었다. 이제 백작이 성을 떠났음을 직감한 나는, 지금까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 곳들을 탐색할 기회로 삼기로 했다.

나는 방으로 돌아가 등불을 들고 모든 문을 확인했다. 예상대로 문들은 모두 잠겨 있었고, 자물쇠들은 비교적 새것이었다. 나는 처음 들어왔던 홀로 이어지는 돌계단을 따라 내려갔다. 빗장은 어렵지 않게 뒤로 당겨 풀 수 있었고 커다란 사슬도 걸쇠에서 빼낼 수 있었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열쇠는 어디에도 없었다! 열쇠는 분명 백작의 방에 있을 것이다. 백작의 방 문이 열리는지 잘 지켜보다가, 열쇠를 손에 넣어 탈출할 기회를 노려야겠다.

나는 여러 계단과 통로를 샅샅이 조사하며 그곳에 연결된 문들을 일일이 확인했다. 홀 근처에 있는 작은 방 한두 개는 열려 있었지만, 세월의 먼지가 쌓이고 좀이 먹은 낡은 가구들 외에는 볼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다 마침내 계단 꼭대기에서 문 하나를 발견했다. 잠겨 있는 듯 보였으나 힘을 주어 밀자 약간 움직였다. 더 세게 밀어보니 사실 잠긴 것이 아니었다. 경첩이 다소 내려앉아 무거운 문이 바닥에 닿아 있어 저항이 생겼던 것뿐이었다.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온 힘을 다해 문을 밀어붙였고, 마침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내가 들어온 곳은 이전에 알던 방들보다 더 오른쪽으로 치우친 성의 별관이었으며, 층수도 한 층 더 낮았다. 창밖을 보니 이 방들은 성의 남

쪽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었고, 맨 끝방의 창문은 서쪽과 남쪽 양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남쪽과 서쪽 양쪽 모두에 거대한 절벽이 있었다. 성은 거대한 바위 모퉁이에 세워져 있어서 세 면이 난공불락이나 다름없었다. 투석기나 활, 혹은 화포가 닿을 수 없는 곳에 커다란 창문들을 배치함으로써, 방어해야 하는 위치에서는 불가능했을 채광과 안락함을 확보한 구조였다.

서쪽으로는 거대한 계곡이 펼쳐져 있었고, 그 너머 멀리에는 험준하고 들쭉날쭉한 산맥들이 봉우리 위에 봉우리를 쌓은 듯 솟아 있었다. 가파른 암벽에는 마가목과 가시나무들이 바위틈과 갈라진 틈새에 뿌리를 박은 채 자라나 있었다. 이곳은 예전에 귀부인들이 머물던 구역임이 분명했다. 가구들이 지금까지 본 그 어떤 것보다 훨씬 안락한 분위기를 풍겼기 때문이다. 창문에는 커튼이 없었으나, 다이아몬드 모양의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노란 달빛 덕분에 색채까지 선명히 보였다. 달빛은 온 사방에 내려앉은 두터운 먼지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세월과 좀이 남긴 흔적을 어느 정도 가려주었다.

눈부신 달빛 아래서 내 등불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듯했지만, 그래도 등불을 챙겨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에는 심장을 얼어붙게 하고 신경을 떨리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고독이 감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드라큘라의 존재 때문에 증오하게 된 방에서 혼자 지내는 것보다는 나았다.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쓰자, 이내 차분하고 고요한 평온함이 찾아왔다.

나는 지금 작은 오크 나무 탁자에 앉아 있다. 옛 시절, 아마도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깊은 상념에 잠겨 수줍게 얼굴을 붉히며 서툰 글씨로 연애편지를 쓰던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지난번 일기를 덮은 이후 일어난 모든 일을 속기법으로 기록하고 있다. 더없이 19세기다운 현대적인 방식이다. 하지만 내 감각이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면, 옛 시대는 단순한 '현대성' 따위로는 결코 죽일 수 없는 그들만의 힘을 지니고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지니고 있다.

* * * * *

나중에: 5월 16일 아침.

신이시여, 제 정신을 지켜주소서. 제가 이 지경까지 몰렸나이다. 안전이란 단어와 안전할 것이라는 확신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 있는 동안 제가 바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내가 미치지 않는 것, 아니, 어쩌면 이미 미쳐버린 것일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제발 미치지 않게 해달라는 것뿐입니다.

만약 제가 제정신이라면, 이 증오스러운 곳에 도사린 그 온갖 추악한 존재들 중에서 드라큘라 백작이 내게 가장 덜 두려운 존재라는 사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미칠 것 같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안전을 기약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합니다. 비록 그것이 제가 백작의 목적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동안에만 허락되는 일일지라도 말입니다.

위대한 신이시여! 자비로운 신이시여! 제발 마음을 진정시켜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미쳐버릴 것만 같습니다. 그동안 저를 혼란

스럽게 했던 몇 가지 일들에 대해 새로운 깨달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셰익스피어가 햄릿의 입을 빌려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그 진의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내 수첩! 어서, 내 수첩을 가져와! 기록해 두어야 해."

지금은 내 정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만 같다. 거대한 충격이 닥쳐와 결국 모든 것이 파멸로 치달을 것만 같은 기분이다. 나는 마음의 안식을 찾으려 일기장을 펼친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하는 이 습관이, 요동치는 내 마음을 달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당시에도 백작의 그 기묘한 경고는 나를 겁먹게 했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을 다시 떠올려 보니 그때보다 더 큰 공포가 밀려온다. 앞으로 그는 나를 무섭게 옭아매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나는 감히 그것을 의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할 것이다!

일기에 기록을 마친 뒤, 다행히 수첩과 펜을 주머니에 다시 잘 넣어 두자 졸음이 몰려왔다. 백작의 경고가 머릿속을 스쳤지만, 나는 오히려 그 경고를 어기는 데서 묘한 즐거움을 느꼈다. 잠기운이 밀려왔고, 그 뒤를 따르는 고집스러움도 함께 찾아왔다. 부드러운 달빛은 마음을 달래주었고, 창밖으로 펼쳐진 광활한 풍경은 나에게 상쾌한 해방감을 선사했다. 나는 오늘 밤, 우울한 기운이 감도는 그 방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대신 이곳에서 잠을 청하기로 했다. 아주 오래전, 가혹한 전쟁터로 떠난 정인들을 그리워하며 여인들이 앉아 노래를 부르고 달콤한 삶을 누리던 바로 그곳에서 말이다. 나는 구석에 있던 커다란 긴 의자를 옮겨 놓았다. 누웠을 때 동쪽과 남쪽의 아름다운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말이다. 먼지 따위는 생각지도 않고 개의치 않은 채, 나는 잠을 청하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분명 잠이 들었을 것이다. 그러길 바라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다. 뒤이어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도 생생했기 때문이다. 너무나 생생해서, 지금 이렇게 아침의 밝고 환한 햇살 아래 앉아 있는 나는 그 모든 것이 그저 꿈이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혼자가 아니었다. 방 안은 내가 처음 들어왔을 때와 다를 바 없이 그대로였다. 눈부신 달빛 아래 바닥을 내려다보니, 오랫동안 쌓여 있던 먼지를 헤집으며 내가 남긴 발자국이 선명하게 보였다. 내 맞은편 달빛 속에는 세 명의 젊은 여인이 서 있었다. 옷차림과 몸가짐으로 보아 숙녀들이 분명했다. 그들을 처음 보았을 때, 나는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 달빛이 그들의 등 뒤에서 비치고 있었음에도, 바닥에는 그림자가 전혀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인들은 내 곁으로 다가와 한동안 나를 응시하더니, 자기들끼리 무언가 속삭였다. 두 명은 머리가 검고, 백작처럼 우뚝 솟은 매부리코를 지녔으며, 크고 어두우면서도 꿰뚫는 듯한 눈동자가 창백한 노란빛 달과 대비되어 마치 붉은빛을 띠는 듯했다. 나머지 한 명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금발의 여인이었다. 그녀는 풍성하고 물결치는 금발을 가졌으며, 눈동자는 연한 사파이어처럼 빛났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았다. 어떤 몽환적인 공포와 연결된 기억이었지만, 당장은 어떻게, 어디서 보았는지 떠오르지 않았다. 세 여인 모두의 치아는 눈부시게 하얘서, 관능적인 붉은 입술과 대비되어 진주처럼 빛났다. 그들에게는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갈망을 느끼게 하면서도 동시

에 죽음과도 같은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무언가 말이다. 나는 그 붉은 입술로 나에게 입을 맞춰주기를 바라는 사악하고도 뜨거운 욕망을 가슴 깊이 느꼈다. 언젠가 미나가 이 글을 읽고 상처를 받을지도 모르니 이런 내용을 적어두는 것은 좋지 않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다. 여인들은 서로 속삭이더니 이내 세 명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은빛처럼 맑고 음악적인 웃음소리였으나, 그 소리는 인간의 부드러운 입술에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차갑고 딱딱했다. 마치 교묘한 손길로 연주하는 유리잔의, 견디기 힘들 정도로 찌릿하게 달콤한 소리 같았다. 금발의 여인이 요염하게 고개를 저었고, 나머지 두 여인이 그녀를 부추겼다. 그 중 한 명이 말했다.

"어서 가세요! 당신이 먼저 가시면 우리가 뒤따르겠습니다. 시작할 권리는 당신에게 있으니까요." 또 다른 여인이 덧붙였다.

"그는 젊고 강해요. 우리 모두를 위한 입맞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나는 황홀한 기대감에 휩싸여, 눈꺼풀 아래로 눈을 가늘게 뜨고 가만히 누워 있었다. 금발의 소녀가 다가오더니 내 위로 몸을 굽혔다. 그녀의 숨결이 내 피부에 닿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다. 그 숨결은 한편으로는 꿀처럼 달콤했다. 그녀의 목소리처럼 신경을 짜릿하게 자극하는 달콤함이었다. 하지만 그 달콤함 밑바닥에는 비릿한 불쾌함이 깔려 있었다. 마치 피 냄새를 맡을 때처럼 말이다.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것조차 두려웠지만, 나는 눈을 뜨고 속눈썹 사이로 밖을 살폈다. 그 소녀는 내 위로 무릎을 꿇고 몸을 굽힌 채, 그

저 나를 탐욕스럽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몸짓에는 전율과 혐오를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의도적인 관능미가 서려 있었다. 그녀가 목을 뒤로 젖히자 마치 짐승처럼 입술을 핥았는데, 달빛 아래서 선홍빛 입술과 붉은 혀가 하얗고 날카로운 이빨을 핥을 때마다 번들거리는 습기가 그대로 보였다. 그녀의 입술이 내 입과 턱의 범위를 벗어나 점점 아래로 내려가더니, 마침내 내 목덜미를 물어뜯으려는 듯 보였다.

그때 그녀가 동작을 멈췄다. 그녀가 이빨과 입술을 핥는 혀의 질척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목에는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느껴졌다. 이윽고 누군가 간지럽히려고 손을 가까이 가져올 때 살갗이 움찔거리는 것처럼, 내 목의 피부도 따끔거리기 시작했다. 간질거리는 손길이 점점, 점점 더 가까워질 때의 그 느낌이었다. 예민한 목의 피부에 닿는 부드럽고 떨리는 입술의 감촉, 그리고 날카로운 두 이빨이 살짝 닿은 채 머뭇거리는 딱딱한 압박감이 느껴졌다. 나는 나른한 황홀경 속에서 눈을 감고 기다렸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는 가운데, 그저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하지만 그 순간, 번개처럼 또 다른 감각이 나를 휩쓸고 지나갔다. 백작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느껴졌고, 마치 그가 거대한 분노의 폭풍에 휩싸여 있는 듯한 기운이 전해졌다. 나도 모르게 눈을 뜨자, 백작의 강인한 손이 그 아름다운 여인의 가느다란 목을 움켜쥐고 거인의 힘으로 뒤로 잡아당기는 모습이 보였다. 여인의 푸른 눈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하얀 이는 격분하여 맞부딪혔으며, 희던 뺨은 격정으로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백작은! 지옥의 악마들에게서조차 이토록 엄청난 진노와 광기를 본 적이 없었다. 그의 눈은 말 그대로 이글거리고 있

었다. 눈 속에서 번뜩이는 붉은 빛은 마치 눈동자 뒤편에서 지옥의 불길이 타오르는 듯 섬뜩했다.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고, 얼굴의 윤곽은 팽팽하게 당겨진 철사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콧등 위에서 맞닿은 짙은 눈썹은 마치 달궈진 금속 덩어리가 들썩이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팔을 거칠게 휘둘러 여인을 내팽개치더니, 마치 다른 이들을 물리치려는 듯 그들에게 손짓했다. 그것은 내가 예전에 그가 늑대들을 쫓아낼 때 보았던 것과 똑같은 위압적인 몸짓이었다. 그는 낮게, 거의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였지만 공기를 가르고 방 안 전체에 울려 퍼지는 음성으로 말했다.

"감히 너희 중 누구라도 그에게 손을 대다니! 내가 금지했거늘, 어떻게 감히 그를 쳐다볼 수 있단 말이냐! 모두 물러가라, 내 분명히 말한다! 이 남자는 내 것이다! 그에게 함부로 참견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내 상대하게 될 것이다."

그때, 그 금발의 소녀가 외설스럽고도 요염한 웃음을 터뜨리며 그에게 대답하려 몸을 돌렸다.

"당신은 단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랑이라는 걸 전혀 모르잖아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다른 여자들도 한데 어우러졌다. 방 안에는 메마르고 냉혹하며 영혼조차 느껴지지 않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가 어찌나 기괴한지 듣고 있자니 정신이 아득해질 지경이었다. 마치 악마들이 즐거워하는 소리 같았다. 그때 드라큘라 백작이 내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이내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입을 열었다.

"그래요, 나도 사랑할 줄 압니다. 여러분도 지난 일을 떠올려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좋습니다, 이제 약속하죠. 내가 이 사람에게 볼 일을 다 마치고 나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입맞추게 해 주겠습니다. 자, 이제 가세요! 어서요! 나는 그를 깨워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요."

"오늘 밤은 저희에게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그들 중 한 여자가 낮게 웃으며, 백작이 바닥에 던져놓은 가방을 가리키며 말했다. 가방 안에는 마치 살아 있는 무언가가 들어 있는 듯 꿈틀거림이 일었다. 백작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여자 중 한 명이 앞으로 달려 나가 가방을 열었다.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면, 가방 안에서 반쯤 숨이 막힌 아이가 내뱉는 듯한 헐떡임과 낮은 울음소리가 새어 나왔다. 여자들이 가방 주위로 모여들었고, 나는 공포에 질려 굳어버렸다. 그러나 내가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그들은 사라져버렸고, 그 끔찍한 가방도 함께 사라졌다.

그들 근처에는 문이 없었고, 내가 알아채지 못한 채 내 곁을 지나쳐 갔을 리도 없었다. 여자들은 그저 달빛 속으로 스르르 녹아들더니 창문 너머로 빠져나간 듯했다.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 창밖으로 희미하고 어두운 형체들이 잠시 보였기 때문이다.

그때 공포가 나를 덮쳤고, 나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제IV장

조너선 하커의 일기 — 계속

내 침대에서 깨어났다. 만약 꿈이 아니었다면, 드라큘라 백작이 나를 이곳으로 옮겨다 놓은 것이 틀림없다. 이 문제에 대해 스스로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내려보려 애썼지만, 확실한 답을 얻을 수는 없었다. 물론 몇 가지 작은 증거들은 있었다. 내 옷이 평소 내 습관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갈하게 접혀 옆에 놓여 있었다는 점 같은 것들 말이다. 시계 태엽도 감겨 있지 않았다. 나는 잠들기 직전 반드시 시계 태엽을 감는 것을 철저한 습관으로 삼고 있는데 말이다. 이 외에도 비슷한 세부 사항들이 여럿 있었다. 하지만 이런 것들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다. 그저 내 정신 상태가 평소와 달랐던 탓일 수도 있고, 어떤 이유에서든 내가 분명히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야만 한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만약 백작이 나를 이곳으로 옮겨 옷을 벗겼다 하더라도 서둘러 일을 처리한 모양이라는 것이다. 내 주머니들이 그대로 무사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일기를 발견했다면 백작은 이를 참지 못하고 가져가거나 없애버렸을 것이

다. 그에게 이 일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수께끼였을 테니까. 방 안을 둘러보니, 그동안 공포로 가득했던 이 공간이 이제는 일종의 안식처처럼 느껴진다. 내 피를 빨아먹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기다리고 있는—그 끔찍한 여인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기 때문이다.

* * * * *

5월 18일. — 진실을 반드시 알아야만 했기에, 낮에 다시 그 방을 보러 내려갔다. 계단 꼭대기에 있는 문 앞에 도착하니 문이 닫혀 있었다. 문이 문틀에 아주 세게 부딪힌 탓에 나무 부분이 일부 갈라져 있었다. 자물쇠의 빗장은 걸려 있지 않았지만,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다. 꿈이 아니었던 것 같아 두렵다. 이 추측을 바탕으로 행동해야겠다.

* * * * *

5월 19일.

나는 분명히 덫에 걸리고 말았다. 어젯밤 드라큘라 백작은 더없이 부드러운 어조로 내게 편지 세 통을 써 달라고 요청했다. 첫 번째 편지는 이곳에서의 업무가 거의 끝나가니 며칠 안에 집을 향해 떠난다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 편지는 편지를 쓴 시점으로부터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출발한다는 내용이었으며, 세 번째 편지는 성을 떠나 비스트리츠에 도착했다는 내용이었다. 마음 같아서는 반항하고 싶었지만, 지금처럼 내가 그의 손아귀에 완전히 붙잡혀 있는 상황에서 백작에게 대놓고 맞서는 것은 미친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거절한다는 것은 곧 그의 의심을 사고 분노를 부르는 일이 될 터였다. 그는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알

고 있으니, 내가 자신에게 위험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나를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지금 내게 남은 유일한 기회는 시간을 끄는 것뿐이다. 그러다 보면 탈출할 만한 기회가 생길지도 모른다. 그가 그 아름다운 여인을 거칠게 뿌리칠 때 드러냈던 그 끓어오르는 분노가 그의 눈 속에서도 언뜻 비쳤다. 백작은 이곳 우편이 드물고 불확실하니 지금 편지를 써 두면 친구들의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혹시 내가 이곳에 더 머물 사정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뒤의 편지들은 비스트리츠에서 적절한 때까지 보관해 두었다가 보내지 않도록 취소시키겠노라고 너무도 미덥게 다짐했기에, 오히려 그의 뜻을 거스르는 편이 새로운 의심을 사는 일이 될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일단 그의 뜻에 따르는 척하며 편지에 날짜를 언제로 적어야 할지 물었다. 그는 잠시 계산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첫 번째는 6월 12일, 두 번째는 6월 19일, 그리고 세 번째는 6월 29일이어야 합니다."

이제 내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것 같다. 신이시여, 저를 도우소서!

* * * * *

5월 28일.

탈출할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고향에 소식을 전할 방법은 있을 것 같다. 서가니(Szgany) 무리가 성에 도착해 안뜰에 진을 쳤다. 이 서가니들은 집시들이다. 내 수첩에 이들에 관한 기록을 남겨두었다. 이들

은 전 세계의 일반적인 집시들과 혈연관계이긴 하지만, 이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부류다. 헝가리와 트란실바니아에는 이들이 수천 명이나 살고 있는데, 거의 법의 테두리 밖에 놓여 있다. 이들은 보통 권세 있는 귀족이나 보야르(boyar)에게 소속되어 그들의 이름을 빌려 자신들을 부른다. 두려움을 모르는 이들은 미신 외에는 종교도 없으며, 오직 자신들만의 로마니어를 사용한다.

집에 편지를 몇 통 써서 부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안면을 트기 위해 이미 창밖으로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 두었다. 사람들은 모자를 벗고 정중히 인사를 건네며 여러 몸짓을 해 보였으나, 그들의 말뿐만 아니라 그 몸짓조차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 * * * *

편지들을 다 썼다. 미나의 편지는 속기체로 되어 있어, 호킨스 씨에게 미나와 소통해 달라고 부탁해 두었다. 미나에게는 내 상황을 설명했지만, 내가 짐작만 하고 있는 이 끔찍한 일들까지는 말하지 않았다. 내 속마음을 전부 털어놓았다가는 미나가 충격을 받아 죽을지도 모른다. 만약 이 편지들이 전달되지 않더라도, 드라큘라 백작은 아직 나의 비밀이나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의 범위를 알지 못할 것이다.

* * * * *

편지를 건넸다. 창살 사이로 금화 한 닢과 함께 편지들을 던졌고, 부쳐 달라고 할 수 있는 한 몸짓을 해 보였다. 편지를 받아 든 남자는 그것들을 가슴에 꼭 품고 절을 하더니, 모자 속에 집어넣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이 전부였다. 나는 서재로 몰래 돌아와 책을 읽기 시작했다. 백작이 들어오지 않기에 우선 이렇게 글을 남긴다.

* * * * *

백작이 왔다. 그는 내 옆에 앉더니, 편지 두 통을 펼치며 더없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집시들이 가져다준 것이라네. 어디서 온 건지는 모르겠으나, 당연히 잘 챙겨두겠네. 자, 보게나!" — 그는 편지를 살펴본 듯했다 — "하나는 자네가 내 친구 피터 호킨스 앞으로 보낸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는 봉투를 열다가 그 안에 적힌 기이한 기호들을 발견했다. 순간 그의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졌고, 눈빛은 사악하게 번뜩였다. "다른 하나는 흉악한 물건이군. 우정과 환대에 대한 모욕이야! 서명도 없군. 그렇다면야,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일세." 그러고는 편지와 봉투를 차분히 램프 불꽃에 갖다 댄 채, 모두 타 없어질 때까지 그대로 들고 있었다. 그런 다음 그는 말을 이어갔다.

"호킨스에게 보내는 편지는 자네 것이니, 물론 그대로 부쳐 주겠네. 자네의 편지는 내게 신성한 것이지. 친구여, 모르고 봉인을 뜯었으니 부디 양해해 주게. 다시 봉해 주지 않겠나?"

그는 내게 편지를 내밀고는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깨끗한 봉투 한 장을 건넸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그저 새 봉투에 수신인을 옮겨 적어 말없이 그에게 건넬 수밖에 없었다. 그가 방을 나가자 문이 부드

럽게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내가 다가가 문을 당겨 보았으나, 문은 이미 잠겨 있었다.

한두 시간쯤 지났을까, 드라큘라 백작이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소파에서 잠이 들었던 것이다. 백작은 매우 정중하고 쾌활한 태도를 보였다. 내가 자고 있는 것을 본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자, 친구여, 피곤한가? 어서 침대로 가게. 그게 가장 확실한 휴식일 테니. 오늘 밤은 내가 할 일이 많아서 자네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지 못할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부디 깊이 잠들 수 있기를 바라네." 나는 내 방으로 가서 침대에 누웠다. 이상하게도 꿈 한 조각 꾸지 않고 잠이 들었다. 절망에는 절망만의 고요함이 있는 법이다.

* * * * *

5월 31일.

오늘 아침 잠에서 깨어난 나는 가방에서 종이와 봉투를 몇 장 꺼내 주머니에 넣어두기로 했다. 혹시라도 글을 쓸 기회가 생기면 바로 적어두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또다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또다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다!

종이 한 장조차 남지 않았다. 철도와 여행에 관한 모든 기록과 메모, 신용장까지 전부 사라졌다. 성 밖으로 나갔을 때 내게 도움이 될 만한 물건은 그 무엇도 남아 있지 않았다. 나는 한동안 앉아 깊은 생각에 잠

겼다. 그러다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라, 내가 둔 여행용 가방과 옷을 넣어둔 옷장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내가 입고 왔던 정장도, 오버코트와 담요도 사라져 있었다. 어디에서도 그것들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이것은 분명 악당이 꾸민 새로운 수작 같았다.

* * * * *

6월 17일.

오늘 아침,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머리를 싸매고 고민에 잠겨 있을 때였다. 안뜰 너머 바위투성이 길 위로 채찍 소리와 말발굽이 땅을 두드리고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창가로 달려갔다. 마당 안으로 커다란 짐마차 두 대가 들어오고 있었다. 마차마다 튼튼한 말 여덟 마리가 끌고 있었고, 두 마리씩 짝을 지은 말의 앞에는 슬로바키아인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넓은 모자를 쓰고 못이 박힌 커다란 벨트를 맸으며, 지저분한 양가죽 옷에 장화를 신고 있었다. 손에는 긴 지팡이도 들고 있었다. 나는 문을 열고 내려가 중앙 홀을 통해 그들과 합류할 생각으로 문으로 달려갔다. 그쪽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시 한번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다. 내 방문이 밖에서 잠겨 있었다.

나는 창가로 달려가 그들에게 소리쳤다. 그들은 멍한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며 손가락질을 했다. 바로 그때, 서가니의 '헤트만'이 밖으로 나왔다. 그는 사람들이 내 창문을 가리키는 것을 보고는 무언가 말을

내뱉었고, 그러자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부터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가련하게 울부짖으며 고통스럽게 애원해도, 그들은 나를 쳐다보지조차 않았다. 그들은 단호하게 고개를 돌려버렸다.

짐수레에는 굵은 밧줄 손잡이가 달린 커다란 사각형 상자들이 실려 있었다. 슬로바키아 사람들이 상자를 아주 쉽게 다루는 모습이나, 거칠게 옮길 때 울리는 빈 소리로 보아 안은 비어 있는 것이 분명했다. 짐을 모두 내려 마당 한구석에 커다란 더미로 쌓아 두자, 서가니는 슬로바키아 사람들에게 얼마간의 돈을 건넸다. 슬로바키아 사람들은 행운을 빌며 돈에 침을 뱉고는, 각자 나른한 걸음으로 자기 말 머리 쪽으로 향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멀어지는 채찍 소리가 점차 잦아드는 것이 들렸다.

* * * * *

6월 24일, 새벽이 오기 전.

어젯밤 백작은 일찍 자리를 떠나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나는 용기를 내자마자 곧장 나선형 계단을 뛰어 올라가, 남쪽으로 난 창밖을 내다보았다. 무언가 일이 벌어지고 있는 듯하여 백작의 움직임을 살피기로 했다. 서가니들이 성 안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어떤 작업을 하고 있다. 그것은 분명하다. 가끔 멀리서 곡괭이와 삽질하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이다. 그 일이 무엇이든, 분명 어떤 잔혹한 악행을 위한 것임에 틀림없다.

창가에 머문 지 채 30분이 되지 않았을 무렵, 백작의 창문에서 무언가 밖으로 나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몸을 뒤로 물린 채 주의 깊게 지켜보았고, 한 남자가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목격했다. 그가 내가 이곳으로 여행하며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다시금 충격에 휩싸였다. 게다가 그는 여인들이 가져가는 것을 보았던 그 끔찍한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었다.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그리고 왜 내 옷을 입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새로운 악행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다고 믿게끔 의도하고 있었다. 내가 마을이나 촌락을 돌아다니며 직접 편지를 부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그곳에 있었다는 증거를 남기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저지르는 모든 악행을 현지 사람들이 내 탓으로 돌리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나는 이곳에 갇혀 그야말로 죄수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었는데, 범죄자에게조차 주어지는 법적 보호나 최소한의 위안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

백작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한동안 창가에 끈질기게 붙어 앉아 있었다. 그러다 문득 달빛이 내리쬐는 빛줄기 속에 기묘하고 작은 입자들이 떠다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들은 아주 미세한 먼지 알갱이 같았는데, 빙글빙글 맴돌다가 성운처럼 무리를 이루며 모여들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차분해지며 묘한 평온함이 밀려왔다. 나는 창틀에 몸을 기대어 좀 더 편안한 자세를 잡았다. 공중에서 유영하는 그 움직임을 좀 더 온전히 즐기고 싶었기 때문이다.

무언가가 나를 벌떡 일으켜 세웠다. 저 멀리 아래쪽 계곡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낮고 애처로운 개들의 울음소리였다. 계곡은 시야에 들어오지 않아 보이지 않았다. 그 소리는 귓가에 더욱 크게 울려 퍼지는 듯했고, 달빛 아래 춤추던 먼지 덩어리들은 그 소리에 맞춰 새로운 형상을 갖추며 떠다녔다. 나는 본능이 부르는 어떤 부름에 깨어나려 애쓰는 기분이 들었다. 아니, 내 영혼 자체가 몸부림치고 있었으며, 희미하게 남아 있는 감각들이 그 부름에 응답하려 발버둥 치고 있었다. 나는 최면에 걸리고 있었다! 먼지들은 점점 더 빠르게 춤을 추었고, 달빛은 나를 지나 저 너머의 어둠 속으로 스며들며 파르르 떨리는 듯했다. 먼지들은 점점 더 많이 모여들더니, 마치 희미한 유령의 형상을 띠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다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온전한 정신을 되찾은 나는 비명을 지르며 그곳에서 도망쳤다. 달빛 속에서 서서히 실체를 드러내던 그 유령 같은 형상들은, 바로 나를 파멸로 몰아넣을 세 명의 유령 같은 여인들이었다. 나는 도망쳐 내 방으로 돌아왔다. 달빛도 들지 않고 등불이 밝게 빛나고 있는 내 방에 들어서자 그제야 조금 안도감이 들었다.

두어 시간이 흘렀을 때, 드라큘라 백작의 방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날카로운 비명 같기도 했으나 이내 급히 억눌린 듯한 소리였다. 그러고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깊고도 두려운 정적이 흘렀고, 나는 그 적막함에 몸서리쳤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는 가운데 문을 열어보려 했으나, 나는 이미 감옥에 갇힌 신세였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앉아 있는 동안 밖의 안뜰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한 여인이 고통에 겨워 내지르는 비명이었다. 나는 창가로 달려가 창문을 밀어 올리고 창살 사이로 밖을 살폈다. 그곳에는 정말로 머리가 산발이 된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마치 숨이 가빠 괴로운 사람처럼 두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다. 여인은 성문 모퉁이에 몸을 기댄 채였다. 창가에 비친 내 얼굴을 본 여인은 앞으로 달려들며, 위협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소리쳤다.

"괴물아, 내 아이를 돌려줘!"

그녀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더니, 두 손을 치켜든 채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목소리로 똑같은 말을 내뱉었다. 그러고는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가슴을 쥐어치며, 걷잡을 수 없는 격정 속에 자신을 내던졌다. 마침내 그녀는 앞으로 몸을 던졌다.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맨손으로 문을 두드리는 거친 소리만은 똑똑히 들려왔다.

머리 위 높은 곳, 아마도 탑 위에서 드라큘라 백작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칠고 금속성 섞인 속삭임이었다. 그 부름에 응하듯 사방에서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채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둑이 터져 쏟아져 나오는 물줄기처럼 늑대 무리가 안뜰의 넓은 입구를 통해 밀려들어왔다.

여자의 비명은 들리지 않았고, 늑대들의 울부짖음도 금세 잦아들었다. 머지않아 늑대들은 입술을 핥으며 하나둘씩 흩어져 사라졌다.

그녀를 가엾게 여길 수 없었다.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는 알고 있었기에, 그녀는 차라리 죽는 편이 나았다.

이제 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밤과 어둠, 그리고 공포가 뒤섞인 이 끔찍한 존재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단 말인가?

* * * * *

6월 25일, 아침.

밤의 고통을 겪어보기 전까지는 아침이 얼마나 달콤하고, 눈과 마음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오늘 아침, 태양이 높이 떠올라 창문 맞은편에 있는 거대한 성문의 꼭대기를 비추었을 때, 빛이 닿은 그 높은 곳은 마치 노아의 방주에서 내려온 비둘기가 내려앉은 자리처럼 보였다. 온기에 녹아내리는 안개 옷을 벗어 던지듯, 내 안의 공포도 씻은 듯이 사라졌다. 대낮의 용기가 나를 붙들고 있을 때,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어젯밤, 날짜를 미리 적어둔 편지 중 하나를 부쳤다. 내 존재의 흔적조차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그 치명적인 편지들의 시작이었다.

생각하지 말자. 행동해야 한다!

나를 괴롭히거나 위협하고, 어떤 식으로든 위험과 공포에 빠뜨린 것은 언제나 밤이었다. 나는 아직 백작을 대낮에 본 적이 없다. 다른 이들이 깨어 있을 때 그는 잠들고, 다른 이들이 잠든 사이에 그는 깨어 있는

것일까? 그의 방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다. 문은 언제나 잠겨 있어 내가 들어갈 길은 없다.

방법은 있다. 감히 그 길을 택할 용기만 있다면 말이다. 그의 육신이 간 곳으로 다른 육신이 가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나는 그가 창문에서 기어 나오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그렇다면 나 역시 그를 따라 창문으로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지금 내 처지는 그보다 훨씬 더 절박하다. 나는 위험을 감수하겠다. 최악의 결과라 해도 죽음뿐이다. 인간의 죽음은 짐승의 죽음과는 다르며, 두려운 사후 세계가 여전히 내게 열려 있을지도 모른다. 신이시여, 이 과업을 수행하는 저를 도우소서! 만약 내가 실패한다면, 미나, 안녕. 나의 충실한 친구이자 제2의 아버지였던 분, 안녕. 모두들 안녕히.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나, 안녕!

* * * * *

같은 날, 나중에.

나는 온 힘을 다했고, 신의 도움으로 무사히 이 방으로 돌아왔다. 이제 모든 세부 사항을 차례대로 기록해야 한다. 용기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곧장 남쪽 창가로 향했다. 그러고는 건물 외벽을 따라 둘러져 있는 좁은 돌출 난간 위로 곧장 몸을 나갔다. 돌들은 크고 거칠게 깎여 있었으며, 세월이 흐르며 돌 사이의 모르타르는 다 씻겨 내려간 상태였다. 나는 장화를 벗고 그 절박한 길 위로 발을 내디뎠다. 갑작스럽게 마주할 아찔한 깊이 때문에 정신을 잃을까 봐 한 번은 아래를 내려다보았으나, 그 뒤로는 시선을 돌려 아래를 보지 않았다. 나는 드라큘라 백작

의 창문이 어느 방향에 있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꽤 잘 알고 있었기에, 기회가 닿는 대로 최대한 그곳을 향해 움직였다. 어지러움은 느껴지지 않았다. 아마 너무 흥분한 탓인 듯했다. 창틀에 올라서서 창문을 들어 올리려 애쓰기까지 걸린 시간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짧게 느껴졌다. 하지만 몸을 굽혀 발부터 창문 안으로 밀어 넣을 때는 온몸이 떨릴 정도로 불안했다. 그러고 나서 백작을 찾으려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놀랍고도 다행스러운 사실을 발견했다. 방이 비어 있었다! 방 안에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듯한 기묘한 물건들만 겨우 놓여 있었다. 가구들은 남쪽 방에 있는 것들과 비슷한 양식이었으나 모두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열쇠를 찾아보았지만 자물쇠에는 없었고,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내가 발견한 유일한 것은 방 한구석에 쌓인 거대한 금더미였다. 로마, 영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리스, 터키의 화폐 등 온갖 종류의 금화가 마치 땅속에 오래 묻혀 있었던 것처럼 먼지 막에 싸여 있었다. 내가 눈여겨본 것 중 삼백 년보다 오래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보석이 박힌 것들도 있었으나, 모두 오래되고 얼룩진 사슬과 장신구들이었다.

방 한쪽 구석에는 묵직한 문이 하나 있었다. 나는 그 문을 열어보았다. 방 열쇠도, 내가 간절히 찾던 바인 바깥쪽 문의 열쇠도 찾을 수 없었기에, 더 살펴보고 확인하지 않으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문은 열려 있었고, 그 너머로 돌로 된 통로가 이어지더니 가파르게 내려가는 원형 계단이 나타났다. 계단은 두꺼운 석조 벽에 난 작은 틈새로 들어오는 빛에만 의지하고 있어 매우 어두웠으므로, 나는 발밑을 조심하며 내려갔다. 계단 끝에는 어두운 터널 같은

통로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죽음의 기운이 서린 병적인 악취가 풍겨왔다. 마치 갓 파헤친 오래된 흙더미에서 나는 냄새 같았다. 통로를 따라 걸어갈수록 냄새는 점점 더 짙고 무겁게 다가왔다. 마침내 살짝 열려 있던 육중한 문을 밀어 열자, 오래된 폐허가 된 예배당이 나타났다. 보아하니 그곳은 묘지로 쓰이던 곳이었다. 지붕은 무너져 있었고, 두 곳에는 지하 묘실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었다. 바닥은 최근에 파헤쳐진 흔적이 있었는데, 흙은 커다란 나무 상자들에 담겨 있었다. 누가 봐도 슬로바키아 사람들이 가져온 상자들이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다른 출구가 있는지 찾아보았으나 어디에도 없었다. 단 하나의 가능성도 놓치지 않기 위해 나는 바닥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다. 영혼이 떨릴 만큼 두려운 일이었지만, 나는 희미한 빛이 간신히 스며드는 지하 묘실 안까지 내려가 보았다. 그중 두 곳의 묘실에 들어가 보았으나 낡은 관의 파편과 먼지 더미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세 번째 묘실에서 나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총 쉰 개나 되는 커다란 상자들 중 하나, 그 안에 갓 파낸 흙더미 위로 백작이 누워 있었다! 그는 죽은 것인지 잠든 것인지 도저히 분간할 수 없었다. 눈은 뜨고 있었으나 돌처럼 굳어 있었고, 그렇다고 죽은 자 특유의 흐릿한 광택이 도는 것도 아니었다. 창백한 뺨에는 생기의 온기가 남아 있었고 입술은 여느 때처럼 붉었다. 하지만 움직임도, 맥박도, 숨결도, 심장 박동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몸을 굽혀 생명의 흔적을 찾아보려 애썼으나 허사였다. 흙냄새가 몇 시간 만에 사라졌을 것을 생각하면 그가 그곳에 누워 있었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을 것이다. 상자 옆에는 여기저기 구멍이 뚫린 덮개가 놓여 있었다. 혹시 그가

열쇠를 몸에 지니고 있지 않을까 싶어 살펴보려 했으나, 그 순간 그 죽은 눈과 마주치고 말았다. 비록 죽은 눈이었지만, 그 눈에는 나를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형언할 수 없는 증오가 서려 있었다. 나는 겁에 질려 그곳을 뛰쳐나왔다. 창문을 통해 드라큘라 백작의 방을 빠져나온 나는 다시 성벽을 타고 기어올라갔다. 내 방으로 돌아온 나는 숨을 몰아쉬며 침대 위로 쓰러졌고,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에 잠기려 애썼다.

* * * * *

6월 29일.

오늘이 마지막 편지를 보낸 날이다. 백작은 그 편지가 진짜임을 입증하려는 듯 조치를 취했다. 그가 내 옷을 입고 지난번과 똑같은 창문으로 성을 나서는 모습을 다시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는 도마뱀처럼 벽을 타고 내려갔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그를 처단할 수 있도록 총이나 치명적인 무기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 어떤 무기도 그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 같아 두려움이 앞선다. 그 기괴한 자매들을 다시 마주할까 겁이 나서,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나는 서재로 돌아와 잠이 들 때까지 책을 읽었다.

백작이 나를 깨웠다. 그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엄숙하고도 무거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친구여, 내일이면 우리는 헤어져야 하네. 자네는 아름다운 영국으로 돌아가고, 나는 다시 일터로 돌아가야 하네. 어쩌면 우리가 다시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일 말일세. 고향으로 보내는 자네의 편지는 이미 발송했네. 내일 나는 이곳에 없겠지만, 자네의 여정을 위한 모든 준비는 마쳐 놓겠네. 아침에는 이곳에서 각자의 일을 처리하러 온 즈가니족과 슬로바키아 사람들이 도착할 걸세. 그들이 떠나고 나면 마차가 자네를 데리러 올 것이네. 그 마차를 타고 보르고 고개로 가서 부코비나에서 비스트리츠로 향하는 역마차를 만나게 될 것이네. 하지만 나는 드라큘라 성에서 자네를 더 오래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네."

나는 그를 의심했고, 그의 진심을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진심이라니! 그런 괴물과 연관된 문장에 '진심'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그 단어를 모독하는 일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오늘 밤에는 왜 갈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말일세, 친애하는 선생. 내 마부와 말들이 지금 다른 임무를 수행하러 나가 있다네."

"하지만 기꺼이 같이 걷겠습니다. 당장 이곳을 벗어나고 싶거든요." 그가 미소 지었다. 부드럽고 매끄러우면서도 악마 같은 미소였다. 그 매끄러운 미소 뒤에 어떤 속셈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나는 직감했다. 그가 말했다.

"그럼 자네 짐은 어쩌고?"

"그건 상관없어요. 나중에 다시 불러오면 되니까요."

백작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고는 어찌나 진실되어 보이던지 나도 모르게 눈을 비비게 만드는, 더없이 다정하고 정중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다.

"영국인들에게는 내 마음을 울리는 격언이 하나 있지요. 그 정신이 우리 보야르(귀족)들의 통치 방식과도 닮아 있어서 말입니다. '오는 손님은 환대하고, 떠나는 손님은 배웅하라.' 자, 나와 함께 갑시다, 젊은 친구. 자네가 원치 않는데 내 집에서 한 시간도 머물게 하지는 않겠네. 비록 자네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나려 하니 내 마음은 슬프지만 말일세. 어서 오게!"

그는 등불을 들고 위엄 있고 진중한 태도로 계단을 내려가 복도를 따라 앞장섰다. 그러다 갑자기 그가 발을 멈추었다.

"들어보게!"

어디선가 수많은 늑대가 울부짖는 소리가 가까이서 들려왔다. 마치 지휘봉 끝에서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음악이 터져 나오듯, 그가 손을 들어 올리자마자 울음소리가 일제히 터져 나온 것만 같았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특유의 위엄 있는 태도로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러고는 육중한 빗장을 밀어내고 무거운 사슬을 풀어낸 뒤, 문을 열기 시작했다.

너무나 놀랍게도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나는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어 주위를 두루 살펴보았지만, 어떤 종류의 열쇠도 찾을 수 없었다.

문이 열리기 시작하자 밖에서 울부짖는 늑대들의 소리가 더욱 커지고 사나워졌다. 문이 열린 틈 사이로, 이빨을 맞부딪치는 붉은 아가리와 뛰어오르며 드러나는 뭉툭한 발톱이 안으로 들이밀어졌다. 나는 그 순간 백작에게 저항해 보아야 소용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런 졸개들을 마음대로 부리는 그를 상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문은 여전히 천천히 열려 갔고, 열린 문틈 사이로는 오직 백작의 몸만이 보였다. 문득 이것이 내 파멸의 순간이자 수단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내가 스스로 자초한 일로 늑대들에게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공포가 엄습했다. 백작에게 걸맞은, 악마적이고도 사악한 계략이었다. 나는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비명을 질렀다.

"문을 닫으세요. 아침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쓰라린 실망감에 북받치는 눈물을 가리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그러자 백작이 강력한 팔을 휘둘러 문을 쾅 닫아버렸다. 육중한 빗장들이 제자리로 밀려 들어가며 텅 빈 복도에 쟁강거리는 소리를 내며 울려 퍼졌다.

우리는 침묵 속에 서재로 돌아왔다. 일 분이나 이 분쯤 지났을까, 나는 내 방으로 향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본 드라큘라 백작의 모습은, 손에 입을 맞춰 내게 작별의 키스를 보내던 장면이었다. 그의 눈에는 승리감에 도취한 붉은 빛이 감돌았고, 그 미소는 지옥에 떨어진 유다조차 자랑스러워할 만큼 사악했다.

방에 들어가 막 누우려던 참이었다. 그때 문밖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 듯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가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다.

내 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분명 드라큘라 백작의 목소리였다.

"물러가라, 물러가! 너희 자리로 돌아가란 말이다! 너희 차례는 아직 오지 않았다. 기다려라! 인내심을 가져라! 오늘 밤은 나의 것이다. 내일 밤은 너희 것이다!"

낮고 달콤한 웃음소리가 물결처럼 일렁였다. 나는 분노에 휩싸여 문을 벌컥 열어젖혔다. 문밖에는 세 명의 무시무시한 여인이 입술을 핥고 있었다. 내가 나타나자 여인들은 모두 기괴한 웃음을 터뜨리며 달아나 버렸다.

방으로 돌아온 나는 무릎을 꿇고 그대로 쓰러졌다. 그렇다면 정말 끝이 이토록 가까이 다가온 것인가? 내일이라니! 내일이라니! 주여, 저를, 그리고 저를 아끼는 이들을 도우소서!

* * * * *

6월 30일, 아침.

이 일기에 적는 글이 내 마지막 기록이 될지도 모르겠다. 새벽이 오기 직전까지 잠을 잤다. 잠에서 깨자마자 나는 무릎을 꿇었다. 죽음이 찾아온다면, 언제든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그를 맞이하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이다.

마침내 공기의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고, 아침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곧이어 반가운 수탉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나는 이제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문을 열고 복도로 달려 나갔다.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으니, 이제 탈출할 수 있었다. 나는 간절함에 떨리는 손으로 쇠사슬을 풀고 육중한 빗장을 밀어젖혔다.

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절망이 나를 덮쳤다. 나는 문을 끌어당기고 또 끌어당겼다. 그 육중한 문이 문틀에서 덜컹거릴 정도로 세차게 흔들었다. 빗장이 걸려 있는 것이 보였다. 백작을 떠난 뒤에 누군가 문을 잠근 것이 분명했다.

그 순간,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 열쇠를 손에 넣어야겠다는 광기 어린 욕망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성벽을 기어올라 드라큘라 백작의 방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백작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내게는 죽음이 차라리 더 나은 선택처럼 느껴졌다. 나는 지체 없이 동쪽 창문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전과 마찬가지로 성벽을 타고 내려가 드라큘라 백작의 방으로 기어 들어갔다. 방은 비어 있었으나, 예상했던 대로였다. 열쇠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지만, 쌓여 있는 금괴들은 그대로 있었다. 나는 구석에 있는 문을 지나 나선형 계단을 내려갔다. 그리고 어두운 통로를 따라 오래된 예배당으로 향했다. 내가 찾는 괴물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는 확실히 알 것 같았다.

커다란 상자는 벽에 바짝 붙은 채 그대로 있었으나, 뚜껑은 못으로 박혀 있지 않고 그저 얹혀만 있었다. 못을 박을 준비를 마친 못들이 제자리에 놓여 있을 뿐이었다. 열쇠를 찾으려면 시신에 손을 뻗어야 한다

는 사실을 알았기에, 나는 뚜껑을 들어 올려 벽에 기대어 놓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영혼을 공포로 가득 채우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곳에 드라큘라 백작이 누워 있었다. 마치 젊음이 절반쯤 되살아난 듯한 모습이었다. 백발이었던 머리카락과 콧수염은 짙은 철회색으로 변해 있었고, 뺨은 더 통통해졌으며, 창백했던 피부 아래로는 루비 같은 붉은 빛이 감도는 듯했다. 입술에는 신선한 피가 덩어리째 맺혀 있어 입술은 그 어느 때보다 붉게 빛났고, 입가에서 흘러내린 피는 턱과 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눈꺼풀과 눈 밑의 살집이 부풀어 올라, 깊고 타오르는 듯한 눈동자마저 부어오른 살덩이 사이에 박혀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그 끔찍한 괴물 전체가 피를 잔뜩 들이켜 배가 부른 것 같았다. 그는 마치 피를 너무 많이 마셔 기진맥진한 더러운 거머리처럼 누워 있었다.

그를 만지기 위해 몸을 굽히자 몸서리가 쳐졌고, 접촉하는 모든 감각이 거부 반응을 일으켰다. 하지만 찾아내지 못하면 끝장이었기에 나는 계속 뒤져야만 했다. 다가올 밤이 지나면, 저 끔찍한 세 여자처럼 내 몸 또한 피의 만찬이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온몸을 더듬어 보았으나 열쇠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동작을 멈추고 드라큘라 백작을 바라보았다. 부어오른 얼굴에 맺힌 조롱 섞인 미소는 나를 미치게 만들 것만 같았다. 내가 런던으로 옮기는 것을 돕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이 괴물이라니. 어쩌면 그는 런던의 수많은 인파 속에서 앞으로 수 세기 동안 피에 대한 갈증을 채우며, 무력한 이들을 잡아먹는, 점점 더 넓어져 가는 반(半)악마들의 무리를

새로이 만들어낼지도 모른다. 그 생각만으로도 나는 미칠 것 같았다. 이런 괴물을 세상에서 없애버리고 싶다는 끔찍한 충동이 일었다.

당장 쓸 만한 치명적인 무기는 없었지만, 나는 인부들이 상자를 채울 때 쓰던 삽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삽을 높이 들어 올려 날을 아래로 향하게 한 채 그 가증스러운 얼굴을 내리쳤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머리가 돌아갔고, 바실리스크 같은 공포를 내뿜는 눈동자가 나를 정면으로 쏘아보았다. 그 시선에 몸이 마비된 듯했고, 손에 든 삽은 미끄러지며 얼굴을 비껴나가 이마 윗부분에 깊은 상처만 냈을 뿐이었다.

삽이 손에서 빠져나가 상자 위로 떨어졌고, 내가 삽을 치우려 하자 날의 테두리가 뚜껑 가장자리에 걸렸다. 그 바람에 뚜껑이 다시 덮이면서 그 끔찍한 형체는 시야에서 사라졌다. 내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피로 얼룩진 채 부어오른 얼굴이었으며, 그 얼굴에는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나 볼 법한 악의 어린 미소가 고정되어 있었다.

다음에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몇 번이고 생각했지만, 머릿속은 불이 붙은 듯 뜨거웠고 절망감만이 점점 나를 짓눌러 왔다. 기다리는 동안 멀리서 즐거운 목소리로 부르는 집시들의 노래가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가 들렸다. 노래 사이로 무거운 수레바퀴가 구르는 소리와 채찍을 휘두르는 소리도 섞여 있었다. 백작이 말했던 그 사가니족과 슬로바키아인들이 오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그 끔찍한 시신이 담긴 상자를 확인한 뒤, 그곳을 뛰쳐나와 드라큘라 백작의 방으로 숨어들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곧장 밖으로 달려 나갈 작정이었다.

나는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귀를 기울였다. 이윽고 아래층에서 커다란 자물쇠에 열쇠가 맞물려 돌아가는 소리와 육중한 문이 뒤로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분명 다른 출입구가 있거나, 누군가 잠긴 문 중 하나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이어 수많은 발자국이 요란하게 울리며 복도 저편으로 멀어져 갔고, 그 소리는 쟁쟁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다. 나는 새로운 입구를 찾기 위해 다시 지하 납골당 쪽으로 달려 내려가려 했다.

그 순간, 갑자기 거센 바람이 몰아치더니 나선형 계단의 문이 쾅 하고 닫혔다. 문이 부딪히는 충격에 문설주에 쌓여 있던 먼지가 허공으로 흩날렸다. 나는 문을 밀어 열려고 달려들었지만, 문은 도저히 움직이지 않을 만큼 꽉 끼어 있었다. 나는 다시 죄수가 되었고, 파멸의 그물은 나를 더욱 조여 오고 있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아래 통로에서는 수많은 발자국이 요란하게 울리고 무거운 물건들을 쿵쿵 내려놓는 소리가 들린다. 흙이 가득 담긴 상자들을 내려놓는 소리가 분명하다. 망치질 소리도 들리는데, 상자를 못으로 박아 봉하는 모양이다. 이제 복도를 따라 다시금 육중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온다. 그 뒤를 따라 수많은 발소리가 뒤섞여 울려 퍼진다.

문이 닫히고 쇠사슬이 덜컹거린다. 자물쇠 속에서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열쇠를 뽑아내는 소리까지 들려온다. 그러고는 또 다른 문이 열렸다가 닫히고, 자물쇠와 빗장이 끼익거리며 움직이는 소리가 들린다.

들어라! 마당과 바위투성이 길 너머로 무거운 수레바퀴가 구르는 소리, 채찍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 그리고 멀어져 가며 부르는 사가니족의 합창 소리가 들려온다.

이제 이 성에는 저 끔찍한 여자들과 나뿐이다. 윽! 미나도 여자이지만, 저들과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 저것들은 지옥 구덩이에서 올라온 악마들이다!

그들과 단둘이 남겨지지는 않겠다. 지금까지 시도했던 것보다 더 높이 성벽을 기어올라 보려 한다.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니 금화도 좀 챙겨가야겠다. 이 끔찍한 곳을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 집으로 떠나야 한다! 가장 빠르고 가까운 기차를 타러 달려가야 한다! 악마와 그 자식들이 여전히 땅 위를 걷고 있는 이 저주받은 곳, 이 저주받은 땅에서 당장 벗어나야 한다!

적어도 신의 자비는 이 괴물들의 자비보다 낫다. 낭떠러지는 가파르고 높지만, 그 발치 아래라면 인간으로서 잠들 수 있을 것이다. 모두 안녕히! 미나!

제V장

미나 머리가 루시 웨스튼라에게 보내는 편지.

5월 9일.

“사랑하는 루시에게——

답장이 너무 늦어 미안해요. 그동안 일이 너무 몰아쳐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보조 교사로 지내는 삶이 가끔은 참 고되네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바닷가에서 자유롭게 대화도 나누고, 우리만의 달콤한 꿈도 꾸면서 말이에요.

요즘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조너선의 학업 속도에 뒤처지지 않으려고요. 속기 연습도 아주 부지런히 하고 있고요. 결혼하면 조너선에게 도움이 되고 싶거든요. 속기를 충분히 잘하게 되면, 그가 하고 싶은 말을 받아 적었다가 타자기로 옮겨 적어줄 수 있을 거예요. 타자 연습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가끔 조너선과 저는 속기로 편지를 주고받곤 해요. 그는 지금 해외 여행 중인데, 여행 일기도 속기로 기록하고 있고요. 당신과 함께 있게 되면 저도 그런 식으로 일기를 쓸 거예요. 일주일에 겨우 두 페이지 남짓 적고 일요일은 구석에 억지로 끼워 넣는 그런 일기 말고요. 마음이 내킬 때마다 언제든 써 내려갈 수 있는 일기장 같은 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내용은 별로 없겠지만, 애초에 남에게 보여주려고 쓰는 건 아니니까요. 나중에라도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이 있다면 언젠가 조너선에게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저만의 연습장인 셈이죠.

여자 기자들이 하는 것처럼 인터뷰도 하고, 풍경을 묘사하기도 하고, 대화 내용을 기억해 두는 연습도 해보려고 해요. 조금만 연습하면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이나 들었던 말들을 전부 기억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뭐, 직접 해봐야 알겠지만요. 만나면 제 작은 계획들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게요.

방금 트란실바니아에 있는 조너선에게서 급히 보낸 짧은 편지를 받았어요. 그는 잘 지내고 있고, 일주일쯤 뒤에 돌아올 거래요. 그가 겪은 일들이 너무 궁금해요. 낯선 나라들을 구경하는 건 정말 멋진 일이겠죠. 우리, 그러니까 조너선과 제가 언젠가 함께 그런 곳들을 볼 수 있을까요?

열 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네요. 그럼 안녕히.

당신을 사랑하는,

미나의 일기. 5월 4일. 토요일.

“편지 쓸 때 소식들 전부 다 들려줘. 한동안 아무 소식도 없었잖아. 소문이 들려오는데, 특히 키가 크고 잘생긴 데다 곱슬머리를 가진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유독 많더라고.”

루시 웨스튼라가 미나 머리에게 보내는 편지.

“채텀가 17번지,”

“수요일.”

나의 사랑하는 미나에게—

"내가 편지를 잘 안 쓴다고 비난하는 건 정말 너무해요. 우리 헤어진 뒤로 내가 편지를 두 번이나 썼는데, 당신의 마지막 편지는 겨우 두 번째였는걸요. 게다가 딱히 드릴 말씀도 없어요. 당신이 흥미를 느낄 만한 일도 정말 없고요. 요즘 도시는 아주 즐거워요. 미술관에도 자주 가고,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승마도 즐기거든요.

그 키 크고 곱슬머리인 남자에 대해서 말하자면, 아마 지난번 파티 때 저와 함께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분명 누군가 말을 옮긴 모양이네요. 그분은 홈우드 씨예요. 종종 우리를 보러 오는데, 그분과 엄마는 아주 잘 지내요. 공통된 화젯거리가 아주 많거든요.

얼마 전에는 당신이 조너선과 약혼하지만 않았다면 정말 딱 맞았을 법한 남자를 만났어요. 잘생기고 부유한 데다 가문도 좋아서 정말 훌륭

한 신랑감이에요. 의사인데 아주 영리하기까지 해요. 상상해 보세요! 고작 스물아홉 살인데, 거대한 정신병원을 혼자서 관리하고 있다니까요. 홈우드 씨가 그분을 제게 소개해 주었고, 그분도 우리를 보러 이곳에 왔다가 이제는 자주 들러요. 제가 본 사람 중 가장 결단력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침착한 사람 중 한 명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듯 보이죠. 환자들에게 얼마나 대단한 힘을 발휘할지 충분히 상상이 가요. 그분은 상대의 생각을 읽으려는 듯 눈을 똑바로 마주쳐 쳐다보는 기묘한 습관이 있어요. 저에게도 자주 그러는데, 제 딴에는 그분이 좀처럼 깨뜨리기 힘든 단단한 상대를 만난 거라고 자부해요. 거울을 보면 저도 그걸 알 수 있거든요. 당신은 자신의 얼굴을 읽어보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해봤는데, 꽤 흥미로운 공부가 될 거예요. 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도 못 할 만큼 꽤나 고된 일이기도 하고요. 그분은 제가 아주 흥미로운 심리 연구 대상이라고 말하는데, 저도 겸허히 그 말에 동의해요.

당신도 알다시피, 저는 옷차림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 같은 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옷 얘기는 정말 지루하니까요. 또 속어를 썼네요. 하지만 뭐 어때요, 아서가 매일 그러는걸요. 아, 다 말해버렸네요.

미나, 우리는 어릴 때부터 모든 비밀을 공유하며 지냈잖아요. 함께 잠들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울었죠. 그래서 방금 말을 꺼내긴 했지만, 사실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오, 미나, 짐작할 수 있겠어요? 저 그를 사랑해요. 이 글을 쓰면서 얼굴이 붉어지네요. 그가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 말로 직접 표현하진 않았거든요. 하

지만 오, 미나, 정말 사랑해요. 사랑한다고요, 정말 사랑해요! 아, 이제야 속이 좀 시원하네요.

사랑하는 미나, 예전처럼 불 옆에 앉아 잠자리에 들 채비로 옷을 벗으며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떤지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고요. 당신에게조차 이런 글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글을 멈추기가 두려워요. 멈추는 순간 이 편지를 찢어버릴 것 같거든요. 하지만 멈추고 싶지도 않아요. 당신에게 전부 다 말하고 싶으니까요.

곧바로 답장해 주세요. 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부 다 말해줘요. 미나, 이제 그만 써야겠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기도할 때 저를 위해 빌어주세요. 그리고 미나, 제 행복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루시."

추신. — 이 일은 비밀로 해야 한다는 말은 굳이 덧붙일 필요도 없겠죠. 그럼 다시 한번, 안녕히 주무세요.

"L."

루시 웨스튼라가 미나 머리에게 보내는 편지.

_5월 24일._

나의 사랑하는 미나에게—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의 다정한 편지에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해요. 내 속마음을 당신에게 털어놓을 수 있어서, 그리고 당신이 공감해 주어서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미나, 안 오던 일도 한번 터지면 한꺼번에 몰아친다더니, 옛 속담이 어쩜 이렇게 딱 맞는지 몰라요. 오는 9월이면 스무 살이 되는데, 오늘 전까지는 제대로 된 청혼이라곤, 그러니까 진짜 청혼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무려 세 번이나 받았어요! 상상이나 가요? 하루에 청혼을 세 번이나 받다니! 정말 말도 안 되죠! 그 불쌍한 두 남자가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안쓰러워요. 아, 미나, 너무 행복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청혼을 세 번이나 받다니! 하지만 제발 부탁인데, 다른 여자애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요. 안 그러면 다들 말도 안 되는 망상을 품고서, 집에 돌아온 첫날에 청혼을 적어도 여섯 번은 받지 못하면 상처받고 무시당했다고 여길지도 모르니까요. 어떤 여자애들은 정말 허영심이 강하다니까요! 미나, 당신과 나는 이미 약혼한 몸이고 머지않아 차분하게 안정을 찾아 나이 든 유부녀가 될 처지이니, 그런 허영심쯤은 비웃어도 되겠죠.

자, 이제 그 세 명에 대해 말해 줄게요. 하지만 꼭 비밀로 지켜 줘야 해요. 물론 조너선은 예외지만, 그에게는 말해도 좋아요. 내가 당신 입장이라면 아서에게는 분명 말했을 테니까요. 여자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 나도 공정해야겠죠. 남자들은 여자가, 특히 아내가 자기만큼 솔직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은 안타깝게도 늘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 솔직하지만은 못한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남자는 점심 직전에 왔어요. 전에 말했던 존 수어드 박사예요. 정신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턱선이 강인하고 이마가 보기 좋은 그 사람 말이에요. 겉으로는 아주 침착해 보였지만, 사실 꽤 긴장한 기색이었어요.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미리 연습하고 외워 두려 애쓴 게 눈에 보였죠. 하지만 너무 긴장한 나머지 실크 모자 위에 앉을 뻔하기도 했어요. 침착한 남자라면 보통 그러지 않잖아요. 게다가 여유로운 척하려 할 때마다 랜싯을 만지작거리는데, 그 모습에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니까요.

미나, 그는 나에게 아주 솔직하게 말했어요. 자신이 나를 안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내가 자기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곁에서 돕고 힘이 되어 준다면 자기 삶이 어떻게 될지를 말이에요. 내가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얼마나 불행할지까지 말하려 했지만, 내가 눈물을 보이자 자신이 짐승 같다며 지금의 내 괴로움을 더하지는 않겠다고 말을 아끼더군요. 그러고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시간이 흐르면 자기를 사랑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어요. 내가 고개를 젓자 그의 손이 떨렸고, 그러고는 망설이며 혹시 이미 마음에 둔 사람이 있는지 물었어요. 그는 아주 정중하게 말을 골랐어요. 억지로 내 속마음을 캐내려는 게 아니라 그저 알고 싶을 뿐이라고요. 여자의 마음이 비어 있다면 남자로서 희망을 품을 수 있으니까요.

그 순간 미나, 나는 그에게 이미 누군가가 있다고 말해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을 느꼈어요. 딱 거기까지만 말했죠. 그러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주 강인하고 엄숙한 모습으로 내 두 손을 맞잡더니,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혹시라도 친구가 필요해지면 자기를 가장 친한 친구 중 하나로 여겨 달라고 말했어요.

아, 미나, 자꾸 눈물이 나요. 편지가 온통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도 이해해 줘요. 청혼을 받는다는 건 정말 멋지고 다 좋은 일이지만,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불쌍한 남자가 상심한 채 떠나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할 때는 결코 행복한 일이 아니에요. 그가 지금 당장 무슨 말을 하든, 결국 나는 그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리란 걸 알고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미나, 일단은 여기서 줄일게요. 너무 행복하면서도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_저녁._

아서가 방금 떠났어요. 글을 멈췄을 때보다 기분이 훨씬 나아졌으니, 그날 있었던 일을 계속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있잖아요, 내 사랑, 점심을 먹고 나서 두 번째 손님이 왔어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텍사스에서 온 미국인인데, 아주 젊고 생기 넘치는 모습이라 그가 그렇게 많은 곳을 여행하며 모험을 겪었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흑인 남자에게서일망정 그토록 위험천만한 이야기를 귀가 닳도록 들었던 가련한 데스데모나의 심정에 공감이 가요. 우리 여자들은 겁쟁이라서, 남자가 우리를 공포로부터 구해줄 거라 믿으며 그와 결혼하는 건가 봐요. 만약 내가 남자라면, 한 여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모르겠어요. 퀸시 모리스 씨가 이야기를 들려주긴 했지만, 아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도 말이에요.

내 사랑, 내가 너무 앞서 나갔네요. 퀸시 P. 모리스 씨가 나를 혼자 있을 때 찾아왔어요. 남자는 꼭 여자가 혼자 있을 때만 찾아내는 것 같아요. 아니,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아서도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두 번이나 노력했거든요. 나도 아서를 도울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고요. 지금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게 부끄럽지는 않아요. 미리 말해두는데, 모리스 씨가 항상 속어를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 앞이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는 아주 잘 교육받은 사람이고 매너도 아주 훌륭하거든요. 다만 그가 미국식 속어를 쓰는 걸 내가 즐거워한다는 걸 알아챈 것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을 때, 그리고 눈살을 찌푸릴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면 그는 아주 재미있는 말들을 늘어놓곤 했어요. 내 사랑, 그가 하는 말들이 하는 이야기마다 딱딱 들어맞는 걸 보면, 아마 전부 지어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속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나도 내가 속어를 쓰게 될 날이 올지 모르겠어요. 아서가 속어를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아직 아서가 속어를 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

아무튼, 모리스 씨는 내 옆에 앉아 최대한 행복하고 유쾌해 보이려고 애썼지만, 나는 그가 무척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알아챌 수 있었어요. 그는 내 손을 잡고 아주 다정하게 말했어요.

"루시 양, 저는 당신의 그 작은 구두끈 하나 매어 드릴 자격조차 없는 사내라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럴 자격이 되는 남자를 기다리기만 한다면, 나중에 당신이 세상을 떠날 때 등불을 든 일곱 명의 젊은 여인들 곁으로 가버리게 될 것 같군요. 그러니 그냥 저와 나란히

멍에를 메고 발을 맞춰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함께 긴 길을 나란히 달려가 봅시다. 두 마리 말이 끄는 마차처럼 말입니다."

"그분은 어찌나 유쾌하고 쾌활해 보이던지, 불쌍한 수어드 박사를 거절할 때만큼 거절하기가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가볍게, 결혼 같은 건 잘 모르고 아직 누구의 아내가 될 준비도 전혀 안 되어 있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그분은 자신이 너무 가볍게 말을 꺼낸 것 같다고 하시면서, 자신에게 이토록 중대하고 막중한 순간에 그런 실수를 했다면 부디 용서해 달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할 때의 표정이 정말 진지해서 저도 모르게 조금 진지해지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미나, 당신은 나를 지독한 바람둥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루 사이에 그분이 두 번째 구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일종의 우쭐한 기분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내 사랑, 내가 한마디 꺼내기도 전에 그분은 봇물 터지듯 사랑의 고백을 쏟아내며 자신의 온 마음과 영혼을 내 발치에 바쳤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진지하던지, 나는 다시는 남자가 가끔 유쾌하다고 해서 늘 장난기만 가득하고 결코 진지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게 되었답니다. 아마 내 얼굴에서 그를 멈칫하게 하는 무언가를 보셨나 봐요. 그분은 갑자기 말을 멈추더니, 내가 자유로운 몸이었다면 그 열정만으로도 그분을 사랑할 수 있었을 만큼의, 사내다운 열정을 담아 이렇게 말했어요.

"루시, 당신이 참으로 정직하고 마음씨 고운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당신이 영혼 깊은 곳까지 진실로 올곧고 강단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당신에게 말을 건네지도 않았을 겁니다. 자, 친구로서 솔직하게 말해줘요. 당신이 마음에 두고 있는 다른

사람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다시는 당신을 털끝만큼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대신 당신이 허락한다면, 아주 충실한 친구로 곁에 남겠습니다.

"사랑하는 미나, 왜 남자들은 저토록 고결한데, 우리 여자들은 그들에게 어울릴 가치조차 이토록 없는 걸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이 마음 넓고 진실한 신사를 거의 놀릴 뻔했어. 결국 나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미나, 네가 이 편지를 여러모로 형편없는 편지라고 여길까 봐 걱정이야—정말이지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거든. 어째서 여자 한 명이 세 남자와, 아니 자기를 원하는 남자라면 몇 명이든 결혼하게 해서 이 모든 번거로움을 덜어 주지 못하는 걸까? 하지만 이건 이단 같은 소리니 더는 말하지 말아야겠지. 그래도 다행히, 눈물을 흘리면서도 나는 모리스 씨의 용감한 눈을 똑바로 마주 보며 그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어.

"맞아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록 그 사람이 저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지는 않았지만요."

내가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말을 듣자 그의 얼굴에 환한 빛이 돌았기 때문이다. 그는 두 손을 뻗어 내 손을 맞잡았다. 내 손을 그의 손안에 넣은 것 같았다. 그러고는 그는 아주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나의 용감한 아가씨. 세상 그 어떤 여자에게 제시간에 맞춰 가는 것보다, 당신을 얻을 기회를 위해 조금 늦는 편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오. 울지 말아요, 내 사랑. 나 때문에 우는 거라면, 나는 좀처럼

깨지지 않는 단단한 사내라오. 이런 일쯤은 꿋꿋이 선 채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니까. 만약 그 다른 사내가 자신의 행복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어서 찾아보는 게 좋을 거요. 그러지 않으면 나를 상대해야 할 테니까. 꼬마 아가씨, 당신의 정직함과 용기가 나를 친구로 만들었소. 그건 연인을 얻는 것보다 훨씬 귀한 일이며, 어쨌든 더 이타적인 일이기도 하지. 내 사랑, 나는 이제 이 세상과 저세상 사이에서 꽤나 외로운 길을 걷게 될 것 같소. 내게 입맞춤 한 번만 해줄 수 없겠소? 그 입맞춤이 때때로 찾아올 어둠을 몰아내는 힘이 되어줄 것 같소. 당신이 원한다면 해도 괜찮소. 그 다른 선한 분은—내 사랑, 그분은 분명 선하고 멋진 분이겠지,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그를 사랑할 리 없으니까—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 말이오." 미나, 그 말은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경쟁자에게조차 그토록 용감하고 다정하며 고결한 태도를 보이다니, 정말 그렇지 않나요? 게다가 그는 너무나 슬퍼 보였기에, 나는 몸을 숙여 그에게 입을 맞추었죠. 그는 내 두 손을 맞잡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내 얼굴을 내려다보았는데—그때 내 얼굴이 무척 붉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그가 말했어요.

"'꼬마 아가씨, 내가 당신 손을 잡고 당신도 내게 입을 맞췄으니, 이 일들로 우리가 친구가 되지 못한다면 앞으로 그 무엇도 우릴 친구로 만들어주지 못할 거요. 나에게 보여준 그 달콤하고 정직한 마음씨에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이만 작별을 고하겠소.' 그는 내 손을 꽉 쥐더니 모자를 집어 들고는 방을 나갔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고, 눈물 한 방울이나 떨림, 망설임조차 없었다. 그 모습에 나는 아기처럼 울고 있다. 아, 왜 저런 남자가 불행해져야만 하는 걸까? 그가 밟고 지나가는 땅조차

숭배할 준비가 된 여자들이 세상에 차고 넘치는데 말이다. 내가 자유로운 몸이었다면 분명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자유롭고 싶지 않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이 일로 마음이 너무 어지러워져서 방금 전의 행복한 이야기를 전해놓고도 곧바로 다시 행복한 글을 쓸 수가 없네요. 모든 일이 다 행복하게 마무리될 때까지, 세 번째 이야기는 아껴두고 싶어요."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는,

"루시."

추신. — 아, 세 번째 일에 대해서는… 세 번째 일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게다가 모든 게 너무나 정신없이 지나갔거든요. 그가 방에 들어온 순간부터 두 팔로 나를 감싸 안고 입을 맞추기까지, 그야말로 한순간밖에 안 걸린 것 같았으니까요. 나는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에 이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앞으로, 이런 연인이자 남편이자 친구를 보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총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님을 보여 드리려 애쓸 뿐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어드 박사의 일기.

(축음기에 기록됨)

5월 25일.

오늘은 식욕이 없다.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해서, 대신 일기를 쓴다. 어제 거절당한 이후로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만 같다. 세상 그 무엇도 딱히 할 가치가 있을 만큼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기분을 떨쳐낼 유일한 치료법은 일뿐이라는 걸 알기에, 환자들이 있는 병동으로 내려갔다. 그중 한 환자를 골라 관찰했는데, 꽤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 될 것 같다. 그는 워낙 기이한 구석이 있어서, 어떻게든 그를 온전히 이해해 보겠다고 다짐했다. 오늘은 그가 품은 수수께끼의 핵심에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다가간 기분이다.

나는 그가 겪은 환각의 사실관계를 완전히 파악하고자, 이전보다 훨씬 더 집요하게 그를 추궁했다. 지금 돌이켜보니 당시 나의 태도에는 일종의 잔인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마치 그를 광기의 한복판에 계속 붙들어 두려는 것처럼 행동했다. 평소 환자들을 대할 때라면 지옥의 입구라도 피하듯 결코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다.

(메모. 어떤 상황이 닥쳐야 내가 지옥의 구렁텅이를 피하지 않게 될 것인가?) *모든 것은 로마에서 매매될 수 있다.* 지옥에도 그만한 대가가 있는 법이다! *현명한 이에겐 한마디면 족하다.* 만약 이 본능의 이면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면, 나중에 이를 *정확히* 추적해 보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부터 기록을 시작하는 편이 좋겠다. 따라서—

R. M. 렌필드, 59세. — 다혈질적 성격. 신체적 힘이 매우 강함. 병적으로 흥분하기 쉬움. 우울한 시기가 찾아오는데, 그 끝에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강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곤 함. 내 짐작으

로는, 다혈질적인 기질과 그를 괴롭히는 영향력이 결합하여 정신적으로 완성된 결론에 도달하는 듯함. 아마도 위험한 인물일 것이며, 이기심만 없다면 더욱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음. 이기적인 사람들에게는 자기 보호를 위한 신중함이 곧 적을 막아주는 갑옷이 되기도 함. 이 점에 대해 내가 생각하는 바는 이러함. 자아를 중심에 두면 구심력과 원심력이 균형을 이루지만, 의무나 대의 같은 가치를 중심에 두면 원심력이 압도적으로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오직 우연이나 일련의 우연한 사건들이 겹쳐야만 그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퀸시 P. 모리스가 아서 홈우드 귀하에게 보내는 편지.

5월 25일.

"사랑하는 아트,—"

"우리는 대평원의 캠프파이어 앞에서 옛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마르키즈 제도에 상륙을 시도한 뒤에는 서로의 상처를 돌봐주기도 했으며, 티티카카 호숫가에서는 서로의 건강을 빌며 술잔을 나누기도 했지. 아직 들려줄 이야기는 더 남아 있고, 치유해야 할 상처도, 함께 나누어야 할 축배도 남아 있어. 내일 밤, 내 캠프파이어에서 그 시간을 함께해주지 않겠나? 어떤 숙녀분이 어떤 저녁 약속에 매여 있어 자네가 자유로운 몸이라는 걸 알기에, 나는 망설임 없이 자네에게 청하는 걸세. 이번 모임에는 코리아 시절의 옛 친구 잭 수어드만 한 명 더 올 거야. 그도 오기로 했으니, 우리 둘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눈물을 섞고 싶네. 그리고 이 넓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즉 신이 빚으신 가장 고결하고 얻을 가치가 가장 큰 마음을 차지한 그 사람을 위해 온 마음

을 다해 축배를 들고 싶단 말일세. 자네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을 담아 맞이할 것을 약속하네. 자네의 오른손만큼이나 진실한 축배를 올릴 걸세. 만약 자네가 어떤 눈동자를 떠올리며 너무 깊이 잔을 비운다면, 우리 둘은 자네를 집에 그대로 두고 가겠다고 맹세하겠네. 그러니 어서 오게!"

언제나 변함없는 자네의 벗,

"퀸시 P. 모리스."

아서 홈우드가 퀸시 P. 모리스에게 보내는 전보.

5월 26일.

"언제든 나를 끼워 주게. 자네 두 귀가 얼얼해질 만한 소식을 가지고 가겠네."

"아트."

제VI장

미나 머리의 일기

7월 24일. 휘트비.

루시가 역으로 마중을 나왔다. 평소보다 더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이었다. 우리는 루시 일행이 방을 빌려 쓰고 있는 크레센트의 저택으로 차를 타고 올라갔다. 이곳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다. 에스크강이라는 작은 강이 깊은 계곡을 따라 흐르는데, 항구 근처에 다다를수록 계곡은 점차 넓어진다. 높은 교각을 세운 거대한 육교가 가로지르고 있는데, 그 교각 사이로 보이는 풍경은 실제보다 훨씬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계곡은 눈부시게 푸르며, 경사가 워낙 가팔라서 양옆의 높은 지대에 서 있으면 아래를 내려다볼 만큼 가깝지 않은 한 계곡 너머를 바로 건너다보는 기분이 든다. 우리 쪽 반대편에 있는 구시가지의 집들은 모두 붉은 지붕을 얹고 있는데, 마치 뉘른베르크의 그림들처럼 집들이 아무렇게나 겹겹이 쌓여 있는 듯한 모습이다.

마을 바로 위에는 휘트비 수도원의 폐허가 있다. 이곳은 과거 데인족의 침략을 받았던 곳이며, 한 소녀가 벽 속에 파묻혔던 이야기로 유명한 시 「마미온」의 배경이기도 하다. 수도원 폐허는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숭고한 기운이 감돌며, 아름답고 낭만적인 요소들로 가득하다. 어느 창가에서는 하얀 여인이 나타난다는 전설도 전해 내려온다. 수도원과 마을 사이에는 마을 교회가 있는데, 그 주변은 비석들로 가득한 커다란 묘지로 둘러싸여 있다. 내가 보기에 이곳은 휘트비에서 가장 멋진 장소다. 마을 바로 위에 자리 잡고 있어 항구와 만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고, 케틀니스라 불리는 곶이 바다로 뻗어 나가는 곳까지 시야가 탁 트여 있기 때문이다. 지형이 항구 쪽으로 매우 가파르게 깎여 내려가 있어서 제방 일부가 무너져 내렸고, 그 때문에 무덤 몇 곳도 파손되었다. 어떤 곳은 무덤의 석조 구조물이 저 멀리 아래에 있는 모래길 위로 길게 뻗어 나와 있기도 하다.

교회 묘지에는 벤치가 놓인 산책로가 있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곳에 앉아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산들바람을 즐기곤 한다. 나 역시 이곳에 자주 와서 앉아 일을 해야겠다. 사실 지금도 무릎에 책을 올려둔 채 글을 쓰고 있는데, 옆에 앉아 있는 노인 세 명의 대화 소리가 들려온다. 저분들은 하루 종일 이곳에 앉아 이야기 나누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듯하다.

항구가 내 발아래 펼쳐져 있다. 항구 건너편에는 긴 화강암 방파제가 바다를 향해 길게 뻗어 있는데, 그 끝은 바깥쪽으로 굽어 있으며 그 한가운데에 등대가 하나 서 있다. 방파제 바깥쪽으로는 두터운 해안벽이 길게 이어져 있다. 항구와 가까운 쪽은 해안벽이 안쪽으로 꺾여 들

어온 형태이며, 그 끝에도 등대가 하나 있다. 두 방파제 사이로는 항구로 들어가는 좁은 입구가 나 있다가, 안으로 들어서면 갑자기 공간이 넓어진다.

만조 때는 물이 깊어 좋지만, 썰물이 되면 수심이 얕아져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저 모래톱 사이로 에스크강의 물줄기가 흐르고, 여기저기 바위가 흩어져 있을 뿐이다. 이쪽 항구 밖으로는 거대한 암초가 약 0.5마일가량 뻗어 있는데, 그 날카로운 끝자락이 남쪽 등대 뒤편에서부터 바다를 향해 곧게 뻗어 나간다. 암초 끝에는 종이 달린 부표가 하나 떠 있다. 날씨가 나빠지면 부표가 흔들리며 바람을 타고 구슬픈 종소리를 실어 보낸다. 이곳에는 배가 난파될 때면 바다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온다는 전설이 있다. 이 이야기에 대해 노인에게 꼭 물어봐야겠다. 마침 그가 이쪽으로 오고 있다.

그는 참으로 기이한 노인이다. 얼굴이 나무껍질처럼 온통 거칠고 뒤틀린 것을 보니 분명 엄청난 고령임에 틀림없다. 그는 자신이 거의 백 세에 가깝다고 말하는데, 워털루 전투가 벌어질 당시에는 그린란드 어단의 선원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지나치게 회의적인 사람인 듯하여 걱정이 앞선다. 바다에서 들리는 종소리나 수도원의 하얀 여인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아주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나 같으면 그런 것엔 신경도 안 쓰겠소, 아가씨. 그런 건 다 낡아빠진 것들이니까. 이봐요, 그런 게 옛날에도 전혀 없었다고는 안 하겠소. 하지만 적어도 내가 살던 시절엔 없었다고 분명히 말하는 거요. 그런 건 뜨내기나 구경꾼들한테나 딱 어울리지, 당신처럼 참한 아가씨한테

는 어울리지 않소. 요크나 리즈에서 온, 발길 닿는 대로 쏘다니는 그 사람들이야 맨날 절인 청어나 까먹고 차나 마시면서 싼 흑옥이나 사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니니, 뭐든 다 믿어버릴 거요. 나는 누가 굳이 그런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하느라 애를 먹을까 싶소. 헛소리로 가득 찬 신문들조차도 말이오."

나는 이 사람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기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옛날 고래잡이에 대해 들려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가 막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자세를 잡던 참에 시계가 여섯 시를 알렸고, 그러자 그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 봐야겠어요, 아가씨. 차가 다 준비되었는데 손녀딸을 기다리게 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계단을 기어 올라가는 데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워낙 계단이 많아서요. 그리고 아가씨, 이 시간쯤이면 배가 너무 고파서 견딜 수가 없네요."

그는 절뚝거리며 멀어져 갔다.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모습이 보였는데, 그는 할 수 있는 한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이 마을에서 계단은 아주 눈에 띄는 특징이다. 마을에서 교회까지 이어지는 이 계단은 수백 개는 됨직한, 정확히 몇 개인지 가늠조차 안 되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한다. 계단은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위로 굽이쳐 올라가는데, 경사가 워낙 완만해서 말도 쉽게 오르내릴 수 있을 정도다. 원래는 수도원과 연결되어 있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나도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루시는 어머니와 함께 방문을 나섰다. 그저 안부를 묻는 짧은 방

문들이라 나까지 따라가지는 않았다. 이쯤 되면 두 사람도 집에 도착했을 것이다.

* * * * *

8월 1일.

한 시간 전쯤 루시와 함께 이곳에 도착했다. 오랜 친구, 그리고 그와 늘 함께 어울리는 다른 두 사람과 아주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었다. 그 친구는 분명 그 무리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좌우하는 인물인 듯했다. 젊은 시절에는 아주 독단적인 사람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는 남의 말을 절대 인정하지 않으며, 늘 상대방을 기죽게 만든다. 논리로 상대를 이길 수 없으면 윽박지르고, 상대가 입을 다물면 자신의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버린다.

루시는 하얀 면 드레스를 입고 무척 사랑스럽고 예뻐 보였다. 이곳에 온 뒤로 안색도 아주 좋아졌다. 우리가 자리에 앉자마자 노인들이 지체 없이 다가와 루시 곁에 앉는 것을 나는 눈여겨보았다. 루시는 어르신들에게 참으로 상냥하다. 노인들 모두 그 자리에서 루시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 같았다. 내 노인 친구조차도 루시에게는 굴복해 토를 달지 않았지만, 그 대신 내게만 두 배로 대거리를 퍼부었다. 내가 전설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자, 그 노인은 곧장 설교하듯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 내용을 잊지 않도록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적어 두어야겠다.

"그건 전부 헛소리야,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지. 그냥 헛소리일 뿐이야, 다른 게 아니라고. 그런 유령이니, 망령이니, 보고스트니, 바거스

트니, 보글이니 하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는 어린애들이나 정신 나간 여자들을 겁주어 어지럽게 만드는 데나 쓸모가 있는 법이지. 다 허공에 떠도는 거품 같은 것들이라고. 그런 것들이나 불길한 징조, 경고 같은 것들은 다 목사놈들이나 못난 책벌레들, 그리고 철도 호객꾼들이나 지어낸 거야. 사람들을 겁주고 질리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만들려고 말이지. 그런 걸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올라. 종이 위에 거짓을 인쇄하고 설교단에서 떠드는 걸로는 모자라서, 이제는 비석에까지 그 거짓을 새겨 넣으려 들다니. 자, 주위를 둘러봐, 어느 방향을 보든 말이야. 자존심을 세우며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저 비석들을 보라고. 저것들은 그 위에 적힌 거짓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그냥 무너져 내리고 있는 꼴이야. '여기에 누구의 몸이 잠들다'라느니, '누구의 기억을 신성히 받들어'라느니 하는 글귀들이 온통 적혀 있지만, 사실 저 비석 중 절반 가까이는 시신조차 없다고! 그들에 대한 기억 따위는 코끝에 묻은 코담배 가루만큼도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데, 신성하기는커녕 말이야. 전부 거짓말이야, 이런저런 종류의 거짓말뿐이라고! 세상에, 최후의 심판 날이 오면 정말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질 거야. 죽은 자의 수의를 입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튀어나와서, 자기들이 얼마나 선했는지 증명하려고 비석까지 몽땅 끌고 가려고 애쓰는 꼴이라니. 어떤 것들은 몸을 떨며 갈팡질팡하겠지. 바다 속에 잠겨 있던 탓에 손이 퉁퉁 붓고 감각마저 사라진 데다 미끄러워져서, 비석을 제대로 붙잡지도 못할 테니까."

그 노인이 자기만족에 빠진 기색을 띠고 동료들의 동의를 구하듯 주위를 둘러보는 모습을 보니, 분명 '잘난 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가 신이 나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 갈 수 있도록 한마디 거들었다.

"아니, 스웨일스 씨, 농담하시는 거죠? 설마 이 묘비들이 전부 잘못 되었다는 말씀은 아니시겠죠?"

"아마 그럴지도! 틀리지 않은 게 몇 개쯤은 있을지도 모르지. 사람들을 너무 착하게 꾸며 놓은 것만 빼면 말이야. 제 것이기만 하면 자기 연고 단지가 바다만 한 줄 아는 인간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다 거짓말이야. 자, 여기 좀 보라고. 당신은 낯선 사람으로 여기 왔으니, 이 교회 묘지가 보이지?" 나는 그의 방언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일단 고개를 끄덕였다.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쯤은 알 수 있었다. 그는 말을 이었다. "그럼 당신은 이 묘석들이 죄다 여기 곱게 잠든 사람들 위에 세워져 있다고 여기겠지?" 나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거기서 거짓말이 시작되는 거야. 보라고, 던 영감의 담뱃갑이 금요일 밤이면 텅 비듯이, 텅텅 빈 무덤이 수십 개나 된다고." 그는 동료 중 한 명을 툭 쳤고, 그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세상에나! 어떻게 안 그럴 수가 있겠어? 저기 봐, 상여 놓던 자리 맨 뒤쪽에 있는 거 말이야. 저기 적힌 걸 읽어보라고!" 나는 다가가서 읽었다.

"에드워드 스펜슬러, 선장. 1854년 4월, 안드레스 해안 인근에서 해적에게 살해당함. 사망 당시 연령 30세." 내가 돌아오자 스웨일스 씨는 말을 이었다.

"대체 누가 이 사람을 고향으로 데려와 여기 묻어 줬겠나? 안드레스 해안 앞바다에서 살해당한 사람을 말이야! 그런데도 자네는 그 시신이

이 밑에 묻혀 있다고 믿는 게지! 이봐, 저 위 그린란드 바다에 뼈가 잠겨 있는 놈들만 해도 내가 열댓 명은 댈 수 있어." 노인은 북쪽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아니면 조류에 휩쓸려 어딘가로 떠내려갔거나 말이야. 자네 주위에 저 비석들이 늘어서 있잖나. 자네 젊은 눈으로는 여기서도 저 거짓말들의 잔글씨까지 다 읽힐 게야. 이 브레이스웨이트 로울리라는 놈 말이야, 난 이놈 아버지를 알지. 1820년에 그린란드 앞바다에서 '라이블리 호'와 함께 사라진 사람이야. 아니면 1777년에 똑같은 바다에서 익사한 앤드루 우드하우스라든가, 그로부터 1년 뒤 케이프 페어웰에서 빠져 죽은 존 팩스턴이라든가, 아니면 나와 함께 항해했던 할아버지를 둔 늙은 존 롤링스라든가 말이야. 그놈은 1850년에 핀란드만에서 익사했지. 자,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이 사람들이 전부 휘트비로 달려올 것 같나? 난 그게 영 미덥지가 않단 말이야! 내 장담하는데, 만약 그놈들이 여기 도착한다면 서로 밀치고 부딪치느라 난리가 날 거야. 마치 옛날 빙판 위에서 해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서로 치고받다가, 오로라 불빛 아래서 상처를 싸매던 그 시절처럼 말이지."

이것은 분명 그 고장 특유의 농담인 듯했다. 노인은 낄낄거리며 웃었고, 그의 동료들도 신이 나서 맞장구를 쳤다.

"하지만," 내가 말했다. "당신 말이 전적으로 옳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당신은 최후의 심판 날에 가난한 이들이나 그들의 영혼이 묘비까지 통째로 들고 가야 한다는 전제부터 깔고 계시니까요. 정말로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흥, 그럼 저 묘비들이 달리 뭐 하자고 있겠나? 어디 한번 대답해 보게, 아가씨!"

"친척들을 기쁘게 해 드리려는 거겠죠."

"'친척들을 기쁘게 해 드리려는 거'라고?" 그가 강한 경멸을 담아 말했다. "그들에 관한 거짓말이 적혀 있다는 걸, 그리고 그곳 사람들이 전부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친척들이 과연 기뻐하기나 하겠나?" 그는 절벽 끝자락, 좌석을 떠받치는 판석으로 쓰인 우리 발치의 돌을 가리켰다. "저 비석에 적힌 거짓말들을 읽어 보게." 그가 말했다. 내가 앉은 자리에서는 글자가 거꾸로 보였지만, 루시는 비석을 더 똑바로 마주 보고 있었다. 그래서 루시는 몸을 숙여 글을 읽었다.

"1873년 7월 29일, 영광스러운 부활을 꿈꾸며 케틀니스 바위 절벽에서 추락해 숨진 조지 캐넌의 기억을 신성히 기리며. 이 무덤은 슬픔에 잠긴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세웠다. '그는 어머니의 외아들이었으며, 그녀는 과부였다.' 스웨일스 씨, 전 정말이지 이 내용이 뭐가 그렇게 웃기다는 건지 모르겠군요!" 그녀는 아주 엄숙하고도 다소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이상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하! 하! 그건 자네가 그 사연을 몰라서 그래. 그 '슬픔에 잠긴' 어머니란 작자가, 실은 아들이 몸이 굽었다는 이유로 미워한 마귀할멈이었거든. 그 녀석은 영락없는 절름발이였지. 아들도 어머니를 어찌나 미워했던지, 어머니가 자기 앞으로 들어 둔 생명보험금을 못 타게 하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니까. 까마귀나 쫓으려

고 두었던 낡은 머스킷 총으로 제 머리통을 거의 날려 버렸지. 한데 그 땐 까마귀를 쫓기는커녕, 오히려 그 총이 쇠파리 떼와 까마귀 떼를 그놈 시체로 불러 모았단 말씀이야. 그렇게 해서 그놈이 바위에서 떨어진 거라네.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랐다고? 나는 그놈이 직접 이렇게 말하는 걸 여러 번 들었어. 차라리 지옥에 가고 싶다고 말이야. 제 어미가 워낙 독실해서 틀림없이 천국에 갈 텐데, 어미가 있는 곳에는 같이 있고 싶지 않다는 거였지. 자, 그러니 이 비석이"—그는 말하면서 지팡이로 비석을 쾅쾅 내리쳤다—"새빨간 거짓말 덩어리가 아니고 뭐냔 말이야! 게다가 조지 녀석이 등에 난 혹 위에 비석을 얹고 헐떡거리며 계단을 기어 올라와, 이걸 증거로 받아 달라고 들이밀면, 가브리엘 천사가 얼마나 배꼽을 잡고 웃어 대겠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사이, 루시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화제를 돌렸다.

"아,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제가 가장 아끼는 자리라 차마 떠날 수가 없는데, 이제는 자살한 이의 무덤 위에 앉아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게 네게 해가 되지는 않을 게다, 예쁜 아가씨. 오히려 가련한 조지로서는 이렇게 참한 아가씨를 제 무릎에 앉히게 됐으니 기뻐할지도 모르지. 해로울 거 하나 없단다. 나도 지난 20년 가까이 틈만 나면 여기 앉아 있었지만, 아무런 탈도 없었단다. 네 밑에 누워 있는 자들이든, 실은 거기 묻혀 있지도 않은 자들이든, 그런 것들로 마음 졸이지 말거라! 묘비들이 죄다 어디론가 달아나 버리고, 이곳이 그루터기만 남

은 벌판처럼 휑하니 비어 있는 걸 보게 되거든, 그때야 비로소 겁이 나기 시작할 게다. 저기 시계 소리가 나는구나, 난 이만 가봐야겠다. 아가씨들, 그럼 이만 실례하겠소!" 그러고는 절뚝거리며 자리를 떠났다.

루시와 나는 잠시 앉아 있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워 우리는 서로 손을 맞잡았다. 루시는 아서와의 결혼 이야기와 앞으로의 계획을 내게 다시금 들려주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마음 한구석이 조금 아려왔다. 조너선으로부터 소식이 끊긴 지 벌써 한 달이나 되었기 때문이다.

* * * * *

같은 날. 나는 홀로 이곳에 올라왔다. 마음이 너무나 슬프기 때문이다. 나에게 온 편지는 없었다. 조너선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시계가 막 아홉 시를 알렸다. 마을 곳곳에 흩어진 불빛들이 보인다. 어떤 곳은 거리의 행렬을 따라 줄지어 있고, 어떤 곳은 띄엄띄엄 놓여 있다. 불빛들은 에스크 강을 따라 쭉 뻗어 나가다 골짜기의 굽이진 곳에서 서서히 사라진다. 왼쪽으로는 수도원 옆 낡은 집의 검은 지붕 선이 시야를 가로막고 있다. 내 뒤편 들판에서는 양과 새끼 양들이 매애 하고 울고, 아래쪽 포장된 도로에서는 당나귀 발굽 소리가 달그락거리며 들려온다. 부두의 악단은 경쾌한 박자에 맞춰 거친 왈츠 곡을 연주하고 있고, 부두를 따라 더 멀리 간 뒷골목에서는 구세군 집회가 열리고 있다. 두 악단은 서로의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이곳에 있는 나는 두 소리를 모두 듣고 그 광경을 모두 보고 있다. 조너선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혹시 내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수어드 박사의 일기.

6월 5일. — 렌필드라는 환자를 이해하면 할수록 그 사례는 점점 더 흥미로워진다. 그는 이기심과 비밀스러움, 그리고 목적의식이라는 특성이 매우 강하게 발달한 인물이다. 나는 그가 가진 그 목적이 대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는 자신만의 확고한 계획을 세워둔 듯 보이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길이 없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동물을 사랑한다는 것인데, 사실 그 방식이 워낙 기이해서 가끔은 그저 비정상적으로 잔인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그가 기르는 동물들도 참 별나다. 요즘 그의 취미는 파리를 잡는 것이다. 지금은 파리를 너무 많이 잡아 놓아서 내가 직접 주의를 주어야 했을 정도다. 놀랍게도 그는 내가 예상했던 것처럼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아주 진지한 태도로 이 문제를 받아들였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사흘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다 치워 버리겠습니다." 나는 당연히 그러라고 말했다. 그를 계속 주시해야겠다.

* * * * *

6월 18일. — 그는 이제 거미에게 마음을 쏟고 있다. 상자 안에 아주 커다란 거미 몇 마리를 넣어 두었다. 그는 거미들에게 파리를 먹이며 기르고 있는데, 그 때문에 파리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비록 그가 방 안으로 더 많은 파리를 불러모으려고 식량의 절반을 써버리긴 했지만 말이다.

* * * * *

7월 1일.

그의 거미들이 이제는 파리만큼이나 성가신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오늘 그에게 거미를 처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 말을 들은 그는 몹시 슬픈 기색을 보였다. 그래서 적어도 몇 마리는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흔쾌히 동의했고, 나는 전과 마찬가지로 거미를 줄일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그와 함께 있는 동안 나는 그에게 몹시 혐오감을 느꼈다. 어느 날 썩은 고기라도 먹었는지 몸집이 불룩하게 부풀어 오른 끔찍한 금파리 한 마리가 방 안으로 윙윙거리며 날아 들어왔다. 그는 그 파리를 낚아채더니, 승리감에 도취한 듯 잠시 엄지와 검지 사이에 끼워 들고 있었다. 그러더니 내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파리를 입에 넣고 씹어 삼켜버렸다. 나는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아주 맛있고 건강에도 좋다며 차분하게 반박했다. 그것은 생명이며, 강인한 생명력이고, 자신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는 것이었다.

이 일로 나는 한 가지 생각, 혹은 그 실마리를 떠올렸다. 그가 거미를 어떻게 처분하는지 반드시 지켜봐야겠다. 그는 분명 마음속에 깊은 고민거리를 품고 있는 듯하다. 항상 무언가를 적어 넣는 작은 수첩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이다. 수첩의 몇 페이지는 온통 숫자들로 가득 차 있다. 대개는 숫자들을 묶음으로 더하고, 그 합계들을 다시 묶음으로 더하는 식이다. 마치 회계 감사관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장부를 '결산'하고 있는 모양새였다.

* * * * *

7월 8일.

그의 광기에도 나름의 체계가 있는 듯하다. 내 머릿속에 싹튼 단편적인 생각들이 점차 구체적인 형체를 갖춰가고 있다. 머지않아 이 생각이 하나의 온전한 이론으로 완성되는 날이 오면, 아, 무의식적인 두뇌 작용이여! 너는 의식이라는 네 형제에게 그 윗자리를 양보해야만 할 것이다. 나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피기 위해 며칠 동안 친구를 멀리했다. 상황은 이전과 다를 바 없었으나, 그가 기르던 애완동물 몇 마리를 처분하고 새로운 것을 하나 들였다는 점만 달라졌다. 그는 참새 한 마리를 구해왔는데, 벌써 어느 정도 길들이는 데 성공한 모양이다. 길들이는 방법은 간단해 보인다. 이미 거미의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아 있는 거미들은 아주 배불리 먹고 있다. 그가 여전히 자신의 음식으로 파리를 유인해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 * * * *

7월 19일.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내 친구는 이제 참새 한 무리를 통째로 거느리게 되었고, 그가 기르던 파리와 거미는 거의 자취를 감췄다. 내가 방에 들어서자 그는 내게 달려오더니 아주 큰 부탁, 정말이지 엄청나게 큰 부탁을 하나 하고 싶다고 말했다. 말을 하는 내내 그는 마치 강아지처럼 내 비위를 맞추며 아양을 떨었다. 무엇을 원하는지 묻자, 그는 황홀경에 빠진 듯한 목소리와 태도로 이렇게 말했다.

"새끼 고양이요, 아주 작고 매끈하고 장난기 많은 새끼 고양이 말이에요! 제가 같이 놀아주고, 가르치고, 먹이도 주고—먹이도 주고, 또 먹이도 줄 수 있는 그런 녀석요!"

그의 애완동물들이 점점 크기가 커지고 활기가 넘치는 것을 봐왔기에, 이런 부탁을 들었을 때 전혀 당황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가 기르는 온순한 참새 가족이 파리나 거미처럼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며 전멸하는 것은 원치 않았다. 그래서 일단 알아보겠다고 말하며, 새끼 고양이보다는 차라리 다 자란 고양이를 키우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대답하면서 그 열의를 숨기지 못했다.

"아, 네, 고양이를 갖고 싶어요! 그냥 혹시라도 고양이를 안 된다고 하실까 봐 새끼 고양이를 달라고 했던 것뿐이에요. 새끼 고양이를 거절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고개를 저으며,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지만 한번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의 얼굴이 어둡게 가라앉았다. 그 표정에서 나는 위험한 징조를 읽었다. 살의를 품은 듯, 갑자기 사납게 곁눈질하는 눈빛이 스쳤기 때문이다. 이 남자는 아직 발현되지 않은 살인광이다. 지금 그가 갈구하는 것을 시험해 보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볼 생각이다. 그래야 그에 대해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테니까.

*****

오후 10시. — 그를 다시 찾아가 보니, 구석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내가 들어가자 그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는 제발 고양이 한 마리만이라도 달라고 애원했다. 고양이를 가져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이다.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아무 말 없이 물러가, 내가 처음 발견했던 그 구석에 앉아 제 손가락을 깨물기 시작했다. 내일 이른 아침에 그를 다시 보러 가야겠다.

* * * * *

7월 20일.

간호사가 회진을 돌기 전, 아주 이른 시간에 렌필드를 방문했다. 그는 이미 깨어 있었고 곡조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렌필드는 아껴두었던 설탕을 창가에 넓게 펼쳐 놓았는데, 보아하니 다시 파리를 잡으려는 모양이었다. 그것도 아주 즐겁고 유쾌한 모습으로 말이다. 나는 그의 새들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았으나 보이지 않자,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몸을 돌리지도 않은 채, 새들이 모두 날아가 버렸다고 대답했다. 방 안에는 깃털이 몇 개 흩어져 있었고, 그의 베개 위에는 핏방울이 한 방울 떨어져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간호사에게 가서 낮 동안 렌필드에게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보이면 즉시 보고하라고 일러두었다.

* * * * *

오전 11시. 간호사가 방금 나를 찾아와 보고했다. 렌필드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으며, 엄청난 양의 깃털을 토해냈다고 한다. 간호사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박사님, 제 생각에는 렌필드가 새들을 잡아먹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생으로 말입니다!"

* * * * *

오후 11시.

오늘 밤 렌필드에게 아주 강한 아편제를 먹였다. 그조차 잠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이었다. 그러고는 그의 수첩을 가져와 내용을 살펴보았다. 최근 내 머릿속을 계속 맴돌던 생각은 이제 확신이 되었고, 가설은 증명되었다. 내가 마주한 이 살인광은 아주 특이한 부류다. 그를 위해 새로운 분류법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 나는 그를 '생명 포식적(zoöphagous) 광인'이라 부르겠다. 그가 갈망하는 것은 가능한 한 많은 생명을 흡수하는 것이며, 그는 이를 점진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왔다. 그는 수많은 파리를 한 마리의 거미에게 먹였고, 그 거미들을 다시 한 마리의 새에게 먹였다. 그러고는 이제 그 많은 새를 잡아먹을 고양이를 원하고 있다. 그 이후의 단계는 무엇이었을까? 이 실험을 끝까지 완수해 볼 가치가 있을 정도다. 충분한 명분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사람들은 생체 해부를 비웃었지만, 오늘날 그 결과가 어떠한지 보라! 가장 어렵고도 필수적인 과학의 영역, 즉 뇌에 관한 지식을 탐구하며 과학을 진보시키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만약 내가 단 한 명의 정신이라도 그 비밀을 파헤칠 수 있다면, 아니, 단 한 명의 미치광이라도 그 환상의 열쇠를 쥐게 된다면, 내 전공 분야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버든-샌더슨의 생리학이나 페리어의 뇌 과학 따위는 명함도 못 내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오직 충분한 명분만 있다면 말이다! 이 생각을 너무 깊이 해서는 안 된다. 자칫 유혹에 빠질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만약 정당한 명분이 주어진다면 내 마음이 기울 수도 있을 것이다. 나 또한 타고난 비범한 두뇌를 가진 존재일지도 모르지 않은가?

그는 참으로 논리적으로 사고했다. 미치광이란 본래 자신이 구축한 세계 안에서만큼은 언제나 그러하기 마련이다. 그가 사람 하나의 목숨을 몇 개의 생명만큼의 값어치로 치는지, 아니면 그저 하나의 생명으로만 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그는 지난 장부를 아주 정확하게 결산했고, 오늘 새로운 기록을 시작했다. 우리 중 과연 얼마나 많은 이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이토록 새로운 기록을 시작하며 살아가는가?

새로운 희망과 함께 내 삶의 전부가 끝났고, 진정으로 새로운 기록이 시작된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느껴진다. 위대한 기록자께서 내 인생을 총괄하여, 이익 혹은 손실의 결산과 함께 내 장부를 마감하실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기분이 들 것 같다. 아, 루시, 루시. 당신에게 화를 낼 수도 없고, 당신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인 내 친구에게도 화를 낼 수 없다. 그저 절망 속에서 기다리며 일해야 할 뿐이다. 일해야 한다! 일해야만 한다!

저 불쌍하고 미친 친구처럼 나에게도 강력한 명분이 있다면, 나를 움직이게 할 선하고 이타적인 명분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일 것이다.

미나 머리의 일기.

7월 26일.

마음이 불안하다. 이곳에 내 생각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된다. 마치 스스로에게 속삭이면서 동시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기분

이다. 게다가 속기 기호로 기록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글쓰기와는 또 다른 느낌을 준다.

루시와 조너선 때문에 마음이 좋지 않다. 한동안 조너선으로부터 소식이 없어 무척 걱정했는데, 다행히 어제 늘 친절한 호킨스 씨가 조너선의 편지를 보내주었다. 소식을 들은 게 있는지 묻는 편지를 보냈더니, 호킨스 씨는 동봉한 편지를 방금 받았다고 답했다. 드라큘라 성에서 온 편지는 단 한 줄뿐이었다. 이제 막 집으로 출발한다는 내용이었다. 조너선답지 않은 태도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 점이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

루시도 문제다. 상태가 좋아졌음에도 최근 들어 다시 몽유병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루시의 어머니께서도 이 일로 내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매일 밤 내 방 문을 잠그기로 결정했다. 웨스튼라 부인은 몽유병 환자들이 항상 집 지붕이나 절벽 끝으로 걸어 나간다고 믿고 계신다. 그러다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아래로 떨어지곤 한다는 것이다. 그 비명 소리가 온 사방에 울려 퍼진다고 하신다. 가여운 분께서 루시를 걱정하는 마음이 워낙 크시다 보니 그러시는 모양이다. 부인 말씀으로는 루시의 아버지였던 남편분도 같은 습관이 있었다고 한다. 붙잡지 않으면 밤중에 일어나 옷을 차려입고 밖으로 나가곤 하셨단다.

루시는 올가을에 결혼할 예정이다. 벌써 입을 드레스와 신혼집을 어떻게 꾸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나도 똑같이 계획을 세우고 있기에 루시의 마음이 이해된다. 다만 조너선과 나는 아주 소박하게 삶을 시작

할 것이고, 형편에 맞춰 꾸역꾸역 살아가야 할 처지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홈우드 씨—고달밍 경의 외아들인 아너러블 아서 홈우드다—가 조만간 이곳으로 올 예정이다. 아버님의 건강이 좋지 않아 도시를 떠나는 대로 바로 오겠다고 했다. 사랑스러운 루시는 그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듯하다. 루시는 그를 데리고 교회 묘지 절벽 위에 있는 자리로 가서 휘트비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 아마 기다림이 길어져서 마음이 불안한 모양이다. 그가 도착하면 루시도 괜찮아질 것이다.

* * * * *

7월 27일.

조너선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다.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져만 간다. 단 한 줄이라도 좋으니 그가 편지를 보내주었으면 좋겠다. 루시는 전보다 더 자주 산책을 나가고, 밤마다 방 안을 서성이는 루시의 움직임 때문에 잠에서 깨곤 한다. 다행히 날씨가 워낙 더워 루시가 한기를 느낄 일은 없겠지만, 걱정스러운 마음과 끊임없이 잠에서 깨는 일 때문에 나 역시 기력이 소진되고 신경이 날카로워지며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루시의 건강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아서 홈우드 씨는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급한 연락을 받고 링으로 불려 갔다. 루시는 아서 씨를 만나기로 했던 약속이 미뤄지자 초조해했지만, 겉모습에는 별다른 티가 나지 않는다. 루시는 체격이 약간 더 좋아졌고, 뺨에는 사랑스러운 장밋

빛 생기가 돈다. 예전에 보이던 그 빈혈 기운도 사라졌다. 이 상태가 부디 계속되기를 기도한다.

* * * * *

8월 3일.

또 한 주가 지났지만 조너선에게선 아무런 소식이 없다. 나와 연락을 주고받는 호킨스 씨에게조차 조너선이 아무런 소식을 전하지 않은 모양이다. 아, 제발 그가 아픈 게 아니길 바랄 뿐이다. 만약 몸이 좋지 않았다면 분명히 편지를 보냈을 것이다. 그가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를 다시 읽어보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분명 그의 필체가 맞는데도, 어쩐지 그답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 필체에 틀림은 없다.

루시는 지난 한 주 동안 몽유병 증세가 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루시에게서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집중력이 느껴진다. 잠든 상태에서도 마치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다. 루시는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문이 잠겨 있으면, 방 안을 돌아다니며 열쇠를 찾아 헤맨다.

8월 6일.

사흘이 더 지났지만 여전히 소식이 없다. 이 기다림이 너무도 끔찍하다. 어디로 편지를 보내야 할지, 어디로 찾아가야 할지만 안다면 마음이 한결 편할 텐데. 마지막 편지 이후로 조너선에 대해 들려오는 소식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신께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할 뿐이다. 루시는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해졌지만, 그것만 빼면 건강하다. 어젯밤은 날

씨가 매우 심상치 않았는데, 어부들은 폭풍이 몰려올 것이라고 말한다. 날씨의 징조를 살피며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오늘은 회색빛이 감도는 날이다. 글을 쓰는 지금, 태양은 케틀니스 상공 높은 곳의 두꺼운 구름 속에 몸을 숨기고 있다. 초록빛 풀밭이 마치 에메랄드처럼 빛나는 것을 제외하면 모든 것이 회색이다. 회색빛 흙바위, 그리고 저 멀리 구름 끝자락에 햇살이 스며든 회색 구름이 회색 바다 위로 낮게 드리워져 있다. 바다로 뻗어 나간 모래톱은 마치 회색 손가락처럼 보인다. 얕은 바다와 모래 벌판 위로 파도가 굉음을 내며 밀려들지만, 그 소리는 육지로 흘러드는 바다 안개에 먹먹하게 잦아든다. 수평선은 회색 안개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모든 것이 막막할 정도로 광활하다. 구름은 거대한 바위처럼 층층이 쌓여 있고, 바다 위에는 마치 불길한 징조를 알리는 듯한 '브룰(brool)' 소리가 울려 퍼진다. 해변 곳곳에는 어두운 형체들이 보이는데, 때로는 안개에 반쯤 가려져 마치 “나무처럼 걷는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한다. 어선들은 집으로 돌아가려 속력을 내고, 항구로 들어서며 너울에 솟구쳤다 가라앉기를 반복하면서 배수구가 잠길 듯 한쪽으로 기울어진다.

저기 스웨일스 노인이 오고 있다. 모자를 들어 올리는 몸짓을 보니, 나에게 할 말이 있는 모양이다.

그 가여운 노인이 보여준 변화에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노인은 내 곁에 앉더니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가씨.”

그가 무척이나 안절부절못하는 게 보였다. 나는 그의 주름진 노인의 손을 내 손으로 감싸 쥐며, 마음 편히 말씀하시라고 다독였다. 그러자 그는 내 손에 자신의 손을 맡긴 채 입을 열었다.

"내 사랑하는 아가, 지난 몇 주 동안 내가 죽은 자들에 대해 온갖 못된 소리를 늘어놓아서 자네를 놀라게 한 것 같아 걱정이구먼. 하지만 진심으로 한 말은 아니었으니, 내가 떠나고 나면 그 점을 꼭 기억해주게나. 우리처럼 정신이 혼미하고 한 발짝만 더 가면 저세상으로 떨어질 것 같은 노인네들은, 그런 걸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네. 겁도 먹고 싶지 않고 말이야. 그래서 내 마음이라도 조금 달래보려고 일부러 가볍게 농담처럼 떠든 것이라네. 하지만 세상에, 아가, 난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네. 조금도 말이야. 그저 피할 수만 있다면 죽고 싶지 않을 뿐이지. 이제 내 때가 다 된 모양이야. 나도 이만큼 늙었고, 백 년이라는 세월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감당하기엔 너무 긴 시간이니까. 죽음의 신이 벌써 낫을 갈고 있을 만큼 내 시간이 가까이 왔구먼. 알다시피, 갑자기 이런 생각을 안 하기가 쉽지 않네. 늘 하던 대로 입이 저절로 움직이는 걸 어쩌겠나. 머지않은 어느 날, 죽음의 천사가 나를 위해 나팔을 불겠지. 하지만 아가, 제발 울지는 말게나!"

내가 울고 있는 것을 본 그가 덧붙였다.

"설령 그가 바로 오늘 밤 찾아온다 해도, 나는 기꺼이 응하겠네. 결국 삶이란 우리가 지금 하는 일 말고 다른 무언가를 기다리는 과정일 뿐이고, 죽음이야말로 우리가 유일하게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이니까. 하지만 난 마음이 편안하네. 죽음이 나에게 오고 있으니 말이야,

내 사랑하는 아가. 그것도 아주 빠르게 오고 있어.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보며 경탄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찾아올지도 모르지. 어쩌면 저 바다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 속에, 상실과 난파, 고통과 슬픈 마음을 몰고 오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몰라. 봐! 저길 보게!"

그가 갑자기 외쳤다.

"저 바람 속에, 그리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 속에 무언가가 있네. 죽음과 같은 소리가 들리고, 죽음과 같은 모습이 보이며, 죽음과 같은 맛과 냄새가 나! 공기 중에 감돌고 있어. 죽음이 다가오는 게 느껴진단 말일세. 주여, 제 부름이 왔을 때 제가 기쁘게 응답할 수 있게 하소서!"

그는 경건하게 두 팔을 들어 올리고 모자를 들어 올렸다. 입술은 마치 기도라도 하는 듯 달싹였다. 몇 분간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 악수를 나누고는 내게 축복을 빌어주었다. 그리고 작별 인사를 건넨 뒤 절뚝거리며 그곳을 떠났다. 그 모든 모습이 내 마음을 울렸고, 나를 몹시 괴롭게 만들었다.

망원경을 옆구리에 낀 해안경비대가 나타나자 나는 안도했다. 그는 늘 그렇듯 나에게 말을 걸며 멈춰 섰지만, 내내 묘한 배 한 척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도통 저 배의 정체를 모르겠군." 그가 말했다. "생김새를 보아하니 러시아 배인 것 같은데, 배를 아주 기묘하게 몰고 있어. 도무지 갈피를 못 잡고 갈팡질팡하는군. 폭풍이 몰려오는 건 눈치챈 모양인데, 탁 트

인 북쪽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여기로 들어올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 저길 다시 보게! 조타를 아주 이상하게 하고 있단 말이야. 키를 잡은 손은 아랑곳하지 않고, 바람이 불 때마다 방향을 계속 바꾸고 있어. 내일 이맘때쯤이면 저 배에 대해 더 자세한 소식을 듣게 되겠지."

제VII장

<데일리 그래프> 발췌, 8월 8일

(_미나 머리의 일기에 붙여진 글._)

통신원으로부터.

휘트비.

이곳에서는 기록에 남을 만큼 거대하고 갑작스러운 폭풍이 방금 지나갔으며, 그 결과 또한 기이하고도 유례가 없다. 날씨는 다소 후텁지근했으나, 8월이라는 달을 고려하면 그리 드문 일은 아니었다. 토요일 저녁은 더할 나위 없이 화창했다. 어제는 휴가객들이 대거 몰려나와 멀그레이브 숲과 로빈 후드의 만, 리그 밀, 런스윅, 스테이즈를 방문하거나 휘트비 인근으로 여러 차례 나들이를 떠났다. 증기선 엠마호와 스카버러호가 해안을 따라 오갔으며, 휘트비를 오가는 나들이객의 행렬도 평소보다 유난히 북적였다.

날씨는 오후 전까지 유달리 좋았다. 그러다 이스트 클리프 교회 묘지를 자주 찾는 수다쟁이들이 북쪽과 동쪽으로 펼쳐진 드넓은 바다를 내려다보며, 북서쪽 높은 하늘에 갑자기 나타난 권운을 발견하고 주의를 환기했다. 당시 바람은 남서쪽에서 불어오고 있었는데, 기상학적 용어로는 '2번, 가벼운 미풍'이라 부를 만한 온화한 정도였다. 당직 중이던 해안 경비대가 즉시 보고를 올렸고, 반세기 넘게 이스트 클리프에서 기상 징후를 관찰해 온 한 노련한 어부는 곧 갑작스러운 폭풍이 몰려올 것이라고 단호하게 예언했다.

해 질 녘의 풍경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화려한 색채의 구름 덩어리들이 만들어내는 장관은 실로 웅장했다. 그 아름다움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옛 교회 묘지를 따라 이어진 절벽 산책로에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태양이 서쪽 하늘을 가로질러 검은 덩어리처럼 버티고 선 케틀니스 너머로 저물기 전까지, 하늘은 불꽃색, 보라색, 분홍색, 초록색, 제비꽃색, 그리고 온갖 황금빛을 머금은 무수한 노을빛 구름들로 물들며 저무는 길을 알렸다. 그 사이사이에는 크지는 않지만 마치 거대한 실루엣처럼 선명한 형태를 띤, 칠흑같이 검은 구름 덩어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화가들은 이 광경을 놓치지 않았다. 의심할 여지 없이, '대폭풍의 전조'를 그린 몇몇 스케치들이 내년 5월 왕립 미술관과 왕립 영국 미술관의 벽면을 장식하게 될 것이다. 당시 선장들 중 여럿은 자신의 배가 '코블'이든 '뮬'이든, 종류를 막론하고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항구에 머물기로 그 자리에서 결심했다.

저녁 동안 바람은 완전히 잦아들었다. 자정이 되자 바람 한 점 없는 정적이 찾아왔고, 후텁지근한 열기와 함께 천둥이 치기 직전에 예민한

사람들을 압도하는 특유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바다 위에는 불빛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평소 해안에 바짝 붙어 항해하던 연안 증기선들조차 바다 멀리 떨어져 있었고, 어선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눈에 띄는 돛은 모든 돛을 활짝 펼친 채 서쪽으로 향하는 듯한 외국 국적의 스쿠너 한 척뿐이었다. 그 배가 시야에 머무는 동안 선원들의 무모함이나 무지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고, 위험하니 돛을 줄이라는 신호를 보내려는 시도도 있었다. 밤이 깊어지기 전, 그 배는 일렁이는 파도 위에서 돛을 힘없이 펄럭이며 유유히 흔들리는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목격되었다.

"그림 속 바다 위에 그려진 그림 속 배처럼,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정지해 있었다."

열 시가 되기 직전, 공기의 정적은 숨이 막힐 정도로 무겁게 가라앉았다. 고요함이 워낙 깊어서 내륙에서 들려오는 양의 울음소리나 마을에서 짖는 개 소리까지도 또렷하게 들릴 정도였다. 부두에서 연주되는 경쾌한 프랑스 선율의 밴드 음악은, 대자연의 거대한 침묵이 이루는 조화 속에서 마치 불협화음처럼 겉돌았다. 자정이 조금 지나자 바다 너머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머리 위 높은 하늘에서는 정체 모를 희미하고 공허한 울림이 웅웅거리며 퍼지기 시작했다.

예고도 없이 폭풍이 몰아쳤다. 당시에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대자연의 모든 모습이 순식간에 뒤틀리기 시작했다. 파도는 점점 더 사나워지며 서로를 집어삼킬 듯 솟구쳤고, 불과 몇 분 만에 방금 전까지 거울처럼 매끄럽던 바다는 포효하며 모든 것을 잡아먹을 듯한 괴물로 변했다. 하

얀 거품을 머금은 파도는 평평한 모래사장에 미친 듯이 부딪혔고, 경사진 절벽을 타고 거세게 밀려 올라갔다. 어떤 파도는 방파제를 넘어 들이쳤고, 그 거품은 휘트비 항구 양쪽 방파제 끝에 세워진 등대의 등불을 휩쓸어 버렸다. 바람은 천둥처럼 울부짖으며 몰아쳤다. 그 기세가 어찌나 강한지 건장한 사내들조차 간신히 중심을 잡거나, 철제 지지대를 필사적으로 움켜쥐어야만 했다. 방파제에 모여든 구경꾼들을 모두 대피시켜야만 했다. 그러지 않았다면 이 밤의 인명 피해는 몇 배로 늘어났을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바다 안개가 육지 안쪽으로 밀려 들어오며 위험과 혼란을 더했다. 유령처럼 스쳐 지나가는 저 희고 젖은 구름 떼는 너무나 축축하고 차가웠다. 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영혼들이 죽음의 끈적한 손길로 살아있는 형제들을 어루만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섬뜩했다. 안개 띠가 휩쓸고 지나갈 때마다 많은 이들이 몸서리쳤다. 때때로 안개가 걷히면 번뜩이는 번갯불 사이로 멀리 바다가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번개는 쉴 새 없이 몰아쳤고, 뒤이어 터져 나오는 천둥소리는 너무나 갑작스럽고 거세서 마치 머리 위의 하늘 전체가 폭풍의 발걸음에 흔들리는 듯했다.

그렇게 드러난 장면 중 일부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웅장하고도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강렬했다. 집채만 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는 매 파도마다 거대한 흰 거품 덩어리를 하늘로 치솟게 했고, 폭풍은 그 거품을 낚아채 허공 속으로 휘몰아 던지는 듯했다. 여기저기에는 돛 조각을 단 어선들이 돌풍을 피해 필사적으로 안식처를 찾아 달아나고 있었고, 때때로 폭풍에 휘말린 바닷새의 하얀 날갯짓이 보였다. 동쪽 절벽 꼭대

기에는 실험을 위해 새로 설치한 탐조등이 준비되어 있었으나, 아직 시험 가동 전이었다. 탐조등을 담당하는 대원들이 장치를 작동시키자, 밀려드는 안개가 잠시 잦아들 때마다 탐조등의 빛줄기가 바다 표면을 훑었다. 한두 번은 이 빛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배의 난간이 물에 잠길 정도로 위태롭게 항구로 돌진하던 어선이, 안식처를 비추는 탐조등의 인도에 따라 방파제에 부딪히는 사고를 면할 수 있었던 순간이 그러했다. 배들이 무사히 항구에 도착할 때마다 해안가에 모인 군중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그 환호성은 잠시나마 강풍을 가르는 듯하더니, 이내 몰아치는 바람에 휩쓸려 사라져 버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탐조등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돛을 모두 펼친 채 항해하는 스쿠너 한 척을 발견했다. 분명 저녁 일찍 목격되었던 바로 그 배였다. 그사이 바람의 방향은 동쪽으로 바뀌어 있었다. 절벽 위에서 지켜보던 이들은 배가 처한 끔찍한 위험을 깨닫고 몸서리쳤다. 배와 항구 사이에는 거대하고 평평한 암초 지대가 놓여 있었다. 그동안 수많은 훌륭한 배들이 때때로 그 암초에 부딪혀 난파되곤 했다. 현재의 풍향대로라면 배가 항구 입구까지 도달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다. 만조 시간이 거의 다 되었으나 파도가 너무 거세어, 파도가 골을 이룰 때면 해안의 얕은 바닥이 보일 정도였다. 돛을 가득 펼친 스쿠너는 무서운 속도로 돌진하고 있었다. 한 노련한 선원은 "설령 지옥이라 할지라도, 저 배는 어딘가에는 닿아야만 할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때 지금까지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짙은 해무가 몰려왔다. 축축한 안개 덩어리가 마치 회색 수의처럼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듯했다. 안개가 시야를 가로막자 사람들에게 남은 감각은 청각뿐이었다. 폭풍의 포

효와 천둥소리, 그리고 거대한 파도가 부딪히는 굉음이 습한 망각의 장막을 뚫고 이전보다 더욱 크게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충돌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동쪽 방파제 너머 항구 입구에 탐조등을 고정시킨 채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갑자기 바람이 북동쪽으로 바뀌었고, 남은 해무도 돌풍에 녹아내렸다. 그때, 참으로 기이하게도, 방파제 사이로 몰아친 바람이 파도를 타고 무서운 속도로 달려들며 돛을 활짝 편 기묘한 스쿠너를 밀어붙였다. 배는 바람을 타고 항구 안으로 안전하게 들어왔다. 탐조등이 배를 따라갔고, 그 모습을 본 모든 이들은 전율했다. 키에 묶여 있는 것은 고개는 떨군 채 배가 흔들릴 때마다 끔찍하게 앞뒤로 휘둘리는 시체였기 때문이다. 갑판 위에서는 그 외의 형체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죽은 자의 손에 의지한 채, 마치 기적처럼 배가 항구를 찾아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모두 깊은 경외감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이 글을 쓰는 시간보다 더 빠르게 지나갔다. 스쿠너는 멈추지 않고 항구를 가로질러 돌진하더니, 동쪽 절벽 아래로 돌출된 테이트 힐 방파제라고 불리는 곳의 남동쪽 모퉁이에 들이받았다. 그곳은 수많은 조수와 폭풍에 의해 모래와 자갈이 쌓여 있는 곳이었다.

배가 모래 언덕으로 돌진하면서 당연히 엄청난 충격이 가해졌다. 돛대와 밧줄, 지지선이 모두 팽팽하게 당겨졌고, 상부의 일부 장비들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져 내렸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이했던 일은 배가 해안에 닿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마치 충격 때문에 튀어 오른 것처럼, 거대한 개 한 마리가 갑자기 갑판 아래에서 위로 솟구쳐 올랐다. 개

는 앞으로 달려가더니 선수에서 모래사장 위로 뛰어내렸다. 개는 가파른 절벽을 향해 곧장 달려갔다. 그곳은 동쪽 방파제로 이어지는 좁은 길 위로 묘지가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곳이었다. 떠받치던 절벽이 무너져 내린 탓에, 휘트비 방언으로 '스루프-스틴스(thruff-steans)' 또는 '스루-스톤(through-stones)'이라 불리는 평평한 묘비들이 그 무너진 가장자리 위로 툭 튀어나와 있을 정도였다. 개는 탐조등이 비추는 곳을 벗어나자마자, 빛이 닿지 않아 더욱 짙게 느껴지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 시각 테이트 힐 방파제에는 아무도 없었다.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잠자리에 들었거나, 저 높은 언덕 위에 나가 있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항구 동쪽에서 근무하던 해안 경비원이 가장 먼저 그 작은 방파제로 달려 내려와 배에 올라탈 수 있었다. 탐조등을 비추던 대원들은 항구 입구를 샅샅이 훑었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자, 이내 빛을 버려진 배로 돌려 그곳을 계속 비추었다. 해안 경비원이 배 뒷부분으로 달려가 키 옆에 섰다. 그는 키를 살피려 몸을 굽혔으나, 마치 무언가에 크게 놀란 듯 즉시 뒤로 움츠러들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의 호기심이 자극되었고, 곧 수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달려오기 시작했다. 서쪽 절벽의 도개교를 지나 테이트 힐 방파제까지 가는 길은 꽤 멀지만, 필자는 달리기 실력이 제법 좋아 인파보다 훨씬 앞서 도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해 보니 방파제에는 이미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고 있었고, 해안 경비원과 경찰은 그들이 배에 올라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 다행히 수석 보트장의 배려 덕분에 필자도 기자 자격으로 갑판

에 올라갈 수 있었다. 덕분에 키에 몸이 묶인 채 죽어 있는 선원을 직접 목격한 소수의 사람 중 한 명이 되었다.

해안 경비대원들이 놀라거나 심지어 경외감마저 느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토록 기이한 광경은 좀처럼 보기 드문 것이었기 때문이다. 남자는 양손을 겹쳐 묶은 채 조타륜의 살에 그대로 고정되어 있었다. 안쪽 손과 나무 사이에는 십자가가 놓여 있었고, 십자가가 매달린 묵주 알들은 양 손목과 조타륜을 휘감아 결박 끈에 의해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불쌍한 이 남자는 한때 자리에 앉아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돛이 펄럭이며 몰아치는 바람의 충격이 조타륜의 키를 통해 전달되면서 남자를 앞뒤로 거칠게 흔들어 놓았고, 그 바람에 몸을 묶은 끈이 살점을 뼈까지 파고들었다. 현장 상태는 정확히 기록되었다. 내가 도착한 직후 찾아온 의사, 이스트 엘리엇 플레이스 33번지의 외과 의사 J. M. 캐핀은 검사 후 이 남자가 죽은 지 꼬박 이틀은 지났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남자의 주머니에는 코르크로 정성스럽게 막은 병 하나가 들어 있었는데, 병 안에는 작은 종이 뭉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확인 결과 그 종이는 항해 일지의 부록이었다. 해안 경비대원의 말에 따르면, 남자가 직접 손을 묶고 치아를 이용해 매듭을 조였던 모양이다. 해안 경비대원이 가장 먼저 배에 올라탔다는 사실은 나중에 해사 법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를 방지해 줄 것이다. 해안 경비대원은 표류선에 처음 발을 들인 민간인이 갖는 구조 보상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법조계에서는 말이 무성하다. 한 젊은 법학도는 소유주의 권리가 이미 완전히 희생되었다고 큰 소리로 주장하고 있다. 키는 위임된 점유의 증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상징인데, 그

것이 '죽은 손(dead hand)'에 붙들려 있으니 이는 사인부동산법(mortmain) 위반이라는 논리다. 말할 필요도 없이, 죽은 조타수는 명예로운 경계 근무를 죽음 직전까지 수행했던 그 자리에서—마치 젊은 카사비앙카처럼 숭고하고 확고한 인내심을 보여준 채—경건하게 옮겨져, 검시를 기다리며 시체 안치소에 안치되었다.

갑작스러운 폭풍은 이미 지나가고 있으며, 그 기세도 잦아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집으로 향하고, 요크셔 구릉지대 너머의 하늘은 붉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항구에 들어온 그 버려진 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호가 나올 때 맞춰 보내겠습니다.

휘트비

8월 9일.

어젯밤 폭풍우 속에 표류선이 나타난 기이한 사건에 이어, 그 뒤에 밝혀진 사실들이 사건 자체만큼이나 놀랍다. 확인 결과, 그 범선은 바르나에서 온 러시아 선박이며 이름은 데메테르호라고 한다. 배 안은 거의 전부 은모래로 채워져 평형수를 맞추고 있었고, 화물은 아주 적었다. 흙이 가득 찬 커다란 나무 상자들이 몇 개 있을 뿐이었다. 이 화물은 휘트비의 변호사인 S. F. 빌링턴 씨에게 인도될 예정이었다. 그는 크레센트 7번지에 거주하는 인물로, 오늘 아침 배에 올라 자신에게 배정된 물품들을 정식으로 인수했다. 또한 용선 계약을 대행하는 러시아 영사도 배를 정식으로 인수하고 항만세 등을 모두 지불했다.

오늘 이곳에서는 이 기묘한 우연에 대해서만 온통 떠들썩하다. 통상위원회 관리들은 기존 규정을 모두 준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우 까다롭게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그저 '며칠간의 소동'으로 끝날 일인 만큼, 관리들은 나중에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모양이다.

배가 좌초했을 때 육지로 올라온 개에 대해서도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였다. 휘트비에서 세력이 강한 동물보호협회(S. P. C. A.) 회원 중 여러 명이 그 동물을 돌보려 애썼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개는 찾을 수 없었다. 마을에서 완전히 사라진 듯하다. 겁에 질려 황야로 도망쳤고, 그곳 어딘가에 공포에 떨며 숨어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어떤 이들은 그 가능성을 두려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그 개가 분명 사나운 짐승이었기에, 나중에라도 위험한 존재가 될까 우려하는 것이다.

오늘 이른 아침, 테이트 힐 부두 근처 석탄 상인의 소유인 커다란 잡종 마스티프 한 마리가 주인 창고 맞은편 도로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 개는 싸움을 한 것이 분명했고, 상대는 틀림없이 사나운 짐승이었다. 목은 뜯겨 나갔고, 배는 마치 사나운 발톱에 찢긴 듯 갈라져 있었다.

* * * * *

나중에.--통상위원회 조사관의 친절한 배려 덕분에 데메테르호의 항해 일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일지는 사흘 전 기록까지만 남아 있었는데, 실종된 선원들에 관한 사실 외에는 딱히 흥미로운 내용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 검시 과정에서 공개된, 병 속에서 발견된 쪽지에 관한

내용은 매우 흥미롭다. 그 쪽지와 일지, 이 둘이 함께 펼쳐 보이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내가 접해온 그 어떤 서사보다도 기묘하다. 숨길 이유가 없기에 나는 이 기록들을 인용하고자 한다. 다만 항해술이나 화물 관리와 관련된 전문적인 세부 사항은 생략하고 보내겠다. 마치 선장이 먼바다로 나가기도 전에 어떤 광기에 사로잡혔고, 그 광기가 항해 내내 끈질기게 이어졌던 것처럼 보인다. 물론 내 설명은 어느 정도 걸러서 들어야 한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친절하게 통역을 도와준 러시아 영사관 서기의 구술을 받아 적고 있기 때문이다.

"데메테르"호 항해 일지

바르나에서 휘트비로.

7월 18일 기록. 너무나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상륙할 때까지 앞으로의 모든 상황을 정확히 기록해 두려 한다.

* * * * *

7월 6일, 은모래와 흙 상자 등 화물 선적을 마쳤다. 정오에 출항했다. 동풍이 불며 바람은 상쾌하다. 선원은 나(선장)를 포함해 항해사 두 명, 요리사, 선원 다섯 명이다.

* * * * *

7월 11일 새벽, 보스포루스 해협에 진입했다. 터키 세관원들이 승선했다. 뇌물을 주었다. 모든 절차는 문제없이 끝났다. 오후 4시, 항해를 시작한다.

* * * * *

7월 12일, 다르다넬스 해협을 통과함. 세관 공무원들이 더 늘어났고, 호위 함대의 깃발선도 나타났다. 또 뇌물을 요구한다. 관리들은 철저하게 일하면서도 손은 빨랐다. 우리를 빨리 보내고 싶어 하는 눈치다. 어둠이 내릴 무렵 에게해로 진입했다.

* * * * *

7월 13일, 마타판 곶을 지나쳤다. 선원들이 무언가에 불만을 품은 듯했다. 다들 겁에 질린 기색이었으나,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다.

* * * * *

7월 14일. 선원들 때문에 마음이 다소 불안했다. 모두 전에도 함께 항해했던, 믿음직한 친구들이다. 일등 항해사는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지 못했다. 선원들은 그저 무언가 '있긴 있다'라고만 말하며 성호를 그을 뿐이었다. 그날 항해사가 선원 중 한 명에게 화를 내며 손찌검을 했다. 격렬한 싸움이 일어날 줄 알았으나, 상황은 오히려 고요했다.

* * * * *

7월 16일 오전, 일등 항해사가 선원 중 한 명인 페트로프스키가 실종되었다고 보고했다. 원인은 알 수 없다. 그는 어젯밤 여덟 점종에 좌현 당직을 섰고, 아브라모프가 교대해 주었으나 그 뒤 침상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선원들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침울하다. 다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고 말하면서도, 배 안에 무언가 '있기는 하다'는 말 외에는 더 입을 열지 않는다. 일등 항해사는 선원들에게 점점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닥칠지 두렵다.

* * * * *

7월 17일 어제, 선원 중 한 명인 올가렌이 내 선실로 찾아왔다. 그는 경외감마저 느껴지는 겁에 질린 모습으로, 배에 낯선 남자가 타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털어놓았다. 올가렌의 말에 따르면, 폭풍우가 몰아치던 당직 시간에 그는 갑판실 뒤에 몸을 피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때 선원들과는 전혀 다르게 생긴, 키가 크고 마른 남자가 승강구 계단을 올라와 갑판 앞쪽을 가로질러 가더니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올가렌은 조심스럽게 그 뒤를 쫓았으나, 선수에 다다랐을 때는 이미 아무도 없었고 해치는 모두 닫혀 있었다고 했다. 그는 미신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공황 상태에 빠졌으며, 나는 이 불안감이 배 전체로 퍼질까 두렵다.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나는 오늘 배의 선수부터 선미까지 구석구석 철저히 수색할 계획이다.

* * * * *

그날 오후 늦게 나는 선원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배 안에 누군가 숨어 있다고 다들 믿는 눈치였기에, 나는 배의 앞머리부터 뒷부분까지 샅샅이 수색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등 항해사는 화를 내며 이런 짓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했다. 이런 허황된 생각에 휘둘리면 선원들의 사기만 떨어질 뿐이라며, 만약 소란이 일어나면 지렛대를 휘둘러서라도 엄히 다스리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나는 그에게 키를 맡기고, 나머지 선원

들과 함께 랜턴을 들고 구석구석 철저한 수색을 시작했다. 단 한 군데의 구석도 놓치지 않고 뒤졌다. 배 안에는 커다란 나무 상자들뿐이라 사람이 숨을 만한 틈새는 없었다. 수색이 끝나자 선원들은 안도하며 다시 밝은 모습으로 일에 복귀했다. 일등 항해사는 얼굴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

7월 22일. — 지난 사흘간 날씨가 험악했다. 선원들은 모두 돛을 손질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겁에 질릴 겨를조차 없었다. 사람들은 공포를 잊은 듯하다. 일등 항해사도 다시 기운을 차렸고, 모두 사이가 좋다. 악천후 속에서도 제 몫을 다한 선원들을 칭찬했다. 지브롤터를 지나 해협을 통과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다.

*****

7월 24일. — 이 배에는 불길한 운명이 드리운 것 같다. 이미 선원이 한 명 부족한 상태에서 거친 날씨를 뚫고 비스케이만으로 진입하고 있는데, 어젯밤 또 다른 선원이 실종되었다. 첫 번째 실종자와 마찬가지로, 그는 교대 근무를 마치고 나간 뒤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선원들은 모두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모른다.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렵다며, 당직을 2인 1조로 서게 해달라는 연명 청원서를 보냈다. 일등 항해사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항해사나 선원 중 누군가가 폭력을 휘두르는 등 큰 소동이 일어날까 두렵다.

*****

7월 28일. 지옥 같은 나날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거대한 소용돌이 속을 헤매는 기분이며, 바람은 폭풍우처럼 몰아친다. 누구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선원들은 모두 녹초가 되었다. 다들 기력이 다해 제대로 당직을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에 이등 항해사가 조타와 당직을 자처했고, 덕분에 선원들은 몇 시간이라도 눈을 붙일 수 있게 되었다. 바람은 잦아들고 있으나 파도는 여전히 무시무시하다. 그래도 배가 점차 안정을 찾으면서 파도의 충격은 전보다 덜하게 느껴진다.

* * * * *

7월 29일. —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났다. 선원들이 너무 지쳐 2인 당직을 설 수 없었기에, 오늘 밤은 당직을 한 명씩만 세웠다. 아침 당직자가 갑판에 올라왔을 때, 키를 잡은 조타수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내가 큰 소리로 외치자 모두가 갑판으로 몰려나왔다. 샅샅이 뒤졌으나 아무도 찾지 못했다. 이제 이등 항해사마저 없는 상태라 선원들은 공포에 빠져 있다. 항해사와 나는 앞으로 무기를 지참하고 대기하며, 사건의 원인이 드러날 기미가 있는지 지켜보기로 합의했다.

* * * * *

7월 30일. 어젯밤. 드디어 영국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기쁨을 만끽했다. 날씨는 화창했고, 모든 돛을 펼쳤다. 녹초가 된 채 잠자리에 들었고, 아주 깊은 잠을 잤다. 하지만 일등 항해사가 당직 선원과 조타수가 사라졌다고 알려주는 바람에 잠에서 깨고 말았다.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인원은 이제 나와 일등 항해사, 그리고 선원 두 명뿐이다.

* * * * *

8월 1일. — 이틀째 안개가 자욱하고, 돛을 올린 배는 단 한 척도 보이지 않는다. 영국 해협에 들어섰을 때는 구조 신호를 보내거나 어디든 정박할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돛을 조절할 힘이 없어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야만 한다. 돛을 내릴 엄두도 나지 않는다. 다시 올릴 힘이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마치 끔찍한 파멸을 향해 표류하고 있는 듯하다. 일등 항해사는 이제 선원들 중 누구보다도 의기소침해져 있다. 강인했던 그의 성격이 오히려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는 모양이다. 선원들은 공포를 넘어선 상태다. 최악의 상황을 각오한 채, 그저 묵묵하고 인내심 있게 움직일 뿐이다. 선원들은 러시아인이고, 항해사는 루마니아인이다.

* * * * *

8월 2일, 자정.

잠깐 잠이 들었다가 내 선실 현창 밖에서 들려온 듯한 비명 소리에 깨어났다. 안개가 자욱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급히 갑판으로 달려 나갔다가 일등 항해사와 부딪히고 말았다. 항해사의 말로는 자신도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왔지만, 당직을 서던 선원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한 명이 사라졌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항해사의 말에 따르면, 비명 소리가 들리는 순간 안개가 잠시 걷히며 노스 포어랜드가 보였다고 하니, 우리는 이미 도버 해협을 지나온 모양이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북해 한가운데에 있는 셈이다. 우리와

함께 움직이는 듯한 이 안개 속에서, 오직 신만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신마저 우리를 버리신 것만 같다.

* * * * *

8월 3일. —— 자정에 키를 잡고 있던 선원을 교대해주러 갔으나, 막상 도착했을 때는 아무도 없었다. 바람은 일정하게 불었고, 바람을 등지고 달리는 중이라 배가 좌우로 흔들리지도 않았다. 키를 비울 엄두가 나지 않아 일등 항해사를 향해 소리쳤다. 몇 초 지나지 않아 그가 플란넬 셔츠 차림으로 갑판 위로 급히 뛰어 올라왔다. 그는 눈이 뒤집힌 채 초췌해 보였는데, 정신이 나가버린 것은 아닌지 몹시 두려웠다. 그는 내 곁으로 다가와, 마치 공기조차 듣고 있을까 겁내는 사람처럼 내 귀에 입을 바짝 대고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것이 여기 있어. 이제 확실히 알겠어. 어젯밤 당직을 설 때 그것을 봤네. 사람처럼 생겼는데, 키가 크고 말랐으며 소름 끼칠 정도로 창백했지. 그것은 선수 쪽에 있었고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 내가 뒤로 몰래 다가가 칼을 휘둘렀지만, 칼은 공기처럼 허무하게 그것을 통과해 버렸네." 말을 마친 그는 자신의 칼을 꺼내 허공을 향해 사납게 내질렀다. 그러고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여기 있어. 반드시 찾아내고 말 거야. 아마 선창에 있을 거야, 저 상자들 중 하나겠지. 상자들을 하나씩 다 열어볼 걸세. 자네는 키를 잡고 있게." 그는 경고하는 눈빛을 보내며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대더니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파도가 일렁이는 바람이 불기 시작했지만, 나는 키를 떠날 수 없었다. 잠시 후 그가 공구 상자와 등불을 들고 다시 갑판으로 나와 앞쪽 해치로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미쳤다. 완전히 미쳐버렸다. 그를 말려봤자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다.

그 커다란 상자들을 건드린다고 해서 해가 될 리는 없다. 상자에는 '점토'라고 적혀 있으니, 상자를 옮겨보는 것 정도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터였다. 그래서 나는 이곳에 남아 키를 잡으며 이 기록을 남긴다. 그저 신께 의지하며 안개가 걷히기를 기다릴 뿐이다. 안개가 걷힌 뒤에도 지금 같은 바람으로는 항구로 향할 수 없다면, 돛을 내리고 표류하며 구조 신호를 보낼 생각이다.

*****

이제 거의 다 끝났다. 일등 항해사가 조금이라도 차분해지기를 바랐던 참이었다. 선창에서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일에 몰두하는 것이 그에게 도움이 될 터였다. 그런데 갑자기 해치 위로 날카롭고 경악에 찬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 소리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곧이어 그는 마치 총탄처럼 갑판 위로 튀어 올라왔다. 눈은 뒤집히고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진, 광기에 사로잡힌 미친놈의 모습이었다.

"살려주시오! 살려줘!"

그는 울부짖으며 안개에 뒤덮인 주위를 둘러보았다. 공포는 곧 절망으로 바뀌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장님도 같이 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너무 늦기 전에 말입니다. *그가* 저기에 있습니다. 이제 비밀을 알 것 같습니다. 바다가 저를 그에게서 구해줄 겁니다. 이제 남은 방법은 그것뿐입니다!"

내가 한마디라도 건네거나 그를 붙잡으려 다가가기도 전에, 그는 난간 위로 뛰어오르더니 망설임 없이 바다로 몸을 던졌다. 나 역시 이제 그 비밀을 알 것 같다. 선원들을 한 명씩 제거한 것도 바로 이 미친놈이었고, 이제 그 자신도 그들을 따라간 것이다.

맙소사, 신이시여! 항구에 도착하면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한단 말인가? 항구에 도착하기는 할 수 있을까! 과연 도착할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

* * * * *

8월 4일. — 여전히 안개가 자욱하다. 일출조차 안개를 뚫지 못한다. 나는 선원이기에 해가 떴다는 사실을 안다. 그 외에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아래층으로 내려갈 엄두도 나지 않았고, 키를 떠날 수도 없었다. 그래서 밤새 이곳을 지켰다. 그러다 어스름한 밤의 어둠 속에서 그것을 보았다. 그놈을! 하나님, 저를 용서하소서. 하지만 일등 항해사가 바다로 뛰어든 것은 옳았다. 차라리 사내답게 죽는 편이 나았다. 푸른 바다에서 선원답게 죽는 것이라면 누구도 비난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선장이다. 배를 떠날 수는 없다. 하지만 나는 이 악마, 이 괴물을 반드시 물리치고야 말 것이다. 기력이 다하기 시작하면 내 두 손을 키에 묶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 손과 함께, 그놈이 감히 건드리지 못할 성물을 함께 묶어두겠다. 그러면 순풍이 불든 역풍이 불든, 나는 내 영혼과 선장으로서의 명예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점점 기운이 빠진다. 밤이 다가오고 있다. 만약 그놈이 다시 내 얼굴을 마주 보려 한다면, 내가 대처할 시간이 없을지도 모른다. 만약 우리가 난파된다면, 어쩌면

이 병이 발견될지도 모른다. 발견한 이들이 이 병을 보고 내 뜻을 이해할 수 있기를. 만약 그렇지 못한다 해도… 뭐, 그렇다 해도 내가 내 책무에 충실했다는 사실만은 모든 이가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의 의무를 다하려 애쓰는 이 가련하고 무지한 영혼을 하나님과 성모 마리아, 그리고 성인들께서 도우시기를….

*****

물론 평결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미결 평결이었다. 내세울 만한 증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 남자가 실제로 살인을 저질렀는지 아닌지도 이제는 말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곳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선장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고 믿고 있으며, 그를 위해 공개 장례식을 치러 주기로 했다. 이미 그의 시신을 여러 척의 배가 줄지어 호위하는 가운데 에스크강을 따라 얼마간 거슬러 올라갔다가, 다시 테이트힐 부두로 모셔 와 수도원 계단을 거쳐 절벽 위 교회 묘지에 안치하기로 계획이 잡혔다. 백 척이 넘는 배의 선주들이 이미 그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겠다며 이름을 올렸다.

그 거대한 개에 대한 흔적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이 일로 많은 이들이 슬퍼하고 있다. 지금의 여론을 보건대, 만약 그 개가 살아 있었다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를 가족처럼 받아들였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내일이면 장례가 치러질 것이고, 이로써 또 하나의 '바다의 미스터리'는 막을 내릴 것이다.

미나 머리의 일기.

8월 8일.

루시는 밤새 무척 뒤척였고, 나 역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폭풍우가 무시무시하게 몰아쳤다. 폭풍이 굴뚝 사이로 요란하게 울부짖을 때마다 나는 몸서리가 쳐졌다. 날카로운 돌풍이 몰아칠 때면 마치 멀리서 대포를 쏘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다. 이상하게도 루시는 깨지 않았다. 다만 두 번이나 몸을 일으켜 옷을 챙겨 입었다. 다행히 그때마다 내가 제때 깨어나 루시를 깨우지 않고 옷을 벗겨 다시 침대로 눕힐 수 있었다. 몽유병이란 참으로 기이한 현상이다. 신체적인 움직임이 무언가에 의해 가로막히기만 하면, 루시의 의도—설령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는 곧바로 사라져 버린다. 그러고는 거의 평소의 일상 그대로 순순히 몸을 맡겨 버린다.

이른 아침, 우리는 둘 다 일어나 밤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려 항구로 내려갔다. 거리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햇살은 눈부셨고 공기는 맑고 상쾌했지만, 항구의 좁은 입구로는 크고 험악한 파도가 밀려들고 있었다. 파도 끝에 이는 거품이 마치 눈처럼 하얘서 파도 자체가 어둡게 보일 정도였다. 그 파도는 마치 무리를 헤치고 지나가는 거친 사내처럼 항구 안으로 거칠게 밀고 들어왔다. 왠지 모르게 조너선이 어젯밤 바다 위가 아니라 육지에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 그가 지금 육지에 있는 걸까, 아니면 바다 위에 있는 걸까? 그는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된 상태일까? 그에 대한 걱정 때문에 불안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만 한다면, 무엇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 * * * *

8월 10일.

오늘 치러진 불쌍한 선장의 장례식은 무척이나 가슴 뭉클했다. 항구의 모든 배가 그곳에 모인 듯했다. 관은 테이트 힐 부두에서 교회 묘지까지 내내 여러 선장들의 손에 운구되었다. 루시도 나와 함께 와서, 우리는 일찍 우리가 늘 앉던 그 자리로 갔고, 그동안 배들의 행렬은 강을 따라 고가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 전망이 아주 좋아서 행렬의 거의 전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다. 불쌍한 선장은 우리 자리와 아주 가까운 곳에 안치되었기에,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벤치 위에 올라서서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가여운 루시는 무척이나 상심한 듯 보였다. 내내 안절부절못하며 불안해하는 모습이었는데, 밤마다 꾸는 꿈이 그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루시는 한 가지 면에서 참으로 이상하다. 자신에게 불안해할 만한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내게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설령 원인이 있다 해도, 정작 본인조차 그 이유를 모르고 있는 듯하다.

설상가상으로 오늘 아침, 불쌍한 노인 스웨일스 씨가 우리 자리에서 목이 부러진 채 숨진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그는 무언가에 크게 놀라 자리에 뒤로 넘어지며 사망한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 사람들의 말로는 그의 얼굴에 공포와 경악이 서려 있어 보는 이들조차 몸서리칠 정도였다고 한다. 가여운 노인! 어쩌면 죽어가는 눈으로 죽음의 형상을 목격한 것일지도 모른다! 루시는 워낙 다정하고 섬세

한 성격이라, 다른 사람들보다 외부의 영향을 훨씬 더 예민하게 받아들인다.

방금 전에도 루시는 내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사소한 일에 크게 동요했다. 나 역시 동물을 무척 좋아하지만 말이다. 이곳으로 배를 살피러 자주 찾아오는 남자 중 한 명이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왔다. 그 개는 늘 그 남자의 곁을 지킨다. 둘 다 조용한 편이라, 나는 그 남자가 화를 내는 것을 본 적도 없고 개가 짖는 소리를 들은 적도 없었다.

그런데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개는 우리와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던 주인에게로 오지 않고 몇 야드 떨어진 곳에서 계속 짖어대며 울부짖었다. 주인은 개에게 부드럽게 말하기도 하고, 엄하게 말하기도 하고, 화를 내며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개는 다가오지도, 울음을 그치지도 않았다. 개는 마치 광기에 사로잡힌 듯 눈빛이 사나웠고, 털은 싸움에 나선 고양이의 꼬리처럼 빳빳하게 곤두서 있었다. 결국 남자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는지, 자리에서 뛰어 내려와 개를 발로 찼다. 그러고는 개의 뒷덜미를 잡아, 그 벤치가 얹혀 있는 묘비 위로 반쯤 끌고 가던지듯 내려놓았다.

그 가여운 짐승은 묘비에 닿는 순간 조용해지더니 온몸을 부르르 떨기 시작했다. 도망치려고도 하지 않은 채, 개는 몸을 웅크리고 벌벌 떨며 겁에 질려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나도 달래보려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루시 역시 무척 가여워했지만, 개를 만지려 하지는 않고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기만 했다.

나는 루시의 성정이 너무나 예민해서 세상살이를 평탄하게 헤쳐 나가지 못할까 봐 몹시 걱정된다. 분명 오늘 밤에도 이 일을 꿈에서 보게 될 것이다. 죽은 이가 조종한 배가 항구로 들어온 일, 십자가와 묵주로 조타 핸들에 묶인 그의 모습, 가슴 아픈 장례식, 그리고 광기에 휩싸였다가 다시 공포에 질린 그 개까지. 이 모든 일이 한데 엉겨 붙어 그녀의 꿈에 재료가 될 것이 분명하다.

그녀가 몸을 아주 고단하게 만든 뒤에 잠자리에 드는 편이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절벽을 따라 로빈 후드 베이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긴 산책을 함께 다녀올 생각이다. 그렇게 하면 그녀가 몽유병 증세를 보일 일도 별로 없을 테니까.

제VIII장

미나 머리의 일기

같은 날 오후 11시.

아, 정말이지 너무 피곤하다! 일기를 쓰는 것을 의무로 삼지 않았더라면 오늘 밤은 펼치지도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아주 즐거운 산책을 했다. 루시는 잠시 후 기분이 무척 좋아졌는데, 내 생각엔 등대 근처 들판에서 우리 쪽으로 코를 킁킁거리며 다가와 우리를 혼비백산하게 만든 귀여운 암소들 덕분인 것 같다. 그 순간만큼은 개인적인 공포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잊어버린 듯했고, 덕분에 마음의 짐을 깨끗이 털어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이었다. 우리는 로빈 후드 베이의 작고 예쁜 옛날식 여관에서 아주 푸짐한 '하이 티'를 즐겼다. 그 여관은 해안가의 해초 덮인 바위 바로 위로 돌출된 활 모양 창이 있는 곳이었다. 우리의 식욕을 봤다면 아마 '신여성'들은 깜짝 놀랐을 것이다. 남자들은 훨씬 관대하니, 그들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그러고 나서 우리는 집으로 걸어왔는데, 야생 황소에 대한 공포로 내내 가슴을 졸이며 중간중간,

아니 아주 여러 번 쉬어가며 걸었다. 루시는 정말 지쳐 있었고,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침대로 기어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젊은 부목사가 찾아왔고, 웨스튼라 부인이 그에게 저녁 식사를 하고 가라고 권했다. 그래서 루시와 나는 둘 다 쏟아지는 졸음과 한바탕 사투를 벌여야 했다. 내 쪽에서는 정말 힘겨운 싸움이었고, 그래서 나는 꽤나 영웅적이었다. 언젠가는 주교들이 모여서, 아무리 권유를 받아도 저녁 식사 자리에 끼지 않고 여자가 피곤해할 때를 알아채는 새로운 부류의 부목사를 양성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루시는 숨을 고르게 내쉬며 잠들었다. 평소보다 뺨에 생기가 돌고, 아, 정말 사랑스러워 보인다. 홈우드 씨가 거실에서만 루시를 보고도 사랑에 빠졌다면, 지금 이 모습을 본다면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다. 언젠가 '신여성' 작가들 중 누군가는 청혼하거나 승낙하기 전에 남녀가 서로 잠든 모습을 먼저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신여성들은 앞으로 승낙하는 일 따위에 응하려 하지 않을 것 같다. 직접 청혼을 하겠지. 게다가 그 일을 아주 볼만하게 해낼 테고! 그 점만은 차라리 위안이 된다.

오늘 밤 나는 정말 행복하다. 사랑스러운 루시의 상태가 좋아 보이기 때문이다. 루시가 고비를 넘겼고, 이제 꿈 때문에 겪던 괴로움도 다 지나갔다고 정말로 믿는다. 만약 조너선이…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만 있다면 정말 행복할 텐데. 신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기를.

* * * * *

8월 11일, 새벽 3시.

다시 일기를 쓴다. 잠이 오지 않으니 차라리 글이라도 쓰는 게 낫겠다. 너무나 불안해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우리는 정말이지 말로 다 못 할 모험을 겪었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다. 일기를 덮자마자 잠이 들었었는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며 몸을 일으켰다.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주변이 텅 비어버린 듯한 허망함이 나를 덮쳤다. 방 안은 어두워서 루시의 침대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살금살금 다가가 루시를 더듬어 보았다. 침대는 비어 있었다. 성냥을 켜보니 루시는 방 안에 없었다. 문은 내가 두고 온 대로 잠기지는 않았지만 닫혀 있었다. 최근 들어 부쩍 몸이 약해진 루시의 어머니가 깰까 두려워, 나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루시를 찾아 나설 준비를 했다. 방을 나서려던 찰나, 루시가 입고 있는 옷을 보면 그녀가 어디로 가려 했는지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운을 입었다면 집 안에 있는 것이고, 외출복 차림이라면 밖으로 나간 것이다. 가운과 외출복은 모두 제자리에 있었다. "다행이다." 나는 혼잣말을 내뱉었다. "잠옷 차림이니 멀리 가지는 못했을 거야." 나는 아래층으로 달려가 거실을 살폈다. 거기에도 없었다! 이어 집 안의 다른 열린 방들을 모두 뒤졌지만, 심장을 조여오는 공포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 마침내 현관문에 다다랐을 때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활짝 열린 것은 아니었지만, 문고리가 제대로 걸리지 않은 상태였다. 이 집 사람들은 매일 밤 문을 잠그는 데 매우 철저하기에, 루시가 그 차림 그대로 밖으로 나갔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다. 막연하고 압도적인 공포가 모든 판단력을 흐려놓았다. 나는 크고 두툼한 숄을 챙겨

들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크레센트 거리에 들어섰을 때 시계는 1시를 치고 있었고, 주변에는 사람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노스 테라스 길을 따라 달려보았지만, 기대했던 그 하얀 형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부두 위 서쪽 절벽 끝에 서서, 나는 희망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마음을 안고 항구 너머 동쪽 절벽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즐겨 찾던 그 자리에 루시가 있기를 바라며. 하늘에는 밝은 보름달이 떠 있었고, 검고 무거운 구름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구름이 달을 가로질러 지나갈 때마다 온 세상은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환상적인 무대처럼 변했다. 구름 그림자가 성 메리 교회와 그 주변을 가릴 때면 잠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구름이 지나가면 대수도원의 폐허가 모습을 드러냈고, 칼로 베어낸 듯 날카롭고 좁은 빛줄기가 스쳐 지나가면 교회와 교회 묘지가 서서히 눈에 들어왔다. 나의 기대가 무엇이었든 간에, 그것은 빗나가지 않았다. 우리가 즐겨 찾던 그 자리에, 달빛이 비치는 곳에 눈처럼 하얀 형체가 반쯤 기대어 누워 있었다. 구름이 몰려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 자세히 볼 수는 없었다. 그림자가 빛을 거의 즉시 집어삼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얀 형체가 빛나는 그 자리 뒤에, 무언가 검은 형체가 서서 그 위로 몸을 굽히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것이 사람인지 짐승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나는 다시 확인하려 기다리지 않고, 가파른 계단을 달려 내려가 부두를 지나 어시장 옆을 지나 다리까지 달렸다. 그 다리가 동쪽 절벽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다. 마을은 죽은 듯 고요했고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다. 불행한 루시의 모습을 목격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다. 시간과 거리는 끝없이 멀게만 느껴졌고, 대수도원의 끝없는 계단을 오르는 동안 무릎은 떨리고 숨은 가빠왔다. 분명 빨리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발에는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고 온몸의 관절은 녹슨 것처럼 뻣뻣했다. 거의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나는 그 자리와 하얀 형체를 볼 수 있었다. 이제는 그림자가 드리워진 순간에도 형체를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반쯤 누워 있는 하얀 형체 위로 길고 검은 무언가가 몸을 굽히고 있었다. 나는 겁에 질려 "루시! 루시!"라고 외쳤다. 그러자 무언가 고개를 들었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그 하얀 얼굴과 붉게 번뜩이는 눈이 보였다. 루시는 대답이 없었다. 나는 교회 묘지 입구까지 계속 달렸다. 묘지로 들어서자 교회 건물이 나와 그 자리 사이를 가로막아 잠시 루시를 놓치고 말았다. 다시 시야에 들어왔을 때는 구름이 지나간 뒤였고, 달빛이 너무나 눈부시게 쏟아져 루시가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댄 채 반쯤 누워 있는 모습이 선명히 보였다. 그녀는 완전히 혼자였고, 주변에는 살아있는 생명체의 흔적조차 없었다.

그녀 위로 몸을 굽히자 아직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입술은 살짝 벌어져 있었고 숨을 쉬고 있었다. 평소처럼 부드러운 숨결이 아니었다. 매번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에 공기를 가득 채우려 애쓰는 듯, 길고 무거운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는 잠결에 손을 들어 올려 잠옷 깃을 목 주위로 바짝 끌어당겼다. 그 순간 마치 한기를 느낀 것처럼 그녀의 몸이 가늘게 떨렸다. 나는 그녀가 옷도 입지 않은 채 밤공기에 노출되어 치명적인 한기를 느낄까 두려워, 따뜻한 숄을 가져다 덮어주고 목 주위까지 단단히 여며 주었다. 그녀를 갑자기 깨우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녀를 도와줄 수 있도록 두 손을 자유롭게 하려고 커다란 옷핀으로 숄을 목에 고정했다. 하지만 너무 초조했던 탓에 서툴게 다루었는지, 그녀의 살을 집거나 찔렀던 모양이

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숨소리가 차분해졌을 때, 그녀는 다시 손을 목으로 가져가며 신음했다.

그녀를 꼼꼼히 감싸 안은 뒤 나는 그녀의 발에 신발을 신겨 주고 아주 조심스럽게 깨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점차 잠결에 뒤척임이 심해지더니 이따금 신음과 한숨을 내뱉었다.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있었고, 다른 여러 이유로도 나는 당장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고 싶었다. 결국 나는 그녀를 좀 더 강하게 흔들었고, 마침내 그녀가 눈을 뜨며 깨어났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즉시 깨닫지 못했기에, 나를 보고도 딱히 놀란 기색은 아니었다. 루시는 언제나 깨어날 때 모습이 예쁘다. 몸은 한기에 얼어붙었을 것이고, 밤중에 공동묘지에서 옷도 입지 않은 채 깨어났다는 사실에 정신이 아득할 법한 상황에서도 그녀는 우아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약간 떨며 나에게 매달렸다. 당장 집으로 가자고 말하자, 그녀는 아이처럼 순종적으로 아무 말 없이 일어났다.

함께 길을 지나갈 때 자갈이 내 발을 아프게 했고, 루시는 내가 움찔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멈춰 서서 내게 신발을 신으라고 권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하지만 폭풍우가 남기고 간 물웅덩이가 있는 공동묘지 밖 산책로에 다다랐을 때, 나는 혹시라도 누군가와 마주칠 경우를 대비해 맨발이 눈에 띄지 않도록 한쪽 발을 다른 쪽 발에 번갈아 문질러 발에 진흙을 잔뜩 묻혔다.

운이 좋게도 우리는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고 무사히 집에 도착했다. 길을 가다 술에 취한 듯한 남자를 한 번 마주치기도 했지만, 우리는 문

뒤에 숨어 그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 남자는 이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파르고 좁은 골목, 스코틀랜드식으로 '와인드(wynds)'라 부르는 틈새 사이로 사라졌다. 내내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때로는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다. 루시가 걱정되어 불안한 마음이 가득했다. 찬 바람에 노출되어 건강을 해치지는 않을지 걱정되었고, 만약 이 이야기가 밖으로 새어 나갈 경우 그녀의 명성에 흠이 생길까 봐 두려웠다.

집에 들어와 발을 씻고 함께 감사의 기도를 올린 뒤, 나는 루시를 침대에 눕혔다. 잠들기 전 루시는 자신이 몽유병처럼 헤맸던 일에 대해 누구에게도, 심지어 어머니에게도 절대 말하지 말아 달라고 간청했다. 처음에는 약속하기가 망설여졌다. 하지만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생각하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을 졸이실지 걱정되었고, 혹여나 이야기가 밖으로 새어 나가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될 것이 분명했기에 입을 다무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다. 내 결정이 옳았기를 바랄 뿐이다. 문은 잠갔고 열쇠는 내 손목에 묶어 두었으니, 다시는 방해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 루시는 깊이 잠들었다. 먼 바다 너머로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다.

* * * * *

같은 날 정오.

모든 것이 순조롭다. 루시는 내가 깨울 때까지 잠들어 있었는데, 자는 동안 몸을 뒤척인 흔적조차 없어 보였다. 어젯밤의 소동이 루시에게 해를 끼친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그 반대인 듯하다. 오늘 아침 루시의 안색은 지난 몇 주간 중 가장 좋아 보인다.

다만 내가 옷핀을 다루다 서툴게 행동하는 바람에 루시가 다친 것을 보고 마음이 좋지 않았다. 사실 꽤 심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루시의 목 피부가 뚫렸기 때문이다. 옷핀으로 느슨해진 피부를 집어 올리다가 그대로 찔러버린 모양이다. 핀에 찔린 듯한 작은 붉은 점 두 개가 남았고, 루시의 잠옷 깃에는 핏방울이 하나 맺혀 있었다. 내가 사과하며 걱정하자, 루시는 오히려 웃으며 나를 달래주었다. 아픈 줄도 몰랐다는 말과 함께 말이다. 다행히 상처가 아주 작아서 흉터가 남지는 않을 것 같다.

*****

_같은 날, 밤._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공기는 맑았고 햇살은 눈부셨으며, 시원한 바람까지 불어왔다. 우리는 멀그레이브 숲으로 점심을 먹으러 갔다. 웨스튼라 부인은 마차를 타고 길을 따라가고, 루시와 나는 절벽 길을 따라 걷다가 문 앞에서 부인과 다시 만났다. 나 자신은 조금 슬픈 마음이 들었다. 조너선이 나와 함께 있었다면 이 시간이 얼마나 _더욱_ 행복했을지 모를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그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 저녁에는 카지노 테라스에서 산책을 하며 슈포르와 맥켄지의 훌륭한 음악을 감상한 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루시는 한동안 그랬던 것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고, 곧바로 잠이 들었다. 오늘 밤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전과 마찬가지로 문을 잠그고 열쇠를 잘 챙겨 두어야겠다.

*****

8월 12일.

내 예상은 틀렸다. 밤사이 루시가 밖으로 나가려 애쓰는 바람에 두 번이나 잠에서 깼기 때문이다. 루시는 잠결에도 문이 닫혀 있는 것이 못마땅한 듯 보였고, 마치 항의라도 하듯 투덜거리며 다시 침대로 돌아갔다. 동이 틀 무렵 잠에서 깨어보니 창밖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루시도 깨어났는데, 다행히도 전날 아침보다 상태가 훨씬 좋아 보였다. 예전의 그 명랑한 모습이 되살아난 듯했다. 루시는 내 곁으로 다가와 몸을 파고들며 아서에 관한 이야기를 전부 들려주었다. 나는 조너선이 얼마나 걱정되는지 이야기했고, 루시는 나를 위로해 주려 애썼다. 어느 정도는 위로가 되었다. 공감해 준다고 해서 달라질 사실은 없겠지만, 그 사실을 견뎌내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 * * * *

8월 13일.

오늘도 평온한 하루였다. 전과 다름없이 손목에 열쇠를 매단 채 잠자리에 들었다. 밤중에 다시 잠에서 깼을 때, 루시는 여전히 잠든 채로 침대에 몸을 일으켜 앉아 창밖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블라인드를 걷고 밖을 내다보았다. 달빛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다. 바다와 하늘이 하나로 어우러져 거대하고 고요한 신비 속에 잠긴 그 부드러운 빛의 풍경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 나와 달빛 사이로 커다란 박쥐 한 마리가 나타나 커다란 원을 그리며 빙글빙글 날아다녔다. 한두 번은 박쥐가 아주 가까이 다가오기도 했으나, 나를 보고 놀랐는지 이내 항구를 가로질러 수도원을 향해 날아가 버렸다. 내

가 창가에서 돌아왔을 때 루시는 다시 누워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밤새 루시는 다시는 뒤척이지 않았다.

* * * * *

8월 14일.

동쪽 절벽에서 온종일 독서와 필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루시도 나만큼이나 이곳을 사랑하게 된 모양이다. 점심이나 차, 혹은 저녁을 먹으러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어도 루시를 그곳에서 떼어놓기가 쉽지 않을 정도다. 오늘 오후, 루시가 묘한 말을 한 적이 있다. 우리는 저녁을 먹으러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서쪽 부두에서 올라오는 계단 끝에 다다랐을 때, 평소처럼 경치를 감상하려고 잠시 발을 멈췄다. 낮게 내려앉은 저녁 해가 케틀니스 너머로 막 넘어가려 하고 있었다. 붉은 빛이 동쪽 절벽과 오래된 수도원을 가로질러 쏟아졌고,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운 장밋빛 광채에 푹 잠긴 듯 보였다. 우리는 한동안 침묵 속에 서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루시가 마치 혼잣말을 하듯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의 붉은 눈이 또 보여요! 예전과 똑같아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불쑥 튀어나온 이 기묘한 말에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나는 루시를 빤히 쳐다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도 그녀를 잘 살필 수 있도록 몸을 살짝 돌렸다. 루시는 마치 반쯤 꿈을 꾸는 듯한 상태였고, 얼굴에는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이상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녀의 시선을 따라갔다. 루시는 우리 좌석 너머를 보고 있는 듯했는데, 그곳에는 한 검은 형체가 홀로 앉아 있었다. 나 역시

순간 움찔했다. 찰나였지만 그 낯선 이의 눈이 타오르는 불꽃처럼 커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시 보니 그저 착각이었다. 우리 좌석 뒤편에 있는 성 메리 교회의 창문으로 붉은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는데, 해가 저물면서 빛의 굴절과 반사가 미묘하게 변하는 바람에 마치 빛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나는 루시에게 그 기묘한 현상을 가리켜 말해주었다. 루시는 깜짝 놀라며 제정신을 차렸지만, 여전히 슬픈 기색이 역력했다. 아마 저 위에서 겪었던 그 끔찍한 밤을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우리는 그 일을 결코 다시 입에 올리지 않기에, 나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녁을 먹으러 집으로 돌아왔다.

루시는 두통이 있어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잠든 루시를 확인한 뒤 잠시 산책을 나섰다. 서쪽 절벽을 따라 걷는 동안 나는 조너선을 생각하며 달콤한 슬픔에 젖어 들었다. 집으로 돌아올 무렵에는 달빛이 아주 밝게 비치고 있었다. 크레센트 건물의 우리 쪽 앞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을 만큼 달빛이 환했다. 나는 우리 집 창문을 올려다보았고, 루시가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혹시 나를 기다리는 건가 싶어 손수건을 펼쳐 흔들어 보았지만, 루시는 알아채지도 못했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바로 그때, 달빛이 건물 모퉁이를 돌아 창문을 비추었다. 창틀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고 있는 루시의 모습이 분명하게 보였다. 루시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그 옆 창틀에는 꽤 커 보이는 새 같은 것이 앉아 있었다. 혹시라도 루시가 한기를 느낄까 걱정되어 나는 서둘러 위층으로 뛰어올라갔다. 하지만 방에 들어섰을 때 루시는 깊이 잠든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침대로 몸을 뒤척이고 있었다. 루시는 마치 추위로부터 목을 보호하려는 듯 손으로 목을 감싸 쥐고 있었다.

그녀를 깨우지는 않았지만, 이불을 따뜻하게 덮어주었다. 문이 잠겨 있고 창문도 단단히 잠겨 있도록 신경을 써 두었다.

잠든 그녀의 모습은 무척이나 달콤해 보이지만, 평소보다 안색이 창백하다. 눈 밑에는 초췌하고 수척한 기색이 역력한데, 그 모습이 못내 마음에 걸린다. 무언가 때문에 속을 태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다.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알아낼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

* * * * *

8월 15일.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루시는 기운이 없고 피곤해 보였으며, 우리를 깨우는 소리가 난 뒤에도 계속 잠들어 있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는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다. 아서의 아버님 상태가 호전되었고, 결혼식이 조만간 치러지기를 원하신다는 내용이었다. 루시는 잔잔한 기쁨에 젖어 있었고, 루시의 어머니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날 오후, 어머니는 내게 그 이유를 털어놓았다. 루시를 자신의 품 안에서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슬퍼하면서도, 이제 곧 루시를 보살펴 줄 사람이 생긴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있었다. 가련하고 다정한 여인이여! 어머니는 내게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루시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으며, 내게도 비밀을 지키라고

당부했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어머니 자신의 심장이 약해지고 있어, 길어야 몇 달 안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지금 당장이라도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으면 거의 확실히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태였다. 아, 루시가 몽유병 증세를 보였던 그 끔찍한 밤의 일을 그녀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정말 현명한 처사였다.

* * * * *

8월 17일.

이틀 내내 일기를 쓰지 못했다. 글을 쓸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었다. 우리의 행복 위로 정체 모를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는 듯하다. 조너선에게서는 아무런 소식도 없고, 루시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는 반면 루시의 어머니는 죽음이 임박한 듯하다. 루시가 왜 이렇게 기력을 잃어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잘 먹고 잘 자며 신선한 공기도 즐기는데, 양 볼의 장밋빛은 시시각각 흐려지고 하루가 다르게 몸은 약해지며 나른해져만 간다. 밤이면 루시는 마치 공기를 갈구하듯 헐떡이며 숨을 몰아쉰다. 밤마다 문 열쇠를 손목에 꼭 묶어두지만, 루시는 몰래 일어나 방 안을 서성이다가 열린 창가에 앉아 있곤 한다. 어젯밤 잠에서 깨어보니 루시는 창밖으로 몸을 내밀고 있었고, 깨우려 해도 깨어나지 못했다.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 겨우 의식을 되찾게 했을 때 루시는 물처럼 힘없이 늘어져 있었고, 고통스럽게 숨을 몰아쉬며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왜 창가에 있었느냐고 물었지만, 루시는 고개를 저으며 고개를 돌려버렸다. 루시가 아픈 이유가 그 불운한 옷핀에 찔린 상처 때문만은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방금 잠든 루시의 목을 살펴보았는데, 그 작은

상처들이 아직 아물지 않은 것 같다. 상처는 여전히 열려 있고, 오히려 전보다 더 커진 듯하며 가장자리는 희뿌옇게 변해 있다. 마치 붉은 중심을 가진 작은 흰 점들 같다. 하루 이틀 내로 상처가 낫지 않는다면, 반드시 의사를 불러 진찰을 받게 하겠다.

휘트비의 변호사 사무소, 새뮤얼 F. 빌링턴 부자(父子)가 런던의 카터, 패터슨 & 컴퍼니 측에 보내는 편지.

_8월 17일._

"관계자 귀하,

본인은 트란실바니아의 카르파티아 산맥 근처에 있는 드라큘라 백작의 성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저는 백작의 성에 머물며 겪고 있는 기이한 일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백작은 매우 친절하고 예의 바른 분입니다. 하지만 그분에게서는 형언할 수 없는 기묘한 분위기가 풍깁니다. 그분은 매우 강인한 체격을 가졌으며, 피부는 놀라울 정도로 창백합니다. 또한, 그분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강렬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 저는 이 성의 분위기가 무언가 설명하기 어려운 불길함을 품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성의 벽은 너무나 두껍고, 복도는 끝없이 이어져 마치 미로 같습니다. 밤이 되면 성 안에는 기묘한 소리들이 들려오곤 합니다.

저는 이 편지를 통해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두고자 합니다. 만약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기록이 저의 행방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레이트 노던 철도에서 보낸 물품 송장을 동봉하니 확인해 주십시오. 해당 물품은 킹스크로스 화물역에 도착하는 즉시 퍼플릿 인근의 카팩스로 배달되어야 합니다. 현재 저택은 비어 있는 상태이나, 여기 모든 열쇠에 이름을 적어 동봉해 두었습니다.

“이번에 보내드리는 화물은 총 50개의 상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상자들을 동봉한 대략적인 도면에 ‘A’라고 표시된, 저택 부속 건물 중 일부인 반쯤 허물어진 건물 안에 보관해 주십시오. 해당 건물은 저택에 딸린 오래된 예배당이므로, 귀하의 대리인도 그 위치를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품은 오늘 밤 9시 30분 기차로 출발하며, 내일 오후 4시 30분에 킹스크로스 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의뢰인이 최대한 빠른 배송을 원하고 있으니, 정해진 시간에 맞춰 킹스크로스 역에 운송팀을 대기시켜 주시고, 물품이 도착하는 즉시 목적지까지 운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사 내부의 결제 절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연을 방지하고자, 우선 10파운드(£10)의 수표를 동봉합니다. 수표를 받으시면 수령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비용이 이 금액보다 적게 들면 잔액을 돌려주시고, 만약 더 많이 든다면 귀하의 연락을 받는 대로 차액만큼의 수표를 즉시 보내겠습니다.

물품을 실어 나른 뒤 떠나실 때는 저택의 중앙 홀에 열쇠를 놓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예비 열쇠를 사용해 저택에 들어온 뒤 그 열쇠를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방면에서 최대한 서둘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이, 혹여 업무상의 예의를 지나치게 벗어나는 결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친애하는 귀하들께 말씀드립니다.

진심을 담아,

“새뮤얼 F. 빌링턴 부자(父子)”

런던의 카터, 패터슨 & 컴퍼니 측에서 휘트비의 빌링턴 부자(父子) 측으로 보내는 서신.

_8월 21일._

관계자 여러분께,

수령한 10파운드를 확인하였으며, 초과 금액인 1파운드 17실링 9펜스는 동봉된 영수증 명세서에 기재된 대로 수표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물품은 지시하신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게 전달하였으며, 열쇠는 요청하신 대로 중앙 홀에 있는 꾸러미 안에 두었습니다.

“친애하는 귀하들께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존경을 담아.

"카터, 패터슨 앤 컴퍼니 대리(Pro)"

미나 머리의 일기.

8월 18일.

오늘은 기분이 참 좋다. 교회 묘지에 있는 벤치에 앉아 이 글을 쓴다. 루시는 상태가 훨씬 좋아졌다. 어젯밤에는 밤새도록 잘 잤고, 한 번도 나를 깨우지 않았다. 여전히 안색이 슬플 정도로 창백하고 수척해 보이긴 하지만, 루시의 뺨에는 벌써 장밋빛 생기가 돌아오는 듯하다. 만약 루시가 빈혈 증세가 있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빈혈은 아니다. 루시는 아주 밝은 기운을 띠고 있으며, 생기와 즐거움이 넘친다. 병적인 침묵도 모두 사라진 것 같다. 루시는 마치 내가 잊었을까 봐 다시 일깨워주기라도 하듯, 바로 그날 밤의 일을 꺼냈다. 내가 바로 이 벤치에서 잠든 루시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루시는 장난스럽게 장화 뒷굽으로 돌판을 톡톡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다.

"그때는 내 작은 발소리가 별로 안 났을 거예요! 아마 노인 스웨일즈 씨도 제가 조디를 깨우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고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녀가 워낙 대화하기 좋은 기분이었기에, 나는 그날 밤 꿈을 조금이라도 꾸었는지 물었다.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이마에 그 달콤하고도 찡그린 듯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녀가 워낙 아서라고 부르는 습관이 있어서 나도 아서라고 부르는데, 아서는 그 표정을 무척 사랑한다고 말

했다. 사실 나도 그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가 갔다. 그러더니 그녀는 마치 꿈을 되새기려는 듯, 반쯤 꿈결을 헤매는 말투로 말을 이었다.

"꿈을 꾼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정말처럼 느껴졌죠. 그저 이 자리에 있고 싶었을 뿐이에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무언가가 두려웠거든요.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잠들었던 것 같긴 하지만, 거리와 다리를 지나갔던 기억이 나요. 제가 지나갈 때 물고기 한 마리가 튀어 올랐고, 그걸 보려고 몸을 숙였죠. 그때 개들이 떼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계단을 올라갈 때쯤엔 온 마을의 개들이 한꺼번에 울부짖는 것만 같았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노을 속에서 보았던 것처럼, 붉은 눈을 가진 길고 검은 무언가가 있었다는 희미한 기억이 나요. 주변에는 아주 달콤한 향기와 아주 쓴 향기가 동시에 감돌았고요. 그러다 깊고 푸른 물속으로 가라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듣는다는 환청처럼 귓가에 노래 소리가 들렸죠. 그러더니 모든 것이 멀어져 가는 것 같았어요. 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 공중을 떠다니는 기분이었죠. 한때는 서쪽 등대가 바로 발밑에 있었다는 것도 기억나요. 그러다 마치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고통스러운 느낌이 몰려왔고, 정신을 차려보니 당신이 제 몸을 흔들고 있었어요. 당신의 손길을 느끼기도 전에, 당신이 그러고 있는 모습을 먼저 보았어요."

그러더니 그녀는 웃기 시작했다. 그 웃음소리가 어딘지 모르게 기괴하게 느껴져, 나는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기분이 그리 좋지 않았던 나는 그녀가 이 화제에 계속 매달리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고, 루시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했을 때쯤에는 상쾌한 미풍 덕분에 기운을 차린 듯 보였고, 창백했던 뺨에도 제법 생기가 돌았다. 루시를 본 그녀의 어머니는 무척 기뻐하셨고, 우리 모두는 아주 행복한 저녁 시간을 함께 보냈다.

* * * * *

8월 19일.

기쁘다, 정말 기쁘다! 온통 기쁨뿐인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마침내 조너선에게서 소식이 왔다. 그 다정한 사람이 몸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동안 편지를 쓰지 못했던 것이다. 이제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 호킨스 씨가 편지를 전해주며 직접 써준 글귀는 참으로 다정했다. 나는 내일 아침 길을 떠나 조너선을 만나러 갈 것이다. 필요하다면 그를 간호하고, 그를 집으로 데려올 생각이다. 호킨스 씨는 그곳에서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나는 선한 자매님이 보내준 편지를 가슴이 젖을 정도로 펑펑 울며 읽었다. 편지는 지금 내 가슴 위에 놓여 있다. 조너선에 관한 편지이니, 내 마음 가장 가까운 곳에 두어야 마땅하다. 그는 이미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여행 계획은 모두 세워두었고 짐도 다 챙겼다. 갈아입을 옷 한 벌만 챙겨갈 생각이다. 루시가 내 트렁크를 런던으로 가져가서, 내가 다시 부를 때까지 보관해주기로 했다. 어쩌면… 더는 써 내려갈 수가 없다. 이 말들은 내 남편이 될 조너선에게 직접 전해야 하니까. 그가 보고 만졌을 이 편지가,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나를 위로해주리라.

부다페스트 성 요셉 및 성 마리아 병원의 아가타 수녀가 빌헬미나 머리 양에게 보내는 편지.

_8월 12일._

"친애하는 부인께, ——

조너선 하커 씨의 부탁을 받아 이 글을 씁니다. 하커 씨 본인은 아직 글을 쓸 만큼 기력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느님과 성 요셉, 성모 마리아의 보살핌 덕분에 상태는 점차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는 심한 뇌열을 앓으며 거의 6주 동안 저희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하커 씨는 저를 통해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또한 같은 편으로 제가 그를 대신하여 엑서터에 계신 피터 호킨스 씨에게도 편지를 써서, 그의 정중한 경의와 함께 소식이 늦어진 점에 대한 사과와 맡았던 모든 업무가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을 전한다는 사실을 당신께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산속에 있는 저희 요양원에서 몇 주간 더 휴식을 취한 뒤 복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커 씨는 지금 수중에 돈이 넉넉지 않지만, 이곳에 머무는 비용은 본인이 직접 지불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도움이 필요한 다른 환자들이 지원을 받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며 말입니다.

부디 저를 믿어 주십시오,

동정의 마음과 모든 축복을 담아, 당신의 진심 어린 벗으로부터.

아가타 수녀.

추신. 환자가 잠든 사이, 몇 가지 사실을 더 전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환자는 당신에 대해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머지않아 당신과 결혼할 것이라고도 말했고요. 두 분에게 축복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우리 의사의 말로는 환자가 무척 심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섬망 상태에서 내뱉는 헛소리도 끔찍할 정도입니다. 늑대와 독, 피에 관한 이야기부터 유령과 악마에 이르기까지, 그가 무엇을 떠드는지 차마 다 말하기조차 두렵습니다. 앞으로 한동안은 환자가 이런 종류의 자극을 받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 주십시오. 그가 앓고 있는 병의 흔적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작 편지를 썼어야 했으나, 환자의 지인들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환자의 상태는 누구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클라우젠부르크에서 기차를 타고 왔는데, 그곳 역장이 기차 차장에게 말하기를, 환자가 집으로 가는 표를 달라고 소리치며 역 안으로 뛰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환자의 격앙된 태도를 보고 그가 영국인임을 알아챈 역무원들은, 그가 가려는 방향으로 기차가 닿는 가장 먼 역까지 가는 표를 끊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가 잘 보살핌을 받고 있으니 안심하십시오. 그는 다정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정말로 잘 회복하고 있으니, 몇 주만 지나면 예전의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만약을 대비해 그를 주의 깊게 살펴주십시오. 하느님과 성 요셉,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두 분에게 아주 많은, 아주 행복한 세월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수어드 박사의 일기.

8월 19일. 어젯밤 렌필드에게 이상하고 갑작스러운 변화가 나타났다. 8시쯤부터 그는 흥분하기 시작하더니,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개처럼 코를 킁킁거리며 주변을 살폈다. 간병인이 그의 기이한 행동에 의아함을 느꼈고, 평소 내가 렌필드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가 말을 하도록 유도했다. 평소 렌필드는 간병인에게 예의를 갖추거나 때로는 비굴할 정도로 순종적이었으나, 오늘 밤은 전혀 달랐다고 간병인이 전했다. 그는 매우 오만했다. 간병인과 대화하는 것조차 거부하며 아예 눈길도 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가 내뱉은 말은 오직 이것뿐이었다.

"너와는 말하고 싶지 않다. 이제 네놈은 아무런 의미도 없으니까. 주인님께서 곧 오신다."

간병인은 그에게 갑작스러운 종교적 광기가 찾아온 것이라 생각한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폭풍우에 대비해야 한다. 살의와 종교적 광기를 동시에 품은 강한 사내라면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가 결합하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일이다. 아홉 시에 내가 직접 그를 찾아갔다. 나를 대하는 그의 태도는 간병인에게 했던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스스로를 숭고하게 여기는 그에게는 나와 간병인의 차이 따위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듯했다. 종교적 광기처럼 보이는데, 조만간 그는 스스로를 신이라고 믿게 될 것이다. 인간 사이의 이런 미세한 차이는 전능한 존재에게는 너무나 사소한 것이리라. 미치광이들은 어쩜 이리도 쉽게 본색을 드러내는가! 참된 신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

조차 살피시거늘, 인간의 허영심이 만들어낸 신은 독수리와 참새를 구분하지 않는다. 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기만 한다면!

30분 넘게 렌필드는 점점 더 흥분한 기색을 보였다. 나는 그를 관찰하는 척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줄곧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그의 눈에 특유의 불안한 눈빛이 서렸다. 미친 사람이 어떤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흔히 보이는 눈빛이었다. 그와 동시에 머리와 몸을 불안하게 움찔거리는 동작도 나타났다. 이는 정신병원 간병인들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모습이었다. 그는 이내 아주 조용해지더니, 체념한 듯 침대 가장자리에 가서 앉았다. 그러고는 생기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나는 그의 무기력함이 진짜인지 아니면 연기하는 것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다. 그래서 그가 항상 관심을 보였던 주제인 '애완동물' 이야기를 꺼내 대화를 유도해 보았다. 처음에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으나, 마침내 그는 짜증 섞인 말투로 이렇게 말했다.

"다들 빌어먹을! 그딴 것들 따위는 눈곱만큼도 신경 안 써."

"뭐라고요?" 내가 되물었다. "설마 거미에는 관심도 없다는 말씀인가요?" (현재 그는 거미를 수집하는 데 푹 빠져 있으며, 그의 수첩은 작은 수치들이 적힌 열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 그러자 그는 수수께끼 같은 태도로 대답했다.

"신부를 기다리는 눈들은 신부를 맞이할 들러리들을 보며 기뻐하네. 하나 신부가 가까이 다가오면, 가득 찬 눈들에 비친 들러리들의 빛은 더는 빛나지 않으리라."

그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내가 곁을 지키는 내내 그는 침대에 앉아 완강한 태도로 버틸 뿐이었다.

오늘 밤은 몸도 나른하고 마음도 무겁다. 루시 생각이 자꾸만 난다. 모든 것이 달랐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당장 잠들지 못하면 클로랄의 힘을 빌려야 할지도 모르겠다. 현대판 모르페우스라 불리는 그 물질, $C_{2}HCl_{3}O \cdot H_{2}O$ 말이다. 하지만 약에 의존하는 습관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아니, 오늘 밤은 결코 약을 먹지 않겠다! 루시를 생각하면, 약 기운에 취한 채 그녀를 떠올리는 불경한 짓은 차마 할 수 없다. 정 잠이 오지 않는다면, 차라리 오늘 밤은 뜬눈으로 지새우겠다.

* * * * *

나중에.--그 결심을 하길 잘했다. 아니, 그 결심을 끝까지 지켜내길 더 잘했다. 한참을 뒤척이며 누워 있다가 시계가 겨우 두 번 울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였다. 병동에서 야간 경비원이 나를 찾아와 렌필드가 탈출했다고 전했다. 나는 즉시 옷을 꿰어 입고 아래층으로 달려 내려갔다. 내 환자는 돌아다니게 내버려 두기엔 너무 위험한 인물이다. 그자의 그런 생각들은 낯선 사람들을 상대로 위험하게 표출될 수도 있다.

간호사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불과 10분 전쯤, 문에 달린 관찰용 창을 통해 보았을 때 환자가 침대에서 잠든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다 창문이 뜯겨 나가는 소리에 주의를 빼앗겼다고 한다. 그는 급히 달려갔고, 창문 너머로 환자의 발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자마자

즉시 나를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환자는 잠옷 차림뿐이라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간호사는 환자를 뒤쫓는 것보다 환자가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는 편이 더 유용하리라 생각했다. 자신이 정문으로 건물을 빠져나가는 사이에 환자를 시야에서 놓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간호사는 덩치가 커서 창문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었던 것이다. 나는 몸이 말랐기에 그의 도움을 받아 창문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발부터 먼저 내려갔는데, 지면에서 불과 몇 피트 높이였기에 다치지 않고 착지했다.

간호사는 환자가 왼쪽 방향으로 곧장 달려갔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할 수 있는 한 가장 빨리 달렸다. 나무들이 줄지어 선 구역을 통과할 무렵, 나는 하얀 형체 하나가 우리 부지와 버려진 저택 사이를 가로막은 높은 담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목격했다.

나는 즉시 뒤로 달려가 파수꾼에게 사람 서너 명을 당장 데려오라고 일렀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의 친구가 위험한 상태일지 모르니 카팩스 부지 안으로 함께 들어오라고 말했다. 나는 직접 사다리를 가져와 담을 넘은 뒤 반대편으로 뛰어내렸다. 집 모퉁이 너머로 렌필드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이 보여 나는 그를 뒤쫓았다. 집 반대편에 이르자, 그는 예배당의 오래된 철제 장식 오크 문에 몸을 바짝 밀착시킨 채 서 있었다. 그는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듯했으나, 나는 그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혹여 그를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도망치려는 기세가 발동한 벌거벗은 광인을 쫓는 일은, 길을 잃고 헤매는 벌떼를 쫓는 것보다 훨씬 까다로운 법이다! 하지만 몇 분이 지

나자 그는 주변 상황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다. 마침 내 부하들도 담을 넘어와 그를 포위하고 있었기에, 나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조금 더 다가갔다. 그때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주인님, 저는 당신의 명을 받들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제가 충성을 다할 것이니, 반드시 제게 보답해 주십시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오랫동안 당신을 숭배해 왔습니다. 이제 당신이 가까이 계시니, 저는 당신의 명령만을 기다립니다. 주인님, 당신께서 베푸시는 은총을 나누실 때 저를 그냥 지나치지는 않으시겠지요?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인님."

어쨌든 그는 이기적인 늙은 거지일 뿐이다. 그는 자신이 신성한 현존 속에 있다고 믿는 순간조차도 눈앞의 빵과 물고기 따위에만 마음을 쓴다. 그의 광기들은 놀라울 정도로 기묘하게 뒤섞여 있다. 우리가 그를 포위했을 때, 그는 호랑이처럼 날뛰며 저항했다. 그는 엄청난 힘을 가졌는데, 사람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야생 짐승에 가까웠다. 나는 이토록 격렬한 분노의 발작을 일으키는 광인을 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다시는 마주치지 않기를 바란다. 그가 가진 힘과 위험성을 제때 알아차린 것은 천만다행이다. 그와 같은 힘과 결단력을 가진 자라면, 붙잡히기 전에 온갖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제 그는 안전하다. 그를 구속하고 있는 구속복은 저 악명 높은 잭 셰퍼드조차 벗어던지지 못할 정도이며, 그는 지금 완충 처리가 된 독방 벽에 사슬로 묶여 있다. 가끔 그가 내지르는 비명은 소름 끼치도록 끔찍하지만, 비명이 그친 뒤 찾아오는 정적은 훨씬 더 치명적이다. 그가 몸을 돌리고 움직이는 동작 하나하나에 살의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방금 전, 그는 처음으로 앞뒤가 맞는 말을 내뱉었다.

"기다리겠습니다, 주인님. 그것이 오고 있어요. 오고, 또 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눈치를 채고 따라왔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잠을 이룰 수 없었지만, 이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차분해졌다. 오늘 밤에는 잠을 좀 잘 수 있을 것 같다.

제IX장

미나 하커가 루시 웨스튼라에게 보내는 편지.

부다페스트, 8월 24일.

나의 가장 사랑하는 루시에게——

"휘트비 기차역에서 헤어진 뒤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이 무척 궁금해할 거라는 걸 알아요. 우선, 루시, 나는 헐에 무사히 도착했고 함부르크행 배를 탄 뒤 이곳으로 오는 기차를 잘 갈아탔어요. 조너선에게 가고 있다는 사실과, 앞으로 그를 간호해야 하니 잠을 최대한 많이 자 두어야겠다는 생각 외에는 여정 중의 일들이 거의 기억나지 않을 정도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를 만났을 때, 그는 너무나 수척하고 창백하며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그 다정하던 눈망울에서 결연함은 모두 사라졌고, 내가 당신에게 말했던 그 얼굴의 차분한 품격도 자취를 감추었죠. 그는 그저 망가진 잔해처럼 보일 뿐이었고, 아주 오래전 자신에게 일어

난 일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적어도 그는 나에게 그렇게 믿게 하려 했고, 나 역시 다시는 묻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는 어떤 끔찍한 충격을 받은 모양인데, 만약 그가 그것을 떠올리려 애쓴다면 가여운 정신이 버티지 못할까 봐 두려워요.

선천적인 간호사 자질을 타고난 착한 아가사 수녀님은, 그가 정신이 나갔을 때 무서운 것들을 횡설수설하며 떠들었다고 말해주었어요. 나는 수녀님께 그 내용이 무엇인지 묻고 싶었지만, 수녀님은 그저 성호를 그으며 절대 말할 수 없다고만 하셨죠. 환자의 헛소리는 신의 비밀이며, 간호사가 직업적 소명으로 그것을 듣게 된다면 그 비밀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수녀님의 말씀이었어요.

수녀님은 참으로 다정하고 선한 분이에요. 다음 날 내가 마음을 졸이는 것을 보고 수녀님이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횡설수설한 내용은 결코 언급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이렇게 덧붙여 주셨죠. '아가씨, 이것만큼은 말해줄 수 있어요. 그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한 게 아니라는 사실 말이에요. 그러니 예비 아내인 당신이 걱정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는 당신이나 당신에게 진 마음의 빚을 잊지 않았답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필멸의 인간이 감히 논할 수 없는, 거대하고도 끔찍한 것들이었어요.'

그 착한 수녀님은 혹시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진 건 아닐까 내가 질투할까 봐 걱정하신 모양이에요. 내가 조너선을 두고 질투를 하다니! 하지만 루시, 살짝 속삭이자면, 다른 어떤 여자도

그 모든 근심의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내 안에서 기쁨의 전율이 일었다는 걸 말해두고 싶어요.

지금 나는 그의 침대 곁에 앉아 잠든 그의 얼굴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가 깨어나고 있어요!…”

그가 잠에서 깨어나더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야겠다며 코트를 달라고 했어요. 내가 아가사 수녀에게 물어보니 수녀님이 그의 소지품을 모두 가져다주었어요. 그 물건들 사이에 그의 수첩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그에게 수첩을 좀 보여달라고 말하려 했어요. 그 수첩을 보면 그가 겪는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는 내 눈빛만 보고도 내 속마음을 알아챈 모양이에요. 그는 잠시 혼자 있고 싶다며 나를 창가로 물러나 있게 했어요. 그러더니 나를 다시 불렀고, 내가 다가가자 그는 수첩 위에 손을 얹은 채 아주 엄숙한 목소리로 내게 말했어요.

“‘빌헬미나’—그가 나를 그렇게 부른 순간, 나는 그가 결코 농담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청혼한 이후로 그는 단 한 번도 나를 그 이름으로 부른 적이 없었으니까요. ‘여보, 당신도 알다시피 남편과 아내 사이의 신뢰란 그런 것이오. 서로 숨기는 것이나 비밀이 있어서는 안 되지. 나는 지금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소. 무엇 때문인지 생각하려 할 때마다 머리가 빙글빙글 돌고, 이 모든 일이 실제였는지 아니면 미친 사람의 꿈이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소. 내가 뇌열을 앓았다는 걸 당신도 알지 않소? 그건 미쳐버리는 것과 다름없었소. 비밀은 여기 적혀 있지만, 나는 알고 싶지 않소. 그저 우리 결혼과 함께 이곳에서 내 삶을 다

시 시작하고 싶을 뿐이오.' 사랑하는 루시, 우리는 모든 절차가 끝나는 대로 바로 결혼하기로 약속한 터였기에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이었어요. '빌헬미나, 당신은 나의 무지를 함께 나누어 줄 용의가 있소? 여기 책이 있소. 이걸 가져가서 간직하시오. 원한다면 읽어도 좋지만, 내게는 절대로 말하지 마시오. 만약 내가 깨어 있든 잠들어 있든, 제정신이든 미쳤든, 이 책에 기록된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로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엄중한 의무가 생기지 않는 한 말이오.' 그는 기진맥진하여 뒤로 쓰러졌고, 나는 그의 베개 밑에 책을 넣어준 뒤 그에게 입을 맞추었어요. 나는 아가사 수녀에게 원장 수녀님께 간청하여 우리의 결혼식을 오늘 오후에 올릴 수 있도록 부탁해 두었으니, 이제 그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어요……."

* * * * *

"그녀가 와서, 영국 선교 교회의 사제님을 모셔 오라고 사람을 보냈다고 전해주었어요. 우리는 한 시간 뒤에, 아니 조너선이 깨어나는 대로 바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에요. . . ."

* * * * *

"루시, 마침내 때가 왔고 이제 지나갔어. 마음이 아주 경건하면서도, 정말이지 너무나 행복해. 조너선은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 뒤에 잠에서 깼어.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였지. 그는 베개에 몸을 기댄 채 침대에 앉아 있었어. 그는 '그러겠다'는 서약을 아주 단호하고 힘차게 대답했어. 나는 거의 말을 할 수 없었어. 가슴이 너무 벅차올라서 그 짧은 말조차 내 목을 죄는 것 같았거든. 사랑스러운 수녀님들도 정말 친절하셨어.

하느님, 부디 내가 그분들을, 그리고 내가 짊어진 이 엄숙하고도 달콤한 책임을 결코, 결코 잊지 않게 해 주소서.

내 결혼 선물을 말해줘야겠어. 사제와 수녀님들이 남편과 나를 단둘이 남겨두고 떠나셨을 때—아, 루시, '내 남편'이라는 말을 글로 쓰는 건 이번이 처음이야—남편과 나만 남게 되었을 때, 나는 그의 베개 밑에서 그 책을 꺼냈어. 그리고 하얀 종이로 책을 감싼 뒤, 내 목에 걸려 있던 연하늘색 리본 조각으로 묶었지. 매듭 위에는 실링 왁스를 떨어뜨려 봉인했는데, 인장 대신 내 결혼반지를 사용했어. 그러고 나서 책에 입을 맞춘 뒤 남편에게 보여주며 말했어. 이렇게 간직하겠다고 말이야. 우리가 서로를 신뢰한다는 사실을 평생토록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증표가 될 거라고. 그를 진심으로 위하거나, 혹은 아주 엄중한 의무를 다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절대로 열어보지 않겠다고 말이야.

그러자 그가 내 손을 잡았어. 아, 루시, 그가 '아내의' 손을 잡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 그는 이 손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라고, 만약 필요하다면 이 손을 얻기 위해 지나온 과거를 다시 전부 겪어낼 수도 있다고 말했어. 가엾고 사랑스러운 그이는 과거의 어떤 부분을 말하려 했던 것 같은데, 아직은 시간을 떠올리는 게 힘든가 봐. 처음에 그가 달뿐만 아니라 연도까지 헷갈려 한다 해도 나는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거야."

"그럼, 얘야,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었겠니? 그저 내가 이 넓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나에게는 내 자신과 내 삶, 그리고 내 신뢰 외에는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단다. 그

리고 이 모든 것과 함께 내 평생의 사랑과 도리를 그에게 바치겠다고 말했지. 그리고 얘야, 그가 그 가냘프고 힘없는 손으로 나를 끌어당겨 입을 맞추었을 때, 그것은 마치 우리 사이의 아주 엄숙한 서약 같았단다."

"사랑하는 루시, 내가 왜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알고 있니? 그저 이 모든 순간이 내게 너무나 달콤해서만이 아니야. 네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소중하기 때문이란다. 네가 교실을 벗어나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던 시절, 네 친구이자 인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내게 큰 특권이었어. 이제는 네가 아주 행복한 아내의 눈으로, 의무를 다한 끝에 내가 도달한 곳이 어디인지 지켜봐 주었으면 해. 그래야 너도 결혼 생활을 하며 나만큼 행복해질 수 있을 테니까.

사랑하는 내 친구야, 전능하신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할게. 네 삶이 약속된 그대로의 모습이기를. 거친 바람도, 의무를 잊는 일도, 불신도 없는, 햇살이 가득한 긴 하루와 같은 삶이기를 말이야. 네게 고통이 전혀 없기를 바랄 수는 없겠지. 그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하지만 네가 지금의 나처럼 '언제나'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안녕, 내 사랑. 이 편지는 곧바로 부칠게. 아마 조만간 다시 편지를 쓸 수 있을 거야. 이제 그만 써야겠어. 조너선이 깨고 있거든. 남편을 돌봐야 해!"

"언제나 너를 사랑하는"

"미나 하커."

루시 웨스튼라가 미나 하커에게 보내는 편지.

휘트비, 8월 30일.

나의 사랑하는 미나에게——

"사랑을 가득 담아, 수백만 번의 입맞춤을 보낸다. 네가 하루빨리 남편이 있는 네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네가 곧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곳의 상쾌한 공기는 조너선을 금방 기운 차리게 해 줄 거야. 나 역시 공기 덕분에 아주 건강해졌거든. 요즘은 가마우지처럼 식욕도 왕성하고, 생기가 넘치며 잠도 아주 잘 자. 그리고 내가 몽유병을 완전히 고쳤다는 소식을 들으면 너도 기뻐할 거야. 일주일 동안은 밤에 침대에 누운 뒤로 한 번도 자리에서 일어난 적이 없는 것 같아. 아서는 내가 살이 찌고 있다고 말하곤 해. 아, 참, 아서가 여기 있다는 걸 말하는 걸 깜빡했네. 우리는 함께 산책도 하고, 마차를 타기도 하고, 승마와 노 젓기, 테니스, 낚시까지 같이 하고 있어. 나는 그를 전보다 더 사랑해. 아서는 나를 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 말을 못 믿겠어. 처음에 그는 그때보다 더 나를 사랑할 수는 없다고 말했었거든. 하지만 이건 다 쓸데없는 소리야. 저기 아서가 나를 부르네. 그럼 지금은 이만 줄일게. 사랑을 담아,"

"루시."

추신. 어머니께서 안부를 전하셨어. 불쌍한 우리 어머니, 몸이 좀 나아지신 것 같아. 재추신. 우리 9월 28일에 결혼하기로 했어.

수어드 박사의 일기.

8월 20일.

렌필드의 상태가 더욱 흥미롭게 변하고 있다. 이제는 광적인 집착이 잠시 잦아드는 시기도 생길 만큼 차분해졌다. 발작이 시작된 후 첫 일주일 동안 그는 끊임없이 폭력적이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달이 떠오를 무렵 그는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혼잣말로 계속 중얼거렸다. "이제 기다릴 수 있어. 이제 기다릴 수 있어." 간호사가 이 사실을 알리러 왔기에, 나는 즉시 그를 확인하러 내려갔다. 그는 여전히 구속복을 입은 채 보호실에 있었으나, 얼굴에 가득했던 핏기가 가라앉아 있었다. 눈빛에는 예전의 그 애처로운, 아니 거의 비굴하다고 할 법한 부드러움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의 현재 상태가 나아졌다고 판단하여 구속복을 벗겨주라고 지시했다. 간호사들은 망설였으나, 결국 내 뜻에 따라 이의 없이 지시를 따랐다. 환자가 간호사들의 불신을 눈치챌 만큼 여유가 있다는 점이 기이했다. 그는 간호사들을 곁눈질로 살피며 내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들이 내가 당신을 해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니! 내가, 감히 내가 당신을 해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 어리석은 것들!"

이 가련한 미치광이의 정신 속에서조차 내가 다른 이들과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왠지 모를 위안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그의 생각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와 내가 어떤 공통점이 있어서 마치 우리가 한편이 되어야 한다는 뜻인가? 아니면 그가 나에게서 얻을 이득이 너무나 막대해서 나의 안녕이 그에게 반드시 필요한 상

황인 것인가? 나중에라도 꼭 알아내야 할 문제다. 오늘 밤 그는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 새끼 고양이를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다 자란 고양이를 가져다주어도 그는 전혀 유혹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저 이렇게 말할 뿐이다. "고양이는 내 알 바 아니야. 지금은 생각해야 할 게 더 많으니 기다릴 수 있어. 기다릴 수 있다고."

잠시 후 나는 그를 떠났다. 간호사의 말에 따르면, 그는 동이 트기 직전까지는 조용히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 갑자기 불안해하더니 이내 격렬하게 날뛰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발작을 일으켰다. 그 발작은 그를 완전히 탈진하게 만들었고, 그는 결국 혼수상태와도 같은 깊은 기절 상태에 빠져들었다.

* * * * *

… 사흘 밤째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낮 동안에는 격렬하게 날뛰다가, 달이 뜨는 순간부터 해가 뜰 때까지는 다시 고요해진다. 원인이 무엇인지 실마리라도 잡을 수 있다면 좋으련만. 마치 어떤 영향력이 왔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다. 다행스러운 생각이다! 오늘 밤 우리는 미친 자에 맞서 제정신을 유지하며 지략을 겨루게 될 것이다. 전에는 우리 도움 없이도 그가 빠져나갔지만, 오늘 밤만큼은 우리의 도움을 받아 도망치게 될 것이다. 그에게 기회를 주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부하들이 즉시 뒤따를 수 있도록 준비시켜 두겠다.

* * * * *

8월 23일. —— “예기치 못한 일은 언제나 일어난다.” 디즈레일리는 삶을 참으로 잘 알고 있었다. 새장 문이 열린 것을 발견한 우리의 새는 날아가지 않았고, 우리가 세운 그 모든 정교한 계획은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어쨌든 한 가지는 증명했다. 고요함이 유지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 보장된다는 사실 말이다. 앞으로는 매일 몇 시간씩 그의 결박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야간 간호사에게 지시해 두었다. 환자가 일단 진정되면, 해가 뜨기 한 시간 전까지는 그저 그를 보호실에 가두어 두라고 말이다. 가엾은 영혼의 정신은 이를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의 육체만큼은 이 휴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아! 또다시 예기치 못한 일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환자가 또다시 탈출했다.

* * * * *

나중에.--또 다른 밤의 소동이었다. 렌필드는 간호사가 상태를 살피러 방에 들어오는 순간을 교묘하게 기다렸다. 그러고는 간호사를 지나쳐 밖으로 돌진하더니 복도를 따라 미친 듯이 달려 나갔다. 나는 간호사들에게 뒤를 쫓으라고 전했다. 그는 다시 버려진 저택의 부지로 들어갔고, 우리는 오래된 예배당 문에 몸을 바짝 붙인 채 있는 그를 발견했다. 나를 발견한 그는 격분했다. 만약 간호사들이 제때 그를 붙잡지 못했다면, 그는 나를 죽이려 들었을 것이다. 그를 붙들고 있을 때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그는 갑자기 발악하며 몸부림을 치더니, 돌연 거짓말처럼 차분해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환자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따라갔다. 달빛이 비치는 하늘을 바라보는 환자의 눈에 포착된 것은, 서쪽을 향해 소리 없이 유령처럼 날아가는 커다란 박쥐 한 마리뿐이었다. 보통 박쥐는 이

리저리 휘저으며 날아다니기 마련이지만, 이 박쥐는 마치 목적지를 알고 있거나 어떤 의도를 품은 듯 곧장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환자는 매 순간 점점 더 차분해지더니, 이윽고 이렇게 말했다.

"저를 묶어둘 필요 없습니다. 순순히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는 별다른 문제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저 지나친 침착함에는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서려 있는 듯하다. 나는 오늘 밤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루시 웨스튼라의 일기

힐링엄, 8월 24일.--미나처럼 나도 계속해서 기록을 남겨야겠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만났을 때 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테니까. 대체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 미나가 다시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이 너무나 괴롭다. 어젯밤에는 휘트비에 있을 때처럼 다시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아마 공기가 바뀌어서, 혹은 집에 돌아와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으니 모든 것이 어둡고 끔찍하게만 느껴진다. 그저 막연한 공포가 가득할 뿐이고, 몸은 너무나 약해지고 지쳐버렸다. 아서가 점심을 먹으러 왔을 때, 나를 보고 무척 안타까워하는 기색이었다. 하지만 나는 밝은 척할 기운조차 없었다. 오늘 밤에는 어머니의 방에서 잠을 잘 수 있을까. 적당한 핑계를 대서라도 시도해 봐야겠다.

*****

8월 25일.

또다시 괴로운 밤이었다. 어머니는 내 제안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시는 듯했다. 어머니 본인의 몸 상태도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데, 분명 나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으셔서 애써 참으시는 것이리라. 잠들지 않으려고 애를 써보았고 잠시 동안은 버텼다. 하지만 자정이 되어 시계가 울리자 깜빡 졸던 중 잠이 깨고 말았다. 그전부터 이미 잠이 들고 있었던 모양이다. 창문 쪽에서 무언가 긁거나 파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다. 그 뒤의 일은 기억나지 않는 걸 보니 아마 그때 완전히 잠들었나 보다. 또 악몽을 꾸었다. 꿈의 내용이 기억났으면 좋으련만.

오늘 아침은 몸이 끔찍할 정도로 무기력하다.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목구멍은 통증이 느껴진다. 폐에 분명 문제가 생긴 게 틀림없다. 아무리 숨을 쉬어도 공기가 충분히 들어오지 않는 기분이다. 아서가 오면 기운을 차려보려 노력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내 모습을 보고 아서가 너무 괴로워할 테니까.

아서 홈우드가 수어드 박사에게 보내는 편지.

앨버말 호텔, 8월 31일.

"사랑하는 잭,—

"부탁 하나만 들어주게. 루시가 아프네. 특별한 병이 있는 건 아니지만, 몰골이 말이 아니고 날이 갈수록 상태가 나빠지고 있어. 무슨 이유라도 있는지 루시에게는 물어봤지만, 어머니께는 차마 여쭤보지 못했네. 지금 같은 그분의 몸 상태에서 딸 걱정으로 그 가련한 부인의 마음

을 어지럽혀 드렸다간 치명적일 수도 있으니까. 웨스튼라 부인은 자신의 운명이 이미 정해졌다고, 심장병이라고 내게 털어놓으셨네—가엾은 루시는 아직 모르고 있지만 말이야. 나는 분명 내 사랑스러운 아이의 마음을 갉아먹는 무언가가 있다고 확신하네. 루시를 생각하면 미칠 것만 같고,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미어지네. 자네에게 루시를 좀 봐달라고 부탁하겠다고 그 아이에게 말해두었네. 처음에는 루시도 망설였지만—이보게, 이유는 나도 아네—결국 허락했네. 자네에게도 괴로운 일이 되겠지만, 오랜 친구여, 오직 그 아이를 위한 일이니 나도 부탁하기를 주저해선 안 되고 자네도 나서기를 주저해선 안 되네. 내일 오후 2시에 힐링엄으로 점심을 먹으러 오게나. 웨스튼라 부인이 의심하지 않도록 말이야. 점심을 먹고 나면 루시가 자네와 단둘이 있을 기회를 만들 걸세. 나는 차를 마시러 들어갔다가 자네와 함께 떠나도록 하지.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자네가 루시를 보고 난 직후에 곧바로 단둘이 만나 상의하고 싶네. 제발 부탁하네!”

“아서.”

전보, 아서 홈우드로부터 수어드에게.

_9월 1일._

"병세가 더 악화된 아버지를 뵈러 급히 가봐야 하네. 지금 글을 쓰는 중이라네. 오늘 밤 우편으로 링에 있는 내게 자세한 내용을 적어 보내주게. 급한 일이면 전보를 쳐주게나."

수어드 박사가 아서 홈우드에게 보내는 편지.

_9월 2일._

"나의 친애하는 오랜 친구여—

웨스튼라 양의 건강 상태에 관해서는, 제가 아는 한 기능적인 이상이나 질병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우선 급히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외양만큼은 결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지난번 만났을 때와 비교하면 모습이 너무나도 처참하게 달라졌습니다. 물론 제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정밀한 검사를 할 기회는 없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우리가 워낙 가까운 친구 사이라는 사실이 약간의 어려움을 만들고 있는데, 이는 의학적 지식이나 관습으로도 메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말씀드릴 테니, 결론은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제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 계획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웨스튼라 양은 겉보기에 꽤 밝은 모습이었다. 그녀의 어머니도 함께 있었는데, 루시가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온 힘을 다해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곧 알아차렸다. 루시가 상황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적어도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는 짐작하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는 단둘이 점심을 먹었다. 모두가 밝은 분위기를 유지하려 애쓴 덕분에,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은 듯 우리 사이에는 정말로 즐거운 기운이 감돌았다.

이후 웨스튼라 부인이 휴식을 취하러 자리를 비우자, 루시는 나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우리는 그녀의 침실로 향했다. 하인들이 계속 드나들고 있었기에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루시는 밝은 기색을 유지했다.

하지만 문이 닫히자마자 루시의 얼굴에서 가식적인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더니, 손으로 눈을 가려버렸다. 루시의 활기가 순식간에 꺾인 것을 본 나는, 그녀의 이런 심리적 변화를 놓치지 않고 즉시 진찰을 시작했다. 루시는 내게 아주 다정하게 말했다.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나는 의사로서 환자의 비밀을 지키는 것이 신성한 의무임을 상기시키면서도, 내가 그녀를 무척이나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그녀는 내 말뜻을 즉시 알아차리고는 단 한 마디로 그 문제를 매듭지었다. '아서에게 당신이 원하는 만큼 다 말해도 좋아요. 난 내 자신은 상관없지만, 아서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요!' 덕분에 나는 이제 마음 편히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가 다소 혈색이 없다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었으나, 일반적인 빈혈 증상은 보이지 않았다. 마침 그녀의 혈액 상태를 확인할 기회가 생겼는데, 빡빡한 창문을 열려다 끈이 끊어지는 바람에 그녀가 깨진 유리 조각에 손을 살짝 베인 것이다. 그 자체로는 사소한 상처였으나 덕분에 확실한 기회를 얻었고, 나는 혈액 몇 방울을 채취해 분석했다. 성분 분석 결과는 지극히 정상이었으며, 내 추측으로는 오히려 매우 건강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다른 신체적 측면에서도 딱히 걱정할 부분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분명 어딘가에 원인이 있을 것이기에, 나는 이것이 정신적인 문제일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녀는 가끔 숨을 쉬기가 답답하다고 호소하며, 잠을 자도 몸이 무겁고 나른한 데다 무서운 꿈을 꾸지만 정작 꿈 내용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녀의 말로는 어릴 적에 몽유병이 있었는데, 휘트비에 머물 때 그 증상이 다시 나타났다고 한다. 한 번은 밤중에 밖으로 걸어 나가 이스트 클리프까지 갔다가 미나 머리에게 발견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그런 증상이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고 내게 확언했다.

나는 확신이 서지 않아 내가 아는 최선의 조치를 취했다. 암스테르담에 있는 나의 오랜 친구이자 스승인 반 헬싱 교수에게 편지를 썼다. 그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희귀한 질병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이다. 나는 그에게 이곳으로 와 달라고 요청했다. 자네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했기에, 그에게 자네가 누구인지, 그리고 루시 웨스튼라 양과 어떤 관계인지도 언급해 두었다. 여보게, 이건 자네의 뜻을 따른 것이네. 나 역시 그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척 자랑스럽고 기쁘니까 말일세. 반 헬싱은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라도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줄 사람이니, 그가 어떤 이유로 오든 우리는 그의 뜻을 따라야 하네.

그는 겉보기에 제멋대로인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그가 누구보다도 자신의 분야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철학자이자 형이상학자이며, 당대 가장 진보적인 과학자 중 한 명이다. 또한 나는 그가 완전히 열린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고 믿는다. 강철 같은 신경과 얼음시냇물처럼 차분한 성품, 굴하지 않는 결단력과 자제력, 그리고 미덕을 넘어 축복의 경지에 이른 관용심,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친절하고 진실한 마음까지. 이 모든 것이 인류를 위해 숭고한 과업을 수행하는

그의 밑거름이 된다. 그의 견해는 만인을 품는 그의 공감 능력만큼이나 넓기에, 그는 이론과 실천 모두에서 탁월하다. 내가 왜 그를 이토록 신뢰하는지 알려주려고 이 사실들을 말하는 것이네.

나는 그에게 즉시 와 달라고 부탁했다. 내일 다시 루시 웨스튼라 양을 만날 예정이다. 그녀의 어머니가 내가 너무 자주 찾아온다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내일은 상점에서 만나기로 했다.

언제나 변함없는 벗으로부터,

존 수어드.

에이브러햄 반 헬싱 박사(의학박사, 철학박사, 문학박사 등)가 수어드 박사에게 보내는 편지.

_9월 2일._

"나의 친애하는 친구에게—

편지를 받자마자 저는 당신에게 가고 있습니다. 운 좋게도 저를 믿고 일을 맡긴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바로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운이 따르지 않았다면 저를 믿어준 이들이 곤란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소중한 사람을 돕기 위해 부른 친구의 요청에 응해 달려가는 중이니까요.

당신의 친구에게 이렇게 전해 주십시오. 너무 긴장한 우리의 또 다른 친구가 손에서 놓쳐버린 그 칼, 그 칼이 낸 상처에 번진 괴저의 독을

당신이 제 상처에서 그토록 재빨리 빨아내 주었던 일을 말입니다. 지금 그가 제 도움을 필요로 하고 당신이 저를 불러 그 도움을 청한 이 마당에, 그때 당신이 제게 베푼 그 일이야말로 그의 그 막대한 재산을 다 합친 것보다도 그를 위해 더 큰 값어치를 한 것이라고요. 하지만 당신의 친구를 돕는 일은 제게 더해진 기쁨일 뿐, 제가 달려가는 대상은 바로 당신이니까요.

제가 언제든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레이트 이스턴 호텔에 제 방을 마련해 두십시오. 그리고 내일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그 젊은 숙녀분을 뵐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 주십시오. 아마 그날 밤에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사흘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더 오래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나의 친구 존.

"반 헬싱."

수어드 박사가 아서 홈우드 귀하에게 보내는 편지.

_9월 3일._

"사랑하는 아트—

반 헬싱이 다녀갔네. 그는 나와 함께 힐링엄으로 왔는데, 루시의 뜻에 따라 어머니는 점심을 드시러 나가신 상태라 우리끼리 루시와 함께 있었네. 반 헬싱은 환자를 아주 세밀하게 진찰했어. 그가 나에게 보고를 하면 내가 그 내용을 자네에게 전해주겠네. 내가 내내 곁에 있었던

건 아니니까 말이야. 내 생각에 그는 무척 걱정하고 있는 것 같지만, 좀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더군. 내가 우리의 우정과 자네가 이 일에 대해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말해주자, 그는 이렇게 말했네. "자네가 생각하는 바를 그에게 전부 말해주게. 만약 가능하다면, 자네가 짐작할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도 말해주게나. 아니, 농담하는 게 아니네. 이건 농담이 아니라 삶과 죽음이 걸린 문제야. 어쩌면 그보다 더 중한 일일지도 모르지." 그가 너무나 진지하게 말하기에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물었네. 이건 우리가 다시 도시로 돌아온 뒤의 일이었고, 그는 암스테르담으로 돌아가기 전 차를 한 잔 마시고 있었지. 하지만 그는 더 이상의 단서도 주지 않았네. 아트, 나를 원망하지 말게. 그의 이런 과묵함이야말로 루시를 위해 온 정신을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때가 되면 분명히 솔직하게 말해줄 걸세. 그래서 나는 그저 우리가 방문했던 내용을 마치 <데일리 텔레그래프>지에 실을 묘사 기사를 쓰는 것처럼 글로 남겨두겠다고 말했네. 그는 별 반응이 없었지만, 런던의 매연이 자신이 학생이었을 때보다는 그리 심하지 않다는 말만 남기더군. 그가 가능하다면 내일 중으로 보고서를 보내주기로 했네. 어찌 됐든 편지는 한 통 보내주겠다고 했고 말이야.

"자, 방문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네. 루시는 내가 처음 보았던 날보다 훨씬 명랑해 보였고, 분명 안색도 좋아져 있었네. 자네를 그토록 속상하게 했던 그 소름 끼치는 기색도 어느 정도 사라졌고, 호흡도 정상이었어. 루시는 (늘 그랬듯이) 교수에게 아주 다정하게 대하며 그를 편안하게 해주려 애썼네. 비록 그 가여운 아이가 무척 힘겹게 애쓰고 있다는 게 내 눈에는 보였지만 말이야. 반 헬싱도 그것을 알아챈 듯했네. 예

전부터 익히 알던 그 재빠른 눈빛이 짙은 눈썹 아래로 스치는 것을 보았거든. 그러고 나서 그는 우리 이야기나 병 이야기는 쏙 빼놓고 온갖 다른 화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어찌나 한없이 다정하던지 루시가 억지로 꾸며내던 생기가 점차 진짜 활기로 바뀌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네. 그러다 그는 아무런 기색의 변화도 없이 대화를 슬그머니 자신의 방문 이야기로 돌리며 부드럽게 말했네.

"'사랑스러운 아가씨, 당신이 이토록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니 내 기쁨이 참으로 크구려. 그건 아주 큰 일이라네, 아가씨. 내가 미처 보지 못하는 것들까지 포함해서 말이오. 사람들이 내게 말하길, 당신의 기운이 가라앉아 있고 안색이 무서울 정도로 창백하다고 하더군.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지. "흥!" 하고 말이오.' 그는 내 앞에서 손가락을 튕기며 말을 이었네. '하지만 당신과 내가 그들이 얼마나 틀렸는지 보여주면 되는 거라네. 그가 어떻게——' 그는 예전에 수업 시간에 나를 지목했을 때와 똑같은 눈빛과 몸짓으로 나를 가리켰네. 그가 지금도 빠짐없이 나에게 들먹이는 어떤 사건이 있던 당시, 아니 그 직후의 일이었지. '——그가 어떻게 젊은 숙녀에 대해 알 수 있겠느냐는 말이지. 그에게는 함께 놀며 그들을 다시 행복으로,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로 돌려보내야 할 미친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할 일이 아주 많다네. 오, 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지. 우리가 그런 행복을 선사할 수 있으니 말이오. 하지만 젊은 숙녀들이라니! 그에게는 아내도 딸도 없지 않은가.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속마음을 또래에게 털어놓지 않는다네. 대신 수많은 슬픔과 그 원인을 겪어온 나 같은 노인에게 말하곤 하지. 그러니 아가씨, 우리는 그를 정원으로 보내 담배나 피우게 하고,

그동안 우리끼리 오붓하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합시다.' 나는 그 뜻을 알아차리고는 밖을 거닐었네. 곧 교수가 창가로 다가와 나를 안으로 불렀지. 그의 표정은 심각했으나 이내 입을 열었네. '주의 깊게 진찰해 보았으나, 기능적인 원인은 찾지 못했네. 자네 말대로 혈액을 많이 잃은 것은 사실이네. 과거에는 그랬으나 지금은 아니야. 하지만 그녀의 상태가 빈혈 때문은 결코 아니네. 혹시라도 놓치는 것이 없도록, 한두 가지 질문을 더 하기 위해 그녀의 하녀를 보내달라고 부탁해 두었네.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는 잘 알고 있네만 말이야. 그럼에도 분명 원인은 있을 것이네. 모든 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는 법이니까. 일단 집에 돌아가서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 매일 나에게 전보를 보내주게. 만약 원인을 찾게 된다면 다시 오겠네. 이 병——건강하지 못한 상태 또한 하나의 병이라네——은 나를 흥미롭게 하고, 그 사랑스럽고 달콤한 아가씨 또한 나를 흥미롭게 하네. 그녀는 나를 매료시킨다네. 자네나 병 때문이 아니라 해도, 오직 그녀를 위해서라도 나는 올 것이네.'"

"내가 말한 대로, 단둘이 있을 때조차 그는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았네. 그러니 아트, 이제 자네도 내가 아는 것은 전부 알게 된 셈이야. 나는 계속 빈틈없이 지켜보겠네. 자네의 가여운 아버님께서 기운을 차리고 계시길 바라네. 둘 다 자네에게 그토록 소중한 두 사람 사이에서 이런 처지에 놓인다는 건, 나의 오랜 벗이여, 자네에게 정말 괴로운 일이겠지. 아버지에 대한 자네의 도리가 어떤 것인지 잘 알기에, 자네가 그 도리를 지키려는 것도 옳다고 생각하네. 하지만 정 필요하다면, 자네에게 즉시 루시에게로 오라는 기별을 보내겠네. 그러니 내 소식이 있기 전까지는 너무 불안해하지 말게."

수어드 박사의 일기.

9월 4일. — 동물성 먹이를 찾는 환자는 여전히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어제 한 차례 발작이 있었는데, 평소와는 다른 시간대에 일어났다. 정오를 알리는 종이 울리기 직전, 환자가 안절부절못하며 요동치기 시작했다. 간호사는 증상을 알아보고 즉시 도움을 요청했다. 다행히 직원들이 달려온 덕분에 제때 도착할 수 있었다. 정오가 되자 환자가 너무나 격렬하게 날뛰는 바람에, 직원들이 온 힘을 다해 그를 붙들어야만 했다. 하지만 5분 정도 지나자 환자는 점점 차분해지더니, 결국 일종의 우울 상태에 빠져들었다. 환자는 지금까지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간호사의 말에 따르면, 발작 중에 환자가 내지른 비명은 정말이지 소름 끼칠 정도였다고 한다. 내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환자의 모습에 겁을 먹은 다른 환자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사실 그 비명 소리가 멀리 떨어져 있던 나에게까지 들려 불쾌감을 주었으니, 환자들이 느꼈을 충격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이제 요양원의 저녁 식사 시간이 지났지만, 환자는 여전히 구석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다. 환자의 얼굴에는 멍하고 침울하며 슬픔에 잠긴 기색이 역력한데, 이는 무언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무언가를 암시하는 듯한 표정이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 * * * *

나중에. — 환자에게 또 다른 변화가 생겼다. 오후 다섯 시에 상태를 살피러 갔을 때, 그는 예전처럼 아주 행복하고 만족스러워 보였다. 그는 파리를 잡아먹고 있었는데, 문틈의 완충재 사이에 손톱 자국을 내어

자신이 잡은 파리의 수를 기록하고 있었다. 나를 보자 그는 다가와 그동안의 행실이 나빴다며 사과했다. 그러고는 아주 비굴하고 움츠러든 태도로, 다시 자기 방으로 데려다주고 노트도 돌려달라고 간청했다. 나는 그를 맞춰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지금 그는 창문을 열어둔 채 방에 돌아가 있다. 창틀에 차에 넣을 설탕을 뿌려두었더니 파리들이 잔뜩 몰려들고 있다. 그는 이제 파리를 잡아먹지는 않고, 예전처럼 상자 안에 모으고 있다. 그러고는 벌써 거미를 찾으려고 방 구석구석을 살피는 중이다. 나는 그가 지난 며칠간 무슨 생각을 했는지 실마리를 얻고자 대화를 시도해 보았다. 그의 생각을 알 수 있다면 내게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좀처럼 미끼를 물지 않았다. 그는 잠시 동안 몹시 슬픈 표정을 짓더니, 마치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멍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다 끝났어! 전부 끝났다고! 그가 나를 버렸어. 이제 내가 스스로 해내지 않는 한, 내게 남은 희망은 없어!" 그러더니 그는 갑자기 결연한 태도로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박사님, 실례가 안 된다면 설탕을 조금만 더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몸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파리들은요?" 내가 물었다.

"맞아요! 파리들도 그걸 좋아하고, 저도 파리를 좋아해요. 그러니 저도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은 논리적인 대화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무지한 사람들도 있다. 나는 그에게 설탕을 두 배로 가져다주었고,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마음속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 * * * *

자정.

그에게 또 다른 변화가 생겼다. 상태가 훨씬 좋아진 루시 웨스튼라양을 만나고 막 돌아오던 길이었다. 우리 집 대문 앞에 서서 노을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가 다시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방이 집 이편에 있어서인지 아침보다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다. 런던 위로 펼쳐진 노을의 경이롭고도 연기 같은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있었다. 탁한 구름 위로, 마치 탁한 물 위로 번지는 것처럼 기묘한 빛깔과 검은 그림자가 어우러진 그 환상적인 풍경을 보다가, 갑자기 눈앞의 현실로 돌아오니 정신이 아득해졌다. 숨 막히는 비극을 가득 품은 채 차갑고 엄격하게 서 있는 나의 돌 건물과, 이 모든 것을 견뎌내야 하는 나의 황량한 마음이 한꺼번에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해가 질 무렵 그에게 도착했다. 창밖으로 붉은 태양이 가라앉는 모습이 보였다. 해가 저물수록 그의 광기도 점점 잦아들었다.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완전히 사라지자, 그는 붙잡고 있던 사람들의 손에서 빠져나와 아무런 의지 없는 덩어리처럼 바닥으로 쓰러졌다. 하지만 정신병자들이 가진 지적 회복력은 참으로 놀랍다. 불과 몇 분 지나지 않아 그는 아주 차분하게 몸을 일으켜 주위를 둘러보았다. 나는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싶어 간호사들에게 그를 붙잡지 말라고 신호를 보냈다. 그는 곧장 창가로 걸어가더니 설탕 부스러기를 털어냈다. 그러고는 곧충 채집통을 가져와 밖으로 내용물을 다 비워버린 뒤 통을 던져

버렸다. 다시 창문을 닫은 그는 방을 가로질러 침대에 앉았다. 이 모든 행동이 너무나 뜻밖이라 나는 그에게 물었다.

"이제 더는 파리를 채집하지 않을 건가요?"

"아니, 그만하게. 그런 쓸데없는 소리는 이제 지긋지긋하네!" 그가 말했다. 그는 참으로 경이로울 만큼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다. 그의 내면을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다면, 혹은 그가 왜 이토록 갑작스러운 격정에 휩싸이는지 그 원인이라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잠시 멈춰보자. 어쩌면 실마리가 있을지도 모른다. 오늘따라 왜 그의 발작이 정오와 일몰 무렵에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찾아낼 수만 있다면 말이다. 달이 어떤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듯, 태양의 해로운 기운이 특정 성질을 가진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있는 것은 아닐까? 곧 알게 될 것이다.

전보, 수어드, 런던에서, 암스테르담의 반 헬싱에게.

"9월 4일. 환자의 상태는 오늘 더욱 호전되었다."

전보, 수어드, 런던에서 암스테르담의 반 헬싱에게.

9월 5일. — 환자의 상태가 크게 호전되었다. 식욕도 좋고 잠도 자연스럽게 잘 잔다. 기분도 좋아 보이며 안색도 돌아오고 있다.

전보, 수어드, 런던에서, 암스테르담의 반 헬싱에게.

9월 6일. 상황이 끔찍할 정도로 악화되었다. 지체 말고 즉시 와 달라. 한 시간도 낭비해서는 안 된다. 당신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홈우드에게 보낼 전보를 붙들고 있겠다.

제X장

수어드 박사가 아서 홈우드 귀하에게 보내는 편지.

_9월 6일._

"사랑하는 아트—

오늘 전할 소식은 그리 좋지 않네. 루시는 오늘 아침 상태가 조금 나빠졌어. 하지만 이 상황에서 다행스러운 일도 하나 생겼네. 루시의 어머니인 웨스튼라 부인이 당연히 딸을 걱정하며 내게 의학적 자문을 구하러 왔거든. 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위대한 전문가이자 나의 옛 스승인 반 헬싱 교수님이 나와 함께 머물러 주실 거라 말했네. 그리고 루시를 나와 교수님이 함께 돌보겠다고 덧붙였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수시로 드나들어도 부인이 지나치게 놀라지 않을 걸세. 부인이 큰 충격을 받으면 갑작스러운 죽음에 이를 수도 있고, 지금처럼 루시의 몸 상태가 약할 때는 그게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말이야. 가엾은 친구여, 우리 모두 사방이 난관에 가로막힌 기분이네. 하지만 부디 신의 가호가 있어 이 모든 일을 무사히 헤쳐 나갈 수 있기를 바라네. 도움이 필요하

면 다시 편지를 쓰겠네. 그러니 내 소식이 없더라도, 그저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주게. 급히 쓰네.

언제나 당신의,

존 수어드.

수어드 박사의 일기.

9월 7일. -- 리버풀 스트리트 역에서 반 헬싱을 만났을 때, 그가 나에게 건넨 첫마디는 이러했다.

"그녀를 사랑하는 우리의 젊은 친구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나?"

"아니요." 내가 말했다. "전보에 썼던 대로, 당신을 직접 만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웨스튼라 양의 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 당신이 오고 있다고 그에게 편지를 보냈을 뿐입니다. 필요하다면 다시 연락하겠다고 덧붙였고요."

"맞네, 친구," 그가 말했다. "전적으로 옳아! 아직은 그가 모르는 편이 나아. 어쩌면 영영 모를 수도 있겠지. 내 간절히 바라건대 그러길 바라네. 하지만 만약 알아야만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모든 것을 알게 되겠지. 그리고 나의 친애하는 친구 존, 한 가지 주의를 당부하겠네. 자네는 지금 미친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어. 세상 모든 인간은 저마다 어떤 식으로든 미쳐 있기 마련이라네. 자네가 환자들을 신중하게 대하듯, 신이 만든 미친 자들, 즉 세상 나머지 사람들도 그렇게 대하게나. 자네는 환자들에게 무엇을 하는지, 왜 하는지 말하지 않지 않나?

그들이 자네의 생각을 알게 하지도 않고 말이야. 자네도 그렇게 해야 하네. 그래야 지식이라는 것을 제자리에 머물게 할 수 있고, 그곳에서 지식이 제 동류를 불러 모아 번식하게 할 수 있으니까. 자네와 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일단 이곳에, 바로 여기에 간직해 두기로 하세." 그는 내 심장과 이마를 차례로 짚더니, 자신에게도 똑같이 행했다. "지금 나에게도 생각 중인 것들이 있네. 나중에 자네에게 차근차근 들려주겠네."

"왜 지금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물었다. "지금 이야기하면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결론을 내릴 수도 있고요." 그가 말을 멈추고 나를 빤히 바라보더니 말했다.

"내 친구 존, 곡식이 다 자랐을 때, 그러니까 아직 익기 전, 대지의 젖줄을 머금고 햇살이 채 황금빛으로 물들이기 전의 상태 말일세. 그때 농부는 이삭을 뽑아 거친 손바닥으로 비벼보며 초록색 겨를 불어 날리고는 이렇게 말한다네. '보게나! 아주 좋은 곡식이야. 때가 되면 풍년이 들 걸세'라고 말이지."

나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어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손을 뻗어 내 귀를 잡더니, 예전 강의 시간에 하던 것처럼 장난스럽게 잡아당기며 말했다.

"유능한 농부가 그때 그렇게 말하는 건 그제야 비로소 알 수 있기 때문이지, 그 전에는 알 수 없다네. 하지만 유능한 농부가 곡식이 잘 자라는지 확인하려고 심어놓은 것을 파헤치는 일은 결코 없네. 그건 농사놀이를 하는 아이들이나 하는 짓이지, 평생을 농사에 바친 사람들은 그렇

게 하지 않아. 이제 이해가 가는가, 친구 존? 나는 이미 씨를 뿌렸고, 싹을 틔우는 건 자연의 몫이라네. 만약 싹이라도 튼다면 그것으로 희망은 있는 것이지. 나는 이삭이 부풀어 오를 때까지 기다릴 뿐이라네."

그는 내가 이해했다는 것을 알아챘는지 말을 멈추었다. 그러고는 다시 아주 엄숙한 태도로 말을 이어갔다.

"자네는 언제나 세심한 학생이었지. 자네의 임상 기록은 다른 이들의 것보다 늘 훨씬 더 방대했네. 그때는 그저 학생이었지만, 이제는 선생이 되었으니 그 좋은 습관을 여전히 잘 유지하고 있으리라 믿네. 친구여, 기억해야 하네. 지식은 기억보다 강한 법이니, 우리는 결코 약한 기억력을 믿어서는 안 된다네. 설령 자네가 그 좋은 습관을 이어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번에 우리 친애하는 아가씨에게 일어난 사건은—내 말은, 그저 그럴 수도 있다는 뜻이라네—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 될 수도 있네. 자네 고향 말로 표현하자면, 다른 모든 사건을 저울에 함께 올려도 이 사건의 무게를 당해내지 못할 만큼 말일세. 그러니 이 사건을 잘 기록해 두게.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놓치지 말게나. 내 조언을 하나 하자면, 자네의 의구심이나 추측까지도 모두 기록해 두라는 것이네.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자네의 추측이 얼마나 맞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큰 의미가 될 걸세.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배우는 법이니까!"

내가 루시의 증상을 설명했을 때—이전과 같았으나 훨씬 더 뚜렷해진 상태였다—그는 매우 엄숙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여러 도구와 약품이 든 가방을 챙겨 들었다. 그는 예전 강의에

서 치유의 기술을 전하는 교수의 장비들을 두고 "우리의 유익한 직업에 딸린 소름 끼치는 부속품들"이라고 부른 적이 있었다. 안으로 안내받았을 때 웨스튼라 부인이 우리를 맞이했다. 부인은 당황한 기색이었으나, 내가 예상했던 것만큼은 아니었다. 대자연은 자비로운 마음을 품을 때면, 죽음조차 그 공포에 맞설 해독제를 마련해 두곤 한다. 작은 충격만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상황은 묘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부인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신과 직접 상관없는 일들, 심지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딸에게 일어난 끔찍한 변화조차 자신에게는 닿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이는 마치 대자연이 이물질을 발견하면 그 주변을 감각이 없는 조직으로 감싸 안아, 접촉했을 때 입을 해악으로부터 본래의 것을 보호하는 방식과 비슷했다. 만약 이것이 예정된 이기심이라면, 우리는 누군가를 이기적이라는 죄목으로 비난하기 전에 잠시 멈춰 서야 할 것이다. 그 이기심의 뿌리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영적 병리학의 이 단계에 관한 지식을 활용하여, 그녀가 루시와 함께 있지 않도록 하고 루시의 병을 꼭 필요한 만큼만 생각하도록 규칙을 정했다. 그녀는 흔쾌히 동의했다. 어찌나 선뜻 동의하던지, 생명을 지키려는 자연의 의지가 다시금 느껴질 정도였다.

반 헬싱과 나는 루시의 방으로 안내받았다. 어제 그녀를 보았을 때도 충격을 받았지만, 오늘 마주한 모습은 공포 그 자체였다. 루시는 창백하다 못해 분칠을 한 듯 핏기 없는 모습이었다. 입술과 잇몸에서조차 붉은 기가 완전히 사라진 듯했고, 얼굴의 뼈마디가 도드라져 보였다. 숨을 몰아쉬는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도, 혹은 듣는 것만으로도 고통스

러울 정도였다. 반 헬싱의 얼굴은 대리석처럼 굳어졌고, 미간은 코 위로 맞닿을 듯이 찌푸려졌다. 루시는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고, 말할 기력조차 없어 보였기에 우리는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이윽고 반 헬싱이 내게 손짓을 했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왔다. 문을 닫자마자 그는 복도를 지나 문이 열려 있는 옆방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그러고는 나를 재빨리 안으로 끌어당긴 뒤 문을 닫았다.

"세상에!" 그가 말했다. "이건 정말 끔찍하군. 지체할 시간이 없네.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는 데 필요한 혈액이 너무 부족해서, 루시는 결국 죽고 말 거야. 당장 수혈을 해야 하네. 자네가 하겠나, 아니면 내가 하겠나?"

"제가 더 젊고 힘도 셉니다, 교수님. 반드시 저여야만 합니다."

"그럼 당장 준비하게. 내 가방을 가져오겠네. 준비는 다 되어 있네."

나는 그와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내려가는 도중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우리가 현관에 다다랐을 때 하녀가 막 문을 열었고, 아서가 서둘러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급히 다가오더니, 간절함이 담긴 속삭임으로 말했다.

"잭, 정말 걱정했어요. 당신의 편지 행간을 읽으며 내내 고통스러웠답니다. 아버님 상태가 호전되었다기에 직접 확인하러 달려왔어요. 저분은 반 헬싱 박사님이 아니신가요? 박사님,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가 처음 그를 보았을 때는 이런 때에 찾아온 불청객이 못내 불쾌했다. 하지만 그의 건장한 체격을 살피고,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강인한 젊음을 알아차리자 교수의 눈이 번뜩였다. 교수는 손을 내밀며 엄숙한 태도로 지체 없이 말했다.

"선생님, 제때 오셨군요. 당신은 우리 귀한 아가씨의 연인이시지요. 아가씨가 나빠졌습니다, 아주, 아주 나빠졌어요. 이런, 얘야, 그렇게 쓰러지면 안 되네." 아서가 갑자기 안색이 창백해지더니 거의 정신을 잃을 듯 의자에 주저앉았기 때문이었다. 교수는 말을 이었다. "당신이 아가씨를 도와야 합니다. 살아있는 그 누구보다 당신이 더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아서가 거친 목소리로 물었다. "말만 하게. 무엇이든 하겠네. 내 목숨은 그녀의 것이니, 그녀를 위해서라면 내 몸에 남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기꺼이 바치겠네." 교수에게는 다분히 유머러스한 면이 있었는데, 오래도록 그를 보아온 터라 나는 그의 대답 속에서 그런 기질이 묻어나는 흔적을 알아챌 수 있었다.

"젊은이, 그렇게까지 바라는 건 아니라네. 마지막 한 방울까지는 아니야!"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의 눈에는 불꽃이 일렁였고, 벌어진 콧구멍은 결연한 의지로 파르르 떨렸다. 반 헬싱이 그의 어깨를 툭 쳤다. "자, 어서!" 그가 말했다. "당신은 사내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런 사내예요. 당신은 나보다, 그리고 내 친구 존보다도 더

나은 사람입니다.” 아서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교수는 다정한 말투로 설명을 이어갔다.

“아가씨의 상태가 좋지 않아요, 아주 좋지 않습니다. 피를 원하고 있고, 피를 얻지 못하면 죽고 말 겁니다. 내 친구 존과 나는 상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혈이라는 것을 시행하려 합니다. 충만한 혈관을 가진 이의 피를, 그 피를 갈구하며 텅 빈 혈관으로 옮겨주는 작업 말입니다. 나보다 더 젊고 강한 존이 피를 주기로 했습니다.” 아서는 침묵 속에서 내 손을 잡고 힘껏 움켜쥐었다. “하지만 당신이 여기 왔으니, 세상의 사유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같은 노인이나 젊은이들보다 당신이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의 신경은 당신만큼 차분하지 못하고, 우리의 피도 당신만큼 맑지 못하니까요!” 아서가 그를 향해 몸을 돌리며 말했다.

“내가 그녀를 위해서라면 얼마나 기꺼이 죽을 수도 있는지 당신이 알기만 한다면, 당신도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는 목이 메는 듯한 소리를 내며 말을 멈췄다.

“착한 아이로군!” 반 헬싱이 말했다. “머지않아 자네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는 사실에 행복해할 걸세. 자, 이제 이리 와서 조용히 하게. 일이 끝나기 전에 그녀에게 입을 맞출 기회는 한 번 주겠네. 하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물러나야 하네. 내가 신호를 보내면 즉시 떠나게나. 부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게. 그분이 어떤 상태인지 자네도 잘 알지 않는가! 결코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되네. 이

사실을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그분은 큰 충격을 받을 테니까. 자, 어서!"

우리 모두 루시의 방으로 올라갔다. 아서는 지시에 따라 방 밖에 남았다. 루시는 고개를 돌려 우리를 바라보았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든 것은 아니었지만, 그저 몸에 힘이 너무 없어 움직이지 못할 뿐이었다. 루시의 눈빛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반 헬싱은 가방에서 몇 가지 물건을 꺼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작은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그러고는 마취제를 조제하더니, 침대 곁으로 다가와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 아가씨, 여기 약이 있어요. 착한 아이처럼 꿀꺽 마셔보렴. 자, 이렇게 들어 올리면 삼키기 편할 거야. 그래, 잘했어." 그녀는 애를 쓴 끝에 마침내 성공했다.

약효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사실 이것은 그녀의 기력이 얼마나 쇠약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눈꺼풀에 잠기운이 어른거리기 전까지, 그 시간은 마치 끝이 없을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마침내 마취제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교수는 만족스러운 듯 아서를 방 안으로 불러 코트를 벗으라고 일렀다. 그러고는 덧붙였다. "내가 테이블을 가져오는 동안 그 짧은 입맞춤 정도는 해도 좋네. 존, 이리 와서 좀 도와주게!" 그래서 그가 그녀의 몸 위로 몸을 굽히는 동안, 우리 중 누구도 그 모습을 지켜보지 않았다.

반 헬싱이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는 너무나 젊고 강건하며, 혈액 또한 매우 순수해서 우리가 굳이 섬유소를 제거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반 헬싱은 신속하면서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수술을 진행했다. 수혈이 계속되자 불쌍한 루시의 뺨에 생기가 도는 듯했다. 아서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지만, 그와 대조적으로 그의 표정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환하게 빛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건장한 체격의 아서조차 피를 너무 많이 흘려 기력이 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서를 부분적으로만 회복시킬 정도였다면, 루시의 몸이 겪은 고통은 대체 얼마나 처참한 수준이었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교수는 단호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다. 그는 손에 회중시계를 든 채, 환자와 아서를 번갈아 가며 예리하게 살폈다. 내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정적이 흘렀다. 이윽고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잠시도 움직이지 마십시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네는 아서를 돌보게. 루시는 내가 살피겠네."

모든 과정이 끝난 뒤, 아서가 얼마나 기력을 잃었는지 눈에 보일 정도였다. 나는 상처를 처치하고 그를 부축해 데려가려 했다. 그때 반 헬싱이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말을 건넸다. 마치 머리 뒤에도 눈이 달린 사람 같았다.

"용감한 연인에게는 입맞춤을 한 번 더 해줘야 할 것 같군요. 곧 해 줄 겁니다."

수술을 마친 그는 환자의 머리 아래에 베개를 고쳐 놓았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목을 늘 감싸고 있는 좁은 검은 벨벳 띠가 살짝 위로 밀려 올라갔다. 연인이 선물했다는 낡은 다이아몬드 버클이 달린 그 띠 아래로, 목에 남은 붉은 자국이 드러났다. 아서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으나, 나는 반 헬싱이 감정을 숨기지 못할 때 내뱉는 특유의 깊은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제 용감한 젊은 연인을 데리고 나가서 포트와인을 좀 먹이고 잠시 눕혀 두게. 그러고 나서 그는 집에 가서 쉬어야 하네. 사랑하는 이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쏟아부었으니, 기운을 되찾으려면 푹 자고 잘 먹어야 해. 여기 계속 머물게 해서는 안 되네. 잠깐, 기다리게. 자네는 아마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몹시 초조한 모양이군. 그렇다면 수술이 모든 면에서 성공적이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가게나. 이번에는 그녀의 목숨을 구했으니, 자네는 집에 가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안도감을 느끼며 쉬어도 좋네. 그녀가 회복되면 모든 사실을 말해주겠네. 자네가 해준 일 때문에 그녀의 사랑이 식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럼 이만."

아서가 떠난 뒤 나는 다시 방으로 돌아갔다. 루시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고, 숨소리는 한결 힘차졌다. 가슴이 들썩일 때마다 덮고 있는 이불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반 헬싱 교수는 침대 곁에 앉아 루시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벨벳 띠가 그 붉은 흔적을 다시 가리고 있었다. 나는 교수에게 속삭이듯 물었다.

"그녀의 목에 남은 저 자국을 어떻게 보십니까?"

"자네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나?"

"아직 검사해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대답하며 곧바로 그 띠를 풀기 시작했다. 외경정맥 바로 위쪽으로 구멍 두 개가 나 있었다. 크지는 않았으나 결코 건강해 보이는 모양새는 아니었다. 질병의 흔적은 없었지만, 상처의 가장자리는 마치 무언가로 계속 문지른 듯 하얗게 마모되어 있었다.

문득 이 상처, 혹은 이 정체 모를 흔적이 그 명백한 실혈의 원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나는 그 생각이 들자마자 곧바로 지워버렸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수혈 전 그 소녀가 보여준 것처럼 창백한 안색을 띨 정도의 양이었다면, 침대는 이미 붉은 피로 흥건히 젖었어야 마땅했다.

"그래, 어떤가?" 반 헬싱이 물었다.

"글쎄요," 내가 말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그러자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밤 당장 암스테르담으로 돌아가야겠네." 그가 말했다. "그곳에 내가 꼭 찾아야 할 책과 물건들이 있거든. 자네는 밤새 이곳을 지키며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하네."

"간호사를 붙여 주실 건가요?" 내가 물었다.

"자네와 나, 우리야말로 최고의 간호사일세. 자네는 밤새 곁을 지키며 루시가 잘 먹는지, 잠을 방해하는 것은 없는지 살펴야 하네. 밤새도

록 잠들어서는 안 되네. 나중에 우리 둘 다 잠을 자면 되니까. 최대한 빨리 돌아오겠네.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세."

"시작해도 될까요?" 내가 물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두고 보면 알겠지!" 그가 서둘러 밖으로 나가며 대답했다. 잠시 후 다시 돌아온 그는 문틈 사이로 머리를 들이밀더니, 경고하듯 손가락을 치켜세우며 말했다.

"명심하게, 그녀는 자네가 돌봐야 할 사람이야. 만약 자네가 그녀를 떠났다가 불행이라도 닥친다면, 앞으로 평생 편히 잠들지 못할 것이네!"

수어드 박사의 일기—계속.

9월 8일.

밤새 루시의 곁을 지켰다. 해 질 녘이 되자 아편 기운이 가셨고, 루시는 자연스럽게 깨어났다. 수술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기운도 좋아 보였고 생기가 넘쳤지만, 루시가 겪은 극심한 탈진의 흔적은 내 눈에 분명히 보였다. 반 헬싱 박사가 내가 밤새 곁을 지키라고 지시했다는 말을 웨스튼라 부인에게 전하자, 부인은 딸의 기운이 회복되었고 상태도 아주 좋아 보인다며 내 말을 거의 코웃음 치듯 가볍게 넘겼다. 하지만 나는 뜻을 굽히지 않고 긴 밤샘 간호를 준비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하녀가 루시의 밤잠 채비를 끝냈을 때쯤 나는 침대 곁에 자리를 잡았다. 루시는 전혀 불평하지 않았고, 눈이 마주칠 때마다 고마운 눈빛을 보내주었다. 한참이 지나자 루시는 잠에 빠져드는 듯했

으나, 이내 애써 정신을 차리며 잠을 떨쳐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모습이 몇 번이고 반복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루시는 더 힘겹게 버텼고, 잠에 빠져드는 시간도 점점 짧아졌다. 루시가 잠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게 분명했기에, 나는 곧바로 화제를 꺼냈다.

"잠을 자고 싶지 않은 건가요?"

"아니요, 두렵습니다."

"잠들기가 두렵다고요? 어째서죠? 잠이란 우리 모두가 그토록 갈망하는 축복이 아닌가요."

"아, 당신이 나와 같다면 이야기가 다르겠지요. 잠에 드는 것이 곧 공포의 전조라면 말입니다!"

"공포의 전조라니!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모르겠어요. 아, 정말 모르겠단 말이에요. 바로 그 점이 너무나 끔찍해요. 잠이 들 때마다 이 모든 무력감이 밀려와서, 이제는 그 생각만 해도 두려움이 앞서요."

"하지만 아가씨, 오늘 밤은 편히 주무셔도 됩니다. 내가 여기 곁에서 지켜보고 있으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지요."

"아, 당신을 믿을 수 있겠군요!"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다. "만약 내가 당신이 악몽을 꾸는 것 같은 기미를 보게 된다면, 즉시 깨워주겠다고 약속하죠."

"정말요? 아, 정말로 그러실 건가요? 저에게 어쩜 이리도 친절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잠들 수 있겠어요!" 그녀는 그 말을 끝내자마자 안도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그대로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밤새도록 나는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전혀 뒤척이지 않았다. 그저 깊고 평온하며, 생명력과 건강을 북돋아 주는 듯한 잠에 계속 빠져 있을 뿐이었다. 입술은 살짝 벌어져 있었고, 가슴은 진자처럼 규칙적으로 오르내렸다.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다. 어떤 악몽도 그녀의 평온한 마음을 방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분명해 보였다.

이른 아침에 그녀의 하녀가 왔기에, 나는 그녀를 하녀에게 맡기고 집으로 돌아왔다. 걱정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반 헬싱과 아서에게 짧은 전보를 보내 수술 결과가 매우 좋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밀린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그것을 처리하느라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다. 산 것을 잡아먹는 내 식육성(食肉性) 환자의 상태를 물어볼 수 있었을 때는 이미 어둠이 내린 뒤였다. 보고는 좋았다. 그는 지난 밤낮 동안 아주 차분한 상태를 유지했다고 한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암스테르담에 있는 반 헬싱으로부터 전보 한 통이 왔다. 그는 내가 오늘 밤 힐링엄에 가 있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곁에 있는 편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이유였다. 또한 그는 밤차를 타고 출발하여 이른 아침에 나를 만나러 오겠다고 덧붙였다.

* * * * *

9월 9일. — 힐링엄에 도착했을 때 나는 꽤 지치고 기력이 다한 상태였다. 이틀 밤 동안 거의 한숨도 자지 못한 탓에, 내 뇌는 정신적 탈진

의 징후인 그 무감각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었다. 루시는 깨어 있었고 기분도 좋아 보였다. 루시는 나와 악수를 하며 내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이렇게 말했다.

"오늘 밤은 밤을 새우지 마세요. 당신은 너무 지쳤어요. 난 이제 정말 괜찮아요. 정말이라니까요. 만약 누군가 밤을 새워야 한다면, 그건 바로 내가 당신 곁을 지키는 거예요."

나는 더는 고집을 피우지 않고 저녁을 먹으러 갔다. 루시도 함께 따라왔다. 그녀의 매력적인 존재감 덕분에 기운이 났고, 덕분에 아주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친 뒤 아주 훌륭한 포트 와인도 두 잔이나 마셨다.

그러자 루시는 나를 위층으로 데려가 자신의 방 바로 옆방을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아늑한 벽난로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자, 이제 여기서 지내야 해요." 루시가 말했다. "이 문이랑 내 방 문은 모두 열어둘게요. 소파에서 편히 쉬세요. 돌봐야 할 환자가 곁에 있는 한 의사 선생님들이 잠자리에 들 리 없다는 건 저도 잘 아니까요. 혹시 필요한 게 생기면 소리쳐 부를 테니, 그때 바로 와주시면 돼요."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나는 정말이지 '개처럼 지친' 상태였고, 억지로 깨어 있으려 해도 도저히 버틸 재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루시는 필요한 게 있으면 꼭 부르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건넸고, 나는 소파에 누워 모든 것을 잊은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루시 웨스튼라의 일기.

9월 9일.

오늘 밤은 정말 행복하다. 그동안 너무나 비참할 정도로 몸이 약해져 있어서, 겨우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마치 강철빛 하늘에서 몰아치던 동풍이 멈추고 오랜만에 햇살이 내리쬐는 기분이다. 왠지 모르게 아서가 내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의 온기가 내 주변을 따스하게 감싸는 듯하다. 아마도 병과 쇠약함이란 이기적인 것이라, 우리의 내면과 공감을 오직 자신에게만 향하게 만들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건강과 기운을 되찾으면 사랑이 마음껏 날뛸 수 있게 되어, 생각과 감정이 원하는 곳 어디든 거침없이 떠돌 수 있게 된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나는 잘 안다. 아서가 이것만 알 수 있다면!

사랑하는 이여, 사랑하는 이여, 깨어 있는 내 귀가 간지럽듯이,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분명 당신의 귀가 간지러울 거예요. 오, 어젯밤의 그 축복 같던 휴식이라니! 그 다정하고 선량한 수어드 박사가 곁에서 지켜봐 주는 가운데 나는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오늘 밤도 두렵지 않게 잠들 수 있을 것이다. 박사님이 바로 곁에서 언제든 부르면 달려올 수 있는 곳에 계시니까. 나에게 이토록 친절을 베풀어 준 모든 이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신께 감사드린다!

잘 자요, 아서.

수어드 박사의 일기.

9월 10일. -- 교수님의 손이 내 머리 위에 닿아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는 순식간에 소스라치며 잠에서 깨어났다. 어쨌든, 정신병원에 있으면 이런 것 하나쯤은 배우게 마련이다.

"우리 환자는 좀 어떻습니까?"

"글쎄요, 제가 그녀를 떠났을 때,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가 저를 떠났을 때 말입니다." 내가 대답했다.

"자, 가서 확인해 봅시다." 그가 말했다. 우리는 함께 방 안으로 들어갔다.

블라인드가 내려가 있길래 내가 조심스레 그것을 올리는 동안, 반헬싱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부드러운 발걸음으로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내가 블라인드를 올리자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 순간 교수님이 나지막이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얼마나 드문 일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죽음과도 같은 공포가 내 심장을 꿰뚫었다. 내가 다가가자 교수님은 뒤로 물러나셨다. "Gott in Himmel!" 교수님이 내뱉은 경악 섞인 외침은 그분의 고통스러운 얼굴만 보더라도 충분히 그 의미가 전달될 정도였다. 교수님은 손을 들어 침대를 가리키셨다. 강철 같던 교수님의 얼굴은 긴장으로 핼쑥하게 굳은 채 잿빛으로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내 무릎이 떨리기 시작했다.

침대 위에는 가련한 루시가 쓰러져 있었다. 마치 혼절한 듯한 모습이었으나, 그 어느 때보다도 끔찍할 정도로 창백하고 수척해 보였다.

입술마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잇몸은 마치 오랜 투병 끝에 죽은 시신에서 흔히 볼 수 있듯 치아 뒤로 말라붙은 듯했다. 반 헬싱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발을 들어 땅을 내리치려 했다. 하지만 평생을 지켜온 본능과 오랜 습관이 그를 붙들었고, 그는 다시 발을 부드럽게 내려놓았다.

"어서!" 그가 말했다. "브랜디를 가져오게."

나는 다급히 식당으로 달려가 디캔터를 들고 돌아왔다. 그는 브랜디로 루시의 하얗게 질린 입술을 적셔주었고, 우리는 함께 그녀의 손바닥과 손목, 그리고 심장 부근을 문질렀다. 그가 루시의 심장 박동을 확인했다. 애타게 가슴 졸이는 몇 순간이 흐른 뒤, 그가 입을 열었다.

"아직 늦지 않았네. 맥박이 뛰고 있어, 비록 아주 미약하지만 말이야. 지금까지의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으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네. 여기엔 이제 젊은 아서가 없으니, 이번에는 다름 아닌 자네 자신에게 부탁해야겠군, 친구 존."

말을 마친 반 헬싱은 가방 안을 뒤져 수혈 도구들을 꺼냈다. 나는 코트를 벗고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상태였다. 지금 당장은 아편 제제를 사용할 수도 없었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다. 우리는 지체 없이 수술을 시작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다. 피를 뽑아내는 과정은 아무리 기꺼이 내어준다 해도 끔찍한 기분이 드는 일이라, 그 시간이 결코 짧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때 반 헬싱이 경고하듯 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움직이지 말게." 그가 말했다. "기운을 차리면서 루시가 깨어날까 두렵네. 만약 깨어난다면, 오, 정말 큰 위험이 닥칠 거야. 하지만 미리 조치를 취해두겠네. 모르핀을 피하 주사하도록 하지."

그는 신속하고 능숙하게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루시에게 나타난 효과는 나쁘지 않았다. 루시가 정신을 잃은 상태가 마취제의 잠 속으로 미묘하게 녹아드는 듯 보였기 때문이다. 창백했던 뺨과 입술에 생기가 아주 조금씩 돌아오는 것을 보며, 나는 개인적인 뿌듯함마저 느꼈다. 사랑하는 여인의 혈관 속으로 자신의 생명줄과도 같은 피가 흘러 들어가는 것을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교수는 나를 비판적인 시선으로 지켜보았다. "그만하면 됐다." 그가 말했다. "벌써요?" 내가 항변했다. "아트에게서 가져간 양에 비하면 훨씬 적습니다." 그러자 그는 슬픈 듯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는 그녀의 연인이자 약혼자입니다. 당신은 그녀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으니, 지금은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수술을 마친 뒤, 그는 루시를 돌보았고 나는 내 절개 부위를 손가락으로 눌러 지혈했다. 어지러움과 메스꺼움이 느껴져, 그가 나를 돌봐줄 여유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며 잠시 누워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내 상처를 붕대로 감아준 뒤, 내가 직접 마실 와인 한 잔을 가져오라며 아래층으로 내려보냈다. 내가 방을 나서려 할 때 그가 뒤따라 나오더니, 나직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명심하게,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되네. 만약 우리의 젊은 연인이 예전처럼 예고 없이 나타나더라도, 그에게는 한마디도 꺼내지 말게나. 괜히 말을 꺼냈다가는 그를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질투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말이야. 아무도 몰라야 하네. 알겠나!"

내가 돌아오자 그는 나를 유심히 살피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다.

"상태가 그리 나쁘지는 않으니, 방으로 들어가 소파에 누워 잠시 쉬게나. 그러고 나서 아침 식사를 든든히 하고 다시 내게 오게."

그의 명령이 얼마나 옳고 현명한지 잘 알았기에 나는 그대로 따랐다. 내 할 일은 다 마쳤고, 이제 다음 임무는 기운을 차리는 것이었다. 몸에 힘이 너무 빠진 나머지,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경악스러움조차 무뎌질 정도였다. 나는 소파에 쓰러지듯 잠이 들었다. 잠든 내내 루시가 어떻게 그토록 퇴보하듯 상태가 악화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디에도 흔적 하나 남기지 않은 채 어떻게 그 많은 피를 다 빨릴 수 있었는지 끊임없이 의문이 일었다. 꿈속에서도 그 의문은 계속되었던 모양이다. 자다 깨기를 반복하면서도 내 생각은 늘 루시의 목에 남은 작은 구멍들로 향했다. 아주 미세하긴 했지만, 그 상처의 가장자리는 거칠게 찢겨 있었고 무언가에 몹시 닳아 없어진 듯한 모습이었다.

루시는 낮이 깊도록 잠을 잤다. 잠에서 깨어난 루시의 상태는 전날만큼은 아니었지만, 꽤 기운을 차린 듯 보였다. 반 헬싱은 루시를 살핀 뒤 산책을 나섰다. 그는 나에게 루시의 곁을 한순간도 떠나지 말라는 엄중한 당부와 함께, 그녀를 돌보는 일을 맡기고 나갔다. 복도 너머로 가장 가까운 전신국이 어디인지 묻는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루시는 나와 격의 없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나는 루시가 지루해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흥미를 느낄 수 있게 말을 걸었다. 루시의 어머니가 그녀를 보러 올라왔을 때, 어머니는 아무런 변화도 알아채지 못하는 듯했다. 다만 어머니는 내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이렇게 말했다.

"수어드 박사님, 그동안 해주신 모든 일에 정말 감사드려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몸을 돌보셔야 해요. 너무 무리하고 계시잖아요. 박사님 안색도 너무 창백해요. 누군가 곁에서 간호하며 보살펴 줄 아내가 꼭 필요하시겠어요. 정말이지 그래요!"

말을 마친 루시는 얼굴을 붉혔다. 비록 아주 잠깐이었지만 말이다. 가냘프고 쇠약해진 그녀의 혈관으로는 머리로 몰리는 이례적인 혈류를 오래 견뎌낼 재간이 없었다. 곧이어 루시는 나를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으나, 얼굴은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창백해졌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 뒤,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대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루시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베개 위로 몸을 뉘었다.

반 헬싱은 두어 시간 만에 돌아왔다. 그는 곧 나에게 말했다.

"이제 그만 집에 가서 밥도 든든히 먹고 물도 충분히 마시게. 기운을 차려야 하네. 오늘 밤은 내가 여기 남아서 어린 아가씨의 곁을 지키겠네. 자네와 내가 이 상황을 주시해야 하네. 그리고 다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되네. 그럴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거든. 아니, 이유를 묻지는 말게. 자네 마음대로 생각하게나. 설령 그것이 도저히 일어날 법하지 않은 일이라 해도, 두려워 말고 생각하게. 그럼, 잘 자게나."

복도에서 하녀 두 명이 내게 다가왔다. 그들은 자신들이나 혹은 둘 중 한 명이라도 루시 양의 곁을 지키며 밤을 새워도 될지 물었다. 하녀들은 제발 허락해 달라고 간곡히 애원했다. 내가 반 헬싱 박사의 뜻에 따라 박사님이나 나 중 한 명만이 밤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자, 그들은 그 "외국인 신사"분께 잘 좀 말해달라며 아주 애처롭게 부탁했다. 그들의 친절함에 마음이 무척 뭉클했다. 아마도 내가 지금 몸이 약해진 상태인 데다, 그들이 루시를 아끼는 마음이 컸기에 그토록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일지도 모른다. 이와 비슷한 여인의 친절을 나는 이미 여러 번 보아왔기 때문이다.

늦은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이곳으로 돌아왔다. 회진을 돌았으나 모든 상황은 양호했다. 이제 잠을 기다리며 이 글을 적는다. 잠이 몰려온다.

* * * * *

9월 11일.

오늘 오후에는 힐링엄에 다녀왔다. 반 헬싱 교수는 기분이 매우 좋아 보였고, 루시의 상태도 훨씬 호전되어 있었다. 내가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수에게 해외에서 온 커다란 소포가 도착했다. 교수는 자못 거창한 태도로—물론 일부러 꾸민 것이었지만—소포를 열더니, 그 안에 가득 담긴 하얀 꽃다발을 보여주었다.

"이건 루시 양을 위한 거예요." 그가 말했다.

"저를 위해서요? 오, 반 헬싱 박사님!"

"그래, 얘야. 하지만 네가 가지고 놀 물건은 아니란다. 이건 약이야." 이때 루시가 얼굴을 찡그렸다. "아니, 그렇다고 달여 마시거나 구역질 나는 형태로 먹어야 하는 건 아니니, 그렇게 예쁜 코를 찡그릴 필요는 없단다. 자꾸 그러면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서가, 자기가 그토록 아끼는 아름다운 얼굴이 일그러지는 걸 보며 얼마나 가슴 아파할지 일러줄 테니까. 아하, 예쁜 아가씨, 그렇지, 이제 그 고운 코가 다시 펴지는구나. 이건 약이란다. 다만 어떻게 쓰이는지 네가 모를 뿐이지. 네 창가에 꽃을 두기도 하고, 예쁜 화환을 만들어 네 목에 걸어주기도 한단다. 네가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말이야. 그래, 정말이야! 이 꽃들은 연꽃처럼 네 고통을 잊게 해준단다. 망각의 강인 레테의 물결 같기도 하고, 정복자들이 플로리다에서 찾아 헤매다 너무 늦게야 발견했다는 그 영생의 샘물 같은 향기가 나거든."

그가 말을 이어가는 동안, 루시는 꽃들을 살펴보며 향기를 맡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루시는 꽃들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웃음인지 혐오인지 모를 묘한 어조로 말했다.

"오, 교수님, 저를 놀리시는 게 분명해요. 이 꽃들은 그저 흔한 마늘일 뿐인걸요."

뜻밖에도 반 헬싱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굳게 다문 턱과 잔뜩 찌푸린 짙은 눈썹을 한 채,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를 상대로 장난치지 마시오! 나는 결코 농담 따위는 하지 않소! 내가 하는 모든 일에는 엄중한 목적이 있단 말이오. 그러니 내 뜻을 가

로막지 말라고 경고해 두겠소.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부디 조심하시오."

그러다 겁에 질린 가련한 루시를 보고는,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라 생각했는지 그는 좀 더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오, 어린 아가씨, 내 사랑스러운 아가씨, 나를 무서워하지 말아요. 나는 오직 당신을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저 흔한 꽃들에도 아주 큰 미덕이 담겨 있답니다. 보세요, 내가 직접 당신의 방에 꽃을 놓아두었지요. 당신이 쓸 화관도 내가 직접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쉿! 질문이 너무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순종해야 하고, 침묵 또한 순종의 일부랍니다. 순종해야만 당신을 기다리는 사랑 가득한 품 안으로 건강하고 튼튼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제 잠시만 가만히 앉아 있어요.

존, 친구여, 나와 함께 갑시다. 내 친구 반더풀이 유리 온실에서 일년 내내 허브를 재배하는 하를렘에서 가져온 마늘로 이 방을 장식하는 걸 도와주게나. 어제 전보를 치지 않았다면 마늘이 여기까지 도착하지 못했을 것이네."

우리는 꽃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교수의 행동은 분명 기이했다. 내가 들어본 적 있는 그 어떤 약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방식이었다. 우선 그는 창문을 닫고 걸쇠를 단단히 걸어 잠갔다. 그러고는 꽃 한 움큼을 집어 들더니 창틀 구석구석에 문질렀다. 마치 스며드는 공기 한 모금조차도 마늘 향을 머금게 하려는 듯한 모습이었다. 이어 그는 꽃줄기를 들고 문틀의 위와 아래, 양옆을 따라 문지르더니, 벽난로 주변도

같은 방식으로 문질러 나갔다. 내 눈에는 그 모든 광경이 기괴하게만 보였다.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글쎄요, 교수님. 교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늘 이유가 있다는 건 잘 압니다만, 이번 일은 정말이지 저를 당혹스럽게 만드네요. 다행히 여기 회의론자가 없어서 망정이지, 만약 있었다면 교수님이 악령을 쫓아내려고 무슨 주문이라도 외우고 있는 거라고 몰아세웠을 겁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그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루시가 목에 걸 수 있도록 화관을 만들기 시작했다.

루시가 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동안 우리는 기다렸다. 루시가 침대에 눕자, 그는 다가와 그녀의 목에 직접 마늘 화환을 걸어주었다. 그가 루시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이러했다.

"그것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하게. 설령 방 안이 답답하게 느껴지더라도, 오늘 밤에는 절대로 창문이나 문을 열지 말게나."

"약속할게요." 루시가 말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친절에 두 분께 수만 번이라도 감사드리고 싶어요! 오, 제가 대체 어떤 선행을 쌓았기에 이런 친구들을 얻는 축복을 누리는 걸까요?"

대기 중이던 마차를 타고 집을 나서며 반 헬싱이 말했다.

"오늘 밤은 평온하게 잠들 수 있겠어. 잠이 간절하군. 이틀 밤낮을 쉬지 않고 여행했고, 낮에는 계속 책을 읽어야 했으며, 다음 날에는 불안감에 떨며 밤을 꼬박 새워야 했으니까. 내일 이른 아침에 당신이 나

를 데리러 오면, 우리는 함께 우리의 예쁜 아가씨를 보러 가자고. 내가 건 마법 덕분에 그녀는 훨씬 더 기운이 넘칠 테니 말이야. 호! 호!”

그는 너무나 자신만만해 보였다. 이틀 전, 나 역시 그토록 자신만만했다가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던 기억이 떠올라, 나는 경외심과 막연한 공포를 느꼈다. 친구에게 이 사실을 말하기를 주저한 것은 분명 나의 나약함 때문이었겠지만, 차마 흘리지 못한 눈물처럼 그 두려움은 내 안에서 더욱 짙게 차올랐다.

제XI장

루시 웨스튼라의 일기.

9월 12일.

모두가 나를 참 잘 돌봐준다. 다정한 반 헬싱 박사가 정말이지 좋다. 그런데 박사님은 왜 그토록 이 꽃들에 집착하셨을까? 박사님이 너무나 기세등등하게 말씀하셔서 정말이지 깜짝 놀랐다. 하지만 박사님의 판단이 옳았던 모양이다. 벌써 꽃 덕분에 마음이 편안해졌으니까. 왠지 오늘 밤은 혼자 있어도 무섭지 않고,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을 것 같다. 창밖에서 무언가 퍼덕거리는 소리가 들려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오, 최근 들어 잠을 이루지 못해 얼마나 처절하게 싸워왔던가. 잠을 못 자는 고통도 괴로웠지만, 잠드는 것 자체가 공포였던 그 시간은 또 얼마나 끔찍했는지! 알 수 없는 공포가 나를 덮칠까 봐 두려워하며 밤을 지새워야 했다. 삶에 두려움이나 공포가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그들에게 잠이란 매일 밤 찾아와 달콤한 꿈만을 가져다주는 축복일 텐데.

자, 이제 나는 잠을 바라며 이곳에 누워 있다. 연극 속 오필리아처럼 '처녀의 꽃과 소녀의 장식물'에 둘러싸인 채로 말이다. 전에는 마늘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오늘 밤은 이 향기가 참 달콤하다. 마늘 향에서 평온함이 느껴진다. 벌써 잠이 몰려오는 것 같다. 모두 안녕히.

수어드 박사의 일기.

9월 13일. — 버클리 호텔로 찾아가니 반 헬싱 교수는 평소처럼 제시간에 맞춰 나와 있었다. 호텔에서 예약한 마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교수는 이제 항상 챙겨 다니는 자신의 가방을 들었다.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 반 헬싱 교수와 나는 8시에 힐링엄에 도착했다. 화창한 아침이었다. 눈부신 햇살과 초가을 특유의 싱그러운 기운은 마치 대자연이 한 해의 과업을 완벽히 마무리한 듯한 느낌을 주었다. 나뭇잎들은 온갖 아름다운 빛깔로 물들어 가고 있었지만, 아직 나무에서 떨어지기 시작하지는 않은 상태였다. 우리가 안으로 들어서자, 아침 거실에서 나오고 있던 웨스튼라 부인과 마주쳤다. 부인은 언제나 아침 일찍 일어나는 편이다. 부인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루시의 상태가 좋아졌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기뻐하실 겁니다. 가여운 아이는 아직 잠들어 있습니다. 방 안을 들여다보니 루시가 보였지만, 혹시라도 잠을 깨울까 봐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교수는 환하게 웃으며 아주 기쁜 기색을 보였다. 그는 두 손을 맞비비며 이렇게 말했다.

"아하! 내가 병을 진단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처방이 효과를 보고 있군." 그녀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박사님, 모든 공을 혼자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아침 루시의 상태가 호전된 데에는 저의 도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부인?" 교수가 물었다.

"밤중에 그 가여운 아이가 걱정되어 방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아이는 아주 깊이 잠들어 있었는데, 제가 들어갔는데도 깨지 않을 만큼 깊은 잠이었습니다. 그런데 방 안이 너무 답답하더군요. 그 지독하고 향이 강한 꽃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고, 심지어 아이의 목에는 꽃다발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몸이 약해진 아이에게 그 무거운 꽃향기가 너무 버겁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꽃들을 모두 치우고, 신선한 공기가 조금이라도 들어오도록 창문을 살짝 열어두었습니다. 분명 아이의 상태를 보시면 안심하실 겁니다."

그녀는 평소 아침 식사를 일찍 하는 개인 침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녀가 말을 마치는 동안 나는 교수의 얼굴을 살폈다. 교수의 안색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가련한 여인이 곁에 있는 동안 그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녀의 상태를 알고 있었기에, 충격을 주는 것이 얼마나 해로울지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가 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며 실제로 미소까지 지어 보였다. 하지만 그녀가 사라지자마자, 그는 나를 갑작스럽고 강하게 식당 안으로 끌어당기더니 문을 닫아버렸다.

그때 나는 생전 처음으로 반 헬싱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말 없는 절망에 빠진 듯 머리 위로 두 손을 들어 올리더니, 무력하게 손바닥을 마주치며 두드렸다. 그러다 결국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두 손에 파묻고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 울음소리는 메마르고도 격렬하여, 마치 심장이 뒤틀리는 고통에서 터져 나오는 듯했다. 이윽고 그는 온 우주에 호소하려는 듯 다시 두 팔을 치켜들었다.

"맙소사! 하느님! 하느님! 하느님!" 그가 외쳤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 가련한 존재가 대체 무엇을 했기에 우리가 이토록 처참하게 몰리고 있단 말입니까? 고대의 이교도 세계에서 내려온 운명이라는 것이 아직 우리 사이에 남아 있는 것입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고, 반드시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야만 하는 운명 말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모든 것이 잘될 거라 믿는 저 가련한 어머니는, 딸의 몸과 영혼을 모두 잃는 일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사실을 말해서도 안 되고, 경고조차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말한다면 그녀는 죽을 것이고, 결국 둘 다 죽게 될 테니까요. 오, 우리는 어찌 이리도 곤경에 처했단 말입니까! 악마의 모든 권세가 우리를 대적하고 있구나!"

갑자기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자," 그가 말했다. "어서 갑시다. 가서 직접 보고 행동해야 합니다. 악마든 아니든, 아니 악마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친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맞서 싸울 것입니다." 그는 가방을 챙기러 현관문 쪽으로 갔고, 우리는 함께 루시의 방으로 올라갔다.

반 헬싱이 침대 쪽으로 다가가는 동안, 나는 다시 한번 블라인드를 올렸다. 이번에는, 예전과 똑같이 소름 끼치도록 창백하고 밀랍처럼 질린 그 가엾은 얼굴을 보고도 그는 움찔하지 않았다. 반 헬싱의 얼굴에는 엄숙한 슬픔과 끝없는 연민이 서려 있었다.

"내 예상대로군." 그가 중얼거렸다. 그 특유의, 쉿쉿거리며 숨을 들이쉬는 소리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문을 잠그더니, 작은 탁자 위에 또 한 번의 수혈 수술을 위한 기구들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나 역시 진작에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코트를 벗으려 했으나, 그는 경고하듯 손을 들어 나를 제지했다. "안 됩니다!" 그가 말했다. "오늘은 당신이 집도해야 합니다. 피는 내가 제공하겠소. 당신은 이미 기력이 쇠해 있으니." 말을 마친 그는 자신의 코트를 벗고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다.

수술이 다시 시작되었다. 마취제가 투여되었다. 재가 내려앉은 듯 창백하던 뺨에 다시금 생기가 돌았고, 건강한 잠에 빠진 듯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반 헬싱이 기력을 회복하며 휴식을 취하는 동안,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곧이어 그는 웨스튼라 부인에게 루시의 방에 있는 물건을 함부로 치워서는 안 된다고 일러두었다. 반드시 자신과 먼저 상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 안의 꽃들은 약효가 있으니, 그 향기를 맡는 것 또한 치료 과정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그러고는 그가 직접 환자를 돌보기로 하며, 오늘 밤과 내일 밤을 지켜본 뒤 내가 언제 오면 될지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한 시간 뒤, 루시는 잠에서 깨어났다. 루시는 아주 생생하고 밝은 모습이었으며, 그 끔찍한 시련을 겪고도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은 듯 보였다.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정신 이상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생활해 온 습관이 내 뇌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다.

루시 웨스튼라의 일기.

9월 17일.

나흘 밤낮을 평온하게 보냈다. 기운이 다시 차올라 나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질 정도다. 마치 긴 악몽을 지나, 막 깨어나 눈부신 햇살을 마주하고 아침의 싱그러운 공기를 온몸으로 느끼는 기분이다. 기다림과 두려움에 떨며 보냈던 길고 불안했던 시간들이 희미하게 떠오른다. 당시의 어둠 속에는 현재의 고통을 더욱 절실하게 만드는 희망의 고통조차 없었다. 그러다 긴 망각의 시간들이 이어졌고, 마치 거대한 수압을 뚫고 수면 위로 솟구쳐 오르는 잠수부처럼 다시 삶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반 헬싱 박사가 곁을 지켜준 이후로, 그 모든 악몽은 지나간 듯하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바로 곁에 있는 듯 들려오던 먼 목소리, 어디서 오는지도 모를 곳에서 들려와 정체 모를 일을 시키던 거친 소음들까지, 나를 미치게 만들던 그 모든 소리가 이제는 멎었다. 이제는 잠드는 것이 두렵지 않다. 억지로 깨어 있으려 애쓰지도 않는다. 마늘도 꽤 좋아하게 되었는데, 하를렘에서 매일 한 상자씩 배달된다.

오늘 밤 반 헬싱 박사는 암스테르담에 하루 다녀와야 해서 떠난다. 하지만 굳이 나를 지켜볼 필요는 없다. 혼자 있어도 괜찮을 만큼 몸 상태가 좋아졌으니까. 어머니와 사랑하는 아서, 그리고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준 모든 친구를 위해 신께 감사드린다. 박사가 떠나도 별다른 변화는 느끼지 못할 것이다. 어젯밤 반 헬싱 박사는 의자에 앉아 대부분의 시간을 잠들며 보냈기 때문이다. 깨어날 때마다 박사가 잠든 모습을 두 번이나 보았지만, 창문에 나뭇가지인지 박쥐인지 모를 무언가가 거칠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도 다시 잠드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

《팰 몰 가제트》, 9월 18일.

탈출한 늑대

우리 인터뷰어의 위험천만한 모험.

동물원 사육사와의 인터뷰.

수차례 문의를 던지고 그만큼이나 많은 거절을 당한 끝에, 나는 마치 주문이라도 외우듯 연신 '팰 몰 가제트'지를 언급하며 버텼다. 결국 늑대 사육 구역이 포함된 동물원 관리인을 겨우 찾아낼 수 있었다. 토머스 빌더는 코끼리 사육장 뒤편 울타리 안에 있는 오두막 중 한 곳에 살고 있었다. 내가 그를 찾아갔을 때 그는 막 차를 마시려던 참이었다. 토머스와 그의 아내는 나이가 지긋하고 자식은 없지만, 매우 친절한 사람들이었다. 내가 경험한 그들의 환대가 보통의 수준이라면, 그들의 삶은 꽤 안락할 것이 분명했다. 관리인은 저녁 식사가 끝나고 우리 모두가 만족할 때까지는 이른바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식탁이 정리되고 그가 파이프 담배에 불을 붙였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 선생, 이제 묻고 싶은 걸 마음껏 물어보시게. 다만 식사 전에 전문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건 좀 사양하겠네. 우리 구역에 있는 늑대며 자칼, 하이에나 놈들에게도 질문을 던지기 전에는 일단 차부터 먹여주는 법이니까 말이야."

"질문을 던지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가 말을 더 많이 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에 내가 되물었다.

"막대기로 머리를 후려치는 것도 한 방법이고, 귀를 긁어주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지. 돈 좀 만지는 신사들이 자기 여자들한테 자랑할 거리가 필요할 때 말이야. 난 전자는 그리 나쁘게 보지 않아. 놈들 저녁을 던져주기 전에 막대기로 한 대 치는 것 정도는 말이지. 하지만 귀를 긁어주는 건, 말하자면 놈들이 셰리주와 커피까지 다 마시고 난 뒤에나 시도한다고. 명심해 두라고." 그는 철학적인 태도로 덧붙였다. "우리 인간이나 저기 있는 짐승들이나 본성은 다 비슷해. 당신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내 일에 대해 이것저것 캐묻고 있잖아? 나도 성미가 고약해서, 당신이 쥐여 준 그 빌어먹을 반 파운드만 아니었으면 대답은커녕 당신이 꺼지든 말든 거들떠도 안 봤을 거요. 당신이 비꼬듯이, 원하면 당신이 직접 감독관한테 가서 나한테 질문해도 되는지 허락을 받아다 주랴 하고 물었을 때조차 말이야. 내가 당신더러 지옥에나 가라고 한 게,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이오?"

"당신이 그랬어요."

"그리고 당신이 내가 상스러운 말을 썼다고 고발하겠다고 했을 때, 그건 말하자면 막대기로 내 머리를 한 대 후려친 격이었소. 하지만 그 반 파운드 덕분에 다 풀렸지. 난 싸울 생각이 없었으니, 그저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면서 늑대나 사자, 호랑이가 그러듯 으르렁대며 먹이를 기다렸을 뿐이오. 하지만 허 참, 이거 보시오. 이제 마누라가 티케이크 한 조각을 내 입에 물려 주고 그 낡은 찻주전자로 속까지 씻어 내려 준 데다 담뱃불까지 붙였으니, 당신이 아무리 내 귀를 긁어대도 으르렁 소리 하나 내지 않으리다. 자, 어서 질문이나 계속하시오. 당신이 무엇을 노리는지 다 아오. 그 도망친 늑대 얘기 아니겠소."

"정확합니다. 당신의 견해를 듣고 싶군요. 우선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사실대로만 말해 주십시오.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나면, 당신이 생각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끝날 것 같은지 의견을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인님. 이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우리가 버시커라고 부르던 저 늑대는 4년 전 잼락네 가게에서 사 온 노르웨이산 회색 늑대 세 마리 중 한 마리였습니다. 아주 얌전하고 착한 놈이라 별다른 말썽을 피운 적도 없었지요. 그런데 저놈이 밖으로 나가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걸 보니, 여기 있는 다른 어떤 짐승보다도 더 놀랍습니다. 뭐, 그렇다 쳐도 늑대라는 놈들은 여자만큼이나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분 신경 쓰지 마세요, 선생님!" 톰 부인이 쾌활하게 웃음을 터뜨리며 말을 가로챘다. "그 양반이 워낙 오랫동안 짐승들을 돌봐온 탓에,

정말이지 늙은 늑대처럼 변해버린 게 아닌가 몰라요! 하지만 결코 해를 끼칠 사람은 아니랍니다."

"저기, 선생님. 어제 먹이를 주고 나서 두 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처음으로 소란을 들은 게요. 아픈 새끼 푸마를 위해서 원숭이 우리 쪽에 잠자리를 만들고 있었는데, 낑낑거리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길래 곧장 달려갔죠. 버시커는 마치 미친 것처럼 창살을 뜯어대고 있었어요. 당장이라도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은 근처에 사람도 별로 없었고, 바로 옆에는 키가 크고 마른 남자 한 명뿐이었어요. 코는 매부리코에 턱수염은 뾰족하게 길렀는데, 그 사이로 흰머리가 몇 가닥 섞여 있었죠. 눈빛은 차갑고 딱딱한 데다 눈은 붉어서, 보자마자 왠지 모르게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동물들이 마치 그 사람 때문에 짜증이 난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 남자는 흰 염소 가죽 장갑을 끼고 있었는데, 제게 동물들을 가리켜 보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육사 양반, 이 늑대들이 무언가 때문에 동요하는 것 같군.'"

"'아마 당신이겠지'라고 제가 말했죠. 그 사람이 내뿜는 그 거만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제가 은근히 바란 것과 달리 그 사람은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하얗고 날카로운 이빨을 잔뜩 드러내며 무례한 미소를 짓더군요. '오, 아뇨, 저것들은 절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그가 말했어요."

"'그럼요, 아주 좋아하겠지요.' 제가 그 사람을 흉내 내며 말했죠. '그놈들은 차 마실 시간만 되면 이빨을 쑤실 뼈다귀 한두 개를 꼭 찾거든요. 마침 당신한테 한 자루 가득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더니 짐승들이 얌전히 엎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버시커에게 다가갔더니, 그놈이 평소처럼 귀를 쓰다듬게 해주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 그 사람이 다가왔는데, 세상에, 그 사람도 손을 뻗어서 그 늙은 늑대의 귀를 똑같이 쓰다듬어 주더라고요!"

"'조심하게나, 버시커는 성미가 급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죠."

"'신경 쓰지 말게. 난 이런 건 익숙하니까!' 그가 말하더군요."

"'직접 장사를 하시는 겁니까?' 제가 모자를 벗으며 물었죠. 늑대를 다루는 사람이라면 우리 사육사들한테는 둘도 없는 친구일 테니까요."

"'아니요,' 그 사람이 말하더군요. '딱히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몇 마리 길들여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고는 귀족처럼 아주 정중하게 모자를 들어 올리더니 가버렸습니다. 늙은 버시커는 그 사람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계속 쳐다보더니, 구석에 가서 누워서는 저녁 내내 밖으로 나오질 않더군요. 그런데 어젯밤, 달이 뜨자마자 이곳 늑대들이 일제히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울부짖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이죠. 공원 길 뒤편 정원 어딘가에서 누군가 개를 부르는 소리 말고는 근처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별일 없는지 확인하려고 한두 번 나가봤지만 아무 문제 없었고, 그러자 울음소리도 멎었습니다. 그런데 자러 들기 전 열두 시 직전에 한 번 둘러보는데, 세상에나, 늙은 버시커의 우리 앞을 지나가다 보니 창살이 부서지고 뒤틀린 채로 우리가 텅 비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확실히 아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사람도 무언가를 보았습니까?"

"우리 정원사 중 한 명이 그 무렵에 하모니(harmony)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정원 울타리 사이로 커다란 회색 개 한 마리가 기어 나오는 걸 봤다는 겁니다. 적어도 본인 말은 그렇다는데, 전 별로 믿지 않아요. 만약 정말 봤다면 집에 돌아갔을 때 부인에게 한마디라도 했을 텐데, 늑대가 탈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우리가 밤새도록 공원을 뒤지며 버시커를 찾아 헤맨 뒤에야 겨우 무언가를 본 기억이 났다고 하더군요. 제 생각에는 그 친구가 하모니에서 술에 취해 정신이 나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빌더 씨. 늑대가 탈출한 경위를 어떻게든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글쎄요, 선생님." 그가 의심스러운 듯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제 이론이 선생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래야지요. 경험을 통해 짐승들을 잘 아는 당신 같은 사람조차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다면, 대체 누가 시도라도 해보겠습니까?"

"글쎄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늑대가 탈출한 건, 그저 밖으로 나가고 싶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토마스와 그의 아내가 농담을 듣고 유쾌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그 농담이 전에도 꽤나 통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방금 한 긴 설명은 그저 그들을 웃기기 위해 정성껏 꾸며낸 수작에 불과했다. 나는 인품

좋은 토마스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맞설 재간은 없었지만,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더 확실한 방법이 떠올라 이렇게 말했다.

"자, 빌더 씨. 그 첫 번째 하프 소버린은 번 것으로 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 생각하시는지 제게 말씀해 주시면, 그 금화의 형제 격인 또 한 닢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르신." 그가 씩씩하게 대답했다. "농담을 던져서 무례를 범했다면 부디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여기 계신 노부인께서 저에게 눈짓을 하셨거든요. 그건 계속하라는 뜻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노부인이 말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 늑대놈이 어디에 숨어 있다는 거죠. 기억을 못 하겠다던 정원사 말로는 늑대가 말보다 더 빨리 북쪽으로 달려갔다던데, 전 그 말을 못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늑대는 개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내달리는 짐승이 아니거든요. 애초에 그렇게 생겨먹질 않았으니까요. 동화책 속의 늑대는 아주 멋진 존재지요. 무리를 지어 자기보다 겁 많은 무언가를 쫓아다닐 때면, 그게 무엇이든 아주 요란한 소리를 내며 갈기갈기 찢어 놓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세상에나, 실제 늑대는 그저 비천한 짐승일 뿐입니다. 영리함이나 용맹함은 좋은 개보다 절반도 못 미치고, 싸우려는 기질은 좋은 개의 8분의 1에도 못 미치죠. 이놈은 싸워본 적도 없고 제 앞가림조차 못 해본 놈이에요. 아마 공원 어딘가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을 겁니다. 만약 머리라도 돌아간다면, 아침 식사를 어디서 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겠지요. 아니면 하인용 통로를 타고 내려가 석탄 창고에 처박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두운 곳에서 늑대의 초록빛 눈이 번뜩이는 걸 본 요리사가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먹이를 못 구하면 어떻게든 찾아 헤맬 테니, 운 좋게 정육점이라도 발견하면 다행이겠지요. 만약 그러지 못하고, 어떤 유모가 군인과 산책하러 나가느라 유모차에 아기를 혼자 두고 간다면—글쎄요, 인구 조사 결과에서 아기 한 명이 줄어든다 해도 전 놀라지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그에게 하프 소버린 금화를 건네주려던 찰나, 무언가가 창문에 툭 하고 부딪혔다. 그 순간 빌더 씨의 얼굴은 놀라움으로 길게 늘어졌다.

"세상에, 맙소사!" 그가 말했다. "저 늙은 버시커가 제 발로 돌아왔지 뭡니까!"

그는 문으로 다가가 문을 열었다. 내 눈에는 그 행동이 참으로 불필요해 보였다. 나는 늘 야생 동물이란 우리 사이에 튼튼한 장애물이 놓여 있을 때라야 가장 봐줄 만하다고 생각해 왔다. 직접 겪은 경험은 그런 내 생각을 약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굳혀 놓았다.

하지만 결국 관습만큼 강력한 것은 없다. 빌더 부부에게 그 늑대는 내가 개를 대하는 것만큼이나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였으므로 말이다. 그 짐승은 마치 모든 그림 속 늑대의 조상이라도 되는 양 평온하고 온순했다. 마치 가면을 쓴 채 소녀의 신뢰를 얻어내던, 빨간 모자의 옛 친구처럼 말이다.

그 광경은 희극과 비극이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뒤섞인 모습이었다. 반나절 동안 런던을 마비시키고 마을의 모든 아이를 겁에 질려 벌벌 떨게 만들었던 그 사악한 늑대는, 마치 참회하는 듯한 모습으로 그곳에 있었다. 사람들은 그 늑대를 마치 돌아온 탕아라도 되는 양 반갑게 맞이하며 쓰다듬었다. 노인 빌더는 아주 애틋하고 정성스러운 손길로 늑대의 몸 구석구석을 살핀 뒤, 참회하는 늑대를 다독이며 말했다.

"거봐, 내가 그 불쌍한 영감이 분명 무슨 사고를 칠 거라고 했잖아. 처음부터 내가 말하지 않았나? 여기 좀 봐, 머리가 다 찢어져서 깨진 유리 조각이 박혔다고. 분명 어떤 빌어먹을 담을 넘으려다 이 지경이 된 거야. 사람들이 담 위에 깨진 병을 올려두게 내버려 두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결국 이런 일이 생기잖아. 어서 가자, 버시커."

그는 늑대를 잡아 우리에 가두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 한 마리 분량은 못 되더라도, 최소한 배를 채울 만큼은 되는 고기 한 점을 함께 넣어주었다. 그러고는 보고를 하기 위해 자리를 떴다.

저 또한 오늘 동물원에서 벌어진 이 기이한 소동에 관해 오직 저희만이 단독으로 입수한 정보를 전하고자 그 자리를 떴습니다.

수어드 박사의 일기.

9월 17일.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나는 서재에서 밀린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다른 업무가 몰린 데다 루시를 보러 자주 다니느라 기록 정리가 몹시 뒤처진 상태였다. 그때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환자가 격분한 얼

굴로 서재 안으로 뛰어 들어왔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환자가 제 발로 원장의 서재까지 들이닥치는 일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나를 향해 돌진했다. 손에는 식사용 칼을 쥐고 있었다. 그가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한 나는 우리 사이에 탁자를 두어 거리를 두려 애썼다. 하지만 그는 나보다 훨씬 빠르고 힘이 넘쳤다. 내가 자세를 잡기도 전에 그는 나를 공격했고, 내 왼쪽 손목에 꽤 깊은 상처를 냈다. 그가 다시 공격하기 전에 나는 오른손을 휘둘러 그를 제압했고, 그는 바닥에 대자로 뻗어 나동그라졌다. 손목에서는 피가 계속 흘러나와 카펫 위로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다. 친구가 더는 저항할 기색이 없는 것을 확인한 나는, 바닥에 쓰러진 그를 경계하며 손목을 붕대로 감는 데 집중했다.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와 그를 살피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가 하는 행동을 보고 구역질이 치밀었다. 그는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린 채, 내 상처 난 손목에서 흘러나온 피를 마치 개처럼 핥아먹고 있었다. 그는 쉽게 붙잡혔고, 놀랍게도 간호사들을 따라 아주 차분하게 끌려 나갔다. 다만 그는 그저 "피는 생명이다! 피는 생명이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할 뿐이었다.

지금은 피를 흘릴 여유가 없다. 최근에 너무 많은 피를 흘린 탓에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데다, 루시의 병세가 길어지며 겪은 끔찍한 상황들이 나를 몹시 지치게 했다. 신경이 너무 날카로워져 있고 기력도 다했으니,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오로지 휴식, 휴식, 그리고 휴식뿐이다. 다행히 반 헬싱이 나를 부르지 않았으니 잠을 거를 필요는 없다. 오늘 밤만큼은 잠을 자지 않고는 도저히 버틸 수 없을 것 같다.

전보, 반 헬싱, 안트베르펜에서, 수어드, 카팩스로.

(서섹스주 카팩스로 발송됨. 주(州) 이름이 기재되지 않음. 22시간 지연 도착.)

_9월 17일._--오늘 밤 반드시 힐링엄에 와야 하네. 수시로 살피지 못한다면, 직접 방문해서 꽃들이 제자리에 놓여 있는지 확인하게. 아주 중요한 일이니 절대 잊지 말게나. 도착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자네를 찾아가겠네.

수어드 박사의 일기.

9월 18일.

방금 런던행 기차를 타러 나선다. 반 헬싱으로부터 온 전보를 받고 나는 망연자실했다. 하룻밤을 통째로 허비하고 말았다. 하룻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나는 뼈아픈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다. 물론 모든 일이 별 탈 없이 지나갔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만약, 만약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라면 어찌할 것인가? 우리가 하려는 모든 시도를 사소한 사고들이 번번이 가로막는 것을 보니, 분명 우리를 짓누르는 끔찍한 운명이 도사리고 있는 게 분명하다. 이 실린더를 챙겨 가야겠다. 그래야 루시의 축음기에 내 기록을 마저 남길 수 있을 테니까.

루시 웨스튼라가 남긴 메모.

9월 17일, 밤.

나로 인해 혹여라도 누군가 곤경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이 글을 남겨 나중에 확인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오늘 밤 일어난 일들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다. 기력이 다해 죽어가는 기분이라 글을 쓸 힘조차 거의 남아 있지 않다. 하지만 이 기록을 남기다 죽는다 해도, 반드시 끝마쳐야만 한다.

나는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다. 반 헬싱 박사가 지시한 대로 꽃들을 놓아두는 데 주의를 기울인 뒤,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창문을 두드리는 듯한 퍼덕임 소리에 잠에서 깼다. 휘트비의 절벽에서 몽유병 증세로 헤맬 때 미나가 나를 구해준 이후로 시작된 소리였는데, 이제는 그 소리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안다. 무섭지는 않았지만, 수어드 박사가 옆방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었다. 반 헬싱 박사의 말대로라면 그는 옆방에 있어야 했다. 박사가 곁에 있다면 그를 불러낼 수도 있었을 테니까. 다시 잠을 청해 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러자 잠드는 것에 대한 오래된 공포가 엄습했고, 나는 차라리 깨어 있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잠은 원치 않을 때마다 찾아오려 했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 나는 문을 열고 밖을 향해 외쳤다. "거기 누구 없나요?"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어머니를 깨울까 겁이 나 다시 문을 닫았다. 그때 덤불 속에서 개 짖는 소리 같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개보다는 훨씬 더 사납고 깊은 울음이었다.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커다란 박쥐 한 마리가 창문에 날개를 세차게 부딪치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다시 침대로 돌아갔지만, 결코 잠들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어머니가 안을 들여다보셨다. 내가 뒤척이는 것을 보고 잠들지 않았음을 알

아차린 어머니는 방 안으로 들어와 내 곁에 앉으셨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더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내게 말씀하셨다.

"얘야, 마음이 놓이지 않아 네가 괜찮은지 보러 들어왔단다."

어머니가 거기 앉아 있다가 감기에 걸릴까 걱정되어, 나는 어머니에게 들어와 나와 함께 자자고 청했다. 어머니는 내 침대로 들어와 내 곁에 누웠다. 잠시만 머물다 다시 당신 침대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며 가운은 벗지 않았다. 어머니가 내 품에 안기고 나 또한 어머니를 품에 안은 채 누워 있을 때, 창문을 두드리고 몰아치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겁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다. "저게 대체 뭐냐?" 나는 어머니를 달래려 애썼고 마침내 진정시켰다. 어머니는 조용히 누워 있었지만, 가여운 어머니의 심장이 여전히 격렬하게 뛰는 소리가 내게는 들렸다.

잠시 후, 관목 숲 너머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곧이어 창문 쪽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굉음이 나더니 깨진 유리 조각들이 바닥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밀려든 바람에 창문의 블라인드가 뒤로 젖혀졌고, 깨진 창문 틈 사이로 크고 수척한 회색 늑대의 머리가 나타났다.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일으키려 애썼고, 무언가 붙잡으려 허둥거렸다. 그러다 반 헬싱 박사가 내 목에 걸라고 강권했던 꽃 화환을 붙잡고는 내게서 거칠게 뜯어냈다. 어머니는 늑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1, 2초간 몸을 일으킨 채 앉아 있었는데, 그때 목구멍에서 기이하고도 끔찍한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러더니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어머니는 그대로 쓰러졌다. 어머니의 머리가 내 이마를

들이받는 바람에 순간 어지럼증이 일었다. 방 안의 모든 것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나는 창문에 시선을 고정한 채 버텼다. 그때 늑대가 머리를 뒤로 뺐고, 깨진 창문 사이로 수많은 작은 입자들이 바람을 타고 들이닥쳤다. 그것들은 마치 사막의 모래 폭풍을 묘사할 때 말하는 먼지 기둥처럼 빙글빙글 돌며 소용돌이쳤다. 몸을 움직여 보려 했지만 무언가에 마법이라도 걸린 듯 움직일 수 없었다. 이미 차갑게 식어가는 듯한, 가여운 어머니의 몸이 나를 짓눌렀다. 어머니의 심장은 이미 멈춰 있었다. 나는 한동안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의식을 다시 되찾기까지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은 듯했으나, 더없이 끔찍하고 고통스러웠다. 근처 어딘가에서 조종(弔鐘)이 울리고 있었고, 마을 곳곳에서는 개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바로 바깥쪽 관목 숲에서는 나이팅게일 한 마리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통증과 공포, 그리고 기력 저하로 인해 정신이 아득하고 멍했지만, 나이팅게일의 노랫소리는 마치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를 위로하러 오신 목소리처럼 들렸다. 그 소리에 하녀들도 잠에서 깬 모양인지, 문밖에서 맨발로 다다닥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그들을 불렀고 하녀들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침대 위에 내 몸을 덮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한 하녀들은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깨진 창문 사이로 바람이 들이닥쳤고 문이 쾅 하고 닫혔다. 내가 몸을 일으키자 하녀들은 사랑하는 어머니의 시신을 들어 올려 시트로 덮은 뒤 침대에 눕혔다. 하녀들이 너무나 겁에 질려 안절부절못하기에, 나는 그들에게 식당으로 가서 와인을 한 잔씩 마시라고 일렀다. 문

이 잠시 벌컥 열렸다가 다시 닫혔다. 하녀들은 비명을 지르더니 모두 식당으로 달려갔고, 나는 내가 가진 꽃들을 어머니의 가슴 위에 놓아드렸다. 꽃을 거기 놓고 나서야 반 헬싱 박사가 내게 했던 말이 떠올랐지만, 차마 그 꽃을 치우고 싶지는 않았다. 게다가 지금은 하인 몇 명이라도 곁에 있어 주길 바랐다. 그런데 하녀들이 돌아오지 않아 나는 의아했다. 내가 그들을 불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기에, 나는 그들을 찾아 식당으로 향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한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네 사람 모두 바닥에 힘없이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셰리주가 반쯤 담긴 디캔터가 놓여 있었지만, 주변에는 기묘하고 매캐한 냄새가 감돌았다. 의심스러운 마음에 디캔터를 살펴보니 라우다넘 냄새가 났다. 이어 찬장을 뒤져보니 어머니의 담당 의사가 어머니에게 쓰시는—아, 아니 쓰시던—그 약병이 비어 있었다. 이제 어쩌면 좋단 말인가? 대체 어쩌면 좋단 말인가? 나는 다시 어머니의 방으로 돌아왔다. 어머니 곁을 떠날 수가 없다. 누군가 약을 먹여 잠재워 버린 하인들을 제외하면, 나는 완전히 혼자다. 죽음과 함께 홀로 남겨진 것이다! 깨진 창문 너머로 늑대의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와서, 차마 밖으로 나갈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

창틈으로 들어오는 외풍을 타고 먼지들이 공중에 떠다니며 맴돌고 있다. 마치 공기 전체가 미세한 입자들로 가득 찬 것만 같다. 등불은 푸르스름하고 희미하게 타오른다. 이제 나는 어찌해야 하는가? 하느님, 오늘 밤 저를 해악으로부터 지켜주소서! 이 종이는 가슴 안쪽에 숨겨두어야겠다. 나중에 사람들이 내 시신을 수습하러 왔을 때 발견할 수 있

도록. 사랑하는 어머니도 떠나셨으니, 이제 나도 갈 때가 되었다. 만약 내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아서, 안녕히. 부디 평안하기를, 그리고 하느님, 저를 도우소서!

제XII장

수어드 박사의 일기

9월 18일.

나는 곧장 힐링엄으로 향했고 일찍 도착했다. 마차는 대문 앞에 세워두고 혼자서 가로수길을 따라 올라갔다. 루시나 그녀의 어머니를 깨울까 봐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저 하인 한 명만 문앞으로 나오길 바라며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눌렀다. 잠시 기다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기에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눌렀지만, 여전히 대답은 없었다. 벌써 오전 10시인데 이 시간까지 잠만 자고 있다니, 하인들의 게으름을 저주하며 나는 조금 더 조급한 마음으로 다시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눌렀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지금까지는 그저 하인들을 탓하기만 했으나, 이제는 끔찍한 공포가 나를 엄습하기 시작했다. 이 적막함이 우리를 조여오는 운명의 사슬에 연결된 또 다른 고리는 아닐까? 내가 너무 늦게 도착한 것일까, 이곳이 정말 죽음의 집인 것은 아닐까? 만약 루시가 다시 한번 그 무시무시한 발작을 일으킨다

면, 단 몇 분, 아니 몇 초의 지체만으로도 루시에게는 몇 시간의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혹시라도 들어갈 곳이 있을지 몰라 집 주변을 돌아다니며 살펴보기 시작했다.

안으로 들어갈 방법이 도무지 보이지 않았다. 창문과 문은 모두 굳게 닫힌 채 잠겨 있었고, 나는 허탈한 마음으로 다시 현관으로 돌아왔다. 그때, 말발굽이 땅을 빠르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말은 대문 앞에서 멈춰 섰고, 몇 초 지나지 않아 반 헬싱이 길을 따라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나를 발견한 그는 숨을 헐떡이며 이렇게 말했다.

"그럼 자네였군, 막 도착한 거였어. 그녀는 좀 어떤가? 우리가 너무 늦은 건가? 내 전보를 받지 못한 건가?"

나는 최대한 빠르고 또렷하게 대답했다. 아침 일찍 전보를 받았을 뿐이며, 이곳으로 오는 데 단 일 분도 지체하지 않았다고 말이다. 또한 집 안의 그 누구도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엄숙한 표정으로 모자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그렇다면 너무 늦은 것 같군. 신의 뜻대로 되기를!” 그는 평소처럼 기운을 차리며 말을 이었다. “자, 어서. 들어갈 길이 없다면 우리가 길을 만들어야 하네. 지금 우리에게는 시간이 전부라네.”

우리는 집 뒤편으로 돌아갔고, 그곳에는 주방 창문이 하나 있었다. 반 헬싱 교수는 가방에서 작은 수술용 톱을 꺼내 내게 건네며, 창문을 가로막은 철창을 가리켰다. 나는 즉시 철창을 자르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 개의 창살을 끊어냈다. 그러고 나서 길고 얇은 칼을 이

용해 창틀의 잠금장치를 밀어내고 창문을 열었다. 나는 교수를 안으로 들여보낸 뒤 뒤따라 들어갔다. 주방이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하인들의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이동하며 방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덧창 사이로 스며든 희미한 빛이 비치는 식당에서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네 명의 하녀를 발견했다. 그들이 죽었다고 생각할 필요조차 없었다. 거칠게 몰아쉬는 숨소리와 방 안을 가득 채운 로다넘의 매캐한 냄새가 그들의 상태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 헬싱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우리가 자리를 뜨자 그가 말했다. "이들은 나중에 돌보도록 하지."

그다음 우리는 루시의 방으로 올라갔다. 우리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나,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우리는 창백해진 얼굴과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우리가 무엇을 보았는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침대 위에는 루시와 그녀의 어머니, 두 여인이 누워 있었다. 어머니가 안쪽 깊숙이 누워 있었는데, 흰 시트가 그녀를 덮고 있었다. 깨진 창문으로 들어온 외풍에 시트 끝자락이 뒤로 넘어가 있었고, 그 사이로 공포에 질린 채 창백하게 질린 얼굴이 드러났다. 그 곁에는 루시가 누워 있었다. 루시의 얼굴은 어머니보다 훨씬 더 창백하고 수척해 보였다. 루시의 목에 걸려 있던 꽃들은 어머니의 가슴 위에서 발견되었다. 루시의 목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드러나 있었는데, 이전에 우리가 목격했던 그 작은 상처 두 개가 보였다. 하지만 그 상처는 이전보다 훨씬 더 처참하게 짓이겨진 채 하얗게 변해 있었다. 반 헬싱 교수는 아무 말 없이 침대 위로 몸

을 굽혔다. 그의 머리가 불쌍한 루시의 가슴에 닿을 듯 가까워졌다. 그러더니 그는 마치 무언가를 듣기라도 하는 것처럼 고개를 빠르게 돌리더니, 벌떡 일어나 나를 향해 외쳤다.

"아직 늦지 않았어! 어서! 어서! 브랜디를 가져와!"

나는 아래층으로 달려가 그것을 가지고 돌아왔다. 탁자 위에서 발견한 셰리주 디켄터처럼 이것에도 약물이 들어있을지 몰라,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고 맛을 보았다. 하녀들은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지만, 움직임은 더 불안정해졌다. 나는 마취 기운이 점차 가시고 있다고 생각했다.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 머무르지 않고 곧장 반 헬싱에게 돌아갔다. 그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입술과 잇몸, 그리고 손목과 손바닥에 브랜디를 문질렀다. 그가 내게 말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일세. 자네는 가서 저 하녀들을 깨우게. 젖은 수건으로 얼굴을 치게. 그것도 세게 치게. 불을 피우고 물을 데워서 따뜻한 목욕물을 준비하게 하고. 이 가여운 영혼은 옆에 있는 저 사람만큼이나 몸이 차갑게 식어 있네. 우리가 무엇을 더 하려면 우선 이 사람의 몸부터 데워야 하네."

나는 즉시 움직였고, 세 명의 여인을 깨우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네 번째 여인은 어린 소녀였는데, 약 기운이 훨씬 강하게 작용한 듯했다. 나는 소녀를 소파 위로 들어 올려 그대로 잠들게 두었다. 다른 여인들은 처음에는 멍한 상태였으나, 정신이 들자 히스테릭하게 울부짖으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엄하게 꾸짖으며 그들이 말을 하지 못하게 했다. 생명 하나를 잃는 것도 충분히 비극적인 일이니, 여기

서 지체하다가는 루시 양까지 희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인들은 흐느끼고 울면서도 옷을 대충 걸친 채 불을 지피고 물을 준비하러 움직였다. 다행히 부엌과 보일러의 불이 아직 살아 있어 뜨거운 물은 부족하지 않았다. 우리는 욕조를 가져와 루시를 있는 그대로 옮겨 담았다. 우리가 루시의 사지를 문지르며 체온을 올리는 데 열중하고 있을 때,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하녀 중 한 명이 달려 나가 옷을 서둘러 챙겨 입고 문을 열었다. 그러고는 다시 돌아와 홈우드 씨가 보낸 전갈을 전하러 온 신사가 있다고 우리에게 속삭였다. 나는 지금은 아무도 맞이할 수 없으니 기다려야 한다고 전하라고 일렀다. 하녀가 전갈을 전하러 간 사이, 나는 눈앞의 일에 몰두하느라 그 신사의 존재를 완전히 잊고 있었다.

내 평생의 경험을 통틀어 교수가 이토록 결연하고도 필사적으로 몰두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다. 그가 알고 있듯 나 역시 알고 있었다. 이것은 죽음과 맞서 싸우는 정면 승부라는 사실을 말이다. 잠시 숨을 돌릴 때 나는 그에게 그 뜻을 전했다. 그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대답했지만, 얼굴에는 그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엄숙하고도 단호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만약 그게 전부라면, 나는 여기서 멈추고 그녀가 평온 속으로 서서히 사라지게 두겠네. 그녀의 지평선 너머로 삶의 빛은 더 이상 보이지 않으니 말일세." 그는 말을 마친 뒤, 가능한 한 더욱 격렬하고 광적인 기세로 다시 작업에 몰두했다.

이윽고 우리 둘은 열기가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청진기를 통해 루시의 심장 박동 소리가 조금 더 또렷하게 들려왔고, 폐의 움직임도 눈에 띄게 활발해졌다. 반 헬싱의 얼굴에는 거의 환한 빛이 감돌았다. 우리가 루시를 욕조에서 일으켜 세워 몸을 말리려고 뜨거운 시트로 감싸자, 그가 내게 말했다.

"첫 승부는 우리가 이겼네! 왕에게 장군이네!"

우리는 미리 준비해 둔 다른 방으로 루시를 옮겼다. 침대에 눕힌 뒤 그녀의 목구멍에 브랜디 몇 방울을 흘려 넣었다. 그사이 반 헬싱이 부드러운 실크 손수건을 그녀의 목에 감는 것이 내 눈에 들어왔다. 루시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모습 중 가장 상태가 나빴거나, 어쩌면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

반 헬싱은 여자들 중 한 명을 불러 세웠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그녀의 곁을 지키며 한시도 눈을 떼지 말라고 당부한 뒤, 나에게 방 밖으로 나가라는 손짓을 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상의해야 하네." 우리가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그가 말했다. 홀에 다다른 그는 식당 문을 열었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등 뒤로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다. 덧창은 열려 있었으나 블라인드는 이미 내려가 있었다. 영국 하층 계급 여성들이 늘 엄격히 지키는 죽음의 예법을 그대로 따른 것이었다. 그래서 방 안은 어둑했다. 하지만 우리가 일을 처리하기에는 충분히 밝았다. 반 헬싱의 엄격한 표정은 당혹스러운 기색에 다소 누그러져 있었다. 그는 분명 무언가

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듯했다. 그래서 나는 그가 입을 열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

"이제 우린 어쩌면 좋겠나? 어디로 가서 도움을 구해야 한단 말인가? 당장 다시 수혈을 해야 하네. 그러지 않으면 저 가여운 소녀는 한 시간도 버티지 못할 걸세. 자네도 이미 기진맥진했고, 나 역시 마찬가지일세. 설령 저 여자들이 용기를 내어 응해 준다 해도, 나는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네. 대체 누구를 찾아야 저 소녀를 위해 제 혈관을 열어 줄 사람이 있겠나?"

"그나저나, 대체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지?"

방 건너편 소파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 마음에는 안도감과 기쁨이 밀려왔다. 바로 퀸시 모리스의 목소리였기 때문이다. 반 헬싱은 그 첫 소리에 화난 듯 흠칫 놀랐으나, 내가 "퀸시 모리스!"라고 외치며 두 팔을 벌려 그에게 달려가자 이내 표정이 부드러워지며 눈가에 반가운 기색이 서렸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건가요?" 맞잡은 손을 느끼며 내가 외쳤다.

아마 아트 때문인 것 같군.

그가 내게 전보 한 통을 건넸다.

수어드에게서 사흘째 소식이 없다.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다. 자리를 비울 수도 없다. 아버님은 여전히 같은 상태이시다. 루시가 어떤지 소식을 보내달라. 지체하지 말고 답장 바란다. -- 홈우드.

"딱 맞춰 도착한 것 같군요. 제가 무엇을 하면 될지 말씀만 하십시오."

반 헬싱이 성큼 다가갔다. 그는 상대의 손을 맞잡고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여인이 곤경에 처했을 때, 용감한 남자의 피만큼 이 세상에서 귀한 것은 없다네. 자네는 의심할 여지 없는 진정한 남자야. 그래, 악마가 온 힘을 다해 우리를 방해할지언정, 우리가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남자를 보내주시는 법이라네."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끔찍한 수술을 거쳐야 했다. 차마 그 세세한 과정을 다시 떠올릴 용기가 나지 않는다. 루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그 여파는 이전보다 훨씬 심각했다. 혈액을 충분히 수혈했음에도 불구하고, 루시의 몸은 예전만큼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았다. 생명의 불꽃을 되살리려는 루시의 사투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그리고 귀에 담기 힘들 만큼 처절했다. 다행히 심장과 폐의 기능은 호전되었다. 반 헬싱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모르핀을 피하 주사했고, 효과도 좋았다. 루시의 혼절은 깊은 잠으로 이어졌다.

내가 퀸시 모리스와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간 사이, 교수는 루시의 곁을 지켰다. 나는 하녀 한 명을 보내, 기다리고 있던 마부들 중 한 사

람에게 삯을 치르게 했다. 퀸시에게 와인 한 잔을 대접하고 잠시 쉬게 한 뒤, 요리사에게 든든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라고 일렀다. 그러다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라 루시가 있는 방으로 다시 돌아갔다.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서니, 반 헬싱이 메모지 몇 장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는 분명 그 내용을 읽은 듯했다. 손을 이마에 얹은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의문이 풀린 사람 특유의 엄숙한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내게 종이를 건네며 짧게 말했다.

"루시를 욕조로 옮길 때, 그녀의 가슴팍에서 이게 떨어졌네."

글을 다 읽은 나는 교수님을 빤히 바라보다가, 잠시 침묵한 뒤 물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다 무슨 뜻입니까? 그녀가 미쳤던 겁니까, 아니면 지금 미쳐 있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면 대체 어떤 끔찍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까?" 나는 너무나 당혹스러워 더는 무슨 말을 이어가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반 헬싱은 손을 뻗어 종이를 가져가며 말했다.

"지금은 너무 신경 쓰지 말게. 일단은 잊어버려. 때가 되면 다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될 테니. 하지만 그건 나중 일이야. 자, 그래서 나를 찾아와서 하려던 말이 무엇이었나?"

그의 말에 나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고,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사망 진단서 문제로 왔습니다. 우리가 적절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검시가 진행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진단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검시까지는 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만약 검시가 시작된다

면, 설령 다른 무엇도 그녀를 죽음으로 몰지 않는다 해도 검시만큼은 분명 가여운 루시를 죽이고 말 테니까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며, 루시를 돌봤던 다른 의사도 알고 있습니다. 웨스튼라 부인에게는 심장병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그 병으로 사망했다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진단서를 작성합시다. 제가 직접 등록소에 가져다주고 나서 장례업자에게 가겠습니다."

"좋아, 나의 친구 존! 정말 훌륭한 생각이야! 루시 양이 자신을 에워싼 적들 때문에 슬프다 해도, 적어도 자신을 사랑해 주는 친구들 덕분에 행복하다 할 수 있겠군. 한 명, 두 명, 세 명, 거기에 늙은이 한 명까지, 모두가 그녀를 위해 자신의 혈관을 열었으니 말일세. 아, 그래, 나도 알아, 친구 존. 나도 눈이 멀지는 않았다고! 그래서 자네들 모두가 더욱더 사랑스럽구나! 자, 이제 가보게."

홀에서 퀸시 모리스를 만났다. 그는 아서에게 보낼 전보를 들고 있었다. 전보에는 웨스튼라 부인이 사망했다는 소식과, 루시 또한 앓았으나 지금은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한 반 헬싱과 내가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다는 말도 담겨 있었다. 나는 그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말해주었다. 그는 나를 서둘러 내보냈으나, 내가 나가는 길에 이렇게 덧붙였다.

"잭, 돌아오면 우리 둘이서만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

나는 고개를 끄덕여 대답하고 밖으로 나왔다. 사망 신고 절차는 어렵지 않게 마쳤다. 그리고 저녁에 현지 장의사를 불러 관의 크기를 재고 장례 절차를 논의하기로 약속했다.

돌아오니 퀸시 모리스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루시의 상태를 파악하는 대로 곧 만나자고 말한 뒤 그녀의 방으로 올라갔다. 루시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반 헬싱 교수는 그녀의 곁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는 듯 보였다. 그가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대는 것을 보고, 나는 그가 루시가 곧 깨어나기를 기다리며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나는 다시 내려가 퀸시를 아침 식사 방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블라인드를 내리지 않아 다른 방들보다 조금 더 밝았고, 아니, 적어도 덜 침울한 분위기였다. 우리 둘만 남게 되자, 그가 내게 말했다.

"잭 수어드, 내가 끼어들 자격이 없는 곳에 억지로 참견하고 싶지는 않네. 하지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그 애를 사랑했고 결혼하고 싶어 했다는 걸 알지 않나. 비록 다 지나간 일이라 해도, 여전히 그 애가 걱정되는 건 어쩔 수가 없군. 대체 그 애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 그 네덜란드인 말일세. 아주 훌륭한 노신사더군, 내가 보기엔 말이야. 자네 둘이 방에 들어왔을 때 그분이 말했지. 수혈을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다고, 자네와 그분 모두 기력이 다 빠진 상태라고 말이야. 의료진이 진료실 안에서 비밀리에 대화한다는 건 나도 잘 알고 있네. 의사들이 사적으로 무엇을 상의하는지 함부로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말이야. 하지만 이건 평범한 문제가 아니네. 그게 무엇이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했네. 그렇지 않은가?"

"그렇군요." 내가 대답하자 그는 말을 이어갔다.

“당신과 반 헬싱도 오늘 내가 한 것과 똑같은 일을 이미 마쳤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서도 그 일에 휘말린 것 같소. 나흘 전 그 친구를 자기 집에서 만났을 때 모습이 아주 이상했거든. 내가 팜파스 초원에 있을 때, 애지중지하던 암말 한 마리가 하룻밤 사이에 쓰러져 죽은 이후로 이렇게 순식간에 무언가 망가지는 건 처음 봤소. 흡혈귀라고 불리는 그 커다란 박쥐들 중 한 마리가 밤중에 그 말을 덮친 모양인데, 박쥐가 실컷 피를 빨아 먹은 데다 혈관까지 열린 채로 남겨진 탓에, 일어서기에도 모자랄 만큼 피가 부족해져서 결국 누워 있는 말에게 총알을 박아 넣어야만 했소. 잭, 비밀을 누설하는 게 아니라면 말해줄 수 있겠나? 아서가 가장 먼저 그 일을 겪은 게 맞지?”

말을 이어가는 불쌍한 사내의 얼굴에는 불안함이 가득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을 둘러싼 끔찍한 수수께끼를 전혀 알지 못했고, 그 무지함은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며 기다림의 고문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의 심장은 피를 흘리듯 아파했고, 무너지지 않으려 버티는 데에는 그의 사내다움을 전부 끌어모아야 했다. 물론 그에게는 그런 기질이 차고도 넘쳤지만 말이다. 나는 대답하기 전 잠시 말을 멈췄다. 반 헬싱 교수가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한 것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많은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 그러니 굳이 대답을 피할 이유도 없었기에, 나는 똑같은 말로 답했다.

"그렇습니다."

"대체 이런 일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열흘 정도 됩니다."

"열흘이라니! 그렇다면 잭 수어드, 우리가 모두 사랑하는 그 가련하고 아름다운 여인에게 지난 열흘 동안 건장한 남자 네 명의 피가 주입되었다는 뜻이군. 세상에, 그녀의 몸이 그 피를 다 담아 둘 수도 없었을 텐데." 그러더니 그는 내 곁으로 바짝 다가와 격앙된 목소리로 낮게 속삭였다. "대체 무엇이 그 피를 가져간 거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내가 말했다. "반 헬싱은 그 문제로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이고, 저 역시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짐작조차 할 수가 없군요. 루시를 제대로 감시하려던 우리의 모든 계획이 사소한 상황들이 겹치며 어긋나 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든, 혹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든,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퀸시 모리스가 손을 내밀었다. "나도 끼워 주게." 그가 말했다. "자네와 네덜란드인이 시키는 대로 하겠네. 무엇을 해야 할지 말만 해주면 그대로 따르지."

늦은 오후에 잠에서 깨어난 루시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가슴께를 더듬는 것이었다. 놀랍게도 루시는 반 헬싱이 내게 읽어보라고 건네주었던 그 종이를 찾아냈다. 세심한 성격의 반 헬싱 교수는 루시가 깨어났을 때 놀라지 않도록, 종이를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던

모양이다. 루시는 반 헬싱과 나를 발견하고는 눈을 반짝이며 기뻐했다. 그러다 방 안을 둘러보던 루시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는 몸서리를 쳤다. 루시는 비명을 지르며 가냘픈 두 손으로 창백한 얼굴을 감싸 쥐었다. 어머니의 죽음을 완전히 실감했다는 뜻임을 우리 둘 다 이해할 수 있었기에, 우리는 루시를 달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타인의 공감이 루시의 마음을 조금은 가라앉혀 주었겠지만, 루시는 정신적으로나 심적으로 매우 낙담한 상태였고 한참 동안이나 힘없이 소리 죽여 울었다. 우리는 우리 중 한 명, 혹은 둘 다 계속 곁을 지키겠다고 말해주었고, 그 말에 루시는 조금 안심하는 듯 보였다.

황혼 무렵 루시는 잠이 들었다. 그때 아주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잠든 상태에서도 루시는 가슴에 품고 있던 종이를 꺼내더니 두 갈래로 찢어버린 것이다. 반 헬싱이 다가가 루시의 손에서 종이 조각들을 가져갔다. 하지만 루시는 마치 손에 종이가 여전히 남아 있기라도 한 것처럼 계속해서 찢는 시늉을 했다. 마침내 루시는 손을 들어 올리더니, 마치 종이 파편들을 흩뿌리기라도 하듯 손바닥을 펼쳤다. 반 헬싱은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미간을 찌푸리며 놀란 기색을 보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 * * * *

9월 19일.

그녀는 밤새도록 선잠을 자다 깨다 했다. 잠드는 것 자체를 늘 두려워하는 모양이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그녀의 기운은 한층 더 약해져 있었다. 교수님과 나는 교대로 그녀를 지켰고, 단 한 순간도

곁을 떠나지 않았다. 퀸시 모리스는 자신의 계획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밤새도록 집 주변을 이리저리 순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 수 있었다.

날이 밝자, 창으로 스며든 빛이 가혹하게도 불쌍한 루시의 쇠약해진 상태를 낱낱이 드러냈다. 루시는 고개를 돌리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고, 간신히 넘기는 소량의 음식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듯했다. 루시는 때때로 잠에 들었는데, 반 헬싱과 나는 루시가 깨어 있을 때와 잠들었을 때의 모습이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잠든 동안에는 안색이 더 수척해졌을지언정 오히려 기운이 있어 보였고, 숨소리도 한결 부드러웠다. 입을 벌리고 잠든 루시의 창백한 잇몸은 치아로부터 뒤로 물러나 있었는데, 그 때문에 치아가 평소보다 훨씬 길고 날카로워 보였다. 그러나 잠에서 깨어나면 눈빛에 어린 부드러움이 표정을 확연히 바꾸어 놓았고, 그제야 루시는 비록 죽어가는 모습일지언정 본래의 자기 자신처럼 보였다. 오후가 되자 루시가 아서를 불러달라고 했고, 우리는 그에게 전보를 보냈다. 퀸시는 그를 마중 나가기 위해 역으로 떠났다.

그가 도착했을 때는 거의 여섯 시가 다 된 시각이었다. 태양은 붉고 따스한 빛을 내뿜으며 저물어가고 있었고, 창문으로 스며든 그 붉은 빛은 그녀의 창백한 뺨에 생기를 더해주었다. 아서가 그녀를 마주했을 때, 그는 감정이 북받쳐 차마 말을 잇지 못했고 우리 중 누구도 입을 열 수 없었다. 지난 몇 시간 사이, 발작적인 잠, 혹은 그와 다름없는 혼수상태에 빠지는 일이 점점 잦아졌고, 그 탓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틈도 점점 짧아졌다. 하지만 아서가 곁에 있자 그녀는 조금 기운을 차리는

듯했다. 우리가 도착한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밝은 목소리로 그에게 말을 건네기도 했다. 아서 역시 마음을 다잡고 최대한 밝게 말을 이어갔고, 덕분에 우리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

벌써 새벽 한 시가 다 되어간다. 지금 반 헬싱과 그가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다. 15분 뒤면 내가 교대를 해야 하기에, 루시의 축음기에 이 기록을 남긴다. 그들은 6시까지 휴식을 취하며 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내일이면 우리가 지켜보는 것도 끝이 날까 두렵다. 충격이 너무 컸던 탓인지, 가여운 아이가 도무지 기운을 차리지 못한다. 신이시여, 우리 모두를 도우소서.

미나 하커가 루시 웨스튼라에게 보내는 편지.

(그녀가 열어보지 않았다.)

_9월 17일._

나의 가장 사랑하는 루시에게—

네게서 소식을 들은 지, 아니 내가 편지를 쓴 지도 정말 한참은 지난 것 같아. 내가 전할 소식들을 다 읽고 나면, 나의 이런 실수들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리라 믿어. 우선, 남편은 무사히 데려왔단다. 엑서터에 도착하니 마침 마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호킨스 씨가 타고 계셨어. 비록 통풍 발작 때문에 고생 중이시긴 했지만 말이야. 호킨스 씨는 우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셨고, 그곳에는 우리 모두가 머물기에 아주 아늑하고 편안한 방들이 마련되어 있었어.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했지. 식사를 마친 뒤 호킨스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사랑하는 얘들아, 너희의 건강과 번영을 위해 건배하고 싶구나. 너희 두 사람에게 모든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나는 너희가 아주 어릴 때부터 보아왔고, 사랑과 자부심을 느끼며 너희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단다. 이제 너희가 이곳에서 나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구나. 내게는 이제 자식도, 손주도 남지 않았단다. 모두 떠나고 없으니, 내 유언장에 남긴 모든 것은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루시, 조너선과 노인이 서로 손을 맞잡는 모습을 보며 나는 그만 눈물이 났단다. 우리의 저녁은 정말, 정말 행복했어.

드디어 이 아름답고 오래된 저택에 자리를 잡았어. 내 침실과 응접실 양쪽에서 모두 대성당 경내의 거대한 느릅나무들이 보여. 대성당의 오래된 황색 돌벽을 배경으로 검고 굵은 나무줄기들이 또렷이 서 있지. 머리 위에서는 까마귀들이 하루 종일 까악까악 울어대는데, 그 소리가 마치 사람들의 수다와 잡담처럼 들려. 말하자면 까마귀다운, 그리고 사람다운 모습이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나는 집안 살림을 꾸리고 이것저것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어. 조너선과 호킨스 씨도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내. 이제 조너선이 동업자가 되었으니, 호킨스 씨가 그에게 고객들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거든.

"사랑하는 어머니는 좀 어떠시니? 너를 보러 하루 이틀이라도 도시로 달려가고 싶지만, 아직은 짊어진 짐이 너무 많아 차마 엄두를 내지 못하겠구나. 조너선도 여전히 보살핌이 필요해. 이제야 겨우 살이 좀 붙기 시작했지만, 오랫동안 앓았던 탓에 몸이 너무 약해져 있단다. 지금도 가끔 자다가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라 깨곤 하는데, 그럴 때면 내

가 달래서 겨우 평온을 되찾아주어야 해. 그래도 다행히 날이 갈수록 그런 일이 줄어들고 있으니, 머지않아 완전히 나을 수 있을 거라 믿는다.

내 소식은 이쯤 해두고, 이제 네 소식을 들려주렴. 결혼은 언제 하니? 장소는 어디고, 주례는 누가 서주기로 했어? 예복은 무엇을 입을 거니? 공개적인 결혼식이니, 아니면 가족끼리만 모이는 조촐한 예식이니?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해다오. 네게 일어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내게도 소중하니까.

조너선이 안부를 전해달라고 부탁하긴 했지만, 유능한 '호킨스 앤 하커' 법률 사무소의 주니어 파트너가 보내기에는 그 인사가 너무 격식 차린 듯 딱딱한 것 같구나. 그러니 너도 나를 사랑하고 그도 나를 사랑하며, 나 또한 온 마음을 다해 너를 사랑하는 만큼, 그저 그의 '사랑'을 담아 안부를 대신 전할게.

잘 있거라, 나의 가장 소중한 루시. 네게 축복이 가득하기를.

너의 벗,

"미나 하커."

패트릭 헤네시 박사(의학박사, 왕립외과대학 회원 등)가 존 수어드 박사에게 보내는 보고서

_9월 20일._

친애하는 선생님께—

당신의 요청에 따라, 제가 맡은 모든 시설의 상태를 정리한 보고서를 동봉합니다. 환자 렌필드에 관해서는 덧붙일 말이 더 있습니다. 그가 또 한 번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자칫 끔찍한 결말로 이어질 수도 있었으나, 다행히도 불행한 결과 없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오후, 우리 부지 옆에 붙어 있는 빈집에 인부 두 명을 태운 짐마차 한 대가 찾아왔습니다. 환자가 두 번이나 도망쳤던 그 집을 기억하실 겁니다. 낯선 이들이라 그들은 문지기에게 길을 물으려고 우리 집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마침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담배를 피우며 서재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집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가 렌필드의 방 창문을 지나칠 때, 안에서 환자가 그를 향해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입에 담을 수 있는 온갖 상스러운 이름들을 다 불러대더군요. 제법 점잖게 생긴 그 사내는 "입 좀 닥쳐라, 이 상스러운 거지 놈아"라고 말하며 상황을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환자는 그가 자신을 강도질하고 죽이려 한다며, 설령 그 일로 교수형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이 그를 막아내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제가 창문을 열고 그 사내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손짓했습니다. 사내는 주변을 훑어보며 이곳이 대체 어떤 곳인지 가늠하더니, "세상에나, 어르신. 미친놈들이 모인 정신병원에서 무슨 소리를 듣든 상관없습니다만, 저런 짐승 같은 놈과 한집에 살아야 하는 어르신과 원장님이 참 안타깝군요"라고 말하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러고는 예의 바르게 길을 물었고, 저는 빈집의 정문이 어디인지 알려주었습니다.

사내가 떠나갈 때까지 우리 환자는 뒤에서 협박과 저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평소에는 아주 얌전한 환자였고, 격렬한 발작 외에는 이런 일이 전혀 없었기에, 저는 분노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아주 차분하고 친절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 말을 꺼내려 했지만, 그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듯 부드럽게 되물으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는 그의 교활함이 드러난 또 다른 사례일 뿐이었습니다. 채 30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환자가 방 창문을 깨고 탈출해 가로수길을 따라 달려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환자가 무슨 사고라도 칠까 두려워 간호사들에게 저를 따르라고 소리치며 뒤쫓았습니다.

제 우려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 지나갔던 그 수레가 커다란 나무 상자들을 싣고 길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내들은 마치 격렬한 운동이라도 한 듯 얼굴이 붉어진 채 이마의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제가 환자에게 다가가기도 전에, 환자가 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사내 중 한 명을 수레에서 끌어내리더니 그의 머리를 바닥에 짓찧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순간 환자를 붙잡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자리에서 사내를 죽였을 것입니다. 다른 사내도 뛰어내려 무거운 채찍 손잡이로 환자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꽤 강한 타격이었으나 환자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습니다. 오히려 그 사내까지 붙잡고는 우리 세 명을 마치 새끼 고양이 다루듯 이리저리 끌어당기며 몸싸움을 벌였

습니다. 아시다시피 제 체구도 작지 않은 데다 다른 이들도 건장한 사내들이었습니다.

싸움 초기에는 침묵을 지키던 환자는, 우리가 그를 제압하기 시작하고 간호사들이 구속복을 입히자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방해할 거야! 그들이 나를 털어가지 못하게 할 거야! 나를 조금씩 죽이게 두지 않겠어! 나의 주군과 주인님을 위해 싸우겠어!"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헛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간호사들이 그를 간신히 집 안으로 끌고 가 완충실에 가두었습니다. 간호사 중 한 명인 하디는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어쨌든 제가 다 조치해 두었으니, 그는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운반책 두 명 모두 손해 배상을 청구하겠다며 큰소리를 쳤고, 법이 허용하는 온갖 처벌을 우리에게 퍼붓겠다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위협 속에는, 보잘것없는 미친놈에게 둘이서 당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변명하는 듯한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상자들을 수레에 싣고 들어 올리느라 기운을 다 쓰지만 않았어도 그놈쯤은 단숨에 해치웠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패배의 또 다른 이유로는, 먼지가 자욱한 일의 특성 때문에 목이 바싹 탔던 점과, 일하던 곳에서 목을 축일 만한 술집까지의 거리가 한심할 만큼 멀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독한 술을 한 잔, 아니 그보다 더 많이 대접하고 각자에게 1소버린씩 쥐여 주자, 그들은 공격받았던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저처럼 '끝내주는' 사람을 만나는 즐거움이라면 언제든 더 지독한 미친

놈이라도 상대하겠다며 호언장담까지 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그들의 이름과 주소를 받아 적어 두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잭 스몰릿(Jack Smollet), 그레이트 웰워스 킹 조지 로드 더딩스 렌츠 거주. 토마스 스넬링(Thomas Snelling), 베스널 그린 가이드 코트 피터 팔리 로우 거주.

두 사람 모두 소호 오렌지 마스터 야드에 있는 해리스 앤 선즈 이사 및 운송 회사에 고용된 인력입니다.

"이곳에서 흥미로운 일이 생기면 모두 보고하겠습니다. 중요한 일이 생기면 즉시 전보를 보내겠습니다."

"친애하는 선생님, 제 말을 믿어 주십시오.

당신의 충실한,

"패트릭 헤네시."

미나 하커가 루시 웨스튼라에게 보내는 편지.

(그녀가 열어보지 않았다.)

_9월 18일._

나의 가장 사랑하는 루시에게—

"우리에게 이토록 슬픈 비보가 닥치다니요. 호킨스 씨께서 너무나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에게는 그리 슬픈 일이 아니라고 여길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분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마치 아버지를 잃은 것만 같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서, 이 인자한 노인의 죽음이 제게는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조너선은 무척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평생 자신을 도와준 그 착하고 선한 분을 잃은 슬픔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분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조너선을 친아들처럼 대하셨고, 우리처럼 평범하게 자란 이들에게는 꿈에서도 상상 못 할 거액의 재산을 남겨주셨으니까요. 하지만 조너선이 힘들어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막중한 책임감이 자신을 초조하게 만든다고 말하더군요. 스스로를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저는 조너선을 격려하려 애쓰고 있고, 제가 그를 믿어주는 덕분에 조너선도 스스로를 믿어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너선이 겪은 그 깊은 충격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 그토록 상냥하고 소박하며 고결하고 강인한 성품 — 우리의 선하고 소중한 친구의 도움으로 그를 불과 몇 년 만에 서기에서 주인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 준 바로 그 성품 — 이 이토록 손상되어 그 강인함의 본질마저 사라져 버리다니, 정말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당신, 당신의 행복을 누려야 할 시기에 나의 고민으로 당신을 번거롭게 한다면 부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루시, 누군가에게는 이 말을 꼭 해야만 했습니다. 조너선 앞에서 꿋꿋하고 밝은 모습을

유지하려 애쓰는 것이 저를 너무나 지치게 하는데, 이곳에는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모레면 런던으로 가야 하는데, 가는 것이 두렵기만 합니다. 불쌍한 호킨스 씨께서 유언장에 아버지와 같은 무덤에 묻히고 싶다고 남기셨거든요. 유족이 아무도 없으니 조너선이 상주를 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당신, 아주 잠시라도 좋으니 당신을 보러 달려가도록 노력할게요. 번거롭게 해서 미안해요. 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당신의 사랑하는

"미나 하커."

수어드 박사의 일기.

9월 20일. — 오직 결연한 의지와 습관에 기대어 오늘 밤 겨우 일기를 써 내려간다. 나는 지금 너무나 비참하고, 기운이 없으며,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 심지어 삶 자체에 진저리가 난다. 지금 당장 죽음의 천사가 날갯짓하는 소리가 들린다 해도 전혀 상관없을 정도다. 그리고 최근 그 잔혹한 날갯짓은 분명 어떤 목적이 있는 듯했다. 루시의 어머니와 아서의 아버지가 떠났고, 이제는…… . 어쨌든 일을 계속해야겠다.

나는 루시를 지키던 반 헬싱의 교대 시간을 맞춰 그를 대신했다. 아서도 가서 쉬기를 권했지만, 그는 처음에는 거절했다. 낮 동안 우리가 그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 일이 생길 것이며, 루시가 고통받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휴식 부족으로 쓰러져서는 안 된다고 설득한 뒤에야 그는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반 헬싱은 그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했다. "이리 오게, 얘야." 그가 말했다. "나와 함께 가세. 자네는 몸도 약해진 데다 슬픔과 정신적 고통을 너무 많이 겪었네. 게다가 자네의 기력이 소진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지 않은가. 혼자 있어서는 안 되네. 혼자 있으면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기 마련이니까. 거실로 가세나. 거기엔 큰 화로가 있고 소파도 두 개 있네. 자네는 한쪽에 눕고 나는 다른 쪽에 눕게나. 비록 우리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혹은 잠이 들더라도, 서로의 존재만으로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걸세." 아서는 루시의 얼굴을 간절한 눈빛으로 뒤돌아보며 반 헬싱을 따라 나갔다. 베개에 머리를 기댄 루시의 얼굴은 베갯잇의 흰 아마포보다도 더 창백했다. 루시는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고, 나는 방 안의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지 살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교수님이 다른 방에서 그랬듯 이 방에서도 마늘을 활용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실행했음을 알 수 있었다. 창틀 전체에서 마늘 냄새가 진동했고, 반 헬싱이 루시에게 계속 몸에 지니게 한 실크 손수건 위로 루시의 목에는 그 향긋한 꽃들로 만든 거친 화환이 둘러져 있었다. 루시는 다소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입을 벌리고 있어 창백한 잇몸이 드러나는 바람에 안색은 최악이었다. 어둑하고 불확실한 빛 속에서 루시의 치아는 아침보다 더 길고 날카로워 보였다. 특히 빛의 장난 때문인지 송곳니가 다른 치아보다 유독 더 길고 날카로워 보였다. 나는 그녀의 곁에 앉았는데, 잠시 후 루시가 불안하게 몸을 뒤척였다. 바로 그 순간, 창문 쪽에서 무언가 둔탁하게 퍼덕거리거나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살금살금 창가로 다가가 블라인드 모서리 사이로 밖을 엿보았다. 달빛이 가득 차 있었고, 소리의 정체는 커다란 박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박쥐는 빛이 희미함에도 불구하고 그 빛에 이끌

린 듯 주변을 빙빙 돌며 때때로 날개로 창문을 들이받고 있었다. 내가 자리로 돌아왔을 때, 루시는 몸을 약간 움직여 목에 있던 마늘 꽃들을 떼어낸 상태였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꽃들을 다시 제자리에 놓아준 뒤, 그녀를 지켜보며 앉아 있었다.

잠시 후 그녀가 깨어났고, 나는 반 헬싱의 처방대로 그녀에게 음식을 주었다. 그녀는 아주 조금을, 그것도 기운 없는 몸짓으로 받아먹었다. 지금까지 그녀의 병세에서 두드러졌던, 생명과 기운을 붙잡으려는 무의식적인 몸부림은 이제 보이지 않았다. 의식을 되찾자마자 그녀가 마늘 꽃을 몸 가까이 끌어당기는 모습은 내게 무척 기이하게 느껴졌다. 그녀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혼수상태에 빠질 때마다 마늘 꽃을 멀리 밀어냈던 것은 분명 이상한 일이었다. 하지만 깨어났을 때는 다시 꽃을 꼭 움켜쥐었다. 이 사실을 오해할 여지는 전혀 없었다. 그 뒤로 이어진 긴 시간 동안 그녀는 수차례 잠들었다 깨어나기를 반복하며, 두 행동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기 때문이다.

여섯 시가 되자 반 헬싱이 나를 대신하러 왔다. 그때 아서는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 다행히 반 헬싱은 아서를 깨우지 않고 그대로 잠들게 두었다. 그러다 루시의 얼굴을 확인한 반 헬싱은 숨을 들이켜며 헉 하고 소리를 냈다. 그는 나에게 날카로운 속삭임으로 말했다. "블라인드를 올려요. 빛이 필요합니다!" 그러고는 몸을 굽혀 루시의 얼굴에 거의 맞닿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가 그녀를 세밀하게 살폈다. 그는 꽃들을 치우고 루시의 목에 놓인 실크 손수건을 들어 올렸다. 그런데 손수건을 들어 올리던 반 헬싱이 갑자기 뒤로 움찔 물러났다. 그의 목구멍에서 "마인 고트(Mein Gott)!" 하는 탄식이 억눌린 채 터져 나오는 것이 내

귀에 들렸다. 나 역시 몸을 굽혀 그곳을 살펴보았고, 무언가 기이한 한기가 내 몸을 훑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목에 남았던 상처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반 헬싱은 엄숙한 표정으로 5분 동안이나 그녀를 가만히 응시했다. 그러고는 나를 향해 몸을 돌리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가 죽어가고 있네. 머지않았어. 내 말을 명심하게, 그녀가 의식이 있는 상태로 죽느냐 아니면 잠결에 죽느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을 걸세. 저 가여운 아이를 깨우게. 와서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게 말이야. 아이는 우리를 믿고 있고, 우리는 아이에게 약속까지 하지 않았나."

나는 식당으로 가서 그를 깨웠다. 그는 잠시 멍한 기색이었으나, 덧창 틈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보자 자신이 늦었다고 생각하며 두려움을 내비쳤다. 나는 루시가 아직 잠들어 있다고 안심시켰다. 그러면서도 반 헬싱 교수와 나 모두 끝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대한 부드럽게 전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더니 소파 옆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그는 슬픔에 어깨를 들썩이며, 머리를 파묻은 채 기도를 올렸다. 아마도 1분 정도는 그렇게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자, 이보게." 내가 말했다. "내 오랜 친구여, 부디 용기를 내게. 그래야 그녀를 위해서도 가장 좋고 편안할 걸세."

우리가 루시의 방으로 들어갔을 때, 반 헬싱이 평소처럼 사려 깊게 상황을 정리해 두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가능한 한 평온해 보이도록 손을 써 두었다. 심지어 루시의 머리카락까지 빗겨 놓아서, 베개 위에 평소처럼 햇살을 머금은 물결 모양으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우리가 방에 들어서자 루시가 눈을 떴다. 그리고 아서를 보자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서! 오, 내 사랑, 당신이 와주어서 정말 기뻐요!" 아서가 그녀에게 입을 맞추려 몸을 숙였을 때, 반 헬싱이 그를 제지하며 뒤로 물러나라는 몸짓을 했다. "안 됩니다." 반 헬싱이 속삭였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녀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게 그녀에게 더 위안이 될 겁니다."

아서는 그녀의 손을 잡고 곁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눈동자에 서린 천사 같은 아름다움과 부드러운 얼굴 선이 어우러져, 그녀는 생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이윽고 그녀는 서서히 눈을 감으며 잠에 빠져들었다. 잠시 동안 그녀의 가슴이 부드럽게 들썩였고, 숨결은 마치 지친 아이처럼 가늘게 이어졌다.

그러더니 내가 밤중에 눈치챘던 그 기이한 변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왔다. 그녀의 호흡은 거칠고 쌕쌕거리는 소리로 변했고, 입은 벌어졌다. 창백하게 뒤로 말려 올라간 잇몸 탓에 치아는 그 어느 때보다 길고 날카로워 보였다. 그녀는 마치 잠든 듯 깨어 있는, 모호하고도 의식 없는 상태에서 눈을 떴다. 초점이 없고 딱딱하게 굳은 눈동자였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부드럽고도 관능적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아서! 아, 내 사랑, 와주어서 정말 기뻐요! 키스해 줘요!"

아서가 그녀에게 입을 맞추려 간절하게 몸을 숙였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나처럼 그녀의 목소리에 깜짝 놀란 반 헬싱이 아서에게 달려들었다. 반 헬싱은 두 손으로 그의 목을 움켜쥐더니, 평소에는 상상도 못 할 만큼 격렬한 힘으로 그를 뒤로 끌어당겼다. 그러고는 아서를 방 건너편으로 거의 내동댕이치듯 던져버렸다.

"목숨이 걸렸다 해도 안 되네!" 그가 외쳤다. "자네의 산 영혼과 그녀의 영혼이 걸렸다 해도 절대 안 돼!" 그는 막다른 곳에 몰린 사자처럼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버티고 섰다.

아서는 너무도 당황한 나머지, 한순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폭력적인 충동이 그를 사로잡기도 전에, 그는 이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깨닫고는 말없이 서서 기다렸다.

반 헬싱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루시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 순간, 분노에 휩싸인 듯한 경련이 그림자처럼 그녀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다. 루시는 날카로운 이빨을 맞부딪치며 이를 갈았다. 그러더니 이내 눈을 감았고, 거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다.

그녀가 부드럽게 눈을 뜨더니, 가냘프고 창백하며 마른 손을 뻗어 반 헬싱의 크고 갈색빛이 도는 손을 잡았다. 그녀는 그 손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입을 맞추었다. "나의 진정한 친구," 그녀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으나 그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비애가 담겨 있었다. "나의

진정한 친구, 그리고 그의 친구도! 오, 그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제게 평온을 주세요!"

"맹세합니다!" 그가 그녀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마치 맹세를 선언하듯 손을 들어 올리며 엄숙하게 말했다. 그러고는 아서 쪽으로 몸을 돌려 그에게 말했다. "자, 얘야. 그녀의 손을 맞잡고 이마에 입을 맞추렴. 딱 한 번만이다."

입술이 맞닿는 대신 눈빛만이 마주쳤고,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다.

루시가 눈을 감았다.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반 헬싱은 아서의 팔을 붙잡아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러더니 루시의 숨소리가 다시 거칠어지더니, 돌연 멎고 말았다.

"모든 게 끝났네." 반 헬싱이 말했다. "그녀는 죽었어!"

나는 아서의 팔을 붙잡고 거실로 이끌었다. 그는 거실에 앉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그가 흐느끼는 모습은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처절하여, 내 마음마저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방으로 돌아가 보니, 반 헬싱이 가련한 루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엄숙했다. 루시의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겨 있었다. 죽음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일부 되돌려준 듯했다. 이마와 뺨에는 생기 넘치던 곡선이 다시 살아났고, 입술조차 죽음의 창백함을 잃은 상태였다. 마치 심장을 뛰게 하는 데 더는 필요치 않게 된 혈액이,

죽음의 거칠고 무참한 흔적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기 위해 그곳으로 흘러간 것만 같았다.

"우리는 그녀가 잠든 사이에 죽어가는 줄로만 알았다.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녀는 그저 잠들어 있었다고 생각했다."

나는 반 헬싱의 곁에 서서 말했다.

"아, 가엾은 아이, 이제야 비로소 평온을 찾았구나. 드디어 끝이 났어!"

그가 나를 돌아보며 엄숙하고도 진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네, 슬프게도 그렇지 않네. 이건 시작일 뿐일세!

그가 무슨 뜻인지 묻자, 그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일단 기다리며 상황을 지켜보세."

제XIII장

수어드 박사의 일기—계속.

장례식은 루시와 그녀의 어머니를 함께 매장할 수 있도록 그다음 날로 정해졌다. 나는 그 소름 끼치는 모든 절차를 챙겼다. 세련된 장의사는 자신의 직원들 역시, 그 특유의 비굴할 정도로 부드러운 태도라는 저주—혹은 축복—를 어느 정도 지니고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시신을 수습하던 여인조차 시신 안치실에서 나오며, 마치 동료 전문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듯 은밀하게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아주 아름다운 시신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그녀를 돌볼 수 있다는 건 제게 큰 영광입니다. 우리 업체의 명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 헬싱이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집안 형편이 워낙 어지러웠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곁에 도움을 줄 친척도 없었다. 게다가 아서는 다음 날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해야 했기에, 누군가를 불러와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연락할 겨를이 없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반 헬싱과 나는 직접 서류 등을 검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루시의 서류들을 자신이 직접 살펴보겠다고 고집했다. 나는 그에게 이유를 물었다. 그가 외국인이라 영국의 법적 절차를 잘 몰라, 혹시라도 무지함 때문에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까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내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알고 있네, 나도 알아. 자네는 내가 의사인 동시에 변호사라는 사실을 잊은 모양이군. 하지만 이 일은 전적으로 법에 관한 문제만은 아니야. 검시관을 피했을 때 자네도 이미 알고 있지 않았나. 내가 피해야 할 것은 그뿐만이 아니라네. 이 서류처럼, 더 조심해야 할 문서들이 있을지도 모르지.

그가 말을 하며 수첩에서 메모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루시가 가슴팍에 품고 있다가 잠결에 갈기갈기 찢어버린 메모였다.

"고인이 된 웨스튼라 부인의 사무를 맡은 변호사를 찾게 되면, 부인의 서류를 모두 봉인하고 오늘 밤 즉시 그에게 편지를 보내게나. 나는 밤새도록 여기와 루시 양이 쓰던 방을 지키며 혹시 모를 것을 직접 찾아볼 테니. 부인의 사적인 생각들이 담긴 기록이 낯선 이의 손에 넘어가는 일은 결코 좋지 않네."

나는 하던 일을 계속했다. 다시 30분쯤 지나자 웨스튼라 부인의 변호사 성함과 주소를 찾아낼 수 있었고, 그에게 편지를 썼다. 불쌍한 부인이 남긴 서류는 모두 잘 정리되어 있었으며, 매장 장소에 관한 명확한 지침도 적혀 있었다. 편지 봉투를 막 봉인했을 때, 뜻밖에도 반 헬싱이 방 안으로 걸어 들어오며 말했다.

"내가 도와줄 일이 있나, 친구 존? 지금 한가하니, 괜찮다면 기꺼이 돕겠네."

"찾으시던 건 다 구하셨나요?" 내가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특별히 무엇을 찾으려던 건 아니었네. 그저 그곳에 있는 것들을 전부 찾을 수 있기를 바랐을 뿐이고, 실제로 그렇게 했지. 몇 통의 편지와 메모, 그리고 이제 막 쓰기 시작한 일기장뿐이었지만 말이야. 일단은 그것들을 여기 가져다 두었으니, 지금 당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네. 내일 저녁에 그 불쌍한 청년을 만나서, 그의 허락을 구한 뒤에 몇 개를 사용하도록 하겠네.

우리가 맡은 일을 다 마쳤을 때, 그가 내게 말했다.

"이제 친구인 존, 그만 잠자리에 들어야 할 것 같네. 자네와 나, 우리 둘 다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며 기운을 차려야 하니까 말이야. 내일은 할 일이 아주 많겠지만, 오늘 밤만큼은 더 이상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겠군. 아아, 슬픈 일이네!"

잠자리에 들기 전, 우리는 불쌍한 루시를 보러 갔다. 장례식장은 마치 작은 추모실처럼 꾸며져 있었는데, 장의사가 일을 아주 잘 해낸 모양이었다. 아름다운 흰 꽃들이 사방에 가득했고, 죽음의 풍경은 최대한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정성껏 꾸며져 있었다. 시신을 덮은 수의 끝자락이 루시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반 헬싱 교수가 몸을 굽혀 수의를 조심스레 걷어 올리자, 우리 둘은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움에 그만 움찔하고 말았다. 높게 솟은 양초들이 그 모습을 선명히 볼 수 있을 만

큼 충분한 빛을 비추고 있었다. 루시의 모든 아름다움은 죽음과 함께 되살아나 있었다. 흘러간 시간은 '모든 것을 지워 없애는 부패의 손길'이 남길 법한 흔적을 남기기는커녕, 오히려 생기 넘치던 시절의 아름다움을 되돌려준 듯했다. 나는 눈앞의 존재가 시체라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교수는 엄숙하고도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내가 그녀를 사랑했던 만큼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기에,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일 이유도 없었다. 그는 내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 남아 있게"라고 말하고는 방을 나갔다. 그는 복도에 놓여 있던 상자에서 야생 마늘 한 줌을 가져왔다. 아직 열어보지 않은 상자였다. 그는 그 꽃들을 침대 위와 주변에 있는 다른 꽃들 사이에 놓아두었다. 그러고는 깃 안에 숨겨두었던 작은 금제 십자가를 목에서 꺼내 그녀의 입 위에 올려두었다. 그는 시트를 다시 제자리에 덮어준 뒤, 우리는 방을 나왔다.

내 방에서 옷을 벗고 있을 때였다. 불길한 예감을 불러일으키는 노크 소리와 함께 그가 들어오더니, 곧바로 말을 시작했다.

"내일 해가 지기 전까지, 검안용 칼 한 세트를 가져다주게."

"부검까지 해야 합니까?" 내가 물었다.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네. 수술을 하고 싶지만, 자네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야. 지금 말해줄 테니, 다른 사람에게는 단 한 마디도 발설해서는 안 되네. 나는 그녀의 머리를 자르고 심장을 꺼내고 싶네. 아! 자네는 외과의사인데 이토록 놀라다니! 내가 보아온 자네는 손끝

하나, 심장 하나 떨지 않고 다른 이들을 전율케 하는 생사의 수술을 해내지 않았나. 오, 하지만 내 소중한 친구 존, 자네가 그녀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지. 나 역시 그 사실을 잊지 않았네. 수술을 집도하는 건 나이고, 자네는 그저 돕기만 하면 되니까 말이야. 가능하다면 오늘 밤에라도 하고 싶지만, 아서 때문에 그럴 수는 없네. 내일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면 아서가 시간이 날 텐데, 그는 그녀를 보고 싶어 할 거야. 아니, 정확히는 '그것'을 보고 싶어 하겠지. 그러니 그녀를 관에 넣어 내일 장례를 치를 준비를 마친 뒤, 모두가 잠든 밤에 자네와 내가 찾아가세. 관 뚜껑의 나사를 풀어 수술을 마친 뒤, 아무도 모르게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거야. 오직 우리 둘만 아는 채로 말일세."

"하지만 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소녀는 이미 죽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가련한 시신을 왜 훼손하는 것입니까? 부검이 꼭 필요한 상황도 아니고, 부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도 없다면 말입니다. 소녀에게도, 우리에게도, 과학이나 인류의 지식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까? 부검의 필요성이 없다면, 이런 행위는 그저 괴기스러운 짓일 뿐입니다."

그는 대답 대신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더할 나위 없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친구인 존, 피 흘리며 아파하는 자네의 가련한 마음이 내 안타까울 따름이라네. 하지만 자네의 마음이 그토록 아파하기에 나는 자네를 더욱 사랑한다네. 할 수만 있다면 자네가 짊어진 그 짐을 내가 대신 짊어

지고 싶구려. 하지만 자네가 아직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네. 머지않아 알게 되겠지. 비록 유쾌한 사실은 아닐지라도, 그것을 알고 나면 자네는 나를 축복하게 될 걸세.

존, 내 아이 같은 친구여, 자네는 오랜 세월 나의 친구였지. 그런데 내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행동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나? 나도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확신을 가지고 행동한다네. 커다란 시련이 닥쳤을 때 자네가 나를 불러들인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 아니었나? 그렇다네! 아서가 죽어가는 연인에게 입을 맞추려 할 때, 내가 온 힘을 다해 그를 떼어놓자 자네는 경악했고, 아니 공포에 질리지 않았던가!

하지만 자네도 보지 않았나? 루시가 그 아름다운 죽어가는 눈망울로, 그리고 그 가냘픈 목소리로 어떻게 내게 고마움을 표했는지 말일세. 루시는 나의 거칠고 늙은 손에 입을 맞추며 나를 축복해주었지. 그렇다네! 그리고 내가 루시에게 맹세하는 소리를 듣지 않았나? 그 맹세 덕분에 루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을 수 있었던 것 아니었나!

"자, 이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려는지 충분한 이유가 생겼네. 자네는 수년 동안 나를 믿어주었지. 지난 몇 주 동안은 의심할 법한 기이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음에도 나를 믿어주었네. 친구 존, 조금만 더 나를 믿어주게. 만약 자네가 나를 믿지 못한다면, 나는 내 생각을 말할 수밖에 없네. 하지만 그건 그리 좋은 일이 아닐 걸세. 그리고 내가—믿어주든 아니든 나는 반드시 해낼 것이지만—내 친구의 신뢰 없이 일을

추진한다면,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일하게 될 것이네. 모든 도움과 용기가 절실한 순간에, 오, 얼마나 외로울지 상상조차 할 수 없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엄숙하게 말을 이었다.

"친구 존, 우리 앞에는 기이하고도 끔찍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네. 우리가 하나의 마음으로 뭉쳐야만 선한 결과를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네. 나를 믿어주지 않겠나?"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약속했다. 그가 떠날 때 문을 열어주었고, 그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모습까지 지켜보았다.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자니, 하녀 중 한 명이 복도를 따라 조용히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하녀는 나를 등지고 있었기에 내가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녀는 루시가 누워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 광경을 보니 마음이 뭉클했다. 헌신이란 참으로 보기 드문 것이며,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보여주는 그 마음에는 깊은 감사함을 느끼게 된다. 가련한 소녀는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마저 뒤로한 채, 자신이 사랑하는 여주인의 시신 곁을 홀로 지키러 갔다. 그 가여운 육신이 영원한 안식에 들 때까지 외롭지 않도록 말이다.

* * * * *

아주 깊고 길게 잠들었나 보다. 반 헬싱이 내 방으로 들어와 나를 깨웠을 때, 이미 해가 높이 떠 있었다. 그는 내 침대 곁으로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칼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네. 우리가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

"왜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물었다. 전날 밤 그가 보여준 엄숙한 태도가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기 때문이다.

"그건 말이지," 그가 엄중하게 말했다. "너무 늦었거나, 혹은 너무 이르기 때문이라네. 보게나!" 그는 작은 금제 십자가를 들어 보였다. "이건 밤사이에 도둑맞은 것이라네."

"지금 당신 손에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훔쳤다는 말입니까?" 내가 경이로움에 차서 물었다.

"그것을 훔쳐 간 가엾고 하찮은 것, 곧 죽은 자와 산 자를 모두 약탈한 그 여자에게서 되찾아왔기 때문이라네. 그녀에게 반드시 벌이 내리겠지만, 내가 내리는 것은 아닐 걸세.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온전히 알지 못했네. 그렇게 무지한 채로 그저 훔쳤을 뿐이지. 이제 우리는 기다려야 하네."

그는 그 말을 남긴 채 떠나갔다. 덕분에 나는 새로이 마주한 수수께끼를 곱씹으며, 그것을 풀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오전 시간은 참으로 우울하게 흘러갔다. 하지만 정오가 되자 변호사가 찾아왔다. 홀먼, 선즈, 마콴드 앤 리더데일 법률 사무소의 마콴드 씨였다. 그는 매우 친절했으며 우리가 해온 일들을 높이 평가해 주었다. 덕분에 우리는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점심 식사를 하는 동안 그는 루시 웨스튼라의 어머니가 한동안 심장병으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것을 예상해 왔으며, 그에 따라 모든 사무를 완벽하게 정리해 두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또한 루시

의 아버지가 남긴 특정 상속 재산은 직계 후손이 없기에 이제 가문의 먼 친척 쪽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그 외의 부동산과 동산을 포함한 모든 유산은 아서 홈우드에게 전적으로 상속된다고 전했다. 마콴드 씨는 이 모든 설명을 마친 뒤 말을 이어갔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그런 방식의 유언 집행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유언대로라면 그녀의 딸이 빈털터리가 되거나, 혹은 결혼 문제를 결정할 때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몇 가지 상황을 짚어주기도 했지요. 실제로 저희는 거의 충돌할 정도로 강하게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녀가 저희에게, 자신의 뜻을 그대로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직접 물어볼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당시 저희로서는 그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옳았습니다. 실제로 상황이 흘러가는 논리대로라면, 백 번 중 아흔아홉 번은 저희의 판단이 정확했다는 것이 증명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인정하자면, 이번 경우만큼은 다른 방식의 유언 집행이 오히려 그녀의 뜻을 실현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딸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을 테니까요. 설령 딸이 어머니보다 고작 5분이라도 더 오래 살았더라도, 만약 유언장이 없었다면—그런 상황에서 유언장을 남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딸이 사망했을 때 그 재산은 무유언 상속 상태로 처리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각별한 친구라 해도 고달밍 경은 세상 그 무엇도 주장할 권리가 없었을 것이고, 먼 친척인 상

속인들 또한 그들에게는 생판 남이나 다름없는 사람을 향한 감상적인 이유만으로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신사 여러분, 장담하건대 저는 이번 결과에 정말 기쁩니다. 진심으로 기쁩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으나, 그 거대한 비극 중 자신이 공식적으로 관여한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해서만 기뻐하는 모습은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는 능력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와도 같았다.

그는 오래 머물지 않았다. 다만 오늘 중으로 다시 들러 고달밍 경을 만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방문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우리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비판을 받을 일이 없으리라는 확신을 주었기 때문이다. 아서가 다섯 시에 오기로 되어 있었기에, 우리는 그보다 조금 일찍 죽음의 방을 찾아갔다. 그곳은 정말이지 죽음의 공간 그 자체였다. 어머니와 딸이 모두 그곳에 누워 있었기 때문이다. 장의사는 자신의 직업 정신을 발휘해 상품들을 최대한 보기 좋게 진열해 놓았는데, 그 때문에 방 안에는 장례식장 특유의 분위기가 감돌았고 우리는 순식간에 기운이 빠졌다.

반 헬싱은 방의 배치를 이전 상태로 되돌려 놓으라고 명령했다. 고달밍 경이 곧 도착할 텐데, 약혼녀의 유해만 홀로 안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는 편이 그의 감정에 한결 덜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말이다. 장의사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충격을 받은 듯 보였고, 우리가 전날 밤 떠날 때의 상태로 방을 되돌려 놓으려 애썼다. 덕분에 아서가 도착했을 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슬픔만큼은 최대한 덜어줄 수 있었다.

가여운 사람! 그는 절망적일 만큼 슬프고 무너져 보였다. 굳건하던 남성성마저 거듭되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조금은 위축된 듯했다. 그가 아버지를 진심으로 깊이 사랑했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었다. 하필 이런 시기에 아버지를 여읜 것은 그에게 너무나 쓰라린 충격이었다. 그는 나를 대할 때 평소처럼 따뜻했고, 반 헬싱에게는 더없이 정중했다. 하지만 그에게서 무언가 억누르는 듯한 기색이 느껴지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교수님 역시 그 점을 눈치채고는, 그를 위층으로 모셔오라고 내게 눈짓했다. 나는 그가 그녀와 단둘이 있고 싶어 할 것 같아 방 문 앞에 그를 데려다주고 물러나려 했다. 그러나 그는 내 팔을 붙잡고 안으로 이끌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도 그녀를 사랑했었지, 친구. 그녀가 내게 전부 말해주었네. 자네보다 그녀의 마음속에 더 가까이 자리 잡은 친구는 없었어. 그녀를 위해 자네가 해준 그 모든 일들에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군. 아직은 도저히 생각이 나질 않네…."

그는 갑자기 무너져 내리더니 내 어깨를 껴안고 가슴에 머리를 묻은 채 울부짖었다.

"오, 잭! 잭! 난 이제 어쩌면 좋아! 삶의 모든 기운이 한순간에 빠져나가 버린 것만 같아. 이 넓은 세상에 내가 살아갈 이유가 이제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아."

나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그를 위로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에게는 거창한 말 따위는 필요치 않다. 손을 꽉 맞잡거나, 어깨를 감싸 안거나, 함께 흐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런 몸짓이야말로 남자

의 마음을 달래주는 소중한 위로가 된다. 나는 그의 흐느낌이 잦아들 때까지 가만히 서서 침묵을 지켰다. 그러고는 나직한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다.

"이리 와서 그녀를 좀 봐요."

우리는 함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내가 그녀의 얼굴을 덮고 있던 얇은 천을 걷어 올렸다. 세상에, 그녀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미모는 더욱 눈부시게 피어나는 듯했다. 그 모습에 나는 두려움과 경외심을 동시에 느꼈다. 아서 역시 몸을 떨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마치 열병이라도 앓는 듯한 의구심에 휩싸여 사정없이 흔들렸다. 긴 침묵 끝에, 아서가 힘없는 목소리로 내게 속삭였다.

"잭, 그녀가 정말 죽은 거야?"

나는 슬픈 마음으로 사실이 그렇다고 그를 안심시킨 뒤 말을 이었다. 이런 끔찍한 의구심을 단 한순간이라도 더 품게 두어서는 안 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나는 죽음 이후에 얼굴이 부드러워지거나 심지어 젊은 시절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특히 죽기 직전에 극심하거나 오랜 고통을 겪었다면 더욱 그러하다고 일러주었다.

그 말은 그의 의구심을 완전히 씻어준 듯 보였다. 그는 잠시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루시를 사랑스럽게, 그리고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몸을 돌렸다. 나는 관을 준비해야 하니 이제 작별 인사를 해야 할 때라고 일러주었다. 그는 다시 루시에게 다가가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입을 맞춘 뒤, 몸을 굽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는 자리에서 물러나면서도, 어깨 너머로 루시를 애틋하게 뒤돌아보며 걸어 나왔다.

나는 그를 거실에 남겨두고, 반 헬싱에게 그가 작별 인사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반 헬싱은 주방으로 가서 장의사 일꾼들에게 준비를 진행하고 관 뚜껑을 단단히 닫으라고 일렀다. 그가 방에서 다시 나왔을 때, 나는 아서가 물었던 질문을 그에게 말했고,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놀랍지도 않네. 방금 나 역시 한순간 의심했을 정도니까!"

우리는 모두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불쌍한 아서가 어떻게든 상황을 잘 넘겨보려 애쓰는 모습이 내 눈에는 보였다. 반 헬싱은 식사 내내 침묵을 지켰다. 그러다 우리가 시가에 불을 붙였을 때, 그가 입을 열었다.

"고달밍 경——." 하지만 아서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아니요, 아니요, 제발 그것만은 안 됩니다! 적어도 아직은 아닙니다. 용서하십시오, 선생님. 무례하게 굴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저 상실의 아픔이 너무나 생생해서 그만…"

교수는 아주 다정하게 대답했다.

"그 이름을 부른 건 그저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당신을 '~씨'라고 부를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난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

요, 나의 사랑스러운 청년, 아서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아서는 손을 내밀어 노인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다.

"나를 무엇이라 불러도 좋습니다." 그가 말했다. "다만 언제까지나 당신의 친구라는 호칭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내 가련하고 소중한 이에게 베풀어 주신 당신의 친절에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나갔다. "그녀는 나보다 당신의 선의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셨던 그때, 제가 무례했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부족한 모습을 보였더라도—기억하시지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엄숙하면서도 다정한 태도로 대답했다.

"그때 당신이 나를 온전히 믿기 어려웠다는 걸 압니다. 그런 폭력적인 상황을 믿으려면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당신이 나를 믿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믿을 수 없겠지요. 아직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앞으로도 내가 당신의 신뢰를 바랄 때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서 믿을 수도 없고, 믿어서도 안 되는 순간들이 더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당신이 나를 온전히, 그리고 완벽하게 신뢰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마치 눈부신 햇살이 직접 비치는 것처럼 모든 것을 깨닫게 될 날이 말입니다. 그때가 되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타인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내가 지

키겠노라 맹세한 그녀를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아서가 뜨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을 믿겠습니다. 당신이 아주 고결한 마음을 가진 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고, 또 믿습니다. 당신은 잭의 친구이고, 그녀에게도 친구였으니까요. 그러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교수는 무언가 말을 꺼내려는 듯 헛기침을 두어 번 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지금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웨스튼라 부인이 당신에게 모든 재산을 남겼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 가여운 사람, 그런 생각은 전혀 못 했어요."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니, 당신 뜻대로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루시 양이 남긴 모든 서류와 편지를 제가 읽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믿어 주십시오, 결코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닙니다. 분명 루시 양도 찬성했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서류들을 모두 가져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기 전에 미리 챙겨 두었습니다. 낯선 손길이 닿거나, 낯선 눈길이 글자 너머 그녀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일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허락만 해주

신다면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당장은 당신에게조차 보여드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단 한 글자도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했다가, 때가 되면 모두 돌려드리겠습니다. 무리한 부탁이라는 점 잘 압니다. 하지만 루시를 위해서라면, 제 부탁을 들어주시겠지요?"

아서는 예전의 모습 그대로, 진심을 담아 활기차게 말했다.

"반 헬싱 박사님, 무엇이든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원했을 일이라고 느낍니다. 때가 오기 전까지는 질문으로 박사님을 번거롭게 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노교수는 엄숙하게 입을 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네 말이 맞네. 우리 모두에게 고통이 따르겠지. 하지만 고통이 전부가 아닐 것이며, 이 고통이 마지막도 아닐 걸세. 우리뿐만 아니라 자네도, 특히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자네는 달콤함에 닿기 전에 반드시 쓰디쓴 물을 지나야만 하네. 하지만 우리는 용기를 잃지 말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각자의 의무를 다해야 하네. 그러면 모든 것이 잘될 것이야!"

그날 밤 나는 아서의 방에 있는 소파에서 잠을 청했다. 반 헬싱은 전혀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 그는 마치 집을 순찰이라도 하듯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다. 그는 루시가 관 속에 누워 있는 방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루시의 관 주변에는 야생 마늘꽃이 흩뿌려져 있었는데, 그 꽃향기가 백합과 장미의 향기를 뚫고 밤공기 속으로 무겁고 압도적인 냄새를 풍겨냈다.

미나 하커의 일기.

9월 22일. 엑서터행 열차 안. 조너선은 잠들어 있다.

마지막 일기를 쓴 게 꼭 어제 일만 같은데, 그사이 휘트비와 내 앞의 온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던가. 조너선은 떠났고 그에 관한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그러다 이제 나는 조너선과 결혼했다. 조너선은 변호사가 되었고, 파트너로서 부를 쌓았으며, 자신의 사업을 이끄는 주인이 되었다. 호킨스 씨는 세상을 떠나 땅에 묻혔고, 조너선은 건강을 해칠지도 모를 또 다른 발작을 겪었다. 언젠가 조너선이 내게 이 일에 대해 물어올지도 모른다. 그러니 여기에 전부 적어 두자. 내 속기 실력이 녹슬어 버렸으니—뜻밖의 번영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보라—어쨌든 연습 삼아 다시 다듬어 두는 편이 좋겠다.

장례식은 매우 소박하고도 엄숙하게 치러졌다. 그곳에는 우리와 하인들, 그리고 엑서터에서 온 그의 오랜 친구 한두 명과 런던 대리인, 그리고 통합법률협회 회장인 존 팩스턴 경을 대신해 참석한 신사뿐이었다. 조너선과 나는 손을 맞잡고 서 있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친애하는 친구가 우리 곁을 떠났음을, 우리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우리는 조용히 시내로 돌아와 버스를 타고 하이드 파크 코너로 향했다. 조너선은 잠시 로(Row) 거리에 들르면 내가 흥미로워할 것 같다며 자리를 잡고 앉았다. 하지만 그곳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텅 빈 의자들이 즐비한 모습은 쓸쓸하고 황량하기까지 했다. 그 풍경을 보니 집에 비어 있는 의자가 떠올라,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피카딜리로 걸음을 옮겼다. 조너선은 내가 학교에 가기 전 예전처럼 내 팔을 붙잡고 걸었

다. 나는 그 행동이 다소 부적절하다고 느꼈다. 수년간 다른 소녀들에게 예절과 품위를 가르치다 보면, 스스로도 그 엄격한 규칙에 얽매여 버리는 법이니까. 하지만 상대는 조너선이었고 나의 남편이었으며, 우리를 보는 사람도 없었다. 설령 누군가 본다 해도 상관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걸었다. 길리아노 상점 앞 빅토리아 마차에 앉아 커다란 챙 모자를 쓴 아주 아름다운 소녀를 바라보던 그때였다. 조너선이 내 팔을 아플 정도로 꽉 움켜쥐더니, 나지막이 신음하듯 내뱉었다. "세상에!" 나는 늘 조너선이 걱정된다. 혹시라도 신경쇠약 증세가 다시 나타나 그를 괴롭힐까 두렵기 때문이다. 나는 서둘러 그를 돌아보며 무엇이 그를 놀라게 했는지 물었다.

그는 안색이 무척 창백했다. 공포와 경악이 반반씩 뒤섞인 표정으로 키가 크고 마른 남자를 응시하는 그의 두 눈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했다. 그 남자는 매부리코에 검은 콧수염과 뾰족한 턱수염을 기른 모습이었으며, 그 역시 그 예쁜 소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남자는 소녀에게 너무 몰두한 나머지 우리 둘을 전혀 보지 못했고, 덕분에 나는 그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다. 그의 얼굴은 결코 선해 보이지 않았다. 인상은 완고하고 잔인했으며, 육욕적인 기색이 역력했다. 입술이 워낙 붉어서 더욱 하얗게 도드라져 보이는 커다란 흰 치아는 마치 짐승의 것처럼 뾰족했다. 조너선은 그가 눈치챌까 봐 겁이 날 정도로 계속해서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남자의 인상이 워낙 사납고 불쾌해 보여서, 혹여나 그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까 봐 걱정될 정도였다. 나는 조너선에게 왜 그렇게 당황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분명 내가 상황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이렇게 대답했다.

"저 사람이 누군지 알겠어?"

"아니에요, 여보." 내가 말했다. "그를 몰라요. 대체 누구인가요?" 그의 대답은 나를 충격과 전율에 빠뜨린 듯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누구에게, 즉 미나에게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사람이야!"

가여운 그 사람은 분명 무언가에 겁에 질려 있었다. 아주 심하게 겁에 질린 모습이었다. 내가 곁에서 부축하며 지탱해 주지 않았다면, 그는 그대로 주저앉았을 것이라 확신한다. 그는 계속해서 멍하니 응시했다. 한 남자가 작은 꾸러미를 들고 가게에서 나와 여인에게 건넸고, 여인은 곧 마차를 타고 떠났다. 그 검은 사내는 여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마차가 피카딜리로 향하자 그도 같은 방향으로 따라가더니, 한 섬 마차를 한 대 불러 세웠다. 조너선은 그 남자의 뒷모습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마치 혼잣말을 하듯 이렇게 말했다.

"그 백작인 것 같아요. 하지만 훨씬 젊어졌어요. 세상에, 만약 정말 그렇다면! 오, 신이시여! 나의 하나님! 제발 알게 해주소서! 제발 알게 해주소서!"

그는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어서, 질문을 던져 그 화제를 계속 이어가는 것조차 두려울 정도였다. 그래서 나는 침묵을 지켰다. 나는 조용히 그를 데리고 자리를 옮겼고, 그는 내 팔을 붙잡은 채 순순히 따라왔다. 우리는 조금 더 걷다가 그린 파크로 들어가 잠시 앉았다. 가을치고

는 더운 날이었기에, 그늘진 곳에 편안한 벤치가 있었다. 조너선은 몇 분 동안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더니,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조용히 잠이 들었다. 그에게는 잠을 자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기에 나는 그를 깨우지 않았다. 약 20분쯤 지나 그가 깨어났고, 아주 쾌활한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아니, 미나, 내가 잠들었었군! 아, 무례하게 굴어서 정말 미안하오. 자, 어서 갑시다. 어디 가서 차라도 한잔합시다."

그는 분명 그 어두운 이방인에 대한 기억을 모두 잊은 듯했다. 병세가 깊어지면서, 이 사건이 일깨워주었던 모든 기억마저 잊어버린 모양이었다. 나는 그가 이렇게 자꾸 망각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 걱정된다. 이런 현상이 뇌에 손상을 입히거나, 이미 입은 손상을 악화시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에게 직접 물어봐서는 안 된다. 도리어 해가 될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나는 그가 해외에서 겪었던 일들을 어떻게든 알아내야만 한다.

이제는 그 꾸러미를 열어 무엇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조너선, 내가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당신이 용서해 줄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건 오직 당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 * * * *

나중에.--모든 면에서 슬픈 귀향이었다. 우리에게 그토록 친절했던 소중한 영혼이 떠나 집안은 텅 비어 버렸고, 조너선은 병세가 약간 재발하여 여전히 안색이 창백하고 어지럼증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이

제, 반 헬싱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를 이로부터 전보 한 통이 도착했다.

"웨스튼라 부인이 닷새 전에 세상을 떠났고, 루시는 그저께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무척 슬퍼하시겠지요. 두 사람 모두 오늘 매장했습니다."

오, 이 짧은 글귀에 얼마나 큰 슬픔이 담겨 있는가! 가여운 웨스튼라 부인! 가여운 루시! 떠나버렸구나, 영영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버렸어! 그리고 가여운 아서, 그토록 달콤한 존재를 삶에서 잃게 된 아서는 또 얼마나 가여운가! 우리가 이 시련을 견뎌낼 수 있도록 신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길.

수어드 박사의 일기.

9월 22일. --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아서는 링으로 돌아갔고, 퀸시 모리스도 함께 데려갔다. 퀸시는 정말 멋진 친구다! 내 진심으로 믿건대, 그는 루시의 죽음 앞에서 우리 중 누구 못지않게 고통스러워했다. 하지만 그는 마치 강인한 바이킹처럼 그 시련을 견뎌냈다. 미국이 앞으로도 저런 인물들을 계속 배출할 수 있다면, 미국은 진정 세계적인 강대국이 될 것이다.

반 헬싱은 여정을 준비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그는 오늘 밤 암스테르담으로 떠나지만, 내일 밤에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직접 가서 처리해야 할 몇 가지 준비 사항이 있다고 한다. 돌아오면 형편이 닿는 대로 우리 집에 머물 계획이다. 그는 런던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 시

간이 좀 걸릴지도 모른다고 했다. 가여운 노인! 지난 한 주 동안 겪은 긴장이 그 철인 같은 강인함마저 무너뜨린 것은 아닐까 두렵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나는 그가 스스로를 얼마나 처절하게 억누르고 있는지 볼 수 있었다.

모든 절차가 끝난 뒤, 우리는 아서의 곁에 서 있었다. 가여운 아서는 루시의 혈관에 자신의 피를 수혈했던 그 수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때 반 헬싱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다시 자줏빛으로 변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아서는 그 수술 이후로 마치 두 사람이 정말로 결혼한 것 같으며,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녀가 자신의 아내라고 느낀다고 말했다. 우리 중 누구도 다른 수술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결코 꺼내지 않을 것이다.

아서와 퀸시는 함께 역으로 떠났고, 반 헬싱과 나는 이곳으로 돌아왔다. 마차 안에 우리 둘만 남게 된 순간, 그는 참지 못하고 히스테리 증세를 보였다. 그 후 그는 내게 그것이 히스테리가 아니었다고 부인하며, 그저 너무나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유머 감각이 터져 나온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눈물을 흘릴 때까지 웃어댔고, 나는 혹여나 누군가 우리를 보고 오해할까 봐 서둘러 마차 블라인드를 내렸다. 그러다 그는 울음을 터뜨렸고, 다시 웃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여자처럼 웃다가 울기를 반복했다. 나는 그 상황에서 여인을 대하듯 엄격하게 대하려 노력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신경의 강약이 나타나는 방식에 있어 남녀는 참으로 다르구나!

이윽고 그의 표정이 다시 엄숙하고 단호해졌을 때, 나는 왜 이런 상황에서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의 대답은 논리적이면서도 강렬하고, 신비로웠다. 참으로 그다운 답변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 친구 존,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웃고 있다고 해서 슬프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보세요, 웃음이 내 숨을 막을 때조차 나는 울었답니다. 하지만 내가 운다고 해서 내가 온통 슬픔에 잠겨 있다고 생각하지는 말아 주세요. 웃음은 그때도 어김없이 찾아오니까요. 당신의 문을 두드리며 '들어가도 될까요?'라고 묻는 웃음은 진짜 웃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세요. 아니에요! 웃음은 왕이라서, 자신이 원할 때 원하시는 방식으로 찾아온답니다. 누구에게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적절한 때를 고르지도 않지요. 그저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할 뿐이에요.

보세요, 나는 그 너무나 사랑스러운 어린 소녀를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슬퍼하고 있어요. 비록 내가 늙고 지쳤을지라도 그녀를 위해 내 피를 내어주고, 내 시간과 기술, 그리고 잠까지 바치고 있지요. 그녀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다른 환자들의 필요를 뒤로 미루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나는 그녀의 무덤 앞에서 웃을 수 있어요. 묘지기의 삽에서 흙이 그녀의 관 위로 떨어지며 내 심장에 '툭, 툭!' 소리를 낼 때조차 웃을 수 있답니다. 그 소리에 내 뺨에서 피가 빠져나갈 때까지 말이에요.

나는 그 불쌍한 소년 때문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저 아이와 나이가 같았을 텐데, 머리카락과 눈매가 꼭 내 아들

같아서 참으로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이제 내가 왜 그 아이를 그토록 사랑하는지 알겠지요? 하지만 그 아이가 내 남편의 마음을 찌르는 말을 해서, 내 아버지의 마음이 그 어떤 사람에게도 느껴보지 못한 갈망을 느낄 때조차—친구 존, 당신과는 부자 관계보다 경험이 더 대등하니 당신에게도 느끼지 못할 갈망을 말이에요—그 순간에도 웃음의 왕은 내게 찾아와 귓가에 고함을 지르고 포효한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요. 그러면 피가 다시 뺨으로 솟구쳐 올라와, 그가 가져온 햇살을 내 얼굴에 전해주지요.

오, 친구 존, 세상은 참으로 이상하고 슬픈 곳이에요. 비극과 고통, 그리고 시련으로 가득 찬 곳이지요. 하지만 웃음의 왕이 오면,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이 연주하는 곡조에 맞춰 춤추게 만들어요. 피 흘리는 심장도, 묘지의 마른 뼈들도, 떨어질 때 타오르는 눈물조차도, 그 웃음기 없는 입으로 만들어내는 음악에 맞춰 모두 함께 춤을 춘답니다. 그리고 내 말을 믿어주세요, 친구 존, 그가 찾아오는 것은 참으로 선하고 다정한 일이에요.

아, 우리 남녀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팽팽한 밧줄과 같아요. 그러다 눈물이 흐르지요. 밧줄 위에 내리는 비처럼, 눈물은 우리를 지탱해 주지만, 때로는 그 긴장이 너무 커져서 우리가 끊어져 버리기도 해요. 하지만 웃음의 왕은 햇살처럼 찾아와 그 긴장을 다시 완화해 준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든, 다시 삶의 무게를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의 생각을 못 본 체하며 상처를 주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가 왜 웃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에 나는 이유를 물었다. 내 질문에 대답하는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엄숙해졌고, 그는 아까와는 전혀 다른 어조로 말했다.

"오, 이 모든 상황이 참으로 비극적인 역설이었습니다. 꽃으로 화사하게 장식된 저토록 아름다운 여인이라니요. 살아있는 사람처럼 고운 모습이라, 우리는 하나둘씩 그녀가 정말 죽은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그 외딴 묘지, 그토록 근사한 대리석 묘소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 또한 사랑했던 어머니와 함께, 수많은 친족이 잠든 그곳에 말입니다. 성스러운 종소리는 '댕, 댕, 댕' 하고 슬프고도 느릿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천사의 흰 옷을 입은 성직자들은 경전을 읽는 척했지만, 사실 그들의 시선은 줄곧 책장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녀는 죽었습니다. 그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수님, 정말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말했다. "그 모든 상황에서 웃을 만한 구석을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 오히려 문제가 전보다 더 까다로워진 것 같습니다. 설령 장례 예식이 우스꽝스러웠다 한들, 불쌍한 아트의 고통은 어쩌고요? 그 친구는 정말이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상태였다고요."

"바로 그거예요. 그가 말하지 않았나요? 자신의 피를 그녀의 혈관에 수혈함으로써, 그녀를 진정으로 자신의 신부로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요, 그에게는 참으로 달콤하고 위안이 되는 생각이었죠."

"정말 그렇습니다. 하지만 친구 존, 거기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허허! 그렇다면 이 더없이 사랑스러운 처녀는 일처다부제의 여인이 되는 셈이고, 나에게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지만 교회법상으로는 여전히 살아있는, 그러나 정신은 온전히 나가버린 불쌍한 아내를 둔 나는—이제 아내라 할 수 없게 된 그 여자에게 여전히 충실한 남편인 나조차—중혼자가 되는 셈이지요."

"그게 대체 어디가 웃기다는 건지 저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런 말을 내뱉는 그가 딱히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내 팔 위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친구 존, 내가 당신을 아프게 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다른 이들에게는 상처가 될까 봐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직 믿을 수 있는 오랜 친구인 당신에게만 속마음을 보였을 뿐이지요. 내가 웃고 싶어 할 때 당신이 내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면, 웃음이 터져 나왔을 때 그 마음을 읽어줄 수 있었다면, 그리고 이제 웃음의 왕이 왕관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챙겨 떠나버린 지금—그는 나에게서 아주 멀리, 아주 오랫동안 떠나가 버렸으니까요—그 마음을 알아줄 수 있다면, 당신은 아마 그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가엾게 여겨줄지도 모릅니다."

그의 말투에 담긴 다정함에 마음이 움직인 나는, 어째서 그러냐고 물었다.

"내가 알고 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 앞으로 수많은 긴 날 동안, 고독이 마치 먹구름을 품은 날개처럼 우리 지붕 위를 맴돌 것이다. 루시는 북적이는 런던을 떠나, 외딴 교회 묘지에 자리한 가문의 품격 있는 묘실에 잠들었다. 그곳은 공기가 맑고, 햄스테드 언덕 너머로 해가 떠오르며, 들꽃들이 저절로 피어나는 곳이다.

그리하여 나는 이 일기를 끝맺을 수 있다. 내가 또 다른 일기를 시작하게 될지는 오직 신만이 아신다. 설령 다시 쓰게 되거나, 이 일기를 다시 펼치게 된다 해도, 그것은 지금과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주제를 다루기 위함일 것이다. 내 삶의 낭만적인 이야기가 담긴 이 일기의 끝자락에서, 다시 생업의 실타래를 잡으러 돌아가기 전에, 나는 슬프고도 희망 없는 마음으로 이렇게 적는다,

끝.

"웨스트민스터 가제트," 9월 25일.

햄스테드의 미스터리

현재 햄프스테드 인근에서는 일련의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며 소란을 빚고 있다. 이 사건들은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켄싱턴의 공포'나 '칼부림을 저지른 여인', 혹은 '검은 옷의 여인' 사건과 궤를 같이 하는 듯 보인다. 지난 2, 3일 동안, 어린아이들이 집을 나갔다가 길을 잃거나, 히스(Heath)에서 놀다가 돌아오지 않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아

이들이 내놓은 변명에는 공통된 표현이 있었다. 바로 어떤 '예쁜 아주머니(bloofer lady)'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사라진 사실이 확인된 것은 항상 저녁 늦은 시간이었으며, 두 차례는 다음 날 이른 아침이 되어서야 아이들을 찾을 수 있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처음 실종된 아이가 "예쁜 아주머니가 산책하러 가자고 해서 따라갔다"라고 말한 것을 보고, 다른 아이들도 그 말을 귀동냥해 상황에 맞춰 써먹는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요즘 어린아이들이 서로를 속여 꾀어내는 놀이를 즐기는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추측은 꽤 자연스럽다. 한 통신원은 아주 어린 아이들이 '예쁜 아주머니' 흉내를 내는 모습이 정말 우스꽝스럽다고 전해왔다. 그는 우리 신문의 풍자화가들이 실제 모습과 그림을 비교해 본다면 기괴함이 주는 아이러니를 한 수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야외 공연에서 '예쁜 아주머니'가 인기 있는 역할이 된 것은 인간 본성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통신원은 천진난만하게도, 얼굴이 꾀죄죄한 이 꼬마들이 '예쁜 아주머니'인 척하며—심지어 스스로 정말 그렇다고 믿기까지 하는—그 사랑스러운 매력은 명배우 엘런 테리조차 따라올 수 없을 정도라고 적었다.

하지만 이 문제에는 심각한 측면이 있을지도 모른다. 밤사이에 사라진 아이들 중 일부, 아니 사실상 모든 아이의 목에 살짝 찢기거나 다친 상처가 나 있었기 때문이다. 상처의 모양은 쥐나 작은 개가 낸 것처럼 보였다. 상처 하나하나가 그리 중대한 것은 아니었으나, 이 상처들은 공격을 가한 동물이 나름의 체계나 방식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었다. 관할 경찰서에는 햄프스테드 히스 인근에서 길을 잃은 아이들, 특히 아주 어린 아이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근처에 떠돌아다니는 유기견이 없는지 철저히 감시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웨스트민스터 가제트》, 9월 25일.

특별 호.

햄프스테드의 공포.

또 다른 아이가 다쳤다.

'예쁜 아주머니(Bloofer Lady).'

어젯밤 실종된 또 다른 아이에 관한 소식이 방금 들어왔다. 아이는 오늘 오전 늦게야 햄프스테드 히스의 슈터스 힐 근처, 사람의 발길이 다른 곳보다 덜 닿는 가시덤불 아래에서 발견되었다. 아이의 목에는 다른 사건들에서 보였던 것과 똑같은 작은 상처가 나 있었다. 아이는 기력이 몹시 쇠약해 보였고, 몸은 아주 야위어 있었다. 아이 역시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뒤에는, '예쁜 아주머니'에게 홀려 멀리 끌려왔다는 흔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제XIV장

미나 하커의 일기

9월 23일.

조너선은 고통스러운 밤을 보낸 뒤 상태가 좀 나아졌다. 그에게 할 일이 아주 많다는 사실이 참으로 다행이다. 덕분에 그 끔찍한 일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직책에 따른 책임감에 짓눌려 있지 않아도 되니 정말 기쁘다. 나는 그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처신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승승장구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책임을 빈틈없이 감당해 내는 조너선의 모습을 보니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그는 점심을 집에서 먹을 수 없다고 했으니, 늦은 시간까지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을 것이다. 집안일은 다 끝냈으니, 나는 그가 외국에서 쓴 일기를 들고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근 채 읽어야겠다.

9월 24일. 어젯밤에는 도저히 글을 쓸 엄두가 나지 않았다. 조너선이 남긴 그 끔찍한 기록을 읽고 마음이 너무나 어지러웠기 때문이다.

가여운 사람! 그 내용이 사실이든 그저 환상에 불과하든,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과연 그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진실이 담겨 있을지 의문이다. 그가 뇌열에 걸려 그 무시무시한 말들을 써 내려간 것일까, 아니면 정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 그에게 차마 이 화제를 꺼낼 용기가 나지 않으니, 아마 영영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만난 그 남자는 또 어찌 된 일일까! 조너선은 그가 틀림없다고 확신하는 눈치였다. 불쌍한 사람! 아마도 장례식 때문에 마음이 동요하여, 어떤 생각의 흐름에 사로잡혀 과거를 되짚어 본 것이리라. 그는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믿고 있다. 우리 결혼식 날, 그가 이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난다. "잠들었든 깨어 있든, 미쳤든 제정신이든, 다시 그 고통스러운 시간 속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엄중한 의무가 내게 찾아오지 않는 한 말이야."

이 모든 일에는 어딘가 하나의 실타래처럼 이어지는 맥락이 있는 듯하다. 그 공포스러운 백작이 런던으로 오고 있었다니. 만약 그것이 사실이어서, 그가 수백만 인구가 우글거리는 이 런던으로 온다면 어떡해야 할까. 어쩌면 엄중한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질지도 모른다. 만약 그런 일이 닥친다면 우리는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된다.

나는 준비를 갖출 것이다. 당장이라도 타자기를 가져와 기록을 옮겨 적기 시작하겠다. 그러면 필요할 때 언제든 다른 이들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상황이 그렇게 흘러간다면, 내가 준비가 되었을 때 가여운 조너선이 너무 충격을 받지 않도록 내가 대신 말해주겠다. 그가 이 일로 괴로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 조너선이 이 불안감을 완

전히 떨쳐내고 나면, 그가 모든 것을 내게 이야기하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 그때 내가 질문을 던져 사실을 알아내고, 어떻게 하면 그를 위로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아야겠다.

반 헬싱이 하커 부인에게 보내는 편지.

_9월 24일._

(비밀)

"친애하는 부인께—

부디 제 글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루시 웨스튼라 양이 세상을 떠났다는 슬픈 소식을 전해드려야 하는 처지라, 결례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고달링 경의 배려 덕분에 루시의 편지와 서류들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루어야 할 사안들이 매우 중대하고도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그 서류들 속에서 당신이 보내신 편지들을 보았습니다. 두 분이 얼마나 각별한 친구였는지, 그리고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오, 미나 부인, 그 사랑을 담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다른 이들을 위해, 즉 커다란 잘못을 바로잡고 당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끔찍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이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당신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저를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존 수어드 박사와 고달링 경(루시 양의 아서 경입니다)의 친구입니다. 지금은 이 모든 일을 비밀로 유지해야만 합니다. 당신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언제 어디로 가면 좋을지 알려주십시오. 즉시 엑서터로 찾아가겠습니다. 부

인,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불쌍한 루시에게 보내신 편지들을 읽으며 당신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 그리고 당신의 남편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부디, 가능하다면 남편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말아 주십시오. 자칫 해가 될까 두렵습니다.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며, 저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 헬싱."

전보, 하커 부인이 반 헬싱에게.

9월 25일. — 가능하시면 오늘 10시 15분 기차로 와 주세요. 언제 찾아오시든 뵙겠습니다.

"빌헬미나 하커."

미나 하커의 일기.

9월 25일.

반 헬싱 박사가 방문할 날이 다가오니 걷잡을 수 없이 마음이 설렌다. 왠지 모르게 그의 방문이 조너선의 그 비극적인 경험에 대해 어떤 실마리라도 던져줄 것만 같기 때문이다. 박사는 불쌍하고 사랑스러운 루시가 마지막 병을 앓을 때 곁에서 돌보았으니, 루시에 관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해줄 수 있을 것이다. 박사가 오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 조너선 때문이 아니라, 루시의 몽유병에 관해서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영영 진실을 알 수 없게 되는 것일까! 내가 정말 바보 같다. 그 끔찍한 일기 내용이 내 상상력을 사로잡아 모든 것을 그 불길한 색채로 물들이고 있다. 당연히 루시에 관한 일이다. 가여운 루시에게 그 증상이 다시 나타난 것이고, 그 절벽에서의 끔찍한 밤이 루시를 병들게 했을 것이 분명하다. 내 앞가림을 하느라 루시가 그 후에 얼마나 아팠는지를 거의 잊고 있었다. 루시는 절벽에서 겪은 몽유병 소동을 박사에게 이야기했을 것이고, 내가 그 일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도 말했을 것이다. 그래서 박사는 자신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루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내게 말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웨스튼라 부인에게는 그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 잘한 결정이었기를 바랄 뿐이다. 나의 어떤 행동이, 설령 아무것도 하지 않은 방관이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가여운 루시가 해를 입게 된다면 나는 결코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반 헬싱 박사가 나를 탓하지 않기를 바란다. 최근 들어 너무나 많은 고통과 불안을 겪어온 터라, 지금은 더 이상 아무것도 견뎌낼 힘이 없다.

가끔은 울음을 터뜨리는 것도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마치 비가 내리면 공기가 맑아지는 것처럼 말이다. 어제 일기를 읽은 것 때문에 마음이 어지러워진 모양이다. 게다가 오늘 아침에는 조너선이 꼬박 하루 낮밤을 나와 떨어져 지내려고 집을 나섰다. 결혼한 이후 처음으로 떨어져 있게 된 것이다. 그 다정한 사람이 부디 몸조심하기를, 그리고 그를 괴롭힐 만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금은 두 시다. 곧 의사가 도착할 것이다. 박사가 먼저 묻지 않는 한, 조너선의 일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한다. 내 일기를 미리 타자로 쳐 두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혹시라도 박사가 루시에 대해 묻는다면, 일기를 건네주면 될 테니까. 그러면 구구절절 질문을 주고받는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이다.

* * * * *

나중에.--그가 왔다가 떠났다. 아, 정말 기묘한 만남이었다. 머릿속이 어지러워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기분이다. 이 모든 일이 정말 사실일 수 있을까? 아니, 일부분이라도 가능할까? 만약 내가 조너선의 일기를 먼저 읽지 않았더라면, 이런 가능성조차 결코 믿지 못했을 것이다. 가엾고 가엾은, 나의 사랑하는 조너선!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부디 신께서 보살피셔서, 이 모든 일이 그를 다시 괴롭히지 않기를. 내가 그를 지켜주려 노력하겠지만, 어쩌면 이 사실이 그에게 위안과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비록 그 결과가 끔찍하고 무시무시할지라도, 자신의 눈과 귀, 그리고 정신이 자신을 속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진실임을 확실히 아는 것이 말이다. 어쩌면 그를 괴롭히는 것은 의구심일지도 모른다. 그 의구심이 사라진다면, 그것이 깨어 있을 때의 일이든 꿈속의 일이든 무엇이 진실로 밝혀지든 간에, 그는 더 안심하고 이 충격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반 헬싱 박사는 분명 영리할 뿐만 아니라 선한 사람임이 틀림없다. 아서의 친구이자 수어드 박사의 친구이기도 하고, 루시를 돌보기 위해 네덜란드에서 여기까지 그를 데려왔으니 말이다. 그를 직접 뵈니, 그는 참으로 선하고 친절하며 고결한 성품을 지닌 분이라는 게 느껴졌다. 내일 그가 오면 조너

선에 대해 물어봐야겠다. 그러고 나면, 부디 신의 은총으로 이 모든 슬픔과 불안이 좋은 결말로 이어지기를. 예전에 나는 인터뷰 기사를 쓰는 일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었다. 조너선의 친구인 '엑서터 뉴스'의 기자가 말하기를, 그런 일에는 기억력이 전부라고 했다. 나중에 내용을 다듬어야 할지언정, 말하는 모든 단어를 거의 그대로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 아주 보기 드문 인터뷰가 있다. 나는 이 내용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기록해 보려 한다.

노크 소리가 들린 것은 2시 30분이었다. 나는 마음을 굳게 다잡고 기다렸다. 몇 분 뒤, 메리가 문을 열며 말했다. "반 헬싱 박사님이십니다."

나는 일어나 정중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그는 나를 향해 다가왔다. 그는 보통 체격에 골격이 튼튼한 사내였다. 넓고 깊은 가슴 위로 어깨가 당당하게 펴져 있었고, 목은 마치 몸통 위에 머리가 놓인 것처럼 균형 있게 자리 잡고 있었다. 머리의 자세만 보아도 사색에 잠긴 듯한 지성과 강인한 힘이 즉각적으로 느껴졌다. 머리는 품격이 있었고, 크기도 적당히 컸으며, 귀 뒷부분이 넓고 큼직했다. 면도한 얼굴에는 각진 턱과 크고 결연하며 표정이 풍부한 입술, 그리고 제법 곧게 뻗은 코가 보였다. 코는 적당한 크기였으나 콧망울이 매우 민첩하고 예민했는데, 짙고 숱 많은 눈썹이 아래로 내려오거나 입술을 굳게 다물 때면 콧망울이 벌어지는 듯했다. 이마는 넓고 매끄러웠다. 처음에는 거의 수직으로 솟아 있다가,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융기 위로 완만하게 뒤로 기울어지는 형태였다. 이마가 워낙 넓고 시원해서 붉은 머리카락이 이마를 덮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뒤쪽과 옆쪽으로 흘러내렸다. 크고 짙

은 푸른 눈은 양옆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그의 기분에 따라 영민하고 부드러워지기도 했고 때로는 엄격해지기도 했다. 그가 나에게 말했다.

"하커 부인이시죠?" 내가 고개를 숙여 긍정의 뜻을 표했다.

"당신이 바로 미나 머리 양이셨고요?" 내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했다.

"내가 찾아온 건 그 가여운 루시 웨스튼라의 친구인 미나 머리 양을 만나기 위해서라오. 미나 부인,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죽은 이 때문이라오."

"선생님," 내가 말했다. "루시 웨스튼라의 친구이자 조력자이시라면, 그보다 더 저를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은 없을 겁니다." 나는 손을 내밀었다. 그는 내 손을 맞잡으며 다정하게 말했다.

"오, 미나 부인, 그 가련한 백합 같은 소녀의 친구라면 분명 선한 분일 거라 생각했습니다만, 미처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건네며 말을 마쳤다. 나는 그가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는지 물었다. 그러자 그는 즉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루시 양에게 보낸 편지들을 읽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어디에라도 물어봐야만 했고, 물어볼 사람이 당신뿐이었습니다. 당신이 휘트비에서 루시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루시는 가끔 일기를 쓰곤 했습니다. 미나 부인,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당신이 떠난 뒤에 쓰기 시작한 것이며, 당신을 본떠서 쓴 것이니까요. 그 일기에는

루시가 몽유병을 앓았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루시는 그 과정에서 당신이 자신을 구해주었다고 적어 두었더군요. 저는 큰 혼란에 빠졌고, 결국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당신이 기억하는 모든 것을 제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반 헬싱 박사님께 이 일에 관한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사실관계나 세부 사항을 기억하는 능력이 뛰어나시군요? 젊은 여성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아닙니다, 박사님. 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모두 기록해 두었습니다. 원하신다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오, 미나 부인,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를 조금이나마 당황하게 만들고 싶은 유혹을 떨칠 수 없었다. 입안에 여전히 남아 있는 원죄의 사과 맛 때문인지 모르겠다. 나는 그에게 속기 일기를 건네주었다. 그는 감사 인사를 담아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일기를 받아 들고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읽어봐도 될까요?"

"원하신다면요." 나는 최대한 조신하게 대답했다. 그가 그것을 펼쳐 보더니, 찰나의 순간 얼굴빛이 어두워졌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오, 당신은 정말 영리한 여인이군요!" 그가 말했다. "조너선 씨가 참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라는 건 진작 알고 있었습니다만, 보십시오. 그의 아내는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를 영광스럽게 여겨, 저 대신 이것 좀 읽어주실 수 없겠습니까? 아아, 저는 속기법을 모른답니다." 그사이 나의 작은 농담은 끝이 났고, 나는 내 자신이 조금 부끄러워졌다. 그래서 바느질 바구니에서 타자기로 친 복사본을 꺼내 그에게 건네주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말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물어보고 싶은 건 사랑하는 루시의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신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타자기로 미리 쳐두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받아 들더니 눈을 반짝였다. "정말 친절하시군요." 그가 말했다. "이제 읽어봐도 될까요? 다 읽고 나면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생길지도 몰라서요."

"그럼요, 얼마든지요." 내가 말했다. "제가 점심을 주문하는 동안 편하게 읽어 보세요. 그러고 나서 식사하면서 궁금한 걸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더니, 빛을 등지고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아 서류에 몰두했다. 나는 그가 방해받지 않도록 점심 식사 준비를 살피러 자리를 비웠다.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흥분으로 얼굴이 벌

걷게 달아오른 채 방 안을 다급히 서성이고 있었다. 그는 내게 달려와 내 두 손을 덥석 잡았다.

"오, 미나 부인," 그가 말했다. "제가 부인께 진 빚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서류는 제게 한 줄기 햇살과도 같습니다. 이 서류가 제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쏟아지는 빛에 눈이 멀어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지만, 빛 뒤로는 매번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부인께서는 결코, 아니 이해하실 수 없겠지요. 오, 부인은 참으로 영리한 여성이십니다. 부인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는 매우 엄숙하게 말을 이었다. "만약 에이브러햄 반 헬싱이 부인이나 부인의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부디 제게 알려주십시오. 친구로서 부인을 도울 수 있다면 제게는 더없는 기쁨이자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친구로서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모든 것,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오직 부인과 부인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삶에는 어둠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부인은 그 빛 중 하나입니다. 부인은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것이며, 부인의 남편 또한 부인을 통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사님, 저를 너무 과하게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 잘 모르시면서 그러시는 거고요."

"내가 당신을 모르다니요! 평생을 사람을 연구하며 살아온 노인인 내가, 뇌와 그 기능, 그리고 거기서 비롯되는 모든 현상을 전문적으로 공부해 온 내가 말입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정성껏 써 내려간 일기장도 읽었습니다. 문장마다 진실함이 묻어나는 그 일기를 말입니다. 가

여운 루시에게 보낸, 당신의 결혼과 신뢰가 담긴 그 달콤한 편지까지 읽은 내가, 당신을 모르다니요! 오, 미나 부인, 선한 여인들은 평생토록, 낮과 밤과 매 순간을 가리지 않고 천사조차 읽을 수 있을 만큼 진실한 이야기들을 쏟아내곤 합니다. 그리고 알고자 하는 갈망을 품은 우리 남자들에게는 천사의 눈과 같은 통찰력이 깃들어 있지요. 당신의 남편은 고결한 성품을 지녔을 것이고, 당신 또한 고결한 사람일 겁니다. 신뢰를 할 줄 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고결하다는 증거니까요. 비열한 본성을 지닌 사람에게는 남을 신뢰하는 마음이 깃들 수 없는 법이니까요. 자, 당신의 남편에 대해 말해 주십시오. 그는 좀 어떻습니까? 열은 완전히 내렸나요? 기운을 차리고 건강해졌습니까?"

그가 조너선에 대해 물을 기회를 준 것이라 생각한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거의 회복되었으나, 호킨스 씨의 죽음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말을 끊으며 덧붙였다.

"아, 그래요, 알고 있어요, 잘 알아요. 당신이 보낸 지난 두 통의 편지도 다 읽었고요." 나는 말을 이었다.

"그 일이 그를 상심하게 만든 모양입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가 시내에 나갔을 때, 그는 일종의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충격이라니, 그것도 뇌열을 앓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좋지 않군. 대체 어떤 충격을 받았다는 건가?"

"그는 자신이 끔찍한 무언가를 떠올리게 하는 누군가를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무언가가 그의 뇌열을 일으킨 것이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몰려와 나를 집어삼키는 듯했다. 조너선에 대한 가련함, 그가 겪은 공포, 그의 일기에 담긴 그 모든 두려운 미스터리, 그리고 그날 이후 줄곧 나를 괴롭혀 온 불안감이 한데 뒤섞여 휘몰아쳤다. 나는 아마도 정신을 놓았던 모양이다. 무릎을 꿇고 그에게 두 손을 내밀며, 제발 남편을 다시 건강하게 해달라고 애원했으니 말이다. 그는 내 손을 잡고 일으켜 소파에 앉힌 뒤 곁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고는 내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 쥐고는, 아, 정말이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다정하게 내게 말했다.

"제 삶은 황량하고 외롭습니다. 일에만 파묻혀 지내느라 친구를 사귈 여유조차 없었지요. 하지만 친구인 존 수어드의 부름을 받아 이곳에 온 뒤로, 수많은 선한 사람을 만나고 숭고한 인품을 접하며 제 삶의 고독을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외로움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그러니 부디 믿어 주십시오. 저는 당신을 깊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으며, 당신 덕분에 희망을 얻었습니다. 제가 찾는 목적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선한 여성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희망 말입니다. 그들의 삶과 진실함은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게 훌륭한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 참으로 기쁩니다. 만약 당신의 남편이 고통받고 있다면, 그 고통은 제 연구와 경험의 영역 안에 있으니까요. 당신의 남편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

을 기꺼이 다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가 강인하고 당당한 남성으로 회복하고, 당신의 삶 또한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제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너무 신경을 쓰셔서 마음이 몹시 어지러운 모양이군요. 남편 조너선이 당신의 창백한 얼굴을 본다면 마음 아파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는 것만큼 그에게 좋지 않은 일은 없으니까요. 그러니 남편을 위해서라도 제발 식사를 하시고 미소를 지어 주세요. 루시에 대해서는 이미 다 들었으니, 당신을 힘들게 할까 봐 더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겠습니다. 오늘 밤은 엑서터에서 머물며 당신이 해준 이야기들을 깊이 생각해보려 합니다. 생각을 정리한 뒤에, 괜찮다면 몇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조너선 남편의 상태에 대해서도 당신이 아는 한 최대한 들려주십시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우선은 식사부터 하세요. 그다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점심을 먹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을 때, 그가 내게 말했다.

"자, 이제 그 사람에 대해 전부 말해 보게."

이 위대하고 박식한 분에게 입을 열려니, 그가 나를 나약한 바보로 여기지는 않을지, 그리고 조너선 하커를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지는 않을지 두려움이 앞섰다. 일기장에 적힌 내용들이 워낙 기이했으니 말이다. 나는 선뜻 말을 잇지 못하고 망설였다. 하지만 그는 무척이나 다정하고 친절했다. 도움을 주겠노라 약속하기도 했고, 나는 그를 신뢰했기에 이렇게 말했다.

"반 헬싱 박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너무나 기이해서 저나 제 남편을 비웃으시면 안 돼요. 어제부터 의구심 때문에 열병을 앓는 듯한 기분이었거든요. 부디 저를 너그럽게 대해 주세요. 제가 아주 이상한 일들을 조금이라도 믿었다고 해서 저를 어리석게 여기지 마시고요." 그가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그는 말뿐만 아니라 태도로도 나를 안심시켜 주었다.

"오, 부인, 제가 이곳에서 마주한 이 일이 얼마나 기이한지 당신이 알기라도 한다면, 분명 웃음을 터뜨릴 사람은 바로 당신일 겁니다. 저는 이제 아무리 이상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편견 없이 마음을 열어 두려 애써 왔지요. 제 마음을 닫게 만드는 건 일상의 평범한 일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이하고 비범한 일들, 그러니까 그것이 광기인지 제정신인지조차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야말로 제 마음을 닫게 만들곤 합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수천 번이라도 감사드리고 싶어요! 덕분에 마음의 짐을 크게 덜었어요. 괜찮으시다면 읽어보실 만한 글을 하나 드릴게요. 분량은 좀 길지만, 타자기로 다 쳐 두었답니다. 그 글을 읽어보면 저와 조너선의 고민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조너선이 타지에서 쓴 일기를 옮겨 적은 것인데, 그곳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담겨 있어요.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는 두렵네요. 직접 읽어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만날 때,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셨으면 해요."

"약속하죠." 내가 서류를 건네자 그가 말했다. "내일 아침이 되는 대로, 허락하신다면 최대한 빨리 당신과 당신의 남편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조너선은 11시 반에 도착할 거예요. 그러니 박사님도 점심때 저희와 함께 오셔서 그이를 만나주세요. 3시 34분에 출발하는 급행열차를 타시면 8시 전에는 패딩턴 역에 도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는 내가 열차 시간을 즉석에서 꿰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란 눈치였다. 하지만 그는 내가 엑서터를 오가는 모든 열차 시간표를 미리 외워 두었다는 사실은 모른다. 조너선이 혹시라도 서둘러야 할 상황이 생기면 내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말이다.

그는 서류들을 챙겨 떠나버렸고, 나는 여기 앉아 생각에 잠겨 있다. 무엇을 생각하는지 나조차 알 수 없는 생각들이다.

* * * * *

(친필 편지) 반 헬싱이 하커 부인에게.

_9월 25일, 6시._

"친애하는 미나 부인께—

"당신 남편이 쓴 일기를 아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편히 주무셔도 됩니다. 내용이 기괴하고 무시무시하긴 하지만, 그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제 목숨을 걸고 보증하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끔찍한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당신과 당신 남편에게는 두려

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는 아주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 사람을 겪어본 경험으로 말씀드리건대, 그 험한 벽을 타고 내려가 그 방에 들어간 사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그렇게 행동한 사람은 결코 충격 때문에 영구적인 정신적 상처를 입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정신과 심장은 아주 건강합니다. 그를 직접 만나기도 전이지만, 이 점만큼은 제가 맹세하겠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놓으세요. 그에게 물어볼 다른 것들도 아주 많으니까요. 오늘 당신을 만나러 오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사실을 알게 되어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 머릿속이 어지러우니, 이제 생각을 좀 정리해야겠습니다."

가장 충실한 마음을 담아,

"에이브러햄 반 헬싱."

편지, 하커 부인이 반 헬싱에게.

_9월 25일, 오후 6시 30분_

"친애하는 반 헬싱 박사님께——

친절한 편지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마음의 짐을 크게 덜었어요. 하지만 만약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세상에는 참으로 무서운 일들이 많군요. 그 남자, 그 괴물이 정말로 런던에 있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요! 생각만 해도 두려워요.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와중에도 조너선에게서 전보가 왔어요. 오늘 밤 6시 25분에 론체스턴을 떠나 10시 18분에 이곳에 도착할 거라고 하네요. 덕분에 오늘 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그러니 점심 식사 대신, 혹시 너무 이르지 않다면 아침 8시에 우리 집으로 식사하러 와줄 수 있나요? 만약 서둘러야 한다면 10시 30분 기차를 타고 떠나면 돼요. 그 기차를 타면 2시 35분에는 패딩턴 역에 도착할 거예요. 답장은 따로 안 해도 돼요. 아무런 소식이 없으면 아침 식사에 오겠다는 뜻으로 알게요.

"부디 저를 믿어 주세요,

당신의 충실하고 감사하는 친구로부터,

"미나 하커."

조너선 하커의 일기.

9월 26일.

다시는 이 일기에 글을 쓰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때가 왔다. 어젯밤 집에 돌아오니 미나가 저녁 식사를 준비해 두었다. 식사를 마치고 미나는 반 헬싱이 방문했다는 사실과, 그녀가 베껴 쓴 일기 두 권을 그에게 건네주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또한 그녀가 나를 얼마나 걱정했는지도 말해주었다. 미나는 반 헬싱 박사의 편지를 보여주며, 내가 기록한 모든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다. 나를 무너뜨렸던 것은 이 모든 일이 실재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었다. 그 의심 때문에 나는 무력감과 어둠 속에 갇힌 듯한 기분을 느꼈고, 모든 것을 불신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 드라큘라 백작조차 두렵지 않다. 결국 백작은 런던에 도착하려는 계획을 성공시킨 셈이고, 내가 본 존재도 바로 그였다. 그는 어떻게 더 젊어진 것일까? 만약 그가 미나의 말과 같은 존재라면, 반 헬싱이야말로 그의 정체를 밝혀내고 끝까지 추적할 적임자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앉아 모든 일을 되짚어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금 미나는 옷을 갈아입고 있다. 나는 몇 분 뒤에 호텔로 가서 반 헬싱을 데려오겠다.

내 생각에 그는 나를 보고 놀란 듯했다. 내가 그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통성명을 하자, 그는 내 어깨를 붙잡고는 내 얼굴을 빛이 드는 쪽으로 돌려 세웠다. 그러고는 나를 날카롭게 살피더니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미나 부인께서 말씀하시길, 당신이 몸이 좋지 않고 충격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인상 좋고 강인한 얼굴을 한 이 노인이 내 아내를 '미나 부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무척이나 재미있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몸이 좀 안 좋았어요. 큰 충격을 받기도 했고요. 하지만 당신 덕분에 벌써 다 나았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어젯밤 미나에게 보낸 당신의 편지를 읽고 나서였어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더니,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심지어 내 감각이 보여주는 증거조차 믿을 수 없게 되었죠.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늘 해오던 일에 매달려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일상적인 습관조차 더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나는 나 자신조차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박사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된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당신은 모를 겁니다. 설령 자기 자신조차 의심하게 되는 그 기분을요. 아뇨, 당신은 모를 거예요. 당신처럼 저렇게 짙은 눈썹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더욱 모를 겁니다." 그는 기분이 좋아진 듯 웃으며 말했다.

"허허, 그러니까 당신이 관상가라는 말이군요! 이곳에 머무는 매 시간이 새로운 배움의 연속입니다. 당신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 시간이 참으로 즐겁습니다. 아, 선생, 노인의 찬사를 너그럽게 받아주시오. 당신은 참으로 복 받은 사람이야, 현명한 아내를 두었으니 말이오."

그가 미나를 찬양하는 말을 하루 종일 늘어놓는다 해도 나는 기꺼이 듣고 있을 터였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서 있었다.

"그녀는 신의 여인 중 한 명입니다. 우리 남성들과 다른 여성들에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이 존재하며 그 천국의 빛이 이 지상에도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신께서 친히 빚어내신 분이지요. 참으로 진실하고, 달콤하며, 고결합니다. 이기적인 면이라곤 찾아볼 수 없을 만큼요. 회의론과 이기심이 팽배한 이 시대에는 정말 보기 드

문 모습이지요. 그리고 선생님, 가련한 루시 양에게 보낸 편지들을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그중 몇몇 편지에는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기에, 다른 이들의 말을 통해 며칠 전부터 선생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진면목을 보게 된 것은 바로 어젯밤부터입니다. 제게 손을 잡아주시겠습니까? 우리 평생 친구로 지냅시다."

우리는 악수를 나누었다. 그는 어찌나 진지하고 친절한지, 그 모습에 나는 목이 메어올 정도였다.

"이제," 그가 말했다. "도움을 좀 더 청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완수해야 할 중대한 과업이 있는데, 그 시작은 모든 것을 아는 것부터입니다. 당신이 여기서 저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트란실바니아로 떠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중에는 지금과는 다른 종류의 도움을 더 요청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은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보십시오," 내가 말했다. "당신이 하려는 일이 드라큘라 백작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가 엄숙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저는 마음과 영혼을 다해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10시 30분 기차를 타고 가시면 그것들을 읽으실 시간이 없을 테니, 제가 서류 뭉치를 챙겨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셔서 기차 안에서 읽으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나는 그를 역까지 배웅했다. 우리가 작별 인사를 나눌 때, 그가 말했다.

“내가 사람을 보내면 당신도 런던으로 나오시겠지요. 미나 부인도 함께 모시고 말입니다.”

“당신이 원할 때 우리 둘 다 가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나는 그에게 오늘 아침 신문과 어젯밤 런던에서 발행된 신문들을 가져다주었다. 열차가 출발하기를 기다리며 객차 창가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는 신문들을 넘겨보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그의 시선이 신문 한 부에 머물렀다. 색깔을 보니 '웨스트민스터 가제트'였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그는 무언가를 뚫어지게 읽더니, 신음하며 혼잣말을 내뱉었다. "맙소사! 세상에! 벌써! 벌써 이렇게 되다니!" 그 순간 그는 내 존재조차 잊은 듯했다. 마침 기차 경적 소리가 울리며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그는 창밖으로 몸을 내밀어 손을 흔들며 외쳤다. "미나 부인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주시오! 가능한 한 빨리 편지하겠소!"

수어드 박사의 일기.

9월 26일.

정말로 끝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모양이다. "끝"이라고 말한 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나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이 기록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오늘 오후 전까지만 해도 지난 일들을 다시 떠올릴 이유가 전혀 없었다.

렌필드는 사실상 예전만큼이나 제정신으로 돌아온 상태였다. 파리를 다루는 일도 이미 진척이 상당했고, 거미를 다루는 일도 막 시작한 참이라 나를 번거롭게 하지도 않았다. 아서에게서 일요일에 쓴 편지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니 그는 아주 잘 견뎌내고 있는 듯했다. 퀸시 모리스가 그와 함께 있는데, 퀸시 본인이 워낙 활기 넘치는 사람이라 그가 곁에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퀸시도 내게 짧은 글을 보내왔는데, 아서가 예전의 활기를 조금씩 되찾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들 모두가 잘 지내고 있다는 말에 내 마음도 놓였다. 나 자신 또한 예전처럼 열의를 가지고 업무에 몰두하고 있었기에, 불쌍한 루시가 내게 남긴 상처도 이제는 아물어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다시 터져 나오고 말았다. 이 일의 끝이 무엇일지는 오직 신만이 아실 것이다. 반 헬싱 역시 그 끝을 알고 있는 것 같다는 예감이 들지만, 그는 호기심을 자극할 만큼만 조금씩 이야기를 흘릴 뿐이다. 그는 어제 엑서터로 가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오늘 오후 5시 반쯤 돌아온 그는 방 안으로 거의 뛰어 들어오다시피 하더니, 어제자 '웨스트민스터 가제트'지를 내 손에 덥석 쥐여주었다.

그는 뒤로 물러나 팔짱을 끼며 물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서 신문을 훑어보았다. 그러자 그는 내게서 신문을 가져가더니, 햄프스테드에서 아이들이 유인당해 사라졌다는 내용의 단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아이들의 목에 작은 구멍이 뚫린 상처가 나 있다는 대목을 읽기 전까지는 그 내

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수 없었다. 문득 어떤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고,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래, 어떤가?" 그가 물었다.

"불쌍한 루시의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저 공통된 원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녀를 해친 것이 무엇이든, 그 무엇이 그들에게도 상처를 입힌 것이지요." 나는 그의 대답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간접적으로는 사실이지만, 직접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교수님?" 내가 물었다. 나는 그의 진지함을 조금 가볍게 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결국 나 역시 나흘 동안 휴식을 취하며, 속을 태우던 고통스러운 불안에서 벗어나고 나니 기운을 차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가련한 루시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던 때조차, 그는 이토록 엄숙한 표정을 지은 적이 없었다.

"말해 주세요!" 내가 말했다. "제 마음대로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고, 추측의 근거가 될 만한 정보도 전혀 없으니까요."

"친구인 존, 설마 가여운 루시가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전혀 짐작조차 못 하겠다는 건가? 그동안 일어난 사건들은 물론이고, 나까지 그렇게 여러 차례 암시를 주었는데도 말이야?"

"다량의 출혈이나 혈액 손실에 뒤이어 찾아온 신경 쇠약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그 피는 어떻게 해서 잃거나 소모된 것인가?"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내 곁으로 다가와 앉으며 말을 이었다.

"자네는 영리한 사람이야, 친구 존. 논리도 정연하고 기지도 대단하지. 하지만 선입견이 너무 강해. 눈앞의 것을 보려 하지 않고 귀로 듣으려 하지도 않으니, 일상 밖의 일은 자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모양이군. 자네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지 않나?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사실 말이야. 하지만 사람들은 옛것이든 새것이든 눈앞의 진실을 외면하곤 하지. 다른 이들에게 들은 지식 때문에, 자신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믿거나 혹은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라네. 아, 모든 것을 설명하려 드는 우리 과학의 한계가 바로 그런 것이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으면, 설명할 대상 자체가 없다고 단정 지어 버리니까 말이야. 하지만 우리는 매일 주변에서 새로운 믿음이 싹트는 것을 보네. 스스로는 새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젊은 척을 하는 옛것일 뿐이지. 마치 오페라 극장에 나타난 화려한 귀부인들처럼 말이야. 자네는 지금 육체의 전이 같은 건 믿지 않겠지? 아니라고? 물질화도? 아니라고? 그렇다면 영체는 어떤가? 아니라고? 독심술은? 아니라고? 그렇다면 최면술은—"

"그렇습니다." 내가 말했다. "샤르코가 그 사실을 아주 잘 증명해냈으니까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셨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그 원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이해하고 계실 테고, 위대한 샤르코의—아, 그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니!—그 마음을 따라가며 그가 영향을 미치는 환자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볼 수도 있겠군요.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나의 친구 존, 당신은 그저 사실만을 받아들이고 전제에서 결론으로 이어지는 논리적 과정은 비워둔 채 만족하겠다는 뜻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말해 보시오. 나는 뇌를 연구하는 학자이니 말이오. 당신은 어떻게 최면술은 받아들이면서 독심술은 부정하는 것인지 말이오.

친구여,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오늘날 전기 과학 분야에서 행해지는 일들 중에는 전기를 처음 발견한 이들이 보았다면 불경하다고 여겼을 법한 일들이 아주 많소. 그들 자신조차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법사로 몰려 화형당했을 이들이 말이오. 삶에는 언제나 미스터리가 존재하는 법이라오. 므두셀라는 구백 년을 살았고, '올드 파'는 백예순아홉 해를 살았는데, 어째서 가여운 루시는 네 사람분의 피가 그 가냘픈 혈관 속에 흐르고 있음에도 단 하루조차 버티지 못했단 말이오? 만약 그녀가 단 하루만 더 살 수 있었다면, 우리는 그녀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오.

당신은 삶과 죽음의 모든 신비를 알고 있소? 비교 해부학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어서, 왜 어떤 사람에게는 짐승의 특성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는지 설명할 수 있단 말이오? 다른 거미들은 작고 일찍 죽는데, 왜 저 거대한 거미 한 마리는 오래된 스페인 교회의 탑에서 수 세기 동안 살며 계속해서 몸집을 불려 나갔는지, 그리하여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교회 등불의 기름을 모조리 마셔버릴 정도가 되었는지 말할 수 있소? 팜파스 지역이나 다른 곳에서, 밤마다 나타나 소나 말의 혈관을 열고 피를 남김없이 빨아먹는 박쥐들이 왜 존재하는지 설명할 수 있단 말이오? 서쪽 바다의 어떤 섬들에는 하루 종일 나무에 매달려 있는 박쥐들이 있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은 거대한 견과류나 꼬투리 같다고 묘사하오. 그러다 선원들이 더위를 피해 갑판 위에서 잠들면, 그 박쥐들이 선원들 위로 내려앉고, 그러고 나면—그러고 나면 아침에 발견되는 선원들은 루시 양처럼 창백하게 질린 채 죽어 있다는 것을, 당신은 설명할 수 있단 말이오?"

"맙소사, 교수님!" 나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루시가 그런 박쥐에게 물렸다는 말씀인가요? 19세기인 지금, 이곳 런던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가요?" 그는 조용히 하라는 듯 손을 내저으며 말을 이었다.

"거북은 왜 인간의 여러 세대가 지나도록 더 오래 사는 것인지, 코끼리는 왜 수많은 왕조가 바뀌는 것을 지켜볼 때까지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인지, 그리고 앵무새는 왜 고양이나 개에게 물리는 일 혹은 다른 병이 아니면 결코 죽지 않는 것인지 말해줄 수 있겠나? 모든 시대와 장소에서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나? 즉, 허락만 된다면 영원히 살아가는 소수의 존재가 있다는 믿음 말일세. 죽을 수 없는 남녀가 존재한다는 그 믿음 말이야. 과학이 증명했기에 우리 모두는 알고

있지. 바위 속에 수천 년 동안 갇혀 있었던 두꺼비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야. 세상이 태어난 이래로 아주 작은 구멍 하나에 갇힌 채로 말이지. 그럼 이것도 말해줄 수 있겠나? 인도의 파키르가 어떻게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여 매장될 수 있는지 말이야. 무덤을 봉인하고 그 위에 곡식을 심어, 곡식을 거두고 다시 베고 심고 거두기를 반복한 뒤에, 사람들이 와서 그 봉인을 깨뜨렸을 때 그곳에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전처럼 다시 일어나 사람들 사이를 걸어 다니는 그 인도의 파키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여기서 나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있었다. 그가 자연의 기이함과 불가능해 보이는 사례들을 쉴 새 없이 늘어놓는 바람에 내 상상력이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고 있었다. 아주 오래전 암스테르담에 있는 그의 서재에서 그가 내게 교훈을 주곤 했던 것처럼, 지금도 내게 무언가를 가르치려 한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때는 그가 내가 생각할 대상을 항상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도록 명확하게 짚어주곤 했다. 지금은 그런 도움조차 없는 상태였지만, 나는 어떻게든 그의 말을 따라가고 싶었기에 이렇게 말했다.

"교수님, 다시 교수님의 애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교수님의 논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교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시는 동안 제가 그 가르침을 적용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 제 정신은 마치 미친 사람이 생각의 꼬리를 물듯, 이리저리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안개 자욱한 늪지대에서 길도 모른 채 그저 앞으로 나아가려고 애쓰며, 풀숲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초보자가 된 기분입니다."

"좋은 비유로군." 그가 말했다. "좋아, 그럼 말해주지. 내 논지는 이렇다네. 자네가 믿게 만드는 것, 그것이 내 목적일세."

"무엇을 믿으라는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일 말일세. 예를 들어보지. 언젠가 어떤 미국인이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들었네. '믿음이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믿게 만드는 능력이다'라고 말이야. 나는 그 사람의 말에 동의하네. 그가 의도한 바는 이렇다네. 우리는 마음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것이지. 작은 진실 하나가 거대한 진실의 흐름을 막아서게 해서는 안 되네. 마치 작은 돌멩이가 철도 화차의 질주를 가로막으려 하는 것처럼 말일세. 우리는 대개 작은 진실을 먼저 마주하지. 좋아! 그 진실을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겨야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작은 진실이 세상의 전부라고 착각하게 두어서는 안 되네."

"그러니까 당신의 가르침은, 어떤 기이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전에 가졌던 확신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지 말라는 뜻이군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습니까?"

"아, 자네는 여전히 내가 가장 아끼는 제자라네. 자네를 가르치는 보람이 있어. 이제 자네가 이해하려는 의지를 보였으니, 진실을 깨닫기 위한 첫발을 내디딘 셈이야. 그렇다면 자네는 아이들의 목에 난 그 작은 구멍들이, 루시 양의 목에 난 구멍을 만든 바로 그 존재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럴 것 같군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엄숙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자네가 틀린 걸세. 아, 정말 그랬으면 좋으련만!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니라네. 상황은 더 나빠. 훨씬, 훨씬 더 나쁘다네."

"하나님, 반 헬싱 교수님,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외쳤다.

그는 절망적인 몸짓으로 의자에 몸을 던지듯 주저앉았다. 그러고는 탁자에 팔꿈치를 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말을 이어갔다.

"그것들은 루시 양이 만든 걸세!"

제XV장

수어드 박사의 일기 — 계속.

한동안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나를 집어삼켰다. 마치 그가 루시가 살아있을 때 그녀의 뺨을 내리친 것과 다름없는 기분이었다. 나는 탁자를 세게 내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말했다.

"반 헬싱 박사님, 제정신이세요?"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왠지 모르게 그의 얼굴에 서린 부드러움이 즉시 내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다.

"그랬으면 좋겠군!" 그가 말했다. "이런 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차라리 미쳐 있는 편이 견디기 쉬울 걸세. 오, 친구여, 내가 왜 이토록 멀리 돌아왔다고 생각하나? 왜 이 간단한 사실을 말하는 데 이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겠나? 내가 자네를 미워해서, 평생을 증오해 왔기 때문인가? 자네에게 고통을 주고 싶어서 그랬나? 아니면 자네가 내 목숨을 구

해주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나를 건져주었던 그 시절에 대해, 이제 와서 뒤늦게 복수하고 싶어서 그랬단 말인가? 아, 결코 아니네!"

"용서하십시오." 내가 말했다. 그는 말을 이었다.

"친구여, 자네에게 소식을 전할 때 부디 충격을 줄이고 싶었네. 자네가 그토록 다정했던 루시를 사랑했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말일세.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네가 당장 믿어줄 거라 기대하지는 않네. 추상적인 진리조차 한 번에 받아들이기란 참으로 어려운 법이지. 늘 불가능하다고 믿어왔던 사실이라면 의심이 드는 게 당연하니까. 하물며 루시 양처럼 슬픈 실체를 마주하며, 눈앞의 구체적인 진실을 받아들이기란 더욱더 어려운 일이겠지. 오늘 밤, 나는 그 사실을 증명하러 가려 하네. 자네, 나와 함께 가겠나?"

그 사실은 나를 주춤하게 만들었다. 질투라는 감정은, 바이런을 제외한 그 어떤 남자라도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이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혐오하던 바로 그 진실을 증명하고 마는 것이다."

그는 내가 망설이는 것을 보고 입을 열었다.

"논리는 간단하네. 안개 자욱한 늪지에서 풀더미 사이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미친놈의 논리가 아니란 말일세. 만약 이 가설이 틀렸다면, 증거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일 걸세. 최악의 경우라 해도 해가 될 건 없으니까. 하지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 바로 그 점이 두렵다네. 하지만 그 두려움이야말로 내 주장에 힘을 실어줄 걸

세. 사실을 믿어야만 하는 필연성이 그 두려움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지. 자, 내 제안을 들어보게. 우선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서 그 아이를 확인하세. 신문 기사에 나온 대로라면 북부 병원에 있다고 하더군. 그곳의 빈센트 박사는 내 친구라네. 자네가 암스테르담에서 공부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자네와도 구면일 걸세. 그가 우리를 친구로서 맞아주지 않더라도, 과학자 두 명의 사례 연구라면 허락해 줄 걸세. 아무것도 미리 말하지 말고, 그저 배우고 싶을 뿐이라고만 하세. 그러고 나서----"

"그다음엔요?" 그가 주머니에서 열쇠 하나를 꺼내 들어 보였다. "그다음엔 자네와 내가 루시가 잠든 교회 묘지에서 밤을 지새우는 걸세. 이 열쇠가 무덤을 잠그는 열쇠라네. 관을 운반하던 사람에게서 아서에게 전해주라고 받아두었지."

앞날에 끔찍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이 들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나는 간신히 용기를 쥐어짜 내어, 오후 시간이 지나가고 있으니 서두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아이는 깨어 있었다. 잠도 자고 음식도 좀 먹은 상태라, 전반적인 경과도 좋았다. 빈센트 박사가 아이의 목에서 붕대를 풀어내더니 우리에게 상처를 보여주었다. 루시의 목에 있던 상처와 닮았다는 사실은 누가 봐도 명백했다. 다만 루시의 상처보다 크기가 작고 가장자리가 더 선명해 보일 뿐이었다. 우리는 빈센트 박사에게 이 상처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는 쥐 같은 동물이 문 것이 틀림없다고 답했

다. 그러면서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런던 북부 고지대에 아주 흔하게 서식하는 박쥐 중 한 마리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 수많은 해롭지 않은 박쥐들 사이에도," 박사가 말했다. "남쪽에서 온 더 사나운 종이 섞여 있을 수도 있지요. 어떤 선원이 박쥐를 집으로 가져왔다가 탈출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동물원에서 어린 박쥐가 놓여났거나, 심지어 그곳에서 흡혈귀로부터 태어난 박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곤 하니까요. 불과 열흘 전에도 늑대 한 마리가 탈출했는데, 제 생각엔 이쪽 방향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 동안 아이들은 황야와 마을 골목마다 다니며 '빨간 모자' 놀이에만 푹 빠져 있었죠. 그러다 이 '블루퍼 레이디(bloofer lady)' 괴담이 돌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아주 신이 났더군요. 오늘 깨어난 이 가여운 꼬마조차 간호사에게 집에 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왜 가고 싶냐고 물으니, '블루퍼 레이디'랑 놀고 싶다고 하더군요."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낼 때," 반 헬싱이 말했다. "부모에게 아이를 엄격히 감시하라고 꼭 당부해 주십시오. 아이가 밖으로 나돌고 싶어 하는 이런 망상은 매우 위험합니다. 만약 아이가 하룻밤이라도 더 밖에 머물게 된다면, 아마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며칠 동안은 아이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시겠지요?"

"절대 안 됩니다. 적어도 일주일은 지나야 해요.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오래 걸릴 겁니다."

병원 방문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바람에,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문 뒤였다. 반 헬싱은 사방이 어두워진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서두를 것 없네. 생각보다 시간이 늦었군. 자, 어디 가서 뭐 좀 먹세. 그러고 나서 다시 길을 떠나세."

우리는 유쾌하게 떠들썩한 자전거족과 그 밖의 사람들 무리에 섞여 '잭 스트로의 성'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밤 10시쯤 우리는 여관을 나섰다. 사방이 매우 어두웠고, 여기저기 흩어진 가로등 불빛은 그 빛이 닿지 않는 곳의 어둠을 더욱 짙게 만들 뿐이었다. 반 헬싱 교수는 우리가 갈 길을 분명히 알고 있었는지 망설임 없이 나아갔다. 하지만 나는 여기가 어디쯤인지 몰라 무척 혼란스러웠다. 길을 따라 들어갈수록 만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평소처럼 교외를 순찰하던 기마 경찰을 마주쳤을 때조차 조금 놀랄 정도였다. 마침내 우리는 교회 묘지 담장에 다다랐고, 그 담을 넘어 들어갔다. 워낙 어두운 데다 장소 자체가 낯설게 느껴져서, 우리는 약간의 어려움을 겪으며 웨스튼라 가문의 묘를 찾아냈다. 교수는 열쇠를 꺼내 삐걱거리는 문을 열더니, 뒤로 물러나 정중하게,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나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손짓했다. 이토록 소름 끼치는 상황에서 앞장서라고 양보하는 그 정중함에는 기묘한 역설이 담겨 있었다. 동행하던 그는 내 뒤를 빠르게 따라 들어왔다. 그러고는 잠금장치가 스프링 방식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는 방식인지 조심스럽게 확인한 뒤, 문을 천천히 닫았다. 만약 스프링 방식이었다면 우리는 곤란한 처지에 빠졌을 것이다. 이어 그는 가방을 뒤적거리더니 성냥갑과 양초 하나를 꺼내 불을 붙였다. 낮에 생화

로 장식되어 있을 때의 묘는 충분히 엄숙하고 섬뜩해 보였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 꽃들이 시들어 늘어지고, 흰 꽃잎은 녹슨 듯 변하며 초록 잎은 갈색으로 변해버린 지금은 달랐다. 거미와 딱정벌레가 다시 그곳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고, 세월에 변색된 돌과 먼지 쌓인 모르타르, 녹슬고 축축한 철과 빛바랜 황동, 그리고 흐릿해진 은도금 위로 양초의 가냘픈 빛이 반사되자, 그 광경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추잡해 보였다. 그 모습은 생명, 즉 동물의 생명만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하게 전달하고 있었다.

반 헬싱은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관에 새겨진 명패를 읽을 수 있도록 촛불을 비추었다. 동시에 촛농이 금속에 닿아 하얗게 굳으며 얼룩을 남길 정도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루시의 관이 맞는지 확인했다. 그는 가방을 다시 한번 뒤져 드라이버를 꺼냈다.

"무엇을 하실 생각입니까?" 내가 물었다.

"관을 열어야 하네. 곧 자네도 납득하게 될 걸세."

그는 곧장 나사를 풀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뚜껑을 들어 올렸다. 그 아래로 납으로 된 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광경은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다. 마치 살아생전 잠든 그녀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 것만큼이나 망자에 대한 모욕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를 말리려고 그의 손을 붙잡기까지 했다. 그는 그저 "곧 보게 될 걸세"라고만 말하고는, 다시 가방을 뒤져 작은 실톱 하나를 꺼냈다.

그가 드라이버를 납판에 대고 아래로 빠르게 내리꽂자, 나는 움찔하며 몸을 떨었다. 그는 작은 구멍을 냈는데, 그 구멍은 실톱의 날이 들어갈 만큼은 충분히 컸다. 나는 일주일이나 지난 시신에서 부패 가스가 확 뿜어져 나올 거라 예상했다. 위험을 연구해야 하는 의사로서 이런 일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나도 모르게 문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교수는 잠시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납 관의 한쪽 면을 따라 두 자 정도를 톱질한 뒤, 가로로 가로질러 반대편 면까지 쭉 톱질해 내려갔다. 그는 느슨해진 가장자리를 잡아 관의 발치 쪽으로 구부려 놓더니, 틈새 사이로 촛불을 비추며 나에게도 들여다보라고 손짓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았다. 관 안은 비어 있었다.

그 사실은 분명 나에게 놀라움이자 상당한 충격이었으나, 반 헬싱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하다고 믿었으며, 그 확신 덕분에 맡은 일을 밀고 나갈 용기를 얻었다. "이제 만족하나, 친구 존?" 그가 물었다.

그에게 대답하며, 나는 내 본성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고집스러운 논쟁심이 꿈틀거리며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루시의 시신이 그 관 속에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은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 한 가지 사실만을 증명할 뿐입니다."

"그게 대체 무엇인가, 친구 존?"

"그곳에 그것이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건 타당한 논리네." 그가 말했다. "거기까지는 말일세. 하지만 어떻게—대체 어떻게 설명할 텐가? 그것이 그곳에 없다는 사실을 말이야."

"어쩌면 시체 도굴꾼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제안했다. "장례식장 사람들이 몰래 훔쳐 갔을 수도 있고요." 스스로도 어리석은 소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떠올릴 수 있는 실질적인 원인은 그것뿐이었다. 교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허어, 알겠네." 그가 말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겠군. 따라오게."

그는 다시 관 뚜껑을 덮고는 소지품을 모두 챙겨 가방에 넣었다. 그러고는 등불을 끄고 양초까지 가방에 담았다. 우리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자, 그는 뒤따라 나와 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웠다. 그는 내게 열쇠를 건네며 말했다. "이걸 맡아 주겠나? 자네가 직접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놓일 테니 말일세." 나는 그에게 열쇠를 직접 챙기라고 손짓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리 유쾌한 웃음은 아니었다. "열쇠 하나쯤이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말했다. "여분 열쇠가 있을지도 모르고, 설령 없더라도 이런 종류의 자물쇠는 따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러고는 자신이 한쪽을 지키는 동안 나는 교회 묘지의 다른 한쪽을 살피라고 일렀다. 나는 주목(yew-tree) 뒤로 자리를 잡았다. 그의 검은 형체가 움직이다가, 그 사이를 가로막은 묘비와 나무들에 가려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외로운 밤샘이었다. 자리를 잡자마자 멀리서 시계가 열두 시를 알리는 소리가 들렸고, 뒤이어 한 시와 두 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이어졌다. 몸은 한기에 떨렸고 마음은 불안했다. 나를 이런 심부름에 불러낸 교수에게 화가 났고, 그런 심부름에 응한 내 자신에게도 화가 났다. 너무 춥고 졸음이 쏟아져서 무언가를 예리하게 관찰할 수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신뢰를 저버릴 만큼 정신을 놓을 정도로 졸리지도 않았다. 그저 지루하고 비참한 시간만이 흐를 뿐이었다.

갑자기 뒤를 돌아보았을 때, 묘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 두 그루의 검은 주목 사이로 하얀 줄기 같은 것이 움직이는 것을 본 듯했다. 동시에 교수가 있는 쪽에서 검은 형체가 나타나더니 그곳을 향해 급히 움직였다. 나 역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묘비와 울타리가 처진 무덤들을 피해 돌아가야 했고, 그 과정에서 무덤들에 발이 걸려 비틀거리기도 했다. 하늘은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멀리 어딘가에서 이른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교회로 이어지는 길목을 표시하듯 흩어져 있는 향나무 군락 너머로, 하얗고 희미한 형체가 무덤 쪽을 향해 휙 지나갔다. 무덤 자체는 나무들에 가려져 있어서 그 형체가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볼 수 없었다. 처음 하얀 형체를 보았던 곳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며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 다가가 보니, 교수가 작은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교수는 나를 보고는 아이를 내 쪽으로 내밀며 말했다.

"이제 만족하나?"

"아니요." 내가 말했다. 스스로 느끼기에도 공격적으로 들릴 법한 말투였다.

"아이를 보지 못하겠나?"

"그래요, 아이는 맞아요. 그런데 누가 이 아이를 여기로 데려온 거죠? 그리고 아이가 다친 건가요?" 내가 물었다.

"그건 두고 봐야 알겠지." 교수가 말했다. 우리는 곧장 교회 묘지를 빠져나왔다. 교수는 잠든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우리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떨어진 뒤, 나무가 무성한 숲속으로 들어갔다. 성냥을 그어 불을 밝히고 아이의 목을 살펴보았다. 아이의 목에는 그 어떤 긁힌 상처나 흉터도 남아 있지 않았다.

"제 말이 맞았죠?" 나는 의기양양하게 물었다.

"아슬아슬하게 시간을 맞췄군." 교수가 안도하며 말했다.

이제 우리는 아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기에, 그 문제를 두고 상의했다. 만약 아이를 경찰서로 데려간다면 밤사이 우리가 어디를 돌아다녔는지 설명해야 할 터였다. 적어도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발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진술을 해야만 했다. 결국 우리는 아이를 햄스테드 히스(Heath)로 데려가기로 결심했다. 그러고 나서 경찰이 오는 소리가 들리면, 경찰이 반드시 발견할 수 있는 곳에 아이를 두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렸다. 햄스테드 히스의 가장자리에서 경찰이 걷는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아이를 산책로 위에 눕혀둔 뒤, 경찰이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다 아이를 발견할 때까지 숨을 죽이

고 지켜보았다. 경찰이 깜짝 놀라 외치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우리는 조용히 자리를 떴다. 다행히도 '스패니어즈(Spaniards)' 근처에서 마차를 잡을 수 있었고, 곧장 시내로 향했다.

잠이 오지 않아 이 글을 남긴다. 하지만 몇 시간이라도 눈을 붙이려 노력해야 한다. 정오에 반 헬싱이 나를 찾아오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는 내가 반드시 자신과 함께 또 다른 탐사를 떠나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다.

* * * * *

9월 27일.

우리가 시도해 볼 적절한 기회를 잡은 것은 오후 두 시가 되어서였다. 정오에 치러진 장례식은 모두 끝났고, 조문객 중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이들마저 나른한 몸짓으로 자리를 떠난 뒤였다. 오리나무 덤불 뒤에서 주의 깊게 살피던 우리는 교회지기가 자기 뒤로 문을 잠그는 것을 보았다. 그제야 우리는 원하기만 한다면 아침까지도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교수님은 길어야 한 시간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시금 현실이 주는 그 끔찍한 실감에 휩싸였다. 상상력을 발휘할 여지라곤 없는, 오직 눈앞의 현실만이 압도하는 감각이었다. 또한 우리가 행하는 이 불경한 일로 인해 내가 어떤 법적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지 똑똑히 깨달았다. 게다가 이 모든 일이 너무나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일주일 가까이 죽어 있던 여인이 정말로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납 관을 여는 것도 터무니없는 짓이었지만, 이미 우리 눈으로 관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한 마당에 무덤을 다시 여는 것은 그저 어리

석음의 극치처럼 보였다. 그러나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침묵을 지켰다. 반 헬싱은 누가 반대하든 상관없이 자기 방식대로 밀고 나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열쇠를 가져와 지하 묘실을 열더니, 다시 한 번 내게 먼저 들어가라고 정중히 손짓했다. 그곳은 어젯밤만큼 소름 끼치지는 않았으나,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자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하고 비루해 보였다. 반 헬싱이 루시의 관으로 걸어갔고, 나도 그 뒤를 따랐다. 그가 몸을 굽혀 납으로 된 관 덮개의 가장자리를 다시 밀어젖혔을 때, 나는 경악과 당혹감이 뒤섞인 충격을 느꼈다.

루시가 그곳에 누워 있었다. 마치 장례식 전날 밤에 보았던 모습 그대로였다. 그녀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눈부시게 아름다워 보였기에, 나는 그녀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입술은 붉었다. 아니, 이전보다 훨씬 더 붉었다. 양 볼에는 은은한 혈색이 곱게 감돌고 있었다.

"이거 지금 나를 속이려는 건가요?" 내가 그에게 물었다.

"이제 확신이 드나?" 교수가 대답했다. 말을 마친 그는 손을 뻗더니, 내가 몸서리칠 정도로 기괴한 동작으로 죽은 이의 입술을 뒤로 젖혀 하얀 치아를 드러내 보였다.

"보게나," 그가 말을 이었다. "보라고, 이빨이 전보다 훨씬 더 날카로워졌지 않나. 이것, 그리고 이것으로—" 그는 송곳니 하나와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이빨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다. "—어린아이들을 물 수 있는 것이지. 이제 좀 믿음이 가는가, 친구 존?"

순간, 내 안에서 다시금 반박하고 싶은 적대감이 치밀어 올랐다. 그가 제시하는 그 압도적인 가설을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순간 스스로가 부끄러울 만큼 무모하게 논쟁을 시도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어젯밤 이후로 이곳에 옮겨져 놓였을지도 모릅니다."

"정말입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그랬단 말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저지른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녀가 죽은 지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동안 모습이 이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나는 대답할 말이 없어 침묵을 지켰다. 반 헬싱은 나의 침묵을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적어도 그는 실망하거나 승리감을 느끼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죽은 여인의 얼굴을 뚫어지게 살피고 있었다. 눈꺼풀을 들어 올려 눈동자를 확인하더니, 다시 입술을 열어 치아를 자세히 검사했다. 그러고는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여기, 지금까지 기록된 그 무엇과도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평범한 것과는 다른, 일종의 이중적인 삶이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그녀는 몽유병 상태로 황홀경에 빠져 있을 때 흡혈귀에게 물렸습니다. 오, 깜짝 놀라셨군요. 존, 친구여,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모두 알게 될 겁니다. 그녀가 그런 황홀경에 빠져 있었기에, 그는 더 많은 피를 취하기에 가장 좋았겠지요. 그녀는 그 황홀경 속에서 죽었으며, 동시에 그

상태 그대로 언데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이들과 다릅니다. 보통 언데드들이 집에 머물며 잠을 잘 때는—" 반 헬싱은 흡혈귀에게 '집'이란 어떤 곳인지를 나타내려는 듯 팔을 크게 휘둘렀다. "—그들의 얼굴을 보면 정체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너무나 달콤한 모습이었지요. 언데드가 되기 전의 모습 그대로, 평범한 죽음의 무(無)의 상태로 돌아간 듯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악의라곤 전혀 없으니, 보십시오. 그렇기에 잠든 그녀를 내 손으로 죽여야 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고통스럽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나는 내가 반 헬싱의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가 정말로 죽은 상태라면, 그녀를 죽인다는 생각에 무슨 공포가 있단 말인가? 그는 나를 올려다보았다. 내 얼굴색이 변한 것을 눈치챈 모양인지, 그는 거의 기쁜 듯한 어조로 말했다.

"아, 이제야 믿으시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한꺼번에 너무 몰아붙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받아들일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비린내 나는 일을 어떻게 해낼 생각입니까?"

"그녀의 머리를 자르고 입안에 마늘을 채워 넣어야 하네. 그리고 그녀의 몸을 말뚝으로 꿰뚫어야 해." 내가 사랑했던 여인의 몸을 그렇게 훼손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몸서리가 쳐졌다. 하지만 막상 생각해보니 그 거부감은 예상만큼 강하지 않았다. 사실 나는 반 헬싱이 언데드라고 부르는 이 존재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몸서리치며 혐오감을 느

끼기 시작하고 있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온전히 주관적인 것일까, 아니면 객관적인 것일까?

반 헬싱이 그 일을 시작하기를 꽤 오랫동안 기다렸으나, 그는 마치 깊은 생각에 잠긴 듯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다. 이윽고 그는 가방의 잠금장치를 탁 소리가 나게 닫으며 말했다.

"생각을 거듭한 끝에 무엇이 최선인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저 마음이 이끄는 대로만 한다면, 바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하겠지요. 하지만 따라야 할 다른 도리들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에는 천 배는 더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황은 명확합니다. 루시는 아직 아무의 목숨도 앗아가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것도 시간문제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지금 행동에 나선다면 그녀에게서 그 위험을 영원히 없앨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아서가 필요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 사실을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루시의 목에 남은 상처를 보았고, 병원에서 아이의 목에 남은 그와 똑같은 상처를 목격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어젯밤에는 비어 있던 관이 오늘 보니 한 여인으로 가득 차 있고, 죽은 지 일주일이나 지났음에도 그 여인이 변한 것이라곤 그저 더 생기 있고 아름다워졌을 뿐이라는 사실을 보았으면서도, 어젯밤 아이를 교회 묘지로 데려다준 그 하얀 형체를 보았으면서도, 당신조차 자신의 감각을 믿지 못했다면, 그 무엇도 알지 못하는 아서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루시가 죽어갈 때 그녀의 입맞춤으로부터 아서를 떼어놓았을 때도 그는 나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어떤 착각에 빠져 그가 제대로 작별 인사를 나누지 못하게 방해했다고 생각해서 나를 용서해 준 것이겠지요. 그는 아마 또 다른

착각에 빠져 이 여인이 산 채로 매장되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착각인, 우리가 그녀를 죽였다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가 그녀를 죽인 것이라며 반박할 것이고, 결국 평생 불행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확신할 수 없을 것이며, 그것이 무엇보다 최악입니다. 그는 가끔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이 산 채로 묻혔다고 생각하며, 그녀가 겪었을 고통을 떠올리며 악몽에 시달릴 것입니다. 그러다 다시 우리가 옳았을지도 모른다고,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이 결국 언데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나는 예전에 그에게 말한 적이 있고, 그 이후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사실임을 알게 된 이상, 그가 달콤한 결실에 닿기 위해서는 반드시 쓰디쓴 고난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사실을 나는 수만 배 더 절실히 깨닫습니다. 가련한 그가 하늘의 얼굴조차 검게 보일 만큼 처절한 시간을 단 한 시간이라도 견뎌내야만, 비로소 우리 모두가 선한 일을 행하고 그에게 평화를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결심은 끝났습니다. 이제 갑시다. 당신은 오늘 밤 요양원으로 돌아가 모든 것이 괜찮은지 확인하십시오.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이곳 교회 묘지에서 밤을 지새우겠습니다. 내일 밤 열 시에 버클리 호텔에 있는 나를 찾아오십시오. 아서도 부를 것이고, 자신의 피를 내어준 그 훌륭한 미국 청년도 부르겠습니다. 조만간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나는 피카딜리까지 동행하여 함께 저녁을 먹겠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와야 하니까요."

우리는 무덤을 잠그고 그곳을 빠져나왔다. 교회 묘지의 담장을 넘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고는 마차를 몰아 피카딜리로 돌아갔다.

버클리 호텔에서 존 수어드 박사에게 보내는, 반 헬싱이 자신의 여행 가방에 남긴 메모.

(전달되지 않음.)

_9월 27일._

"친구인 존에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이 글을 남긴다. 나는 홀로 그 묘지를 지키러 간다. 언데드가 된 루시 양이 오늘 밤에는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을 편하게 한다. 그래야 다음 날 밤에 그녀가 더 간절히 원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그녀가 싫어하는 것들, 즉 마늘과 십자가를 가져가 무덤 문을 봉인할 생각이다. 그녀는 언데드치고는 젊은 편이니 내 말을 들을 것이다. 게다가 이것들은 그저 그녀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녀가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마음까지 꺾지는 못할지도 모른다. 언데드는 절박해지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가장 저항이 적은 길을 찾아내기 때문이다. 나는 해 질 녘부터 해가 뜨고 난 뒤까지 밤새도록 그곳을 지킬 것이며, 만약 알아내야 할 것이 있다면 반드시 알아낼 것이다. 루시 양에 대해서나 그녀로부터는 두려울 것이 없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다. 바로 그녀를 언데드로 만든 장본인, 그자가 이제 그녀의 무덤을 찾아내 안식처로 삼을 힘을 가졌다

는 점이다. 그는 교활하다. 조너선 씨에게서 들었을 뿐만 아니라, 루시 양의 목숨을 담보로 우리를 가지고 놀며 결국 우리가 패배하게 만들었던 그의 방식에서도 알 수 있었다. 또한 언데드는 여러 면에서 강력하다. 그는 언제나 스무 명의 장정만큼이나 강한 힘을 손에 쥐고 있다. 루시 양을 위해 힘을 보탠 우리 네 사람의 힘조차 결국 그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게다가 그는 늑대나 그 밖의 무엇인지 모를 것들을 불러낼 수도 있다. 그러니 만약 그가 오늘 밤 그곳에 나타난다면 나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무 늦어버리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그를 마주하지 못할 것이다. 물론 그가 그곳을 시도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가 굳이 그럴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언데드 여인이 잠들어 있고 노인 한 명이 지키고 있는 이 묘지보다는, 그의 사냥터에 사냥감이 훨씬 더 많을 테니까.

"그러니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이 글을 남긴다. 이 편지와 함께 동봉된 하커의 일기와 나머지 서류들을 가져가서 읽어라. 그리고 이 거대한 언데드를 찾아내어, 그의 머리를 베고 심장을 태우거나 말뚝을 박아라. 그리하여 세상이 그로부터 벗어나 평온을 되찾을 수 있게 하라."

"정녕 그러하다면, 작별이군."

"반 헬싱."

수어드 박사의 일기.

9월 28일. — 숙면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새삼 놀랍다. 어제만 해도 나는 반 헬싱의 그 괴상한 생각들을 거의 받아들이려 했

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 이야기들은 상식에 어긋나는, 아주 기괴한 망상처럼 느껴진다. 그가 그 모든 것을 진심으로 믿고 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그의 정신이 어떤 식으로든 잘못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뿐이다. 이 모든 신비로운 일들에 분명 이성적인 설명이 존재할 것이다. 혹시 교수님이 직접 꾸민 일일 가능성은 없을까? 그는 비정상적일 정도로 명석한 사람이니, 만약 정신을 놓게 된다 하더라도 어떤 집착에 사로잡힌다면 놀라운 방식으로 자신의 의도를 실행에 옮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괴롭다. 사실 반 헬싱이 미쳤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것 또한 다른 기이한 일들만큼이나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어쨌든 나는 그를 주의 깊게 지켜볼 생각이다. 그러면 이 수수께끼를 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 * * * *

9월 29일, 아침.

어젯밤 10시가 조금 되기 전, 아서와 퀸시가 반 헬싱의 방으로 찾아왔다. 반 헬싱은 우리 모두에게 해야 할 일을 설명했다. 그는 마치 우리의 의지가 모두 아서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기라도 한 듯, 특히 아서에게 말을 건네며 지시를 내렸다. 반 헬싱은 우리 모두가 함께 가주길 바란다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그곳에서 반드시 완수해야 할 중대한 임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고는 고달밍 경을 향해 직접적으로 물었다. "내 편지를 받고 분명 놀랐겠지?"

"그랬었죠. 한동안 꽤 마음이 어지러웠어요. 최근 우리 집 주변에 워낙 소란스러운 일이 많아서, 더 이상의 문제는 사양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도 궁금했어요. 퀸시와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지만,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갈수록 갈피를 잡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조차도 도대체 무엇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네요."

"나도 마찬가지야." 퀸시 모리스가 무심하게 말했다.

"오," 교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두 분 다 여기 있는 친구 존보다는 시작점에 더 가까이 와 있군요. 존은 시작 단계에 이르기도 전에 아주 먼 길을 되돌아가야만 하니까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음에도, 그는 내가 다시 예전처럼 의심 많은 상태로 돌아갔음을 알아챈 것이 분명했다. 그러더니 그는 다른 두 사람을 향해 몸을 돌리며, 지극히 엄숙한 태도로 말했다.

"오늘 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무리한 부탁이라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게 되시면, 제 요구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미리 약속 하나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어둠 속에서 약속해 주십시오. 나중에 제가 한 일 때문에 한동안 저를 원망하시더라도—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저 자신에게 숨길 수는 없으니까요—결코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어쨌든 솔직한 말씀이군." 퀸시가 말을 가로채며 끼어들었다. "교수님을 내가 보증하지. 무슨 의도로 하시는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정직한 분이라는 건 맹세할 수 있어. 난 그거면 충분해."

"감사합니다, 선생." 반 헬싱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나는 당신을 믿음직한 친구로 여기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당신 같은 분의 지지는 내게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는 손을 내밀었고, 퀸시 모리스가 그 손을 맞잡았다.

그때 아서가 입을 열었다.

"반 헬싱 박사님, 스코틀랜드 속담에 있듯이 저는 속을 알 수 없는 물건을 덜컥 사는 식의 일은 딱 질색입니다. 만약 박사님이 계획하시는 일이 신사로서의 제 명예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일이라면, 저는 결코 그런 약속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박사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확신시켜 주신다면, 즉시 동의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긴 합니다만 말입니다."

"당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반 헬싱이 말했다.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만약 나의 어떤 행동을 비난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면, 우선 그 행동을 충분히 숙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행동이 당신이 지키고자 하는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비로소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아서가 말했다. "그게 공평한 일이지요. 이제 협상도 끝났으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나와 함께 킹스테드에 있는 교회 묘지로 가주었으면 하네.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말이야."

아서는 표정이 어두워지며, 놀란 듯한 어조로 말했다.

"가여운 루시가 묻혀 있는 그곳 말입니까?"

교수가 고개를 숙여 보였다. 아서가 말을 이었다.

"그곳에 가서는요?"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일일세!" 아서가 벌떡 일어섰다.

"교수님,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무슨 짓궂은 농담을 하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진심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군요."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그 모습은 마치 자존심을 지키려는 사람처럼, 아주 단호하고 위엄 있게 앉아 있는 것이 내 눈에 보였다. 그가 다시 입을 열 때까지 침묵이 흘렀다.

"그렇다면 무덤 속에서는요?"

"관을 열기 위해서요."

"이건 너무합니다!" 그가 다시 분노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치에 맞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참을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이런 무덤을 모독하는 짓은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이런 분의 무덤을——" 그는 격분한 나머지 말문이 막혀 버렸다. 교수는 그를 가엽다는 듯 바라보았다.

"가여운 친구여, 자네에게 단 한 번의 고통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면, 신만이 아시겠지만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려 하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는 가시밭길을 걸어야만 하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자네가 사랑하는 이의 발걸음이 영원히 불길 속을 헤매게 될 테니까!"

아서는 창백하게 굳은 얼굴로 고개를 들며 말했다.

"조심하십시오, 선생님, 제발 조심하십시오!"

"내가 하려는 말을 들어보는 게 좋지 않겠나?" 반 헬싱이 말했다. "그러면 적어도 내 의도가 어디까지인지 알게 될 걸세. 계속해도 되겠나?"

"그 정도면 충분히 납득할 만하군." 모리스가 말을 가로채며 끼어들었다.

잠시 침묵하던 반 헬싱이 분명 애써 말을 잇는 듯한 기색으로 계속 말했다.

"루시 양은 죽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에게 더는 나쁜 일이 일어날 리 없겠지요. 하지만 만약 그녀가 죽은 게 아니라면——"

아서가 벌떡 일어났다.

"맙소사!" 그가 외쳤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건가요? 설마 그녀가 산 채로 매장된 건가요?" 그는 고통에 겨워 신음했다. 그 비통함은 그 어떤 희망으로도 달랠 수 없을 만큼 깊었다.

"그 아이가 살아있다고 말한 게 아니란다, 얘야.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어. 나는 그저 그 아이가 언데드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을 뿐이야."

"언데드라고! 살아 있는 게 아니란 말인가! 그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이 모든 게 악몽인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인간이 그저 짐작만 할 수 있을 뿐, 세대를 거듭하며 겨우 그 일부만을 풀어나갈 수 있는 신비가 존재합니다. 믿어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막 그 신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죽은 루시 양의 머리를 잘라내도 되겠습니까?"

"하늘과 땅에 맹세코, 안 됩니다!" 아서가 격정적으로 외쳤다. "세상 그 무엇을 준다 해도, 죽은 그녀의 몸을 훼손하는 일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반 헬싱 박사님, 당신은 지금 나를 너무 몰아붙이고 계십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했다기에 이토록 나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그 가엽고 사랑스러운 소녀가 당신에게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녀의 무덤에 그런 치욕을 안기려 하시는 겁니까? 그런 말을 내뱉는 당신이 미친 것입니까, 아니면 그 말을 듣고 있는 내가 미친 것입니까? 다시는 그런 모독을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하든 나는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무덤이 유린당하지 않도록 지켜야 할 의무가 내게 있습니다. 신께 맹세코, 나는 반드시 그 일을 해낼 것입니다!"

반 헬싱이 앉아 있던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는 엄숙하고도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고달밍 경, 저에게도 완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의무, 경에 대한 의무, 그리고 죽은 자들에 대한 의무 말입니다. 맹세코 저는 그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경께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저와 함께 가셔서 직접 보고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만약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같은 요청을 드렸을 때, 경께서 저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응해주지 않으신다면, 그때는—그때는 그것이 제 눈에 어떻게 비치든 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의 뜻에 따라, 경께서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에서 언제든 경께 모든 경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더니, 이내 연민이 가득 담긴 어조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제발 부탁이니, 저를 원망하며 돌아서지 마십시오. 살아오며 즐겁지 않은 일도 많았고 때로는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겪기도 했지만, 지금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임한 적은 없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다시 제게 향할 때가 온다면, 그저 한 번만 바라봐 주십시오. 그러면 이 슬픈 시간도 모두 씻겨 내려갈 것입니다. 저는 당신을 슬픔에서 구하기 위해 남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제가 왜 이토록 많은 수고와 슬픔을 감내하겠습니까? 저는 오직 선한 일을 하기 위해 고국을 떠나 이곳까지 왔습니다. 처음에는 친

구인 존을 기쁘게 하려 했고, 그다음에는 제가 사랑하게 된 한 아름다운 젊은 여인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를 위해—이런 말을 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진심을 담아 말씀드립니다—저는 당신이 내어준 것과 똑같은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바로 제 혈관을 흐르는 피를 말입니다. 저는 당신처럼 그녀의 연인도 아닌, 그저 의사이자 친구일 뿐이었지만 기꺼이 피를 주었습니다. 그녀를 위해 밤낮을 바쳤고, 죽기 전과 죽은 후에도 그녀를 돌보았습니다. 이제 죽어서 언데드가 된 그녀에게 제 죽음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그는 매우 엄숙하면서도 자애로운 자부심을 담아 말했고, 아서는 그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노인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 생각만 해도 괴롭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당신과 함께 가서 기다릴게요."

제XVI장

수어드 박사의 일기 — 계속

낮은 담장을 넘어 교회 묘지에 들어선 시각은 12시 15분 전이었다. 하늘을 가로질러 빠르게 흘러가는 두터운 구름 사이로 간간이 달빛이 비쳤으나, 밤은 어두웠다. 우리는 모두 어떻게든 서로의 곁을 지키며 붙어 움직였고, 반 헬싱이 앞장서서 길을 인도했다. 무덤 근처에 다다랐을 때, 나는 아서의 안색을 살폈다. 슬픈 기억이 서린 이곳에 가까워지면 그가 마음을 다잡지 못할까 봐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서는 의연하게 행동했다. 아마도 이 기이한 일 자체가 주는 신비로움이 그의 슬픔을 억누르는 데 도움이 된 모양이었다. 교수가 문을 열었다. 여러 이유로 우리 사이에 망설임이 생기자, 그는 자신이 먼저 들어감으로써 그 어려움을 해결했다. 나머지 우리도 그 뒤를 따랐고, 그는 문을 닫았다. 그러고는 어두운 랜턴을 켜서 관을 가리켰다. 아서가 머뭇거리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때 반 헬싱이 나에게 말했다.

"어제 당신도 여기 나와 함께 있었지. 저 관 속에 누워 있는 게 루시 양의 시신이었나?"

"네, 그랬습니다." 교수는 나머지 사람들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여러분도 들으셨지요? 그런데도 저와 함께 믿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는 드라이버를 집어 들더니 다시 관 뚜껑을 열었다. 아서는 안색이 아주 창백해진 채 아무 말 없이 지켜보았고, 뚜껑이 열리자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그는 관 안에 납으로 된 덧씌우개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모양이었다. 적어도 그 사실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던 듯했다. 납 덮개에 찢긴 흔적을 발견하자 아서의 얼굴로 순간 피가 확 몰렸으나, 이내 다시 가라앉아 버렸다. 그는 여전히 소름 끼칠 정도로 창백한 얼굴을 한 채 침묵을 지켰다. 반 헬싱이 납으로 된 테두리를 젖히자, 우리 모두는 안을 들여다보고는 뒷걸음질하며 움츠러들었다.

관은 비어 있었다!

몇 분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정적을 깨뜨린 것은 퀸시 모리스였다.

"교수님, 제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평소라면 이런 부탁을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처럼 보여 명예를 더럽히고 싶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이건 명예나 수치 따위를 따질 수 있는 차원의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교수님께서 하신 일입니까?"

"제가 신성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하건대, 저는 그녀를 옮기지도, 손대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틀 전 밤, 제 친구 수어드와 저는 좋은 의도로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관은 봉인되어 있었는데, 제가 그 관을 열어 보니 지금처럼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기다렸고, 나무 사이로 무언가 하얀 것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낮에 다시 이곳을 찾았을 때, 그녀가 그곳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가, 존?"

"네."

"그날 밤 우리는 정말 제때 도착했습니다. 어린아이 한 명이 더 사라졌었는데, 다행히도 무사한 상태로 무덤 사이에서 찾아냈지요. 어제는 해가 지기 전에 이곳에 왔습니다. 해가 지면 언데드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해가 뜰 때까지 밤새 이곳에서 기다렸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문틈에 언데드가 견디지 못하는 마늘과 그들이 기피하는 다른 물건들을 채워 두었기 때문일 겁니다. 어젯밤에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기에, 오늘 밤 해가 지기 전에 마늘과 다른 물건들을 치워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조금만 더 참아 주십시오. 지금까지도 이상한 일이 많지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게 제 곁에서 밖을 지켜봐 주신다면 훨씬 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자."

그는 랜턴의 어두운 슬라이드를 닫으며 말했다. "이제 밖으로 나갑시다."

그가 문을 열자 우리는 줄을 지어 밖으로 나갔다. 그는 맨 마지막에 나와 문을 잠갔다.

오, 하지만 그 지하 묘지에서 겪은 공포를 뒤로하고 마주한 밤공기는 참으로 신선하고 맑았다. 빠르게 흘러가는 구름 사이로 달빛이 번뜩이며 스쳐 지나가는 모습은 마치 한 인간의 삶에 교차하는 기쁨과 슬픔 같아서, 그 광경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달콤해졌다. 죽음과 부패의 기운이 전혀 섞이지 않은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은 얼마나 황홀한 일인가. 언덕 너머로 하늘이 붉게 물드는 것을 보고, 멀리서 거대 도시의 생동감을 알리는 웅성거리는 소음이 들려오는 것은 참으로 인간다운 감각을 되살려 주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엄숙함에 젖어 압도당해 있었다. 아서는 침묵을 지켰는데, 그가 이 신비로운 사건의 목적과 내면의 의미를 파악하려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 수 있었다. 나 자신은 꽤 침착함을 유지하며, 의구심을 떨쳐버리고 반 헬싱의 결론을 다시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절반쯤 들었다. 퀸시 모리스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특유의 무덤덤함을 보였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위험 앞에서도 냉철한 용기를 잃지 않고 상황을 수용했다. 담배를 피울 수 없는 상황이라, 그는 큼직하게 담배 조각을 잘라 입에 넣고 씹기 시작했다.

반 헬싱은 무언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다. 먼저 그는 가방에서 흰색 냅킨에 정성스럽게 말린, 얇은 과자 같은 덩어리를 꺼냈다. 그러고는 반죽이나 퍼티처럼 보이는 하얀 물질을 두 손 가득

꺼냈다. 그는 과자를 잘게 부순 뒤 양손으로 반죽과 함께 치대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그것을 얇은 띠 모양으로 말아서 무덤 문과 문틀 사이의 틈새에 채워 넣었다. 나는 그 모습이 다소 의아하여 가까이 다가가 무엇을 하는 중인지 물었다. 아서와 퀸시 역시 궁금한 듯 곁으로 다가왔다. 그가 대답했다.

"언데드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무덤을 폐쇄하겠네."

"거기 가져다 놓은 물건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 퀸시가 물었다. "세상에나! 지금 이게 장난이라도 되는 건가?"

"그렇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게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아서가 물었다. 반 헬싱은 경의를 표하며 모자를 들어 올린 채 대답했다.

"성체입니다. 암스테르담에서 가져왔습니다. 면죄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우리 중 가장 회의적인 사람조차 경악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반 헬싱 교수처럼 확고한 의지를 가진 이가, 그토록 신성한 것을 수단으로 삼을 만큼 간절하게 행동하고 있다면 그를 의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개별적으로 느꼈다. 우리는 경의를 표하며 침묵을 지킨 채, 무덤 주위에 지정된 자리에 앉았다. 다가오는 이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다. 나는 다른 이들이 가엽게 느껴졌고, 특히 아서가 더욱 그랬다. 나 역시 이전의 방문들을 통해 이 공포스러운 밤

을 지켜보는 법을 익혔음에도, 불과 한 시간 전까지만 해도 증거들을 부정했던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무덤이 이토록 소름 끼치도록 하얗게 보인 적은 없었다. 사이프러스와 주목, 주니퍼 나무들이 이토록 장례식의 음울함을 형상화한 것처럼 보인 적도 없었다. 나무와 풀이 이토록 불길하게 흔들리거나 바스락거린 적도, 나뭇가지가 이토록 신비롭게 삐걱거린 적도 없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또한 이토록 비통한 전조가 되어 밤공기를 가른 적은 없었다.

긴 침묵이 이어졌다. 마치 거대하고 아픈 공허가 우리를 짓누르는 듯했다. 그러다 갑자기 반 헬싱 교수가 날카롭게 "스스스스!" 하고 소리를 냈다.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을 따라 시선을 옮기자, 멀리 떨어진 주목나무 가로수길 끝에서 하얀 형체 하나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희미한 하얀 형체는 가슴팍에 검은 무언가를 품고 있었다. 그 형체가 멈춰 섰을 때, 마침 몰아치는 구름 사이로 달빛 한 줄기가 쏟아져 내렸다. 그 빛은 무덤의 수의를 입은 채 검은 머리를 늘어뜨린 한 여인을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게 비추었다. 여인이 금발 아이 위로 몸을 굽히고 있었기에 얼굴까지는 볼 수 없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아이가 잠결에 내는 소리 같기도 하고 화로 앞에 누워 꿈을 꾸는 개가 내는 소리 같기도 한 짧고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우리가 앞을 향해 달려나가려 하자, 주목나무 뒤에 서 있던 반 헬싱 교수가 경고하듯 손을 들어 우리를 제지했다. 우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얀 형체는 다시 앞으로 움직였다. 달빛이 여전히 비치고 있었기에, 이제는 형체를 또렷이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가까워졌다. 루시 웨스튼라의 얼굴임을 알아차리는

순간, 내 심장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내렸고 아서의 거친 숨소리도 들려왔다. 루시 웨스튼라였다. 하지만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 다정함은 금강석처럼 단단하고 무정한 잔혹함으로 변해 있었고, 순결함은 방탕한 관능미로 바뀌어 있었다. 반 헬싱 교수가 걸어 나갔고, 그의 몸짓에 따라 우리도 모두 앞으로 나아갔다. 우리 네 사람은 무덤 문 앞에 일렬로 늘어섰다. 반 헬싱 교수가 랜턴을 들어 빛을 조절하자, 루시의 얼굴을 비춘 집중된 불빛 아래로 그 모습이 드러났다. 그녀의 입술은 갓 흘린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흘러내린 핏줄기는 턱을 타고 내려와 순백의 수의를 더럽히고 있었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가늘게 흔들리는 불빛 사이로 반 헬싱의 강철 같은 담력마저 무너졌음을 알 수 있었다. 아서가 내 곁에 있었는데, 내가 그의 팔을 붙잡아 지탱해주지 않았다면 그는 그대로 쓰러졌을 것이다.

루시가 우리를 보았을 때—그것은 루시의 형상을 하고 있었기에 나는 그것을 루시라고 부른다—그것은 마치 불시에 들킨 고양이가 내는 것처럼 분노 섞인 으르렁거림을 내뱉으며 뒤로 물러났다. 그러고는 우리를 훑어보았다. 눈의 형태와 색깔은 루시의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알던 순수하고 온화한 눈동자 대신, 루시의 눈은 불결했고 지옥의 불길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순간 내 안에 남아있던 사랑의 잔재는 증오와 혐오로 바뀌었다. 만약 그때 그녀를 죽여야만 했다면, 나는 잔인한 희열을 느끼며 기꺼이 그 일을 해냈을 것이다. 그녀가 우리를 바라보는 동안 눈에서는 불경한 빛이 타올랐고, 얼굴에는 관능적인 미소가 어렸다. 오, 세상에,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몸서리쳐졌다! 그녀

는 지금껏 마치 개가 뼈다귀를 두고 으르렁대듯 으르렁거리며 가슴에 힘껏 끌어안고 있던 아이를, 악마처럼 냉혹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손길로 바닥에 내팽개쳤다. 아이는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다. 그 비정한 행동에 아서는 신음 섞인 탄식을 내뱉었다. 그녀가 팔을 뻗고 방탕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오자, 아서는 뒤로 물러나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려버렸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다가왔다. 그러고는 나른하면서도 관능적인 몸짓으로 이렇게 말했다.

"내게로 와요, 아서. 다른 사람들은 다 뒤로하고 내게로 와요. 내 품이 당신을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어서 와요, 그러면 우리 함께 쉴 수 있어요. 어서 와요, 나의 남편, 어서 내게로 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악마적인 달콤함이 서려 있었다. 마치 유리잔을 두드렸을 때 울리는 듯한 그 떨림은, 그녀가 다른 이에게 말을 건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있던 우리 모두의 뇌리에까지 울려 퍼졌다. 아서는 마치 주문에 걸린 듯 보였다. 그는 얼굴을 가리고 있던 손을 치우며 두 팔을 넓게 벌렸다. 그녀가 그에게 달려들려던 찰나, 반 헬싱이 앞으로 튀어 나가 작은 금색 십자가를 그들 사이에 내밀었다. 그녀는 십자가를 보고 움츠러들더니, 갑자기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을 한 채 마치 무덤 속으로 뛰어들려는 듯 반 헬싱을 지나쳐 달려 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문 앞 한두 자(foot) 정도를 남겨두고는, 마치 거부할 수 없는 힘에 붙잡힌 듯 멈춰 섰다. 그러고는 몸을 돌렸다. 그 순간 달빛이 환하게 쏟아졌고, 반 헬싱의 강철 같은 침착함 덕분에 흔들림 없

이 고정된 등불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나는 살면서 그토록 당혹감에 휩싸인 악의가 서린 얼굴을 본 적이 없다. 장담컨대, 앞으로도 인간의 눈으로 그런 얼굴을 다시 마주할 일은 없을 것이다.

아름답던 안색은 창백하게 질렸고, 눈에서는 지옥의 불꽃이 튀는 듯했다. 미간은 마치 살점이 메두사의 뱀처럼 뒤엉킨 듯이 깊게 패어 있었다. 그리고 피로 얼룩진 그 사랑스러운 입술은 그리스나 일본의 가면극에 나오는 광기 어린 표정처럼 사각형 모양으로 쩍 벌어졌다. 만약 어떤 얼굴이 죽음을 의미한다면, 혹은 눈빛만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우리는 바로 그 순간 그 모습을 목격한 것이다.

그녀는 들어 올린 십자가와, 그녀의 출입구를 신성하게 봉인한 성물 사이에 갇힌 채, 마치 영겁처럼 느껴지는 30초 내내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반 헬싱이 아서에게 질문을 던지며 정적을 깨뜨렸다.

"내게 답해주게, 나의 친구여! 내 일을 계속 진행해도 되겠나?"

아서는 무릎을 꿇고 두 손에 얼굴을 파묻은 채 대답했다.

"자네 마음대로 하게, 친구. 마음대로 해버리게나. 다시는 이토록 끔찍한 일은 없을 테니." 그는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신음 소리를 내뱉었다. 퀸시와 나는 동시에 그에게 다가가 그의 양팔을 붙들었다. 반 헬싱이 랜턴을 아래로 누르자 뚜껑이 닫히는 달칵 소리가 들려왔다. 무덤 가까이 다가간 그는 틈새에 끼워 두었던 성물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그가 뒤로 물러났을 때, 우리는 경악하며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방금 전까지 우리 몸처럼 실재하는 육신을 가졌

던 여인이, 칼날 하나 겨우 들어갈 법한 그 좁은 틈 사이로 스르르 빠져나간 것이다. 반 헬싱 교수가 침착하게 진흙 반죽을 문질러 문틈을 다시 메우는 것을 보고서야, 우리 모두는 비로소 안도감을 느꼈다.

그 일이 끝나자, 그는 아이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자, 이제 그만합시다, 친구들. 내일이 되기 전까지는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오에 장례식이 있으니, 우리 모두 그 일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곳으로 모입시다. 고인의 지인들은 두 시쯤이면 모두 떠날 테고, 교구 관리인이 문을 잠그고 나면 우리만 남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는 할 일이 더 많겠지만, 오늘 밤처럼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어린 친구로 말하자면,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니 내일 밤이면 괜찮아질 겁니다. 지난번처럼 경찰이 발견할 만한 곳에 아이를 두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갑시다." 그는 아서에게 가까이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내 친구 아서, 자네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련을 겪고 있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지난 일을 되돌아보게 되면,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필요했는지 깨닫게 될 거야. 지금 자네는 쓰디쓴 물을 마시는 중이라네, 아이야. 신의 가호가 있다면 내일 이맘때쯤에는 그 물을 다 지나쳐 달콤한 물을 마시고 있겠지.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말게나.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자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겠네."

아서와 퀸시가 나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고, 우리는 가는 길에 서로를 격려하며 기운을 북돋우려 애썼다. 아이를 안전하게 맡겨두고 온 터라 모두가 지쳐 있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각자 어느 정도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 * * * *

9월 29일, 밤.

자정 직전, 아서와 퀸시 모리스, 그리고 나까지 우리 세 사람은 교수님을 찾아갔다. 이상하게도 우리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물론 아서는 깊은 상중이었기에 당연히 검은 옷을 입었지만, 나머지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검은 옷을 선택한 상태였다.

우리는 1시 반쯤 공동묘지에 도착했다. 묘지 관계자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하며 주위를 거닐었다. 마침 무덤 파는 인부들이 일을 마치고, 관리인은 사람들이 모두 떠났다고 믿고 문을 잠근 덕분에 묘지에는 우리뿐이었다. 반 헬싱은 평소 들고 다니던 작은 검은 가방 대신, 크리켓 가방처럼 보이는 길쭉한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다. 가방은 분명 꽤 묵직해 보였다.

우리만 남게 되고 길 너머로 멀어지는 발소리마저 완전히 잦아들었을 때, 우리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말없이 교수의 뒤를 따라 무덤으로 향했다. 교수가 문을 열자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고, 뒤로 문을 닫았다. 이어 교수는 가방에서 랜턴을 꺼내 불을 붙였다. 그리고 밀랍 양초 두 개를 더 꺼내 불을 붙인 뒤, 양초 끝을 녹여 다른 관들에 고정했다. 작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빛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교수가 다시 루시의 관 뚜껑을 들어 올렸을 때, 우리는 모두 그곳을 바라보았다. 아서는 사시나무 잎처럼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관 속에는 죽음이 빚어낸 아름다움을 간직한 시신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에는 사랑 따위는 남아 있지 않았다. 루시의 영혼은 떠나보낸 채 그 형상만을 빌려 쓰고 있는 저 더러운 존재에 대한 혐오감뿐이었다. 바라보는 아서의 얼굴마저 딱딱하게 굳어가는 것이 보였다. 이윽고 아서가 반 헬싱에게 말했다.

"이것이 정말 루시의 몸인가, 아니면 그저 루시의 형상을 빌린 악마인가?"

"그것은 그녀의 몸이지만, 동시에 그녀의 몸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모두는 그녀의 예전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동시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누워 있는 루시의 모습은 마치 악몽 같았다. 뾰족한 치아, 피로 얼룩진 관능적인 입술은 보는 것만으로도 몸서리가 쳐질 정도였다. 육욕적이고 영적인 기운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그 모습은 루시의 달콤하고 순결했던 모습에 대한 악마적인 조롱처럼 보였다.

반 헬싱은 평소처럼 체계적인 태도로 가방에서 여러 물건을 꺼내어 즉시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하기 시작했다. 먼저 납땜 인두와 배관용 납을 꺼냈고, 그다음에는 작은 기름등잔을 꺼냈다. 무덤 한구석에서 등잔에 불을 붙이자, 푸른 불꽃을 내뿜으며 뜨겁게 타오르는 가스가 흘러나왔다. 이어 수술용 칼들을 꺼내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두더니, 마지막으로 두께가 2.5에서 3인치 정도 되고 길이는 3피트쯤 되는 둥근 나무 말뚝을 꺼냈다. 말뚝의 한쪽 끝은 불에 태워 단단하게 만들었으며, 아

주 날카롭게 깎아 놓은 상태였다. 말뚝과 함께 가져온 것은 일반 가정에서 석탄 덩어리를 깨뜨릴 때 쓰는 무거운 망치였다.

의사가 어떤 종류의 작업을 하든 그 준비 과정은 나에게 자극과 활력을 주지만, 아서와 퀸시에게는 이 물건들이 공포와 당혹감을 안겨주었다. 그럼에도 두 사람 모두 용기를 잃지 않고 침묵을 지키며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반 헬싱이 말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이 점을 먼저 말해두겠네. 이것은 고대의 전승이자, 언데드의 힘을 연구해 온 모든 이들이 쌓아온 경험이라네. 존재가 언데드로 변할 때, 그 변화와 함께 불멸이라는 저주가 찾아오지. 그들은 죽을 수 없으며, 세대를 거듭하며 새로운 희생자를 늘리고 세상의 악을 증폭시키며 계속 살아가야만 하네. 언데드에게 사냥당해 죽은 자들은 모두 스스로 언데드가 되어, 다시 동족을 사냥하기 때문이라네. 물속에 던져진 돌이 만드는 파문처럼, 그 악순환의 고리는 끊임없이 넓어질 뿐이지.

아서, 자네 친구여. 만약 자네가 불쌍한 루시가 죽기 전 겪었던 그 입맞춤을 마주했거나, 혹은 어젯밤 그녀를 향해 팔을 벌렸다면, 자네 또한 언젠가 죽은 뒤 동유럽에서 말하는 '노스페라투'가 되었을 것이네. 그리하여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는 저 언데드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냈겠지. 이 불행하고 가여운 여인의 비극적인 행보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네. 그녀가 피를 빨아먹는 아이들은 아직 별다른 이상이 없네. 하지만 그녀가 언데드로 계속 살아간다면, 아이들은 점점 더 피를

잃게 될 것이고, 그녀의 힘에 이끌려 그녀에게로 오게 되겠지. 그러면 그녀는 그 사악한 입으로 아이들의 피를 빨아먹을 것이네.

하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죽음을 맞이한다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네. 아이들의 목에 난 작은 상처들도 사라질 것이고, 아이들은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른 채 다시 놀이 속으로 돌아가겠지. 그리고 무엇보다 축복받을 일은, 이 언데드가 진정한 죽음을 맞이하여 안식을 얻을 때, 우리가 사랑하는 가여운 여인의 영혼이 다시 자유를 얻는 것이라네. 밤마다 악행을 저지르고 낮에는 그 악에 동화되어 점점 더 타락하는 대신, 그녀는 천사들의 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네.

그러니 친구여, 그녀를 자유롭게 해줄 일격을 가하는 것은 그녀에게 축복이 될 것이네. 나는 기꺼이 그 일을 하겠네. 하지만 우리 중에 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는가? 잠들지 못하는 고요한 밤에, 훗날 이렇게 회상하며 기뻐할 수는 없겠나? '그녀를 별들 사이로 보내준 것은 바로 내 손이었다. 그녀를 가장 사랑했던 이의 손이었다. 만약 그녀에게 선택권이 있었다면, 그녀가 스스로 선택했을 바로 그 사람의 손이었다'라고 말이네.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내게 말해주게."

우리 모두의 시선이 아서에게 향했다. 아서 역시 우리 모두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깨달았다. 루시를 불결한 존재가 아닌 성스러운 기억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그 무한한 친절의 의미를 말이다. 그는 앞으로 걸어 나갔다. 손은 떨리고 얼굴은 눈처럼 창백했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나의 진정한 친구여, 부서진 마음을 다해 당신에게 감사를 전하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주시오. 결코 주저하지 않겠소!" 반 헬싱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용감하게 하게! 잠시만 용기를 내면 끝날 일일세. 이 말뚝을 그녀의 심장에 박아 넣어야 하네. 분명 끔찍한 시련이 되겠지. 결코 속아서는 안 되네. 하지만 고통은 아주 잠깐일 뿐이야. 그 순간이 지나면 자네는 겪었던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걸세. 이 참혹한 무덤을 벗어날 때면, 마치 허공을 걷는 듯한 기분이 들 테니까. 하지만 일단 시작했다면 절대 망설여서는 안 되네. 자네의 진정한 친구인 우리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 생각하게. 우리가 끊임없이 자네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일세."

"계속하시오." 아서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주시오."

"왼손에는 이 말뚝을 쥐고 끝이 심장을 향하도록 준비하게. 오른손에는 망치를 들게. 그리고 우리가 죽은 이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면—내가 여기 책을 가져왔으니 내가 먼저 읽고 다른 이들이 뒤따를 걸세—그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리치게. 우리가 사랑하는 죽은 이가 평안을 얻고, 언데드가 사라질 수 있도록 말일세."

아서는 말뚝과 망치를 집어 들었다. 일단 행동하기로 마음을 먹자, 그의 손은 떨림조차 없이 단호했다. 반 헬싱은 기도서를 펼쳐 읽기 시작했고, 퀸시와 나도 그 뒤를 최대한 따라 읽었다. 아서가 말뚝 끝을 심

장 위에 대자, 하얀 살결 위로 말뚝이 눌린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다. 이윽고 그는 온 힘을 다해 내리쳤다.

관 속의 괴물이 몸부림쳤다. 벌어진 붉은 입술 사이로 피를 말리는 듯한 끔찍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시신은 격렬하게 뒤틀리고 떨리며 기괴한 형상으로 꿈틀거렸다. 날카롭고 하얀 치아는 입술이 찢어질 정도로 세게 맞물렸고, 입가에는 붉은 거품이 번졌다. 하지만 아서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떨림 없는 팔을 들어 올려 자비로운 말뚝을 깊숙이, 더 깊숙이 박아 넣는 그의 모습은 마치 토르 신의 형상 같았다. 꿰뚫린 심장에서 흘러나온 피가 말뚝을 타고 솟구쳐 올랐다. 그의 얼굴은 단호했으며, 그 표정에서는 숭고한 의무감이 빛나는 듯했다. 그 모습을 본 우리는 용기를 얻었고, 우리의 외침은 작은 지하 묘실 안에 울려 퍼졌다.

몸의 뒤틀림과 떨림이 점차 잦아들더니, 이윽고 이빨을 맞부딪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더니 얼굴이 파르르 떨렸다. 마침내 몸은 고요해졌다. 끔찍한 과업이 끝났다.

아서의 손에서 망치가 떨어졌다. 그는 비틀거렸고, 우리가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그대로 쓰러졌을 것이다. 그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솟구쳤으며, 숨은 끊어질 듯 거칠게 몰아쉬었다. 그에게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으리라.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선 어떤 사명감이 그를 몰아붙이지 않았더라면, 그는 결코 이 일을 끝까지 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몇 분 동안 그를 돌보느라 관 쪽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러나 마침내 고개를 돌렸을 때, 우리 사이에는 경악 섞인 탄성이 흘

러나왔다. 우리가 너무나 간절히 바라보자,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아서도 일어나 다가와 함께 살펴보았다. 그러자 그의 얼굴에 기이하고도 기쁜 빛이 서리며, 그를 짓누르던 공포의 그림자가 완전히 걷혔다.

그곳 관 속에는 더 이상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증오하며, 그녀를 파괴하는 일을 가장 자격 있는 이에게 부여된 특권처럼 여겼던 그 추악한 존재는 없었다. 대신 그곳에는 우리가 생전에 보았던 모습 그대로의 루시가 누워 있었다. 비할 데 없이 달콤하고 순결한 얼굴을 한 루시 말이다. 물론 생전에 보았던 것처럼 고통과 수척함, 그리고 고뇌의 흔적들이 그 얼굴에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흔적들조차 우리에게는 소중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알던 루시 본연의 모습임을 증명해주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느꼈다. 수척해진 얼굴과 몸 위로 햇살처럼 내려앉은 그 성스러운 평온함은, 앞으로 영원히 이어질 진정한 평온을 보여주는 지상의 징표이자 상징일 뿐이라는 것을.

반 헬싱이 다가와 아서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그에게 말했다.

"자, 이제 내 친구 아서, 사랑하는 친구여. 나를 용서해 주겠나?"

그가 노인의 손을 맞잡아 입술에 가져다 대고는, 그 손에 입을 맞추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제야 억눌려 있던 긴장이 터져 나왔다.

"용서라니, 그 무슨 말씀이오! 내 사랑하는 이에게 영혼을 되찾아 주시고, 나에게는 평온을 주셨으니, 부디 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그는 반 헬싱 교수의 어깨에 손을 얹고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댄 채 한동

안 소리 없이 오열했다. 우리는 그저 꼼짝도 하지 못한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가 고개를 들자 반 헬싱이 그에게 말했다.

"자, 이제 아이야, 그녀에게 입을 맞추어도 좋다. 그녀가 선택할 수만 있다면 분명 네가 그러길 바랐을 테니, 그녀의 죽은 입술에 입을 맞추거라. 이제 그녀는 비웃는 악마가 아니다. 영원히 끔찍한 존재로 남을 일도 없다. 더 이상 그녀는 악마의 언데드가 아니다. 그녀는 영혼이 신과 함께 있는, 진정으로 안식에 든 죽은 자이다!"

아서는 몸을 굽혀 그녀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그와 퀸시를 무덤 밖으로 보냈다. 반 헬싱 교수와 나는 말뚝의 끝부분을 시신에 남겨둔 채, 윗부분을 잘라냈다. 그다음 우리는 머리를 잘라내고 입안을 마늘로 채웠다. 납으로 된 관을 납땜하여 봉하고 관 뚜껑을 나사로 조인 뒤, 소지품을 챙겨 그곳을 떠났다. 교수는 문을 잠근 뒤 아서에게 열쇠를 건네주었다.

밖은 공기가 달콤했고, 햇살은 눈부셨으며, 새들은 노래했다. 마치 온 자연이 평소와는 다른 음조로 맞춰진 듯했다. 도처에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평화가 가득했다. 우리 역시 한 가지 이유로 마음의 안식을 얻었기에, 비록 절제된 기쁨이긴 했으나 마음은 무척이나 즐거웠다.

우리가 떠나기 전, 반 헬싱은 이렇게 말했다.

"자, 친구들이여. 우리 과업 중 한 단계가 끝났네. 우리 자신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단계였지. 하지만 더 큰 과제가 남아 있네. 이 모든 슬픔을 불러온 장본인을 찾아내어 완전히 뿌리 뽑는 것이라네. 우리가 따

라갈 수 있는 단서들이 있네. 하지만 이는 길고도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며, 그 과정에는 위험과 고통이 따를 것이네. 모두 나를 도와주겠나? 우리 모두는 이제 믿는 법을 배웠지 않은가? 그렇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네! 그리고 끝까지, 비록 그 끝이 비참할지라도 함께 나아가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나?"

우리는 차례로 그의 손을 맞잡으며 약속을 나누었다. 우리가 자리를 뜨자 교수가 말했다.

"이틀 뒤 저녁 일곱 시에 친구 존과 함께 만나 저녁 식사를 합시다. 아직 당신이 모르는 사람 두 명을 더 초대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계획을 모두 보여주고 설명하겠습니다. 존, 당신은 나와 함께 집으로 갑시다. 상의할 일이 아주 많은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 밤 암스테르담으로 떠나지만, 내일 밤에는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위대한 여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내가 할 말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야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서로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끔찍한 과업이 놓여 있습니다. 일단 쟁기를 잡고 나아갔다면, 결코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제XVII장

수어드 박사의 일기 — 계속

우리가 버클리 호텔에 도착했을 때, 반 헬싱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전보 한 통을 발견했다.

“기차 타고 올라가는 중. 조너선은 휘트비에 있음. 중요한 소식 있음. ——미나 하커.”

교수는 매우 기뻐했다. "아, 그 훌륭한 미나 부인 말인가요." 그가 말했다. "여인들 중의 진주 같은 분이지요! 그분이 도착하겠지만, 나는 머무를 수가 없소. 친구 존, 자네가 미나 부인을 자네 집으로 모셔야 하네. 역으로 마중을 나가게나. 부인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오는 길에 전보를 보내두게나."

전보를 보낸 뒤 그는 차를 한 잔 마셨다. 그는 차를 마시며 조너선 하커가 해외에 있을 때 쓴 일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고는 그 일

기의 타자본과 함께, 휘트비에 있는 하커 부인이 쓴 일기 사본도 건네주었다.

"이것들을 가져가서 잘 살펴보게." 그가 말했다. "내가 돌아오면 자네는 모든 사실을 완벽히 파악하게 될 것이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수 있을 걸세. 이 서류들을 소중히 보관하게나. 이 안에는 아주 귀중한 정보들이 담겨 있으니 말일세. 오늘 같은 일을 겪은 자네에게는 무엇보다 강한 믿음이 필요할 것이네. 여기에 기록된 내용은," 그는 서류 꾸러미 위에 무겁고 엄숙하게 손을 얹으며 말을 이었다. "자네와 나, 그리고 수많은 이들에게 종말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 땅을 떠도는 언데드의 종말을 알리는 조종이 될 수도 있네. 간절히 부탁하건대, 편견 없이 모든 내용을 읽어주게. 만약 이 이야기에 보탤 만한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든 덧붙여주게나.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 자네도 이 기이한 일들을 모두 일기로 기록해 두었지? 그렇지 않은가? 그래! 그럼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이 기록들을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세."

그는 떠날 채비를 마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리버풀 스트리트로 떠났다. 나는 패딩턴역으로 향했고, 기차가 들어오기 약 15분 전에 그곳에 도착했다.

승강장에 도착한 사람들이 흩어지는 흔한 풍경처럼 군중은 서서히 빠져나갔다. 손님을 놓칠까 봐 초조함이 밀려오던 그때, 사랑스러운 얼굴에 아담하고 고운 아가씨가 내게 다가왔다. 그녀는 나를 슬쩍 훑어보더니 말했다.

"수어드 박사님, 맞으시죠?"

"아, 하커 부인이시군요!" 내가 즉시 대답하자, 그녀가 내게 손을 내밀었다.

"불쌍하고 사랑스러운 루시의 설명을 듣고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갑자기 말을 멈췄다. 그러자 순식간에 붉은 홍조가 그녀의 얼굴을 뒤덮었다.

내 뺨에 떠오른 홍조가 묘하게 우리 둘 모두의 긴장을 풀어주었다. 그것은 그녀의 홍조에 대한 무언의 화답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타자기가 포함된 그녀의 짐을 챙겼다. 그사이 나는 가정부에게 전보를 보내 하커 부인이 머물 거실과 침실을 즉시 준비해 두라고 일렀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펜처치 스트리트로 향했다.

때가 되어 우리는 도착했다. 그녀도 그곳이 정신병원이란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안으로 들어설 때 그녀가 떨림을 억누르지 못하는 모습이 내 눈에는 선명히 보였다.

그녀는 할 말이 아주 많다며, 괜찮다면 곧 내 서재로 오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기다리는 동안 이곳에서 축음기 일기 작성을 마무리하고 있다. 반 헬싱이 내게 맡기고 간 서류들이 바로 앞에 펼쳐져 있지만, 아직 그것들을 살펴볼 기회는 없었다. 그녀가 무언가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서류를 읽어볼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가 마주한 과업이 얼마나 막중한지 아직 모르고 있다. 그녀를 겁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아, 그녀가 왔다!

미나 하커의 일기.

9월 29일.

몸단장을 마친 뒤 수어드 박사의 서재로 내려갔다. 문 앞에서 잠시 발길을 멈췄다. 박사가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린 듯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둘러 오라고 재촉했던 박사의 말이 떠올라 나는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게"라는 박사의 부름에 서재 안으로 들어섰다.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에 나는 몹시 놀랐다. 그는 완전히 혼자였다. 그의 맞은편 탁자 위에는 이전에 들었던 설명 덕분에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축음기가 놓여 있었다. 나는 축음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에 무척 흥미가 생겼다.

"기다리게 한 건 아니었으면 좋겠군요." 내가 말했다. "문밖에서 대화 소리가 들리기에, 누군가 함께 계신 줄 알고 문 앞에서 잠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저 일기를 쓰고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의 일기라고요?" 내가 놀라서 그에게 물었다.

"네," 그가 대답했다. "이 안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며 그는 축음기 위에 손을 얹었다. 나는 몹시 흥분한 나머지 나도 모르게 말을 내뱉고 말았다.

"세상에, 이건 속기보다도 낫군요!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그가 즉시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축음기가 소리를 내도록 작동시키려던 그는 돌연 멈칫하더니, 이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기색을 띠었다.

"사실은 말입니다." 그가 어색하게 말을 시작했다. "그저 일기장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내용이 온통—거의 온통—제 환자들에 관한 것이라, 조금 곤란할 수도… 그러니까 제 말은요—" 그는 말을 멈췄다. 나는 그가 당혹감을 떨쳐낼 수 있도록 말을 거들었다.

"마지막 순간, 사랑하는 루시의 곁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셨지요. 루시가 어떻게 떠났는지 들려주십시오. 그녀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제게는 더없이 고마운 일일 거예요. 루시는 제게 정말,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공포에 질린 얼굴로 대답하자,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녀의 죽음에 대해 말해달라고? 세상 그 무엇을 대가로 준다 해도 절대 말할 수 없소!"

"왜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물었다. 무겁고도 끔찍한 기분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다시 말을 멈췄다. 억지로 변명을 짜내려 애쓰는 모습이 눈에 보였다. 마침내 그는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다.

"보시다시피, 일기에서 특정 부분을 어떻게 골라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말을 하는 도중에도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오른 모양이었다. 그는 아이 같은 천진함으로,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 톤을 바꾸며 아주 단순하게 덧붙였다. "정말 그렇군요. 맹세코 사실입니다. 진짜라니까요!" 나는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고, 그러자 그는 멋쩍은 듯 얼굴을 찡그렸다. "방금 제가 제 속마음을 들켜 버렸군요!" 그가 말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지난 몇 달 동안 일기를 써 왔으면서도, 막상 나중에 특정 내용을 찾아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될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무렵 나는 결심을 굳혔다. 루시를 돌보았던 의사의 일기라면, 그 끔찍한 존재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보탤 무언가가 분명히 담겨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나는 용기를 내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렇다면 수어드 박사님, 제가 타자기로 직접 옮겨 적어 드리는 편이 좋겠군요.” 그는 말을 이으며 마치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졌다.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세상 그 무엇을 준다 해도, 당신에게 그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주지는 않을 거야!”

그 순간은 정말 끔찍했다. 내 직감이 맞았던 것이다! 잠시 망설이던 나는 무언가 나를 도와줄 물건이나 기회를 무의식적으로 찾아 방 안을 훑었다. 그러다 눈길이 탁자 위에 놓인 커다란 타자 서류 뭉치에 머물렀다. 그가 내 눈빛을 알아채고는 자신도 모르게 내 시선을 따라갔다. 그가 그 꾸러미를 보는 순간, 그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차렸다.

"당신은 저를 모르잖아요." 내가 말했다. "제가 타이핑해 둔 제 일기와 남편의 일기, 그 기록들을 모두 읽고 나면 저를 더 잘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이 대의를 위해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물론, 당신은 아직 저를 모르죠. 그러니 지금 당장 저를 믿어달라고 바랄 수는 없어요."

그는 분명 고결한 성품을 지닌 분이다. 가여운 루시가 그에 대해 말했던 것이 옳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커다란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는 검은 밀랍으로 덮인 금속 원통들이 차례대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당신을 잘 몰랐기에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을 압니다. 진작에 당신을 알아봤어야 했다는 말은 꼭 해두고 싶군요. 루시에게 내 이야기를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루시도 내 이야기를 당신에게 해주었지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방법으로 이것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 원통형 기록들을 가져가서 들어보십시오. 처음 여섯 개는 제 개인적인 기록인데, 결코 당신을 놀라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들을 듣고 나면 저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쯤 되면 저녁 식사도 준비될 겁니다. 저는 그동안 이 서류들을 좀 훑어보며 몇 가지 사항을 더 자세히 파악하고 있겠습니다."

그는 직접 축음기를 내 거실까지 옮겨와 내가 듣기 편하도록 조절해 주었다. 이제 나는 분명 즐거운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이미 한쪽 면을 알고 있는 어느 진실한 사랑 이야기의 나머지 면을 듣게 될 테니까.

수어드 박사의 일기.

9월 29일.

조너선 하커의 경이로운 일기와 그의 아내가 쓴 또 다른 일기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저녁 식사를 알리러 하녀가 왔을 때도 하커 부인은 내려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아마 피곤한 모양이니 저녁 식사는 한 시간쯤 미뤄두게"라고 말하고는 다시 내 일에 집중했다. 하커 부인의 일기를 막 다 읽었을 때 그녀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무척 사랑스럽고 예뻤지만, 무척 슬픈 기색이었고 눈가는 울어서 발갛게 부어 있었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을 크게 흔들었다. 하느님만이 아시겠지만, 나 역시 최근 눈물을 흘릴 일이 많았다. 하지만 나는 차마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참아내야만 했다. 그런데 방금 울음을 터뜨린 듯 촉촉하게 젖은 그 고운 눈망울을 마주하니, 내 마음이 곧장 저릿해졌다. 그래서 나는 최대한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제가 당신을 너무 괴롭힌 것은 아닌지 몹시 걱정됩니다."

"아니에요, 괴롭지는 않았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다만 당신의 슬픔을 지켜보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아팠을 뿐이에요. 그 기계는 정말 놀랍지만, 참으로 잔인할 정도로 진실하군요. 그 기계가 내뱉는 음조 하나하나에서 당신의 심장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가 그대로 느껴졌거든요. 마치 전능하신 신을 향해 울부짖는 영혼 같았어요. 이제 그 소리를 다시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해요! 보세요, 제가 도움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타자기로 그 말들을 전부 옮겨 적어

두었으니, 이제는 저처럼 당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고 괴로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알 필요 없어요. 앞으로도 영원히 알 일은 없을 겁니다." 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내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으며 아주 엄숙하게 말했다.

"아, 하지만 그래야만 해요!"

"꼭 그래야만 합니까? 하지만 어째서입니까?" 내가 물었다.

"그건 이 끔찍한 이야기의 일부이기 때문이에요. 가여운 루시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이어진 모든 일의 일부니까요. 이 끔찍한 괴물을 지구상에서 몰아내기 위해 우리가 마주한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도움이 필요해요. 당신이 제게 준 원통들에는 당신이 의도한 것 이상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당신의 기록 속에 이 어두운 수수께끼를 밝혀줄 수 있는 수많은 실마리가 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어요. 저도 돕게 해주시겠어요? 저도 어느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요. 당신의 일기는 9월 7일에서 멈췄지만, 가여운 루시가 어떻게 괴롭힘을 당했는지, 그 끔찍한 운명이 어떻게 실현되어 가고 있었는지는 이미 눈에 보여요. 반 헬싱 교수가 우리를 만난 이후로 조너선과 저는 밤낮없이 일해 왔어요. 교수님은 정보를 더 얻으러 휘트비로 떠나셨고, 내일이면 우리를 돕기 위해 이곳으로 돌아오실 거예요. 우리 사이에 비밀은 없어야 해요. 서로를 온전히 신뢰하며 함께 힘을 합쳐야만, 누군가 진실을 모른 채 남겨지는 것보다 분명 더 강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간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면서도 태도만큼은 매우 용기 있고 결연해 보였기에, 나는 즉시 그녀의 뜻에 따르기로 했다.

"그렇게 하시오." 내가 말했다. "이 일에 대해서는 당신 뜻대로 하시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신께서 용서하시길! 아직 알아내야 할 끔찍한 일들이 남아 있소. 하지만 당신이 루시의 죽음으로 향하는 길을 이미 이만큼이나 따라왔다면, 계속 진실을 모른 채 남아있으려 하지는 않을 거요. 아니, 어쩌면 그 끝에서, 정말 마지막 순간에 당신은 비로소 평온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자, 저녁 식사 시간이라오. 우리 앞에 놓인 일을 헤쳐 나가려면 서로를 북돋워 주어야 하오. 우리에게는 잔인하고도 두려운 과업이 남아 있으니 말이오. 식사를 마치고 나면 나머지를 알려주겠소. 당신이 묻는 질문에는 무엇이든 답하겠소. 비록 현장에 있었던 우리에게는 명백했던 일이라 해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말해주시오."

미나 하커의 일기.

9월 29일.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나는 수어드 박사를 따라 그의 서재로 향했다. 박사가 내 방에서 가져온 축음기를 놓았고, 나는 타자기를 챙겨 왔다. 박사는 내가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내주었다. 그러고는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도 축음기를 조작할 수 있게 위치를 잡아주었으며, 기록을 잠시 멈추고 싶을 때 어떻게 멈추는지도 알려주었다. 그런 다음 박사는 내가 최대한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도록 배려해, 내 등

뒤로 의자를 돌려 앉아 책을 읽기 시작했다. 나는 축음기의 금속 청취기를 귀에 대고 소리에 집중했다.

루시의 죽음에 관한 그 끔찍한 이야기와, 그 뒤에 이어진 모든 일에 대한 설명이 끝났을 때, 나는 기운이 다 빠진 채 의자에 몸을 기대고 누워 있었다. 다행히 나는 쉽게 정신을 잃는 체질은 아니었다. 수어드 박사는 나를 보자마자 경악하며 비명을 지르듯 일어났다. 그는 서둘러 찬장에서 브랜디 병을 꺼내 내게 건네주었고, 덕분에 몇 분 지나지 않아 기운을 어느 정도 차릴 수 있었다. 머릿속은 온통 어지러웠다. 그 수많은 공포 속에서도 사랑하는 나의 루시가 마침내 평온을 찾았다는 성스러운 빛 같은 소식만이 나를 지탱해 주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이성을 잃고 소란을 피웠을지도 모른다. 이 모든 일이 너무나 거칠고 신비로우며 기이해서, 만약 조너선이 트란실바니아에서 겪은 일을 미리 알지 못했더라면 나는 도저히 믿지 못했을 것이다. 사실 당시의 나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기에, 다른 일에 집중하며 간신히 혼란을 떨쳐냈다. 나는 타자기의 덮개를 벗으며 수어드 박사에게 말했다.

"이제 이 내용을 전부 기록해 둘게요. 반 헬싱 박사님이 오시면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쳐야 해요. 조너선에게는 휘트비에서 런던에 도착하는 대로 이리로 오라고 전보를 보냈어요. 이 일은 날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우리가 가진 자료를 모두 준비하고 모든 항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둔다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고달밍 경과 모리스 씨도 오고 있다고 하셨죠? 그분들이 도착하면 박사님께 바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두기로 해요."

수어드 박사는 내가 말한 대로 축음기의 속도를 늦추었고, 나는 일곱 번째 실린더의 처음부터 타자기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나는 먹지를 대고 옮겨 적어, 다른 자료들과 마찬가지로 일기 사본을 세 부 만들었다. 작업을 마쳤을 때는 이미 밤이 깊었으나, 수어드 박사는 환자들을 돌보는 회진 업무를 계속했다. 회진을 마친 그는 내 곁에 돌아와 앉아 책을 읽었고, 덕분에 작업하는 동안 너무 외롭지는 않았다. 그는 참으로 선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다. 세상에는 괴물들이 존재할지언정, 선한 이들도 분명 가득하다.

그를 떠나기 전, 나는 조너선이 일기에 적어둔 내용을 떠올렸다. 엑서터 역에서 저녁 신문을 읽던 교수가 무척 당황해했다는 내용이었다. 수어드 박사가 신문을 차곡차곡 보관해 두는 편이니, 나는 그가 모아둔 '웨스트민스터 가제트'와 '팰 몰 가제트'의 파일들을 빌려 내 방으로 가져왔다. 예전에 내가 스크랩해 두었던 '데일리그래프'와 '휘트비 가제트'가 드라큘라 백작이 상륙했을 당시 휘트비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들을 이해하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기억한다. 그러니 그날 이후의 저녁 신문들도 훑어본다면, 어쩌면 새로운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직 잠은 오지 않으니, 이 작업이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수어드 박사의 일기.

9월 30일.

하커 씨가 9시에 도착했다. 그는 출발하기 직전에 아내로부터 전보를 받았다. 그의 표정으로 미루어 짐작건대, 그는 유달리 영리하고 활

력이 넘치는 사람이다. 만약 이 일기가 사실이라면—자신의 놀라운 경험들에 비추어 볼 때, 분명 사실일 것이다—그는 대단한 담력까지 갖춘 사람이다. 지하 묘실로 두 번이나 내려간 것은 정말 놀라운 용기였다. 그가 쓴 기록을 읽었을 때만 해도 나는 아주 강인한 남성을 만나게 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오늘 이곳에 나타난 사람은 내가 예상했던 모습과는 달리, 그저 조용하고 사무적인 신사일 뿐이었다.

* * * * *

나중에.

점심을 먹고 난 뒤 하커와 그의 아내는 자신들의 방으로 돌아갔다. 조금 전 그들 곁을 지나갈 때 타자기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하커 부인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 조각을 시간 순서대로 하나하나 엮어내고 있다고 한다. 하커는 휘트비에서 상자를 수령한 수하인과, 그 상자들을 인수한 런던의 운송업자 사이에 오간 편지들을 확보했다. 그는 지금 미나가 타이핑한 내 일기 원고를 읽고 있다. 그들이 이 기록을 통해 무엇을 밝혀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 여기 기록을 남긴다….

바로 옆집이 드라큘라 백작의 은신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환자인 렌필드의 행동만 보더라도 단서는 충분했는데 말이다! 집을 매입할 때 주고받은 편지 꾸러미들이 타자기로 친 문서들과 함께 있었다. 아, 그 서류들을 조금만 더 일찍 확인했더라면 가여운 루시를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니, 그만하자. 이런 생각은 미친 짓이다! 하커가 다시 돌아가서 자료들을 정

리하고 있다. 하커의 말로는 저녁 식사 때쯤이면 모든 사건을 하나로 연결한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한다. 하커는 그동안 내가 렌필드를 만나보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지금까지 렌필드는 드라큘라가 오가는 행적을 알려주는 일종의 색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아직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날짜들을 대조해 보고 나면 알게 될 것 같다. 하커 부인이 내 실린더를 타자기로 쳐 두길 정말 잘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날짜들을 결코 찾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방 안을 찾아가 보니 렌필드는 손을 모은 채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평온하게 앉아 있었다. 그 순간만큼은 내가 본 그 누구보다도 제정신처럼 보였다. 나는 자리에 앉아 여러 주제로 그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렌필드는 모든 대화에 자연스럽게 응했다. 그러더니 그는 먼저 입을 열어 집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내가 아는 한, 그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 한 번도 언급한 적 없는 주제였다. 심지어 그는 곧 퇴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만약 내가 하커와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그가 발작을 일으켰던 날짜와 편지들을 읽어보지 않았더라면, 아마 짧은 기간 관찰한 뒤에 그를 퇴원시켜도 좋다고 서명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깊은 의구심이 든다. 그가 보였던 모든 발작은 어떤 식으로든 드라큘라 백작의 접근과 연관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지독할 정도의 평온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혹시 흡혈귀가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잠깐, 그는 생물을 먹어 치우는 식성(zoöphagous)을 가지고 있다. 버려진 저택의 예배당 문밖에서 광기 어린 헛소리를 내뱉을 때도

그는 늘 '주인님'을 입에 올렸다. 이 모든 정황은 우리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듯하다.

하지만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를 떴다. 지금의 친구는 지나치게 평온한 상태라, 질문을 던져 깊이 파고드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것 같았다. 그가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다음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일단 물러났다. 나는 그의 이런 고요한 기색이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간호사에게 그를 면밀히 살피라고 일러두었으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구속복을 준비해 두라고 지시했다.

조너선 하커의 일기.

9월 29일, 런던행 열차 안에서.

빌링턴 씨가 자신이 알아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정중히 메시지를 보내왔을 때, 나는 직접 휘트비로 내려가 현장에서 필요한 조사를 하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지금 나의 목표는 드라큘라 백작이 실어 보낸 그 끔찍한 화물이 런던 어디에 도착했는지 추적하는 것이다. 나중에 그 화물을 처리할 기회가 오겠지.

친절한 청년인 빌링턴 주니어가 역으로 마중을 나와 나를 그의 아버지 집으로 안내했다. 그곳에서 나는 하룻밤 머물기로 했다. 그들은 진정한 요크셔식 환대를 보여주었다. 손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어주되, 손님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 배려해 주었다. 그들은 내가 바쁘고 체류 기간도 짧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빌링턴 씨는 사무실에 상자 화물과 관련된 서류를 모두 준비해 두었다.

드라큘라 백작의 사악한 계획을 알기 전, 그의 탁자 위에서 보았던 편지 중 하나를 다시 마주하자 나는 하마터면 정신을 잃을 뻔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실행되었다. 그는 자신의 의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마주칠 수 있는 그 어떤 장애물도 이미 대비해 둔 듯 보였다. 미국식 표현을 빌리자면, 그는 결코 "운에 맡기지 않았다." 그의 지시가 완벽하게 이행된 것은 그가 기울인 세심한 노력의 당연한 결과였다.

나는 송장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했다. "실험용으로 사용할 일반 흙 50상자." 또한 카터 패터슨에게 보낸 편지 사본과 그들의 답장도 확인했으며, 두 서류 모두 사본을 받아 두었다. 이것이 빌링턴 씨가 내게 줄 수 있는 정보의 전부였기에, 나는 항구로 내려가 해안 경비대와 세관원, 그리고 항만 관리인을 만났다. 그들 모두 그 배의 기이한 입항에 대해 한마디씩 거들었으며, 그 이야기는 벌써 지역의 전설처럼 떠돌고 있었다. 하지만 "일반 흙 50상자"라는 단순한 설명 외에 그 누구도 더 보탤 정보는 없었다.

그 후 역장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자, 그는 친절하게도 상자를 실제로 받았던 사람들과 연락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들이 기록한 수량은 목록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들이 덧붙인 말이라고는 상자가 "죽을 만큼 무거웠고", 그것을 옮기는 일이 고된 작업이었다는 것뿐이었다. 그 중 한 명은, 자신들의 노고를 술 한 잔으로라도 보답해 줄 "선생님 같은 신사분"이 계시지 않아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을 덧붙였다. 또 다른 이는, 그때 생긴 갈증이 너무 심해서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여전히 가시지 않는다고 거들었다.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이, 나는 떠나기 전 그들

이 느꼈을 원망을 영원히, 그리고 충분히 씻어주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 * * * *

9월 30일.

역장은 친절하게도 킹스크로스 역의 옛 동료인 역장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덕분에 아침에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화물 상자들의 도착 여부를 물을 수 있었다. 그 역시 즉시 담당 관리들에게 나를 연결해 주었고, 나는 상자들의 수량이 원래 송장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곳에서는 비정상적인 갈증이 생길 만한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얼마 안 되는 기회를 아주 훌륭하게 활용했고, 나는 또다시 그 결과를 사후에 수습해야만 했다.

그곳을 떠나 카터 패터슨의 중앙 사무실로 향했다. 그곳 사람들은 나를 극진히 대접해 주었다. 그들은 일지과 서신 대장을 뒤져 거래 내역을 찾아냈고, 곧바로 킹스크로스 지사에 전화를 걸어 상세한 내용을 확인했다. 다행히도 마차를 몰던 일꾼들이 마침 일을 기다리던 중이었다. 사무실 직원은 그들을 즉시 내 쪽으로 보냈고, 그중 한 명을 통해 운송장과 카팩스에 상자들을 인도할 때 작성한 모든 서류도 함께 보내주었다.

여기서도 수량은 정확히 일치했다. 기록된 글자가 부족한 부분은 운송업자들의 설명으로 채울 수 있었다. 곧 확인해 보니, 그 설명들은 거의 예외 없이 먼지가 많은 작업 환경과 그로 인해 일꾼들이 느끼는 갈

증에 관한 내용이었다. 내가 나중에 돈을 지불해 그 유익한 악덕을 달래줄 기회를 제공하자, 일꾼 중 한 명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집 말입니다, 주인님. 제가 살면서 본 집 중에 제일 기괴한 곳이었어요. 정말이지, 백 년은 아무도 손을 안 댄 모양이더라고요. 먼지가 어찌나 두껍게 쌓였는지, 그 위에서 잠을 자도 뼈마디가 아프지 않을 정도였다니까요. 게다가 관리가 워낙 안 돼서, 마치 예루살렘의 오래된 냄새가 진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낡은 예배당은, 아, 정말이지 압권이었어요! 저랑 제 동료는 거기서 제때 빠져나오지 못할 줄 알고 겁에 질렸답니다. 세상에, 해가 진 뒤에 거기 머물라고 하면 한순간에 1파운드는 줘야지, 그보다 적게는 죽어도 못 합니다."

그 집에 직접 들어가 보았으니 그의 말을 충분히 믿을 수 있었다. 하지만 만약 그가 내가 아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마 제안 조건을 더 높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다. 데메테르 호를 타고 바르나에서 휘트비로 실려 온 상자들은 모두 카팩스의 오래된 예배당에 안전하게 보관되었다는 사실이다. 수어드 박사의 일기를 보니 혹시 그사이 상자들을 옮겼을까 봐 걱정되긴 하지만, 옮기지 않았다면 그곳에는 분명 상자 쉰 개가 있어야 한다.

렌필드가 인부들을 습격했을 당시 카팩스에서 그 상자들을 실어 낸 마부를 만나보려 한다. 이 단서를 추적하다 보면 꽤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 * * * *

나중에.--미나와 나는 하루 종일 작업에 매달려 모든 서류를 정리해 두었다.

미나 하커의 일기

9월 30일.

너무 기뻐서 이 감정을 어떻게 주체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마도 그동안 나를 괴롭히던 공포 때문인 듯하다. 이 끔찍한 사건과 그가 입은 옛 상처가 다시 벌어진 일이 조너선에게 해가 될까 봐 몹시 걱정했었다. 그가 휘트비로 떠날 때 최대한 의연한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불안함에 몸서리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노력은 오히려 그에게 도움이 되었다. 조너선은 지금처럼 결연하고 강인하며, 화산 같은 에너지가 넘치던 적이 없었다. 인자하고 훌륭하신 반 헬싱 교수가 말씀하신 그대로다. 그는 진정한 강철 같은 사람이며, 약한 자라면 죽었을 압박 속에서도 오히려 더 나아지는 법이다. 그는 생기와 희망, 그리고 결단력을 가득 품은 채 돌아왔다. 오늘 밤을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 흥분으로 마음이 들떠 가라앉질 않는다.

드라큘라 백작처럼 쫓기는 처지에 놓인 존재라면 누구라도 가련하게 여겨야 마땅할 것이다. 바로 그 점이 문제다. 이 존재는 인간이 아니다. 짐승조차 아니다. 불쌍한 루시의 죽음과 그 뒤에 일어난 일들에 대

해 수어드 박사가 기록한 내용을 읽다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연민의 샘마저 메마를 지경이다.

* * * * *

나중에.--고달밍 경과 모리스 씨가 예상보다 일찍 도착했다. 수어드 박사는 업무차 외출 중이었고 조너선을 데려간 상태라, 내가 그들을 맞이해야 했다. 불과 몇 달 전, 가여운 루시가 품었던 그 모든 희망을 떠올리게 하는 만남이었기에 내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당연히 그들은 루시가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을 것이고, 모리스 씨의 표현을 빌리자면 반 헬싱 박사 또한 나를 꽤나 '치켜세워 둔' 모양이었다. 가여운 이들, 그들은 자신들이 루시에게 했던 청혼에 대해 내가 모두 알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를 것이다. 그들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몰랐기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중립적인 주제로만 대화를 이어가야 했다. 하지만 나는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한 끝에, 그들에게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전부 알려주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수어드 박사의 일기를 통해 그들이 루시의 죽음, 즉 그녀의 진정한 죽음을 지켜보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때가 되기 전에 비밀을 누설할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모든 서류와 일기를 읽었으며, 남편과 내가 그것들을 타자기로 치고 이제 막 정리 작업을 마쳤다고 최대한 상세히 설명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서재에서 읽어볼 수 있도록 각각 사본을 한 부씩 건네주었다. 고달밍 경은 자신의 사본을 받아 들고는—내용이 꽤 두툼한 뭉치이긴 하다—이렇게 말했다.

"이 모든 걸 직접 쓰신 건가요, 하커 부인?"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말을 이어갔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모두 참으로 선하고 친절한 분들이지요. 그토록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애써 주셨으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눈을 가린 채 여러분의 뜻을 받아들이며 힘을 보태는 것뿐입니다. 저는 이미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한 인간이 평생을 겸허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그런 교훈 말입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가여운 루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그는 말을 멈추고 고개를 돌리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그의 목소리에 배어 있는 울음기가 내 귀에까지 들려왔다. 모리스 씨는 본능적인 배려로 잠시 그의 어깨에 손을 얹어준 뒤, 조용히 방을 나갔다. 여자의 본성에는 남자가 자신의 남성성을 해친다는 느낌 없이, 그 앞에서 마음껏 무너져 내리며 연약하고 감정적인 속내를 털어놓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는 모양이다. 고달밍 경은 나와 단둘이 남게 되자 소파에 주저앉아, 억눌렀던 감정을 완전히, 그리고 숨김없이 터뜨렸다.

나는 그의 곁에 앉아 손을 맞잡았다. 내가 너무 앞서 나갔다고 그가 여기지 않기를, 그리고 나중에라도 그 일을 떠올릴 때 결코 그런 마음을 품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아니, 그렇게 의심하는 것조차 그를 욕되게 하는 일이다. 그는 결코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는 너무나 진정한 신

사니까. 그의 마음이 갈가리 찢겨 나가는 것이 눈에 보였기에,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사랑하는 루시를 아꼈어요. 루시가 당신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당신이 루시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잘 알아요. 루시와 나는 자매나 다름없었죠. 이제 루시가 떠났으니, 당신이 겪는 이 슬픔 속에서 나 또한 당신의 자매 같은 존재가 되도록 허락해 주지 않겠어요? 당신이 어떤 슬픔을 겪어왔는지 나는 알고 있어요. 비록 그 깊이까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요. 만약 나의 공감과 연민이 당신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루시를 위해서라도 내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줄 수 있게 해 주세요."

순식간에 가여운 그 친구는 슬픔에 휩싸였다. 그동안 그가 침묵 속에 홀로 견뎌온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했다. 그는 완전히 히스테리 상태에 빠져, 양손을 들어 올리더니 극심한 비통함에 손바닥이 맞부딪치도록 내리쳤다. 그는 일어섰다가 다시 주저앉기를 반복했고, 뺨에는 눈물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나는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연민을 느껴 나도 모르게 팔을 벌려 그를 안았다. 그는 흐느끼며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격한 감정에 몸을 떨며 지친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 여자들에게는 모성이라는 것이 깃들어 있어서, 모성애가 깨어날 때면 사소한 일들을 초월하게 된다. 슬픔에 잠긴 이 남자의 머리가 내 몸에 기댈 때, 나는 마치 언젠가 내 품에 안길 아기의 머리를 받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그를 내 아이라도 되는 양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때는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기묘한 일이었는지 미처 생각지 못했다.

잠시 후 흐느낌이 잦아들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하지 않으면서도,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몸을 일으켰다. 그는 지난 며칠 동안, 지칠 대로 지친 낮과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누구와도 대화를 나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슬픔에 빠진 사람이 마땅히 누군가에게 털어놓아야 할 그 말들을 말이다. 그의 슬픔을 둘러싼 상황이 너무나 끔찍했기에, 그에게 공감해 줄 여인도 없었거니와 마음 놓고 속내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도 없었다.

"이제야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의 따뜻한 위로가 내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는 아직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아마 그 누구도 결코 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더 잘 알게 되겠지요. 지금도 충분히 감사하지만, 시간이 지나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수록 제 감사함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부디 제가 평생토록 형제처럼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루시를 위해서라도 부탁드립니다."

"사랑스러운 루시를 위해서라도요." 우리가 손을 맞잡으며 내가 말했다.

"그래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라도요." 그가 덧붙였다. "만약 누군가의 존경과 감사를 얻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면, 당신은 오늘 내 마음을 얻은 겁니다. 만약 훗날 당신에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때가 온

다면, 내 말을 믿으세요. 결코 헛되이 부르는 일이 되지 않을 겁니다. 신께서 당신의 밝은 삶을 깨뜨릴 그런 날이 결코 오지 않게 보살펴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날이 온다면, 반드시 내게 알려주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그의 태도는 너무나 간절했고 슬픔은 여전히 생생했기에, 나는 위로를 건네는 것이 그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이렇게 말했다.

"약속하겠어요."

복도를 따라 걸어가던 중,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모리스 씨를 발견했다. 내 발소리를 들은 그가 몸을 돌렸다.

"아서는 좀 어떤가?" 그가 물었다. 그러다 내 충혈된 눈을 보고는 말을 이었다. "아, 자네가 곁에서 위로해 주었나 보군. 가엾은 친구 같으니! 그에게는 위로가 꼭 필요했네. 마음이 아파 괴로울 때 남자를 도와줄 수 있는 건 여자뿐이라네. 그런데 그에게는 곁에서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 말이야."

그는 자신의 고통을 너무나 용감하게 견뎌내고 있어서, 그를 보는 내 마음이 다 아플 지경이었다. 나는 그의 손에 들린 원고를 보았다. 그가 그것을 읽고 나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깨닫게 되리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를 친구로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위로가 필요할 때 언

제든 저를 찾아와 주시겠습니까? 나중에 때가 되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내가 진심임을 알아차렸다. 그는 몸을 굽혀 내 손을 잡더니, 그 손을 입술로 가져가 입맞추었다. 그토록 용감하고 이타적인 영혼에게 나의 위로는 너무나 보잘것없게 느껴졌다. 나는 충동적으로 몸을 숙여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순간 목이 메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아주 차분하게 말했다.

"꼬마 아가씨, 네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진심 어린 그 친절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게다!" 그러고 나서 그는 친구가 있는 서재로 들어갔다.

"꼬마 아가씨!" 루시에게 불렀던 바로 그 말이었다. 아, 그는 진정한 친구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제XVIII장

수어드 박사의 일기

9월 30일.

오후 5시에 집에 도착하니, 고달밍과 모리스가 이미 와 있었다. 그들은 하커와 그의 놀라운 아내가 작성하고 정리해 둔 여러 일기와 편지 사본을 이미 다 살펴본 상태였다. 하커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헤네시 박사가 내게 편지로 언급했던 운송업자들을 만나러 나간 길이었다. 하커 부인이 우리에게 차를 대접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 오래된 집에서 지내온 시간 중 처음으로 이곳이 진정한 '집'처럼 느껴졌다. 차를 다 마시자 하커 부인이 말했다.

"수어드 박사님,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나요? 환자인 렌필드 씨를 좀 보고 싶어요. 제발 만나게 해주세요. 박사님의 일기에 적힌 그의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서 그래요!"

그녀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하고 모습이 무척이나 아름다웠기에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딱히 거절해야 할 이유도 없었기에, 나는 그녀를 데리고 방으로 향했다. 방에 들어가서 렌필드에게 한 여인이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하자, 그는 그저 이렇게 되물었다.

"왜요?"

"그녀가 집 안을 둘러보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만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대답했다.

"오, 좋습니다." 그가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오게 하세요. 다만 제가 이곳을 좀 정리할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의 정리 방식은 기이했다. 내가 말릴 틈도 없이 그는 상자 안에 있는 파리나 거미를 통째로 삼켜 버렸다. 그가 누군가의 방해를 두려워하거나, 혹은 질투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주 분명해 보였다. 혐오스러운 작업을 마친 그가 쾌활하게 말했다.

"부인께서 들어오시게 하시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고개를 숙인 채 앉았다. 하지만 눈꺼풀은 치켜떠서, 그녀가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게 했다. 순간 나는 그에게 살의라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 서재에서 나를 공격하기 직전, 그가 얼마나 고요했는지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그녀에게 달려들려 할 경우 즉시 붙잡을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고 섰다.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 몸짓에는 여유로운 우아함이 넘쳐흘러, 어떤 미치광이라도 단번에 경의를 표할 만큼 자연스러웠다. 원래 미친 사람들은 여유로운 태도를 가장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기분 좋게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렌필드 씨." 그녀가 말했다. "수어드 박사님께 말씀 들었어요.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답니다."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미간을 찌푸린 채 그녀를 뚫어지게 살폈다. 그러던 그의 눈빛은 경이로움으로 바뀌더니 이내 의구심으로 변했다. 그리고 이윽고, 내가 경악할 만큼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가 입을 열었다.

"의사 선생님이 결혼하고 싶어 했던 그 여자는 아니지, 그치? 그럴 리가 없잖아,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하커 부인은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그럴 리가요! 제게는 이미 남편이 있어요. 수어드 박사를 만나기도 전, 아니 박사가 저를 알기도 전에 결혼한 남편 말이에요. 저는 하커 부인이랍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남편과 저는 수어드 박사님 댁에 머물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머물지 마세요."

"하지만 왜 안 되나요?"

나 역시 이 대화 방식이 불쾌하다고 느꼈기에, 하커 부인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하며 나도 대화에 끼어들었다.

"내가 누군가와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그의 대답은 그저 경멸에 찬 것이었다. 잠시 침묵이 흐르는 사이, 그는 하커 부인에게서 나에게로 시선을 옮겼다가 곧바로 다시 그녀에게로 되돌리더니 이렇게 내뱉었다.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이로군!"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렌필드 씨." 하커 부인이 즉시 내 편을 들며 말했다. 그는 나에게 보여주었던 경멸과는 대조적으로, 부인에게는 더없이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대답했다.

"하커 부인, 물론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집주인처럼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는 분이라면, 우리 작은 공동체 안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일은 다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수어드 박사님은 가족과 친구들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사랑받는 분입니다. 다만 환자들 중에는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한 이들이 있어, 원인과 결과를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요. 저 또한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기에, 환자들 중 일부가 보여주는 궤변적인 태도가 '원인 오류'나 '논점 일탈' 같은 오류로 흐르는 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전개에 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내가 아끼던 그 광인이, 내가 지금까지 만난 환자 중 가장 증세가 심했던 그 환자가, 세련된 신사처럼 품격 있는 태도로 근원적인 철학을 논하고 있었다. 하커

부인이 곁에 있는 것이 그의 기억 속 무언가를 건드린 것일까? 만약 이 새로운 모습이 자발적으로 나타난 것이거나, 혹은 부인의 무의식적인 영향 때문이라면, 그녀에게는 분명 아주 특별한 재능이나 힘이 있는 게 분명했다.

우리는 한동안 대화를 이어갔다. 그가 겉보기에는 꽤 이성적인 듯 보이자, 그녀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내게 괜찮으냐는 듯한 눈빛을 보내고는, 조심스럽게 그가 좋아하는 화제로 그를 이끌었다. 나는 다시 한번 놀랐다. 그가 더없이 멀쩡한 사람처럼 아주 공정한 태도로 그 문제에 임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는 어떤 사실들을 언급하면서 자기 자신을 예로 들기까지 했다.

"나 자신이 바로 기이한 믿음에 사로잡혔던 사람의 본보기라네. 사실 내 친구들이 경악하며 나를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지. 나는 생명이란 확고하고 영속적인 실체이며, 창조의 질서에서 아무리 낮은 단계의 생물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생명을 섭취함으로써 삶을 무한히 연장할 수 있다고 믿었네. 때로는 그 믿음이 너무나 강렬해서 실제로 사람의 목숨을 앗으려 시도한 적도 있었지. 여기 계신 박사께서도 증언해 주시겠지만, 언젠가 나는 그의 피를 통해 그의 생명력을 내 몸에 흡수함으로써 나의 생명력을 강화하려 그를 죽이려 한 적이 있네. 물론 '피는 생명이라'는 성경 구절에 의지해서 말일세. 비록 어떤 약장수가 그 자명한 진리를 아주 천박하게 변질시켜 경멸의 대상으로 만들긴 했지만 말이야. 안 그런가, 박사?"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할 뿐이었다. 너무나 놀란 나머지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불과 5분 전만 해도 그가 거미와 파리들을 잡아먹는 모습을 보았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시계를 보니 반 헬싱을 맞이하러 역으로 가야 할 시간이라, 나는 하커 부인에게 이제 떠나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녀는 즉시 다가와 렌필드 씨에게 상냥하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안녕히 계세요. 당신에게 훨씬 더 즐거운 상황 속에서 자주 뵐 수 있기를 바랄게요." 그러자 놀랍게도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

"안녕히 가요, 내 사랑. 신께 기도하건대, 당신의 그 아름다운 얼굴을 다시는 보지 않게 해 주소서. 신의 축복이 당신과 늘 함께하기를!"

반 헬싱을 만나러 역으로 나갈 때, 나는 친구들을 뒤에 남겨두었다. 불쌍한 아트는 루시가 처음 앓기 시작한 이래로 가장 밝아 보였고, 퀸시 역시 오랫동안 침울해 있더니 이제야 제 본래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은 듯했다.

반 헬싱은 마치 소년처럼 활기차고 민첩한 몸짓으로 마차에서 내렸다. 그는 즉시 나를 발견하고는 내 쪽으로 달려오며 이렇게 말했다.

"아, 친구 존, 별일 없나? 잘 지내고 있나? 그래! 나는 좀 바쁘게 지냈네. 필요하다면 이곳에 계속 머물 생각이라서 말이야. 내 일들은 모두 정리했으니, 자네에게 해줄 이야기가 아주 많네. 미나 부인도 자네와 함께 있나? 그래. 그 멋진 남편은 어떻고? 아서와 내 친구 퀸시도 자네와 같이 있나? 좋군!"

집으로 차를 몰며 나는 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또한 하커 부인의 제안 덕분에 내 일기가 어떻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었는지도 설명했다. 그러자 교수님이 내 말을 가로막으며 끼어들었다.

"아, 그 경이로운 미나 부인 말입니다! 그녀는 남자의 지성을 가졌어요. 재능 있는 남자라면 마땅히 갖추어야 할 그런 지성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자의 마음을 품고 있지요. 믿어주십시오, 신께서 그토록 훌륭한 조화를 만들어내신 건 분명 어떤 목적이 있어서일 겁니다. 친구 존, 지금까지는 운 좋게도 그 여인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었지만, 오늘 밤 이후로 그녀는 이 끔찍한 일에 더는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가 이토록 큰 위험을 감수하는 건 옳지 않아요. 우리 남자들은 이 괴물을 처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니, 이미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건 여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설령 그녀가 다치지 않는다 해도, 수많은 공포를 목격하다 보면 심장이 버티지 못할 수도 있어요. 게다가 앞으로 그녀는 깨어 있을 때는 신경쇠약으로, 잠들었을 때는 악몽으로 고통받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아직 젊고 결혼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고려해야 할 다른 일들이 있을 겁니다. 당신 말로는 그녀가 모든 것을 기록했다고 했으니, 일단 우리와 상의하게 하십시오. 하지만 내일부터 그녀는 이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남은 일은 우리끼리 해결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진심으로 동의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우리가 알아낸 사실을 전했다. 드라큘라가 산 집이 바로 내 집 옆집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는 경악했고, 커다란 근심이 그를 덮치는 듯했다.

"아,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가 말했다. "그랬다면 불쌍한 루시를 구하기 위해 제때 그에게 도달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자네 말대로 '이미 엎질러진 물' 아니겠나. 지나간 일은 생각지 말고, 끝까지 우리의 길을 가세."

그러고 나서 그는 내가 사는 집의 대문에 들어설 때까지 침묵에 빠졌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러 가기 전, 그는 하커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미나 부인, 내 친구 존에게 듣기로는 부인과 남편분께서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을 아주 빈틈없이 정리해 두셨다고 하더군요."

"지금까지는 아니에요, 교수님." 그녀가 충동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오늘 아침까지는 그랬어요."

"하지만 왜 지금까지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들조차 밝은 빛 아래 놓였을 때 얼마나 큰 효과를 내는지 확인해 왔습니다. 우리는 비밀을 털어놓았지만, 그 사실을 말한 사람 중 누구도 그로 인해 나빠진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하커 부인은 얼굴을 붉히더니,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며 말했다.

"반 헬싱 박사님, 이것 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기록에 포함해야 할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오늘 있었던 일을 적은 겁니다. 저 역시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지금 당장 모두 기록해 두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은 개인적인 내용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넣어야 할까요?"

교수는 엄숙한 표정으로 글을 다 읽더니, 다음과 같이 말하며 건네주었다.

"원하지 않으신다면 굳이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꼭 넣으셨으면 합니다. 이 글은 남편분이 당신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 뿐 아니라, 당신의 친구인 우리 모두가 당신을 더욱 존경하게—또한 더 아끼고 사랑하게—만들 테니까요." 그녀는 또 한 번 얼굴을 붉히며 환한 미소와 함께 그것을 도로 받아 들었다.

그리하여 지금 이 시각까지, 우리가 확보한 모든 기록은 빠짐없이 정리된 상태다. 교수님께서는 저녁 식사 후, 그리고 9시로 예정된 우리의 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검토하시려고 기록 사본 한 부를 가져가셨다. 나머지 우리들은 이미 모든 내용을 읽어 두었다. 그러니 서재에서 모였을 때 우리는 모두 사실 관계를 파악한 상태일 것이며, 이 끔찍하고 신비로운 적에 맞서 어떻게 싸울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미나 하커의 일기.

9월 30일.

저녁 식사를 6시에 마친 뒤 두 시간이 지나 수어드 박사의 서재에 모였을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종의 위원회나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반 헬싱 교수가 상석에 앉았는데, 그가 방에 들어오자 수어드 박사가 그 자리를 권한 것이었다. 교수는 나를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고는 서기를 맡아 달라고 부탁했다. 조너선은 내 옆자리에 앉았다. 우리 맞은편에는 고달밍 경과 수어드 박사, 그리고 모리스 씨가 앉았다. 고달밍 경은 교수 바로 옆에, 수어드 박사는 가운데에 자리를 잡았다. 교수가 입을 열었다.

"이 서류들에 담긴 사실관계는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지요."

우리는 모두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말을 이었다.

"그러니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이 어떤 존재인지 말씀드리는 편이 좋겠군요. 제가 알아낸 이 남자의 내력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논의하고, 그에 맞춰 대책을 세울 수 있을 테니까요."

"뱀파이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중 몇몇은 그들이 실존한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요. 설령 불행한 경험을 통해 얻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과거의 가르침과 기록들은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 줍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열린 마음을 갖도록 스스로를 훈련해 오지 않았더라면, 이 사실이 제 귀에 천둥처럼 울려 퍼지기 전까지는 결코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라! 보라! 내가 증명하노라. 내가 증명하노라!' 하고 말입니다. 아, 만약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아니, 그 존재를 조금이라도 짐작이라도 했더라면, 그녀를 사랑했던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그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동안 다른 가련한 영혼들이 죽어 나가지 않도록 힘을 써야만 합니다.

노스페라투는 벌처럼 한 번 쏘고 죽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더 강해질 뿐이며, 강해질수록 악행을 저지를 힘도 더 커집니다. 우리 곁에 있는 이 뱀파이어는 육체적으로 스무 명의 사내만큼이나 강합니다. 그의 교활함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것인데, 이는 오랜 세월을 거쳐 쌓아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는 강령술의 도움까지 받습니다. 어원에서도 알 수 있듯 강령술이란 죽은 자를 통해 점을 치는 것인데, 그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죽은 자는 그의 명령에 따릅니다. 그는 짐승이며, 짐승 그 이상입니다. 그는 무감각한 악마이며, 그 중심에는 심장이 없습니다. 그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자신이 원하는 때와 장소, 그리고 원하는 어떤 모습으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영역 안에서는 폭풍과 안개, 천둥 같은 자연 원소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쥐와 부엉이, 박쥐, 나방, 여우, 늑대 같은 하등한 생물들도 모두 그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는 몸집을 키우거나 줄일 수 있으며, 때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가 알 수 없는 사이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를 파멸시키기 위해 어떻게 공격을 시작해야 합니까? 그의 은신처를 어떻게 찾아낼 것이며, 찾아낸 뒤에는 어떻게 그를 멸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들이여,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맡은 임무는 너무나 끔찍하며, 용감한 자들조차 전율하게 만들 결과가 뒤따를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싸움에서 우리가 패배한다면 그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그때 우리의 끝은 어디겠습니까? 삶이란 아무것도 아니며, 저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실패

하는 것은 단순히 삶과 죽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심장도 양심도 없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의 육체와 영혼을 먹잇감으로 삼으며 밤을 떠도는 추악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문은 우리에게 영원히 닫힐 것입니다. 누가 다시 우리를 위해 그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만인의 혐오를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햇살에 드리워진 얼룩이 되고, 인류를 위해 죽으신 분의 옆구리에 박힌 화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무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물러서야 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말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늙었습니다. 햇살과 아름다운 풍경, 새들의 노래와 음악,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삶은 이미 저 멀리 뒤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젊습니다. 슬픔을 겪은 이도 있겠지만, 여러분 앞에는 아직 아름다운 날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말을 하는 동안 조너선은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이 뻗어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우리가 처한 이 끔찍한 위험이 그를 압도해 버린 것은 아닐까 너무나도 두려웠다. 하지만 그 손길을 느끼는 것은 내게 생명과도 같았다. 그 손은 무척이나 강인했고, 스스로를 믿고 있었으며,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다. 용기 있는 남자의 손은 그 자체로 모든 것을 말해준다. 그 손이 내는 선율을 듣기 위해 여인의 사랑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남편은 내 눈을 바라보았고, 나 또한 남편의 눈을 마주 보았다. 우리 사이에 더는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미나와 나, 두 사람을 대신해 내가 답하겠소." 그가 말했다.

"저도 끼워 주십시오, 교수님." 퀸시 모리스 씨가 평소처럼 간결하게 말했다.

"다른 이유가 없다 해도, 오직 루시를 위해서라도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소." 고달밍 경이 말했다.

수어드 박사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반 헬싱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 위에 황금 십자가를 내려놓더니, 양옆으로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의 오른손을 잡았고, 고달밍 경은 왼손을 잡았다. 조너선은 자신의 왼손으로 내 오른손을 잡은 뒤, 모리스 씨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손을 맞잡으며 엄숙한 서약을 맺었다. 심장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지만, 손을 거두어야겠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반 헬싱 박사는 이제 본격적인 과업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듯, 일종의 활기찬 태도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우리는 이 일을 인생의 그 어떤 중대한 사건만큼이나 진지하고 사무적인 태도로 임해야 했다.

"우리가 무엇에 맞서 싸워야 하는지는 당신도 잘 알고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결속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흡혈귀들에게는 결코 허락되지 않는 힘이지요. 우리에게는 과학이라는 원천이 있고, 자유롭게 사고하고 행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

한 낮과 밤의 시간이 모두 똑같이 우리의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능력이 미치는 한, 그 힘은 아무런 제약 없이 발휘될 수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의를 위해 스스로를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고, 달성해야 할 목표 또한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코 가벼운 것들이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를 대적하는 일반적인 힘들이 어디까지 제한되는지, 그리고 그 개별 존재 또한 어떻게 그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는지 살펴봅시다. 요컨대, 흡혈귀라는 존재가 갖는 일반적인 제약과, 특히 이 존재가 지닌 특수한 제약이 무엇인지 고찰해 봅시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라곤 전설과 미신뿐입니다. 생사가 걸린 문제, 아니 생사 그 이상의 문제가 닥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미신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우선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며, 둘째로 결국 이 전설과 미신이야말로 모든 것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흡혈귀에 대한 믿음이 다른 이들에게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그렇지 못할지라도 말입니다. 과학적이고 회의적이며 사실만을 따지는 이 19세기에, 불과 일 년 전만 해도 우리 중 누가 이런 가능성을 믿었겠습니까? 우리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명백한 사실조차 부정하곤 했습니다. 그러니 흡혈귀라는 존재와 그 한계, 그리고 그를 치료하는 법에 대한 믿음 역시 현재로서는 같은 근거 위에 있다고 간주합시다.

말씀드리자면, 인류가 발을 디딘 곳이라면 어디든 그 존재가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에서도 그러했고, 독일 전역과 프랑스, 인도, 심지어 체르노스(Chernosese)에서도 번성했습니다. 우리와 모든 면에서 멀리 떨어진 중국에도 그가 존재하며, 그곳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는 아이슬란드 광전사(berserker)의 뒤를 쫓았고, 악마의 자손인 훈족, 슬라브족, 색슨족, 마자르족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근거는 이것들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은 불행한 경험을 통해 그 믿음 중 상당수가 사실임이 증명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흡혈귀는 살아남으며,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자의 피를 빨아먹으며 기력을 회복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가 더 젊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목격했습니다. 그의 생명력은 강해지며, 특정한 양분만 충분하다면 마치 스스로를 새롭게 단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식단 없이는 번성할 수 없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처럼 먹지 않습니다. 그와 몇 주 동안 함께 지낸 친구 조너선조차 그가 먹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조너선의 관찰에 따르면, 그는 그림자도 남기지 않으며 거울에 모습도 비치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 사람의 힘을 합친 것만큼이나 강력합니다. 늑대들을 막기 위해 문을 닫아걸 때나, 역마차에서 그를 내려 주던 때에 조너선이 목격한 일이 이를 다시금 증명합니다.

휘트비에 도착한 배에서 개를 찢어 죽인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 그는 늑대로 변할 수 있습니다. 미나 부인이 휘트비의 창가에서 그를 보

았듯 박쥐가 될 수도 있고, 친구 존이 이 근처 집에서 날아가는 것을 보았듯, 혹은 퀸시 모리스가 루시 양의 창가에서 보았듯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들어낸 안개를 타고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고귀한 선장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바로는, 그 안개가 퍼지는 범위는 제한적이며 오직 자신을 중심으로만 형성됩니다. 조너선이 드라큘라 성에서 보았던 자매들의 사례처럼, 그는 달빛을 타고 미세한 먼지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는 아주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루시 양이 평온을 찾기 전, 우리가 직접 목격했듯이 그녀는 무덤 문 사이의 머리카락 한 올 들어갈 만한 틈을 통해 빠져나갔습니다. 일단 길을 찾기만 하면, 그는 아무리 단단히 묶여 있거나 불로 용접된 틈이라 할지라도 무엇이든 뚫고 나오거나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절반은 차단된 이 세상에서 이것은 결코 작은 능력이 아닙니다.

아, 하지만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그는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갤리선의 노예나 감옥에 갇힌 미치광이보다 더한 죄수입니다. 그는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없습니다. 자연의 섭리를 벗어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연의 어떤 법칙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집에 있는 누군가가 들어오라고 허락하지 않는 한, 처음에는 어디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원하는 대로 드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악한 존재가 그러하듯, 그의 힘은 낮이 밝아오면 사라집니다. 오직 특정한 시간에만 제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머물러야 할 장소에 있지 않다면, 그는 정오나

해가 뜨는 순간, 혹은 해가 지는 순간에만 모습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해 들었으며, 우리의 기록을 통해 추론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즉, 그는 자신의 거처, 즉 흙으로 된 집이자 관이며, 휘트비의 자살자 무덤에서 보았듯 신성하지 못한 지옥 같은 안식처 안에서는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오직 정해진 시간에만 변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조수가 멈춘 정조 때나 밀물 때에만 흐르는 물을 건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괴롭히는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마늘이 그러합니다. 성스러운 상징물들에 대해서라면, 지금 우리가 결의를 다지는 순간에도 우리 곁에 있는 이 십자가처럼, 그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합니다. 다만 성물 앞에서는 멀찍이 물러나 침묵하며 경의를 표할 뿐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니 다른 것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에 꽂힌 들장미 가지는 그가 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붙잡아둡니다. 관에 쏘아 넣은 성스러운 총알은 그를 완전히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몸을 관통하는 말뚝이나, 안식을 주는 참수 역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이 '한때 인간이었던 자'의 거처를 찾아낸다면, 우리가 아는 바를 따라 그를 관 속에 가두고 파멸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영리합니다. 나는 부다페스트 대학의 친구 아르미니우스에게 기록을 조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알려달라고 말이지요. 그는 분명 터키 접경지의 거대한 강 너머에서 투르크인들을 상대로 명성을 떨쳤던 보이보드 드라

큘라였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결코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부터 수 세기 동안, 그는 '숲 너머의 땅'에서 태어난 자들 중 가장 용맹할 뿐만 아니라 가장 영리하고 교활한 자로 회자되었으니까요. 그 거대한 지략과 강철 같은 결단력은 그가 무덤으로 들어갈 때까지 함께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협하기 위해 맞서고 있습니다.

아르미니우스의 말에 따르면, 드라큘라 가문은 위대하고 고귀한 혈통이었습니다. 다만 간혹 동시대 사람들에게 악마와 거래를 했다고 의심받는 후손들이 있었을 뿐이지요. 그들은 헤르만슈타트 호수 너머 산맥에 있는 스콜로만스에서 악마의 비밀을 배웠습니다. 그곳은 악마가 열 번째 학생을 자신의 몫으로 요구하는 곳이지요. 기록에는 '스트레고이카(마녀)', '오르도그(사탄)', '포콜(지옥)' 같은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또한 어떤 필사본에는 바로 이 드라큘라를 '왐피르(흡혈귀)'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는 그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의 핏줄에서도 위대한 남성들과 선한 여성들이 태어났고, 그들의 무덤은 그 땅을 신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결한 존재는 오직 그렇게 신성해진 땅에서만 머물 수 있습니다. 이 사악한 존재가 모든 선함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결코 가볍지 않은 공포입니다. 성스러운 기억이 메마른 땅에서는 이 존재가 결코 안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모리스 씨는 창밖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러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교수님이 말을 이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많은 자료가 있으니, 이제 본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조너선 하커의 조사에 따르면, 성에서 휘트비까지 흙이 담긴 상자 쉰 개가 운반되었고 그 상자들은 모두 카팩스에 전달되었습니다. 또한 그중 일부는 이미 옮겨졌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의 첫 번째 단계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담장 너머 저택에 남은 상자들이 모두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더 옮겨진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상자가 더 옮겨졌다면, 우리는 그 행방을 추적해야 합니다.”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며 우리의 대화가 중단되었다. 집 밖에서 권총 소리가 울려 퍼졌다. 총알이 창문을 깨뜨리고 들어왔는데, 창틀 윗부분을 맞고 튕겨 나간 총알은 방 안쪽 벽면을 때렸다. 나는 본성이 겁쟁이인지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고 말았으니 말이다. 사람들은 모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고달밍 경은 창가로 달려가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 순간, 창밖에서 모리스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안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놀라게 한 것 같군요. 곧 안으로 들어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그가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제가 정말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하커 부인,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당신을 너무나 크게 놀라게 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군요.

사실은 교수님이 말씀하시던 중에 커다란 박쥐 한 마리가 날아와 창틀에 앉았습니다. 최근에 겪은 일들 때문에 그 저주받은 짐승들이 너무나 끔찍하게 느껴져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녁마다 박쥐가 보일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한 발 쏘아 죽이러 밖으로 나갔던 겁니다. 아서, 당신도 예전에는 그런 나를 보고 웃곤 했잖아요."

"맞혔습니까?" 반 헬싱이 물었다.

"모르겠습니다. 숲속으로 날아가 버린 것 같으니, 아마 아닐 겁니다." 그는 더 말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교수가 다시 설명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 상자들을 하나하나 추적해야 합니다. 준비가 되면, 저 괴물이 숨어 있는 은신처로 찾아가 생포하거나 죽여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말하자면 대지를 소독하듯 깨끗이 치워버려서, 그가 더 이상 땅속에 숨어 안전을 도모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정오와 일몰 사이, 그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시간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그가 가장 약해지는 순간이니, 그때를 노려 맞서 싸워야 합니다."

"미나 부인, 이제 당신에게 말하건대, 모든 일이 잘 해결될 때까지 오늘 밤이 마지막입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기에 이런 위험에 처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헤어질 때, 더는 아무것도 묻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남자이고, 이 모든 것을 견뎌낼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우리의 별이자 희망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우리처럼 위험에 빠지지 않아야만, 우리도 더욱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너선을 포함한 모든 남자가 안도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나를 돌보느라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어쩌면 자신들의 안전을 해치게 되는 상황은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 강인한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안전책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들의 결심은 확고했다. 나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쓰라린 현실이었지만, 그들의 기사도적인 보살핌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리스 씨가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다.

"지체할 시간이 없으니, 지금 당장 그의 저택을 살펴보자고 제안합니다. 그놈에게는 시간이 곧 전부입니다. 우리가 신속하게 움직인다면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행동해야 할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심장이 떨리고 용기가 꺾이는 것을 느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그들의 일에 짐이 되거나 방해가 된다는 인상을 주었다가는, 그들이 아예 나를 논의에서 제외해 버릴지도 모른다는 더 큰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제 저택에 침입할 수단을 챙겨 카팩스로 떠났다.

남자들이 으레 그렇듯, 그들도 내게 침대에 누워 잠이나 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랑하는 이들이 위험에 처했는데 여자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단 말인가! 조너선이 돌아왔을 때 나 때문에 걱정까지 더하지 않도록, 일단 누워서 자는 척이라도 해야겠다.

수어드 박사의 일기.

10월 1일, 오전 4시.

집을 나서려던 참이었다. 그때 렌필드가 보낸 급한 전갈이 도착했다. 그에게 아주 중요한 할 말이 있으니 지금 당장 만나줄 수 있느냐는 내용이었다. 나는 전령에게 아침에 확인하겠다고 전해달라고 말했다. 마침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이었다. 그러자 전령이 덧붙였다.

"선생님, 그가 아주 끈질기게 구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까지 간절해하는 모습은 처음 봅니다. 조만간 그를 만나지 않으시면, 또 발작을 일으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아무 이유 없이 이런 말을 했을 리 없다는 걸 알았기에, 나는 "알겠습니다. 지금 가보죠."라고 답했다. 그러고는 내 '환자'를 보러 가야 한다며 다른 사람들에게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다.

"존, 친구여, 나도 데려가게." 반 헬싱 교수가 말했다. "자네 일기에 적힌 그 환자의 사례는 내 흥미를 아주 강하게 끌었네. 게다가 그 사례는 때때로 _우리_가 맡은 사건과도 연관이 있었지. 그를 꼭 한번 만나보고 싶군. 특히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라면 더욱 그렇네."

"저도 함께 가도 되겠습니까?" 고달밍 경이 물었다.

"나도 끼워주게?" 퀸시 모리스가 말했다. "나도 가도 될까?" 하커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모두 함께 통로를 따라 내려갔다.

우리는 그가 꽤 흥분한 상태인 것을 발견했으나, 말투나 태도는 내가 이전에 보았던 모습보다 훨씬 이성적이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례적일 정도로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는 내가 지금까지 마주했던 광인들에게서는 결코 볼 수 없던 모습이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논리가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라면 충분히 통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우리 네 사람은 모두 방 안으로 들어갔지만, 처음에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요구한 것은 당장 자신을 정신병원에서 석방하여 집으로 보내달라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논거를 내세우며 현재의 정신 상태가 온전함을 증명하려 애썼다. "당신의 친구들에게 호소하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분들이라면 아마 내 상태를 판단해 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겠지요. 그나저나, 아직 소개를 받지 못했군요." 나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정신병원에서 미치광이를 소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묘한 일인지조차 미처 깨닫지 못했다. 게다가 그에게선 특유의 품위와 대등한 관계를 중시하는 습관이 느껴졌기에, 나는 즉시 소개를 시작했다. "고달밍 경, 반 헬싱 교수님, 텍사스에서 오신 퀸시 모리스 씨, 그리고 렌필드 씨입니다." 그는 한 사람씩 차례로 악수를 나누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달밍 경, 예전 윈덤에서 경의 아버님을 보좌할 영광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경께서 그 작위를 이어받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 아버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셨다는 사실이 참으로 비통합니다. 아버님은 아는 이들 모두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던 분이셨지요. 듣기로는 젊은 시절, 더비 경마 대회 날이면 많은 이들이 즐겨 찾던 '번 럼 펀치'를 발명하기도 하셨다더군요. 모리스 씨, 당신은 당신의 위대한 고향 주(州)를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그 주가 연방에 편입된 것은 하나의 선례가 되었으니, 훗날 극지방과 열대 지방이 성조기와 동맹을 맺게 될 때 그 영향은 멀리까지 미칠 것입니다. 먼로 주의가 정치적 우화로서 제 자리를 잡게 될 때, 조약의 힘은 영토를 확장하는 거대한 동력이 될 수도 있겠지요.

반 헬싱 교수님을 뵙게 되어 기쁘다는 말은 대체 뭐라고 해야 할까요? 경, 제가 격식을 차린 호칭을 생략하더라도 부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뇌 조직의 연속적 진화라는 발견으로 치료학의 혁명을 일으킨 분께, 일반적인 호칭을 붙이는 것은 오히려 그분을 평범한 부류 중 한 명으로 한정 짓는 격이라 적절치 않기 때문입니다. 신사 여러분, 국적이나 혈통, 혹은 타고난 재능 덕분에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춘 여러분을 증인으로 삼아 말씀드리건대, 저는 적어도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대다수의 사람만큼이나 제정신이 멀쩡합니다. 그리고 인도주의자이자 법의학자이며 과학자인 수어드 박사님께서도, 저를 예외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으로 대우하는 것이 도덕적 의무임을 분명히 인지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는 마지막 호소를 마치며, 그 자체로 묘한 매력이 느껴지는 정중하고도 확신에 찬 태도를 보였다.

우리 모두는 충격에 휩싸인 듯했다. 나 역시 그 사람의 성격과 살아온 행적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가 마침내 이성을 되찾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 같아 안심된다고, 내일 아침이면 퇴원을 위한 필요한 절차들을 알아봐 주겠다고 말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이 환자가 예전부터 갑작스러운 상태 변화를 자주 보이던 사람임을 알기에, 그렇게 중대한 말을 내뱉기 전에 조금 더 기다려 보는 편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나는 그저 환자의 상태가 매우 빠르게 호전되고 있다는 원론적인 말만 건넸다. 내일 아침에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눈 뒤, 그의 바람을 들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을 뿐이다. 그러나 이 말은 그를 전혀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는 즉각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수어드 박사님, 제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아 걱정되는군요. 저는 당장 가고 싶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지금, 이 시간, 가능하다면 바로 이 순간에 말입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 낫을 든 노인과 맺은 암묵적인 약속에서도 시간은 계약의 핵심 요소니까요. 수어드 박사님처럼 훌륭한 전문가에게 이토록 단순하면서도 중대한 소망을 전하기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는 나를 날카롭게 쏘아보더니, 내 얼굴에 서린 거절의 기색을 읽고는 다른 사람들에게로 고개를 돌려 그들을 찬찬히 살폈다. 하지만 누구에게서도 납득할 만한 대답을 얻지 못하자, 그는 말을 이었다.

"혹 제 추측이 틀렸을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그러면서도 스스로 무례하다고 느낄 만큼 거칠게 대답했다.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제가 요청하는 근거를 바꾸어야겠군요. 부디 이 양보를—은혜라 부르든, 특권이라 부르든, 무엇이라 부르든 좋습니다만—허락해 주십시오. 만약 그래야 한다면, 저는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 사정 전부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약속하건대, 제 이유들은 타당하며, 건전하고 이타적입니다. 또한 가장 숭고한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선생님께서 제 마음을 들여다보실 수만 있다면, 저를 움직이는 이 감정들을 전적으로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저를 선생님의 가장 훌륭하고 진실한 친구 중 한 명으로 여겨 주실 겁니다."

그는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날카롭게 훑어보았다. 그의 사고방식이 이토록 갑작스럽게 변한 것은 그저 광기가 나타나는 또 다른 형태나 단계일 뿐이라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다. 나는 그가 결국에는 모든 미치광이처럼 스스로 정체를 드러낼 것임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에, 조금 더 지켜보기로 마음먹었다. 반 헬싱은 아주 강렬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시선이 어찌나 집중되어 있던지 짙은 눈썹이 거의 맞닿을 듯했다. 반 헬싱은 렌필드에게 말을 건넸다. 당시에는 놀랍지 않았으나 나중에 돌이켜보니 놀라웠던 말투였다. 마치 대등한 상대를 대하는 듯한 어조였다.

"오늘 밤 자유롭게 있고 싶어 하는 진짜 이유를 솔직하게 말해줄 수는 없습니까? 당신이 편견 없이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습관을 지닌 나 같은 낯선 이조차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준다면, 내가 책임지고 나서겠습니다. 수어드 박사에게 당신이 원하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설득해 보죠. 물론 박사 본인이 위험을 감수하고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조건

하에 말입니다." 그는 슬프게 고개를 저으며 가슴 아픈 후회와 유감을 얼굴에 가득 띠었다. 교수가 말을 이었다.

"자, 선생님, 다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당신은 우리에게 지극히 이성적인 태도를 보여주려 애쓰고 있으니, 스스로를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셈이군요. 하지만 당신의 정신 상태는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결함 때문에 아직 의학적 치료를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장 현명한 방도를 찾으려는 우리의 노력에 당신이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당신이 직접 우리에게 맡긴 그 의무를 우리가 어떻게 다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현명하게 행동하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는 한 당신의 바람이 이루어지도록 돕겠습니다." 그는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반 헬싱 박사님,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박사님의 논거는 충분합니다. 만약 제게 말할 자유가 있었다면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그저 저를 믿어달라고 부탁드릴 수밖에요. 만약 제 요청이 거절된다면, 그 책임은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상황이 지나치게 희극적일 만큼 엄숙해지고 있었기에, 나는 이제 이 자리를 마무리할 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그저 이렇게 말하며 문 쪽으로 향했다.

"자, 친구들, 이제 할 일이 남았네. 그럼, 안녕히."

하지만 내가 문 근처로 다가가자 환자의 상태가 다시금 변했다. 그는 나를 향해 너무도 빠르게 움직였기에, 순간 나는 그가 다시 살의를 품고 공격해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러나 나의 걱정은 기우였다. 그는 두 손을 간절히 들어 올리며 애처로운 몸짓으로 무언가를 청했다. 그러다 자신의 지나친 감정 표출이 도리어 우리를 예전의 관계로 되돌려 놓아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깨닫고는, 그는 한층 더 격렬하게 감정을 드러냈다. 나는 반 헬싱을 슬쩍 쳐다보았고, 그의 눈빛에서 내 확신이 그대로 투영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태도를 조금 더 단호히 가다듬으며, 그가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다는 뜻을 몸짓으로 전했다. 예전에 그가 고양이를 갖고 싶어 했을 때처럼, 그 무렵 골똘히 생각해 온 부탁을 해야 할 때면 늘 이렇게 점점 더 흥분하곤 했던 모습을 본 적이 있었기에, 나는 이번에도 그가 결국 시무룩하게 단념하며 무너질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나의 예상은 빗나갔다. 자신의 간청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완전히 광분한 상태에 이르렀다. 그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두 손을 쥐어짜듯 맞잡으며 애처롭게 빌기 시작했다. 뺨에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고, 온 얼굴과 몸짓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는 쏟아지는 눈물과 함께 간절한 애원을 쏟아냈다.

"수어드 박사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 제발 간청하건대, 당장 이 집에서 나가게 해 주십시오. 어떤 방식으로든, 어디로든 좋으니 저를 보내 주십시오. 채찍과 사슬을 든 간수들을 보내셔도 좋습니다. 구속복을 입히고 손목과 발목에 쇠사슬을 채워 감옥으로 끌고 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발 여기서 나가게만 해 주십시오. 저를 이곳에 붙들어

두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박사님은 모르십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제 영혼의 가장 밑바닥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사님이 누구에게,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계신지도 모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 비극이로다! 차마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박사님이 신성하게 여기는 모든 것,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 잃어버린 사랑과 간신히 붙잡고 있는 희망을 걸고 부탁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걸고 간청하니, 제발 저를 여기서 데리고 나가 제 영혼을 죄악으로부터 구해주십시오! 제 말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까? 도대체 언제쯤 깨달으시렵니까? 제가 지금 얼마나 제정신이며 간절한지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발작을 일으킨 미치광이가 아닙니다.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멀쩡한 사람입니다. 오,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보내 주십시오! 제발 보내 주십시오! 제발 보내 주십시오!"

상황이 길어질수록 그가 더 흥분하여 발작을 일으킬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만하게." 내가 엄하게 말했다. "이런 행동은 이제 충분히 겪었으니 더는 하지 말게. 어서 침대로 가서 좀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도록 해."

그는 갑자기 동작을 멈추더니, 한동안 나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옮겨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이전에도 그랬듯, 그가 시무룩하게 단념하며 무너지는 순간이 내가 예상했던 대로 찾아왔다.

우리 일행 중 마지막으로 방을 나서려 할 때, 그는 정중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수어드 박사, 부디 나중에라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밤 내가 당신을 설득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XIX장

조너선 하커의 일기

10월 1일, 오전 5시.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수색대에 합류했다. 미나가 이토록 기운차고 건강한 모습인 것은 처음 보는 것 같기 때문이다. 미나가 뒤에 남아 우리 남자들이 일을 처리하도록 양보해 주어서 정말 다행이다. 사실 미나가 이 끔찍한 일에 조금이라도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내게는 큰 두려움이었다. 하지만 이제 미나가 맡은 일은 끝났다. 미나의 에너지와 명석함, 그리고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 덕분에 모든 사건이 하나의 이야기로 완벽히 정리되어 빈틈없이 맞물리게 되었다. 그러니 미나 스스로도 자신의 역할이 끝났음을 느끼며, 이제부터는 남은 일을 우리에게 맡겨도 좋다고 생각할 만하다.

렌필드 씨와 마주했던 장면은 우리 모두를 다소 충격에 빠뜨린 듯하다. 그의 방에서 나왔을 때, 우리는 서재로 돌아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모리스 씨가 수어드 박사에게 말했다.

"이봐, 잭. 만약 그 사람이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면, 그는 내가 본 사람 중 가장 제정신인 광인일 거야. 확실하진 않지만, 그에게는 분명 중대한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 만약 그랬다면, 기회조차 잡지 못한 상황이 그를 꽤나 힘들게 만들었겠지." 고달밍 경과 나는 침묵을 지켰다. 그때 반 헬싱 박사가 말을 덧붙였다.

"친구 존, 자네는 나보다 미치광이에 대해 더 잘 알고 있군. 참 다행이야. 만약 내가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면, 그 마지막 히스테리 발작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그를 풀어주었을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살아가며 배우는 법이지. 내 친구 퀸시가 말하듯, 지금 우리가 맡은 임무에서는 조금의 위험도 감수해서는 안 되네. 지금 상태 그대로 두는 것이 최선이야." 수어드 박사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어조로 두 사람 모두에게 대답하듯 말했다.

"당신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군요. 만약 그자가 평범한 미치광이였다면 믿고 맡겨볼 생각도 했겠지만, 그와 드라큘라 백작 사이에는 묘하게 얽힌 구석이 있는 것 같아 걱정됩니다. 그자의 기괴한 행동을 도와줬다가 혹시라도 잘못되는 건 아닐지 두렵군요. 고양이를 위해 거의 같은 열정으로 기도하더니, 곧바로 내 목을 이빨로 물어뜯으려 했던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자는 드라큘라 백작을 '주군이자 주인'이라 불렀으니, 어떤 악마적인 방법으로든 백작을 돕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 할지도 모릅니다. 그 끔찍한 존재는 늑대와 쥐, 그리고 자기와 같은 부류들까지 부하로 거느리고 있으니, 번듯한 미치광이 하나쯤 이용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겠지요. 그래도 그자가 진심인 것만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저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했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맡은 거친 일들에 이런 일까지 겹치니, 사람의 정신을 무너뜨리는군요."

교수가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엄숙하면서도 친절한 어조로 말했다.

"친구인 존, 두려워하지 말게. 우리는 매우 슬프고도 끔찍한 사건 앞에서 각자의 의무를 다하려 노력하고 있을 뿐이라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하는 것뿐이지. 선하신 신의 자비 외에 우리가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나?" 고달밍 경은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는 작은 은제 호루라기를 들어 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그 오래된 저택에 쥐가 들끓을지도 모르겠군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바로 처방할 수 있는 해독제가 있습니다."

담장을 넘은 우리는 저택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달빛이 밝게 비칠 때면 잔디밭에 늘어선 나무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기며 조심스럽게 나아갔다. 현관에 도착하자 반 헬싱 교수는 가방을 열어 여러 물건을 꺼내 놓았다. 그는 그 물건들을 계단 위에 펼쳐 놓고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씩 돌아가도록 네 개의 작은 무리로 나누어 정리했다. 그러고는 입을 열었다.

"친구들이여, 우리는 끔찍한 위험 속으로 들어가고 있네. 그러니 여러 종류의 무기가 필요하네. 우리의 적은 단순히 영적인 존재가 아니야. 그에게는 스무 명의 힘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우리의 목이나

기도관은 평범한 인간의 것이기에 부러지거나 으스러질 수 있지만, 그의 것은 단순한 힘 따위로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네. 더 강한 사람이나 그보다 힘이 센 무리가 있다면 때로는 그를 붙잡아 둘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에게 입는 피해를 그들에게 입힐 수는 없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그의 손길로부터 몸을 지켜야 하네. 이것을 심장 가까이에 품게나."

반 헬싱은 말을 하며 작은 은제 십자가를 들어 올렸다. 그와 가장 가까이 있던 내게 십자가를 내밀며 그는 덧붙였다.

"이 마늘 꽃 화환을 목에 걸게나."

그는 말라비틀어진 마늘 꽃 화환을 내게 건네주었다.

"좀 더 현실적인 적들을 위해서는 이 권총과 이 칼을 쓰게.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슴에 고정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전기 램프들도 준비했네. 마지막에 마주할 모든 상황, 무엇보다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네. 부디 불필요한 일로 이것을 더럽히지 말게나."

그가 말한 것은 성체(Sacred Wafer)의 일부였다. 그는 그것을 봉투에 담아 내게 건네주었다.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로 각자 무기를 갖추었다.

"자," 그가 말했다. "친구 존, 마스터키는 어디 있나? 문을 열 수만 있다면, 예전에 루시 웨스튼라의 집에서 했던 것처럼 창문을 깨고 들어갈 필요는 없을 테니 말일세."

수어드 박사는 한두 개의 마스터키를 시험해 보았다. 외과의사다운 그의 정교한 손재주가 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윽고 맞는 열쇠를 찾아냈고, 잠금장치를 앞뒤로 몇 번 만지작거리자 마침내 빗장이 풀리며 녹슨 소리를 내고 뒤로 밀려났다. 우리가 문을 밀자 녹슨 경첩이 끼익 소리를 내며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 모습은 수어드 박사의 일기에서 읽었던, 루시 웨스튼라의 무덤이 열리던 장면을 떠올리게 할 만큼 놀라울 정도로 흡사했다. 다른 이들도 같은 생각을 했는지,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교수님이었다. 그는 열린 문 사이로 발을 내디뎠다.

"주님, 당신의 손에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그가 문턱을 넘으며 성호를 그으며 말했다. 우리는 등불을 켰을 때 혹여나 길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까 염려되어, 뒤따라 문을 닫았다. 교수님은 급히 나가야 할 상황에 대비해 안에서 문을 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잠금장치를 세심하게 확인했다. 그러고 나서 우리 모두 등불을 밝히고 수색을 시작했다.

작은 등불에서 흘러나온 빛은 빛줄기끼리 서로 교차하거나 우리 몸에 가로막혀 기묘한 형상을 만들어냈다. 그 그림자들은 온갖 이상한 모양으로 일렁였다. 죽어도 떨쳐낼 수 없는 기분, 즉 우리 사이에 누군가 다른 존재가 섞여 있다는 느낌이 나를 괴롭혔다. 아마도 이 음산한 주변 환경 때문에 트란실바니아에서 겪었던 그 끔찍한 경험이 강렬하게 떠올랐기 때문일 것이다. 그 기분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었던 것 같다. 나 자신이 그러했듯, 다른 이들도 작은 소리가 들리거나 새로운 그림자가 나타날 때마다 연신 어깨너머를 두리번거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온통 먼지로 가득했다. 바닥에는 먼지가 몇 인치 두께로 쌓여 있었는데, 최근에 누군가 지나간 발자국이 남은 곳만 예외였다. 등불을 비춰보니 그 발자국 속에는 먼지가 갈라진 틈 사이로 징 박힌 군화 자국이 선명히 보였다. 벽면은 먼지가 솜털처럼 뭉쳐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구석마다 거미줄이 뭉쳐 있었다. 그 거미줄 위에도 먼지가 겹겹이 쌓여, 무게를 이기지 못해 일부가 찢겨 내려온 모습이 마치 낡고 해진 걸레 같았다. 복도에 놓인 탁자 위에는 커다란 열쇠 꾸러미가 있었는데, 열쇠마다 세월에 빛바랜 라벨이 붙어 있었다. 이 열쇠들은 몇 번 사용된 듯했다. 교수가 열쇠를 들어 올렸을 때 드러났던 것처럼, 탁자 위의 먼지 층에도 그와 비슷한 자국들이 여러 군데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교수가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조너선, 자네는 이곳을 잘 알지 않나. 지도를 직접 베껴 그리기도 했으니, 적어도 우리보다는 이곳 지리에 밝을 걸세. 예배당으로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하나?"

그가 물었다. 나 역시 예배당이 어느 방향인지 짐작은 하고 있었다. 비록 지난번 방문 때는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말이다. 나는 앞장서서 길을 이끌었고, 몇 번 길을 잘못 들고 나서야 철제 띠가 둘러진 낮고 아치형인 참나무 문 앞에 도착했다.

"바로 여기군."

교수가 말했다. 그는 내가 부동산 구입과 관련해 주고받았던 서신을 바탕으로 복사해 둔 저택의 작은 지도를 등불로 비추어 보았다. 우리는 열쇠 꾸러미를 뒤진 끝에 겨우 열쇠를 찾아 문을 열었다. 문을 열 때 틈

새 사이로 희미하고 불쾌한 공기가 새어 나오는 듯했기에, 우리 모두 어느 정도 불쾌한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마주한 악취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수준이었다.

다른 일행은 드라큘라 백작을 가까이서 대면해 본 적이 없었다. 내가 백작을 보았을 때 그는 자신의 방에서 금식 중이었거나, 아니면 신선한 피를 마셔 기운이 넘치는 상태로 사방이 트인 폐허 속에 있었다. 하지만 이곳은 좁고 밀폐된 공간이었고, 오랫동안 방치된 탓에 공기가 고여 썩어 있었다. 그 더러운 공기 사이로 마치 메마른 독기처럼 흙냄새가 배어 나왔다.

하지만 그 악취 자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것은 단순히 인간이 겪는 온갖 불쾌한 냄새와 피의 톡 쏘는 듯한 자극적인 냄새가 섞인 것만이 아니었다. 마치 부패 그 자체가 다시 부패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 퉤!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난다. 그 괴물이 내뱉은 숨결 하나하나가 이곳에 달라붙어, 공간의 혐오스러움을 더욱 심화시킨 듯했다.

보통의 상황이었다면 이런 악취 때문에 우리의 작업은 진작에 중단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일은 예사로운 상황이 아니었다. 우리가 마주한 목적은 숭고하고도 두려운 것이었기에, 우리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을 초월하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처음 맡은 역겨운 냄새에 모두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리긴 했으나, 그 직후 우리는 마치 그 혐오스러운 장소가 장미 정원이라도 되는 양 각자 맡은 일에 매진했다.

우리는 그곳을 면밀히 조사했다.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교수가 말했다.

“우선 상자가 몇 개나 남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구석구석, 아주 작은 틈새까지 샅샅이 살펴봐야 해요. 그래야 나머지 상자들이 어떻게 된 건지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슬쩍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남은 상자의 수를 알 수 있었다. 거대한 흙 상자들이 워낙 부피가 커서 한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쉰 개 중 겨우 스물아홉 개만이 남아 있었다니! 순간 겁이 덜컥 났다. 고달밍 경이 갑자기 몸을 돌려 아치형 문 너머 어두운 통로를 내다보는 것을 보고 나도 따라 시선을 옮겼는데, 찰나의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어둠 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밖을 내다보는 듯, 드라큘라 백작의 사악한 얼굴이 어둠 사이로 도드라져 보이는 것 같았다. 콧날과 붉은 눈, 붉은 입술, 그리고 그 끔찍할 정도로 창백한 안색까지 말이다. 하지만 아주 잠깐뿐이었다. 고달밍 경이 "얼굴이 보인 것 같았는데, 그저 그림자였나 보군."이라고 말하며 다시 조사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나는 등불을 그 방향으로 비추며 통로 안으로 발을 내디뎠다. 아무도 없었다. 통로에는 구석도, 문도, 어떤 틈새도 없었고 오직 단단한 벽뿐이었기에, 설령 그가 있다 해도 숨을 곳 따위는 있을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공포가 상상력을 부추긴 것이라 여기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몇 분 뒤, 구석진 곳을 살피던 모리스가 갑자기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 보였다. 우리 모두는 눈으로 그의 움직임을 좇았다. 분명 우리 사이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그때 별처럼 반짝이는 인광의 무리가 보였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뺐다. 온 사방이 쥐 떼로 들끓기 시작한 것이다.

고달밍 경을 제외한 우리 모두는 잠시 동안 공포에 질려 멍하니 서 있었다. 고달밍 경은 마치 이런 비상사태를 예상이라도 한 듯 침착해 보였다. 그는 수어드 박사가 밖에서 묘사했던, 그리고 나 또한 직접 보았던 그 거대한 철제 장식의 오크나무 문으로 급히 달려갔다. 고달밍 경은 자물쇠에 열쇠를 돌려 끼우고 커다란 빗장을 뽑아낸 뒤 문을 활짝 열었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은제 호루라기를 꺼내 낮고 날카로운 소리로 불었다. 그러자 수어드 박사의 저택 뒤편에서 개들이 짖는 소리가 들려왔고, 약 1분 뒤 테리어 세 마리가 집 모퉁이를 돌아 달려왔다. 우리 모두는 자신도 모르게 문 쪽으로 몸을 움직였는데, 그 과정에서 나는 먼지가 심하게 흐트러진 것을 발견했다. 밖으로 반출된 상자들이 바로 이 길을 거쳐 옮겨졌던 모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분 사이에 쥐의 수는 엄청나게 불어나 있었다. 쥐들은 마치 순식간에 몰려든 것처럼 사방을 뒤덮었다. 등불 빛이 꿈틀거리는 검은 몸체와 번뜩이는 불길한 눈동자에 비치자, 그곳은 마치 반딧불이가 가득한 흙더미처럼 보일 정도였다. 개들이 맹렬히 달려들었으나 문턱에서 갑자기 멈춰 서더니 으르렁거렸다. 그러더니 일제히 코를 치켜들고는 아주 구슬픈 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다. 쥐들은 수천 마리씩 불어나고 있었고, 우리는 밖으로 나갔다.

고달밍 경이 개 한 마리를 들어 올려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바닥에 내려놓았다. 발이 땅에 닿자마자 개는 용기를 되찾은 듯 보였고, 천적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쥐들이 어찌나 빠르게 그의 앞에서 도망쳤는지, 그 개가 스무 마리 남짓을 물어 죽이기도 전에, 어느새 같은 방식으

로 안으로 옮겨진 다른 개들조차 변변한 사냥감을 잡을 새도 없이 쥐 떼 전체가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들이 떠나자 마치 어떤 악한 기운도 함께 사라진 듯했다. 개들은 쓰러진 적들을 향해 갑자기 달려들더니, 놈들을 이리저리 뒤집고 공중으로 던져 올리며 사납게 흔들어댔다. 개들이 즐겁게 뛰놀며 짖는 모습에 우리 모두의 기운도 솟아나는 것 같았다. 예배당 문을 열어 살풍경하던 공기가 정화된 덕분인지, 아니면 탁 트인 공간으로 나왔다는 안도감 때문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짓누르던 공포의 그림자가 마치 옷가지처럼 스르르 벗겨져 나갔다는 사실이다. 비록 결의가 조금도 약해지지는 않았으나, 이곳에 온 목적이 지녔던 그 암울한 무게감마저 다소 덜어진 기분이었다. 우리는 바깥문을 닫고 빗장을 지른 뒤 자물쇠로 잠갔다. 그러고는 개들을 데리고 집 안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집 안 어디에서도 특별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저 먼지가 비정상적일 정도로 두껍게 쌓여 있을 뿐이었고, 내가 처음 방문했을 때 남긴 발자국을 제외하면 모든 것이 손대지 않은 듯 그대로였다. 개들은 단 한 번도 불안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우리가 다시 예배당으로 돌아갔을 때조차, 개들은 마치 여름 숲에서 토끼 사냥이라도 하는 양 신나게 뛰어다녔다.

우리가 정문을 나서자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반 헬싱 박사는 열쇠 꾸러미에서 현관문 열쇠를 꺼내 정석대로 문을 잠갔다. 그러고는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다.

"지금까지는," 그가 말했다. "우리의 밤이 아주 성공적이었네. 내가 우려했던 불행은 일어나지 않았고, 게다가 사라진 상자가 몇 개인지도 확인했으니 말이야. 무엇보다 기쁜 점은, 우리의 첫걸음—아마도 가장 어렵고 위험한 첫걸음이었을—을 내딛는 동안 우리의 사랑스러운 미나 부인을 이 일에 끌어들이지 않았고, 그녀가 결코 잊지 못할 공포스러운 광경과 소리, 냄새로 그녀의 깨어 있는 생각이나 잠든 꿈을 어지럽히지 않았다는 것이네. 또한 한 가지 교훈도 얻었네. 개별 사례에서 논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백작의 명령을 따르는 짐승들이라 해도 그들 자신이 백작의 영적인 힘에까지 복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일세. 보게나, 백작의 부름에 모여들던 이 쥐들은—마치 그가 성 꼭대기에서, 자네가 그 성을 떠나려 할 때와 저 가엾은 어머니의 울부짖음에 늑대들을 불러냈던 것처럼—백작에게 몰려오기는 하지만, 정작 내 친구 아서의 그 자그마한 개들 앞에서는 혼비백산하여 달아나 버리지 않는가. 우리 앞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다른 문제와 다른 위험, 다른 공포들이 남아 있네. 그리고 그 괴물은 오늘 밤 짐승들을 부리는 힘을 단 한 번만, 혹은 마지막으로 쓴 것이 아닐 걸세. 그가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한들, 그 또한 좋은 일이지. 좋아! 덕분에 우리는 인간의 영혼을 판돈으로 걸고 벌이는 이 체스 게임에서 어떤 식으로든 '체크'를 부를 기회를 얻었으니 말이야.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 곧 새벽이 밝아올 테니, 첫날 밤의 성과에 만족해도 좋네. 앞으로 위험으로 가득한 수많은 밤과 낮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하며, 그 어떤 위험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네."

우리가 돌아왔을 때 집 안은 고요했다. 멀리 떨어진 병동 중 한 곳에서 어떤 가엾은 환자가 비명을 질러 대고 있었고, 렌필드의 방에서 낮은 신음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만 제외하면 말이다. 그 가련한 자는 틀림없이 정신병자들이 으레 그러하듯, 부질없는 고통스러운 생각으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리라.

나는 발소리를 죽이며 우리 방으로 들어갔다. 미나는 잠들어 있었는데, 숨소리가 어찌나 가냘픈지 귀를 가까이 대야만 겨우 들릴 정도였다. 평소보다 안색이 창백해 보인다. 오늘 밤 있었던 모임이 그녀를 너무 힘들게 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앞으로 우리가 진행할 일에서, 그리고 우리의 논의 과정에서조차 미나를 제외하기로 한 결정에 진심으로 안도한다. 여성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정신적 고통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이 결정이 내려진 것이 다행이다. 미나가 들으면 공포에 질릴 만한 일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약 미나가 우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다면, 차라리 사실을 말해주는 것보다 숨기는 것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적어도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이 땅에서 저세상의 괴물이 사라졌다고 말해줄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작업은 미나에게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우리가 서로를 이토록 신뢰하며 속마음을 터놓아 왔는데, 이제 와서 침묵을 지키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단호해져야 한다. 내일이면 나는 오늘 밤에 있었던 일들을 함구할 것이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 미나가 깨지 않도록 나는 소파에 몸을 뉘었다.

* * * * *

10월 1일, 늦게.

우리 모두가 늦잠을 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낮 동안 할 일이 너무 많았고, 밤에는 전혀 쉬지 못했으니까. 미나조차 피로를 느꼈던 모양이다. 나는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잤음에도 미나보다 먼저 깨어났고, 그녀를 깨우기 위해 두세 번은 불러야 했다. 사실 미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어서, 잠시 동안은 나를 알아보지도 못했다. 그저 악몽을 꾸다 깨어난 사람처럼 멍한 공포가 서린 눈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미나는 피곤하다며 조금 투정을 부렸고, 나는 그녀가 낮 늦게까지 더 쉴 수 있게 해주었다.

이제 상자 스물한 개가 옮겨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만약 그 운반 중 어느 한 번에 여러 개가 한꺼번에 실려 나간 것이라면, 우리는 그 상자들을 모두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작업은 엄청나게 수월해질 것이며, 이 문제는 하루빨리 손쓰는 것이 좋다. 오늘은 토머스 스넬링을 찾아가 볼 생각이다.

수어드 박사의 일기.

10월 1일. -- 교수님이 내 방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바람에 잠에서 깼을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교수님은 평소보다 훨씬 유쾌하고 활기찬 모습이었다. 어젯밤의 일이 교수님의 마음을 짓누르던 고민을 어느 정도 덜어준 것이 분명해 보였다.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모두 훑어본 뒤, 교수님이 갑자기 말씀하셨다. --

"당신의 환자가 무척 흥미롭군요. 괜찮다면 오늘 아침에 당신과 함께 그를 만나러 가도 되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너무 바쁘다면, 제가 혼자 가도 괜찮습니다. 철학을 논하고 이토록 타당한 논리를 펼치는 광인을 만나는 건 제게도 새로운 경험이니까요."

내게는 당장 처리해야 할 급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혼자 가준다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그래야 그를 기다리게 하지 않을 테니까. 나는 간병인을 불러 필요한 지시를 내렸다. 교수가 방을 나서기 전, 나는 환자에 대해 어떤 잘못된 인상이라도 받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다.

"하지만," 그가 대답했다. "나는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 그리고 살아 있는 것을 먹는다는 자신의 망상에 대해 직접 이야기해주길 바랍니다. 어제 당신의 일기를 보니, 그는 미나 부인에게 예전에는 그런 믿음을 가진 적이 있었다고 말했더군요. 왜 웃습니까, 존?"

"실례합니다만," 내가 말했다. "답은 여기 있습니다." 나는 타자기로 친 서류 위에 손을 얹었다. "제정신이면서도 학식까지 갖춘 우리 광인이 예전에 생명을 어떻게 '섭취하곤 했는지' 바로 그 말을 했을 때, 그의 입안은 하커 부인이 방에 들어오기 직전 먹어 치운 파리와 거미들로 실제로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자 반 헬싱이 미소를 지었다. "훌륭하군!" 그가 말했다. "자네 기억력이 정확하네, 존. 내가 깜빡했어. 하지만 바로 이런 사고와 기억의 비틀림이야말로 정신 질환을 매혹적인 연구 대상으로 만드는 법이지. 어쩌면 나는 가장 현명한 이들의 가르침보다, 이 미치광이의 어리석음에서 더 많은 지식을 얻을지도 모르네. 누가 알겠나?"

나는 다시 업무를 이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손에 들고 있던 일을 마쳤다. 시간이 정말 짧게 흐른 것 같았으나, 어느덧 반 헬싱이 서재로 돌아와 있었다. 그가 문가에 서서 정중하게 물었다. "내가 방해했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들어오세요. 일은 다 끝났으니 이제 자유롭습니다.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같이 가도 좋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미 그를 보았습니다!"

"그래서요?"

"그가 나를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면담은 짧게 끝났습니다. 내가 그의 방에 들어갔을 때, 그는 방 한가운데 놓인 의자에 앉아 무릎에 팔꿈치를 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만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나는 최대한 밝은 표정으로, 그리고 예의를 갖추어 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모르시겠습니까?"라고 내가 묻자, 돌아온 대답은 전혀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잘 알고 있소. 당신은 그 늙은 바보 반 헬싱 아니오. 당신과 그 멍청한 두뇌 이론 따위는 다른 곳에 가서나 치워버렸으면 좋겠군. 빌어먹을 꽉 막힌 네덜란드 놈들 같으니!"

그는 그 말 외에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치 내가 방에 있지도 않은 것처럼 무심한 태도로, 완강하고도 침울하게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토록 영리한 미치광이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기회는 이번에 이렇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가능하다면 미나 부인이

라는 그 고결한 영혼과 만나, 몇 마디 다정한 대화를 나누며 마음을 달래려 합니다.

친애하는 존, 그녀가 더 이상 우리의 끔찍한 일들 때문에 고통받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기쁩니다. 그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지만, 차라리 이렇게 된 편이 낫습니다."

"진심으로 당신의 말에 동의합니다." 나는 간곡하게 대답했다. 그가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마음을 약하게 먹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하커 부인은 이 일에서 벗어나 있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세상 풍파를 겪으며 수많은 곤경을 넘겨온 우리 남자들에게도 지금 상황은 충분히 가혹합니다. 하물며 여자에게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지요. 만약 그녀가 이 사건에 계속 연루되었다면, 결국에는 틀림없이 정신이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반 헬싱은 하커 부부와 상의하러 떠났고, 퀸시와 아서는 흙이 담긴 상자들의 단서를 쫓아 모두 밖으로 나갔다. 나는 남은 업무를 마저 끝낼 것이고, 우리는 오늘 밤 다시 모이기로 했다.

미나 하커의 일기.

10월 1일.

오늘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남겨져 있다는 사실이 내게는 참으로 낯설다. 수년 동안 조너선은 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깊이 신뢰해 왔는데, 이제 그는 분명히 어떤 사실들을 피하고 있다. 그것도 가장 중

요한 일들을 말이다. 어제의 피로 때문에 오늘 아침은 늦잠을 잤다. 조너선 역시 늦게 일어났지만, 나보다는 일찍 움직였다. 그는 외출하기 전 내게 말을 걸었다. 평소보다 더 다정하고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드라큘라 백작의 저택을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내가 얼마나 끔찍하게 불안해하고 있는지 그가 모를 리 없는데 말이다. 가여운 내 남편! 아마 그는 나보다 더 괴로워하고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끔찍한 일에 더 깊이 휘말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데 모두가 동의했고, 나도 그 뜻을 따르기로 했다. 하지만 그가 나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니! 이 모든 것이 남편의 깊은 사랑과 다른 강인한 분들의 선의에서 비롯된 일임을 잘 알면서도, 나는 지금 바보처럼 눈물만 흘리고 있다.

그렇게 쓰고 나니 한결 기운이 난다. 언젠가 조너선이 내게 모든 것을 말해 줄 날이 오겠지. 혹여라도 그가 내가 무언가를 숨겼다고 잠시라도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나는 여전히 평소처럼 일기를 쓰고 있다. 만약 그가 나의 진심을 의심하여 불안해한다면, 내 마음속 생각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간 이 일기를 그에게 보여 줄 것이다. 그의 소중한 두 눈으로 읽을 수 있도록 말이다. 오늘은 이상하리만큼 슬프고 마음이 가라앉는다. 아마도 그 끔찍했던 흥분이 지나간 뒤에 찾아온 반작용 때문이리라.

어젯밤 사람들을 다 보내고 나서, 그저 그들이 그러라고 했기에 잠자리에 들었다. 잠이 오지는 않았고, 오히려 무언가에 잡아먹힐 듯한 불안감만이 가득했다. 조너선이 런던으로 나를 찾아온 이후로 벌어진 모든 일을 계속 곱씹어 보았다. 그 모든 일은 마치 가혹한 운명이 정해

진 결말을 향해 무자비하게 몰아붙이는, 끔찍한 비극처럼 느껴진다. 아무리 옳은 일을 하려 해도, 결국에는 가장 비통한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것 같다. 만약 내가 휘트비에 가지 않았더라면, 불쌍하고 사랑스러운 루시가 지금 우리 곁에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가기 전까지 루시는 묘지를 방문하곤 하지 않았다. 내가 낮에 루시와 함께 그곳에 가지 않았더라면, 루시가 잠결에 그곳을 거닐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루시가 밤중에 잠든 채로 그곳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 괴물이 루시를 그토록 처참하게 파괴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아, 내가 왜 휘트비에 갔을까? 아, 또 눈물이 난다! 오늘 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조너선에게는 이 모습을 숨겨야 한다. 만약 그가 내가 오늘 아침에만 두 번이나 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자신의 일로 울어본 적도 없고, 그로 인해 눈물 흘린 적도 없는 내가 말이다—그 착한 사람은 가슴이 찢어질 듯 괴로워할 것이다. 겉으로는 씩씩한 척해야지. 설령 눈물이 차오르더라도 그에게는 절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우리 가련한 여자들이 배워야 할 숙명 중 하나인가 보다.

어젯밤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갑자기 개들이 짖어대는 소리와, 이 아래 어딘가에 있는 렌필드 씨의 방에서 들려오던, 마치 격렬하게 기도를 올리는 듯한 온갖 기묘한 소리들만 기억난다. 그러고 나자 모든 것이 정적에 휩싸였다. 그 정적이 어찌나 깊던지 나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밖은 온통 어둠과 침묵뿐이었고, 달빛이 드리운 검은 그림자들은 저마다 고요한 신비를 머금은 듯 보였다. 무엇 하나 움직이는 것 없이, 모든 것이 죽음이나 운명처럼 냉혹하고 굳건하게 멈춰 있는 듯했다. 그래서 풀밭을 가로질러

집을 향해 거의 알아채지 못할 만큼 느릿느릿 기어오는 가느다란 흰 안개 한 줄기만이, 마치 스스로 의식과 생명력을 지닌 존재처럼 느껴졌다.

생각을 잠시 다른 데로 돌린 것이 도움이 되었는지, 다시 침대로 돌아왔을 때는 나른함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한동안 누워 있었지만 쉽게 잠들지 못해, 다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안개는 점점 퍼져나가 이제 집 바로 앞까지 다다라 있었다. 안개가 마치 창문을 향해 몰래 기어오르는 것처럼 벽에 두껍게 깔려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불쌍한 사람은 전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가 하는 말을 한 마디도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 목소리에서 무언가 간절히 애원하는 듯한 격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다 몸싸움을 하는 소리가 들렸고, 간병인들이 그를 제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너무 겁이 난 나머지 침대로 기어 들어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쓰고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았다. 그때는 전혀 졸리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꿈을 제외하고는 아침에 조너선이 나를 깨울 때까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으니 말이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 위로 몸을 굽히고 있는 사람이 조너선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꽤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다. 꿈이 매우 기묘했는데, 깨어 있을 때의 생각이 꿈속으로 스며들거나 꿈속에서 이어지는 전형적인 양상을 띠고 있었다.

나는 내가 잠든 채 조너선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가 몹시 걱정되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손과 발, 그리고

머리까지 온몸이 무겁게 짓눌려 무엇 하나 평소처럼 움직여지지 않았다. 나는 불안하게 잠을 설치며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공기가 무겁고 축축하며 차갑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다. 얼굴을 덮고 있던 옷가지들을 걷어내자, 놀랍게도 주변이 온통 어둑했다. 조너선을 위해 켜두고 불을 낮춰 놓았던 가스등은, 어느새 방 안으로 밀려 들어온 듯한 짙은 안개 사이로 아주 작은 붉은 불꽃처럼 보일 뿐이었다. 문득 침대에 들기 전 창문을 닫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확인하러 나가고 싶었지만, 납처럼 무거운 무기력함이 내 사지와 의지마저 옭아매는 것 같았다. 나는 그저 가만히 누워 견딜 수밖에 없었다. 눈을 감아도 눈꺼풀 너머로 사물이 보였다. (꿈이 우리에게 어떤 장난을 치는지, 우리가 얼마나 편리하게 상상해내는지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안개는 점점 더 짙어졌다. 안개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보였다. 마치 연기나 끓는 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증기처럼, 창문이 아니라 문틈 사이로 안개가 밀려 들어오고 있었다. 안개는 점점 더 두꺼워지더니, 마치 방 안에 구름 기둥 하나가 뭉쳐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구름 기둥 꼭대기 너머로 가스등 불빛이 붉은 눈처럼 빛나고 있었다. 방 안의 구름 기둥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하자 내 머릿속에서도 온갖 생각들이 휘몰아쳤다. 그 와중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라는 성경 구절이 떠올랐다. 정말로 잠결에 찾아온 어떤 영적인 인도였을까? 하지만 그 기둥은 낮과 밤을 인도하는 것 모두를 품고 있었다. 붉은 눈 속에 불꽃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불꽃에 매료되어 넋을 잃고 바라보던 중, 불꽃이 갈라지더니 안개를 뚫고 나를 향해 두 개의 붉은 눈처럼 빛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루시가 절벽 위에서 잠시 정신이 몽롱했을 때 말했던 모습 같았다. 저무는 햇살이 성 메리 교회의 창문을 비추던 그 순간 말이다.

갑자기 공포가 엄습했다. 조너선도 달빛 아래 소용돌이치는 안개 속에서 그 끔찍한 여인들이 실체로 변해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꿈속에서 나는 정신을 잃은 모양인지 모든 것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했다. 상상력이 마지막으로 내게 보여준 모습은 안개 속에서 나를 향해 몸을 굽히고 있는 창백하고 푸르스름한 얼굴이었다. 이런 꿈은 조심해야 한다. 너무 자주 꾸다가는 이성을 잃을지도 모른다. 반 헬싱 박사님이나 수어드 박사님께 잠을 잘 수 있게 해주는 약을 처방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지만, 그분들을 놀라게 할까 봐 두렵다. 지금 이런 꿈을 꾸었다고 말하면, 그분들은 나를 향한 걱정에 휩싸일 것이다. 오늘 밤은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도록 애써보려 한다. 만약 잠들지 못한다면 내일 밤에는 클로랄을 한 회분 처방받아야겠다. 한 번 정도는 해롭지 않을 것이고, 숙면을 취할 수 있을 테니까. 어젯밤은 잠을 전혀 자지 않은 것보다 더 피곤했다.

* * * * *

10월 2일 오후 10시.

어젯밤에는 잠을 잤지만 꿈은 꾸지 않았다. 조너선이 침대로 들어올 때 깨지 않은 걸 보면 아주 깊이 잠들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잠을 자고도 전혀 개운하지 않다. 오늘은 몸이 몹시 나른하고 기운이 하나도 없다. 어제는 하루 종일 책을 읽으려 애쓰거나, 그냥 누워서 꾸벅꾸벅 졸며 시간을 보냈다.

오후에는 렌필드 씨가 찾아와도 될지 물어왔다. 가여운 사람, 그는 무척 정중했다. 내가 방을 나설 때 그는 내 손에 입을 맞추며 신의 가호

가 있기를 빌어주었다. 그 모습이 어쩐지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았다. 그를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난다. 이런 나약한 모습은 처음인데, 조심해야겠다. 내가 울었다는 걸 조너선이 알면 무척 괴로워할 것이다.

조너선과 다른 사람들은 저녁 식사 때까지 밖에 나갔다가 모두 지친 기색으로 돌아왔다. 나는 그들의 기운을 북돋아 주려 애썼다. 덕분에 나도 피곤함을 잊을 수 있었으니, 나름대로 보람 있는 노력이었다고 생각한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사람들은 나를 침대로 보냈다. 그러고는 다들 모여서 담배나 피우자며 밖으로 나갔지만, 사실은 낮 동안 각자 겪은 일들을 서로 나누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조너선의 태도를 보니 그에게도 전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듯했다.

나는 마땅히 졸려야 할 시간인데도 잠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기 전, 수어드 박사에게 부탁했다. 어젯밤에 잠을 설쳤으니 어떤 종류든 좋으니 진정제를 좀 달라고 말이다. 박사는 아주 친절하게 수면제를 조제해 주며, 아주 순한 것이라 해롭지 않을 거라고 다독여 주었다.

약을 먹고 이제 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잠은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 같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니었으면 좋겠다. 잠이 슬며시 다가오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새로운 두려움이 엄습한다. 이렇게 약을 먹어 깨어 있을 힘을 미리 없애버린 게 어쩌면 어리석은 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이다. 만약 깨어 있어야 할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제 잠이 온다. 안녕히.

제XX장

조너선 하커의 일기

10월 1일, 저녁.

베스널 그린에 있는 토마스 스넬링의 집을 찾아갔으나, 불행히도 그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상태였다. 내가 찾아온다는 기별에 맥주를 마실 기대가 잔뜩 부풀었던 탓인지, 그는 예정된 술판을 너무 일찍 시작해 버린 뒤였다. 하지만 그의 아내에게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참으로 선량하고 가련한 여인이었다. 아내의 말에 따르면, 스넬링은 스몰릿의 조수일 뿐이며, 두 인부 중 책임자는 스몰릿이라고 했다.

나는 곧장 월워스로 마차를 몰았다. 그곳에서 조셉 스몰릿 씨를 만났는데, 그는 집에서 셔츠 차림으로 찻잔 받침에 따른 차를 늦은 시각에 마시고 있었다. 그는 품위 있고 지적인 사람으로, 분명히 성실하고 믿음직한 숙련공의 전형이었으며 자기 주관도 뚜렷했다. 그는 상자 사건에 관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바지춤 어딘가의 정체 모

를 주머니에서 모서리가 잔뜩 접힌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두껍고 흐릿하게 지워진 연필 글씨로 상형문자처럼 적힌 그 수첩을 보며, 그는 상자들이 실려 간 목적지들을 알려주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카팩스에서 실어다 마일 엔드 뉴 타운의 칙샌드 거리 197번지에 내려놓은 상자가 수레 한가득인 여섯 개였고, 버몬지의 재메이카 레인에 내려놓은 상자가 또 여섯 개였다. 만약 드라큘라 백작이 런던 전역에 이 끔찍한 은신처들을 흩어놓으려 한 것이라면, 나중에 더 광범위하게 퍼뜨리기 위해 이곳들을 첫 배송지로 고른 셈이었다. 이 모든 과정이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니, 백작이 런던의 단 두 구역에만 머물 생각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현재 그는 북쪽 강변의 먼 동쪽과 남쪽 강변의 동쪽, 그리고 남쪽 지역을 거점으로 삼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악마적인 계획에서 북쪽과 서쪽이 빠질 리는 만무했다. 시내 중심가는 말할 것도 없고, 남서쪽과 서쪽에 자리한 런던 사교계의 심장부 또한 마찬가지였다.

나는 다시 스몰릿에게 가서, 카팩스에서 다른 상자들이 더 실려 나간 적은 없는지 물었다.

그가 답했다.

"그거 참, 나으리. 저를 아주 친절하게 대해 주셨구먼요." 내가 그에게 0.5소버린을 쥐여주자 그가 말했다. "제가 아는 건 다 말씀드리죠. 나흘 전 밤이었어요. 핀처 골목에 있는 '헤어 앤 하운즈' 술집에서 블록 섬이라는 남자가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자기랑 동료가 같이 퍼플릿에 있는 어느 낡은 집에서 아주 먼지투성이 일거리를 해치웠다는 얘기

였죠. 이런 일거리는 흔치 않으니, 아마 샘 블록섬이라면 나으리께 뭔가 알려드릴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그에게 블록섬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리고 그가 주소를 알아다 준다면 0.5소버린을 더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그는 남은 차를 단숨에 들이켜고는, 지금 당장 수소문해 보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문가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말했다.

"이보쇼, 주인님. 제가 여기 계속 붙잡고 있어 봐야 아무 소용 없겠네요. 샘을 금방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 밤 놈 상태를 봐선 당신한테 뭐라 말해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닐 겁니다. 샘 저놈은 술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주 골치 아픈 놈이거든요. 여기 우표 붙인 봉투 하나랑 주소만 적어서 주시면, 제가 샘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서 오늘 밤에 바로 부쳐 드릴게요. 하지만 내일 아침 일찍 서둘러서 찾아보는 게 좋을 겁니다. 안 그러면 못 만날지도 몰라요. 샘은 전날 밤에 술을 아무리 마셔댔어도 아침 일찍이면 진작에 자리를 뜨는 놈이니까요."

그 제안은 모두 합리적이었으므로, 아이 하나가 동전 한 닢을 들고 봉투와 종이 한 장을 사러 갔고, 거스름돈은 갖도록 했다. 아이가 돌아오자 나는 봉투에 주소를 적고 우표를 붙였다. 스몰릿이 블록섬의 주소를 알아내면 반드시 부쳐 주겠노라고 다시 한번 굳게 약속했기에, 나는 집으로 향했다. 어쨌든 우리는 단서를 잡았다. 오늘 밤은 무척 피곤해서 잠을 좀 자고 싶다. 미나는 깊이 잠들었는데 안색이 조금 지나치게 창백하다. 눈은 마치 울었던 것처럼 보인다. 가여운 사람, 아무것도 모

른 채 지켜만 봐야 하는 것이 분명 그녀를 애태우고,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걱정도 갑절로 키우고 있으리라. 하지만 지금은 이대로 두는 편이 최선이다. 차라리 지금 이렇게 실망하고 애태우는 편이, 그녀의 신경이 무너져 내리는 것보다는 낫다. 이 끔찍한 사건에 미나를 끌어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고집한 의사들의 판단은 옳았다. 이 침묵의 짐은 오롯이 내가 짊어져야 하는 것이기에, 나는 단호해져야만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녀에게 이 문제를 먼저 꺼내지 않을 것이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지도 모른다. 미나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해 입을 닫기 시작했고, 우리가 결정을 알린 뒤로는 드라큘라 백작이나 그가 저지른 일들에 대해 전혀 입에 올리지 않으니 말이다.

* * * * *

10월 2일, 저녁.

길고도 고단하며, 동시에 흥분되는 하루였다. 첫 우편물을 통해 목적지가 적힌 봉투를 받았는데, 그 안에는 지저분한 종이 조각 하나가 들어 있었다. 목수의 연필로 휘갈겨 쓴 듯한 그 종이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샘 블록섬, 코크랜스, 포터스 코트 4번지, 바텔 스트리트, 월워스. 데파이트를 찾으쇼."

침대에 누운 채 편지를 받고는, 미나를 깨우지 않고 몸을 일으켰다. 미나는 안색이 창백하고 무척 나른하고 졸려 보였으며, 몸 상태도 전혀 좋아 보이지 않았다. 그녀를 깨우지 않기로 했지만, 이번 조사를 마치

고 돌아오면 미나를 엑서터로 돌려보낼 채비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우리 곁에 머무는 것보다, 익숙한 집에서 매일의 일과로 마음을 쏟는 편이 그녀에게 더 행복할 것 같았다. 수어드 박사를 잠깐 만나 어디로 가는지 일러두었고, 무언가 알아내는 대로 곧 돌아와 나머지 사람들에게 전하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마차를 타고 웰워스로 가서, 우여곡절 끝에 포터스 코트를 찾아냈다. 스몰릿 씨가 철자를 잘못 적은 탓에, 나는 't'가 두 개인 '포터스 코트(Potter's Court)'를 't'가 하나뿐인 '포터스 코트(Poter's Court)'로 잘못 알고 물어보는 실수를 했다. 하지만 일단 그 골목을 찾고 나니 코코란의 하숙집을 찾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문을 열어준 사람에게 '데파이트(depite)'를 찾는다고 묻자,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런 사람은 모릅니다. 여기엔 그런 사람 없어요. 내 평생 살면서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입니다. 여기든 어디든 그런 사람이 산다고는 믿기지 않는군요."

나는 스몰릿 씨의 편지를 꺼내 다시 읽어 보았다. 그러다 문득, 골목 이름의 철자가 그랬던 것처럼 이 이름의 철자에도 어떤 실수가 있을지 모른다는 데에 생각이 미쳤다.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물었다.

"제가 그 데퓨티(deputy), 곧 관리인입니다." 그가 대답했다. 나는 즉시 내가 제대로 짚었음을 깨달았다. 소리 나는 대로 적은 철자가 또

다시 나를 헷갈리게 만든 것이었다. 하프 크라운을 팁으로 쥐여 주자 관리인은 자신이 아는 바를 순순히 풀어놓았다. 그에 따르면, 블록섬 씨는 전날 밤 코코란네 집에서 마신 술기운을 자며 떨쳐낸 뒤, 오늘 새벽 5시에 포플러에 있는 일터로 떠났다고 했다. 그는 일터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몰랐지만, 그곳이 일종의 '신식 창고' 같은 곳이라는 막연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이 빈약한 단서를 붙잡고 포플러로 향했다.

정오가 다 되어서야 나는 그런 건물에 관한 그럴듯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는데, 마침 인부 몇 명이 점심을 먹고 있던 어느 커피숍에서였다. 인부 중 한 명이 크로스 엔젤 거리에 새로운 '냉동 창고' 건물이 세워지고 있다고 일러 주었다. '신식 창고'라는 설명과도 잘 맞아떨어졌기에, 나는 곧장 그곳으로 차를 몰았다. 무뚝뚝한 문지기와 그보다 더 무뚝뚝한 현장 감독을 만났는데, 두 사람 모두 돈 몇 닢에 금세 누그러졌다. 덕분에 블록섬의 행방을 알아낼 수 있었다. 나는 개인적인 용무로 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면 감독에게 그의 하루치 임금을 치르겠다고 제안했고, 그렇게 블록섬을 불러낼 수 있었다. 그는 말투나 행동거지가 거칠긴 했지만 제법 영리한 사람이었다.

내가 정보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약속하며 선금을 쥐여 주자, 그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카팩스와 피카딜리에 있는 어느 집 사이를 두 번 오갔으며, 이를 위해 직접 빌린 말과 수레로 카팩스에서 그 피카딜리 집으로 아홉 개의 커다란 상자, 즉 '아주 무거운 것들'을 옮겼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피카딜리 집의 번지수를 알려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글쎄요, 주인님. 번호는 까먹었습니다만, 지은 지 얼마 안 된 커다란 하얀 교회인가 뭔가 하는 건물이 있는 곳에서 불과 몇 집 떨어진 곳이었어요. 먼지가 뽀얗게 앉은 낡은 집이었는데, 그래도 그 빌어먹을 상자들을 가져왔던 그 집만큼 먼지가 쌓여 있지는 않았죠."

"두 집 모두 비어 있었다면서, 어떻게 안으로 들어갔나요?"

"퍼플릿에 있는 집에서 저를 고용한 그 노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양반이 제가 상자를 들어 올려 짐수레에 싣는 걸 도와줬죠. 빌어먹을, 정말이지 제가 만나 본 사람 중에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흰 콧수염을 기른 노인인데, 어찌나 비쩍 말랐는지 그림자조차 드리우지 못할 것 같아 보였다니까요."

그 문장이 내 온몸을 얼마나 전율케 했는지 모른다!

"아니, 그 양반은 상자 끝을 마치 찻잎 몇 파운드 들어 있는 것처럼 가볍게 휙 들어 올리더라고요. 나는 내 상자 하나 제대로 뒤집어엎지도 못해서 헉헉대며 숨을 몰아쉬고 있었는데 말이죠. 나도 어디 가서 얕보일 만큼 약한 사람은 아니란 말입니다."

"피카딜리 저택에는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내가 물었다.

"그 사람도 거기 있었어요. 나보다 먼저 출발해서 도착한 게 분명해요. 내가 벨을 눌렀더니 그 사람이 직접 나와서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러고는 내가 상자들을 현관 안으로 옮기는 걸 도와줬어요."

"아홉 개 전부 말입니까?" 내가 물었다.

“예, 첫 번째 짐에는 다섯 개, 두 번째에는 네 개가 있었지요. 어찌나 목이 타는 일이었던지, 집에 어떻게 돌아왔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라니까요.” 내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상자들을 현관에 그냥 두었습니까?”

“예, 아주 커다란 현관이었는데, 그 안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는 상황을 더 캐 보려고 한 번 더 시도했다.

“열쇠가 전혀 없었단 말인가요?”

“열쇠 같은 건 전혀 안 썼습니다. 그 노인네가 직접 문을 열더니, 내가 수레를 몰고 떠날 때 다시 닫더군요. 마지막 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 그게 다 맥주 탓이죠.”

“집 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단 말인가요?”

"아니요, 나으리. 하지만 그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돌로 된 정면에 둥근 창이 달린 높은 집인데, 문 앞까지 높은 계단이 이어져 있거든요. 제가 그 계단을 잘 알죠. 동전 몇 푼 벌겠다고 몰려든 부랑자 셋에게 상자들을 들고 계단을 오르게 한 적이 있거든요. 노신사께서 그들에게 실링을 몇 푼 주셨는데, 돈을 꽤 챙겼다 싶으니까 더 달라고 떼를 쓰더라고요. 그랬더니 노신사께서 그중 한 명의 어깨를 붙잡고 계단 아래로 내동댕이칠 기세로 몰아붙였고, 결국 그놈들이 욕설을 퍼부으며 가버렸답니다."

이 설명만 있으면 집을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정보를 준 친구에게 사례를 하고 피카딜리로 향했다. 나는 새로운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나 얻었다. 드라큘라 백작이 직접 흙이 담긴 상자들을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시간은 매우 촉박했다. 백작이 이미 어느 정도 물건을 나누어 놓은 상태라면,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을 골라 아무도 모르게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피카딜리 서커스에서 마차를 돌려보내고 서쪽으로 걸어갔다. 주니어 컨스티튜셔널을 지나자 설명과 일치하는 집이 나타났다. 드라큘라가 준비해 둔 다음 은신처가 바로 이곳임을 확신했다.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창문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덧창은 닫혀 있었다. 건물 골조는 세월의 흔적으로 검게 변해 있었고, 철제 부분은 페인트가 대부분 벗겨져 나간 상태였다. 최근까지 발코니 앞에 커다란 게시판이 붙어 있었던 흔적이 역력했으나, 게시판은 거칠게 뜯겨 나갔고 그것을 지탱하던 기둥들만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발코니 난간 뒤쪽으로는 나무 판자들이 몇 개 헐거워져 있었는데, 그 잘린 단면이 하얗게 드러나 있었다. 만약 게시판이 온전한 상태였다면 집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낼 단서가 되었을지도 모르기에, 나는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내놓았을 것이다. 나는 카팩스를 조사하고 매입했던 경험을 떠올렸다. 전 주인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이 집에 들어갈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피카딜리 쪽에서는 현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도, 할 수 있는 일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쪽 방면에서 뭐라도 얻을 수 있을까 싶어 건물 뒤

편으로 돌아갔다. 피카딜리의 저택들은 대부분 사람이 살고 있어서 마구간 골목은 분주했다. 나는 근처에서 마부나 일꾼 몇 명을 붙잡고 비어 있는 저택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물었다. 그중 한 명은 최근에 누군가 들어왔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그게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아주 최근까지도 '매매'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내판에 적힌 업체 이름을 본 기억이 나는데, 부동산 중개업체인 '미첼, 선즈 앤 캔디'에 문의하면 무언가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나는 너무 갈급해 보이고 싶지 않았고, 정보원에게 내 의도를 들키거나 추측하게 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서 평소처럼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고는 유유히 자리를 떴다. 어느덧 땅거미가 지고 가을밤이 찾아오고 있었기에, 나는 지체하지 않고 움직였다. 버클리 호텔에 비치된 주소록에서 '미첼, 선즈 앤 캔디'의 주소를 확인해 둔 덕분에, 곧 삭 빌가에 있는 그들의 사무실에 도착할 수 있었다.

나를 맞이한 신사는 태도가 무척 부드러웠으나, 그만큼이나 입이 무거웠다. 그는 대화 내내 피카딜리의 그 집을 '대저택'이라 불렀는데, 일단 그 집이 팔렸다고 한마디 하고 나서는 내 용건이 다 끝났다고 여기는 듯했다. 누가 그 집을 샀느냐고 묻자, 그는 눈을 조금 더 크게 뜨더니 몇 초간 뜸을 들이다 대답했다.

"팔렸습니다, 손님."

"실례하겠습니다만," 나는 똑같이 정중한 태도로 말했다. "누가 그것을 샀는지 꼭 알고 싶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말을 멈추고는 눈썹을 더욱 치켜올렸다. "팔렸습니다, 선생님." 그는 다시금 짧게 대답했다.

“설마,” 내가 말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제게 알려주시는 게 꺼려지지는 않으시겠지요?”

“하지만 난 신경 쓰입니다.” 그가 대답했다. “미첼, 선즈 앤 캔디 사에 맡겨진 고객들의 업무는 아주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으니까요.” 그는 누가 봐도 아주 고지식하고 깐깐한 사람이었기에, 그와 논쟁을 벌여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차라리 그가 내세우는 논리에 맞춰 대응하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선생님처럼 비밀을 철저히 지켜 줄 보호자를 두었으니, 의뢰인들께서는 참으로 다행이라 여길 겁니다. 저 역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에게 내 명함을 건넸다. "이번 일은 단순히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고달밍 경을 대신해 온 것인데, 그분은 최근 매물로 나왔다고 들으신 그 부동산에 대해 알고 싶어 하십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상황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커 씨, 제가 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각하를 도와드릴 수 있다면 더더욱 말입니다. 예전에 그분이 아직 아너러블 아서 홈우드 님이셨던 시절에, 거처로 쓰실 방을 임대해 드리는 작은 일을 처리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각하의 주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이 문제를 회사 측에 문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오늘 밤 우

편으로 각하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규정을 다소 어기더라도 각하께 필요한 정보를 드릴 수 있다면 저로서는 더없이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나는 적을 만들기보다 친구를 얻고 싶었다. 그래서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수어드 박사의 주소를 건네준 뒤 자리를 떴다. 어느덧 날은 저물었고, 나는 피로와 허기에 지쳐 있었다. 에레이티드 브레드 컴퍼니에서 차 한 잔을 마신 뒤, 다음 열차를 타고 퍼플릿으로 내려갔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집에 있었다. 미나는 지치고 창백해 보였지만, 밝고 쾌활하게 행동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녀에게 무언가를 숨겨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내 마음은 미어졌다. 다행히도, 그녀가 우리의 회의를 지켜보며 우리가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는 것에 상처받는 밤도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 참혹한 과업에 그녀를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현명한 결심을 지키기 위해 나는 온 힘을 다해 용기를 내야만 했다. 미나는 어쩐지 상황을 받아들인 듯 보였다. 아니면 이 주제 자체가 그녀에게 혐오스러워진 것일지도 모르겠다. 우연히라도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그녀는 실제로 몸서리까지 쳤다. 우리가 제때 결심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심정인 그녀에게 우리가 알아가는 진실들은 그저 고통일 뿐일 테니까.

우리가 단둘이 남을 때까지는 오늘 발견한 사실을 다른 이들에게 말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우리 사이의 어색함을 달래고자 가벼운 음악 연주를 곁들인 후 미나를 방으로 데려다주었다. 그녀가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배웅하고 나서 말이다. 사랑스러운 미나는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내게 매달렸고, 마치 나를 붙잡아 두고 싶어 하는 것처럼 내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나누어야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았기에 나는 그 자리를 떠나야만 했다. 다행히도, 비밀을 간직하느라 말을 아끼는 상황이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지는 않았다.

다시 내려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서재 벽난로 주위에 모여 있었다. 나는 기차 안에서 써 내려간 일기를 그들에게 읽어주었다. 내가 알아낸 정보를 그들에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방법은 이뿐이었다. 일기를 다 읽자, 반 헬싱이 입을 열었다.

"오늘 정말 큰일을 해냈네, 조너선 친구.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는 사라진 상자들의 행방을 쫓고 있어. 만약 그 저택에서 상자들을 전부 찾아낸다면, 우리의 과업도 거의 끝나가겠지. 하지만 빠진 것이 있다면, 찾을 때까지 계속 수색해야만 하네. 그때야말로 최후의 일격을 가해, 그 가증스러운 놈을 진정한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을 거야."

우리 모두 잠시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때 갑자기 모리스 씨가 입을 열었다.

“이봐요! 저 집에 어떻게 들어갈 생각이죠?”

"다른 집에는 우리가 들어갔잖나." 고달밍 경이 재빨리 대답했다.

“하지만 아서, 이번엔 상황이 달라. 카팩스에서는 집을 부수고 들어갔지만, 우리에겐 밤이라는 시간과 우리를 보호해 줄 담장 둘러싸인 공원이 있었잖아. 피카딜리에서 낮이든 밤이든 빈집털이를 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솔직히 말해서, 그 대행업체 녀석이 무슨 열쇠라도

찾아내지 않는 한 어떻게 침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내일 아침 네가 그 사람의 편지를 받으면 알게 되겠지." 고달밍 경은 미간을 찌푸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서성였다. 그러다 이윽고 발걸음을 멈춘 그는 우리를 차례로 돌아보며 말했다.

"퀸시의 판단이 옳아. 이 빈집털이 일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 지난번에는 운 좋게 잘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정말 까다로운 일을 맡게 되었군. 드라큘라 백작의 열쇠 바구니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말이야."

아침이 오기 전에는 무엇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적어도 고달밍 경이 미첼 사로부터 소식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현명할 듯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 식사 전까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한동안 우리는 앉아서 담배를 피우며 이 문제를 여러 관점과 측면에서 논의했다. 나는 그 틈을 타 이 일기를 지금 이 순간까지 적어 두었다. 몹시 졸음이 쏟아지니 이제 잠자리에 들어야겠다.

짧게 몇 자 적습니다. 미나는 깊이 잠들었으며 숨소리도 규칙적입니다. 미나의 이마에는 작은 주름이 잡혀 있습니다. 마치 잠결에도 무언가 생각이라도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안색은 여전히 너무 창백하지만, 오늘 아침만큼 초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엑서터의 집에 돌아가면 미나도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것입니다. 아, 이제 정말 졸음이 쏟아집니다!

수어드 박사의 일기.

10월 1일.

렌필드 때문에 다시금 혼란스럽다. 그의 기분 변화가 워낙 급격해서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조차 어렵다. 게다가 그의 상태는 단순히 개인의 안녕을 넘어선 무언가를 암시하기에, 그를 관찰하는 일은 흥미로운 연구 대상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오늘 아침, 반 헬싱을 거부한 뒤 그를 찾아갔을 때, 렌필드의 태도는 마치 운명을 호령하는 사람과도 같았다. 사실 그는 주관적인 관점에서 운명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는 세속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다. 마치 구름 위에 떠서, 가련한 필멸자인 우리 인간들의 모든 약점과 결핍을 내려다보는 듯한 모습이었다. 나는 이 기회를 빌려 무엇인가를 알아내기로 마음먹고 그에게 물었다.

"요즘 파리들은 좀 어떻습니까?" 그는 마치 말볼리오의 얼굴에나 어울릴 법한, 아주 거만하고 잘난 체하는 미소를 지으며 내게 대답했다.

"여보게, 파리에게는 아주 눈에 띄는 특징이 하나 있네. 그 날개는 정신적 능력의 비상하는 힘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네. 고대인들이 영혼을 나비에 비유한 것은 참으로 탁월한 선택이었어!"

나는 그의 비유를 논리적으로 끝까지 밀어붙여 보고 싶었다. 그래서 서둘러 이렇게 말했다.

"오, 이제 당신이 쫓는 건 영혼이란 말인가요?" 광기가 이성을 가로막았다. 그는 내가 좀처럼 보기 드문 단호한 태도로 고개를 저으며, 당혹스러운 기색을 얼굴 가득 띠고 말했다.

"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영혼 따위는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오직 삶뿐입니다." 그는 이 대목에서 표정이 밝아졌다. "지금은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삶은 아주 만족스럽고, 필요한 것도 다 갖추고 있으니까요. 박사님, 만약 생물 포식 현상을 연구하고 싶으시다면 다른 환자를 찾아보셔야 할 겁니다!"

이 점이 조금 의아했기에, 나는 그에 대해 더 자세히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생명을 다스리시는군요. 그렇다면 당신은 신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는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인자하면서도 오만한 미소를 지었다.

"오, 아닙니다! 제가 감히 신의 권능을 탐낼 리 있겠습니까. 저는 신께서 행하시는 지극히 영적인 일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제 지적 위치를 말씀드리자면, 순수하게 지상의 일에 관해서만큼은 제가 영적으로 에녹이 처했던 위치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군요!"

그의 말은 내게 커다란 난제였다. 그 순간 에녹이라는 인물이 이 상황에 어떻게 적절한 비유인지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아주 단순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 비록 그렇게 함으로써 저 미치광이의 눈에 내가 한없이 낮아 보일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음에도 말이다.

"그런데 왜 에녹과 함께입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차마 모른다고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가 앞서 부정했던 말로 다시 화제를 돌렸다.

"그러니까 삶에는 관심도 없고, 영혼도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군요. 대체 왜 그런 겁니까?"

나는 그를 당황하게 만들 작정으로, 질문을 빠르고 다소 엄하게 던졌다. 의도는 적중했다. 그는 찰나의 순간 자신도 모르게 예전의 비굴한 태도로 돌아갔다. 그는 내 앞에서 몸을 낮게 굽히더니, 대답하며 나에게 아첨까지 떨었다.

"정말이지, 정말로 영혼 따위는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아요. 설령 영혼을 손에 넣는다 해도 쓸 데가 없습니다. 제게는 아무런 소용도 없을 겁니다. 먹을 수도 없고, 아니면——"

그는 갑자기 말을 멈췄다. 수면 위를 휩쓸고 지나가는 바람처럼, 예의 그 교활한 표정이 얼굴 전체로 번져 나갔다.

"그런데 박사님, 삶이라는 게 결국 무엇입니까? 필요한 것을 다 갖추고, 앞으로도 부족할 일이 없을 거라는 걸 알게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닙니까? 저에게도 수어드 박사님처럼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는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교활한 곁눈질을 흘리며 덧붙였다.

"저는 삶을 영위할 수단이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광기가 흐릿한 상태이긴 했으나, 그는 내게서 어떤 적대감을 읽어낸 듯했다. 그는 즉시 자신과 같은 자들이 마지막으로 도피하는 수

단인 완강한 침묵 속으로 숨어버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지금 당장 그에게 말을 거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뚱한 표정으로 입을 닫았고, 나는 그 자리를 떠났다.

그날 오후 늦게 그가 나를 불렀다. 평소라면 특별한 이유 없이 그를 찾아가지는 않았겠지만, 지금은 그에게 워낙 관심이 쏠려 있어 기꺼이 움직일 용의가 있다. 게다가 무엇이든 해서 시간을 보내는 편이 차라리 낫다. 하커는 단서를 쫓아 밖으로 나갔고, 고달밍 경과 퀸시도 마찬가지다. 반 헬싱은 내 서재에 앉아 하커 부부가 준비한 기록을 뚫어지게 살피고 있다. 그는 모든 세부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다 보면 어떤 단서라도 찾아낼 수 있으리라 믿는 듯하다. 그는 별다른 이유 없이 작업 중에 방해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도 그를 데리고 환자를 보러 가고 싶었지만, 지난번에 거부당한 뒤라 다시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 마음을 접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 렌필드는 나와 단둘이 있을 때만큼 제삼자가 있는 자리에서는 속내를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는 바닥 한가운데 놓인 의자에 앉아 있었다. 평소 그가 정신적 에너지를 쏟고 있을 때 보여주는 전형적인 자세였다. 내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는 마치 입가에 그 질문을 머금고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물었다.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순간 내 짐작이 맞았음이 분명해졌다. 정신 나간 자의 머릿속에서도 무의식적인 사고는 제 역할을 다하고 있었다. 나는 이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럼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물었다.

그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대답에 영감을 줄 만한 것이라도 있는지 찾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위아래로 눈을 굴렸다.

"난 영혼 따윈 원하지 않아요!" 그가 힘없는 목소리로 미안해하며 말했다. 이 문제가 그의 마음을 계속 괴롭히는 듯 보였다. 그래서 나는 이 점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결과적으로 선을 행하기 위해 잠시 모질게 구는 것' 말이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삶을 좋아하고, 또 삶을 원한다는 거군요?"

"아, 그럼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런 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내가 물었다. "영혼까지 앗아가지 않고 어떻게 생명만을 취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질문에 그는 당혹스러운 듯 보였다. 그래서 나는 설명을 덧붙였다.

"당신이 그곳으로 날아다닐 때면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수천 마리의 파리와 거미, 새와 고양이의 영혼이 당신 주위를 윙윙거리고 지저귀며 야옹거릴 테니까요. 당신은 그것들의 생명을 가졌으니, 그 영혼들도 감내해야만 합니다!"

무언가 그의 상상력을 자극했는지, 그는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고 눈을 질끈 감았다. 마치 어린아이가 얼굴에 비누칠을 당할 때처럼 눈을 아주 꽉 찌푸렸다. 그 모습에는 내 마음을 건드리는 애처로운 구석이 있었다. 동시에 그것은 내게 교훈을 주기도 했다. 내 앞에 있는 존재는 마치 아이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비록 이목구비는 세월에 닳아 있고 턱에는 하얀 수염이 돋아 있었지만, 그는 그저 아이와 다름없었다.

그가 정신적 혼란을 겪고 있음은 분명했다. 그가 과거에 어떤 기분 상태에서 자신과 무관해 보이는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나는 가능한 한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와 함께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우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첫 단계였다. 그래서 나는 그가 귀를 막고 있어도 들을 수 있도록 꽤 큰 목소리로 그에게 물었다.

"다시 파리를 불러 모으시게 설탕을 좀 드릴까요?" 그는 마치 갑자기 잠에서 깨어난 듯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그러고는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다.

"별거 아니에요! 어차피 파리 같은 미물일 뿐인걸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덧붙였다. "그렇다고 해서 그 영혼들이 내 주변을 윙윙거리며 떠도는 건 딱 질색입니다."

"아니면 거미인가요?" 내가 말을 이었다.

"거미 따위는 다 꺼지라지! 거미가 무슨 소용이야? 먹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니면—" 그는 마치 금기된 주제가 떠오른 듯 갑자기 말을 멈췄다.

"이거 참 이상하군!"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가 '마시다'라는 단어에서 갑자기 말을 멈춘 게 벌써 두 번째야. 대체 무슨 뜻일까?" 렌필드 자신도 실수를 깨달은 듯했다. 그는 마치 내 주의를 돌리려는 듯 서둘러 말을 이어 나갔다.

"난 그런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네. 셰익스피어의 표현을 빌리자면, '쥐나 생쥐 같은 하찮은 것들' 혹은 '찬장 구석의 닭 모이' 정도라고나 할까. 난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에 휘둘릴 나이가 아니야.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똑똑히 알고 있는 내게, 고작 하급 육식동물 따위를 들먹이며 관심을 끌어보려 하다니. 그건 마치 젓가락으로 분자 하나하나를 집어 먹으라는 말만큼이나 무의미한 짓이지."

"알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어금니가 맞물릴 정도로 커다란 것을 원하시는군요? 코끼리 고기로 아침 식사를 하는 건 어떻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가!" 그는 정신이 점점 맑아지는 듯 보였다. 그래서 나는 그를 좀 더 몰아붙여 보기로 했다. 나는 생각에 잠긴 듯한 말투로 말했다. "궁금하군, 코끼리의 영혼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내가 의도한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그는 즉시 거드름을 피우던 태도를 버리고 다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돌아갔다.

"코끼리의 영혼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 어떤 영혼도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는 잠시 동안 낙담한 채 앉아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눈을 번뜩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온몸에서 극도의 정신

적 흥분이 뿜어져 나왔다. “당신들과 그놈의 영혼 따위, 지옥에나 떨어지라고 하세요!” 그가 소리쳤다. “왜 자꾸 영혼 타령을 하며 나를 괴롭히는 겁니까? 영혼 따위 생각하지 않아도 이미 걱정과 고통, 정신적 혼란이 넘쳐나는데 말입니다!” 그가 너무나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기에, 나는 그가 또다시 살인 충동에 휩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호루라기를 불었다. 하지만 내가 호루라기를 부는 순간, 그는 즉시 진정하며 미안하다는 듯 말했다.

“용서하십시오, 박사님.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도움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자꾸 짜증을 부리게 되네요. 제가 지금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박사님이 아신다면, 저를 가엽게 여기고 이해하며 용서해 주실 겁니다. 제발 저를 구속복에 가두지는 말아 주십시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데, 몸이 묶여 있으면 제대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는 분명 자제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자 그들은 물러갔다. 렌필드는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더니, 문이 닫히자 아주 품위 있고 상냥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다.

“수어드 박사님, 저를 참 많이 배려해 주셨군요. 정말, 정말 감사하다는 제 말을 믿어 주세요!”

그를 이런 기분으로 남겨두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하며 나는 그곳을 나왔다. 이 남자의 상태에는 분명 곱씹어 볼 만한 구석이 있다. 만약 이

사실들을 적절한 순서로 정리할 수만 있다면, 미국인 인터뷰어가 말하는 이른바 '이야기'가 될 법한 지점들이 몇 군데 보인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술"이라는 단어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무엇인가의 '영혼'을 떠맡게 된다는 생각만으로도 두려움을 느낀다.

앞으로 '삶'을 갈구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비천한 생명체들을 전적으로 경멸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영혼이 자신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것은 두려워한다.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이 모든 정황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그는 자신이 어떤 더 높은 생명력을 얻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품고 있다. 그렇기에 그는 그 대가로 따를 영혼의 짐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갈구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삶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그 확신의 근거는--?

자비로운 하느님! 드라큘라 백작이 그에게 접근했구나. 또 어떤 끔찍한 음모가 꾸며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 * * * *

나중에, 회진을 마친 뒤 반 헬싱을 찾아가 내 의심을 털어놓았다. 그는 매우 엄숙한 표정을 지었다. 잠시 그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던 그는 나에게 자신을 렌필드에게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그렇게 했

다. 문 앞에 다다르자, 안에서 미친 사람이 즐겁게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는 아주 오래전 일처럼 느껴지는,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였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우리는 깜짝 놀랄 광경을 목격했다. 그는 예전처럼 설탕을 넓게 펼쳐 놓은 상태였다. 가을 기운에 나른해진 파리들이 방 안으로 윙윙거리며 날아들기 시작했다. 우리는 아까 나누었던 대화 주제에 대해 그가 입을 열도록 유도해 보았지만, 그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마치 우리가 그곳에 없는 것처럼 노래를 계속 부를 뿐이었다. 그는 종이 조각 하나를 가져와 수첩 모양으로 접고 있었다. 결국 우리는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의 상태는 참으로 기이하다. 오늘 밤은 그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다.

미첼, 선즈 앤 캔디 사에서 고달밍 경에게 보내는 편지.

10월 1일.

각하께,

"저희는 언제나 귀하의 뜻을 받들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커 씨가 귀하를 대신하여 전하신 요청과 관련하여, 피카딜리 347번지의 매매에 관한 다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래의 매도인은 고(故) 아치볼드 윈터-서필드 씨의 유언 집행인들입니다. 매수인은 외국 귀족인 드 빌 백작으로, 그가 직접 나서서 매매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이 비속한 표현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면, 그는 '창구에서 즉시' 현금으로 대금을 치렀습니다. 그 외에 그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각하, 저희는

각하의 미천한 종복입니다,

"미첼, 선즈 앤 캔디."

수어드 박사의 일기.

10월 2일.

어젯밤 복도에 사람을 한 명 세워두었다. 렌필드의 방에서 어떤 소리라도 들리면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일러두었고, 만약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즉시 나를 부르라고 지시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하커 부인이 잠자리에 들자 우리는 서재 벽난로 주위에 모여 앉아 오늘 있었던 시도와 발견들에 대해 논의했다. 하커만이 유일하게 어떤 성과를 거두었으며, 우리는 그가 찾아낸 단서가 중요한 실마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환자의 병실을 돌며 관찰용 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환자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규칙적인 호흡에 맞춰 가슴이 오르내리고 있었다.

오늘 아침, 당직자가 나에게 보고했다.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각부터 마음이 불안해져서 기도를 꽤 크게 계속 읊조렸다고 했다. 나는 그게 전부인지 물었고, 그는 들은 것이 그것뿐이라고 대답했다. 그의 태도가 어딘지 모르게 수상쩍었기에, 나는 잠을 잤던 것이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는 잠을 자지는 않았다고 부인하면서도, 잠시 동안 "꾸벅꾸벅 졸았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사람이 감시를 받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오늘 하커는 단서를 쫓아 밖으로 나갔고, 아서와 퀸시는 말을 돌보고 있다. 고달밍은 말을 항상 준비시켜 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찾는 정보를 얻게 되면 지체할 시간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해가 뜬 뒤부터 질 때까지, 즉 해가 떠 있는 동안 수입해 온 흙을 모두 소독해야 한다. 그래야 드라큘라 백작이 가장 취약한 상태일 때, 그가 도망칠 안식처도 없이 붙잡을 수 있을 것이다. 반 헬싱은 고대 의학에 관한 권위 있는 문헌을 찾아보러 대영박물관으로 떠났다. 옛 의사들은 후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들까지 고려하곤 했다. 교수님은 나중에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를 마녀나 악마를 다스리는 치료법을 찾고 계신다.

가끔은 우리 모두가 미쳐버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결국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 몸을 꽁꽁 묶은 구속복을 입고 있는 건 아닐지 두렵다.

* * * * *

나중에. 우리는 다시 만났다. 마침내 궤도에 오른 듯하다. 내일 우리가 할 일이 종말의 시작이 될지도 모르겠다. 렌필드가 지금처럼 조용한 것이 이 상황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렌필드의 기분은 그동안 드라큘라 백작의 행보를 그대로 따라왔다. 그러니 괴물이 파멸을 맞이하려는 기운이 어떤 미묘한 방식으로 그에게 전달되었을지도 모른다. 오늘 내가 그와 논쟁을 벌인 시점부터 그가 다시 파리를 잡기 시작하기 전까지, 그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조금이라도 단서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귀중한 실마리가 될 텐데. 그는 지금 잠시 잠잠해진 것처럼 보인다.... 정말 그럴까?---- 방금 그 광기 어린 비명이 렌필드의 방에서 들린 것 같다.

* * * * *

간호사가 내 방으로 급히 뛰어 들어오더니, 렌필드가 무슨 사고를 당한 것 같다고 전했다. 간호사는 렌필드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그래서 달려가 보니, 렌필드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얼굴을 바닥에 박고 쓰러져 있었다고 했다. 당장 가봐야겠다....

제XXI장

수어드 박사의 일기

10월 3일.

지난번 일기를 쓴 이후로 일어난 모든 일을 내가 기억하는 한 최대한 정확하게 기록해 두어야겠다. 기억나는 세세한 부분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 나는 아주 차분한 마음으로 이 기록을 이어가야만 한다.

렌필드의 방에 들어갔을 때, 그는 바닥에 왼쪽으로 누운 채 번뜩이는 피웅덩이 속에 잠겨 있었다. 그를 옮기려 다가가자마자 그가 끔찍한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이 즉각 드러났다. 아무리 무기력한 상태에서도 제정신이라면 으레 나타나는, 신체 각 부위 간의 통일된 움직임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얼굴이 드러나자 그곳은 마치 바닥에 짓이겨진 듯 처참하게 멍들어 있었다. 실제로 피웅덩이는 그 얼굴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것이었다. 쓰러진 그의 곁에 무릎을 꿇고 있던 간호사가, 우리가 렌필드를 뒤집을 때 내게 말했다.

"선생님, 제 생각에는 이 환자분의 등뼈가 부러진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오른쪽 팔다리와 얼굴 한쪽 전체가 마비되었습니다." 간호사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당혹스러워했다. 그는 완전히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이었으며,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이렇게 말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그가 바닥에 머리를 들이받았다면 얼굴에 그런 상처가 남을 수는 있겠지요. 예전에 에버스필드 정신병원에서 누군가 손을 쓰기도 전에 젊은 여성이 똑같이 행동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떨어질 때 몸이 꼬인 채로 떨어졌다면 목이 부러졌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도저히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지 상상이 안 됩니다. 만약 등이 부러진 상태라면 머리를 들이받을 수 없을 테고, 침대에서 떨어지기 전부터 이미 얼굴이 그 모양이었다면 그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하니까요."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반 헬싱 박사에게 가서, 지금 당장 이리로 와 달라고 정중히 부탁하게. 단 한 순간도 지체해서는 안 되네." 남자는 급히 달려 나갔고, 몇 분 지나지 않아 가운 차림에 슬리퍼를 신은 교수가 나타났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렌필드를 잠시 날카로운 눈빛으로 응시하더니, 나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는 내 눈빛에서 내 생각을 읽어낸 듯했다. 그는 간호사의 귀에 들리도록 분명히 의도한 듯, 아주 낮은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 정말 안타까운 사고로군요! 환자를 아주 세심하게 지켜봐야 하고, 각별한 주의도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곁에 머물며 돌보겠습니다. 우선 옷부터 갈아입고 오지요. 잠시만 기다려 주신다면 몇 분 안에 바로 가겠습니다."

환자는 이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으며, 그가 무언가 끔찍한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은 눈에 보일 정도로 명백했다. 반 헬싱은 수술 도구 상자를 들고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돌아왔다. 그는 분명 무언가를 깊이 고민한 뒤 결단을 내린 듯했다. 환자를 살피기도 전에 그는 내게 나직이 속삭였다.

"간호사는 내보내게. 수술을 마치고 환자가 의식을 되찾으면, 그때는 우리끼리만 있어야 하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그만해도 되겠네, 시몬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 자네는 가서 순찰을 도는 게 좋겠군. 수술은 반 헬싱 박사가 맡을 걸세. 혹시라도 어디선가 이상한 일이 생기면 즉시 나에게 보고하게."

그 남자가 물러나자, 우리는 환자를 정밀하게 검사하기 시작했다. 얼굴의 상처는 겉면에 그쳤으나, 진짜 문제는 두개골이 함몰된 골절이었다. 골절 부위는 운동 신경 영역까지 깊숙이 이어져 있었다. 반 헬싱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다.

"압력을 낮추고, 할 수 있는 한 정상 상태에 가깝게 되돌려야 합니다. 혈액이 퍼지는 속도를 보니 부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운동 영역 전체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뇌의 충혈이 빠르게 심

해질 테니, 당장 천공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늦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말을 이어가던 중 문밖에서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다가가 문을 열자, 복도에 잠옷 차림에 슬리퍼를 신은 아서와 퀸시가 서 있었다. 아서가 입을 열었다.

"당신 쪽 사람이 반 헬싱 박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 소식을 전하는 걸 들었소. 그래서 퀸시를 깨웠소.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잠들지 않은 상태였기에 그를 불렀다고 해야겠소. 요즘은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기묘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우리 중 누구도 깊은 잠을 이루기 어렵구려. 내 생각에 내일 밤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 같소. 우리는 지나온 일을 되짚어보는 동시에, 앞으로 닥칠 일도 지금보다 더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오. 들어가도 되겠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이 들어올 때까지 문을 열어 두었다가, 그들이 들어간 뒤 다시 문을 닫았다. 퀸시는 환자의 상태와 태도를 확인하고 바닥에 고인 끔찍한 핏물을 발견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세상에! 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가엾기도 하지, 불쌍한 사람!"

나는 그에게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며, 수술 후에 그가 의식을 되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적어도 잠시 동안은 그럴 것이라고 말이다. 그

는 곧장 달려가 고달밍과 함께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았다. 우리 모두는 인내심을 갖고 그를 지켜보았다.

"우리는 기다려야 하네." 반 헬싱이 말했다. "두개골 천공술을 시행하기에 가장 적절한 위치를 정할 수 있을 만큼만 기다리세. 그래야 혈괴를 가장 빠르고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을 테니까. 출혈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네."

기다림의 시간은 공포스러울 정도로 느리게 흘러갔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끔찍한 기분이 들었다. 반 헬싱의 표정을 보니, 그 역시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끼고 있는 듯했다. 나는 렌필드가 입을 열 때 내뱉을 말이 무엇일지 두려웠다. 차마 생각조차 하기 무서웠지만, 마치 죽음을 알리는 시계벌레 소리를 들은 사람처럼 곧 무슨 일이 벌어질지 확신할 수 있었다.

불쌍한 그 남자의 호흡은 불규칙하게 가빠졌다. 매 순간 그는 금방이라도 눈을 뜨고 말을 할 것처럼 보였으나, 이내 길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시 깊은 혼수상태로 빠져들었다. 병상과 죽음을 자주 접해온 나였음에도, 이 막막한 기다림은 점점 더 나를 짓눌러 왔다. 내 심장 박동 소리가 거의 들릴 정도였고, 관자놀이를 타고 흐르는 혈류의 박동은 마치 망치질 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침묵은 마침내 고통스러울 지경에 이르렀다. 나는 동료들을 한 명씩 살펴보았다. 그들의 붉게 달아오른 얼굴과 젖은 이마를 보니, 그들 역시 나와 똑같은 고문을 견디고 있었다. 우리 모두를 감싸고 있는 이 신

경질적인 긴장감은, 마치 머리 위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거대한 종소리가 울려 퍼질 것만 같은 공포를 자아냈다.

마침내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태로운 순간이 찾아왔다. 나는 고개를 들어 교수님을 바라보았고, 교수님이 나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교수님은 엄숙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의 말이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서서 생각해보니, 어쩌면 한 사람의 영혼이 걸린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귀 바로 윗부분을 절개하여 수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수술을 시작했다. 잠시 동안 거친 숨소리가 이어졌다. 그러더니 가슴을 찢고 터져 나올 듯 길고 무거운 숨이 한 차례 몰아쳤다. 갑자기 그의 눈이 번쩍 뜨이더니, 무언가에 홀린 듯 속수무책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 상태가 잠시 계속되다가, 이내 눈빛은 기쁜 듯 놀란 기색으로 부드럽게 풀렸고 입술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새어 나왔다. 그는 몸을 경련하듯 들썩이며 이렇게 말했다.

"조용히 할게요, 박사님. 저들에게 말해서 이 구속복 좀 벗겨 달라고 해주세요. 끔찍한 꿈을 꾸었더니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제 얼굴이 왜 이렇죠? 얼굴 전체가 부어오른 것 같고, 몹시 따갑고 쓰라려요."

그는 고개를 돌리려 애썼다. 하지만 그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눈동자가 다시 흐릿해지는 듯하여,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머리를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그때 반 헬싱이 낮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렌필드 씨, 당신의 꿈을 들려주세요." 그 목소리가 들리자, 훼손된 얼굴 위로 그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지며 그가 말했다.

"저분은 반 헬싱 박사님이십니다.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물 좀 주세요, 입술이 너무 말랐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만……."

그는 말을 멈추더니 금방이라도 정신을 잃을 듯 비틀거렸다. 나는 조용히 퀸시를 불렀다.

"브랜디를…… 내 서재에 있네…… 어서!"

퀸시는 서재로 달려가더니 브랜디가 담긴 디캔터와 물병, 그리고 잔을 들고 돌아왔다. 우리가 바짝 마른 그의 입술을 적셔 주자 환자는 금세 기운을 차렸다. 하지만 그사이 상처 입은 가여운 머릿속에서 무언가 격렬한 사고가 일어난 듯했다. 정신이 완전히 돌아온 그는 결코 잊지 못할 고통스러운 혼란이 서린 눈빛으로 나를 꿰뚫어 보듯 응시하며 이렇게 말했다.

"나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전부 참혹한 현실이었다." 그는 말을 이으며 방 안을 두리번거렸다. 그러다 침대 가장자리에 묵묵히 앉아 있는 두 형체를 발견하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이미 확신하고 있긴 하지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저들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고통이나 잠 때문이 아니라, 마치 모든 감각을 한데 모으려는 듯 스스로 눈을 감은 것이었다. 이윽고 눈을 뜬 그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 훨씬 더 급하고 힘찬 어조로 말했다.

"서둘러 주세요, 박사님, 서둘러요! 저 죽어가고 있어요! 이제 몇 분 남지 않았다는 게 느껴집니다. 곧 죽음으로, 아니, 죽음보다 더 끔찍한 곳으로 돌아가야만 해요! 브랜디를 다시 입술에 적셔 주세요. 죽기 전에, 아니, 이 망가진 머리가 어떻게 되든 간에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이 저를 떠나신 그날 밤이었어요. 제가 제발 떠나게 해달라고 애원했을 때 말입니다. 그때는 혀가 굳어버린 것 같아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그런 상태만 아니었다면 정신만큼은 지금처럼 멀쩡했습니다. 박사님이 떠나신 뒤로 아주 오랫동안 절망 속에서 고통받았습니다. 마치 몇 시간이나 흐른 것 같았죠. 그러다 갑자기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머리가 다시 차분해지는 것 같더니, 제가 어디에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집 뒤편에서 개들이 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가 있는 곳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을 이어가는 동안 반 헬싱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손을 뻗어 내 손을 꽉 맞잡았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전혀 동요를 보이지 않은 채,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계속하게."

렌필드가 말을 이었다.

"안개 속에서 그가 창가로 다가왔어요. 전에도 자주 본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때 그는 유령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분노한 사람처럼 눈빛은 사나웠고요. 붉은 입술로는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는데, 그가 개들이 짖어대는 숲의 경계 너머를 돌아볼 때마다 달빛 아래서 날카롭고 하얀 치아가 번뜩였어요. 그가 들어오고 싶어 한다는 걸 알면서도, 처음에는 들어오라고 권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줄곧 그러길 원해왔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더니 그는 내게 무언가를 약속하기 시작했어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면서요."

교수가 말을 건네는 바람에 그는 말을 멈췄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가 직접 그렇게 만드는 거지요. 예전에 햇빛이 내리쬘 때면 그가 파리들을 보내곤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날개에 강철과 사파이어 빛이 감도는 크고 통통한 파리들 말이에요. 그리고 밤이면 등 위에 해골과 교차된 뼈 문양이 새겨진 커다란 나방들도 보내곤 했지요." 반 헬싱은 나에게 무심결에 속삭이면서,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스핑크스 속의 아케론티아 아이테트로포스, 당신들이 '해골박나방'이라 부르는 그것 말입니까?" 환자는 말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갔다.

"그는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쥐, 쥐, 쥐들! 수백, 수천, 수백만 마리나 되는 쥐들이야. 그놈들 하나하나가 곧 생명이지. 그걸 잡아먹을 개들도 있고 고양이들도 있어. 모두 생명이야! 수년의 세월이 담긴 붉

은 피가 가득한 생명들이라고! 그저 웡웡거리는 파리 따위가 아니란 말이야!' 나는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고 싶어서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때, 그분의 저택 너머 어두운 나무들 사이에서 개들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창가로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내가 일어나 밖을 내다보자, 그는 두 손을 들어 올리더니 아무런 말도 없이 무언가를 외치는 듯했습니다. 그러자 불꽃의 형상처럼 검은 덩어리가 잔디 위로 퍼지며 다가왔습니다. 그가 안개를 좌우로 걷어내자, 눈을 붉게 번뜩이는 수천 마리의 쥐들이 보였습니다. 그 눈은 그분의 눈과 닮았지만 크기만 더 작았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올리자 쥐들이 일제히 멈추었습니다. 나는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네가 내 앞에 엎드려 나를 경배한다면, 이 모든 생명은 물론이고 앞으로 셀 수 없는 세월 동안 더 많고 거대한 생명들을 네게 주리라!' 그러자 피처럼 붉은 구름이 내 눈을 가리는 듯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기도 전에, 나는 창문을 열며 그분께 말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소서, 주님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쥐들은 모두 사라졌지만, 그는 창문 틈으로 방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창문은 겨우 1인치 정도만 열려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마치 달이 아주 작은 틈 사이로 들어와 그 거대한 자태와 광채를 온전히 드러내며 내 앞에 서곤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잃기에 나는 다시 브랜디를 적셔 그의 입술을 축여주었다. 그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 나갔다. 잠시 쉬는 동안에도 그의 기억은 계속 작동하고 있었는지, 이야기는 한층 더 진전되어 있었다. 나는 그를 다시 요점으로 돌아오게 하려 했으나, 반 헬싱이 내게 나직이 속삭였다.

“그냥 내버려 두게. 방해하지 말게나. 한 번 흐름을 놓치면 다시 되돌아갈 수도, 어쩌면 이야기를 더 이어가지도 못할 수도 있으니 말일세.”

그는 다시 말을 이어나갔다.

"하루 종일 그에게서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렸지만, 그는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어요. 파리 한 마리조차 보내지 않았죠. 달이 떠오를 때쯤엔 그에게 꽤 화가 났어요. 창문이 닫혀 있었는데도 그가 노크도 없이 창문 사이로 스르르 미끄러져 들어왔을 때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죠. 그는 나를 비웃듯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안개 사이로 붉은 눈을 번뜩이며 창백한 얼굴을 드러낸 그는, 마치 이곳 전체가 제 것인 양,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양 행동했어요. 그가 내 곁을 지나갈 때 풍기는 냄새조차 예전과 달랐어요. 나는 그를 붙잡을 수 없었죠. 왠지 모르게 하커 부인이 방 안으로 들어온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침대에 앉아 있던 두 남자가 일어나 그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그가 자신들을 볼 수는 없지만, 목소리는 더 잘 들을 수 있는 위치인 그의 뒤에 섰다. 두 사람 모두 침묵을 지켰으나, 교수는 움찔하며 몸을 떨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오히려 더욱 엄숙하고 단호하게 굳어졌다. 렌필드는 이를 알아채지 못한 채 말을 이어갔다.

“오늘 오후 하커 부인이 저를 보러 왔을 때, 그녀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마치 찻주전자에 물을 타서 맛이 밍밍해진 차 같았죠.” 이 말에 우리 모두 움찔했으나,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그녀가 말을 걸기 전까지는 거기 있는 줄도 몰랐어요. 예전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난 창백한 사람들은 딱 질색이에요. 피가 듬뿍 돌아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 좋단 말이죠. 그런데 그녀는 피가 다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는 미처 생각지 못했지만, 그녀가 떠나고 나서야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그녀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미칠 것만 같았죠."

나처럼 나머지 사람들도 파르르 떨고 있는 것이 느껴졌지만, 우리는 그 외에는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그래서 오늘 밤 그분이 오셨을 때, 난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안개가 스며드는 게 보여서 꽉 붙잡았죠. 미친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힘을 낸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나 역시—적어도 가끔은—미친놈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내 힘을 써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요, 그분도 그걸 느끼셨나 봐요. 나와 맞붙으려고 안개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야 했으니까요. 난 필사적으로 버텼고, 내가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분이 그녀의 생명을 더는 앗아가지 못하게 하려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분의 눈과 마주친 순간, 모든 게 변했어요. 그 눈빛이 내 몸을 꿰뚫는 것 같더니, 내 힘이 물처럼 맥없이 풀려버렸어요. 그분은 내 손을 빠져나갔고, 내가 다시 매달리려 하자 나를 들어 올려 바닥으로 내동댕이쳤어요. 눈앞에는 붉은 구름이 일고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더니 안개가 문틈 아래로 스르르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잦아들었고 호흡은 거칠고 가빠졌다. 반 헬싱은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켜 세웠다.

"이제 최악의 상황이 닥쳤음을 알게 되었네." 그가 말했다. "그가 여기 있고, 그의 목적도 분명해졌어. 아직 아주 늦은 건 아닐지도 모르네. 지난밤처럼 무장을 갖추세. 하지만 지체해서는 안 되네. 단 한 순간도 허비할 여유가 없으니까."

우리의 두려움, 아니 확신을 굳이 말로 내뱉을 필요조차 없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둘러 각자의 방으로 가서, 드라큘라 백작의 저택에 처음 들어설 때 챙겼던 것들을 다시 꺼내 들었다. 반 헬싱 교수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복도에서 모두가 모였을 때, 그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준비해 온 물건들을 가리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것들은 결코 내 곁을 떠나지 않으며, 이 불행한 일이 끝날 때까지도 떠나지 않을 것이네. 친구들이여, 부디 현명하게 대처하게나. 우리가 상대하는 적은 결코 평범한 존재가 아니네. 아아, 슬프도다! 사랑하는 미나 부인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다니!" 그는 말을 멈췄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내 마음속에 휘몰아치는 것이 분노인지, 아니면 공포인지 나조차 알 수 없었다.

하커 부부의 방 문 앞에서 우리는 발걸음을 멈췄다. 아서와 퀸시가 뒤로 물러섰고, 퀸시가 말했다.

"그녀를 깨워야 할까요?"

"그래야만 하네." 반 헬싱이 엄숙하게 말했다. "문이 잠겨 있다면, 내가 부수고 들어가겠네."

"그녀가 너무 놀라지 않을까요? 숙녀의 방에 이렇게 불쑥 들어가는 건 예사로운 일이 아니잖아요!"

반 헬싱이 엄숙하게 말했다. "자네 말이 언제나 옳네. 하지만 지금은 삶과 죽음이 걸린 문제야. 의사에게 방이 어디든 무슨 상관인가. 설령 방들이 다 다르다 해도, 오늘 밤 나에게는 모두 똑같은 곳일 뿐이라네. 친구 존, 내가 손잡이를 돌릴 때 문이 열리지 않으면 어깨로 밀어붙여 주게. 다른 친구들도 함께해주게. 자, 지금이야!"

그는 말을 하며 손잡이를 돌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우리는 문에 몸을 던졌다. 그러자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고, 우리는 방 안으로 머리부터 고꾸라질 뻔했다. 교수님은 실제로 넘어지고 말았다. 그는 손과 무릎을 짚고 몸을 일으켰는데, 나는 그 모습 너머로 무언가를 보았다. 그것을 본 순간 나는 경악했다. 뒷덜미의 털이 곤두서는 기분이 들었고, 심장은 그대로 멎어버리는 듯했다.

달빛이 워낙 밝아서 두꺼운 노란색 블라인드 사이로도 방 안을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였다. 창가 옆 침대에는 조너선 하커가 누워 있었다. 그는 마치 혼수상태에 빠진 듯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침대 가장자리에는 하커의 아내가 흰 옷을 입고 밖을 향해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 곁에는 검은 옷을 입은 키 크고 마른 남자가 서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우리를 등지고 있었으나, 우리는 보는 즉시 그가 드라큘라 백작임을 알아차렸다. 이마에 남은 흉터까지 포함하여 모든 면에서 분명했다. 백작은 왼손으로 하커 부인의 양손을 붙잡아 팔이 팽팽하게 당겨질 정도로 멀리 밀어내고 있었고, 오른손으로는 그

녀의 뒷덜미를 움켜쥐어 얼굴을 자신의 가슴팍에 억지로 처박게 했다. 그녀의 하얀 잠옷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찢어진 옷 사이로 드러난 남자의 맨가슴 위로는 가느다란 피 줄기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아이가 새끼 고양이에게 억지로 우유를 먹이려고 코를 우유 접시에 밀어 넣는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우리가 방 안으로 들이닥치자 백작이 고개를 돌렸다. 내가 전해 들었던 그 지옥 같은 눈빛이 순식간에 그의 얼굴에 서렸다. 그의 눈은 악마 같은 열정으로 붉게 타올랐고, 매부리코의 커다란 콧구멍은 벌어진 채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입술 뒤로 드러난 하얗고 날카로운 이빨은 마치 맹수처럼 맞물리며 부딪혔다. 백작은 희생자를 높은 곳에서 내던진 것처럼 침대 위로 거칠게 내팽개치고는, 우리를 향해 몸을 돌려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사이 반 헬싱 교수가 중심을 잡고 일어서서 성체(Sacred Wafer)가 든 봉투를 치켜들고 있었다. 백작은 불쌍한 루시가 무덤 밖에서 그랬던 것처럼 갑자기 멈춰 서더니 뒤로 움츠러들었다. 우리가 십자가를 들어 올리며 다가서자, 그는 점점 더 뒤로 물러나며 몸을 웅크렸다. 그때 커다란 검은 구름이 하늘을 가로지르며 달빛이 갑자기 사라졌고, 퀸시가 성냥을 그어 가스등을 켰을 때 우리 눈에 보인 것은 희미한 안개뿐이었다. 우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 안개는 문틈 아래로 스며들었다. 문은 우리가 밀치고 들어올 때의 반동으로 인해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와 있었다.

반 헬싱과 아서, 그리고 나는 하커 부인에게 다가갔다. 그사이 겨우 숨을 몰아쉰 그녀는 비명을 내질렀다. 그 비명은 어찌나 격렬하고 귀를 찢는 듯하며 절망적이었는지, 죽는 날까지 귓가에 맴돌 것만 같다. 그

녀는 잠시 동안 무력하게 흐트러진 자세로 누워 있었다. 입술과 뺨, 턱에 묻은 피 때문에 그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하고 처참해 보였다. 목에서는 가느다란 피 줄기가 흘러내렸고, 눈은 공포로 미쳐 있었다. 그러더니 그녀는 드라큘라 백작의 무시무시한 손아귀에 눌려 하얗던 손등에 붉은 자국이 남은 가련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 손 뒤로 흘러나온 낮고 황량한 통곡 소리는, 방금 전의 비명이 끝없는 슬픔의 짧은 분출에 불과했다는 듯 느껴질 정도였다. 반 헬싱이 앞으로 나서서 그녀의 몸 위로 이불을 조심스럽게 덮어주었고, 아서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그녀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방 밖으로 뛰쳐나갔다. 반 헬싱이 내게 속삭였다.

"조너선이 흡혈귀에게 당했을 때 나타나는 것과 같은 혼수상태에 빠졌습니다. 미나 부인이 정신을 차릴 때까지는 어쩔 도리가 없군요. 우선 그를 깨워야겠습니다!" 그는 수건 끝을 찬물에 적시더니 하커의 얼굴에 대고 툭툭 치기 시작했다. 그동안 하커의 아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듣는 이의 마음을 미어지게 할 정도로 서럽게 흐느끼고 있었다. 나는 블라인드를 올리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달빛이 무척 밝았다. 창밖을 살피던 중, 퀸시 모리스가 잔디밭을 가로질러 달려가 커다란 주목 나무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기는 모습이 보였다. 그가 왜 저러는지 의아했지만, 바로 그 순간 하커가 어렴풋이 의식을 되찾으며 짧게 외마디 소리를 내지르는 것이 들렸고, 나는 침대 쪽으로 돌아섰다. 하커의 얼굴에는 충분히 그럴 법한, 거칠고 황망한 경악이 서려 있었다. 그는 몇 초간 멍한 상태로 있는 듯하더니, 이내 정신이 한꺼번에 돌아온 듯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놀란 그의 아내가

마치 그를 껴안으려는 듯 팔을 벌리며 그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러나 그녀는 즉시 팔을 다시 거두어들였다. 그러고는 양 팔꿈치를 모아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침대가 흔들릴 정도로 몸을 떨었다.

"신의 이름으로 묻건대,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커가 비명을 질렀다. "수어드 박사님, 반 헬싱 박사님, 이게 뭡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미나, 여보, 대체 이게 다 뭐야? 저 피는 또 뭐고! 세상에, 맙소사! 일이 이 지경까지 되다니!" 하커는 무릎을 꿇고 일어나더니 미친 듯이 두 손을 맞부딪치며 울부짖었다. "신이시여, 제발 우리를 도우소서! 그녀를 도와주소서! 오, 제발 그녀를 살려주소서!" 그는 재빨리 침대에서 뛰어 일어나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다. 당장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의 온 몸을 깨웠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전부 다 말해 주세요!" 그는 쉴 새 없이 외쳤다. "반 헬싱 박사님, 당신도 미나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제발 그녀를 구할 방법을 찾아주세요. 아직은 늦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그놈*을 찾는 동안 미나를 지켜주십시오!" 공포와 경악, 슬픔에 잠겨 있던 미나는 남편에게도 분명한 위험이 닥쳤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자신의 슬픔을 즉시 뒤로한 채, 하커를 붙잡고 비명을 질렀다.

"안 돼요! 안 돼, 조너선! 당신이 나를 떠나면 안 돼요. 신께서도 아시겠지만, 나는 오늘 밤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어요. 그가 당신마저 해칠지도 모른다는 공포까지 떠안을 수는 없어요. 제발 내 곁에 있어 줘요. 당신을 지켜줄 이 친구들과 함께 있어 줘요!"

말을 내뱉는 그녀의 표정은 광기에 휩싸인 듯 격렬해졌다. 하커가 그녀의 뜻에 따르자, 그녀는 그를 침대 맡에 끌어앉히고는 격정적으로 매달렸다.

반 헬싱 교수와 나는 두 사람을 모두 진정시키려 애썼다. 교수는 작은 금제 십자가를 들어 올리며, 놀라울 정도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두려워 마십시오, 부인. 우리가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 곁에 있는 한, 그 어떤 불결한 존재도 다가오지 못합니다. 오늘 밤은 안전하니, 부디 진정하시고 함께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녀는 몸을 떨며 남편의 가슴에 머리를 묻은 채 침묵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남편의 하얀 잠옷은 그녀의 입술이 닿았던 자리와 목에 난 얇은 상처에서 흘러나온 핏방울로 얼룩져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그녀는 낮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뒤로 뺐다. 그러고는 숨이 넘어갈 듯 흐느끼며 속삭였다.

"부정해, 부정해! 이제 그에게 손을 대거나 입을 맞춰서는 안 돼. 아, 하필이면 내가 그의 가장 지독한 적이 되어버리다니. 그가 나를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라니!" 그는 결연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미나. 그런 말을 들으니 정말 수치스럽군. 당신을 두고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도 듣고 싶지 않고, 당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도 결코 듣지 않겠어. 만약 내 행동이나 뜻으로 무엇이

라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면, 신께서 내가 받아 마땅한 대로 심판하시어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쓰라린 고통으로 나를 벌하시기를!"

그는 팔을 뻗어 미나를 품에 꼭 끌어안았고, 미나는 한동안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는 숙인 미나의 머리 너머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실룩거리는 콧방울 위로 그의 젖은 두 눈이 깜빡였다. 그의 입은 강철처럼 굳게 다물려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나의 흐느낌이 점차 뜸해지고 희미해지자, 그는 내가 보기에 신경을 극한까지 짓누르며 애써 꾸민 침착함으로 나에게 말했다.

"자, 수어드 박사, 이제 전부 이야기해 주게. 그 사실의 큰 줄기는 나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해 주게."

나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있는 그대로 설명했다. 그는 겉보기에 아무런 감정 변화도 없는 듯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하지만 백작의 무자비한 손이 그의 아내를 붙들어, 백작의 가슴에 난 그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상처에 그녀의 입을 갖다 대게 했던 장면을 이야기할 때면, 그의 콧방울이 실룩거리고 두 눈은 번뜩였다. 그 순간조차 내 흥미를 끈 점은, 하얗게 질린 채 격렬한 감정으로 굳어진 그의 얼굴이 숙인 그녀의 머리 위에서 경련하듯 일그러지는 와중에도, 그의 두 손만은 흐트러진 그녀의 머리카락을 더없이 부드럽고 다정하게 쓰다듬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퀸시와 골드밍이 문을 두드렸다. 그들은 우리의 부름에 따라 안으로 들어왔다. 반 헬싱이 나를 의아한 듯 바라보

았다. 나는 그가 무슨 뜻인지 알아차렸다. 그들이 온 김에, 불행한 부부가 서로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도록 화제를 돌려보자는 뜻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여 동의를 표한 뒤, 그들에게 무엇을 보았는지 혹은 무엇을 했는지 물었다. 그러자 골드밍 경이 대답했다.

"복도에서도, 우리 방 어디에서도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서재도 살펴보았지만, 분명 그가 거기 있었는데 어느새 사라지고 없더군요. 하지만 그는 분명히——" 그는 말을 갑자기 멈추고 침대 위에 힘없이 늘어져 있는 가련한 형체를 바라보았다. 반 헬싱이 엄숙하게 말했다.

"어서 말하게, 친구 아서. 여기서는 더 이상 숨기는 게 없어야 하네. 이제 우리가 바라는 건 모든 사실을 아는 것뿐이라네. 솔직하게 다 말해주게!" 그러자 아서가 말을 이었다.

"그자가 그곳에 있었어요. 비록 불과 몇 초 남짓한 시간이었겠지만, 그 짧은 순간에 그곳을 아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더군요. 원고는 전부 불타버렸고, 하얀 재 사이로 푸른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축음기 실린더들도 불길 속에 던져졌는데, 밀랍 성분 때문에 불길이 더 세게 타올랐지요." 나는 여기서 말을 끊었다. "금고에 다른 사본이 남아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의 얼굴에 잠시 생기가 도는 듯했으나, 말을 이어가자 다시 어두워졌다. "곧장 아래층으로 달려 내려갔지만 그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렌필드의 방도 살펴보았지만, 거기엔 그저……!" 그는 다시 말을 멈췄다. "계속하세요." 하커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자 그는 고개를 숙이고 혀로 입술을 축이며 덧붙였다. "그 불쌍한 친구가 죽어 있다는 것 말고는 아무 흔적도 없었

습니다.” 하커 부인이 고개를 들고 우리 둘을 번갈아 바라보며 엄숙하게 말했다.

“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나는 아서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하지만 그에게도 나름의 의도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반 헬싱은 모리스를 돌아보며 물었다.

“친구 퀸시, 자네는 들려줄 이야기가 더 없나?”

“조금요.” 그가 대답했다. “결국엔 아주 많아질지도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확답할 수 없습니다. 백작이 저 저택을 떠나면 어디로 향할지 미리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백작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렌필드의 창문에서 박쥐 한 마리가 날아올라 서쪽으로 퍼덕이며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백작이 다시 카팩스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분명 다른 은신처를 찾아 떠난 모양입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동이 트려 하는 걸 보니, 오늘 밤에는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내일은 서둘러 움직여야 합니다!”

그는 이를 악문 채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아마도 2분 정도였을까,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 속에서 마치 우리들의 심장 박동 소리까지 들리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이윽고 반 헬싱이 하커 부인의 머리에 아주 부드럽게 손을 얹으며 말했다.

“자, 이제 미나 부인—가엾고 사랑스러운 미나 부인—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부인이 고통받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

다는 건 하느님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모든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죽을 만큼 진지하게 처리해야 할 때니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이 모든 것을 끝내야만 하는 날이 우리 곁에 바짝 다가왔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살아남아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가련하고 사랑스러운 여인은 몸을 떨었다. 그녀는 남편을 더욱 품에 꼭 끌어안고 그의 가슴 위로 고개를 점점 더 깊이 파묻었다. 그러다 이내 당당하게 고개를 든 그녀는 반 헬싱에게 한쪽 손을 내밀었다. 반 헬싱은 그 손을 맞잡고는 정중히 허리를 굽혀 입을 맞춘 뒤, 놓아주지 않고 꽉 쥐었다. 그녀의 다른 한 손은 남편의 손과 맞잡혀 있었고, 남편은 남은 팔로 그녀를 보호하듯 감싸 안았다. 잠시 침묵하며 생각을 가다듬던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이 친절하게 건네준 수면제를 먹었지만, 한참 동안이나 약효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신은 점점 더 또렷해지는 것 같았고, 죽음과 흡혈귀, 피와 고통, 그리고 불행에 관한 끔찍한 망상들이 수없이 내 마음속으로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그를 돌아보며 다정하게 말을 건네는 사이, 남편은 자신도 모르게 신음을 흘렸다. "걱정 말아요, 여보. 당신은 용기를 내고 강해져야 해요. 그래야 이 끔찍한 일을 헤쳐 나가는 나를 도울 수 있어요. 이 무서운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당신이 안다면, 내가 당신의 도움을 얼마나 절실히 필요로 하는지 이해할 거예요. 음, 약이 제 효과를 내려면 내 의지로 약기운이 돌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연한 마음으로 잠을 청했죠. 과연 곧 잠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 뒤로는 기

억이 나지 않으니까요. 조너선이 들어왔을 때도 나는 깨지 않았어요. 다음에 기억나는 장면에서는 그가 내 곁에 누워 있었거든요. 방 안에는 전에도 보았던 것과 같은 얇고 하얀 안개가 자욱했어요. 당신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나중에 보여줄 내 일기장에 적어 두었으니 확인해 보세요. 그때 느꼈던 막연한 공포와 누군가 곁에 있다는 기분도 다시 느껴졌어요. 조너선을 깨우려고 몸을 돌렸지만, 그는 마치 수면제를 먹은 사람이 내가 아니라 그인 것처럼 아주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깨우려고 애를 써봤지만 소용없었죠. 그 사실 때문에 나는 커다란 두려움을 느꼈고, 겁에 질린 채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때 정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침대 옆에, 마치 안개 속에서 걸어 나온 듯한—아니, 안개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그 형상으로 변한 듯한—검은 옷을 입은 키 크고 마른 남자가 서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묘사를 통해 나는 그를 단번에 알아보았어요. 밀랍처럼 창백한 얼굴, 빛이 가늘고 하얀 선을 그리며 떨어지는 높고 매부리진 코, 그 사이로 날카롭고 하얀 이가 드러난 벌어진 붉은 입술, 그리고 휘트비에 있는 성 메리 교회의 창문에 비친 노을 속에서 보았던 것 같은 그 붉은 눈동자까지요. 조너선이 그를 내리쳤던 이마의 붉은 흉터도 기억해 냈어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몸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 정적 속에서 그는 조너선을 가리키며, 날카롭고 서늘한 속삭임으로 말을 건넸어요."

"'조용히 해!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면, 네 눈앞에서 이놈의 머리통을 부숴버리겠다.' 나는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하지도, 말하지도 못한 채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었어요. 그는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한 손으

로 내 어깨를 짚었어요. 그리고 나를 꽉 붙든 채 다른 한 손으로는 내 목을 드러내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선, 내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약간의 기운을 좀 차려야겠군.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야. 네 혈관이 내 갈증을 달래준 게 이번이 처음도, 두 번째도 아니니까!' 나는 정신이 아득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를 막고 싶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어요. 아마도 희생자가 그의 손길을 받는 순간 그런 마음이 드는 것 또한 그 끔찍한 저주의 일부인 모양이에요. 오, 신이시여, 나의 신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악취 나는 입술을 내 목에 갖다 대었어요!"

그녀의 남편이 다시 신음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더욱 꽉 움켜쥐었다. 마치 상처 입은 쪽은 남편인 양 가련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그녀가 말을 이었다.

"기운이 점점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정신이 아득해졌죠. 그 끔찍한 일이 얼마나 오래 계속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가 그 더럽고 끔찍하며 비웃는 듯한 입술을 떼기까지, 아주 긴 시간이 흐른 것만 같았어요. 그 입술에서 신선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게 보였다고요!"

기억이 잠시 그녀를 덮친 듯했다. 그녀는 몸을 떨구었고, 남편이 팔로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았을 기세였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정신을 가다듬고 말을 이어갔다.

"그러고는 그가 나를 조롱하며 말했어요. '결국 너도 다른 자들처럼 내 지혜를 네 지혜로 맞서려 하는구나. 이 자들이 나를 사냥하고 내 계획을 망치도록 돕겠다는 것이냐! 내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을 의미

하는지 너도 이제 알 것이고, 저들도 이미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으며, 머지않아 온전히 깨닫게 될 것이다. 저들은 차라리 고향 근처에서 힘을 아껴 쓰는 편이 나았을 게다. 저들이 나를 상대로 머리싸움을 벌이는 동안—저들이 태어나기도 수백 년 전부터 나라들을 호령하고, 그들을 위해 음모를 꾸미며, 그들을 위해 싸워온 나를 상대로 말이다—나는 저들의 수를 미리 읽고 차단해 왔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너는, 이제 내 살이며 내 피요, 내 혈육이다. 잠시 동안은 내 풍요로운 포도즙을 짜낼 도구가 되겠지만, 훗날에는 나의 동반자이자 조력자가 될 것이다. 너 또한 차례가 되면 원수를 갚게 되리라. 저들 중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너의 필요를 채워주게 될 테니까. 하지만 우선은 네가 저지른 일에 대해 벌을 받아야겠다. 너는 내 계획을 방해하는 데 일조했으니, 이제 내 부름에 응해야 한다. 내 의지가 너에게 "오라!"고 명령하면, 너는 내 뜻을 받들기 위해 육지든 바다든 가리지 않고 달려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 이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 말을 마치자마자 그는 셔츠를 풀어헤치더니, 길고 날카로운 손톱으로 가슴의 혈관을 갈랐어요. 피가 솟구치기 시작하자 그는 한 손으로 내 손을 꽉 움켜쥐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내 목을 잡아 내 입을 상처에 갖다 대었어요. 나는 숨이 막혀 죽거나, 아니면 그……를 삼켜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어요. 오, 하느님! 나의 하느님!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요? 평생을 온유하고 의롭게 살려고 애써온 내가, 어찌 이런 운명을 맞아야 한단 말인가요? 하느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필멸의 존재가 겪는 것보다 더한 위기에 처한 이 가련한 영혼을 굽어살피소서. 그리고 저를 아끼는 이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고 나서 그녀는 마치 입술에 묻은 오염을 씻어내려는 듯 입술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그녀가 그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안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하커는 미동도 없이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하지만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그의 얼굴에는 잿빛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아침 햇살이 밝아올수록 그 어두운 기운은 점점 더 짙어졌다. 마침내 다가오는 새벽의 첫 붉은 줄기가 하늘을 가로지르자, 하얗게 변해버린 머리카락 사이로 그의 얼굴이 검게 도드라져 보였다.

우리는 모두 모여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할 때까지, 우리 중 한 명이 불행한 그 부부의 곁을 지키며 언제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해 두었다.

이 점만은 확신한다. 태양이 매일의 궤도를 따라 떠오를 때, 오늘처럼 비참한 집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제XXII장

조너선 하커의 일기

10월 3일.

무엇이라도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 이 일기를 쓴다. 지금은 6시 정각이다. 30분 뒤에 서재에서 만나 간단히 요기를 하기로 했다. 반 헬싱 박사와 수어드 박사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최상의 상태로 일할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 오늘 우리가 쏟아부어야 할 힘이 얼마나 막대할지는 신만이 아실 것이다. 생각에 잠길 엄두가 나지 않아, 틈이 날 때마다 계속해서 글을 써 내려가야만 한다.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빠짐없이 기록해 두어야 한다. 어쩌면 마지막에 가서야 그 사소한 일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줄지도 모른다. 그 가르침이 크든 작든, 그것들이 미나와 나를 오늘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 몰아넣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고 희망해야 한다. 방금 전, 가여운 미나가 사랑스러운 뺨에 눈물을 흘리며 내게 말했다.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것이라고, 그러니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

고, 그러면 신께서 끝까지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말이다. 끝이라니! 오, 신이시여! 대체 무슨 끝이란 말인가?… 일을 해야 한다! 계속 일해야 한다!

반 헬싱 박사와 수어드 박사가 불쌍한 렌필드를 보고 돌아오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엄숙하게 논의하기 시작했다. 우선 수어드 박사가 우리에게 말해주었다. 자신과 반 헬싱 박사가 아래층 방으로 내려갔을 때, 렌필드가 바닥에 한 덩어리로 웅크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이다. 렌필드의 얼굴은 온통 멍이 들고 짓이겨져 있었으며, 목뼈는 부러져 있었다.

수어드 박사는 복도에서 근무 중이던 간병인에게 무슨 소리라도 들었는지 물었다. 간병인은 앉아 있다가, 사실은 반쯤 졸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다 방 안에서 큰 목소리들이 들렸고, 뒤이어 렌필드가 "맙소사! 맙소사! 맙소사!"라고 크게 몇 번이나 외쳤다고 말했다. 그 직후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방으로 들어가 보니 렌필드가 의사들이 보았던 모습 그대로 바닥에 얼굴을 엎드린 채 쓰러져 있었다고 덧붙였다. 반 헬싱이 "목소리들"이었는지 아니면 "한 사람의 목소리"였는지 묻자, 간병인은 확답할 수 없다고 답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으나, 방 안에 아무도 없었으니 한 사람의 목소리였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다만 필요하다면 환자의 입에서 "맙소사"라는 말이 나왔다는 사실만큼은 맹세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우리끼리 남게 되었을 때, 수어드 박사는 이 일에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검시 절차를 고려해야 하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

을 진실을 내세우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박사는 현재 상황에서 간병인의 증언을 토대로, 침대에서 떨어지다 발생한 사고사로 사망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만약 검시관이 요구한다면 정식 검시를 진행해야 하겠지만, 결과는 결국 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결정한 사항은 미나에게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라 해도 그 어떤 것도 미나에게 숨겨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미나 자신도 그것이 현명한 판단이라며 동의했다. 그토록 용감하면서도 깊은 절망에 빠져 슬퍼하는 그녀의 모습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애처로웠다.

"아무것도 숨겨서는 안 돼요." 미나가 말했다. "아아,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숨겨 왔는걸요. 게다가 내가 이미 견뎌온, 아니 지금도 겪고 있는 이 고통보다 더 큰 아픔을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그것은 내게 새로운 희망이나 새로운 용기를 주는 일이어야만 해요!"

미나가 말을 이어가는 동안 반 헬싱은 그녀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러다 그는 갑작스럽지만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하지만 친애하는 미나 부인, 두렵지 않으십니까? 당신 자신 때문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당신으로 인해 다른 이들이 해를 입게 될까 봐 말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단호한 기색이 서렸으나, 대답하는 그녀의 눈동자에는 순교자 같은 헌신이 빛나고 있었다.

"아니요! 이미 마음을 굳혔으니까요!"

"무엇을 위해서 말인가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우리 모두는 숨을 죽인 채 가만히 있었다. 그녀가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 각자는 저마다 막연하게나마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마치 단순히 사실을 진술하듯, 꾸밈없이 담백하게 대답했다.

"만약 제 안에서—저는 그것을 예리하게 지켜볼 거예요—제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해칠 기미가 보인다면, 그때는 죽음을 택하겠어요!"

"자결할 생각은 없는 건가?" 그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그럴 거예요. 만약 저를 사랑해서, 이런 고통과 이토록 절망적인 노력으로부터 저를 구해 줄 친구가 없다면 말이에요!" 그녀는 말을 하며 그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앉아 있었으나,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하며 그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얘야, 네게 이롭기만 하다면 그런 사람이 있단다. 나로서는, 만약 그것이 최선이라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너를 위해 그런 안락사를 찾아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의 내 도리로 여길 수도 있어. 아니, 그게 안전하기만 하다면 말이다! 하지만 얘야——" 그는 잠시 숨이 막힌 듯하더니 목구멍까지 차오른 거대한 울음을 삼켰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다.

"여기 너와 죽음 사이를 가로막아 줄 사람들이 있단다. 너는 죽어서는 안 돼. 그 어떤 손에 의해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네 자신의 손으로는

더더욱 죽어서는 안 된다. 네 고귀한 삶을 더럽힌 그자가 진정으로 죽기 전까지는 결코 죽어서는 안 돼. 만약 그자가 여전히 살아 있는 언데드로 남아 있다면, 네 죽음은 너를 그자와 똑같은 존재로 만들어 버릴 테니까. 아니, 너는 살아야 한다! 죽음이 형언할 수 없는 축복처럼 느껴질지라도, 너는 살기 위해 투쟁하고 애써야 해. 죽음이 고통의 모습으로 오든 기쁨의 모습으로 오든, 낮이든 밤이든, 안전하든 위험하든, 너는 죽음 그 자체와 맞서 싸워야 한다! 네 살아 있는 영혼을 걸고 명하노니, 이 거대한 악이 지나갈 때까지 죽지 마라. 아니, 죽음을 생각조차 하지 마라."

가련한 그녀는 죽음처럼 창백해진 채, 마치 밀물이 밀려들 때 갯벌이 흔들리고 떨리듯 충격에 휩싸여 몸을 떨었다. 우리 모두는 침묵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마침내 그녀는 조금 진정된 듯, 그를 향해 손을 내밀며 다정하게, 하지만 오, 너무나도 슬프게 말했다.

"내 친애하는 친구여, 약속할게요. 만약 신께서 제 생명을 허락하신다면, 저는 어떻게든 버텨낼 거예요. 신의 뜻에 따라 이 끔찍한 공포가 제게서 사라지는 그날까지 말이에요."

그녀는 너무나 선량하고 용감했다. 우리 모두는 그녀를 위해 힘을 내어 일하고 견뎌야겠다고 다짐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에게 금고에 있는 모든 서류와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될 모든 문서, 일기, 축음기 기록들을 맡기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계속해서 기록을 남겨달라고 당부했다. 그녀는 무언가 할 일이 생겼다는 사실에 기뻐했

다. 비록 그 일이 이토록 참혹한 일이라서 '기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늘 그렇듯 반 헬싱은 다른 누구보다 앞서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우리가 수행해야 할 작업의 순서를 정확하게 정리하여 준비해 두었다.

"아마도 다행인 일입니다." 그가 말했다. "카팩스를 방문한 뒤 우리가 만났을 때, 그곳에 있던 흙 상자들을 건드리지 않기로 결정한 것 말입니다. 만약 그때 손을 댔다면 드라큘라 백작은 분명 우리의 의도를 눈치챘을 테고, 다른 상자들까지 지키기 위해 미리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우리의 계획을 모릅니다.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의 은신처를 무력화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조차 그가 모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그는 예전처럼 상자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 상자들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피카딜리의 저 저택을 조사하고 나면, 마지막 남은 상자 하나까지도 끝까지 추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이 우리의 기회이며, 우리의 희망은 오늘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슬픔 위로 떠오른 태양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밤 해가 질 때까지, 그 괴물은 지금의 형태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는 육신이라는 한계 속에 갇혀 있으니까요. 공기 중으로 녹아 사라지거나 틈새나 구멍 사이로 스며들 수도 없습니다. 만약 문을 통과하려 한다면, 필멸의 인간처럼 반드시 문을 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가 숨겨둔 모든 은신처를 찾아내어 무력화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아직 그를 붙잡아 처단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그를 막다른 곳으로 몰아넣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반드시 그를 붙잡아 파멸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몸을 일으켰다. 미나의 생명과 행복이 담긴 이 소중한 시간과 초 단위의 순간들이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대화만 나누는 동안에는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었으니까. 하지만 반 헬싱이 경고하듯 손을 들어 나를 제지했다.

"아니오, 조너선 친구." 그가 말했다. "자네들의 속담에 이르기를, 집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가장 먼 길이라고 하지 않았나. 때가 오면 우리 모두 필사적으로, 아주 빠르게 움직일 것이네. 하지만 생각해보게. 아마도 이 상황을 해결할 열쇠는 피카딜리의 저 저택에 있을 것이네. 드라큘라 백작은 매입한 집이 여러 채 있을 수도 있네. 그중에는 매매 증서와 열쇠, 그리고 다른 물건들도 있을 것이고, 글을 쓸 종이나 수표책도 있을 것이네. 그가 반드시 어딘가에 두어야만 하는 소지품들이 아주 많을 텐데, 왜 하필 이곳처럼 중심지에 있고 조용한 곳이 아니겠나? 이곳은 인파가 북적이는 와중에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언제든 앞문이나 뒷문으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니까. 우리는 그곳에 가서 저택을 수색할 것이네.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내면, 아서가 사냥할 때 쓰는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흙 상자들을 차단하고' 늙은 여우를 끝까지 추적해낼 것이네.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당장 움직입시다!" 내가 외쳤다.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교수님은 움직이지 않은 채 그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럼 피카딜리의 그 저택에는 어떻게 들어갈 생각인가요?"

"어떻게든 들어가야죠!" 내가 외쳤다. "필요하다면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갈 겁니다."

"경찰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어디에 있을 것이며, 대체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당혹감에 휘청거렸다. 하지만 그가 지체하려 한다면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 얘야, 나도 잘 안단다. 그리고 정말이지 네 고통을 더 키우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구나. 하지만 생각해보렴, 온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니? 그때가 되어야 우리의 시간이 올 게다. 내가 계속해서 고민해 보았는데, 가장 단순한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구나. 지금 우리는 저 집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열쇠가 없지 않니? 그렇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 이제 당신이 정말로 그 집의 주인인데도 여전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게다가 침입자에 대한 죄책감조차 전혀 느끼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을 만한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제 대신 자물쇠를 따게 할 겁니다."

"그쪽 경찰들도 개입하려 들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 아뇨! 그 사람이 정당하게 고용되어 일하고 있다는 걸 알기만 한다면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말할 때만큼이나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의심스러운 건 오직 고용주의 양심뿐이네. 그리고 그 고용주가 선한 양심을 가졌는지 악한 양심을 가졌는지에 대한 경찰들의 판단이지. 자네 경찰들이 정말로 열성적이고 영리한 사람들이라면, 아니, 사람의 마음을 읽는 데 아주 영리한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소한 일에까지 신경을 쓰겠지. 아니, 아니네, 나의 친구 조너선. 자네가 이런던이나 세상 어느 도시에서든 빈집 백 채의 자물쇠를 따러 간다고 치세. 만약 자네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제대로 일을 처리한다면 아무도 간섭하지 않을 걸세.

내가 읽은 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군. 런던에 아주 훌륭한 저택을 소유한 신사가 있었는데, 여름 동안 몇 달간 스위스로 여행을 떠나면서 집을 잠가 두었지. 그런데 어떤 도둑이 들어와 뒷창문을 깨고 침입했다네. 그러고는 앞쪽 덧창까지 다 열어젖히고는, 경찰들이 지켜보

는 눈앞에서 대담하게 문을 들락날락했지. 그러고 나서 그 도둑은 그 집에서 경매를 열겠다고 광고를 내고 커다란 공고문까지 붙였네. 경매 날이 되자, 전문 경매사가 그 집 주인의 물건들을 전부 팔아치워 버렸지. 그다음에는 건설업자에게 가서, 일정 기간 안에 집을 허물고 모든 것을 치워버린다는 계약을 맺고 집을 팔아넘겼다네. 자네 경찰들과 다른 당국들도 그가 할 수 있는 한 온갖 도움을 다 주었지. 결국 스위스에서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원래 주인은, 집이 있던 자리에 덩그러니 남은 빈 구덩이만을 마주하게 되었다네.

이 모든 일은 아주 '규칙대로(en règle)' 진행되었지. 그리고 우리의 일 또한 '규칙대로' 진행될 것이네. 경찰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을 이른 시간에 움직여서 그들을 의아하게 만들지는 않을 걸세. 대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오전 10시 이후에 움직일 것이네. 만약 우리가 정말로 그 집 주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법한 시간에 말일세."

그의 말이 얼마나 옳았는지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미나의 얼굴에 서려 있던 끔찍한 절망감도 조금은 누그러졌다. 그토록 현명한 조언이 있으니 희망이 보였다. 반 헬싱이 말을 이어갔다.

"일단 그 저택 안에 들어가면 더 많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 중 몇 명은 그곳에 남아서 상황을 살피고, 나머지 인원은 버몬지나 마일 엔드처럼 다른 흙 상자들이 있을 법한 장소들을 찾아 나서기로 하죠."

고달밍 경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여기서 도움이 될 수 있겠군.” 그가 말했다. “사람들에게 전보를 보내서, 가장 필요한 곳에 말과 마차가 도착하도록 조치하겠네.”

“이봐, 친구,” 모리스가 말했다. “말을 타러 가고 싶을 때를 대비해 미리 준비해 두는 건 아주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문장(紋章) 장식이 달린 자네의 그 멋진 마차를 타고 웰워스나 마일 엔드의 좁은 길을 지나다니면, 우리 목적상 너무 눈에 띄지 않을까? 내 생각에는 남쪽이나 동쪽으로 이동할 때는 그냥 택시 마차를 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것도 우리가 가려는 곳 근처 어딘가에 마차를 세워두고 말이야.”

“퀸시 친구 말이 맞네!” 교수가 말했다. “그 친구의 머리는 지평선과 수평을 이루고 있어. 우리가 하려는 일은 아주 어려운 일이라네. 가능하다면 아무도 우리를 지켜보지 않았으면 좋겠군.”

미나는 모든 일에 점점 더 관심을 보였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덕분에 그녀가 그날 밤의 끔찍한 경험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게 된 것 같아 나는 기뻤다. 미나의 안색은 무척이나 창백했다. 거의 유령처럼 보일 정도였으며, 몸이 너무 수척해진 나머지 입술이 뒤로 당겨져 치아가 도드라져 보이기까지 했다. 그녀가 불필요한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이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드라큘라 백작이 불쌍한 루시의 피를 빨아들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를 생각하면, 내 혈관 속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아직 치아가 날카로워진 기색은 없었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공포가 엄습할 시간은 충분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순서와 전력을 어떻게 배치할지 논의하기 시작하자, 새로운 의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결국 우리는 피카딜리로 떠나기 전에, 우선 가까운 곳에 있는 드라큘라 백작의 은신처를 먼저 파괴하기로 합의했다. 만약 백작이 우리의 계획을 너무 빨리 알아차린다 해도, 은신처를 먼저 파괴해 둠으로써 파괴 작업에 있어 그보다 한발 앞서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백작이 순수한 물질적 형태를 띠며 가장 약해진 상태로 나타난다면, 그 모습에서 새로운 단서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전력을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해 반 헬싱 교수가 제안을 하나 했다. 카팩스를 방문한 뒤에 우리 모두 피카딜리의 저택으로 들어가는 방안이었다. 두 의사와 내가 그곳에 머무는 동안, 고달링 경과 퀸시 모리스가 월워스와 마일 엔드에 있는 은신처들을 찾아내어 파괴하자는 것이었다. 교수는 드라큘라 백작이 낮에 피카딜리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비록 가능성이 낮을지라도, 만약 백작이 나타난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맞서 싸울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였다. 적어도 백작을 추격할 때 전력을 다할 수 있을 터였다.

나는 이 계획에 강력히 반대했다. 특히 내가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단호했다. 나는 이곳에 남아 미나를 지키겠다고 말하며, 이미 결심을 굳혔음을 밝혔다. 하지만 미나는 내 반대를 듣지 않았다. 미나는 내가 법률적인 문제에서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드라큘라 백작의 서류들 중에서, 내가 트란실바니아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또한 지금 상황에서는

백작의 초자연적인 힘에 맞서기 위해 우리가 모을 수 있는 모든 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나의 결심이 워낙 확고했기에 나는 결국 따를 수밖에 없었다. 미나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일하는 것이 '자신'을 위한 마지막 희망이라고 말했다.

"나는 두렵지 않아요." 미나가 말했다. "상황은 이미 최악까지 치달았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안에는 반드시 희망이나 위안의 요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 가세요, 여보! 신께서 원하신다면, 그분은 다른 누구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도 나를 지켜주실 수 있어요."

나는 벌떡 일어나 외쳤다. "그렇다면 신의 이름으로 당장 시작합시다.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어요. 드라큘라 백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피카딜리로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네!" 반 헬싱이 손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하지만 어째서입니까?" 내가 물었다.

"그가 어젯밤에 아주 거하게 잔치를 벌여서 늦잠을 잘 거라는 사실을, 설마 잊은 건 아니겠지?" 그가 정말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잊었다니! 내가 과연 잊을 수 있을까—아니, 도저히 잊을 수 없다! 우리 중 그 누구인들 그 끔찍한 광경을 잊을 수 있단 말인가!

미나는 용기 있게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밀려드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신음하며 몸을 떨었다. 반 헬싱은 그녀의 끔찍한 경험을 떠올리게 할 의도가 없었다. 그저 지적인 탐구에 몰두하느라, 그녀와 이 사건에서 그녀가 처한 입장을 잠시 잊고 있었을 뿐이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는 순간, 그는 자신의 경솔함에 경악하며 그녀를 위로하려 애썼다.

"오, 미나 부인," 그가 말했다. "가엾은, 가엾은 미나 부인! 아아, 제가, 제가 당신을 그토록 존경하면서 어찌 이토록 생각이 짧은 말을 했단 말입니까. 이 멍청한 노인의 입술과 이 멍청한 노인의 머리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인께서도 곧 잊어주시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말을 하며 그녀의 곁으로 몸을 낮게 숙였다. 미나는 눈물 너머로 그를 바라보며 그의 손을 잡고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요,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해 두는 편이 좋으니까요. 당신과 관련된 달콤한 기억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모든 것을 하나로 품고 가려 합니다. 자, 이제 다들 곧 떠나야겠지요.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으니, 기운을 내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 식사를 해야 합니다."

아침 식사는 우리 모두에게 기묘한 시간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애써 밝은 분위기를 유지하려 노력했고, 그중에서도 미나가 가장 생기 넘치고 밝은 모습이었다. 식사를 마칠 무렵, 반 헬싱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자, 친애하는 친구들이여, 이제 우리는 끔찍한 임무를 수행하러 떠납니다. 적의 소굴을 처음 방문했던 그날 밤처럼, 우리 모두 무장을 갖추었습니까? 유령 같은 초자연적인 공격뿐 아니라 육체적인 공격에도 대비가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에게 확신을 주었다.

"그렇다면 다행이군요. 미나 부인, 당신은 어찌 되었든 해가 질 때까지 이곳에서 아주 안전할 겁니다. 그전에 우리는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만약…… 아니, 반드시 돌아오고야 말 겁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당신이 직접적인 공격에 대비해 무장을 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당신이 내려온 이후, 나는 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알고 있는 물건들을 배치해 당신의 방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제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마에 이 성체를 찍겠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을 듯한 무시무시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반 헬싱이 미나의 이마에 성체를 갖다 대자, 그것이 마치 달궈진 흰 금속 조각이라도 된 양 살을 태우며 파고든 것이다. 가련한 내 사랑은 신경을 타고 전해지는 고통만큼이나 빠르게 그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다. 고통과 깨달음이 동시에 몰려오자, 극도로 예민해진 그녀의 정신은 그 끔찍한 비명에 실려 터져 나오고 말았다. 하지만 그 생각을 담을 말은 빠르게 떠올랐다. 비명의 잔향이 채 가시기도 전, 그녀는 격렬한 반응을 보이며 굴욕감에 휩싸인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마

치 옛날의 나병 환자가 망토로 얼굴을 가리듯, 그녀는 아름다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부짖었다.

"부정하다! 부정해! 전능하신 주님조차 나의 더러워진 육신을 외면하시는구나! 최후의 심판 날이 올 때까지 이 치욕스러운 낙인을 이마에 새긴 채 살아가야만 한단 말인가!"

그녀의 외침에 모두가 말을 멈췄다. 나는 무력한 슬픔에 휩싸여 그녀의 곁으로 몸을 던졌고, 그녀를 품에 안은 채 꽉 껴안았다. 우리는 몇 분 동안 슬픔에 잠긴 채 서로의 심장 박동을 함께 느꼈다. 그동안 주변의 친구들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돌렸다.

그때 반 헬싱이 몸을 돌려 엄숙하게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장중한지,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자신을 초월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그 흉터는 신께서 직접 보시기에 적절한 때까지, 즉 세상과 그 위에 놓인 신의 자녀들이 겪은 모든 잘못을 바로잡으실 최후의 심판의 날까지는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오, 사랑하는 미나 부인, 부디 당신을 사랑하는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모든 일을 알고 계시는 신의 증표인 그 붉은 흉터가 사라지고, 당신의 이마가 우리가 아는 당신의 마음처럼 순결하게 빛나는 그 순간을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신께서 우리에게 지워진 이 무거운 짐을 덜어주기로 결정하시는 날, 그 흉터는 반드시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신의 아들이 그분의 뜻에 순종했듯,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신의 기쁨을 이루기 위해 선택된 도구일지도

모릅니다. 채찍질과 수치, 눈물과 피, 그리고 의심과 공포를 통과하며, 신과 인간을 가르는 그 모든 시련을 겪으며 신의 부름에 응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의 말에는 희망과 위로가 담겨 있었고, 그 말은 우리를 체념과 수용의 상태로 이끌었다. 미나와 나 모두 같은 마음이었다. 우리는 동시에 노인의 두 손을 하나씩 맞잡고 몸을 굽혀 그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모두 함께 무릎을 꿇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서로에게 충실할 것을 맹세했다. 우리 남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했던 그녀의 머리 위로 드리워진 슬픔의 장막을 걷어내겠노라 다짐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이 끔찍한 과업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도움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기도했다.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었다. 나는 미나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우리 두 사람 모두 죽는 날까지 결코 잊지 못할 이별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길을 나섰다.

한 가지 결심한 것이 있다. 만약 결국 미나가 흡혈귀가 되어야만 한다면, 그녀를 그 미지의 끔찍한 땅으로 홀로 보내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옛 시절에 흡혈귀 한 마리가 곧 여러 마리를 의미했던 것도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들의 흉측한 육신이 오직 성스러운 땅에서만 안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가장 숭고한 사랑이야말로 그 소름 끼치는 무리를 불러 모으는 모집관 역할을 했던 것이리라.

우리는 별다른 문제 없이 카팩스에 들어섰다. 모든 것이 처음 방문했을 때와 다름없었다. 방치된 채 먼지가 쌓이고 부식되어 가는 이 평

범하고 지루한 풍경 속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토록 거대한 공포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만약 우리가 이미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우리를 채찍질하는 끔찍한 기억들이 없었더라면, 아마 이 일을 계속 밀고 나가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집 안 어디에서도 서류나 사용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래된 예배당에 놓인 커다란 상자들도 지난번에 보았던 모습 그대로였다. 우리가 그 상자들 앞에 서 있자, 반 헬싱 박사가 엄숙하게 말했다.

"자, 친구들이여.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 자가 그토록 사악한 목적으로 쓰기 위해 먼 이국땅에서 가져온 이 흙을, 성스러운 기억이 깃든 이 땅을 우리는 정화해야 합니다. 저 자가 이 흙을 선택한 이유는 이곳이 성스러운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저 자가 휘두르려던 무기로써 저 자를 물리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더욱 성스럽게 만듦으로써 말입니다. 인간을 위해 쓰이며 거룩해졌던 이 땅을, 이제는 신을 위해 거룩하게 봉헌합시다."

반 헬싱 교수는 말을 마치며 가방에서 드라이버와 렌치를 꺼냈고, 곧이어 상자 하나가 열렸다. 상자 안의 흙에서는 퀴퀴하고 답답한 냄새가 났다. 하지만 우리는 어쩐지 그 냄새가 신경 쓰이지 않았다. 우리의 모든 신경이 교수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반 헬싱 교수는 상자에서 성체 조각을 꺼내 경건하게 흙 위에 놓았다. 그러고는 뚜껑을 닫고 나사를 조이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가 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왔다.

우리는 커다란 상자들을 하나씩 같은 방식으로 다루었다. 겉보기에는 처음 발견했을 때와 다를 바 없게 그대로 두었으나, 상자마다 성체(聖體)가 조금씩 들어 있었다.

우리가 등 뒤로 문을 닫자, 교수님은 엄숙하게 말씀하셨다.

"이미 이만큼이나 해냈습니다. 만약 나머지 상자들도 모두 이처럼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오늘 저녁의 노을은 미나 부인의 이마를 상아처럼 새하얗고 티 하나 없는 모습으로 비출 수 있을 것입니다!"

기차를 타러 역으로 향하며 잔디밭을 가로질러 갈 때, 정신병원의 정면이 보였다.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곳을 살피다 내 방 창가에 있는 미나를 발견했다. 나는 미나를 향해 손을 흔들며, 우리가 맡은 일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미나도 내 뜻을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다. 마지막으로 본 미나의 모습은 작별 인사를 건네듯 손을 흔드는 모습이었다. 우리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역으로 향했다. 승강장에 도착했을 때, 기차는 막 증기를 내뿜으며 들어오고 있었고 우리는 간신히 열차에 올라탈 수 있었다.

기차 안에서 이 글을 씁니다.

* * * * *

피카딜리, 12시 30분. -- 펜처치 거리에 도착하기 직전, 고달밍 경이 내게 말했다. --

"퀸시와 내가 열쇠공을 찾아보겠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 자네는 우리와 함께 오지 않는 게 좋겠어. 지금 상황에서는 빈집에 침입하더라도 우리가 크게 비난받지는 않겠지만, 자네는 변호사 아닌가. 법률 협회에서 자네가 더 분별 있게 행동했어야 했다고 지적할 수도 있으니까."

나는 비난을 받을 위험조차 함께 나누지 못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했지만, 그는 말을 이어갔다.

"게다가 사람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눈에 띄기 쉬워. 내 작위가 있으면 열쇠공이나 혹시라도 나타날 경찰에게도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을 걸세. 자네는 잭, 그리고 교수님과 함께 그린 파크로 가서 집이 보이는 곳에 머물러 주게. 그러다 문이 열리고 열쇠공이 떠나는 게 보이면 그때 다 같이 이쪽으로 오게나. 우리가 자네들을 살피고 있다가 안으로 들여보내 주겠네."

"그 조언은 아주 좋군요!" 반 헬싱이 말하자, 우리는 더는 말을 잇지 않았다. 고달밍과 모리스는 마차를 타고 서둘러 떠났고, 우리도 다른 마차에 올라 그들을 뒤따랐다. 알링턴 스트리트 모퉁이에 이르자 우리 일행은 내려서 그린 파크 안으로 한가로이 걸어 들어갔다. 우리의 모든 희망이 걸려 있는 그 저택이 보이기 시작하자 심장이 요동쳤다. 저택은 생기 넘치고 깔끔해 보이는 이웃집들 사이에서, 텅 빈 채로 음산하고 고요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우리는 저택이 잘 보이는 벤치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리고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애쓰며 시가를 피

우기 시작했다. 다른 이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시간은 납덩이처럼 무겁게 흘러가는 것만 같았다.

마침내 사륜마차가 한 대 달려와 멈춰 섰다. 고달밍 경과 모리스가 여유로운 몸짓으로 마차에서 내렸다. 마부석에서는 도구가 가득 담긴 갈대 바구니를 든 체격이 단단한 일꾼이 내려왔다. 모리스가 마부에게 요금을 지불하자, 마부는 모자를 살짝 들어 보이고는 마차를 몰아 떠났다. 두 사람은 함께 계단을 올라갔고, 고달밍 경은 일꾼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일러주었다. 일꾼은 느긋하게 코트를 벗어 난간의 못 하나에 걸어두며, 마침 산책하듯 지나가던 경찰에게 무언가 말을 건넸다. 경찰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무릎을 굽히고 앉은 일꾼은 가방을 옆에 놓았다. 가방 안을 뒤적이던 그는 도구 몇 개를 꺼내더니, 옆에 가지런히 늘어놓았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열쇠구멍 안을 들여다보며 입으로 바람을 불어넣더니, 고용주들을 돌아보며 무언가 말을 했다. 고달밍 경이 미소를 지었고, 일꾼은 꽤 묵직한 열쇠 꾸러미를 들어 올렸다. 그는 열쇠 하나를 골라 마치 길을 더듬듯 자물쇠를 살피기 시작했다. 잠시 더듬거리던 그는 두 번째, 세 번째 열쇠를 차례로 시도했다. 그러다 갑자기 그가 문을 살짝 밀자 문이 열렸고, 일꾼과 두 사람은 홀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내 시가는 격렬하게 타들어 갔지만, 반 헬싱의 시가는 완전히 식어버렸다. 일꾼이 다시 나와 가방을 들여오는 것을 보며 우리는 인내심 있게 기다렸다. 그러고 나서 일꾼은 문을 반쯤 열어둔 채 무릎으로 문을 지탱하며 자물쇠에 열쇠를 맞추었다. 마침내 그는 열쇠를 고달밍 경에게 건넸고, 고달밍 경은 지갑을 꺼내 그에게 무언가를 건네주었다. 일꾼은 모자에 손을 대어

예를 표하고는 가방을 챙겨 코트를 입고 떠났다. 그 일련의 과정 동안 그 누구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 남자가 완전히 떠나자, 우리 세 사람은 길을 건너 문을 두드렸다. 곧바로 퀸시 모리스가 문을 열어주었고, 그 곁에는 고달밍 경이 시가에 불을 붙이며 서 있었다.

"이곳은 냄새가 너무 고약하군요." 우리가 안으로 들어서자 고달밍 경이 말했다. 과연 냄새는 형언할 수 없이 역겨웠다. 마치 카팩스의 오래된 예배당에서 나던 그 냄새와 같았다. 이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백작이 이곳을 아주 빈번하게 사용해 왔다는 사실은 자명했다. 우리는 공격에 대비해 모두 함께 뭉친 채 집 안을 살피기 시작했다. 상대해야 할 적이 매우 강력하고 교활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백작이 아직 집 안에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기 때문이다.

홀 뒤편에 있는 식당에서는 흙이 담긴 상자 여덟 개를 발견했다. 우리가 찾던 아홉 개 중 고작 여덟 개뿐이었다! 우리의 작업은 끝나지 않았다. 사라진 상자 하나를 찾기 전까지는 결코 끝날 수 없었다. 우선 우리는 창문의 덧창을 열었다. 창밖으로는 좁은 돌바닥 마당이 보였고, 그 너머로 작은 집의 정면처럼 뾰족하게 생긴 마구간의 밋밋한 벽면이 보였다. 마구간에는 창문이 없었기에 누군가 안을 들여다볼까 걱정할 필요는 없었다.

우리는 지체하지 않고 상자들을 조사했다. 가져온 도구들로 상자를 하나씩 열어, 예전 예배당에서 다른 상자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처리

했다. 백작이 지금 당장은 이 집에 없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였다. 우리는 그의 소지품이 있는지 찾아보기로 했다.

지하실부터 다락방까지 나머지 방들을 대충 훑어본 뒤, 우리는 백작의 물건이 있을 만한 곳은 식당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우리는 식당에 있는 물건들을 세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다. 물건들은 커다란 식탁 위에 마치 질서 정연한 무질서 상태처럼 놓여 있었다. 피카딜리 저택의 권리증들이 커다란 뭉치로 있었고, 마일 엔드와 버몬지 저택을 매입할 때 작성한 증서들도 있었다. 메모지, 봉투, 펜과 잉크도 보였다.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모든 물건은 얇은 포장지로 덮여 있었다. 옷솔과 머리빗, 그리고 물병과 세면 대야도 있었는데, 세면 대야에는 마치 피가 섞인 듯 붉게 변한 더러운 물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으로 온갖 종류와 크기의 열쇠들이 작은 더미를 이루고 있었는데, 아마도 다른 저택들의 열쇠인 듯했다. 이 마지막 발견물까지 조사를 마친 뒤, 고달밍 경과 퀸시 모리스는 동부와 남부 저택들의 주소를 정확히 기록했다. 그러고는 열쇠 꾸러미를 챙겨 들고 해당 장소에 있는 상자들을 파괴하러 떠났다. 남은 우리는 인내심을 다해 그들이 돌아오기를, 혹은 드라큘라 백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제XXIII장

수어드 박사의 일기

10월 3일.

고달밍과 퀸시 모리스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지독하게도 길게 느껴졌다. 반 헬싱 교수는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생각에 잠겨 있도록 유도하며 정신을 집중시키려 애썼다. 그가 이따금 하커를 곁눈질로 살피는 모습을 보며, 나는 그가 얼마나 선한 의도로 노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가엾은 하커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한 비극에 짓눌려 있었다. 불과 어젯밤까지만 해도 그는 생기 넘치는 젊은 얼굴에 짙은 갈색 머리를 가진, 활기차고 행복해 보이는 청년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초췌하고 수척한 노인이 되어 있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은 움푹 꺼진 채 불타는 듯한 눈, 그리고 슬픔이 깊게 파인 얼굴 주름과 잘 어우러졌다. 그럼에도 그의 에너지는 여전히 살아 있었다. 사실 그는 마치 타오르는 불꽃 같았다. 어쩌면 이 에너지가 그를 구원할지도 모른다. 모든 일이 잘 풀린다면, 이 힘이 절망의 시기를 견뎌내

게 해줄 것이고, 그러면 그는 다시금 삶의 현실로 돌아올 수 있을 테니까. 가엾은 사람, 내 고통도 충분히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고통은 정말이지…! 교수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그가 정신을 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수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온 신경을 사로잡을 만큼 흥미로웠다. 내가 기억하는 대로 적어본다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괴물에 관한 모든 서류가 내 손에 들어온 뒤로, 나는 그것들을 몇 번이고 거듭해서 검토했다. 연구를 거듭할수록 그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는 필요성만 더욱 절실해질 뿐이다. 모든 기록에는 그가 세력을 넓히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단순히 힘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힘을 다루는 법까지 터득해가고 있는 듯하다. 부다페스트의 친구 아르미누스의 연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살아생전 참으로 경이로운 인물이었다. 군인이자 정치가였으며, 당대 과학의 정점이었던 연금술사로도 활동했다. 그는 거대한 지성을 지녔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학식을 갖추었으며, 두려움도 죄책감도 모르는 심장을 가진 자였다. 심지어 스콜로만스에 발을 들일 만큼 대담했으며, 당대의 그 어떤 학문 분야도 마다하지 않고 도전했다. 육체는 죽었으나 그의 지적 능력은 살아남은 듯하다. 비록 기억이 온전하지는 않은 듯 보이지만 말이다. 정신의 어떤 측면에서 그는 과거에도 지금도 어린아이와 같으나, 점차 성장하고 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았던 것들이 이제는 성인의 기백을 갖추어 가고 있다. 그는 실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 과정 또한 매우 치밀하다. 만약 우리가 그의 앞길을 가로막지 않았더라면,

그는—우리가 실패한다면 지금도 그러할지 모르나—삶이 아닌 죽음을 통과해야만 하는 새로운 존재들의 시조이자 선구자가 되었을 것이다.

하커는 신음하며 말했다. “이 모든 것이 내 사랑하는 이를 해치려 하다니! 하지만 그가 대체 어떤 실험을 하고 있는 거지? 그 지식을 알 수만 있다면 그를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몰라!”

"그는 이곳에 온 순간부터 줄곧, 느리지만 확실하게 자신의 힘을 시험해 왔다. 그 거대한 어린아이 같은 두뇌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아직 그 두뇌가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만약 그가 처음부터 어떤 일들을 감히 시도했더라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그를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의도를 품고 있으며, 눈앞에 수백 년의 세월이 놓인 자라면 충분히 기다리며 천천히 움직일 여유가 있는 법이다. '천천히 서둘러라(Festina lente)'라는 말이 그에게는 딱 어울리는 좌우명이 될 것이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군요.” 하커가 지친 기색으로 말했다. “제발 좀 더 알기 쉽게 말씀해 주세요! 슬픔과 고통 때문에 머리가 멍해진 모양입니다.”

교수는 말을 이어가며 그의 어깨 위에 손을 부드럽게 얹었다.

아, 얘야, 솔직히 말하마. 최근 들어 이 괴물이 어떻게 실험적으로 지식을 쌓아왔는지 보이지 않느냐? 그가 어떻게 식충성 환자를 이용해 친구 존의 집으로 침입했는지 말이다. 네가 쫓는 그 흡혈귀는 나중에

언제든 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처음에는 반드시 거주자가 초대한 경우에만 들어올 수 있어야 하거든.

하지만 이것은 그의 가장 중요한 실험이 아니다. 처음에는 이 거대한 상자들이 모두 타인에 의해 옮겨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지 못했느냐? 그때만 해도 그는 그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줄로만 알았을 뿐이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 같은 지능이 성장하는 동안, 그는 상자를 직접 옮길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돕기 시작했고, 그것이 괜찮다는 것을 깨닫자 혼자서 상자들을 옮기려 시도했다. 그렇게 그는 진보했고, 자신의 무덤들을 여기저기 흩어놓았다. 이제 그 무덤들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아는 자는 그 자신뿐이다. 그는 아마도 그것들을 땅속 깊이 묻어두려 했을 것이다. 밤에만 사용하거나 형태를 바꿀 수 있는 시간에만 사용한다면, 땅속에 묻어두든 아니든 그에게는 똑같이 도움이 될 테니까. 그러면 아무도 그곳이 그의 은신처라는 사실을 알 수 없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얘야, 절망하지 마라. 그가 깨달은 지식은 너무 늦게 찾아왔단다! 이미 그의 은신처 중 단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에게 무용지물이 되었고, 해가 지기 전이면 상황은 더욱 확실해질 것이다. 그러면 그는 움직이거나 숨을 곳이 없게 된다. 오늘 아침에 일을 미룬 것도 우리가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였다. 그보다 우리에게 걸린 것이 더 크지 않으냐? 그렇다면 우리가 그보다 훨씬 더 신중해야 하지 않겠느냐?

내 시계로 보면 벌써 한 시가 넘었구나. 모든 일이 순조롭다면 친구 아서와 퀸시가 이미 우리에게 오고 있는 중이다. 오늘은 우리의 날이

다. 비록 느리더라도 확실하게 나아가야 하며, 어떤 기회도 놓쳐서는 안 된다. 보아라! 부재중인 이들이 돌아오면 우리 다섯이 모이게 될 것이다.

그가 말을 이어가던 중, 현관문에서 들려오는 노크 소리에 우리는 깜짝 놀랐다. 전보 소년이 우편 배달부처럼 두 번씩 끊어 치는 특유의 노크 소리였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현관으로 나갔다. 반 헬싱은 우리에게 조용히 하라는 듯 손을 들어 보이고는, 문으로 다가가 문을 열었다. 소년은 전보 한 통을 건네주었다. 교수는 다시 문을 닫았다. 그러고는 겉봉에 적힌 주소를 확인하더니, 봉투를 열어 전보 내용을 소리 내어 읽었다.

"D를 조심하세요. 그는 방금 전인 12시 45분에 카팩스에서 서둘러 나와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주변을 돌며 돌아다니는 듯한데, 당신을 만나려 할지도 모릅니다. — 미나."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조너선 하커의 목소리가 그 정적을 깨뜨렸다.

"이제 신께 감사드려야겠군요, 곧 만나게 될 테니까요!" 반 헬싱이 그를 향해 급히 몸을 돌리며 말했다.

"신께서는 당신만의 방식과 때에 맞춰 움직이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벌써 기뻐하지도 마십시오. 지금 당장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도리어 우리의 파멸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내게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소.” 그가 격앙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짐승 같은 괴물을 세상에서 완전히 쓸어버리는 것, 오직 그것뿐이오. 그러기 위해서라면 내 영혼이라도 팔겠소!”

"오, 진정하게, 진정하게나, 아이야!" 반 헬싱이 말했다. "신께서는 그런 식으로 영혼을 사들이지 않으시네. 악마가 영혼을 살 수는 있을지언정, 결코 약속을 지키는 존재도 아니지. 하지만 신은 자비롭고 공의로우시며, 자네의 고통과 그 사랑스러운 미나 부인을 향한 헌신을 모두 알고 계시네. 자네가 지금처럼 격앙된 말을 내뱉는 것을 미나 부인이 듣기라도 한다면, 그녀의 고통이 얼마나 배가 되겠나. 우리 중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게. 우리 모두는 이 대의에 헌신하고 있으며, 오늘 드디어 결말을 보게 될 것이니 말일세. 이제 행동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네. 오늘 이 흡혈귀는 인간의 능력 수준에 묶여 있으며, 해가 질 때까지는 모습을 바꿀 수도 없을 것이네. 그가 이곳에 도착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걸세. 보게나, 벌써 1시 20분이 지났지 않은가. 그가 아무리 발 빠르게 움직인다 해도 이곳까지 오는 데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네.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건, 아서 경과 퀸시가 그보다 먼저 도착하는 것뿐이라네."

하커 부인의 전보를 받은 지 약 30분쯤 지났을 때, 현관문에서 조용하면서도 단호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매시간 수천 명의 신사가 두드리는 그저 평범한 노크였으나, 그 소리에 교수님과 내 심장은 요동치기 시작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본 뒤 함께 현관으로 나갔다. 왼손에는 영적인 무기를, 오른손에는 현세의 무기를 쥔 채 즉시 대응할 준비를 마쳤다. 반 헬싱은 문빗장을 풀고 문을 반쯤 연 채, 양손을 언제든 움직

일 수 있게 준비하며 뒤로 물러섰다. 문 앞 계단에 고달밍 경과 퀸시 모리스가 서 있는 것을 확인하자, 우리 얼굴에는 분명 기쁨이 역력히 드러났을 것이다. 그들은 서둘러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고, 복도를 따라 걸어 들어오며 고달밍 경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괜찮아. 두 곳 모두 찾아냈어. 각각 상자가 여섯 개씩 들어 있었는데, 전부 다 없애버렸어!"

"파괴되었다고요?" 교수가 물었다.

"그자에게는 말이지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자 퀸시가 말했다.

"여기서 기다리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네. 하지만 만약 다섯 시까지 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출발해야 하네. 해가 진 뒤에 하커 부인을 혼자 두는 건 좋지 않으니까."

"이제 곧 도착할 걸세." 수첩을 살피던 반 헬싱이 말했다. "주의 깊게 보게나. 부인께서 보내신 전보에 따르면, 그는 카팩스에서 남쪽으로 향했네. 그 말은 강을 건너려 했다는 뜻이지. 조수가 잦아드는 시기에만 강을 건널 수 있는데, 그 시간은 1시가 조금 되기 전이었을 거야. 그가 남쪽으로 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네. 아직은 그저 의심만 품고 있을 뿐이지만, 그는 카팩스에서 나와 방해를 가장 적게 받으리라 여긴 곳으로 먼저 향한 것이네. 자네들은 그가 도착하기 직전에야 버몬지에 닿았을 걸세. 그가 아직 여기 나타나지 않았다는 건, 그 다음 목적지로 마일 엔드를 향했다는 증거지. 강을 건너는 데 시간이

좀 걸렸을 테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강 건너편으로 옮겨져야 했을 테니 말이야. 친구들이여, 내 말을 믿게. 이제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될 걸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공격 계획을 세워둬야 하네. 쉿,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네. 모두 무기를 챙기게! 준비하라!"

그가 경고하듯 손을 들어 올리며 말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현관문 자물쇠에 열쇠가 부드럽게 꽂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런 순간에도 지배적인 정신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에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 곳곳을 누비며 함께 사냥을 다니고 모험을 할 때마다, 퀸시 모리스는 언제나 행동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었다. 아서와 나 역시 그를 전적으로 따르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오래된 습관이 본능적으로 되살아나는 듯했다. 퀸시는 방 안을 빠르게 훑어보더니 즉시 공격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는 한마디 말도 없이 몸짓만으로 우리 각자의 위치를 정해주었다. 반 헬싱과 하커, 그리고 나는 문 바로 뒤에 섰다. 문이 열리면 교수가 문을 지키는 동안 우리 둘이 침입자와 문 사이를 가로막기 위해서였다. 고달밍은 뒤에, 퀸시는 앞에 서서 창문 앞으로 뛰어들 준비를 마친 채 시야에서 벗어나 있었다. 우리는 악몽처럼 느릿하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복도 너머로 조심스럽고 느릿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드라큘라 백작은 분명 무언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다. 적어도 그는 그런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단숨에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우리 중 누구도 손을 들어 그를 막을 새도 없이, 그는 우리 사이를 헤치고 길을 내며 나아갔다.

그 움직임에는 표범 같은 기운이 서려 있었다. 너무나 비인간적인 움직임이었기에, 우리는 그가 나타났다는 충격에서 벗어나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 정도였다.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은 하커였다. 그는 재빨리 몸을 날려 저택 앞쪽에 있는 그 방으로 이어지는 문 앞을 가로막았다. 드라큘라 백작은 우리를 발견하자마자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끔찍하게 으르렁거렸고, 그 과정에서 길고 뾰족한 송곳니가 드러났다. 하지만 그 사악한 미소는 이내 사자 같은 경멸이 담긴 차가운 눈빛으로 바뀌었다. 우리가 일제히 그를 향해 달려들자, 백작의 표정은 다시 변했다. 체계적인 공격 계획이 없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었다. 그 순간 나는 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우리가 가진 살상용 무기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하커는 분명 직접 부딪쳐 볼 생각이었던 모양이다. 그는 커다란 쿠크리 칼을 꺼내 들고 그를 향해 매섭고 갑작스럽게 칼을 휘둘렀다. 일격은 강력했다. 드라큘라 백작이 악마 같은 민첩함으로 뒤로 뛰어 물러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당했을 것이다. 단 1초만 늦었어도 날카로운 칼날이 그의 심장을 꿰뚫었을 터였다. 다행히 칼끝은 그의 코트 옷감만을 가르고 지나갔고, 그 틈으로 지폐 뭉치와 금화들이 쏟아져 나왔다. 백작의 얼굴에 서린 표정이 너무나 지옥 같아서, 하커가 다시 그 무시무시한 칼을 높이 치켜드는 것을 보면서도 나는 순간 하커의 안위가 걱정되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보호하려는 마음이 들어 왼손에 십자가와 성체를 쥐고 앞으로 나아갔다. 팔을 타고 거대한 힘이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우리 모두가 자발적으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자, 괴물이 뒤로 움츠러드는 것을 나는 전혀 놀랍지 않게 지켜보았다. 드라큘라 백작의 얼굴에 스친 증오와 좌절된 악의, 그리고 분노와 지옥 같은 격노를 말로 표현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타오르는 눈빛과 대비되어 그의 밀랍 같은 안색은 황록색으로 변했고, 창백한 피부 위로 이마의 붉은 흉터가 마치 맥동하는 상처처럼 도드라져 보였다. 다음 순간, 그는 하커의 칼날이 떨어지기 전 몸을 유연하게 숙여 하커의 팔 밑으로 파고들었다. 그러고는 바닥에 떨어진 돈 한 움큼을 움켜쥐고 방을 가로질러 창문으로 몸을 던졌다. 유리가 깨지며 요란한 소리와 함께 빛이 흩날리는 가운데, 그는 창밖 아래 돌바닥이 깔린 공간으로 굴러떨어졌다. 산산이 부서지는 유리 소리 사이로, 금화 몇 닢이 돌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챙그랑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달려가 그가 다친 곳 없이 바닥에서 뛰어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는 계단을 급히 뛰어 올라가 돌이 깔린 마당을 가로지르더니, 마구간 문을 밀어 열었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몸을 돌려 우리에게 말을 건넸다.

"나를 속일 수 있을 것 같으냐? 너희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떼처럼 창백한 얼굴을 나란히 늘어놓고 말이다! 너희 모두는 머지않아 후회하게 될 것이다! 내가 머물 곳 하나 남기지 않고 쫓아냈다고 생각하겠지만, 내게는 머물 곳이 얼마든지 있다. 나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나는 이 복수를 수세기에 걸쳐 펼쳐 나갈 것이며, 시간은 내 편이다. 너희가 그토록 사랑하는 저 소녀들은 이미 내 것이다. 그리고 저 소녀들을 통해 너와 다른 자들도 결국 내 것이 되리라. 내 명령을 따르고, 내가 먹이를 취하려 할 때 부리는 자칼이 될 나의 피조물들이 말이다. 흥!"

그는 경멸 어린 비웃음을 흘리며 문밖으로 빠르게 지나갔다. 뒤이어 그가 문을 잠그자 녹슨 빗장이 끼익 소리를 내며 움직이는 것이 들렸다. 그 너머의 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도 들렸다. 마구간을 통해 그를 뒤쫓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우리는 복도를 향해 움직였고,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교수님이었다.

"우리는 무언가를 알아냈네. 아주 많은 것을 말이야! 그가 용기 있게 말하긴 하지만, 사실 그는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어. 시간과 결핍을 두려워하고 있단 말일세! 그렇지 않다면 왜 저토록 서두르겠나? 내 귀가 잘못된 게 아니라면, 그의 말투 자체가 이미 본심을 드러내고 있네. 왜 그 돈을 챙겨갔을까? 자네도 금방 눈치챘겠지. 자네들은 야생 동물을 사냥하는 사람들이니 잘 알 테니까. 나는 그가 돌아온다 해도 이곳의 그 무엇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도록 확실히 해두려 하네."

그는 말을 마치며 남은 돈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러고는 하커가 남겨둔 서류 꾸러미에서 권리 증서를 챙긴 뒤, 나머지 물건들은 탁 트인 벽난로 안으로 쓸어 넣고 성냥을 그어 불을 붙였다.

고달밍과 모리스는 마당으로 급히 달려 나갔고, 하커는 백작을 뒤쫓으려 창문을 통해 아래로 내려갔다. 하지만 백작은 마구간 문을 걸어 잠근 상태였다. 그들이 문을 강제로 열었을 때, 백작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반 헬싱과 나는 저택 뒤편에서 수소문을 해보았으나, 마구간 근처는 텅 비어 있었고 그가 떠나는 것을 본 사람도 없었다.

어느덧 늦은 오후가 되었고, 해가 저물 날도 머지않았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교수님의 말씀에 동의했다.

"미나 부인에게 돌아갑시다. 가엾고 가여운 미나 부인에게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그곳으로 가서 최소한 부인을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찾아야 할 관이 하나 더 남아 있으니, 그것만 찾아낸다면 모든 것이 다시 괜찮아질 겁니다."

반 헬싱은 하커를 위로하기 위해 최대한 용기를 내어 말하고 있었다. 하커는 이미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였다. 그는 아내를 생각하며 참지 못하고 이따금 낮은 신음을 내뱉었다.

우리는 슬픔에 잠긴 마음으로 나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곳에는 하커 부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용기와 이타심을 보여주듯 겉으로는 쾌활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의 안색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졌다. 그녀는 마치 남몰래 기도를 올리는 듯 잠시 눈을 감았다. 그러고는 다시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께 아무리 감사드려도 모자랄 거예요. 오, 가여운 내 사랑!" 그녀는 말을 하며 남편의 희끗한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입을 맞추었다. "여기에 머리를 뉘고 좀 쉬어요. 여보, 다 괜찮아질 거예요! 신께서 선한 뜻으로 허락하신다면, 신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가

여운 남편은 신음했다. 그 숭고한 비극 속에서, 그는 차마 말을 내뱉을 수조차 없었다.

우리는 형식적인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었고, 그 덕분에 모두의 기분이 조금은 나아진 듯했다. 아침 식사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기에, 아마도 허기진 이들에게 음식의 온기가 주는 생리적인 위안이었을지도 모른다. 혹은 서로 곁에 있다는 유대감이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다. 어쨌든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모두 한결 나아진 기분이었고, 내일이 아주 절망적이지만은 않으리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우리는 약속대로 하커 부인에게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남편이 위험에 처한 듯한 대목에서는 부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리기도 했고, 남편의 헌신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는 얼굴이 붉게 상기되기도 했지만, 그녀는 용기 있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경청했다. 하커가 백작에게 무모할 정도로 달려들었던 부분을 이야기할 때, 그녀는 남편의 팔을 붙잡고는 마치 그렇게 매달려 있으면 어떤 해악도 남편을 건드리지 못할 것처럼 꽉 쥐었다.

이야기가 모두 끝나고 현재 상황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남편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 입을 열었다. 아, 그 장면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젊음의 생기와 빛나는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발산하는, 그토록 달콤하고 선량하며 고결한 여인의 모습이라니. 그녀는 이마에 남은 붉은 흉터를 늘 의식하고 있었고, 우리 역시 그 흉터가 어디서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바라보았다. 우리의 암울한 증오에 맞서는 그녀의 자

애로운 친절을,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의구심에 맞서는 그녀의 부드러운 믿음을 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었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그 모든 선함과 순결함과 믿음을 지닌 그녀야말로 신에게서 버림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조너선," 그녀가 말했다. 그 이름은 입술 끝에서 마치 음악처럼 흘러나왔다. 사랑과 다정함이 가득 담긴 목소리였다. "사랑하는 조너선, 그리고 나의 진실한 친구들, 이 끔찍한 시간 동안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싸워야 한다는 걸 알아요. 앞으로 진정한 루시가 살아갈 수 있도록, 가짜 루시를 없애버렸던 것처럼 그를 파괴해야 한다는 것도요. 하지만 이건 증오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모든 비극을 초래한 가여운 영혼이야말로 가장 슬픈 존재니까요. 그가 가진 악한 부분을 없애고, 그의 선한 부분이 영적인 불멸을 얻게 될 때, 그가 느낄 기쁨이 어떠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록 그를 파괴하는 일을 멈출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은 그를 가엽게 여겨 주어야 해요."

그녀가 말을 이어갈 때, 나는 그녀의 남편의 얼굴이 어둡게 일그러지는 것을 보았다. 마치 내면의 격정이 그의 존재를 뿌리째 갉아먹는 듯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아내의 손을 꽉 움켜쥐었고, 그 압력에 그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다. 그녀는 분명 고통을 느꼈을 테지만 움츠러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러면서 마치 아내의 손을 억지로 뿌리치듯 거칠게 손을 놓으며 말했다.

"신께서 그를 내 손에 맡겨주시기를,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저 자의 지상의 삶을 파괴하기에 충분한 시간만큼만이라도 그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그 이후에 그의 영혼을 영원토록 불타는 지옥으로 보낼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 제발요! 제발 그만하세요! 선하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간청할게요. 조너선, 내 남편,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하시면 나는 공포와 전율에 짓눌려 무너지고 말 거예요. 여보,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이 길고 긴 하루 내내 나도 그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언젠가는… 나 역시 그런 동정이 필요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당신처럼, 당신만큼이나 분노할 정당한 이유를 가진 또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그 동정을 베풀기를 거부할지도 모른다고요! 오, 나의 남편! 정말이지,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당신이 그런 생각조차 품지 않도록 했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기도해요. 하느님께서 당신의 그 거친 말들을, 그저 더없이 다정하고 모진 시련에 짓눌린 한 남자의 애끊는 통곡으로만 여기시고 마음에 담아 두지 않으시기를. 오, 하느님, 이 가엾은 백발을 굽어살피시어, 평생 그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건만 그토록 많은 슬픔을 겪어 온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를 증언하는 증거로 삼아 주소서."

우리 남자들은 모두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 흐름을 막을 길은 없었기에, 우리는 숨기지 않고 소리 내어 울었다. 그녀 역시 자신의 다정한 권고가 결국 받아들여진 것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의 곁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녀를 품에 안은 채 옷자락 사이에

얼굴을 묻었다. 반 헬싱이 우리에게 눈짓을 보냈고, 우리는 두 사랑하는 영혼이 신 앞에 홀로 남겨지도록 방을 조용히 빠져나왔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 반 헬싱 교수는 흡혈귀가 침입할 만한 곳을 미리 점검하며 방을 정비했다. 그리고 하커 부인에게 안심하고 쉬어도 좋다고 다독였다. 부인은 어떻게든 믿음을 가지려 애썼고, 남편을 위해서라도 괜찮은 척하려 노력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것은 참으로 용기 있는 투쟁이었으며, 내 생각에 그 노력은 분명 결실을 보았다. 반 헬싱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두 사람 중 누구라도 울릴 수 있도록 침대 곁에 벨을 놓아두었다.

두 사람이 방으로 들어간 뒤, 퀸시와 고달밍, 그리고 나는 밤을 나누어 지새우며 고통받는 가여운 여인을 지키기로 했다. 첫 번째 보초는 퀸시가 맡기로 했으므로, 나머지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잠자리에 들 것이다. 고달밍은 두 번째 보초를 맡았기에 이미 잠자리에 들었다. 이제 내 할 일도 끝났으니, 나 역시 잠을 청하려 한다.

조너선 하커의 일기.

10월 3-4일, 자정에 가까운 시각.

어제는 도무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다. 잠을 향한 갈망이 나를 짓눌렀다. 깨어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변해 있으리라는, 그리고 그 어떤 변화든 지금보다는 나으리라는 어떤 맹목적인 믿음 때문이었다. 헤어지기 전, 우리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했지만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했다.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는 흙이 담긴 상자가 하나 남아 있

다는 사실과,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는 오직 백작만이 알고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만약 그가 숨어 지내기로 마음먹는다면, 몇 년이고 우리를 농락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사이에 벌어질 일들이란! 그 생각은 너무나 끔찍해서 지금조차 감히 떠올릴 수가 없다.

이것만은 분명하다. 만약 세상에 완벽이라 할 만한 여인이 있다면, 바로 나의 가엾고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랑하는 아내가 그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어젯밤 그녀가 보여 준 그 다정한 연민 때문에 나는 그녀를 천배는 더 사랑하게 되었다. 그 연민 앞에서는 괴물을 향한 나의 증오마저 비열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분명 신께서는 그런 존재를 잃어 세상이 더 초라해지도록 두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이 나의 희망이다. 지금 우리는 모두 암초를 향해 떠밀려 가고 있으며,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닻이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미나가 잠들었다. 꿈도 꾸지 않고 잠들었다. 그토록 끔찍한 기억들이 바탕에 깔린다면 그녀의 꿈이 어떠할지 나는 두렵기만 하다. 내가 지켜본 바로는, 해 질 녘 이후로 그녀가 이토록 평온했던 적은 없었다. 그러다 잠시 동안, 그녀의 얼굴에 마치 3월의 매서운 돌풍이 지나간 뒤 찾아온 봄날 같은 평온이 깃들었다. 그때는 그저 붉은 노을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물들인 탓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니, 거기에는 어떤 더 깊은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

나 자신은 지칠 대로 지쳐 죽을 것만 같은데도 정작 잠이 오지 않는다. 그래도 어떻게든 잠을 청해야 한다. 내일을 생각해야 하고, …하기 전까지는 내게 안식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 * * * *

나중에.

—내가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침대에 앉아 있는 미나가 겁에 질린 얼굴로 나를 깨웠기 때문이다. 방 안이 어둡지 않아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미나는 내 입을 손으로 막아 경고를 보낸 뒤, 내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쉿! 복도에 누군가 있어요!" 나는 조심스레 몸을 일으켰다. 그러고는 방을 가로질러 문을 살며시 열었다.

바로 바깥쪽 매트리스 위에는 퀸시 모리스가 눈을 부릅뜬 채 누워 있었다. 그는 내게 속삭이며, 조용히 하라는 듯 경고하듯 손을 들어 올렸다.

"쉿! 어서 가서 눕게. 다 괜찮으니까. 우리 중 한 사람이 밤새도록 여기를 지킬 걸세. 절대 방심하지 않을 테니 안심하게!"

그의 눈빛과 몸짓은 더는 말을 붙일 수 없게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돌아와 미나에게 그 일을 전했다. 미나는 한숨을 내쉬더니, 나를 품에 안고는 가냘프고 창백한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부드럽게 말했다.

"아, 용감하고 선한 이들을 주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나는 지금 잠이 오지 않아 이 글을 적는다. 다시 잠을 청해 보아야겠지만 말이다.

* * * * *

10월 4일, 아침.

밤사이 미나가 나를 다시 깨웠다. 이번에는 우리 모두 잠을 잘 잔 모양이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하며 회색빛 새벽이 스며들었고, 창문은 날카로운 직사각형 모양으로 빛나고 있었다. 가스등 불빛도 커다란 원반이라기보다는 작은 점처럼 보일 정도였다. 미나가 내게 다급하게 말했다.

"가서 교수님을 불러 주세요. 당장 그분을 뵙고 싶어요."

"어째서입니까?" 내가 물었다.

"생각이 났어요. 아마 밤사이 저도 모르게 떠올라 서서히 무르익은 모양이에요. 동이 트기 전에 그가 저를 최면 상태로 만들어야만 제가 입을 열 수 있을 거예요. 어서 가요, 내 사랑.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나는 문으로 향했다. 매트리스에 기대어 쉬고 있던 수어드 박사는 나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그가 당황하며 물었다.

"아니오."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미나가 지금 당장 반 헬싱 박사를 뵙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겠소." 그가 말하고는 서둘러 교수의 방으로 들어갔다.

2, 3분 뒤, 가운 차림의 반 헬싱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문가에서는 모리스 씨와 고달밍 경이 수어드 박사와 함께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교수가 미나가 미소 짓는 것을 보자, 그의 얼굴에 가득했던 불안감이 사라지고 확연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손을 비비며 이렇게 말했다.

"오, 사랑하는 미나 부인, 이거 정말 놀라운 변화로군요. 보세요! 조너선 친구, 오늘 우리는 드디어 예전 그대로의 사랑하는 미나 부인을 되찾았소!" 그러고는 미나를 향해 돌아서며 그가 쾌활하게 말했다. "자, 제가 무엇을 해 드리면 될까요? 이런 시각에 아무 까닭 없이 저를 부르셨을 리는 없을 테니 말입니다."

"나를 최면 상태로 만들어 줘요!" 그녀가 말했다. "동이 트기 전에 해 줘요. 그래야만 내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 서둘러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앉으라고 손짓했다.

그는 그녀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양손을 번갈아 가며 그녀의 머리 위에서부터 아래로 천천히 훑어 내렸다. 미나는 몇 분 동안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사이 내 심장은 마치 거대한 망치질 소리처럼 요동쳤다. 무언가 중대한 국면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점차 미나의 눈이 감기더니, 그녀는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오직 가슴이 부드럽게 들썩이는 것을 보고서야 살아있음을 알 수 있을 정도였다. 교수는 손을 몇 번 더 움직이다가 멈추었다. 그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미나가 눈을 떴으나, 예전의 그녀와는 다른 사람 같았다. 눈동자에는 먼 곳을 응시하는 듯한 초점이 없었고, 목소

리에는 내가 처음 듣는 슬프고도 몽환적인 기운이 서려 있었다. 교수는 조용히 하라는 듯 손을 들어 올리며, 다른 사람들을 안으로 들여보내라고 내게 신호를 보냈다. 사람들은 발소리를 죽인 채 들어와 문을 닫고는 침대 발치에 서서 지켜보았다. 미나는 그들을 보지 못하는 듯했다. 정적을 깨고 반 헬싱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사색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한 조심스러운 말투였다.

"어디인가요?" 대답은 무미건조하게 돌아왔다.

"모르겠군요. 잠이라는 게 머물 곳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미나는 몸을 뻣뻣하게 굳힌 채 앉아 있었고, 반 헬싱 교수는 그녀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나머지 우리 중 누구도 감히 숨을 크게 내쉬지 못했다. 방 안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다. 반 헬싱 박사는 미나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내게 블라인드를 올리라고 손짓했다. 내가 그대로 실행하자 곧바로 낮이 밝아오는 듯했다. 붉은 빛줄기가 치솟더니 장밋빛 광채가 방 안 가득 퍼져 나갔다. 그 순간, 교수가 다시 입을 열었다.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대답은 몽롱하면서도 어떤 의도를 담은 채 흘러나왔다. 마치 무언가를 해석하고 있는 듯한 목소리였다. 그녀가 속기 노트를 읽을 때도 이와 똑같은 어조를 내는 것을 나는 들은 적이 있다.

"모르겠습니다. 모든 게 다 낯설기만 합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온통 캄캄합니다."

"무엇이 들립니까?" 교수의 인내심 어린 목소리 속에서 긴장감이 느껴졌다.

"물이 찰랑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졸졸 소리를 내며 흘러가고, 작은 물결들이 튀어 오릅니다. 바깥쪽에서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지금 배 위에 있다는 건가요?"

우리는 모두 상대의 얼굴에서 무언가 단서를 읽어내려 애쓰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조차 두려웠다. 곧바로 대답이 돌아왔다.

"오, 그럼요!"

"그 밖에 또 무엇이 들립니까?"

"머리 위에서 사람들이 뛰어다니며 발을 구르는 소리가 들려. 쇠사슬이 삐걱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캡스턴의 걸쇠가 래칫에 걸리며 챙그랑하고 크게 울리는 소리도 들려."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요?"

"난 여전히…… 아, 너무나도 고요해. 마치 죽은 것만 같아!" 목소리는 잠든 사람의 깊은 숨소리처럼 잦아들었고, 뜨여 있던 눈은 다시 감겼다.

"그렇다면 지체할 시간이 없군요. 아직 너무 늦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모리스 씨와 고달밍 경이 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으나, 교수의 차분한 목소리가 그들을 불러 세웠다.

"친구들이여, 잠시만 기다려요. 그 배가 어디에 있었든, 그녀가 말을 하는 동안 닻을 올리고 있었을 거예요. 당신들의 그 거대한 런던 항구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배가 닻을 올리고 있지요. 그중 우리가 찾는 배가 대체 무엇인가요? 비록 이 단서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는 알 수 없지만, 다시금 실마리를 찾았으니 하느님께 감사해야겠지요. 우리는 그동안 다소 눈이 멀어 있었어요. 인간의 한계 때문에 눈이 멀었던 것이지요. 뒤를 돌아보고 나서야, 만약 앞을 내다볼 수 있었다면 보았을 법한 것들을 이제야 깨닫게 되니 말이에요! 아, 하지만 방금 한 말은 너무 횡설수설했군요, 그렇지 않나요?

조너선이 휘두른 날카로운 칼날 때문에 드라큘라 백작이 스스로 두려워할 만큼 위험에 처했을 때, 그가 왜 그 돈을 움켜쥐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는 도망치려 했던 거예요. 내 말을 들어요, 도망이라니까요! 그는 남은 흙 상자가 단 하나뿐인 상황에서, 마치 사냥개들이 여우를 쫓듯 사람들이 자신을 뒤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런던은 더 이상 그가 머물 곳이 아니었던 거죠. 그는 마지막 흙 상자를 배에 싣고 육지를 떠나려 한 거예요.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아니요! 우리가 그를 뒤쫓을 겁니다. 붉은 코트를 차려입은 아서가 외칠 법한 구호처럼, '사냥 시작이다!'라고 말이죠. 우리의 늙은 여우는 아주 교활해요. 정말이지 너무나 교활해서, 우리도 그만큼 교활하게 맞서야

만 해요. 저 역시 교활하게 마음을 다잡고, 머지않아 그의 생각을 읽어낼 겁니다.

그러니 일단은 평온하게 휴식을 취해요. 그와 우리 사이에는 그가 건너고 싶어 하지도 않고, 건너고 싶다 해도 건널 수 없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으니까요. 배가 육지에 닿지 않는 한 말이에요. 설령 닿는다 해도 만조나 간조 때뿐이겠죠. 보세요, 이제 막 해가 떴으니 해 질 녘까지는 우리에게 온종일이나 다름없어요. 우선 씻고 옷을 갈아입은 뒤, 다 같이 아침 식사를 해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식사이고, 그가 우리와 같은 땅에 있지 않으니 편안하게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미나는 간곡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하지만 그가 우리 곁을 떠나버렸는데, 굳이 더 찾아 헤맬 필요가 있겠어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가볍게 다독이며 대답했다.

"아직은 아무것도 묻지 말게. 아침 식사를 하고 나면 그때 모든 질문에 답하겠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고, 우리는 각자 옷을 입기 위해 자리를 떴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미나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졌다. 그는 잠시 동안 엄숙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더니, 이내 슬픈 기색을 띠며 말했다.

"사랑하는 미나 부인,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반드시 그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설령 지옥의 아가리 속까지 그를 쫓아가야 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녀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하며 안색이 더욱 창백해졌다.

"어째서입니까?"

"그건 말입니다." 그가 엄숙하게 대답했다. "그자는 수백 년을 살 수 있는 존재이지만, 당신은 그저 필멸의 여인일 뿐이니까요. 그자가 당신의 목에 그 흔적을 남긴 이상, 이제 시간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정신을 잃고 앞으로 쓰러지려는 찰나, 나는 마침 제때에 다가가 그녀를 붙잡을 수 있었다.

제XXIV장

수어드 박사의 축음기 일기, 반 헬싱이 낭독함

조너선 하커에게.

사랑하는 미나 부인의 곁을 지키십시오. 우리는 이제 수색을 떠날 겁니다. 수색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사실 이건 수색이라기보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러 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남아서 부인을 돌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도 성스러운 임무입니다. 오늘 그자가 이곳에서 발견될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우리 네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당신도 알 수 있도록 미리 말씀드리지요. 그들에게는 이미 다 이야기해 두었으니까요. 우리의 적, 그자는 떠났습니다. 그는 트란실바니아에 있는 자신의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거대한 불의 손이 벽 위에 써 내려간 것처럼, 나는 그 사실을 아주 확신합니다. 그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 상황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 마지막 흙 상자도 어딘가로 실어 나르기 위해 준비되어 있었지요. 바로 이를 위해 그는 돈을 챙겼고, 해가 지기 전에 우

리에게 붙잡히지 않으려고 마지막 순간에 서두른 것입니다. 탈출이야말로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다만, 그가 무덤 속에 숨을 길도 남아 있긴 했지요. 그는 자신과 닮았다고 여긴 가여운 루시 양이 그 무덤을 자신에게 열어두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길마저 막히자 그는 곧장 마지막 수단으로 향했습니다. 중의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그의 마지막 '토목 공사'라고나 할까요. 그는 영리합니다. 오, 정말 영리해요! 그는 이곳에서의 게임이 끝났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이지요. 그는 자신이 왔던 항로로 지나가는 배를 찾아 그곳에 몸을 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배가 어디로 향하는지 찾아 나서겠습니다. 그것을 알아내면 곧장 돌아와 당신에게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운 희망으로 당신과 가여운 미나 부인을 위로하겠습니다. 차분히 생각해보면 그것은 희망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쫓는 이 괴물은 런던까지 오는 데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어떻게 처치해야 할지 알아낸 뒤 단 하루 만에 그를 몰아냈습니다. 그는 강력한 힘을 가졌고 우리처럼 고통을 느끼지도 않지만, 결국 유한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목적 아래 강하며, 함께할 때 더욱 강합니다. 미나 부인의 사랑하는 남편이여, 다시 용기를 내십시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며, 결국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신께서 높은 곳에 앉아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보고 계신 것처럼, 이 승리는 확실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부디 기운을 내고 계십시오.

반 헬싱.

조너선 하커의 일기.

10월 4일.

축음기에 담긴 반 헬싱의 메시지를 미나에게 읽어주자, 가여운 그녀의 안색이 눈에 띄게 밝아졌다. 드라큘라 백작이 이미 국외로 떠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미나는 큰 위안을 얻은 듯했다. 미나에게는 그 위안이 곧 버틸 힘이 된다. 나 역시 그 끔찍한 위험이 눈앞에 닥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차마 그것이 실재한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다. 드라큘라 성에서 겪었던 그 끔찍한 경험들조차 마치 오래전 잊힌 꿈처럼 느껴진다. 이곳의 상쾌한 가을 공기와 눈부신 햇살 아래 있으면 말이다.

아아, 내가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 생각에 잠겨 있던 중, 내 가여운 연인의 하얀 이마에 남은 붉은 흉터가 눈에 들어왔다. 저 흉터가 남아 있는 한, 의심은 설 자리가 없다. 나중에는 저 흉터에 대한 기억만으로도 믿음은 수정처럼 투명하게 유지될 것이다. 미나와 나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일기들을 몇 번이고 다시 읽고 또 읽었다. 신기하게도 사실을 마주할 때마다 현실의 무게는 더 크게 느껴지지만, 고통과 공포는 오히려 줄어드는 듯하다. 모든 과정 속에 어떤 인도하는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그 점이 위안이 된다. 미나는 어쩌면 우리가 궁극적인 선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그럴지도 모른다! 나도 미나처럼 생각하도록 노력하겠다. 우리는 아직 미래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교수님과 다른 분들이 조사를 마친 뒤에 그들을 만나고 나서 이야기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하루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다시는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흐르는 날이 없을 줄 알았다. 지금은 세 시다.

미나 하커의 일기.

10월 5일, 오후 5시. — 보고를 위한 회의. 참석자: 반 헬싱 교수, 고달밍 경, 수어드 박사, 퀸시 모리스 씨, 조너선 하커, 미나 하커.

반 헬싱 박사는 드라큘라 백작이 어떤 배를 타고 어디로 도망쳤는지 알아내기 위해 낮 동안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가 트란실바니아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나는 그가 반드시 다뉴브강 하구나 흑해 어딘가를 거쳐야만 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가 그 길로 왔으니 말이다. 우리 앞에는 막막한 공백만이 놓여 있었다. '모르는 것은 모두 웅장해 보이는 법(Omne ignotum pro magnifico)'이라 했던가.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어젯밤 흑해로 떠난 배가 있는지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미나 부인이 돛을 올린다고 말했으니, 그는 범선에 타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이 정도 규모의 배는 <더 타임스>지의 선박 명단에 오를 만큼 중요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고달밍 경의 제안에 따라 로이드(Lloyd's)로 향했다. 그곳에는 아무리 작은 배라도 출항 기록이 모두 남겨져 있었다.

조사 결과, 조수를 따라 흑해로 향한 배는 단 한 척뿐이었다. 바로 '차리나 캐서린(Czarina Catherine)'호였다. 이 배는 둘리틀 부두를 떠나 바르나로 향한 뒤, 다른 지역들을 거쳐 다뉴브강 상류로 올라가는

항로였다. “아하!” 나는 “백작이 탄 배가 바로 이 배로군!” 하고 말했다.

우리는 곧장 둘리틀 부두로 향했다. 그곳의 어느 목조 사무실에서 우리는 한 남자를 만났는데, 사무실이 어찌나 작은지 남자가 사무실보다 더 커 보일 정도였다. 우리는 그에게 ‘차리나 캐서린’호의 행방을 물었다. 그는 욕을 입에 달고 살았고 얼굴은 붉게 상기된 데다 목소리도 컸지만, 그래도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다. 퀸시 모리스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건네자, 남자는 그것을 돌돌 말았고 그 종이는 바스락 소리를 냈다. 그러고는 옷 깊숙이 숨겨둔 아주 작은 주머니에 그것을 넣었다. 돈을 받은 뒤 그는 한결 더 친절해졌고 우리에게 극진히 대했다.

그는 우리와 함께 길을 나서며 거칠고 다혈질인 사내들에게 이것저것 물었다. 목을 축이고 나니 그 사내들도 역시 좋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빌어먹을’이니 ‘제기랄’이니 하는 욕설을 잔뜩 늘어놓았고, 내가 다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무슨 뜻인지 짐작은 가는 다른 말들도 떠들어댔다. 어쨌든 그들은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어제 오후 다섯 시쯤 몹시 서두르는 한 남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키가 크고 마른 데다 창백한 안색을 가졌으며, 코는 높고 치아는 유난히 하얗고 눈은 마치 타오르는 듯한 남자라고 합니다. 온통 검은 옷차림인데, 그에게도 그 계절에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밀짚모자를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흑해로 향하는 배가 어느 것인지, 또 어디로 가는지 급히 물으며 돈을 아낌없이

뿌렸습니다. 어떤 이들이 그를 사무실로, 다시 배가 있는 곳까지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배에 올라타지 않고 승강판의 육지 쪽 끝에 멈춰 서서 선장이 직접 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례를 톡톡히 하겠다는 말을 듣자 선장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욕설을 퍼부으며 거부하던 선장도 결국 조건에 동의했습니다.

그 후 그 마른 남자는 자리를 떠났고, 누군가 말과 마차를 빌릴 수 있는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그곳으로 갔다가 곧 다시 돌아왔는데, 커다란 상자가 실린 마차를 직접 몰고 나타났습니다. 그 상자를 배로 옮길 짐수레에 싣는 데는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야 했지만, 정작 상자를 마차에서 내릴 때는 그가 혼자서 직접 들어 내렸습니다. 그는 선장에게 자신의 상자를 어디에 어떻게 실어야 하는지 길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선장은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여러 나라 말로 욕설을 내뱉으며, 정 원한다면 직접 와서 상자를 놓을 자리를 확인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아직 할 일이 많으니 지금은 가지 않겠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선장은 어서 서두르는 게—빌어먹을—좋을 거라고, 조수가 바뀌기 전에—제기랄—배가 떠날 거라고—빌어먹을—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마른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물론 선장께서 적당하다 여기실 때 떠나셔야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빨리 떠나게 된다면 도리어 놀라실 겁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선장이 다시금 여러 나라 말로 욕설을 퍼붓자, 남자는 그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건네며, 출항 전에 직접 배에 올라 선장의 호의에 한 번 더 폐를 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장은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붉어진 채, 더욱 다양한 언어로,

빌어먹을 프랑스 놈 따위는—제기랄—자기 배에—빌어먹을—태우고 싶지 않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선박 서류를 살 수 있는 곳이 근처 어디에 있는지 물은 뒤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그들 표현을 빌리자면 '눈곱만큼도 신경 쓰지' 않았다. 다들 신경 쓸 다른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여기서도 또 한바탕 욕설이 섞여 나왔다. 곧 차리나 캐서린호가 예상대로 출항하지 못하리라는 사실이 모두에게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강에서 얇은 안개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더니, 점점 더 짙어지며 배와 그 주변을 통째로 집어삼킬 듯이 에워쌌다. 선장은 '빌어먹을'이니 '제기랄'이니 욕설을 섞어가며 온갖 나라 말로 퍼부어댔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물은 점점 차올랐고, 그는 물때를 아예 놓쳐버릴까 봐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만조가 되었을 무렵, 기분이 몹시 언짢아진 선장 앞에 그 마른 남자가 다시 승강판을 타고 올라왔다. 그는 자신의 상자가 어디에 실렸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그러자 선장은 그자와 그 상자가—빌어먹을 낡아빠진 그 상자가—차라리 지옥에나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마른 남자는 화를 내지 않았다. 그는 일등 항해사와 함께 내려가 상자가 놓인 곳을 확인하고는, 다시 올라와 안개 자욱한 갑판 위에 잠시 서 있었다. 아무도 그를 눈여겨보지 않은 것을 보면, 분명 혼자서 배에서 내린 모양이다. 사실 사람들은 그를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곧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며 다시 시야가 트였기 때문이다.

갈증을 호소하던, 그리고 입만 열면 '빌어먹을' '제기랄' 욕설을 달고 살던 내 친구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선장이 내뱉은 욕설이 평소 쓰던 잡다한 언어보다 훨씬 심했을 뿐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다채롭고 걸쭉했다며 떠들어댔다. 그 시각 강 위를 오르내리던 다른 선원들에게 물어보니, 부두 주변을 제외하고는 안개를 본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어쨌든 배는 썰물 때를 맞춰 출항했고, 아침이면 의심할 여지 없이 강 하구 멀리까지 내려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전해 들었을 무렵, 배는 이미 바다로 멀리 나간 상태였다.

"그러니까, 친애하는 미나 부인, 지금은 잠시 쉬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적이 안개를 부하처럼 거느린 채 바다 위에서 다뉴브강 하구를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가 아무리 빨라도 항해에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지요. 우리는 배보다 더 빠르게 육로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그를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회는 해가 뜨고 질 사이, 즉 낮 동안 그가 상자 안에 들어 있을 때 그를 덮치는 것입니다. 그때라면 그는 저항할 수 없을 것이고,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에게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할 날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배의 선주를 만났고, 그로부터 송장과 구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찾는 상자는 바르나에 상륙하여 리스티크라는 대리인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신분 증명서를 제시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상인 친구의 역할은 끝납니다. 그가 혹 무언가 잘못된

점이 있는지, 그렇다면 전보를 보내 바르나 측에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물었을 때,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고 답했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일은 경찰이나 세관이 관여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만이, 우리만의 방식으로 해내야만 합니다."

반 헬싱 박사의 말이 끝나자, 나는 그에게 백작이 정말로 배에 남아 있었던 것이 확실한지 물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가장 확실한 증거가 여기 있네. 오늘 아침 자네가 최면 상태에 빠졌을 때 말해준 증언 말일세." 나는 다시 한번 그에게 백작을 반드시 뒤쫓아야만 하는지 물었다. 조너선이 내 곁을 떠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간다면 그도 분명히 따라갈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차분하게 말하더니, 점차 격앙된 어조로 대답하기 시작했다. 말이 이어질수록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화가 나고 강압적으로 변해갔다. 결국 우리는 그가 오랫동안 사람들을 지배해 온 그 압도적인 위엄을 고스란히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반드시, 반드시 말입니다! 우선은 당신을 위해서, 그다음은 인류를 위해서 말입니다. 이 괴물은 이미 자신이 처한 좁은 영역 안에서, 그리고 아직 어둠 속을 더듬으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짧은 시간 동안에도 이미 많은 해를 끼쳤습니다. 나는 다른 이들에게도 이 모든 사실을 말해 두었습니다. 친애하는 미나 부인, 당신은 내 친구 존의 축음기나 당신 남편의 축음기를 통해 이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넘쳐나서 마치 끝없이 펼쳐진 곡식 밭과도 같은 이 새로운 땅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황폐한 땅을 떠나 이주하는 일은 수 세기에 걸쳐 이루어지는 대업이라고 말입니다. 만약 그와 같은 또 다른 언데드가 그가 한 짓을 따라 하려 한다면, 아마 세상의 지나온 세월과 다가올 세월을 모두 합쳐도 그를 도울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의 경우에는, 신비롭고 깊으며 강력한 자연의 모든 힘이 어떤 경이로운 방식으로 함께 작용해야만 가능했을 일입니다. 그가 살아있던 곳이자 이 수 세기 동안 언데드로 지내온 바로 그 장소는, 지질학적이고 화학적인 세계의 기이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곳에는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동굴과 균열이 존재합니다. 화산도 있었는데, 그중 일부는 여전히 기이한 성질의 물을 내뿜고 있으며, 생명을 앗아가거나 혹은 되살리는 가스를 뿜어내기도 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기이한 방식으로 물리적 생명력을 작동시키는 저 신비한 힘들의 조합 속에는 자기력이나 전기적인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 또한 처음부터 어떤 위대한 자질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거칠고 전쟁이 끊이지 않던 시절, 그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강인한 신경과 예리한 두뇌, 그리고 용맹한 심장을 가졌다고 칭송받았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생명 원리가 기이한 방식으로 극치에 달해 있었고, 육체가 강건하게 유지되며 성장하고 번성함에 따라 그의 두뇌 또한 함께 발달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그에게 분명히 존재할 악마적인 도움 없이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 악마의 힘은 선을 상징하며 선으로부터 기원하는 권능 앞에 굴복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는 우리에게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당신을 감염시켰습니다. 오, 미안합니다, 친애하는 부인. 이런 말을 해야 한다니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당신을 위해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그런 방식으로 감염시켰습니다. 설령 그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해도, 당신은 그저 살아있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의 예전처럼 달콤하고 평온한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흘러, 인간의 공통된 운명이자 하나님의 허락 아래 있는 죽음이 당신을 그와 같은 존재로 만들 것입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함께 맹세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바친 이 세상과 인류가,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힐 괴물들에게 내맡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한 영혼을 구원할 기회를 허락하셨고, 우리는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든 옛 기사들처럼 나아갑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일출을 향해 나아갈 것이며, 그들처럼 만약 우리가 쓰러진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명분을 위해 쓰러질 것입니다."

그는 말을 멈추었고, 나는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백작이 자신의 거절을 현명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을까요? 영국에서 쫓겨난 이상, 사냥당한 마을을 피하는 호랑이처럼 그도 영국을 멀리하지 않겠습니까?"

"아하!" 그가 말했다. "나에게는 호랑이에 비유한 그대의 말이 아주 적절하군. 나도 그 비유를 빌려 쓰겠네. 인도 사람들이 사람의 피를 맛본 호랑이를 일컫듯, 일단 사람을 잡아먹기 시작한 맹수는 다른 먹잇감에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지. 오직 목표를 잡을 때까지 끊임없이 배회할 뿐이라네. 우리 마을에서 쫓고 있는 저 존재 또한 호랑이, 즉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며,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배회하고 있네. 아니, 그는 스스로 물러나 멀리 떨어져 머물 위인이 아니야. 살아있는 생애 동안 그는 터키 국경을 넘어 적의 본거지를 직접 공격하곤 했지. 설령 패하여 물러날지언정, 그가 머물러 있었던가? 아니! 그는 다시, 또 다시, 몇 번이고 돌아왔다네. 그의 끈기와 인내심을 보게나. 그는 어린아이 같은 지능을 가졌음에도, 이미 오래전부터 거대 도시로 가겠다는 구상을 마쳤었네. 그가 무엇을 했는가? 그는 세상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망한 장소를 찾아냈네. 그러고는 그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아주 신중하게 준비를 시작했지. 인내심을 갖고 자신의 힘과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보았네.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고, 새로운 사회 생활을 익혔으며, 자신이 떠나온 이후에 생겨난 새로운 환경과 관습, 정치, 법률, 금융, 과학,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의 방식까지 모두 배웠네. 그가 엿본 세상은 그저 식욕을 돋우고 욕망을 날카롭게 세울 뿐이었네. 아니, 그것은 그의 지적 성장을 도왔지. 그 모든 과정이 자신이 처음에 세웠던 추측이 옳았음을 증명해 주었기 때문이라네. 그는 이 모든 일을 홀로, 오로지 혼자서 해냈네! 잊힌 땅의 폐허가 된 무덤 속에서 말일세. 이제 더 넓은 사유의 세계가 열렸으니, 그가 못 할 일이 무엇이겠나. 우리가 익히 알듯, 그는 죽음 앞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고, 온 민족을 몰살시키는 질병 속에서도 번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오, 만약 그런 존재가 악

마가 아닌 신으로부터 온 자라면, 이 오래된 세상에 얼마나 큰 선의 힘이 되겠는가!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해방시키기로 맹세했네. 우리의 수고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의 노력은 모두 비밀리에 진행되어야 하네. 눈에 보이는 것조차 믿지 않는 이 계몽된 시대에는, 현자들의 의심이야말로 그의 가장 큰 힘이 될 것이기 때문이네. 그 의심은 그의 칼집이자 갑옷이 될 것이며, 동시에 우리를 파멸시킬 무기가 될 것이네.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인류의 안녕과 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 자신의 영혼까지 기꺼이 위험에 빠뜨리려는 우리 적들을 말일세."

전반적인 논의를 거친 끝에, 오늘 밤은 아무것도 확정 짓지 않기로 했다. 일단은 모두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들을 곱씹으며 숙고해 보기로 했다. 내일 아침 식사 자리에서 다시 모여 각자의 결론을 공유한 뒤,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 * * * *

오늘 밤은 경이로울 정도로 평온하고 안온하다. 마치 나를 짓누르던 어떤 유령 같은 존재가 사라진 기분이다. 어쩌면…

내 짐작은 거기서 끝날 수 없었다. 아니, 끝날 수도 없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이마 위로 붉은 자국이 선명히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여전히 부정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수어드 박사의 일기.

10월 5일.

우리 모두 일찍 일어났다. 잠을 푹 자고 나니 모두의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듯했다. 이른 아침 식사를 위해 모였을 때, 우리 중 누구도 예상치 못했을 만큼 모두의 얼굴에는 활기가 넘쳐흘렀다.

인간의 본성이 이토록 강인하다는 사실은 참으로 경이롭다. 어떤 방해 요소가 나타나든,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원인이 제거되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희망과 즐거움이라는 근본적인 상태로 되돌아간다. 우리가 식탁에 둘러앉아 있을 때면, 지난 며칠간의 일이 모두 꿈은 아니었을까 의구심이 들 정도로 경이로운 기분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커 부인의 이마에 남은 붉은 반점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현실로 돌아올 수 있었다. 지금 이 문제를 엄중하게 되짚어보고 있는 중임에도, 우리를 괴롭히는 그 원인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실감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하커 부인조차 한동안은 자신의 고통을 잊고 지내는 듯 보인다. 무언가가 그 일을 다시 떠올리게 할 때마다 그 끔찍한 흉터를 생각할 뿐이다.

우리는 30분 뒤 내 서재에서 만나 앞으로의 행동 방침을 결정할 것이다. 이성보다는 직감에 가깝지만, 당장 마주할 난관이 하나 보인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모두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가여운 하커 부인의 혀가 어떤 신비로운 이유로 굳어버린 것은 아닐지 두렵다. 그녀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황을 미루어 볼 때, 그녀의 판단이 얼마나 명석하고 정확할지도 짐작이 간다. 하지만 그녀는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 않으려 하거나, 혹은 낼 수 없는 상태인 듯하다. 이 문제를 반 헬싱에게도 언급했기에, 우리는 단둘이 있을 때 이 부분을 심도 있

게 논의할 예정이다. 아마도 그녀의 혈관에 스며든 그 끔찍한 독이 작용하기 시작한 것이리라. 백작이 반 헬싱이 '뱀파이어의 피의 세례'라고 부른 것을 그녀에게 행했을 때, 거기에는 백작 나름의 목적이 있었다. 글쎄, 좋은 것에서도 독이 추출될 수 있는 법이다. 프토마인(ptomaines)의 존재조차 미스터리인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이상하게 여기겠는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이다. 만약 가여운 하커 부인이 침묵하는 이유에 대한 나의 직감이 맞다면, 우리 앞에 놓인 과업에는 끔찍한 난관, 즉 알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녀를 침묵하게 만드는 바로 그 힘이, 그녀를 말하게 강요할 수도 있다. 더 이상은 감히 생각하고 싶지 않다. 계속 생각하다가는 내 마음속에서 고결한 여인을 모욕하게 될 것만 같기 때문이다.

반 헬싱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일찍 내 서재로 오기로 했다. 그가 도착하면 슬쩍 화제를 꺼내 보아야겠다.

* * * * *

나중에.--교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우리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교수님은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 보였으나, 선뜻 화제를 꺼내기를 망설이는 기색이었다. 한참을 에둘러 말하던 그는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친구인 존, 우선 우리 둘이서만 따로 이야기해야 할 게 있네.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말

이야.” 그는 말을 멈췄고, 나는 그가 이어가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그가 말을 이었다.

“미나 부인, 우리의 가엾고 소중한 미나 부인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나의 가장 끔찍한 예감이 사실로 확인되자 온몸에 차가운 전율이 일었다. 반 헬싱은 말을 이어갔다.

“루시 양의 비극적인 사례를 거울삼아, 이번에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전에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졌으며, 이 새로운 위협으로 인해 매 순간이 매우 절박합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흡혈귀의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보입니다. 지금은 아주, 아주 미미한 수준이지만, 편견 없이 알아챌 수 있는 눈을 가졌는지는 두고 봐야겠지요. 그녀의 치아는 조금 더 날카로워졌고, 때때로 눈빛은 더 차갑고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루시 양이 그랬던 것처럼, 그녀에게서 자주 침묵이 느껴집니다. 루시 양은 나중에 알려지길 바라는 내용을 글로 남길 때조차 입을 열지 않았지요. 지금 제가 두려운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최면 상태에 빠뜨림으로써 그녀가 드라큘라 백작이 보고 듣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면, 반대로 그녀를 먼저 최면 상태로 만들고 그녀의 피를 마셨으며 그녀 또한 자신의 피를 마시게 한 그가, 마음만 먹는다면 그녀가 아는 것을 털어놓도록 그녀의 정신을 강제로 조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말을 이어갔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를 막는 것뿐이네. 그녀가 우리의 의도를 모르게 해야 해. 그래야 알지도 못하는 사실을 떠벌리고 다니지

않을 테니까.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군! 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괴롭네! 하지만 어쩔 수 없네. 오늘 그녀를 만나면,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논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저 우리가 지켜주어야만 한다고 말해야 하네."

그는 이마를 닦아냈다. 이미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가련한 영혼에게 자신이 가해야 할 상처를 떠올리자, 이마에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린 것이다. 내가 자신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해주면 그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임을 나는 알고 있었다. 적어도 의구심에서 오는 괴로움은 덜어줄 수 있을 테니까. 나는 그에게 그렇게 말했고,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였다.

이제 우리가 모두 모일 시간이 가까워졌다. 반 헬싱은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 그리고 그가 맡은 고통스러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길을 떠났다. 그가 홀로 기도할 시간을 갖기 위해 떠난 것이라고 나는 진심으로 믿는다.

* * * * *

나중에.--우리가 만났을 때, 반 헬싱 교수와 나는 개인적으로 커다란 안도감을 느꼈다. 하커 부인이 남편을 통해 전해온 메시지에 따르면, 그녀는 지금 당장 우리와 합류하지 않겠다고 했다. 우리가 그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교수와 나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왠지 모르게 우리 둘 다 마음이 놓이는 기분이었다. 내 생각에는 하커 부인이 스스로 위험을 직감한 듯했다. 그렇다면 그녀는 큰 고통을 피한 셈이자, 동시

에 큰 위험을 면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우리는 상황을 고려하여, 다시 단둘이 만날 때까지는 서로의 의심스러운 정황을 함구하기로 했다. 눈빛을 교환하고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대며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즉시 대응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반 헬싱 교수는 먼저 지금까지 파악된 사실들을 대략적으로 정리해 주었다.

"차리나 캐서린 호가 어제 아침 템스강을 떠났네. 배가 아무리 빠른 속도로 달려도 바르나에 도착하려면 적어도 3주는 걸릴 거야. 하지만 우리는 육로를 이용하면 3일 만에 그곳까지 갈 수 있지. 백작이 불러올 기상 악화 같은 변수를 고려해서 배의 항해 기간을 이틀 정도 줄여 잡고, 예상치 못한 지연 상황에 대비해 하루 낮밤을 더 여유 있게 잡더라도, 우리에겐 거의 2주의 시간이 남네. 그러니 만일을 대비해서 늦어도 17일에는 이곳을 떠나야 해. 그래야 배가 도착하기 하루 전에는 바르나에 도착해서 필요한 준비를 마칠 수 있을 테니까. 물론 우리 모두 무장을 하고 가야겠지. 육체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영적인 악의 세력에 맞설 수 있도록 말이야." 퀸시 모리스는 말을 이었다.

"백작이 늑대들이 들끓는 곳에서 왔다고 들었네. 어쩌면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할지도 모르지. 우리 무기에 윈체스터 소총을 추가하는 게 좋겠어. 이런 종류의 문제가 생길 때는 윈체스터를 믿게 되더군. 아서, 토볼스크에서 늑대 무리가 우리를 뒤쫓던 때를 기억하나? 그때 우리 각자에게 연발총 한 자루씩만 있었어도 얼마나 좋았을까!"

"좋습니다!" 반 헬싱이 말했다. "윈체스터 소총으로 하도록 하죠. 퀸시는 언제나 냉철하지만, 특히 사냥할 일이 있을 때면 그 판단력이 더

욱 빛을 발하지요. 비유하자면, 늑대가 인간에게 끼치는 위험보다 은유적인 표현이 과학에 끼치는 모욕이 더 클 지경이니 말입니다. 그동안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바르나에 익숙하지 않으니, 차라리 그곳으로 빨리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기다리나 거기서 기다리나 매한가지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준비를 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다면 우리 네 사람은 곧 여정을 떠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넷이서 말입니까?" 하커가 의아한 듯 우리를 한 명씩 번갈아 바라보며 물었다.

"물론이지요!" 교수가 재빨리 대답했다. "그토록 사랑스러운 부인을 돌보려면 당신은 이곳에 남아야만 합니다!" 하커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더니, 이내 공허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문제는 내일 아침에 이야기합시다. 미나와 상의해 보고 싶군요."

나는 지금이야말로 반 헬싱이 그에게 우리 계획을 미나에게 누설하지 말라고 경고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며 헛기침을 했다. 그러자 그는 대답 대신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대더니 고개를 돌려버렸다.

조너선 하커의 일기.

10월 5일, 오후.

오늘 아침 우리가 만난 뒤로 한동안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내 마음은 경이로움에 사로잡혔고, 그 여파로 능동적인 사고를 할 여유조차 없었다. 이번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미나의 단호한 태도는 나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다. 미나와 이 문제를 두고 논쟁할 수도 없었기에, 나는 그저 짐작할 뿐이었다. 지금도 해결책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다른 이들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방식 또한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지난번 이 주제로 대화했을 때, 우리는 우리 사이에 더 이상의 숨기는 일은 없기로 약속했었다.

미나는 지금 어린아이처럼 평온하고 달콤하게 잠들어 있다.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고 얼굴은 행복으로 빛난다. 미나에게 아직 이런 순간이 찾아온다는 사실에 신께 감사할 따름이다.

* * * * *

나중에.--이 모든 것이 참으로 기이하다. 나는 미나가 행복하게 잠든 모습을 지켜보며 앉아 있었다. 내 생애 아마도 이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싶을 만큼, 나 역시 깊은 행복을 느꼈다. 저녁이 깊어지고 해가 낮게 가라앉으며 대지에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방 안의 정적은 내게 점점 더 엄숙하게 다가왔다. 그때 갑자기 미나가 눈을 뜨더니, 나를 다정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조너선, 당신의 명예를 걸고 내게 약속 하나만 해줘요. 오직 나만을 위한 약속이어야 해요. 신께서 듣고 계시는 앞에서 신성하게 맺는 약속이어야 하고, 내가 무릎을 꿇고 비통한 눈물을 흘리며 애원할지라도 절

대로 깨뜨려서는 안 되는 약속이어야 해요. 어서요, 지금 당장 약속해 줘요."

"미나," 내가 말했다. "그런 약속은 지금 당장 할 수 없어요. 내게 그럴 권리가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사랑하는 당신," 그녀가 말했다. 눈동자가 북극성처럼 형형하게 빛날 만큼 영적인 열망이 가득 담긴 목소리였다. "이건 내 바람이에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내 생각이 틀렸다면 반 헬싱 박사에게 물어보셔도 좋아요. 만약 박사가 내 의견에 반대한다면, 당신은 당신 뜻대로 해도 돼요. 아니,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 모두가 동의한다면, 나에게 했던 약속은 없던 일로 해도 좋아요."

"약속할게요!" 내가 말했다. 그 말에 그녀는 잠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이마에 남은 붉은 흉터는, 그녀에게 그 어떤 행복도 허락되지 않을 것임을 내게 속삭이는 듯했다. 그녀가 말했다.

"백작을 상대로 세운 작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줘요. 말로든, 암시로든, 혹은 넌지시 비추는 식으로든 절대 안 돼요. 이 흉터가 내 몸에 남아 있는 동안에는 말이에요!" 그녀는 엄숙한 표정으로 자신의 흉터를 가리켰다. 그녀의 태도가 진심임을 깨달은 나는 나 역시 엄숙하게 대답했다.

"약속할게요!" 내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문 하나가 닫혀버렸다는 느낌이 들었다.

* * * * *

_자정 무렵._

미나는 저녁 내내 밝고 쾌활했다. 미나의 기운이 마치 전염이라도 된 듯, 그 밝음 덕분에 다른 이들 모두 용기를 얻은 것 같았다. 덕분에 우리를 짓누르던 우울한 그림자도 조금은 걷힌 기분이 들었다. 우리 모두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미나는 지금 어린아이처럼 깊이 잠들어 있다. 그 끔찍한 시련 속에서도 미나가 이토록 잠을 잘 자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신께 감사할 따름이다. 그래야 잠시라도 근심을 잊을 수 있을 테니까. 오늘 밤 미나의 밝은 모습이 나에게도 영향을 주었듯, 나 또한 미나를 본받으려 노력해야겠다. 부디 꿈도 없는 깊은 잠을 잘 수 있기를.

* * * * *

10월 6일, 아침.

또 다른 돌발 상황이 벌어졌다. 미나가 어제와 비슷한 시간인 이른 아침에 나를 깨우더니, 반 헬싱 박사를 불러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또 최면술을 쓸 일이 생긴 줄로만 알고 의심 없이 교수를 찾아 나섰다. 교수는 분명 이런 부름이 있을 거라 예상이라도 한 듯, 이미 방에서 옷을 갖춰 입고 있었다. 그의 방문은 살짝 열려 있어서 우리 방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모양이다. 그는 곧장 달려왔다. 방으로 들어서며 그는 미나에게 다른 사람들도 함께 와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아니요." 그녀가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당신이 그들에게 전해도 충분해요. 나는 당신의 여정에 동행해야겠어요."

반 헬싱 박사도 나만큼이나 깜짝 놀란 기색이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내 물었다.

"하지만 왜죠?"

"나를 꼭 데려가야 해요. 당신과 함께 있어야 내가 더 안전하고, 당신 또한 더 안전할 테니까요."

"하지만 왜 그러십니까, 친애하는 미나 부인? 당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저희의 가장 엄숙한 의무라는 사실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는 위험 속으로 뛰어들려 합니다. 당신은 그 위험에 우리 중 누구보다도 더 노출되어 있거나, 혹은 노출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건… 그동안 일어났던 여러 상황과 사건들 때문입니다." 그는 당혹스러운 듯 말을 멈췄다.

그녀는 대답하며 손가락을 들어 자신의 이마를 가리켰다.

"알아요. 그래서 가야만 하는 거예요. 해가 뜨고 있는 지금, 미리 말해둘게요. 다시는 이런 말을 못 할지도 모르니까요. 백작께서 원하신다면 저는 가야 한다는 걸 알아요. 만약 백작께서 비밀리에 오라고 명령하신다면, 속임수를 써서라도, 조너선까지도 속일 수 있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녀가 말을 이어갈 때 나를 바라보던 그 눈빛을 신께서 지켜보셨으리라. 만약 정말로 모든 것을 기록하는 천사가 존재한다면, 그 눈빛은 그녀의 영원한 영광으로 기록될 것이다. 나는 그저 그녀의 손을 맞잡을 뿐이었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감정이 너무나 격해져 눈물로 달래기조차 힘들었다. 그녀는 말을 계속했다.

"당신들은 용감하고 강한 사람들이에요. 혼자서 지켜내야 한다면 인간의 인내심이 바닥나 버릴 그 위협에 맞설 수 있을 만큼, 당신들은 머릿수가 많아 든든하니까요. 게다가 제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당신들이 저를 최면 상태로 만든다면, 저조차 알지 못하는 사실들을 알아낼 수 있을 테니까요." 반 헬싱 박사가 매우 엄숙하게 말했다.

"미나 부인, 당신은 언제나처럼 참으로 현명하시군요. 당신도 우리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 미나가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어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베개에 머리를 기댄 채 잠이 들어 있었다. 내가 블라인드를 올리고 방 안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게 해도 그녀는 깨어나지 않았다. 반 헬싱이 내게 조용히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다. 우리는 그의 방으로 향했고, 곧이어 고달밍 경과 수어드 박사, 그리고 모리스 씨도 우리와 합류했다. 반 헬싱은 미나가 했던 말을 그들에게 전한 뒤 말을 이었다.

"내일 아침이면 우리는 바르나를 향해 떠날 것이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변수, 즉 미나 부인을 마주하게 되었군. 아, 하지만 그녀의 영혼

은 참으로 순수하다네. 지금까지 우리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들을 말하는 것이 그녀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는가. 하지만 그것은 더없이 옳은 일이었고, 덕분에 우리는 제때 경고를 얻었네. 단 한 번의 기회도 놓쳐서는 안 되네. 바르나에 도착하면 그 배가 들어오는 즉시 행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하네."

"정확히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모리스 씨가 무뚝뚝하게 물었다. 교수는 대답하기 전 잠시 말을 멈추었다.

"우선 가장 먼저 그 배에 올라타야 하네. 그러고 나서 상자를 찾아내면, 그 위에 들장미 한 가지를 올려두는 거야. 그 가지를 단단히 묶어 고정해 두어야 하네. 미신에 따르면 장미가 그 자리에 있는 한 그 누구도 밖으로 나올 수 없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런 미신을 믿을 수밖에 없네. 태초의 인류는 믿음으로 살아왔고, 그 믿음은 오늘날까지도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말일세. 그러고 나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기회가 왔을 때, 즉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상자를 열면—그러면, 그러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걸세."

"기회를 엿보며 기다리지는 않겠네." 모리스가 말했다. "상자를 보는 즉시 열어젖히고 그 괴물을 없애버릴 거야. 설령 수천 명의 사람이 지켜보고 있다 해도, 그 대가로 당장 내 목숨을 잃게 된다 해도 말이야!" 나는 본능적으로 그의 손을 움켜쥐었다. 그의 손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는 내 눈빛을 이해한 듯했다. 부디 그랬기를 바랄 뿐이다.

"착한 아이구나." 반 헬싱이 말했다. "용감한 아이야. 퀸시는 진정한 사내다. 그런 그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얘야, 내 말을 믿으렴. 우리

중 누구도 두려움 때문에 뒤처지거나 주춤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단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말하는 것뿐이란다. 하지만 정말이지,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게 될지는 우리조차 단언할 수 없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고, 그 과정과 결과 또한 워낙 다양해서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지. 우리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무장할 것이며, 최후의 순간이 닥쳤을 때 우리의 노력은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오늘은 각자의 일을 정리해 두자꾸나. 우리를 아끼고 우리에게 의지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모든 일은 미리 마무리해 두어야 한다. 끝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찾아올지 우리 중 누구도 알 수 없으니 말이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내 개인적인 일들은 이미 정리해 두었다. 이제 다른 할 일이 없으니, 나는 여행 준비를 하러 가야겠다. 우리 여정에 필요한 모든 티켓과 필요한 것들을 챙겨 오마."

더는 할 말이 없었기에 우리는 헤어졌다. 이제 나는 세상의 모든 일을 정리하고, 어떤 일이 닥쳐오든 맞이할 준비를 하려 한다.

*****

나중에.--모든 준비를 마쳤다. 유언장도 작성했고, 모든 절차가 끝났다. 만약 미나가 살아남는다면, 그녀가 나의 유일한 상속인이 될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준 선량한 다른 이들에게 남은 재산이 돌아갈 것이다.

어느덧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미나의 불안한 기색을 보고 나도 그 사실을 알아차렸다. 정확히 해가 지는 순간, 그녀가 마음속에 품고 있

는 무언가가 드러날 것이라 확신한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출과 일몰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어가고 있다. 해가 뜨고 질 때마다 새로운 위험과 새로운 아픔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신의 뜻 안에서 결국 선한 결말로 이어지는 과정이기를 바랄 뿐이다. 사랑하는 미나가 지금 이 말을 듣게 해서는 안 되기에, 나는 이 모든 내용을 일기에 적어둔다. 훗날 그녀가 다시 이 글들을 읽을 수 있게 된다면, 그때는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녀가 나를 부르고 있다.

제XXV장

수어드 박사의 일기

10월 11일, 저녁.

조너선 하커가 이 내용을 기록해 달라고 내게 부탁했다. 그는 지금 이 일을 감당할 정신적 여력이 거의 없다고 말하며,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해 두기를 원하고 있다.

해 질 녘이 되기 직전, 우리 중 누구도 하커 부인을 대면하라는 요청을 받고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최근 우리는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유독 자유로운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 시간에는 그녀를 억누르거나 제약하는 힘도, 혹은 그녀를 자극해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힘도 없기에, 예전의 본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태는 실제 해가 뜨거나 지기 최소 30분 전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해가 높이 떠오르거나, 지평선 위로 쏟아지는 햇살에 구름이 여전히 붉게 빛나고 있는 동안까지 이어진다. 처음에는 마치 무언가 묶여 있던 매듭이 풀리는 것처럼 일종의 해방감이 찾아오고, 곧이

어 완전한 자유 상태가 이어진다. 하지만 그 자유가 끝나면, 잠시 불길한 정적이 흐른 뒤 곧바로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거나 다시 악화되고 만다.

오늘 밤 우리가 만났을 때, 그녀는 다소 긴장한 기색이었으며 내면에서 격렬한 갈등을 겪고 있는 듯 보였다. 나는 그녀가 가능한 한 빨리 이 일을 시작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불과 몇 분 지나지 않아 그녀는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러고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있던 그녀는 남편에게 옆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고, 나머지 우리에게도 의자를 가까이 가져오라고 권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맞잡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는 모두 자유로운 상태로 함께 모여 있네요, 아마도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당신, 알고 있어요. 당신은 끝까지 언제나 내 곁을 지켜줄 거라는 걸요."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다. 우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남편의 손은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움켜쥐었다. "내일 아침이면 우리는 각자의 임무를 위해 떠나야 해요. 우리 중 누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는 오직 신만이 아시겠지요. 당신이 나를 데려가 주겠다고 했으니, 내게는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영혼마저 길을 잃었을지도 모르는, 아니, 아직은 아니지만 어쨌든 위태로운 처지에 놓인 이 가련하고 연약한 여인을 위해, 용감하고 성실한 당신들이 해줄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줄 거라 믿어요. 하지만 당신들도 기억해야 해요. 나는 당신들과는 달라요. 내 혈관 속에는, 내 영혼 속에는 나를 파멸시킬 독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이 찾아오지 않는 한, 그 독은 반드시 나를 파멸시키고 말 거예요. 오, 친구들이여, 내 영혼이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당신들도 나만큼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나에게 탈출할 방법이 단 하나 있다는 것도 알지만, 당신들도 해서는 안 되고 나 또한 그 길을 택해서는 안 돼요!" 그녀는 남편을 시작으로 우리 모두를 차례로 바라보며 간절하게 호소했다.

"저 길은 대체 무엇입니까?" 반 헬싱이 쉰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아니, 가서는 안 될지도 모르는 저 길은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더 큰 악이 완전히 완성되기 전에, 내 손으로 죽든 타인의 손에 죽든 지금 당장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고 나면, 당신들이 가여운 루시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나의 불멸하는 영혼을 해방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나도 알고 당신들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죽음, 혹은 죽음에 대한 공포만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지금 당장 이곳에서 죽는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앞에 아직 희망이 남아 있고 완수해야 할 고통스러운 과업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죽는 것이 신의 뜻이라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 또한 영원한 안식이라는 확신을 이곳에 내려놓고, 이 세상이나 저승이 품고 있는 가장 검은 존재들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를 어둠 속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침묵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다른 이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하커의 안색은 재처럼 창백해졌다. 어쩌면 그는 우리 중 누구보다도 앞으로 닥쳐올 일을 더 잘 짐작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이건 제가 내놓을 수 있는 몫이에요." 그녀는 아주 진지한 태도로, 그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기묘한 법률 용어를 사용했다. 나는 그 점을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었다. "여러분은 각각 무엇을 내놓겠어요? 목숨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용감한 당신들에게 목숨을 바치는 건 쉬운 일이니까요. 당신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 그분께 다시 돌려드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무엇을 주시겠어요?" 그녀는 다시 한번 질문하듯 바라보았으나, 이번에는 남편의 눈을 피했다. 퀸시 모리스는 그 뜻을 알아들은 듯 고개를 끄덕였고, 그러자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럼 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 사이에 조금의 의구심도 남아서는 안 되니까요. 여러분 모두, 심지어 사랑하는 나의 남편 당신까지도, 만약 때가 온다면 반드시 저를 죽여주겠다고 제게 약속해 주세요."

"그게 어느 때를 말하는 겁니까?" 퀸시의 목소리였으나, 낮게 가라앉은 채 잔뜩 긴장되어 있었다.

"내가 너무나 변해버려서, 차라리 죽는 편이 살아서 버티는 것보다 낫겠다는 확신이 들 때, 그때를 기다려 주십시오. 내 육신이 이토록 죽은 상태가 된다면, 당신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내 몸에 말뚝을 박고 머리를 베어 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안식을 얻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주십시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가장 먼저 몸을 일으킨 사람은 퀸시였다.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맞잡으며 엄숙하게 말했다.

“저는 그저 거친 사내일 뿐입니다. 그런 영예를 얻을 만큼 제대로 된 삶을 살아오지도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합니다. 만약 때가 온다면, 당신이 우리에게 맡긴 임무를 결코 피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약속하건대, 모든 상황을 확실히 파악해 두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의구심이 든다면, 저는 그것을 바로 때가 온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녀는 몸을 굽혀 그의 손에 입을 맞추며, 쉴 새 없이 흐르는 눈물 사이로 "나의 진정한 친구!"라고 겨우 내뱉었다.

“저 또한 똑같이 맹세합니다, 친애하는 미나 부인!” 반 헬싱이 말했다.

“저도 하겠습니다!” 고달밍 경이 외쳤다. 그들 모두 차례로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맹세를 했다. 나 역시 그 뒤를 따랐다. 그러자 그녀의 남편이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다. 핼쑥하고 생기 없는 눈에, 푸르스름하게 감도는 창백한 안색은 눈처럼 새하얀 그의 머리카락마저 빛을 잃게 할 정도였다. 그가 물었다.

“나 또한 그런 약속을 해야만 하는 건가요, 오, 나의 아내여?”

“당신도 그래요, 내 사랑하는 사람.”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와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연민과 갈망이 서려 있었다. “겁내지 말아요. 당신은 내게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이며, 나의 온 세상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모든 생애와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로 묶여 있으니까요. 내 사랑, 생각해보세요. 용감한 남성들이 적의 손에 여인을 넘겨주지 않으

려고 아내와 사랑하는 여인을 직접 죽여야 했던 때도 있었답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이가 차라리 죽여달라고 애원하더라도, 남성들의 손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어요. 시련이 닥치는 그런 때에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는 것이 남성의 의무니까요! 아, 그리고 내 사랑, 만약 내가 어떤 손에 의해서든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면, 부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이의 손에 죽게 해 주세요. 반 헬싱 박사님, 가여운 루시의 경우에 사랑하는 이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자비로운 처사를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말을 멈추더니, 문장을 고쳐 말했다. "그녀에게 평온을 줄 가장 큰 권리가 있는 이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자비를 말이에요. 만약 내게도 그런 때가 온다면, 나를 짓누르는 이 끔찍한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 준 것이 바로 남편의 사랑 어린 손길이었다는 사실이, 내 남편의 생애에서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당신이 도와주기를 바라요."

"다시 한번 맹세하겠소!" 교수의 울림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커 부인은 안도 섞인 한숨을 내쉬며 몸을 뒤로 기대더니, 정말이지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경고를 드릴게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경고예요. 그 순간은, 만약 오게 된다면, 이번에는 아주 빠르고 예기치 않게 찾아올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이 닥치면 지체 없이 그 기회를 잡아야 해요. 그때가 되면 나 자신이—아니! 그런 때가 온다면, 나는 반드시—여러분의 적과 한편이 되어 여러분에게 맞서게 될 거예요."

"부탁이 하나 더 있어요." 그녀는 말을 이어가며 매우 엄숙한 표정을 지었다. "앞선 부탁처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중대한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괜찮다면, 저를 위해 한 가지만 더 해주셨으면 해요." 우리 모두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굳이 말을 보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매장 예식문을 읽어주었으면 해요." 그녀는 남편이 내뱉은 깊은 신음 소리에 말을 멈췄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아 자신의 심장 위에 얹으며 말을 이었다. "언젠가 내 머리맡에서 그 예식문을 꼭 읽어주어야 해요. 이 두려운 상황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든, 우리 중 누군가에게는 그 순간이 달콤한 기억으로 남을 테니까요. 사랑하는 당신만큼은 꼭 읽어주길 바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내 기억 속에는 영원히 당신의 목소리로 그 구절들이 남을 테니까요."

"하지만 오, 내 사랑하는 이여," 그가 간절히 애원했다. "죽음은 당신에게서 아주 멀리 있습니다."

"아니요." 그녀가 경고하듯 손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지상의 무덤이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깊은 죽음 속에 있어요!"

"아, 내 아내에게 이걸 꼭 읽어줘야 한단 말인가?" 그가 읽기 시작하기 전,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해주면 위안이 될 것 같아요, 여보!" 그녀가 내뱉은 말은 그것뿐이었다. 그녀가 책을 준비하자 그는 읽기 시작했다.

"내가 어떻게, 아니 대체 누가 그 기이한 광경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엄숙함과 어둠, 슬픔과 공포, 그러면서도 그 안에 깃든 달콤함까지 말입니다. 성스럽거나 감정적인 것이라면 무엇이든 비통한 진실을 흉내 낸 가식이라 치부하는 회의론자라 할지라도, 고통과 슬픔에 잠긴 여인 곁에 무릎을 꿇고 앉은 그 사랑스럽고 헌신적인 친구들의 모습을 보았다면 마음이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혹은 남편의 목소리에 담긴 애틋한 열정을 들었다면 더욱 그랬겠지요. 남편은 감정이 북받쳐 자꾸만 말을 멈추면서도, '죽은 자의 장례'라는 소박하고도 아름다운 예식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나,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겠습니다. 말도, 목소리도, 자꾸만 떨려와서……."

* * * * *

그녀의 직감은 옳았다. 그 모든 일이 기이했고, 당시 그 강력한 영향력을 직접 느꼈던 우리에게조차 나중에 돌이켜보면 기괴하게 느껴질지 모르나, 그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또한 하커 부인이 영혼의 자유를 잃고 다시금 병세가 악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그 침묵조차,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만큼 절망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았다.

조너선 하커의 일기.

10월 15일, 바르나.

우리는 12일 아침에 채링 크로스를 떠나 그날 밤 파리에 도착했고, 미리 예약해 둔 오리엔트 특급열차 좌석에 몸을 실었다. 밤낮없이 달린 끝에 이곳에 대략 5시쯤 도착했다. 고달밍 경은 자신에게 온 전보가 있

는지 확인하러 영사관으로 향했고, 나머지 우리는 이곳 '오데수스' 호텔로 들어왔다. 여정 중에 몇 가지 일이 있긴 했지만, 나는 어서 목적지에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앞선 나머지 그런 것들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차리나 캐서린'호가 항구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넓은 세상 그 무엇도 내게 흥미를 끌지 못할 것이다. 신께 감사할 따름이다! 미나는 건강하며 점점 기운을 차리는 듯 보인다. 안색도 돌아오고 있다. 미나는 잠을 아주 많이 잔다. 여행하는 내내 거의 내내 잠만 잤다. 하지만 해가 뜨기 전과 해가 질 무렵에는 매우 깨어 있고 정신이 또렷하다. 그래서 반 헬싱은 그 시간마다 미나를 최면 상태로 만드는 것을 습관처럼 하고 있다. 처음에는 약간의 노력이 필요해서 그가 손을 여러 번 휘둘러야 했지만, 이제 미나는 마치 습관처럼 즉시 최면에 빠져드는 듯하여 별다른 동작도 필요치 않다. 반 헬싱은 바로 그 순간에, 그저 의지만으로 미나의 생각을 복종시키는 힘을 발휘하는 듯하다. 그는 미나에게 무엇이 보이고 무엇이 들리는지 항상 묻는다. 미나는 첫 번째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온통 어둠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다.

"배에 부딪혀 찰랑이는 파도 소리와 옆을 스쳐 흐르는 물소리가 들려요. 돛과 밧줄이 팽팽히 당겨지고, 돛대와 활대가 삐걱거려요. 바람이 거세요. 삭구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가 들리고, 뱃머리는 물거품을 뒤로 밀어내고 있어요." <차리나 캐서린호>가 여전히 바다 위에서 바르나를 향해 서둘러 항해 중임이 분명하다. 고달밍 경이 방금 돌아왔다. 그는 우리가 출발한 이후로 매일 한 통씩, 모두 네 통의 전보를 받

았는데 하나같이 같은 내용이었다. <차리나 캐서린호>가 어디에서도 로이드(Lloyd's) 측에 보고된 적이 없다는 소식뿐이었다. 그는 런던을 떠나기 전에 대리인에게 배의 보고 여부를 매일 전보로 알려 달라고 미리 조치해 두었다. 설령 배의 소식이 없더라도 반드시 전보를 보내라고 당부했는데, 그래야 통신망 저편에서 누군가 계속 상황을 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저녁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은 부영사를 만나, 배가 도착하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승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반 헬싱은 해가 뜨고 질 사이의 시간에 배에 올라타는 것이 기회라고 말했다. 드라큘라 백작은 설령 박쥐의 형상을 취한다 해도,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흐르는 물을 건널 수 없기에 배를 떠날 수 없다. 또한 백작은 의심을 사는 것을 분명히 피하고 싶어 하므로, 눈에 띄지 않게 인간의 모습으로 변할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고, 결국 상자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 그러니 우리가 해가 뜬 뒤에 배에 올라탈 수만 있다면, 백작은 우리 손에 달려 있는 셈이다. 불쌍한 루시 때처럼, 백작이 깨어나기 전에 상자를 열어 확실히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가 우리로부터 어떤 자비를 얻을 수 있을지는 중요하지 않다.

관리들이나 선원들과 큰 마찰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이곳은 뇌물로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는 나라이고, 우리에게는 충분한 돈이 있다. 배가 해가 지고 난 뒤부터 해가 뜨기 전 사이에 우리에게 알리지도 않고 항구로 들어오지만 못하게 확인한다면, 모든 것이 안전할 것이다. 머니백 판사가 이 사건을 잘 해결해 줄 것이라 믿는다!

* * * * *

10월 16일. 미나의 보고는 여전히 같다. 찰랑이는 파도와 빠르게 흐르는 물, 어둠과 순조로운 바람뿐이다. 우리는 분명 충분히 여유 있게 도착할 것이고, <차리나 캐서린호>에 관한 소식이 들려오면 곧바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 배가 다르다넬스 해협을 지나야 하니, 분명 어떤 식으로든 소식이 전해질 것이다.

* * * * *

10월 17일.

백작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일정에 맞춰, 이제 모든 준비가 거의 끝난 것 같다. 고달밍은 선사 측에, 배에 실린 상자 안에 혹시라도 자신의 친구에게서 도난당한 물건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뜻을 전했다. 선사는 고달밍이 위험을 감수하고 상자를 열어보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했다. 선주는 고달밍에게 서면을 전달하며, 선상에서 그가 무엇을 결정하든 선장이 모든 편의를 제공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바르나에 있는 대리인에게도 이와 유사한 권한을 부여했다. 우리는 대리인을 만났는데, 그는 고달밍의 친절한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다. 우리 모두는 그가 우리의 뜻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상자를 열었을 때의 대처 방안도 이미 마련해 두었다. 만약 그 안에 백작이 있다면, 반 헬싱과 수어드 박사가 즉시 그의 머리를 베고 심장에 말뚝을 박을 것이다. 모리스와 고달밍, 그리고 나는 우리가 준비해

둔 무기라도 사용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그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다. 교수는 백작의 시신을 그렇게 처리하면 곧 먼지로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된다면 설령 살인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우리에게 불리한 증거는 남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설령 증거가 남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어쩌면 언젠가 이 기록 자체가 우리 중 누군가를 교수대로 보낼 증거가 될지도 모른다. 나 자신이라면, 설령 그런 날이 오더라도 기꺼이 그 위험을 감수하겠다.

우리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생각이다. 또한 특정 관리들과 협의하여, '차리나 캐서린'호가 보이는 즉시 전령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기로 약속했다.

* * * * *

10월 24일. 일주일 내내 기다리기만 했다. 고달밍 앞으로 매일 전보가 날아오지만, 내용은 늘 똑같다. “아직 소식 없음.” 미나가 아침저녁으로 최면에 걸린 듯 내뱉는 대답도 변함이 없다. 찰랑이는 파도 소리, 세차게 흐르는 물소리, 그리고 삐걱거리는 돛대 소리뿐이다.

_전보, 10월 24일._

런던 로이드 보험사, 루퍼스 스미스 발신. 바르나 주재 영국 부영사 편으로 고달밍 경에게.

“차리나 캐서린호가 오늘 아침 다르다넬스 해협에서 목격되었다고 보고됨.”

수어드 박사의 일기.

10월 25일.

축음기가 얼마나 그리운지 모른다! 펜으로 일기를 쓰는 일은 내게 너무나 번거로운 작업이다. 하지만 반 헬싱은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말한다. 어제 고달밍이 로이드로부터 전보를 받았을 때, 우리 모두는 흥분으로 정신이 없을 정도였다. 전투의 부름이 울려 퍼질 때 군인들이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 우리 일행 중 유일하게 하커 부인은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사실 그녀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이상할 것도 없다. 우리는 그녀가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각별히 주의했고, 그녀 앞에서는 모두가 흥분을 가라앉히려 애썼기 때문이다. 예전 같았으면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분명 눈치챘을 텐데, 지난 3주 동안 그녀는 몰라보게 변했다. 무기력증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다. 겉보기에는 기운도 있고 건강해 보이며 안색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지만, 반 헬싱과 나는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우리는 그녀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나누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단 한 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만약 불쌍한 하커가 우리가 이런 의심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의 마음은 물론 정신마저 무너져 내릴 것이 분명하다.

반 헬싱은 그녀가 최면 상태에 있을 때마다 치아를 아주 세밀하게 살핀다고 내게 말했다. 치아가 날카로워지기 시작하지 않는 한, 그녀가 변할 실질적인 위험은 없다고 그는 말한다. 만약 그런 변화가 나타난다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지만, 그 조치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는 우리 둘 다

잘 알고 있다. 비록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일일지라도, 우리 중 누구도 그 과업을 피하지는 않을 것이다. '안락사'라니, 참으로 훌륭하고 위안이 되는 단어다! 이 단어를 만든 사람이 누구든 나는 그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런던에서 이곳까지 <차리나 캐서린>호가 달려온 속도로 따져보면, 다르다넬스 해협에서 여기까지는 항해로 겨우 24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 배는 오전 중에 도착할 것이다. 하지만 그전에는 도저히 도착할 수 없으니, 우리 모두는 일찍 잠자리에 들려 한다.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새벽 한 시에는 일어나야겠다.

* * * * *

10월 25일 정오. 배가 도착했다는 소식은 아직 없다. 오늘 아침 하커 부인이 들려준 최면 보고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러니 언제라도 소식이 들려올 수 있는 상황이다. 하커를 제외한 우리 남자들은 모두 흥분으로 열이 끓어오르고 있다. 하커만은 차분하다. 하지만 그의 손은 얼음처럼 차갑다. 한 시간 전에는 그가 지금 늘 몸에 지니고 다니는 커다란 구르카 칼날을 갈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저 엄격하고도 차가운 손에 이끌린 '쿠크리' 칼날이 드라큘라 백작의 목에 닿는 날이 온다면, 백작에게는 매우 불길한 징조가 될 것이다.

오늘 반 헬싱과 나는 하커 부인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었다. 정오쯤 그녀는 일종의 무기력 상태에 빠졌는데, 우리는 그 모습이 못내 불안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침묵을 지켰지만, 우리 둘 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 아침 내내 안절부절못하던 터라, 처음에는 그녀가 잠들었다는 사

실에 오히려 안도했다. 하지만 남편이 그녀가 너무 깊이 잠들어 깨울 수가 없다고 무심코 말하자, 우리는 직접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숨을 쉬고 있었고, 모습도 무척 평온하고 좋아 보였다.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잠을 자는 것이 그녀에게 무엇보다 낫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가여운 아가씨, 잊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으니, 만약 잠이 그녀에게 망각을 가져다준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녀에게 약이 될 것이다.

* * * * *

나중에.--우리의 짐작이 맞았다. 몇 시간 동안 달콤한 잠을 자고 일어난 그녀는 지난 며칠 동안의 모습과는 달리 훨씬 생기 있고 안색도 좋아 보였다. 해 질 녘, 그녀는 평소처럼 최면에 걸린 듯 몽롱한 상태로 보고를 했다. 드라큘라 백작이 흑해 어디쯤에 있든, 그는 목적지를 향해 서둘러 가고 있다. 부디 그곳이 파멸의 장소이기를!

* * * * *

10월 26일.

또 하루가 지났지만, 차리나 캐서린호에 관한 소식은 전혀 없다. 지금쯤이면 이미 도착했어야 했다. 하커 부인이 일출 무렵 최면 상태에서 보고한 내용이 여전히 이전과 같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배가 아직 어딘가를 항해 중임은 분명해 보인다. 안개 때문에 배가 때때로 정박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어제저녁 들어온 증기선들 중 몇 척은 항구의 남

북 양쪽 모두에 안개가 자욱했다고 보고했다. 배가 언제든 신호를 보낼 수 있으니, 우리는 계속해서 주시해야 한다.

* * * * *

10월 27일 정오.

기이할 정도로 소식이 없다. 우리가 기다리는 배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소식도 들리지 않는다. 하커 부인은 어젯밤과 오늘 아침, 평소처럼 "파도가 찰랑거리고 물결이 몰아친다"라고 보고했다. 다만 파도가 아주 잔잔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런던에서 오는 전보 내용도 마찬가지다. "추가 보고 없음." 반 헬싱은 몹시 초조해하고 있다. 그는 방금 내게 드라큘라 백작이 우리의 손아귀를 벗어나 도망치고 있는 것 같아 두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미심장하게 덧붙였다.

"미나 부인이 보여준 그 무기력한 모습이 마음에 걸립니다. 황홀경에 빠지면 영혼과 기억은 기이한 작용을 일으키기도 하니까요."

내가 더 자세히 물으려던 찰나, 하커가 들어오며 제지하듯 손을 들어 올렸다. 오늘 밤 해 질 무렵, 미나가 최면 상태에 빠졌을 때 그녀가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시도해 보아야 한다.

* * * * *

10월 28일. —— 전보. 런던의 루퍼스 스미스가 바르나 주재 영국 부영사관을 통해 고달밍 경에게 보냄.

"차리나 캐서린호가 오늘 1시에 갈라츠항에 입항한 것으로 보고됨."

수어드 박사의 일기.

10월 28일.

갈라츠에 도착했다는 전보가 왔을 때, 우리 중 누구도 예상만큼 큰 충격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다. 물론 그 소식이 어디서, 어떻게, 언제 날아올지는 몰랐지만, 우리 모두는 무언가 기이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다. 바르나 도착이 지연되면서, 우리는 상황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각자 직감했다. 그저 변화가 어디서 일어날지만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식은 놀라웠다. 인간의 본성이란 참으로 희망에 치우쳐 있어서, 사태가 마땅히 어떻게 돌아갈지 머리로는 알면서도, 모든 일이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대로 흘러갈 것이라 믿으며 스스로를 속이곤 하는 모양이다. 초월적인 믿음이란 천사들에게는 길잡이가 될지언정, 인간에게는 그저 허망한 도깨비불에 불과할지도 모르겠다. 참으로 기묘한 경험이었으며, 우리는 저마다 다르게 반응했다.

반 헬싱은 마치 전능하신 신에게 항의라도 하듯 잠시 머리 위로 손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몇 초 뒤 엄숙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달밍 경은 안색이 매우 창백해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앉아 있었다. 나 역시 정신이 아득해져서, 멍하니 사람들을 한 명씩 살펴보았다. 퀸시 모리스는 내가 아주 잘 아는 그 기민한 동작으로 허리띠를 조여 맸다. 우리가 함께 방랑하던 시절, 그 동작은 곧 '행동 개시'를 의미했다. 하커 부인은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이마

의 흉터가 타오르는 듯 보였지만, 온순하게 두 손을 모은 채 기도하며 위를 올려다보았다. 하커는 미소를 지었다. 희망을 잃은 자 특유의 어둡고 비통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말과는 달랐다. 그의 손은 본능적으로 커다란 쿠크리 칼의 자루를 찾아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갈라츠로 가는 다음 열차는 언제 출발합니까?" 반 헬싱이 우리 모두에게 물었다.

"내일 아침 6시 30분에!" 하커 부인이 대답하자, 우리 모두는 깜짝 놀라 몸을 떨었다.

"대체 그걸 어떻게 아는 거야?" 아서가 물었다.

"당신은 잊었거나, 혹은 잘 모르는 모양이군요. 조너선과 반 헬싱 박사는 알고 있지만 말이에요. 내가 열차 전문가라는 사실을요. 엑서터에 살 때, 저는 남편을 돕기 위해 늘 열차 시간표를 직접 짜곤 했어요. 그 일이 가끔 얼마나 유용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도 항상 시간표를 꼼꼼히 살피고 있죠. 드라큘라 성으로 가려면 갈라츠를 거치거나, 적어도 부쿠레슈티를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시간표를 아주 세밀하게 익혀 두었습니다. 불행히도 외울 만한 정보가 그리 많지는 않네요. 제가 말한 대로 내일 출발하는 열차가 유일하니까요."

"놀라운 여인이군!" 교수가 중얼거렸다.

"특별 열차를 구할 수는 없을까요?" 고달밍 경이 물었다.

반 헬싱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 없을 것 같군요. 이 땅은 당신이나 저의 나라와는 아주 다릅니다. 설령 특별 열차를 구한다 해도, 아마 우리가 타는 일반 열차보다 빨리 도착하지는 못할 겁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준비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생각을 정리해야 해요. 자, 이제 역할을 나눕시다. 아서, 친구여, 자네는 역으로 가서 표를 사고 내일 아침 우리가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쳐주게. 조너선, 자네는 선박 대리점에 가서 갈라츠에 있는 대리인에게 보낼 서신을 받아오게나. 배를 샅샅이 수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시한 서신이어야 하네. 퀸시 모리스, 자네는 부영사를 만나서 갈라츠에 있는 동료의 도움을 받아내게. 다뉴브강을 건널 때 시간을 지체하지 않도록 모든 경로를 매끄럽게 닦아두어야 하네. 존은 미나 부인과 나와 함께 머물며 상의를 하도록 하지. 준비가 길어지면 자네가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해가 질 때가 되어도 상관없네. 내가 여기 미나 부인과 함께 상황을 보고할 테니 말일세.”

“그리고 저도요.” 하커 부인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예전의 모습이 돌아온 듯했다. “모든 방면에서 힘을 보탤게요. 예전처럼 당신을 위해 생각하고 글도 쓸게요. 무언가 이상한 방식으로 제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보다 훨씬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그녀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은 듯, 젊은 세 남자는 그 순간 안도하며 기뻐하는 기색이었다. 하지만 반 헬싱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무겁고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세 남자가 각자의 일을 하러 밖으로 나가자, 반 헬싱은 하커 부인에게 일기 사본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성에 머물던 시절 하커가 쓴 일기 중 특정 부분을 찾아달라는 것이었다. 그녀가 일기를 가지러 자리를 비우고 문이 닫히자, 그는 내게 말했다.

"우리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군! 어서 말해 보게!"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희망이 저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를 기만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고말고. 그런데 내가 왜 그녀에게 원고를 가져오라고 부탁했는지 아나?"

"아니요!" 내가 말했다. "그게 저를 단둘이 만나려는 기회를 잡으려는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자네 말이 부분적으로는 맞네, 존. 하지만 전적으로 맞지는 않아. 자네에게 꼭 해줄 말이 있네. 오, 친구여, 내가 지금 엄청나고도 끔찍한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는 걸 아네. 하지만 이것이 옳다고 믿네. 미나 부인이 우리의 이해를 가로막는 그 말을 내뱉던 순간, 내게 어떤 영감이 스쳤다네. 사흘 전 그 황홀경 속에서, 백작은 그녀의 정신을 읽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보냈던 것이네. 아니, 그보다는 백작이 그녀를 데려가서, 해가 뜨고 질 때마다 물이 들이치는 배 안의 관 속에 누워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것에 더 가깝겠지. 그는 그때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네. 관 속에 갇혀 있는 그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깨어 있는 삶을 사는 그녀가 들려줄 이야기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말일세. 이제 그는 우리를 피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네. 지금 당장은 그녀를 원하지 않는 듯하네."

"그는 자신의 그 방대한 지식을 믿고, 부르기만 하면 그녀가 응해 올 것이라 확신하고 있소. 하지만 그는 그녀를 차단해 버렸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듯, 그녀를 자신의 권능 밖으로 떼어 내어 자신에게 오지 못하게 한 것이오. 아! 나는 거기서 희망을 보오. 오랫동안 인간의 정신을 유지해 왔고 하나님의 은총을 잃지 않은 우리의 이 성숙한 지성이, 수 세기 동안 무덤 속에 누워 우리만큼 성장하지도 못한 채 그저 이기적이고 보잘것없는 생각만 일삼는 저 자의 어린아이 같은 지성보다 더 높이 도약할 것이라고 말이오.

자, 미나 부인이 오시는군. 그녀에게는 황홀경에 빠졌던 일에 대해 한마디도 꺼내지 마시오! 그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소. 만약 알게 된다면, 그녀의 용기와 희망이 절실히 필요한 바로 지금, 그녀는 절망에 빠져 무너지고 말 것이오. 우리는 지금 그녀의 명석한 두뇌가 가장 필요하오. 그녀의 지성은 남성처럼 단련되었으면서도 달콤한 여인의 그것이며, 드라큘라 백작이 그녀에게 부여하여 결코 완전히 앗아갈 수 없는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소. 비록 백작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말이오.

쉿! 조용히 하시오. 내가 말할 테니 잘 듣게나. 오, 나의 친구 존, 우리는 지금 끔찍한 곤경에 처해 있소. 이토록 두려운 적은 생전 처음이라오. 오직 선하신 하나님만을 믿을 뿐이오. 조용히! 그녀가 오고 있소!"

교수가 루시가 죽었을 때처럼 무너져 내려 히스테리를 부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엄청난 노력으로 평정심을 되찾았다. 하커 부인이 밝고 행복한 모습으로 방에 들어섰을 때, 그는 완벽하게 침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부인은 일을 하느라 자신의 비극조차 잊은 듯 보였다. 그녀는 방에 들어오며 반 헬싱에게 타자기로 친 종이 몇 장을 건넸다. 반 헬싱은 엄숙한 표정으로 그 종이들을 훑어보았고, 내용을 읽어 내려갈수록 그의 얼굴은 밝아졌다. 그러더니 그는 검지와 엄지로 종이를 집어 들고 말했다.

"경험이 풍부한 친구 존, 그리고 젊은 미나 부인, 당신들에게 교훈 하나를 전하려 합니다. 결코 생각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머릿속에는 오랫동안 반쪽짜리 생각 하나가 윙윙거리며 맴돌았지만, 그 생각이 날개를 펼치도록 내버려 두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많은 지식을 갖추게 된 나는, 그 반쪽짜리 생각이 시작된 곳으로 되돌아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결코 반쪽짜리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아직 너무 어려서 작은 날개를 제대로 휘두를 힘조차 없었을 뿐, 온전한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내 친구 한스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것은 오리 같은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때가 되어 날개를 펼치기만 하면, 거대한 날개를 타고 고결하게 날아오를 커다란 백조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자, 여기 조너선이 쓴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종족 중 또 다른 이는 훗날, 거대한 강을 건너 터키 땅으로 자신의 군대를 끊임없이 몰아붙였다. 패배하여 물러날 때마다 그는 다시, 또 다시, 몇 번이고 다시 돌아왔다. 비록 부하들이 도륙당하던 그 피비린내 나는 전장에서 홀로 빠져나와야 했을지라도 말이다. 그는 오

직 자신만이 결국 최후의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별로 없다고요? 아니요! 백작의 아이 같은 생각은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토록 거침없이 말하는 것이지요. 당신의 인간적인 생각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방금 전까지 내 인간적인 생각 또한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생각 없이 말하는 누군가로부터 또 다른 말이 들려옵니다. 그녀 역시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은 무엇을 의미할 수도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가만히 멈춰 있는 원소들이 자연의 섭리에 따라 움직이다가 서로 맞닿는 순간, 펑! 하고 하늘 끝까지 번쩍이는 섬광이 터져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 빛은 누군가를 눈멀게 하고 죽이며 파괴하기도 하지만, 아래에 있는 온 세상을 수 리 밖까지 환히 비추기도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제가 설명해 드리지요. 우선, 범죄 철학을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혹은 '아니요'로 답하십시오. 존, 당신은 예라고 하겠지요. 범죄 철학은 광기에 관한 연구니까요. 미나 부인, 당신은 아니겠지요. 범죄는 당신과 단 한 번도 접점이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당신의 정신은 명석하며, 개별적인 사실을 가지고 성급하게 일반론을 끌어내지는 않습니다. 범죄자들에게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나라와 모든 시대에 걸쳐 너무나 일정해서, 철학을 잘 모르는 경찰들조차 경험을 통해 그것이 '그렇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경험적이라는 뜻입니다. 범죄자는 언제나 단 하나의 범죄에만 매달립니다. 범죄를 위해 운명 지어진 것처럼 보이며, 다른 것은 결코 하지 않는 자, 그가 바로 진정한 범죄자입니

다. 이 범죄자는 온전한 성인의 두뇌를 갖지 못했습니다. 영리하고 교활하며 수단도 좋지만, 지적 능력만큼은 성인의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많은 면에서 아이의 두뇌를 가지고 있는 셈이지요. 이제 우리의 이 범죄자 또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운명 지어져 있습니다. 그 역시 아이의 두뇌를 가졌기에, 그가 저지른 일은 아이라면 당연히 할 법한 일입니다. 작은 새나 작은 물고기, 작은 동물들은 원리를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배웁니다. 그리고 일단 하는 법을 배우고 나면, 더 많은 일을 저지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법이지요. 아르키메데스는 '도스 푸 스토(Dos pou sto)'라고 말했습니다. '나에게 지렛대를 준다면, 세상을 움직여 보이겠다!'라고 말입니다. 한 번 저지르는 행위는 아이의 두뇌가 성인의 두뇌로 나아가는 지렛대가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일을 저지르겠다는 목적이 생기기 전까지, 그는 이전에 했던 것처럼 매번 똑같은 일을 반복할 뿐입니다! 오, 미나 부인, 당신의 눈이 번쩍 뜨인 것 같군요. 번갯불이 비춘 그 광활한 세상을 당신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커 부인이 손뼉을 치며 눈을 반짝였기에 반 헬싱이 말했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이제 말씀해 주시지요. 그 총명한 눈으로 무엇을 보았는지, 과학을 업으로 삼는 무미건조한 우리 두 사람에게 들려주세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가 말을 이어가는 동안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가 말하는 동안, 그의 검지와 엄지는—내가 보기에 본능적으로, 또 무의식중에—그녀의 맥박을 짚고 있었다.

"드라큘라 백작은 범죄자이며, 범죄자의 기질을 타고난 자입니다. 노르다우나 롬브로소 같은 학자라면 그를 그렇게 분류했을 겁니다. 범

죄자라는 점에서 그는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인물이지요. 그래서 그는 난관에 봉착하면 습관에 의존해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그의 과거가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과거는 단 한 페이지뿐이지만, 그마저도 본인의 입을 통해 직접 들은 사실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전에 퀸시 모리스 씨가 말하는 이른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을 때, 그는 침략하려던 땅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는 목적을 잃지 않은 채 새로운 시도를 준비했지요. 그는 이전보다 더 철저히 준비를 갖추어 다시 돌아왔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이번에도 새로운 땅을 침략하기 위해 런던으로 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패배했습니다. 성공할 희망이 모두 사라지고 생존마저 위태로워지자, 그는 바다를 건너 고향으로 도망쳤습니다. 마치 예전에 터키 땅에서 다뉴브강을 건너 도망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 오, 당신은 정말 영리한 분이군요!" 반 헬싱이 열정적으로 외치며 몸을 굽혀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그러고는 잠시 후, 마치 평소처럼 환자를 진찰하는 것처럼 아주 차분한 태도로 내게 말했다.

"겨우 일흔둘뿐이라니, 이 모든 소란 속에서도 말입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그는 다시 그녀를 돌아보며 간절한 기대를 담아 말했다.

"하지만 계속해요. 어서요! 당신이 말해주기만 한다면 들려줄 이야기가 더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존과 나는 알고 있으니까요. 적

어도 나는 알고 있으니, 당신의 생각이 맞다면 내가 말해줄게요. 겁내지 말고 말해봐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보일지라도 부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요! 두려워 마세요. 당신은 마땅히 자기중심적이어도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은 바로 당신이니까요."

"그는 범죄자이기에 이기적입니다. 지적 능력이 낮고 모든 행동이 이기심에 기반하고 있으니, 오직 한 가지 목적에만 매달릴 뿐이지요. 그 목적은 가차 없습니다. 자신의 군대가 갈기갈기 찢기도록 내버려 둔 채 다뉴브강을 건너 도망쳤던 것처럼, 이제 그는 다른 것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안위만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기심 덕분에, 그 끔찍한 밤 그가 내 영혼에 휘둘렀던 그 무시무시한 힘으로부터 내 영혼이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느꼈습니다! 아, 분명히 느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끔찍한 일이 있은 후로 내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습니다. 다만 나를 괴롭히는 것은, 내가 황홀경에 빠져 있거나 꿈을 꾸는 사이 그가 나의 지식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뿐입니다."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당신의 정신을 교묘히 이용했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자신을 실은 배를 타고 자욱한 안개를 뚫고 갈라츠로 서둘러 떠나버렸고, 우리

는 이곳 바르나에 남겨졌지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는 그곳에서 우리를 따돌릴 준비를 마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앞날을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신의 섭리가 늘 그러하듯, 악인이 자신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 가장 믿었던 바로 그 사실이 결국 그에게 가장 큰 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위대한 시편 기자가 말했듯, 사냥꾼이 자신이 놓은 덫에 스스로 걸려드는 격이지요.

이제 그는 우리 흔적을 모두 떨쳐냈다고, 우리를 따돌리고 충분한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하며 안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기적이고 유치한 머릿속은 그를 잠의 세계로 인도하겠지요. 또한 그는 당신의 마음으로부터 자신을 단절시켰으니, 당신 역시 자신을 알 수 없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그는 실패합니다! 그가 당신에게 가한 그 끔찍한 피의 세례는, 오히려 당신이 정신으로 그에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해가 뜨고 질 때, 당신이 자유를 누리던 시간 동안 이미 그래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순간에 당신은 그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의지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에게 당한 고통을 통해 당신은 자신과 타인에게 이로운 힘을 얻어낸 것입니다. 그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려다 오히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 스스로를 고립시켰다는 점이 이 사실을 더욱 소중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암흑과 길고 긴 어둠의 시간 속에서도 신이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를 뒤쫓을 것이며, 설령 우리 자신이 그와 같은 존재가 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친구 존, 지금은 매우 중요

한 시간입니다. 이 일이 우리가 나아갈 길에 큰 진전을 가져다주었습니다. 당신은 서기가 되어 이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이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 내용을 전해줄 수 있고, 그들도 우리처럼 알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이 글을 썼고, 하커 부인은 우리에게 이 원고를 가져온 이후로 줄곧 타자기로 글을 써 내려가고 있다.

제XXVI장

수어드 박사의 일기

10월 29일. — 바르나에서 갈라츠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이 글을 쓴다. 어젯밤, 우리는 해가 지기 직전에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각자 자신이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 마쳤다. 생각과 노력, 그리고 주어진 기회를 모두 고려했을 때, 우리는 남은 여정은 물론 갈라츠에 도착한 뒤에 이어질 업무를 수행할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다.

정해진 시간이 되자 하커 부인은 최면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반 헬싱 교수가 평소보다 훨씬 더 길고 진지하게 집중한 끝에, 부인은 마침내 황홀경 속으로 빠져들었다. 보통은 암시만 주어도 말을 시작하곤 했으나, 이번에는 달랐다. 교수가 꽤 단호한 태도로 질문을 던지고 나서야 겨우 무언가를 알아낼 수 있었다. 마침내 그녀의 대답이 돌아왔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배는 멈춰 서 있고, 파도가 찰랑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저 밧줄을 타고 물결이 부드럽게 소용돌이치며 밀

려드는 소리뿐이에요. 멀고 가까운 곳에서 사내들이 외치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노를 젓는 노걸이에서 덜컹거리고 삐걱거리는 소리도 들려요. 어디선가 대포 소리가 울리지만, 그 메아리는 아주 멀리서 들리는 듯해요. 머리 위에서는 발을 구르는 소리가 들리고, 밧줄과 쇠사슬을 끌고 가는 소리도 들려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어디선가 빛이 번쩍이고, 바람이 내 몸을 스치며 불어와요."

그녀는 여기서 말을 멈췄다. 마치 충동적으로 움직인 듯, 소파에 누워 있던 그녀가 몸을 일으키더니 양손을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들어 올렸다. 마치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듯한 몸짓이었다. 반 헬싱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그 의미를 이해했다. 퀸시 모리스는 눈썹을 살짝 치켜뜨며 그녀를 뚫어지게 응시했고, 하커는 본능적으로 쿠크리 칼자루를 움켜쥐었다. 긴 침묵이 흘렀다. 그녀가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말을 해도 소용없으리라는 생각에 우리는 입을 다물었다. 그때 갑자기 그녀가 상체를 일으켰다. 그리고 눈을 뜨며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들 차 한 잔 안 하시겠어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우리는 그저 그녀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고개를 끄덕이며 응했다. 그녀가 차를 준비하러 분주히 자리를 뜨자, 반 헬싱이 입을 열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육지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관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안에 상륙하지는 못했습니다. 밤사이 어딘가에 몸을 숨길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누군가 그를 해안으로 실어 나르지 않거나 배가 해안에 닿지 않는다면, 그는 육지에 도달할 수 없습

니다. 만약 밤중에 육지에 닿는다면, 휘트비에서 그랬던 것처럼 모습을 바꾸어 해안으로 뛰어들거나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륙하기 전에 날이 밝아버린다면, 누군가 그를 옮겨주지 않는 한 그는 탈출할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를 옮긴다 해도, 세관원들이 그 상자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요컨대, 그가 오늘 밤이나 새벽이 오기 전에 육지로 탈출하지 못한다면, 그는 하루를 통째로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밤에 탈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낮에 그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자에 갇힌 채 우리 손아귀에 떨어지겠지요. 그는 정체가 탄로 날까 두려워, 깨어 있는 본래의 모습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할 테니까요."

더 이상 할 말도 없었기에, 우리는 새벽이 오기만을 인내하며 기다렸다. 그때가 되면 하커 부인에게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터였다.

오늘 이른 아침, 우리는 숨을 죽인 채 불안한 마음으로 그녀가 황홀경 속에서 내놓을 대답을 기다렸다. 최면 상태에 빠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전보다 훨씬 더 길어졌다. 마침내 그녀가 반응했을 때는 해가 뜨기까지 남은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여, 우리는 절망하기 시작했다. 반 헬싱은 온 영혼을 쏟아붓는 듯 보였다. 마침내 그의 의지에 따라 그녀가 대답했다.

"모든 게 어둠뿐이에요. 제 눈높이에서 물결이 찰랑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나무와 나무가 맞물려 삐걱거리는 소리도 들려요." 그녀가 말

을 멈추자, 붉은 태양이 솟아올랐다. 우리는 오늘 밤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우리는 초조한 기대감에 휩싸인 채 갈라츠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도착 예정 시각은 새벽 두 시에서 세 시 사이지만, 이미 부쿠레슈티에서 세 시간이나 지체된 상태다. 따라서 해가 뜨고 한참이 지나야 겨우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사이 우리는 하커 부인에게서 최면 상태의 메시지를 두 통은 더 받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중 하나, 혹은 둘 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명확한 단서를 던져줄지도 모른다.

* * * * *

나중에.--해는 이미 저물었다. 다행히도 방해 요소가 없는 때에 해가 졌다. 만약 우리가 역에 머물고 있을 때 해가 졌더라면, 지금처럼 필요한 정적과 고립을 확보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하커 부인은 오늘 아침보다도 한층 더 힘겹게 최면에 빠져들었다. 드라큘라 백작의 감각을 읽어내는 그녀의 능력이, 정작 가장 절실한 순간에 사라져 버릴까 두렵다. 그녀의 상상력이 작동하기 시작한 듯한 느낌이 든다. 지금까지 황홀경에 빠져 있는 동안 그녀는 오직 가장 단순한 사실만을 전달해 왔다. 만약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결국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다. 만약 백작이 그녀에게 행사하는 힘이 그녀의 능력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라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겠지만, 나는 그러지 않을까 봐 걱정된다.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그 말은 수수께끼 같았다.

"무언가 빠져나가고 있어요. 차가운 바람처럼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게 느껴져요. 멀리서 웅성거리는 소리도 들려요. 낯선 언어로 떠드는 사람들의 목소리, 거세게 쏟아지는 폭포 소리, 그리고 늑대들이 울부짖는 소리 같아요."

그녀는 말을 멈췄다. 이내 몸을 떨기 시작하더니, 몇 초 동안 떨림이 점점 거세어지다가 마침내 마비 증세라도 온 듯 온몸을 심하게 흔들었다. 반 헬싱 교수가 다급하게 질문을 던졌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황홀경에서 깨어난 그녀는 몸이 차갑고 기운이 없었으며 나른해 보였으나, 정신만은 아주 또렷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다만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물었을 뿐이다. 자신이 한 말을 전해 듣고 나서, 그녀는 한동안 침묵에 잠긴 채 그 내용을 깊이 곱씹었다.

*****

10월 30일, 오전 7시.

우리는 지금 갈라츠 근처에 있다. 나중에 글을 쓸 시간이 없을지도 모르겠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는 초조한 마음으로 일출을 기다렸다. 최면 상태에 빠뜨리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반 헬싱 교수는 평소보다 일찍 최면술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결국 해가 뜨기 직전이 되어서야 그녀는 겨우 정신을 놓았으나, 그 과정은 이전보다 훨씬 더 힘들었다. 교수는 지체 없이 질문을 던졌고, 그녀 또한 그만큼 빠르게 대답했다.

"모든 게 어둠뿐이에요. 귀 근처에서 물이 소용돌이치며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 나무와 나무가 맞물려 삐걱거리는 소리도 들려요. 멀리서는 가축들이 우는 소리도 들리고요. 그런데 또 다른 소리가 들려요. 마치…… 이상한 소리가……." 그녀는 말을 멈췄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지더니, 이내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버렸다.

"계속하게, 어서! 말해, 명령하노라!" 반 헬싱이 고통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동시에 그의 눈에는 절망이 서려 있었다. 떠오르는 태양이 하커 부인의 창백한 얼굴마저 붉게 물들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눈을 뜨자 우리 모두는 흠칫 놀랐다. 그녀가 더없이 다정하면서도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태연하게 입을 열었기 때문이다.

"오, 교수님, 제가 할 수 없다는 걸 뻔히 아시면서 왜 자꾸 물으시는 건가요? 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러더니 그녀는 우리들의 경악스러운 표정을 보고는, 괴로운 기색으로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나요? 내가 무슨 짓을 했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저 여기 누워 반쯤 잠든 상태였다는 것만 알 뿐이에요. 그러다 당신이 '계속해! 말해, 명령이야!'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을 뿐이죠. 당신이 마치 나를 말썽꾸러기 아이 다루듯 명령하는 걸 듣는데, 그게 어찌나 우스웠는지 몰라요!"

"오, 미나 부인," 그가 슬픈 어조로 말했다. "제가 부인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증명이라도 해야 한다면 바로 이 상황이 그 증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을 담아 부인의 안녕을 빌었음에도, 제가 감

히 복종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분께 명령을 내리는 형식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말이 이토록 낯설게 들릴 수 있다니 말입니다!"

경적 소리가 울려 퍼진다. 이제 갈라츠에 가까워지고 있다. 우리는 불안과 기대감으로 마음이 타들어 갈 지경이다.

미나 하커의 일기.

10월 30일.

모리스 씨가 나를 호텔로 데려다주었다. 우리는 전보로 미리 방을 예약해 두었다. 모리스 씨는 외국어를 전혀 못 하기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 그나마 자리를 비워도 가장 지장이 없는 사람이었다. 인력 배치는 바르나에서 했던 것과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졌다. 다만 우리는 매우 급한 상황이었기에, 고달밍 경을 부영사에게 보냈다. 고달밍 경의 지위라면 당국 관리에게 일종의 즉각적인 보증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너선과 두 의사는 '차리나 캐서린'호의 도착 상세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해운 대리점으로 향했다.

* * * * *

나중에.

고달밍 경이 돌아왔다. 영사는 자리를 비웠고 부영사는 병중이라, 일상적인 업무는 사무원이 처리했다. 그는 매우 협조적이었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돕겠다고 했다.

조너선 하커의 일기.

10월 30일.

9시에 반 헬싱 박사와 수어드 박사, 그리고 나는 런던 회사 해프굿의 대리인인 맥켄지 & 스테인코프 상사를 방문했다. 그들은 고달밍 경이 보낸 전보 요청에 대한 답신을 런던으로부터 받은 상태였는데, 거기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우리에게 모든 편의를 베풀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더없이 친절하고 정중하게 우리를 맞아주었고, 곧장 우리를 강 항구에 정박해 있던 '차리나 캐서린'호로 안내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도넬슨이라는 이름의 선장을 만났고, 그는 자신의 항해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선장은 평생 살면서 이토록 순조로운 항해는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이것 참!" 그가 말했다. "그게 우리를 겁먹게 했지요. 평균을 맞추느라 어디선가 지독한 불운으로 그 값을 치러야 할 것만 같았거든요. 마치 악마가 제 목적을 이루려고 돛에 바람을 불어넣기라도 하는 것처럼, 런던에서 흑해까지 순풍을 등에 업고 내달리는 건 영 예사로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게다가 항해 내내 무엇 하나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배나 항구, 곶 가까이에 다가가기만 하면 안개가 내려앉아 우리를 따라다녔고, 안개가 걷힌 뒤에 내다봐도 도무지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지요. 지브롤터를 지날 때도 신호 한번 보내지 못했고, 다르다넬스 해협에 이르러 통과 허가를 기다릴 때까지 그 무엇과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안개가 걷힐 때까지 돛을 줄이고 이리저리 배를 돌려볼까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악마가 우리를

흑해로 어서 데려갈 작정이라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기어이 그렇게 하고야 말 거라고요. 항해가 빨라진다 한들 선주들에게 흠잡힐 일도 아니고, 우리 운송 일에 해가 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게다가 제 목적을 이룬 그 영감님이라면, 자기를 방해하지 않은 우리에게 응당 고마워하지 않겠습니까." 소박함과 교활함, 미신과 상업적 타산이 뒤섞인 이 말은 반 헬싱의 흥미를 자극했고, 그는 입을 열었다.

"내 친구여, 그 악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영리하다네. 자기와 맞설 상대가 누구인지도 알아볼 줄 안단 말이지!" 선장은 그 칭찬이 싫지 않은 듯 말을 이었다.

"보스포루스 해협을 지나자 선원들이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루마니아인 몇몇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런던을 떠나기 직전에 기괴하게 생긴 노인이 배에 실은 커다란 상자를 바다에 던져버려 달라고 요구하더군요. 저는 그들이 그 노인을 유심히 살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노인을 보자마자 액운을 피하려고 두 손가락을 맞대어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외국인들의 미신이란 정말이지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곧장 그들을 쫓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직후에는, 저 역시 그들이 느끼는 것과 비슷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그 상자가 나쁘다고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배는 계속 나아갔고, 안개가 닷새 동안이나 걷히지 않기에 저는 그저 바람이 이끄는 대로 몸을 맡겼습니다. 악마가 어디론가 가고자 한다면, 뭐, 결국은 어떻게든 도착하겠지요.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쨌든 경계를 늦추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다행히 항해 내내 수심은 충분했고 물길도 좋았습니다. 이틀 전 아침, 안개를 뚫고 햇살이 비쳤을 때 우

리는 갈라츠 강 건너편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루마니아인들은 흥분해서, 옳든 그르든 당장 상자를 꺼내 강물에 던져버리라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저는 지렛대를 휘두르며 그들과 실랑이를 벌여야 했습니다. 마지막 한 명까지 머리를 감싸 쥐고 갑판에서 일어났을 때야, 저는 그들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액운이 깃들었든 아니든, 주인들의 재산과 신탁 물품은 다뉴브강에 버려지는 것보다 제 손에 있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상자를 갑판 위로 끌어올려 던질 준비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상자에는 '바르나를 경유하여 갈라츠로'라고 적혀 있었기에, 저는 항구에 도착해서 짐을 다 내린 뒤에 완전히 처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은 일을 많이 마치지 못해 밤새 닻을 내리고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 한 시간 전인 이른 시간에 한 남자가 영국에서 받은 명령서를 들고 배에 올라왔습니다. 드라큘라 백작 앞으로 온 상자를 인도하라는 내용이었지요. 아니나 다를까, 그 상자가 바로 그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서류를 모두 제대로 갖추고 있었고, 저 역시 그 빌어먹을 물건을 치울 수 있게 되어 기뻤습니다. 저 또한 그 상자 때문에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만약 악마가 배에 짐을 실었다면, 제 생각엔 분명 그 상자 말고는 없을 겁니다!"

"그것을 가져간 남자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반 헬싱이 억눌린 열의를 담아 물었다.

"금방 알려드리지요!" 그가 대답했다. 그는 선실로 내려가더니 '임마누엘 힐데스하임'이라는 이름이 서명된 영수증을 가져왔다. 주소는 부

르겐슈트라세 16번지였다. 선장이 아는 정보는 이게 전부라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감사를 표하고 그곳을 떠났다.

우리는 그의 사무실에서 힐데스하임을 만났다. 그는 양처럼 생긴 코에 페즈를 쓰고 있었는데, 마치 아델피 극장에서나 볼 법한 유대인 인상이었다. 그의 논변에는 돈으로 방점이 찍혔는데—그 방점을 찍어 준 것은 우리였다—약간의 흥정을 거친 끝에 그는 자신이 아는 내용을 털어놓았다. 그가 아는 사실은 단순했지만 중요한 내용이었다.

그는 런던의 드 빌 씨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고 했다. 편지에는 세관을 피할 수 있도록 가급적 일출 전에, '차리나 캐서린' 호가 갈라츠 항에 도착하면 상자 하나를 받아두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는 이 상자를 페트로프 스킨스키라는 인물에게 맡겨야 했다. 스킨스키는 강을 따라 항구로 내려오는 슬로바키아 상인들을 상대하는 자였다. 힐데스하임은 그 대가로 영국 지폐를 받았고, 이를 다뉴브 국제은행에서 금으로 환전했다. 스킨스키가 찾아왔을 때, 그는 짐꾼을 쓰지 않으려고 직접 상자를 배까지 가져가서 건네주었다고 했다. 그가 아는 것은 그것뿐이었다.

우리는 스킨스키를 찾아 나섰으나 끝내 발견하지 못했다. 그를 별로 아끼지 않는 듯한 이웃 중 한 명은, 그가 이틀 전에 어디론가 떠났으며 행방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집주인의 말도 이와 일치했다. 집주인에 따르면, 어젯밤 열 시에서 열한 시 사이, 전령이 찾아와 밀린 방세와 함께 집 열쇠를 전달했다고 한다. 방세는 영국 화폐로 지불되었다. 우리는 다시금 진척 없이 막막한 상황에 놓였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던 중, 한 사람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외쳤다. 성 베드로 교회 묘지 담장 안에서 스킨스키의 시신이 발견되었으며, 마치 맹수에게 습격당한 것처럼 목이 찢겨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우리가 대화하던 사람들은 그 끔찍한 광경을 보러 달려갔고, 여인들은 "이건 슬로바키아 놈이 저지른 짓이야!"라며 비명을 질렀다. 우리는 혹여나 그 사건에 휘말려 발이 묶일까 두려워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우리는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그 상자가 배에 실려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모두가 확신했다. 하지만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직접 확인해 보아야 할 문제였다. 우리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미나가 기다리는 호텔로 돌아왔다.

우리가 모였을 때, 가장 먼저 논의한 문제는 미나를 다시 우리의 대화에 참여시킬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상황이 절박하게 돌아가고 있기에, 비록 위험한 도박일지라도 이는 최소한의 가능성이라 생각했다. 우선 조치로, 나는 그녀에게 했던 비밀 유지 약속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미나 하커의 일기.

10월 30일, 저녁.

그들은 너무나 지치고 기력이 쇠하여 의욕마저 잃은 상태였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전까지는 도저히 손을 쓸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모두에게 30분만 누워 있으라고 권했다. 그동안 나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모두 기록해 두기로 했다. '트래블러(Traveller)'식 타자기를

발명한 사람과, 내게 이 기계를 구해다 준 모리스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든다. 만약 펜으로 이 모든 일을 기록해야 했다면, 아마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맸을 것이다.

모든 일이 끝났다. 가여운, 내 사랑하는 조너선,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지금은 또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을까. 그는 소파에 누워 숨조차 거의 쉬지 않는 듯 보이며,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상태다. 미간은 잔뜩 찌푸려져 있고, 얼굴은 고통으로 수척해졌다. 불쌍한 사람, 아마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는 모양이다. 깊은 생각에 몰두하느라 얼굴이 잔뜩 일그러진 게 눈에 보인다. 아,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하겠다.

반 헬싱 박사에게 요청하여 아직 보지 못한 서류들을 모두 건네받았다. 그들이 쉬는 동안, 나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주의 깊게 검토하여 어쩌면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교수님의 본을 따라, 내 앞에 놓인 사실들을 어떠한 편견도 없이 생각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 * * * *

신의 섭리 아래, 내가 무언가 발견한 것이라 믿는다. 지도를 가져와서 꼼꼼히 살펴봐야겠다.

* * * * *

내가 옳다는 확신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새로운 결론을 정리했으니, 곧 우리 일행을 불러 모아 이를 읽어줄 생각이다. 그들이 직접 판

단하게 해야 한다. 정확을 기하는 것이 좋으며, 지금은 단 일 분 일 초도 허투루 쓸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다.

미나 하커의 메모.

(그녀의 일기에 기록됨.)

조사의 근거. 드라큘라 백작의 문제는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는 것이다.

누군가 그를 다시 데려와야만 한다. 이는 명백한 사실이다. 만약 그에게 스스로 움직일 힘이 있었다면, 그는 인간이나 늑대, 박쥐, 혹은 다른 어떤 모습으로든 마음껏 움직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분명 누군가에게 들키거나 방해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해가 뜨고 질 때까지 나무 상자 안에 갇혀 있어야만 하는, 그 무력한 상태에서는 말이다.

(b) 그를 어떻게 데려와야 할까? 이럴 때는 가능한 방법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육로인가, 철도인가, 아니면 수로인가?

1. 육로를 이용할 경우. — 특히 도시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끝도 없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사람이란 원래 호기심이 많고, 무언가를 파헤치려 들기 마련이다.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 있을지, 아주 작은 암시나 추측, 혹은 의구심만 생겨도 그는 파멸하고 말 것이다.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거나, 혹은 통관을 담당하는 세관원이 있을지도 모른다.

추격자들이 뒤를 쫓아올지도 모른다. 이것이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다. 그는 자신이 배신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이 해를 입히고 있는 희생자인 나조차도 할 수 있는 한 멀리 밀어내고 있다.

2. _철도 이용._--상자를 책임지고 관리할 사람이 없다. 상자는 지연될 위험을 그대로 감수해야만 할 것이다. 추격하는 적들이 있는 상황에서 지연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물론 밤을 틈타 도망칠 수도 있겠지만, 피신처 하나 없이 낯선 곳에 홀로 남겨진다면 그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는 이런 상황을 원치 않으며, 그런 위험을 무릅쓸 생각도 없다.

3. 물길을 따라서.

이 길은 한 가지 면에서는 가장 안전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가장 위험하다. 물 위에서 그는 밤이 아니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다. 설령 밤이라 해도 안개와 폭풍, 눈보라, 그리고 늑대들을 불러모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만약 배가 난파된다면, 그는 살아있는 물에 휩쓸려 속수무책으로 가라앉을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파멸하고 말 것이다. 배를 육지로 몰 수는 있겠지만, 만약 그곳이 그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적대적인 땅이라면 그의 처지는 여전히 절망적일 것이다.

기록을 통해 그가 물 위에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가 머물렀던 곳이 정확히 '어느' 물 위였는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우선 그가 지금까지 정확히 무엇을 해왔는지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앞으로 수행해야 할 과업이 무엇인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우리는 그가 런던에서 행한 일들을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 그것은 그가 전반적인 행동 계획의 일환으로 움직였던 일들과, 긴박한 상황에 몰려 그저 최선을 다해 대처해야만 했던 일들로 나뉜다.

둘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한, 그가 이곳에서 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반드시 확인해야만 한다.

첫 번째 사실에 관해 말하자면, 그는 분명 갈라츠에 도착할 계획이었다. 그는 영국에서 어떤 경로로 빠져나갈지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바르나로 송장을 보냈다. 당시 그의 즉각적이고 유일한 목적은 탈출이었다. 그 증거는 바로 임마누엘 힐데스하임에게 보낸 지시서다. 그 편지에는 반드시 해가 뜨기 전까지 상자를 처리해서 가져가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페트로프 스킨스키에게 내린 지시도 있었을 것이다. 다만 그 내용은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스킨스키가 힐데스하임에게 찾아온 것을 보면, 분명 어떤 편지나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의 계획은 성공적이었다고 우리는 알 수 있다. <차리나 카트리나>호는 경이로울 정도로 빠르게 항해했다. 그 속도가 워낙 빨라 도널슨 선장의 의심을 사기도 했으나, 선장의 미신적인 성향이 특유의 영악함과 맞물리면서 오히려 백작의 의도대로 일이 흘러갔다. 선장은 순풍을 타고 안개며 무엇이며 다 뚫고 달려, 결국 앞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한 채 갈라츠에 다다랐다. 백작의 준비가 치밀했다는 사실은 이미 증명되었다. 힐데스하임이 상자를 치워 옮긴 뒤 스킨스키에게 건넸다. 스킨스키가 상자를 받아 들었고, 여기서부터 흔적이 끊긴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상자가 물 위 어딘가에서 계속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뿐이다. 세관이나 통행세 같은 절차는, 설령 존재했다 하더라도 모두 교묘히 피했다.

이제 드라큘라 백작이 갈라츠에 육지로 도착한 뒤 무엇을 했을지 살펴볼 차례다.

상자가 스킨스키에게 전달된 것은 해가 뜨기 전이었다. 해가 떠야만 백작은 본래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왜 하필 스킨스키가 그 일을 돕는 조력자로 선택되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남편의 일기를 보면, 스킨스키는 강을 따라 항구까지 내려오는 슬로바키아 상인들을 상대하는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살인이 슬로바키아인의 소행이라는 그 남자의 말은 당시 그 계층에 대해 사람들이 품고 있던 일반적인 적대감을 보여준다. 드라큘라 백작은 철저히 고립되기를 원했다.

내 추측은 이렇다. 드라큘라 백작은 런던에서 가장 안전하고 은밀한 방법인 수로를 이용해 자신의 성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는 것이다. 백작은 스자니 일행의 손에 이끌려 성을 떠났고, 아마도 그들은 화물을 슬로바키아인들에게 넘겼을 것이다. 그 슬로바키아인들이 상자들을 바르나로 옮겼고, 그곳에서 다시 런던행 배에 실었을 것이라 본다. 이처럼 백작은 이러한 운송 서비스를 주선할 수 있는 인물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상자가 육지에 도착하면, 백작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 상자 밖으로 나왔다. 그는 스킨스키를 만나 상자를 강을 따라 운반할 마차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자, 백작은 자신의 대리인을 살해함으로써 자신이 남긴 흔적을 지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지도를 검토해 보니, 슬로바키아인들이 거슬러 올라오기에 가장 적합한 강은 프루트강 아니면 세레트강인 것 같다. 타자기로 친 기록을 보면, 내가 최면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소 울음소리와 귀 높이에서 물이 소용돌이치는 소리, 그리고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상자 안에 있던 백작은 강 위에서 작은 배를 타고 있었을 것이다. 강둑이 가깝고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중이었으니, 아마 노를 젓거나 장대로 배를 밀며 나아갔을 터다. 만약 물결을 따라 내려가고 있었다면 그런 소리는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그 강이 세레트강도, 프루트강도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더 자세히 조사해 볼 여지는 충분하다. 두 강을 비교하자면 프루트강이 항해하기에는 더 수월하다. 하지만 세레트강은 푼두에서 비스트리차강과 합류하는데, 이 비스트리차강은 보르고 고개를 돌아 올라간다. 이 강

이 굽이치는 모양을 보면, 배를 타고 드라큘라 백작의 성에 이르는 가장 가까운 경로임이 분명하다.

미나 하커의 일기—계속.

내가 읽기를 마치자, 조너선은 나를 품에 안고 입을 맞추었다. 다른 사람들은 내 양손을 붙잡고 계속해서 흔들어댔다. 그때 반 헬싱 박사가 말했다.

"우리의 친애하는 미나 부인이 다시 한번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눈이 멀어 보지 못했던 곳을 그녀가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길을 찾았고,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적은 지금 가장 무력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낮 동안 물길을 따라 그를 추격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임무도 끝이 날 것입니다. 적이 기선을 제압하긴 했으나, 그는 서둘러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자신을 운반하는 이들이 의심할까 봐 상자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의심이라도 하게 된다면, 적을 강물에 던져 버릴 것이고 그러면 그는 죽게 될 것입니다. 적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결코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제 모두 작전 회의를 시작합시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각자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증기 보트를 구해 그를 뒤쫓겠소." 고달밍 경이 말했다.

"그가 혹시라도 상륙할지 모르니, 나는 강둑을 따라 말을 몰고 뒤쫓겠습니다."라고 모리스 씨가 말했다.

"좋소!" 교수가 말했다. "둘 다 좋군. 하지만 어느 누구도 혼자 가서는 안 되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맞서 싸울 힘이 필요하니까 말이오. 슬로바키아인은 힘이 세고 거칠며, 투박한 무기도 지니고 있으니 말이오." 남자들은 모두 미소를 지었다. 그들이 다 함께 지닌 무기를 합치면 작은 무기고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모리스 씨가 말했다.

"윈체스터 소총을 몇 자루 가져왔습니다. 군중 속에서 쓰기에 아주 유용할 겁니다. 늑대가 나타날지도 모르니까요. 기억하시겠지만, 백작께서도 다른 대비책을 세워두셨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몇 가지 요청을 해두셨는데, 하커 부인이 미처 다 듣거나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어드 박사가 말했다.

"퀸시와 함께 가는 게 좋겠어. 우린 늘 함께 사냥해 왔으니, 무기까지 갖춘 우리 둘이라면 어떤 것이 나타나든 맞설 수 있을 거야. 아서, 자네가 혼자 있으면 안 돼. 슬로바키아인들과 싸워야 할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이 친구들이 총을 들고 다니지는 않을 테니 우연히 한 번 찔리기라도 하면 우리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어. 이번만큼은 결코 운에 맡겨서는 안 되네. 드라큘라 백작의 머리와 몸을 분리하고, 그가 다시 부활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확인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쉴 수 없네."

그는 말을 하며 조너선을 바라보았고, 조너선은 나를 보았다. 가엾은 그이의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이 내 눈에도 보였다. 당연히 그는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했다. 하지만 배를 이용하는 쪽이

아마도 그… 그… 그… 흡혈귀를 파괴하게 될 임무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내가 왜 그 단어를 쓰는 것을 망설였을까?) 그는 한동안 침묵을 지켰고, 그 침묵 사이로 반 헬싱 박사가 입을 열었다.

"조너선, 나의 친구여. 내가 그대에게 이 말을 전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네. 우선 그대는 젊고 용감하며 싸울 능력이 있기에, 마지막 순간에는 모든 힘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네. 그리고 그대 자신과 소중한 이들에게 이토록 큰 비극을 안겨준 '그것'을 파괴하는 것은 마땅히 그대의 권리이기도 하지. 미나 부인은 걱정하지 말게나.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녀를 돌보겠네. 나는 이미 늙은 몸이라네. 다리도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오래 말을 타거나 추격해야 하는 상황, 혹은 치명적인 무기를 들고 싸우는 일에도 익숙하지 않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는 있네. 다른 방식으로 싸울 수도 있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젊은이들 못지않게 기꺼이 죽을 수도 있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계획을 말하겠네. 고달밍 경과 친구 조너선, 그대들이 그 빠르고 작은 증기선을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동안, 존과 퀸시는 그가 상륙할지도 모를 강둑을 지켜주게나. 그사이 나는 미나 부인을 데리고 적진의 한복판으로 직접 들어가겠네. 그 늙은 여우가 상자 안에 묶인 채, 육지로 도망칠 수 없는 흐르는 물 위에 떠 있는 동안 말일세. 슬로바키아인 운반책들이 겁에 질려 그를 죽게 내버려 둘까 두려워 관 상자의 뚜껑조차 감히 열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말이야. 우리는 조너선이 갔던 경로를 따라 비스트리츠를 지나 보르고를 거쳐 드라큘라 백작의 성으로 향할 것이네. 미나 부인의 최면적인 힘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니, 그렇지 않았다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테지만, 그

운명적인 장소에 다다를 무렵 첫 일출 이후에는 반드시 길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네. 해야 할 일이 아주 많네. 그 독사 둥지를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 다른 장소들도 성스럽게 정화해야 하네."

이때 조너선이 격앙된 목소리로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반 헬싱 교수님, 지금 그 말씀이십니까? 그 악마 같은 병에 물들어 비참한 처지에 놓인 미나를, 그놈이 파놓은 죽음의 함정 속으로 직접 밀어 넣겠다는 말씀이냐고요! 세상에, 절대로 안 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설령 지옥에 떨어진다 해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격앙되더니, 다시 말을 이어갔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그 끔찍하고 불경한 지옥의 소굴을 직접 보셨냐 말입니다. 달빛조차도 기괴한 형상들로 살아 움직이고, 바람에 휘날리는 먼지 한 점조차도 태동하는 괴물처럼 보이지 않던가요? 당신의 목덜미에 흡혈귀의 입술이 닿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는 나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러다 내 이마에 시선이 머물자, 그는 비명을 지르며 두 팔을 치켜들었다. "오, 신이시여, 우리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공포를 마주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는 절망에 빠져 소파 위로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이윽고 교수가 맑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공중에 울려 퍼지는 듯한 그의 목소리는 우리 모두를 진정시켰다.

"오, 친구여, 내가 그곳에 가려는 건 오직 미나 부인을 그 끔찍한 곳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라네. 내가 그녀를 그곳으로 데려가는 일만큼은 신께서 막아주시길 빌 뿐이라네. 그곳에는 그녀의 눈에 보여서는 안

될, 아주 거칠고 험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네. 조너선, 자네를 제외한 여기 있는 우리 남자들은 그곳이 정화되기 전까지 어떤 일들을 해내야 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했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기억하게나. 만약 이번에 드라큘라 백작을 놓친다면—그는 아주 강하고 교활하며 영악한 존재라네—그는 백 년 동안 잠들기를 택할지도 모르네. 그러면 시간이 흐른 뒤, 우리의 사랑하는 이가—"그가 내 손을 잡았다—"그의 곁을 지키러 그에게 가게 될 것이고, 결국 자네가 보았던 그 다른 이들처럼 되고 말 것이라네. 자네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입술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었지. 드라큘라 백작이 던져준, 꿈틀거리는 가방을 움켜쥐며 그들이 내뱉던 저속한 웃음소리도 자네는 들었지 않나. 자네가 몸서리치는 것도 당연하네. 충분히 그럴 만해. 자네에게 이토록 큰 고통을 주어 미안하네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네. 친구여, 내가 어쩌면 목숨까지 내놓아야 할지도 모르는 이 절박한 상황이 정말 피할 수 없는 일 아니겠나? 만약 누군가 그곳에 머물러야 한다면, 그 곁을 지키기 위해 가야 할 사람은 바로 나일 것이네."

"마음대로 하세요." 조너선이 온몸을 떨며 흐느끼듯 말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몸이니까요!"

* * * * *

나중에.

이 용감한 이들이 협력하는 모습을 지켜보니 정말이지 마음이 든든했다. 남자들이 이토록 진지하고 진실하며 용감한데, 여자가 어찌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한, 이번 일은 돈이 가진 놀라운 힘

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했다.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못 할 일이 없겠지만, 비열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인가. 고달밍 경이 부유하다는 사실과, 그와 더불어 재력이 상당한 모리스 씨가 돈을 아낌없이 쓰려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만약 그들이 선뜻 나서지 않았다면, 우리의 이 작은 원정대는 한 시간 뒤처럼 신속하게 출발하지도, 이토록 완벽하게 장비를 갖추지도 못했을 것이다.

각자 맡을 역할을 정한 지 채 세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 고달밍 경과 조너선은 언제든 즉시 출발할 수 있도록 증기를 가득 채운 멋진 증기 보트를 준비해 두었다. 수어드 박사와 모리스 씨는 잘 갖춰진 튼튼한 말 여섯 마리를 준비했다. 우리는 구할 수 있는 모든 지도와 각종 장비도 갖추었다. 반 헬싱 교수와 나는 오늘 밤 11시 40분 기차를 타고 베레스티로 떠날 예정이다. 그곳에서 마차를 구해 보르고 고개까지 달려가기로 했다. 마차와 말을 사야 하기에 현금도 넉넉히 챙겼다. 마차를 모는 일은 우리가 직접 할 생각이다. 이 일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교수님이 여러 언어에 능통하시니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우리 모두 무기를 챙겼다. 나조차도 구경이 큰 리볼버를 하나 가졌다. 조너선은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무장을 하지 않으면 마음 편히 있지 못할 사람이다. 아아, 하지만 다른 이들이 지니는 무기 하나만큼은 나는 지닐 수 없다. 내 이마에 남은 흉터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행히 반 헬싱 박사님은 늑대가 나타날지도 모르니 이 정도면

충분히 무장한 셈이라며 나를 위로해 주셨다. 날씨는 매시간 점점 추워지고 있으며, 경고라도 하듯 눈발이 날렸다 멎었다를 반복하고 있다.

* * * * *

나중에.--사랑하는 이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했다. 우리는 다시는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 용기를 내자, 미나! 교수님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계신다. 그 눈빛은 경고다. 이제는 눈물을 흘려선 안 된다. 설령 그 눈물이 신의 뜻에 따라 기쁨의 눈물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말이다.

조너선 하커의 일기.

10월 30일. 밤.

증기 보트를 움직이는 화로 문에서 새어 나오는 불빛에 의지해 이 글을 쓴다. 고달밍 경이 불을 지피고 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템스강에 자기 배 한 척을, 노퍽 브로드에 또 한 척을 두고 직접 다뤄온 숙련된 뱃사람이다.

우리의 계획에 관해서는, 미나의 추측이 옳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드라큘라 백작이 성으로 도망치기 위해 수로를 이용한다면, 세레트강을 거쳐 비스트리차강이 합류하는 지점을 택할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북위 47도 부근이 강과 카르파티아 산맥 사이의 육지를 가로지르는 지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밤중에 빠른 속도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에 두려움은 없다. 수심은 충분하고 강폭도 넓어서, 어둠 속에서도 배를 몰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고달밍 경은 지금은 한 사람만 깨어 있으면 충분하니 잠시 눈을 붙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사랑하는 미나에게 닥친 끔찍한 위험과, 그녀가 그 소름 끼치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어떻게 잠이 올 수 있겠는가.

오직 신의 손길에 우리를 맡겼다는 사실만이 유일한 위안이다. 만약 그 믿음조차 없었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라 여겨 살기보다 죽음이 더 쉬웠을 것이다.

우리가 출발하기 전, 모리스 씨와 수어드 박사는 말을 타고 먼저 길을 떠났다. 그들은 강 오른쪽 기슭을 따라 이동하며, 강의 굽이치는 모양을 일일이 쫓지 않아도 강줄기가 멀리까지 잘 보이는 높은 지대를 유지할 계획이다. 초기 단계에서는 사람들의 의심을 사지 않도록, 두 명의 인원이 여분의 말들을 이끌고 가기로 하여 총 네 명이 움직인다. 곧 인원들을 해산시킨 뒤에는 그들이 직접 말들을 돌볼 것이다.

상황에 따라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할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들이 우리 일행 모두를 말에 태울 수 있을 것이다. 안장 중 하나는 안장머리를 움직일 수 있는 형태라, 필요하다면 미나에게도 쉽게 맞출 수 있다.

우리는 지금 거친 모험을 하고 있다. 어둠 속을 급히 달려가는 지금, 강에서 피어오른 냉기가 우리를 덮치는 것만 같다. 주변을 에워싼 밤의 신비로운 목소리들까지 더해지니, 모든 상황이 피부로 절실히 느껴진

다. 우리는 미지의 장소와 알 수 없는 길로, 어둡고 두려운 것들이 가득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떠밀려 들어가는 듯하다. 고달밍이 화로 문을 닫고 있다.

* * * * *

10월 31일.

여전히 서둘러 나아가는 중이다. 날이 밝았고, 고달밍은 잠들어 있다. 나는 경계를 서고 있다. 아침 공기가 몹시도 차갑다. 두툼한 모피 코트를 입고 있는데도 화로의 온기가 고맙게 느껴진다. 아직은 몇 척의 작은 배들만 지나쳤을 뿐이다. 하지만 그 어떤 배에도 우리가 찾는 것만큼 커다란 상자나 꾸러미는 실려 있지 않았다. 우리가 전기등을 비출 때마다 선원들은 겁에 질려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렸다.

* * * * *

11월 1일, 저녁.

하루 종일 아무런 소식도 없다. 우리가 찾는 단서는 전혀 찾지 못했다. 이제 비스트리차 강으로 접어들었다. 만약 우리의 추측이 틀렸다면, 이제 기회는 사라진 셈이다. 우리는 크고 작은 배를 하나하나 전부 뒤졌다. 오늘 이른 아침에는 어느 배의 선원들이 우리를 정부 소속 배로 착각하고 그에 걸맞게 대우해주기도 했다. 우리는 이 점을 이용해 상황을 부드럽게 풀어나가기로 했다. 그래서 비스트리차 강이 세레트 강과 만나는 분두에 도착했을 때 루마니아 국기를 구해왔고, 지금은 그 국기를 눈에 잘 띄게 내걸고 있다. 그 이후로 배를 뒤질 때마다 이 속임

수는 성공적이었다. 사람들은 우리를 깍듯이 대접했고,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든 무엇을 하든 단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어떤 슬로바키아인들의 말에 따르면, 커다란 배 한 척이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자신들을 지나쳐 갔다고 한다. 그 배에는 선원이 두 배로 타고 있었다고 한다. 이 일은 그들이 분두에 도착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 그 배가 비스트리차 강으로 꺾어 들어갔는지 아니면 세레트 강을 따라 계속 올라갔는지는 알 수 없다. 분두에서는 그런 배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으니, 그 배는 밤사이에 이곳을 지나간 것이 분명하다.

몹시 졸음이 쏟아진다. 추위 때문에 몸이 축나기 시작한 모양이다. 몸도 휴식이 필요할 것이다. 고달밍은 자신이 첫 번째 보초를 서겠다고 고집한다. 가여운 미나와 나에게 베풀어 주는 그의 모든 친절에 신의 가호가 있기를.

* * * * *

11월 2일, 아침.

대낮이다. 그 착한 친구는 나를 깨우지 않았다. 내가 평온하게 잠들어 고통을 잠시나마 잊고 있었으니, 나를 깨우는 건 죄악이라고 그는 말했다. 밤새도록 그가 나를 지키게 두고 나만 이렇게 오래 잠을 잤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야만적일 만큼 이기적인 행동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그의 말이 옳았다. 오늘 아침 나는 완전히 새사람이 된 기분이다. 여기 앉아 잠든 그를 지켜보는 동안, 나는 엔진을 살피고 배를 조종하

며 경계를 서는 등 필요한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 기력과 에너지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느껴진다.

지금쯤 미나와 반 헬싱은 어디에 있을까. 그들은 수요일 정오쯤에는 베레스티에 도착했어야 했다. 마차와 말을 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테니, 만약 그들이 출발하자마자 힘차게 이동했다면 지금쯤 보르고 고개 근처에 있을 것이다. 신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도와주시기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하면 두려움이 앞선다. 조금만 더 빨리 갈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럴 수가 없다. 엔진은 힘차게 고동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수어드 박사와 모리스 씨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지 궁금하다. 산에서 이 강으로 흘러드는 물줄기가 끝없이 이어져 있는 듯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 어느 것도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물론 겨울이나 눈이 녹는 시기에는 분명 무시무시하겠지만, 지금은 말을 탄 일행이 큰 장애물을 만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스트라스바에 도착하기 전에는 그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만약 그때까지 드라큘라 백작을 따라잡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의논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수어드 박사의 일기.

11월 2일.

길 위에서 보낸 지 사흘째다. 소식은 없으며, 설령 소식이 있었다 해도 글을 쓸 겨를이 없었다. 매 순간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말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휴식만을 취했을 뿐이지만, 우리 둘 다 놀라울 정도로

잘 버텨내고 있다. 모험을 즐기던 지난날의 경험들이 지금은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 다시 그 보트가 눈에 보일 때까지는 결코 마음 편히 쉬지 못할 것 같다.

* * * * *

11월 3일. 분두에서 들은 바로는 보트가 비스트리차 강을 따라 올라갔다고 한다. 날씨가 이렇게 추운 게 싫다. 눈이 올 기미가 보인다. 눈이 많이 내리면 우리는 발이 묶일 것이다. 만약 그런 상황이 오면, 러시아식으로 썰매를 구해 길을 가야만 한다.

* * * * *

11월 4일.

오늘 소식을 들으니, 급류를 뚫고 올라가려던 중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보트가 발이 묶였다고 한다. 슬로바키아식 배들은 밧줄을 이용하고 숙련된 기술로 방향을 잡기에 무사히 올라가곤 한다. 불과 몇 시간 전에도 몇 척이 급류를 통과했다. 고달밍 본인이 아마추어 기술자라 그런지, 분명 그가 보트의 균형을 다시 잡아준 모양이다. 결국 현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급류를 무사히 통과했고, 그들은 다시 추격을 시작했다. 하지만 사고 탓에 보트 상태가 오히려 나빠진 게 아닐까 걱정이다. 농부들 말로는, 배가 다시 잔잔한 물가로 나왔음에도 시야에 보이는 동안에는 자꾸만 멈춰 섰다고 한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힘을 내서 서둘러야 한다. 곧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미나 하커의 일기.

10월 31일.

정오에 베레스티에 도착했다. 교수님 말씀으로는 오늘 새벽, 최면을 걸려 해도 내가 거의 반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내가 할 수 있었던 말이라곤 그저 "어둡고 고요하다"는 말뿐이었다고 한다. 교수님은 지금 마차와 말을 사러 나가셨다. 나중에 말을 더 사서, 가는 길에 갈아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우리 앞에는 아직 70마일이 넘는 길이 남아 있다. 이곳의 풍경은 아름답고 무척 흥미롭다. 만약 우리가 처한 상황만 달랐더라면, 이 모든 것을 구경하는 일이 얼마나 즐거웠을까. 조너선과 나, 둘이서만 이 길을 달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잠시 멈춰 서서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삶에 대해 배우고, 이 거칠고 아름다운 대지와 독특한 풍습을 가진 사람들의 다채로운 색채와 풍경을 우리의 마음과 기억 속에 가득 채울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아아!—

* * * * *

나중에.

반 헬싱 박사가 돌아왔다. 그는 마차와 말들을 준비해 두었다. 우리는 저녁을 먹고 한 시간 뒤에 출발할 예정이다. 여주인은 우리를 위해 엄청난 양의 식료품 바구니를 챙겨주고 있는데, 마치 군대 한 부대가 먹기에 충분할 정도인 듯하다. 교수님은 여주인을 격려하며 내게 귓속말로 속삭였다. 다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으려면 일주일은 걸릴지도 모른다고 말이다. 교수님은 장보기도 마쳤는데, 집으로 아주 훌륭한 모피 코트와 망토, 그리고 온갖 따뜻한 물건들을 잔뜩 보내두었다. 덕분에 추위에 떨 일은 없을 것 같다.

*****

곧 떠나야 한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생각하면 두려움이 앞선다. 우리는 정말로 신의 손에 운명을 맡긴 처지다. 오직 신만이 앞날을 아시기에, 나는 슬프고도 비천한 영혼의 모든 힘을 다해 간절히 기도한다. 부디 나의 사랑하는 남편을 보살펴 달라고.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조너선이 이것만은 알게 해달라고. 내가 그를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고 존경했으며, 나의 마지막이자 가장 진실한 생각은 언제나 그를 향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제XXVII장

미나 하커의 일기

11월 1일.

하루 종일 꽤 빠른 속도로 이동했다. 말들은 자신들이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모양인지, 지칠 법한 구간에서도 기꺼이 전력 질주한다. 그동안 워낙 여러 번 말을 갈아탔는데도 매번 한결같이 순조로워서, 오히려 이번 여정이 수월하리라는 기대를 품게 된다. 반 헬싱 박사는 말수가 적다. 그는 농부들에게 비스트리츠로 급히 가야 한다고 말하며, 말을 갈아타는 대가로 충분한 돈을 지불한다. 우리는 뜨거운 수프나 커피, 혹은 차를 마시고는 곧장 길을 떠난다. 이곳은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다.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아름다움이 가득하며, 사람들은 용감하고 강인하며 소박하다. 다들 훌륭한 성품을 지닌 듯 보인다. 다만, 그들은 아주, 아주 미신이 심하다. 우리가 처음 멈춰 선 집에서 음식을 내오던 여인이 내 이마에 있는 흉터를 보더니, 액운을 쫓으려는 듯 성호를 긋고 나를 향해 두 손가락을 내밀었다. 그들은 우리 음

식에 마늘을 아주 듬뿍 넣은 모양인데, 나는 마늘을 정말 못 견뎌 한다. 그 일이 있은 후로 나는 모자나 베일을 벗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들의 의심을 피하고 있다. 우리는 빠르게 이동 중이다. 소문을 퍼뜨릴 마부도 동행하지 않으니 구설수에 오를 일은 없겠지만, 액운을 두려워하는 그들의 시선만큼은 여정 내내 우리 뒤를 바짝 쫓아올 것 같다.

교수님은 지칠 줄 모르는 것 같다. 낮 동안 나를 한참 동안 잠들게 해 두었음에도, 그는 하루 종일 한순간도 쉬지 않았다. 해 질 녘에 그는 나를 최면 상태로 몰아넣었고, 평소처럼 '어둠, 찰랑이는 물소리, 그리고 삐걱거리는 나무 소리'라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그러니 우리의 적은 여전히 강가에 있는 셈이다. 조너선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앞서지만, 왠지 모르게 이제는 그에 대해서도, 나 자신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는다.

지금은 말을 준비하는 동안 어느 농가에서 기다리며 이 글을 쓰고 있다. 반 헬싱 박사는 잠들어 있다. 가여운 분, 무척 지치고 늙고 초췌해 보이지만, 입매만큼은 정복자처럼 단호하다. 잠든 순간에도 결연한 의지가 느껴진다. 길을 본격적으로 나서면 내가 직접 말을 몰 테니 그에게 휴식을 취하게 해야겠다. 우리 앞에는 며칠간의 여정이 남아 있으며, 그의 힘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그에게 말해두어야겠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곧 출발한다.

* * * * *

11월 2일, 아침.

일은 순조로웠다. 밤새 교대로 마차를 몰았다. 이제 낮이 밝았다. 맑지만 춥다. 공기 중에 기묘한 중압감이 감돈다. 딱히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중압감이라 표현하지만, 우리 두 사람을 짓누르는 듯한 기분이다. 날씨가 무척 추워서 따뜻한 모피 옷을 껴입어야 겨우 견딜 만하다. 새벽녘에 반 헬싱이 내게 최면을 걸었다. 그는 내가 "어둠, 삐걱거리는 나무 소리, 그리고 포효하는 물소리"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들이 강을 거슬러 올라갈수록 강의 모습이 변하고 있다는 뜻이다. 나의 사랑하는 이가 불필요한 위험에 처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신의 손길에 맡겨져 있다.

* * * * *

11월 2일, 밤.

하루 종일 말을 몰았다. 앞으로 나아갈수록 풍경은 점점 더 거칠어진다. 베레슈티에서는 지평선 너머 멀리 낮게 깔려 보였던 카르파티아 산맥의 거대한 줄기들이, 이제는 우리를 에워싸듯 앞을 가로막으며 높게 솟아 있다. 우리 둘 다 기운이 좋아 보인다. 서로를 북돋아 주려고 애쓰는 것 같다. 그렇게 서로를 다독이다 보니 우리 자신도 힘이 난다. 반 헬싱 박사님은 아침이면 보르고 고개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곳은 이제 집이 거의 없다. 박사님 말씀으로는 말을 갈아탈 수 없을지도 모르니, 마지막으로 구한 말과 함께 계속 가야 할 것 같다고 하셨다. 갈아탄 말 두 마리에 추가로 두 마리를 더 구하셔서, 이제는 투박한 네 마리 마차를 몰게 되었다. 기특한 말들은 참을성 있고 온순해서 우리를 번거롭게 하지 않는다. 다른 여행객들과 마주칠 일도 없어 나조

차 직접 말을 몰 수 있을 정도다. 우리는 낮이 되면 고개에 도착할 것이다. 그보다 일찍 도착하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차례대로 길게 휴식을 취하고 있다.

아, 내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줄까? 우리는 나의 가여운 사랑이 그토록 고통받았던 그곳을 찾아가는 중이다. 부디 신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죽음의 위협에 처한 내 남편과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이들을 굽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나 자신은 신의 눈에 그럴 자격이 없다. 아아, 나는 신의 눈에 부정할 뿐이며, 신의 진노를 사지 않은 자 중 하나로서 그분 앞에 설 수 있게 허락될 때까지는 계속 그러할 것이다.

에이브러햄 반 헬싱의 메모.

11월 4일.

혹시라도 존 수어드 박사를 직접 만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런던 퍼플릿에 사는 나의 오래되고 진실한 친구 존 수어드에게 이 글을 남긴다. 이 기록이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아침이다. 미나 부인의 도움을 받아 밤새 꺼뜨리지 않고 지켜온 모닥불 옆에서 글을 쓰고 있다. 날씨가 너무나도 춥다. 잿빛의 무거운 하늘에는 눈이 가득하다. 땅이 단단하게 얼어붙어 눈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으니, 일단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겨울 내내 쌓여 있을 것 같다.

이 추위가 미나 부인에게도 영향을 준 모양이다. 그녀는 하루 종일 머리가 무거운 듯 평소답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자고, 또 자

고, 계속해서 잠만 잔다! 평소라면 그토록 기민했을 그녀가 오늘 하루는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식욕마저 잃었다. 매번 틈이 날 때마다 일기를 성실히 기록하던 그녀가 작은 일기장에 한 줄도 적지 않고 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자꾸만 속삭인다.

그래도 오늘 밤은 그녀의 생기가 조금 더 돌아왔다. 낮 동안 길게 잠을 잔 덕분에 기운을 차렸는지, 지금은 다시 예전처럼 달콤하고 밝은 모습이다. 해 질 무렵 그녀를 최면 상태로 유도해 보려 했으나, 아아,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나의 능력은 날이 갈수록 점점 약해지더니, 오늘 밤에는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다.

뭐, 하나님의 뜻대로 되리라. 그 뜻이 무엇이든, 우리를 어디로 이끌든 말이다!

이제 그간의 경위를 적어 두어야겠다. 미나 부인이 자신의 속기록에 남기지 않으니, 나라도 이 투박하고 낡은 방식대로나마 기록해 두어야겠다. 그래야 우리의 하루하루가 기록되지 않은 채 사라지는 일을 막을 수 있을 테니.

어제 아침, 해가 막 떠오를 무렵 우리는 보르고 고개에 도착했다. 새벽의 기운이 느껴지자 나는 최면을 준비했다. 방해가 생기지 않도록 마차를 멈추고 모두 내렸다. 나는 모피를 깔아 침상을 만들었다. 미나 부인은 평소처럼 몸을 뉘었으나, 최면에 빠져드는 속도는 그 어느 때보다 더뎠고 머무는 시간도 더 짧았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답이 돌아왔다. "어둠, 그리고 소용돌이치는 물." 그러고는 그녀가 깨어났다. 그녀의 얼굴은 밝고 환하게 빛났다. 우리는 다시 길을 떠나 곧 고개에 다다랐

다. 이 시점과 장소에 이르자 그녀는 열정으로 불타올랐다. 그녀에게 어떤 새로운 인도하는 힘이 나타난 듯, 그녀는 한 길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이 길이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물었다.

"물론 알고 있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러고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덧붙였다. "나의 조너선도 그곳을 여행하고, 그 여정에 대해 글을 남기지 않았나요?"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나, 곧 이런 샛길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길은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부코비나에서 비스트리츠로 이어지는 마차 길과는 아주 달랐다. 마차 길은 훨씬 넓고 단단하며, 훨씬 더 유용하게 쓰이는 길이었다.

우리는 이 길을 따라 내려갔다. 그러다 다른 길과 마주치기도 했는데, 그곳이 정말 길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을 때가 많았다. 관리가 되지 않은 데다 가벼운 눈까지 내려서, 오직 말들만이 길을 알 뿐이었다. 내가 고삐를 맡기면 말들은 아주 인내심 있게 나아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너선이 그 경이로운 일기에 적어 두었던 것들을 모두 발견하게 되었다. 그 후로 우리는 아주 길고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동했다.

처음에는 미나 부인에게 잠을 좀 청하라고 말했다. 부인은 노력했고, 결국 잠이 들었다. 부인은 내내 잠을 잤다. 그러다 결국 나 자신이 점점 의구심이 들어 부인을 깨우려 했다. 하지만 부인은 계속 잠들어

있었고, 아무리 애를 써도 깨울 수가 없었다. 혹여나 부인에게 해가 될까 싶어 너무 무리해서 깨우고 싶지는 않았다. 부인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기에, 때로는 잠이야말로 부인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도 꾸벅꾸벅 졸았던 모양이다. 갑자기 무언가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 죄책감이 느껴져 깜짝 놀라 깨어났다. 정신을 차려 보니 나는 여전히 고삐를 손에 쥔 채였고, 착한 말들은 평소처럼 규칙적인 발걸음으로 뚜벅뚜벅 나아가고 있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미나 부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이제 해가 질 때가 멀지 않았다. 눈 위로 노란 햇살이 거대한 물결처럼 쏟아져 내렸고, 산이 가파르게 솟아오른 곳에는 우리의 길고 커다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우리는 계속해서 위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세상의 끝이라도 된 것처럼 모든 것이 너무나 거칠고 험준한 바위산뿐이었다.

나는 미나 부인을 깨웠다. 이번에는 그녀가 큰 어려움 없이 눈을 떴고, 나는 그녀를 최면 상태로 유도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내가 곁에 없는 것처럼 잠들지 않았다. 나는 계속해서 시도하고 또 시도했다. 그러다 갑자기 나와 그녀가 어둠 속에 잠겨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주위를 둘러보니 어느덧 해가 저물어 있었다. 미나 부인이 웃음을 터뜨렸고, 나는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깨어 있었으며, 우리가 처음 드라큘라 백작의 저택에 들어갔던 그날 카팩스에서의 밤 이후로 본 모습 중 가장 건강해 보였다. 나는 놀라면

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나를 향해 너무나 밝고 다정하며 사려 깊게 대해준 덕분에, 나는 모든 두려움을 잊을 수 있었다.

우리가 가져온 땔감이 있어 나는 불을 피웠고, 그녀가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나는 말들의 고삐를 풀고 쉼터에 묶어 먹이를 주었다. 내가 다시 화롯가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내 저녁 식사를 준비해 두었다. 내가 돕겠다고 다가갔으나, 그녀는 이미 배가 너무 고파 기다릴 수가 없었다며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심한 의구심이 들었지만, 그녀를 놀라게 할까 두려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도와주었고 나는 혼자 식사를 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모피를 덮고 화롯가 옆에 누웠다. 나는 내가 지켜볼 테니 그녀는 잠을 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곧 나는 지키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다. 그러다 문득 감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떠올렸을 때, 그녀는 조용히 누워 있었으나 잠들지 않은 채 형형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런 일이 한두 번 더 반복되었고, 나는 아침이 오기 전까지 깊은 잠을 잤다. 깨어나서 그녀를 최면 상태로 만들려 노력했으나, 아아! 그녀는 순종적으로 눈을 감았음에도 잠들지 못했다. 해가 뜨고, 뜨고, 또 떠올랐다. 뒤늦게 잠이 찾아왔으나, 너무나 깊이 잠든 나머지 그녀는 깨어나지 않았다. 나는 말들에게 마구를 채우고 모든 채비를 마친 뒤, 잠든 그녀를 들어 올려 마차에 뉘어야 했다. 부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잠든 모습은 이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혈색도 더 붉어 보였다. 나는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두렵다, 두렵고, 또 두렵다! 나는 모든 것이 두렵다. 하지만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계속 길을 떠나야만 한다. 우리

가 걸고 있는 판돈은 삶과 죽음, 혹은 그 이상의 것이기에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된다.

* * * * *

11월 5일, 아침.

모든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겠다. 당신과 내가 그동안 기이한 일들을 함께 겪어왔다지만, 당신은 처음에 나, 반 헬싱이 미쳤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 수많은 공포와 오랫동안 신경을 짓눌러온 긴장이 결국 내 정신을 망가뜨렸다고 말이다.

어제 하루 종일 우리는 산을 향해 계속 나아갔다. 산에 가까워질수록 풍경은 점점 더 거칠고 황량한 땅으로 변해갔다. 험준하고 위압적인 절벽이 늘어서 있었고, 곳곳에서 폭포가 쏟아져 내렸다. 마치 대자연이 한때 성대한 축제를 벌였던 것처럼 보였다. 미나 부인은 여전히 잠만 자고 있다. 나는 배가 고파 음식을 먹어 허기를 달랬지만, 미나 부인을 깨울 수는 없었다. 식사를 위해서라도 말이다. 나는 이곳의 치명적인 마법이 부인에게 걸린 것은 아닌지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흡혈귀의 세례를 받아 오염된 탓일지도 모른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좋아, 부인이 낮 내내 잠만 잔다면, 나라도 밤에 잠들지 않으면 돼." 길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고대의 불완전한 형태를 띤 거친 길을 따라 이동하며 나는 고개를 떨구고 잠이 들었다. 죄책감과 함께 시간이 꽤 흘렀음을 느끼며 다시 깨어났을 때, 미나 부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해는 이미 낮게 기울어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정말로 변해 있었다. 위압적이던 산들은 멀어진 듯 보였고, 우리는 가파른 언덕 꼭대기에 다

다랐다. 그 정상에는 조너선이 일기에 적었던 바로 그 성이 서 있었다. 나는 기쁨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이제 좋든 싫든, 결말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미나 부인을 깨워 다시 한번 최면을 걸어보려 애썼으나, 아아, 너무 늦어버린 뒤라 아무 소용이 없었다. 거대한 어둠이 우리를 덮치기 전, 즉 해가 저문 뒤에도 하늘이 눈 위에 남은 잔광을 반사해 온 세상이 잠시 동안 짙은 황혼에 잠겨 있을 때, 나는 말들을 끌어내어 찾을 수 있는 대로 은신처를 마련해 먹이를 주었다. 그러고 나서 불을 피웠다. 이제 깨어나 그 어느 때보다 매혹적인 모습이 된 미나 부인을 불가에 앉히고, 그녀가 덮고 있는 담요들 사이에서 편히 쉴 수 있게 해주었다. 음식을 준비했지만, 그녀는 배가 고프지 않다며 먹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의 상태가 어떠한지 잘 알기에 억지로 권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나는 먹어야만 했다. 앞으로 닥칠 모든 일에 맞서려면 반드시 기운을 차려야 했기 때문이다.

그다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두려움을 안은 채 미나 부인이 앉아 있는 곳을 중심으로 그녀가 편히 있을 수 있을 만큼 커다란 원을 그렸다. 그리고 그 원 위로 성체를 조금씩 뿌린 뒤, 빈틈없이 지켜낼 수 있도록 잘게 부수어 놓았다. 그녀는 내내 가만히 앉아 있었다. 마치 죽은 사람처럼 미동도 없었다. 그녀의 안색은 눈보다 더 창백해질 정도로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는 내게 매달렸다. 그 가련한 영혼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떨고 있는 것이 느껴졌는데, 그 떨림은 차마 마주하기 힘들 정도

로 고통스러워 보였다. 그녀가 조금 진정되었을 때, 나는 이렇게 말했다.

"불가로 좀 오지 않겠니?" 나는 그녀의 상태를 시험해 보고 싶어 그렇게 물었다. 그녀는 내 말에 순종하듯 일어섰으나, 한 발짝을 내디디자마자 마치 무언가에 맞은 듯 멈춰 서고 말았다.

"왜 계속하지 않으세요?" 내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가로젓더니, 다시 돌아와 제자리에 앉았다. 그러고는 마치 잠에서 막 깨어난 사람처럼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녀는 말을 멈추고 침묵에 잠겼다. 나는 기뻤다. 그녀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어떤 존재도 결코 해낼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의 육신은 위험에 처할지언정, 그녀의 영혼만은 안전했다!

이윽고 말들이 비명을 지르며 매어둔 줄을 필사적으로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내가 다가가 달래줄 때까지 말들은 계속 그랬다. 내 손길이 닿자 말들은 기쁜 듯 낮게 울부짖으며 내 손을 핥았고, 한동안은 조용해졌다. 밤새도록 나는 몇 번이고 말들에게 다가갔다. 만물이 가장 고요해지는 차가운 새벽녘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내가 갈 때마다 말들은 안정을 되찾았다.

그 새벽녘이 되자 불꽃이 사그라들기 시작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며 차가운 안개를 몰고 오기에, 나는 불을 지피러 나서려 했다. 어둠 속에서도 눈 위에는 늘 그렇듯 어떤 종류의 빛이 감돌았다. 휘날리는 눈

송이와 안개 띠들은 마치 긴 옷자락을 늘어뜨린 여인들의 형상처럼 보였다. 모든 것이 죽은 듯 엄숙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오직 말들이 최악의 공포를 마주한 듯 겁에 질려 움츠러들며 울부짖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나는 끔찍한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내 내가 서 있는 이 원 안은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또한 내가 느끼는 이 감정들이 밤의 어둠과 그동안 겪어온 불안, 그리고 모든 끔찍한 걱정들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조너선이 겪었던 그 끔찍한 경험들이 내 기억 속에서 나를 농락하는 것만 같았다. 눈송이와 안개가 소용돌이치며 돌기 시작하더니, 마치 그에게 입을 맞추려 했던 여인들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보이는 듯했다.

그러자 말들은 더욱 낮게 몸을 웅크리며, 마치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처럼 공포에 질려 울부짖었다. 말들은 겁에 질려 정신을 놓아버린 듯, 줄을 끊고 도망칠 기력조차 없어 보였다. 기괴한 형체들이 가까이 다가와 주위를 맴돌자, 나는 사랑하는 미나 부인이 걱정되어 견딜 수 없었다.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미나는 평온하게 앉아 나를 향해 미소 지었다. 내가 불을 지피러 움직이려 하자, 그녀는 나를 붙잡아 만류하며 꿈속에서나 들릴 법한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안 돼! 안 돼! 나가지 마세요. 여기 있으면 안전해요!" 나는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요? 내가 두려워하는 건 바로 당신의 안위예요!" 그러자 그녀는 낮고 비현실적인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내 걱정을 하라고요? 왜 제 걱정을 하세요? 세상 그 누구보다 제가 그들로부터 가장 안전한걸요."

그녀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의아해하던 찰나, 돌풍이 불어와 불길이 확 타올랐다. 그 순간 그녀의 이마에 남은 붉은 흉터가 내 눈에 들어왔다. 아, 슬프도다! 나는 깨닫고 말았다. 아니, 깨닫지 못했더라도 곧 알게 되었을 것이다. 안개와 눈이 소용돌이치며 형체를 갖춘 채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형체들은 성스러운 원 밖에서만 맴돌 뿐이었다.

이윽고 그 형체들이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신께서 내 이성을 앗아가지 않으셨다면,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노라. 조너선이 방 안에서 보았던 그 세 여인이, 그의 목에 입을 맞추려던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살덩이를 가진 실체가 되어 내 앞에 나타난 것이다. 흔들거리며 움직이는 몸의 곡선, 번뜩이는 차가운 눈빛, 하얀 치아, 혈색이 도는 피부와 관능적인 입술을 나는 알아볼 수 있었다.

그들은 가엾고 사랑스러운 미나 부인을 향해 끊임없이 미소 지었다. 밤의 정적을 깨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서로 팔을 꼬아 쥐고는 미나 부인을 가리키며 말했다. 조너선이 물잔에서 느껴지는 참을 수 없을 만큼 달콤한 소리라고 묘사했던, 그 황홀하고도 소름 끼치도록 감미로운 목소리로.

"이리 와요, 누이여. 우리에게 와요. 어서! 어서!"

나는 겁에 질린 채 가련한 미나 부인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 순간 기쁨이 불꽃처럼 내 심장을 뛰게 했다. 오, 그녀의 그 아름다운 눈에 서린 공포와 혐오, 그리고 경악은 내 마음속에 희망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었다. 그녀가 아직 그들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신께 감사를 드렸다.

나는 곁에 있던 땔감을 집어 들고, 성체를 손에 쥔 채 불을 향해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러자 그들은 나를 피해 뒤로 물러나며 낮고 소름 끼치는 웃음을 흘렸다. 나는 불을 지피며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우리가 마련한 보호막 안에서는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체로 무장한 나에게도, 또 원 안에 머물러 있는 미나 부인에게도 그들은 다가올 수 없었다. 그녀가 원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원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말들은 울음소리를 멈추고 땅 위에 가만히 누워 있었다. 눈이 말들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으며 말들의 몸은 점점 더 하얗게 변해갔다. 불쌍한 짐승들에게 더는 공포가 남아 있지 않음을 나는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새벽의 붉은 빛이 눈 덮인 어스름을 뚫고 비쳐들 때까지 그렇게 그곳에 머물렀다. 나는 황량함과 두려움에 휩싸였고, 슬픔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저 아름다운 태양이 지평선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자, 나는 다시 삶의 활기를 되찾았다. 새벽이 처음 밝아오자 그 끔찍한 형체들은 휘몰아치는 안개와 눈 속으로 녹아들 듯 사라졌다. 투명한 어둠의 고리들은 성을 향해 멀어져 가더니 이내 자취를 감추었다.

새벽이 밝아오자 나는 본능적으로 미나 부인에게 다가가 그녀를 최면 상태로 유도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깊고 갑작스러운 잠에 빠져 있었고, 아무리 깨우려 해도 반응이 없었다. 잠든 상태에서도 최면을 걸어보려 애썼으나 미나는 전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날이 밝았다.

나는 여전히 움직이기가 두렵다. 불을 지피고 말들을 살펴보았는데, 모두 죽어 있었다. 오늘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많기에, 해가 높이 뜰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눈과 안개가 햇빛을 가릴지라도, 내가 가야 할 어떤 장소에서는 그 햇빛이 나를 지켜줄 안전한 방패가 되어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아침 식사로 기운을 차린 뒤, 곧바로 그 끔찍한 일을 시작해야겠다. 미나 부인은 아직 잠들어 있다. 신께 감사할 따름이다. 그녀는 잠든 모습이 아주 평온하다.

조너선 하커의 일기.

11월 4일, 저녁.

보트가 사고를 당한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다. 그 사고만 아니었어도 진작에 배를 따라잡았을 것이고, 나의 사랑하는 미나도 지금쯤 자유의 몸이 되었을 텐데. 그 끔찍한 곳 근처 황야에 나가 있는 미나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앞선다. 우리는 말을 구했으니 이제 그 흔적을 따라 추격할 것이다. 고달밍이 채비를 하는 동안 이 글을 남긴다.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다. 만약 스자니 족이 싸울 생각이라면 각오

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 아, 모리스와 수어드 박사가 우리와 함께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저 희망할 뿐이다! 만약 내가 더 이상 글을 쓰지 못하게 되더라도, 미나, 작별 인사를 전한다! 신께서 당신을 축복하고 지켜주시기를.

수어드 박사의 일기.

11월 5일.

동이 틀 무렵, 강가에서 리터 마차를 몰고 급히 달아나는 츠가니족의 무리를 보았다. 그들은 무언가에 쫓기기라도 하는 듯 옹기종기 모여서둘러 길을 재촉했다. 눈은 가늘게 내리고 있으며, 공기 중에는 기묘한 흥분이 감돈다. 우리 자신의 기분 탓일지도 모르나, 형언할 수 없는 우울함이 느껴진다. 멀리서 늑대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눈이 내리면서 늑대들이 산에서 내려오고 있다. 사방에서, 그리고 모든 곳에서 우리 모두에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말들이 거의 준비되었으니 곧 출발할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의 죽음을 향해 달리고 있다. 그것이 누구인지, 어디인지, 무엇인지, 혹은 언제, 어떻게 닥쳐올지는 오직 신만이 아실 것이다.

반 헬싱 박사의 메모.

11월 5일, 오후.

적어도 나는 제정신이다. 그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이 끔찍하기 짝이 없었으나, 어찌 되었든 그런 자비가 내게 남아 있음에 신께 감사할 따름이다. 성스러운 원 안에서 잠든 미나 부인을 뒤로하고, 나는 성을 향

해 길을 나섰다. 베레스티에서 마차에 실어 온 대장간 망치가 유용하게 쓰였다. 성문은 모두 열려 있었지만, 나는 녹슨 경첩을 부수어 문을 떼어냈다. 혹여나 악의적인 의도나 불운한 사고로 문이 닫혀, 성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지 못하게 될까 염려되었기 때문이다. 조너선 하커가 겪은 고통스러운 경험이 이럴 때 도움이 되었다. 나는 그의 일기를 기억해 내어 옛 예배당으로 향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곳에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다. 마치 유황 연기가 자욱한 것 같아 때때로 어지러움이 느껴졌다.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늑대들이 울부짖는 소리도 들리는 듯했다. 문득 사랑하는 미나 부인이 떠올라 나는 절망적인 처지에 빠졌다. 마치 딜레마라는 괴물의 두 뿔 사이에 끼어버린 기분이었다.

그녀를 이곳으로 데려올 엄두는 내지 못했다. 대신 성스러운 원 안에 그녀를 남겨두어 흡혈귀로부터 안전하게 지켰다. 하지만 그곳조차 늑대로부터 안전하지는 못할 터였다! 나는 내 과업이 이곳에 있음을 결심했다. 그리고 늑대에 관해서라면, 그것이 신의 뜻일 경우 우리는 순응할 수밖에 없으리라 마음먹었다. 어차피 그 너머에 있는 것은 죽음과 자유뿐이었다. 나는 그녀를 위해 그런 선택을 내렸다. 만약 나 자신만을 위한 선택이었다면 결정은 쉬웠을 것이다. 흡혈귀의 무덤보다는 차라리 늑대의 아가리 속에서 안식을 취하는 편이 나을 테니까. 그리하여 나는 내 일을 계속하기로 결심한다.

찾아야 할 무덤이 적어도 세 개는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누군가 깃들어 있는 무덤들 말이다. 나는 계속해서, 그리고 또 계속해서 뒤진 끝에 마침내 그중 하나를 찾아냈다. 그녀는 흡혈귀의 잠에 빠져 있

었다. 생동감이 넘치고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머금은 그 모습에, 나는 마치 살인을 저지르러 온 사람처럼 몸서리쳤다. 아, 옛날에 이런 존재들이 실재하던 시절에는, 나와 같은 일을 하러 나섰던 수많은 남자가 결국 마지막 순간에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다 결국 정신마저 무너지고 말았을 것이다. 남자는 망설이고, 또 망설이며 시간을 끌다가, 결국 방탕한 언데드가 뿜어내는 아름다움과 매혹에 홀려 최면에 걸리고 만다. 해가 저물고 흡혈귀의 잠이 깨어날 때까지 그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된다. 그러면 그 아름다운 여인이 눈을 뜨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볼 것이며, 관능적인 입술은 입맞춤을 청해올 것이다. 인간이란 참으로 나약한 존재다. 그러면 흡혈귀의 무리에는 희생자가 한 명 더 늘어나게 된다. 언데드의 그 참혹하고 소름 끼치는 대열에 합류할 희생자가 또 한 명 추가되는 것이다!

분명 어떤 매혹적인 힘이 존재한다. 세월의 풍파를 겪고 수 세기 동안 쌓인 먼지로 무겁게 뒤덮인 무덤 속에 누워 있는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나는 마음이 움직였다. 비록 드라큘라 백작의 은신처에서나 날 법한 그 끔찍한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음에도 말이다. 그렇다, 나는 흔들렸다. 증오라는 분명한 목적과 동기를 지닌 나, 반 헬싱조차 말이다. 나는 무언가를 미루고 싶다는 간절한 갈망에 휩싸였고, 그 감정은 마치 내 능력을 마비시키고 영혼마저 짓누르는 듯했다. 아마도 자연스러운 잠이 필요했던 데다, 공기의 기묘한 압박감이 나를 짓누르기 시작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내가 잠에 빠져들고 있었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달콤한 매혹에 굴복한 채 눈을 뜨고도 잠드는 그런 상태 말이다. 바로

그때, 눈이 내려 고요해진 공기를 뚫고 길고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슬픔과 연민이 가득 담긴 그 소리는 마치 나팔 소리처럼 나를 깨웠다.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미나 부인의 목소리였다.

나는 다시금 이 끔찍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다. 무덤의 덮개를 비틀어 열자, 자매 중 또 다른 한 명, 즉 다른 검은 머리의 자매가 나타났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느라 시간을 지체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자칫하면 아까 그 자매에게 그랬던 것처럼 다시금 홀려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계속해서 수색을 이어갔다. 그러다 마침내, 마치 누군가 깊이 사랑했던 이를 위해 만든 듯한 거대하고 높은 무덤 속에서, 또 다른 아름다운 금발 자매를 발견했다. 조너선이 그랬듯, 나 역시 그녀가 안개 입자 사이에서 몸을 추스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그녀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부실 만큼 아름다웠고, 찬란한 광채를 내뿜으며 정교할 정도로 관능적이었다. 그 모습에 내 안의 남성적 본능이 꿈틀거렸다. 여성을 사랑하고 보호하려는 그 본능 때문에 머릿속이 새로운 감정으로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사랑하는 미나 부인이 내뱉던 그 영혼의 비명이 귓가에서 사라지지 않은 덕분에, 주문이 나를 더 깊이 잠식하기 전에 나는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거친 작업에 몰두할 수 있었다. 이때쯤이면 예배당 안의 무덤은 내가 확인할 수 있는 한 모두 뒤져본 상태였다. 밤새 우리 주변을 맴돌던 언데드 환영이 고작 세 명뿐이었으니, 활동 중인 언데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때 다른 무덤들보다 훨씬 위엄 있는 거대한 무덤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무덤은 거대했고 그 비율 또한 숭고했다. 그 위에는 단 한 단어만이 적혀 있었다.

이곳이 바로 수많은 희생자를 거느린 뱀파이어 왕, 드라큘라의 언데드 거처였다. 텅 빈 그 공간은 내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무엇보다도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나의 끔찍한 작업을 통해 이 여인들을 죽음의 상태로 되돌리기 전, 나는 드라큘라의 무덤 안에 성체를 일부 넣어 두었다. 그로 인해 드라큘라는 언데드인 채로 영원히 그곳에서 쫓겨났다.

그 끔찍한 과업이 시작되었고, 나는 그것이 두려웠다. 만약 상대가 한 명뿐이었다면 비교적 쉬웠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세 명이나 된다니! 이미 한 번의 참혹한 일을 겪은 뒤에, 두 번이나 더 이 일을 시작해야 한다니 말이다. 상냥한 루시 양을 상대로 한 일도 이토록 끔찍했는데, 수 세기를 살아남으며 세월의 흐름 속에 더욱 강해진 이 기이한 존재들을 상대로는 또 어떠할 것인가. 이들은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자신들의 추악한 목숨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워들 것이다.

오, 나의 친구 존, 그건 정말 도살이나 다름없는 작업이었네. 다른 죽은 자들과,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살아있는 자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지 않았더라면, 나는 도저히 계속할 수 없었을 거야.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신께 감사할 정도로 내 정신력은 버텨주었지만, 나는 지금도 여전히 몸을 떨고 있네. 만약 애초에 그 평온함을 보지 못했더라면, 그리고 마지막 소멸이 닥치기 직전, 영혼을 구원했다는 깨달음과 함께 그 얼굴 위로 번지던 환희를 보지 못했더라면, 나는 그 잔혹한 도살을 더는 이어가지 못했을 것이네. 말뚝이 박힐 때 들려오던 그 끔찍한 비명과, 몸부림치며 곤두박질치는 형체, 그리고 피 섞인 거품을

내뿜던 입술을 견뎌낼 재간이 내게는 없었을 테니까. 그랬다면 나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고, 하던 일도 끝내지 못했을 거야.

하지만 이제 다 끝났네! 가련한 영혼들을 생각하면 이제는 동정심이 들어 눈물이 나네. 사라지기 직전, 아주 짧은 순간 동안 죽음이라는 깊은 잠에 들어 평온해진 그들을 떠올리면 말일세. 친구 존, 내 칼이 그들의 머리를 베어내자마자, 온몸이 마치 본래의 흙으로 돌아가듯 녹아내리며 부스러지기 시작했네. 마치 수 세기 전에 찾아왔어야 할 죽음이 마침내 제 권리를 주장하며, 단번에, 그리고 아주 크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외치는 것만 같았네.

성채를 떠나기 전, 나는 드라큘라 백작이 언데드의 모습으로 다시는 그곳을 통해 들어올 수 없도록 입구들을 철저히 봉쇄했다.

미나 부인이 잠들어 있는 원 안으로 발을 들여놓자, 그녀가 잠에서 깨어났다. 나를 본 그녀는 내가 너무 많은 고통을 견뎌왔다며 비명을 지르듯 울부짖었다.

“어서요!” 그녀가 말했다. “이 끔찍한 곳에서 어서 벗어나요! 우리를 향해 오고 있는 제 남편을 맞으러 가요. 분명 오고 있을 거예요.” 그녀는 수척하고 창백하며 기운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눈동자만큼은 맑았고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창백한 안색과 병색을 보고 오히려 안도했다. 내 마음은 그 붉은 흡혈귀의 잠이 선사한 생생한 공포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신뢰와 희망을 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움에 휩싸인 채 동쪽으로 향한다.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미나 부인이 분명히 오고 있다고 말한 바로 '그'를 만나기 위해서 말이다.

미나 하커의 일기.

11월 6일.

교수님과 내가 조너선이 오고 있다는 동쪽을 향해 길을 나섰을 때는 이미 늦은 오후였다. 길은 가파른 내리막이었지만 우리는 서둘러 가지 않았다. 두꺼운 담요와 겉옷을 챙겨 가야 했기 때문이다. 추위와 눈 속에서 온기 하나 없이 남겨질 위험만큼은 감히 감수할 수 없었던 것이다. 주변은 완전히 황량한 곳이었고, 눈보라 사이로 보이는 곳에는 사람의 흔적조차 없었기에 식량도 어느 정도 챙겨야 했다.

1마일쯤 걸었을 때, 나는 고된 걸음에 지쳐 잠시 앉아 쉬었다. 그때 뒤를 돌아보니 하늘을 가로지르는 드라큘라 백작 성의 선명한 윤곽이 보였다. 우리가 성이 자리 잡은 언덕 아래로 너무도 깊숙이 내려와 있던 탓에, 카르파티아 산맥마저 원근의 각도상 성보다 훨씬 아래에 놓여 보였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 꼭대기, 천 피트 높이에 위태롭게 솟아 있는 성의 웅장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성은 사방의 가파른 산과는 마치 거대한 틈이 벌어져 있는 것처럼 떨어져 있었다.

그곳에는 무언가 거칠고 기이한 기운이 감돌았다. 멀리서 늑대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지만, 눈보라에 묻혀 둔탁하게 들려오는 그 소리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반

헬싱 박사가 주변을 살피는 모습을 보니, 공격을 받았을 때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를 찾으려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거친 길은 여전히 아래로 이어져 있었고, 우리는 쌓인 눈 사이로 그 길의 흔적을 따라갈 수 있었다.

잠시 후 교수가 내게 신호를 보냈기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교수는 아주 기막힌 장소를 찾아낸 모양이었다. 바위 사이에 문처럼 입구가 나 있는, 바위 속의 천연 움푹한 공간이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안으로 이끌며 말했다.

"보게나! 여기 있으면 비바람을 피할 수 있네. 만약 늑대들이 나타나더라도 내가 한 마리씩 상대할 수 있을 거야."

그는 우리가 가져온 모피를 안으로 들여와 내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아늑한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그러고는 식량을 꺼내 내게 먹으라고 권했다. 하지만 도저히 음식을 넘길 수가 없었다. 무언가를 먹으려 시도하는 것조차 혐오스러웠다. 교수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으나, 차마 입을 뗄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는 무척 슬픈 기색이었으나 나를 나무라지는 않았다. 그는 가방에서 망원경을 꺼내 들고는 바위 꼭대기에 올라 지평선 너머를 살피기 시작했다. 그러다 갑자기 그가 소리쳤다.

"보게! 미나 부인, 보게! 보게!"

나는 벌떡 일어나 바위 위에서 그의 곁에 섰다. 그는 내게 망원경을 건네며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켰다.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눈발은 더욱 거세졌고, 사납게 휘몰아쳤다. 하지만 눈보라가 잠시 잦아드는 순간마다 멀리까지 시야가 트였다. 우리가 서 있는 높은 곳에서는 아주 먼 곳까지 내다볼 수 있었다. 하얗게 뒤덮인 설원 너머로, 굽이굽이 흐르는 강물이 마치 검은 리본처럼 보였다.

우리 바로 앞,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말을 탄 무리가 급히 달려오고 있었다. 사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왜 진작 알아채지 못했나 싶을 정도였다. 그 무리 가운데에는 긴 수레 한 대가 섞여 있었는데, 울퉁불퉁한 길을 지날 때마다 수레가 마치 개 꼬리처럼 좌우로 심하게 흔들거렸다. 눈을 배경으로 실루엣이 드러난 그들의 옷차림을 보니, 농민이나 집시 무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레 위에는 커다란 사각형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 상자를 보자 심장이 요동쳤다.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어느덧 저녁이 깊어가고 있었다. 해가 지면 저 상자 안에 갇혀 있던 '그 존재'가 다시 자유를 얻으리라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 존재는 수많은 모습으로 변할 수 있어, 어떤 추적도 따돌릴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두려움에 떨며 반 헬싱 교수에게 몸을 돌렸다. 하지만 교수님이 보이지 않자 나는 경악하고 말았다. 잠시 후, 아래쪽에서 교수님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바위 주위에 어젯밤 우리가 몸을 피했던 것과 같은 결계의 원을 그려놓고 있었다. 원을 다 그린 교수님은 다시 내 곁으로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적어도 이곳에 있으면 그놈으로부터는 안전할 걸세!" 그는 내게서 망원경을 가져가더니, 곧이어 눈보라가 잠시 잦아든 사이 그것으로 발

밑의 온 공간을 훑었다. "보게나," 그가 말했다. "놈들이 빠르게 오고 있어. 말들을 채찍질하며 전력을 다해 질주하고 있군."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공허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들은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하려고 서두르고 있어. 우리가 너무 늦을지도 모르겠군. 신의 뜻대로 되겠지!"

눈보라가 다시 한번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거세게 몰아치며 온 세상을 집어삼켰다. 하지만 눈보라는 곧 잦아들었고, 그는 다시 안경 너머로 평원을 응시했다. 그때, 갑자기 비명이 터져 나왔다.

"보게! 보게! 보게! 저기, 남쪽에서 말 탄 두 사람이 빠르게 쫓아 올라오고 있네. 퀸시와 존이 분명해. 망원경을 받게. 눈보라가 다 가려 버리기 전에 얼른 보게!"

나는 망원경을 받아 들고 들여다보았다. 그 두 사람은 수어드 박사와 모리스 씨일지도 몰랐다. 어쨌든 그들 중 누구도 조너선은 아니라는 사실만은 확실했다. 동시에 나는 조너선이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도 직감했다. 주위를 둘러보니 다가오는 일행의 북쪽에서 다른 두 남자가 말에 올라탄 채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은 조너선이었고, 나머지 한 명은 당연히 고달밍 경이라고 생각했다. 그들 역시 수레를 몰고 가는 일행을 뒤쫓고 있었다.

내가 이 사실을 교수님께 말씀드리자, 그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소리를 질렀다. 눈이 내려 시야가 가려질 때까지 그는 한참 동안

망원경을 들여다보더니, 우리 은신처 입구의 바위에 윈체스터 소총을 기대어 세워두고 언제든 쏠 수 있게 준비했다.

"모두 한곳으로 모여들고 있군." 그가 말했다. "때가 되면 사방이 집시들로 가득 차겠어."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사이 늑대들의 울부짖음이 더 크고 가깝게 들려왔기에, 나는 리볼버를 손에 닿기 쉬운 곳에 꺼내 두었다. 눈보라가 잠시 잦아들자 우리는 다시 밖을 살폈다. 우리 바로 앞에서는 눈송이가 굵게 흩날리는데, 저 멀리 산봉우리 너머로 지는 해는 갈수록 밝게 빛나고 있는 광경은 참으로 기묘했다. 망원경으로 주변을 훑어보니 여기저기서 점 같은 형체들이 한두 개, 혹은 서너 개씩, 때로는 더 큰 무리를 지어 움직이고 있었다. 늑대들이 먹잇감을 덮치기 위해 모여들고 있었다.

기다리는 매 순간이 마치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바람은 이따금 사납게 몰아쳤고, 소용돌이치며 우리를 덮치는 눈보라는 맹렬한 기세로 휘몰아쳤다. 때로는 바로 앞의 팔 길이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였으나, 공허한 울림을 내며 바람이 스쳐 지나갈 때면 주변의 공기가 씻겨 내려간 듯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었다. 우리는 근래 들어 일출과 일몰을 살피는 데 익숙해진 터라, 해가 언제 뜨고 질지 꽤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머지않아 해가 질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우리가 그 바위 은신처에서 기다린 시간이, 여러 무리가 우리 근처로 모여들기 시작하기 전까지 채 한 시간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바람은 이제 북쪽에서 더욱 거세고 매섭게, 그리고 끊임없이 몰아쳤다. 바람이 눈구름을 몰아낸 듯, 눈은 간헐적으로 쏟아질 뿐이었다. 덕분에 우리는 쫓기는 자와 쫓는 자, 각 무리의 개별적인 움직임을 분명히 식별할 수 있었다. 기이하게도 쫓기는 자들은 자신들이 추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거나, 적어도 개의치 않는 듯 보였다. 다만 산봉우리 너머로 해가 점점 낮게 가라앉을수록, 그들은 더욱 속도를 높여 서둘러 움직일 뿐이었다.

그들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교수님과 나는 바위 뒤에 몸을 웅크린 채 무기를 움켜쥐고 대비했다. 교수님은 그들이 결코 지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그들은 우리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다.

갑자기 두 목소리가 "멈춰라!" 하고 외쳤다. 하나는 내 조너선이 격앙된 목소리로 내지른 외침이었고, 다른 하나는 모리스 씨의 강인하고 단호하며 절제된 명령조였다. 집시들이 그 언어를 알아듣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어떤 언어로 말하든 그 어조만큼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집시들은 본능적으로 고삐를 당겨 말을 멈춰 세웠다. 그 순간 고달밍 경과 조너선이 한쪽에서 달려들었고, 수어드 박사와 모리스 씨가 반대편에서 달려들었다. 마치 켄타우로스처럼 말 위에 위풍당당하게 앉아 있던 집시 무리의 우두머리가 손을 휘저어 그들을 물러나게 하더니, 사나운 목소리로 동료들에게 나아가라는 듯 무언가를 명령했다. 집시들이 채찍질을 하자 말들이 앞으로 튀어 나갔다. 하지만 네 남자는 윈체스터 소총을 들어 올리며 그들이 멈출 수밖에 없도록 분명하게 경고했다. 동시에 반 헬싱 박사와 나도 바위 뒤에서 일어나 그들을 향해 무기

를 겨누었다. 포위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집시들은 고삐를 죄며 멈춰 섰다. 우두머리가 그들을 향해 돌아섰고, 그가 어떤 말을 내뱉자 집시 무리의 모든 남자가 칼이나 권총 같은 무기를 꺼내 들며 공격 태세를 갖추었다. 순식간에 격렬한 충돌이 일어났다.

우두머리는 재빠른 고삐질로 자신의 말을 무리 앞으로 몰아 나섰다. 그러고는 이제 막 언덕 꼭대기에 걸린 태양을 먼저 가리키더니, 이어서 성을 가리키며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다. 그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우리 일행 네 명은 말에서 뛰어내려 수레를 향해 돌진했다. 조너선이 저토록 위험에 처한 것을 보았다면 분명 공포에 질렸겠지만, 나 역시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전투의 열기에 휩싸인 상태였다. 두려움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는 거칠고 격렬한 충동만이 몰아칠 뿐이었다. 우리 일행이 기민하게 움직이는 것을 본 집시들의 우두머리가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그의 부하들은 즉시 수레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명령을 수행하려는 의욕이 앞선 나머지, 사람들은 서로 어깨를 부딪치고 밀치며 무질서하게 움직였다.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나는 조너선이 사람들의 원형 대열 한쪽에서, 퀸시가 다른 한쪽에서 수레를 향해 길을 뚫고 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두 사람 모두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임무를 완수하려는 기세였다. 그 무엇도 그들을 멈추거나 방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앞을 가로막은 집시들이 겨눈 무기나 번뜩이는 칼날도, 뒤에서 울부짖는 늑대 소리도 그들의 주의를 끌지 못했다. 조너선의 저돌적인 태도와 확고한 의지는 앞을 막아선 이들을 압도하는 듯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움츠러들며 옆으로 비켜나 그를 지나가게 해주었다. 조너선은 순식간에 수레 위로 뛰

어올랐다. 그리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괴력을 발휘해 커다란 상자를 들어 올려 바퀴 너머 바닥으로 내던졌다.

그사이 모리스 씨는 자신을 가로막은 사가니족의 대열을 뚫기 위해 힘을 써야 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조너선을 지켜보면서도, 곁눈질로 그가 필사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그가 집시들 사이로 길을 뚫고 나아갈 때, 그들이 그를 향해 칼을 휘둘렀고 그 칼날이 번뜩이는 것을 보았다. 그는 커다란 보위 나이프로 그 공격들을 막아냈고, 처음에는 그 역시 무사히 빠져나온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이미 수레에서 뛰어내린 조너선의 곁으로 그가 달려왔을 때, 나는 그가 왼손으로 옆구리를 움켜쥐고 있으며 손가락 사이로 피가 솟구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럼에도 그는 지체하지 않았다. 조너선이 필사적인 기세로 상자 한 쪽 끝을 공격하며 커다란 쿠크리 나이프로 뚜껑을 뜯어내려 하자, 그는 보위 나이프로 상자의 다른 쪽을 미친 듯이 공격했다. 두 사람의 사투 끝에 마침내 뚜껑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못이 뽑히며 날카로운 비명 같은 소리를 냈고, 상자의 덮개가 뒤로 젖혀졌다.

내가 바라보는 순간, 그 눈이 저무는 태양을 보았다. 그러자 그 눈에 서려 있던 증오의 빛이 승리감으로 바뀌었다.

그 순간, 조너선이 휘두른 커다란 칼이 번뜩이며 날아들었다. 칼날이 목을 가르고 지나가는 것을 본 나는 비명을 질렀다. 동시에 모리스 씨의 보위 나이프가 심장을 깊숙이 찔렀다.

그것은 마치 기적 같았다. 하지만 우리 눈앞에서, 거의 숨을 들이마시는 찰나의 순간에, 그 형체 전체가 먼지로 바스러지며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다.

죽음의 순간, 그 마지막 소멸의 찰나에 그의 얼굴에 평온한 빛이 감돌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평생 기쁘게 살 것이다. 결코 그런 표정이 그 얼굴에 머물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평온함 말이다.

드라큘라 성이 붉게 물든 하늘을 배경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부서진 성벽의 돌 하나하나가 저무는 태양 빛을 받아 선명한 윤곽을 그려냈다.

집시들은 우리가 죽은 자의 기이한 실종을 초래했다고 생각했는지, 아무 말도 없이 몸을 돌려 마치 목숨이라도 구하려는 듯 급히 말을 타고 떠나버렸다. 말을 타지 않은 이들은 짐수레 위로 뛰어올라, 말 탄 이들에게 자신들을 버려두고 가지 말라고 소리쳤다. 안전한 거리까지 물러나 있던 늑대들은 그들이 떠난 뒤를 따라갔고, 결국 우리만 홀로 남겨졌다.

땅에 주저앉은 모리스 씨는 옆구리를 손으로 짓누른 채 팔꿈치로 몸을 지탱하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 사이로는 여전히 피가 솟구쳐 나왔다. 성스러운 원이 더는 나를 막아서지 않았기에 나는 그에게 달려갔고, 두 의사 역시 그를 향해 급히 움직였다. 조너선이 그의 뒤에 무릎을 굽히고 앉자, 부상당한 남자는 조너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힘겹게, 피가 묻지 않은 자신의 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그는 내 얼굴에 서린 고통을 읽은 모양인지, 나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도움이 될 수 있었다니 정말 기쁠 따름입니다! 오, 신이시여!" 그가 갑자기 몸을 일으켜 앉으며 나를 가리켜 외쳤다. "이런 순간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습니다! 보세요! 보세요!"

태양은 이제 산꼭대기에 막 내려앉아 있었다. 붉은 빛줄기가 내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려, 마치 장밋빛 광채에 휩싸인 듯했다.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모두가 눈으로 쫓는 순간,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무릎을 꿇었고, 모두의 입에서 깊고 간절한 "아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죽어가는 남자가 입을 열었다.

"이제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보십시오! 저 눈이 그녀의 이마보다 더 순백색일 수는 없을 겁니다! 저주가 드디어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뼈아픈 슬픔이었으나, 그는 용기 있는 신사답게 미소를 지으며 침묵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조너선 하커의 일기]

5월 3 MAY.

런던에서 출발했다. 이제 막 헝가리 국경 근처에 도착했다. 며칠 전부터 기차를 타고 이동하며 여러 도시를 거쳤다. 여정은 꽤 길고 고단했지만, 드라큘라 백작을 만나러 간다는 기대감에 피로를 잊을 수 있었

다. 백작은 나에게 매우 친절한 편지를 보내왔고, 자신의 성에 머물며 법률 업무를 도와달라는 제안을 했다. 그 제안은 매우 매력적이었다.

오늘 오후에는 마차를 타고 트란실바니아의 산악 지대로 향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정말 장관이었다. 험준한 산맥과 깊은 계곡이 끝없이 이어졌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압박감도 느껴졌다. 산세가 너무나 험악해서 마치 거대한 괴물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마차를 모는 현지인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운전했다. 그들은 길의 굽이굽이를 아주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말도 거의 하지 않았지만, 가끔씩 나누는 대화에서 이 지역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경고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그들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저녁이 되자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다. 산속의 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갑고 어둡다. 이제 곧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다. 백작과의 만남이 나의 경력에 큰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7년 전, 우리 모두는 불길 속을 통과하는 듯한 시련을 겪었다. 하지만 그 후 우리 중 일부가 누리게 된 행복은, 우리가 견뎌낸 고통만큼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아들의 생일이 퀸시 모리스가 죽은 날과 같다는 사실은 미나와 나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다. 아들의 어머니는 용감했던 그 친구의 영혼 일부가 아이에게 깃들었다고 남몰래 믿고 있다. 아이의 이름에 담긴 여러 이름은 우리 사내들의 작

은 무리를 하나로 이어준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아이를 퀸시라고 부른다.

올해 여름, 우리는 트란실바니아로 여행을 떠났다. 그곳은 우리에게 생생하고도 끔찍한 기억이 가득한,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한 땅이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일들이 살아있는 진실이라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과거의 모든 흔적은 지워져 버렸다. 성은 황량한 폐허 위로 여전히 높게 솟아 있었다.

집에 돌아온 우리는 옛날이야기를 나누었다. 고달밍과 수어드 모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기에, 우리 모두 절망 없이 그 시절을 회상할 수 있었다. 나는 아주 오래전 우리가 돌아온 이후로 금고에 보관해 두었던 서류들을 꺼냈다. 서류를 살펴보던 우리는 한 가지 사실에 놀라고 말았다. 이 기록을 구성하는 방대한 자료 중에서, 신뢰할 만한 문서는 거의 없다는 사실이었다. 미나와 수어드, 그리고 나의 후기 일기들과 반 헬싱의 메모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온통 타자기로 친 글자들뿐이었다. 설령 우리가 원한다 해도, 이토록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증명할 자료로 이 문서들을 받아들여 달라고 누구에게도 요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반 헬싱은 아이를 무릎에 앉힌 채, 이 모든 상황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우리는 증명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믿어달라고 구걸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아이도 언젠가는 자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용감하고 기개 높은 여성인지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아이는 이미 어머니의 다정함과 지극한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어떤 이들이 그

녀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녀를 위해 그토록 대담한 일들까지 감행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조너선 하커의 일기.

5월 3일.

런던. 오늘 드디어 트란실바니아로 떠난다. 여행은 매우 즐거웠고, 이제 곧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다. 런던을 떠날 때의 그 활기찬 분위기가 아직도 생생하다. 이제 곧 트란실바니아의 고요함 속에 머물게 되겠지.

여행은 꽤나 길고 고단할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이 여정이 매우 기대된다. 드라큘라 백작을 만나러 가는 길은 무척 흥미로울 것이다. 그를 만나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내일은 기차를 타고 출발한다.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은 매우 분주하다. 짐을 챙기고,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며, 앞으로의 일정을 점검하고 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떠나는 일뿐이다.

끝

* * * * *

읽을거리가 더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 비슷한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아마도 이 책의 저자가 쓴 작품들이 더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표지 뒷면을 보시면, 세

계적인 명성을 가진 작가들의 작품 500여 권이 실린 '작가 알파벳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책을 덮기 전에 꼭 한번 살펴보십시오. 분명 갖고 싶은 책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줄곧 원해왔던 책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엄선된 목록입니다. 이 목록에 담긴 책들은 모두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둔 작품들입니다.

그로셋 앤 던랩 목록은 시중에 나온 훌륭한 소설 목록 중 단연 최고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가치의 기준이기도 하다. 이 목록을 참고하는 것은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포장지 뒷면을 보시오!

포장지가 분실될 경우를 대비하여, 출판사에 연락하면 전체 목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 * * *

J. S. 플레처의 탐정 소설집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로셋 앤 던랩의 목록을 문의하십시오.

바비칸의 비밀

합병 협회

늑대와 어린 양

초록색 잉크

제시해주신 문구 "THE KING versus WARGRAVE"는 브램 스토커의 「드라큘라」 원문에 포함된 내용이 아닙니다. 해당 문구는 다른 작품(예: 애거사 크리스티의 소설 등)의 제목이나 문구로 보입니다.

번역할 「드라큘라」의 원문 텍스트를 제공해 주시면, 설정하신 모든 규칙과 원칙에 따라 즉시 번역을 시작하겠습니다.

실종된 린스웨이트 씨

창문이 수없이 많은 방앗간

하늘의 입맞춤을 받은 언덕

미들 템플 살인 사건

레이븐스덴 코트

레이너-슬레이드 합병 건

옷핀

비밀 통로

고집 센 사내들의 계곡

G. & D.의 인기 저작권 소설 전체 목록을 무료로 요청하십시오.

그로셋 앤 던랩, 출판사, 뉴욕